Das Glasperlenspiel

헤르만 헤세 저 | 노태한 역 | 헤르만 헤세 필생의 역작이자 1946년 노벨 문화상 수상작, 헤세의 세계관의 집결체라 할 수 있는 문명비판적 미래소설이다. 학술과 정신의 부흥을 목적으로 세운 카스탈리엔이라는 유토피아를 무대로, 유리알유희 명인 요제프 크네히트의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을 전기 형식으로 담았다. 작가가 평생 고민한 대립적 가치들 사이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를 주인공의 생애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려냈다.



Das Glasperlenspiel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재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i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유리알유희》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남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노태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농협은행 301-0100-8607-7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t) 02)720-8278 (h) www.olje.or.kr (e) oljeclassics@olje.or.kr

@oljeclassics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한 벗들







역자 서문

946년 헤르만 헤세(1877~1962)에게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만년의 장 편소설 《유리알유희》는 헤세의 필생의 대작이다. 《데미안》에서 시작해 《싯다르타》 와 《황야의 늑대》, 《나르치스와 골트문트》를 거쳐 《빛의 나라를 찾아서》에 이르는 헤세의 대표적인 소설들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주제들이 한데 결집되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여러 작품들에서 사용되었던 거의 모든 서사기법들이 더욱 세 련된 형태로 새롭게 총동원된다. 소설 《유리알유희》는 헤세의 존재와 사상과 문학 의 총체적 표현이다.

헤르만 헤세의 세계사 인식에 따르면 20세기는 잡문이 범람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다. 문자 그대로 '잡문시대'이고 '전쟁세기'다. 20세기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 생활과 사회제도 내에서 정신이 제 위치를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품위를 상실하게 된 데서 비롯한다. 이와 같은 20세기적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발전적 대안으로 생겨나게 되는 유토피아적 정신왕국이 바로 '정신적인 사람들'의 활동공간으로서 '카스탈리엔'이고, 이 순수한 정신왕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적 활동과 그 성과물들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유리알유희'다. 유리알유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유리알유희명 인'이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와 크네히트의 유고〉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소설 《유리알유희》는 순진무구한 소년 요제프 크네히트가 카스탈리엔에서 유리알유희 명인이 되기까지의 영혼의 발전과정을 기록한 전기적 교양소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전기에서 시종일관 문제가 되는 것은 카스탈리엔과 유리알유희의 출발점 상황이 되는 20세기의 황폐해진 정신과 문화에 대한 비판이다. 헤세는 미래의 한 시점에 서서 20세기 잡문 문화를 회고하는 형태로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이 같은 문명비판의 관점에서 이 소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문학적 의의를 갖는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옮긴이에게 있어 '번역하다'는 '넓은 강을 건너다'였다. 돛대, 삿대, 쪽배, 다 시원 찮은 물건들로 거센 물살을 가로질러 강을 건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 쭙잖은 독일어 해독력으로, 그 어쭙잖은 독일어 지식 얻는다고 더욱 형편없이 되어 버린 우리말 구사력으로 넓고 물결 사나운 《유리알유희》라는 강을 건너기가 옮긴이에게는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 적이한두 번이 아니었다. 겁 없이 대든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어떻게 여기까지 용케 왔다. 어찔어찔하다. 돌아다보니 어떻게 건 났는가 싶게 아득하기만 하다.

국문 가독성을 고려하는 한편으로 가능한 한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려고 무진 애를 쓰긴 했으나 본의 아니게 텍스트의 본래 의미를 얼마나 비틀고 꼬고 하였을까 생각하면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두고두고 바로잡고 다듬어야 하리라마음먹는다. 이 번역이 많은 이들에게 책장 한 구석을 채우는 겉보기로 그럴 듯한책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인간 생활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자극하는 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996.4.5 노태하

작품 해설

노태한

소설 《유리알유희》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은 '3편의 전기' 중 하나인 〈기우제제사장〉으로 1934년 5월호 〈신 전망〉지를 통해서였다. 이 어 두 번째로 서장이 같은 해. 같은 잡지 12월호에 〈유리알유희—그 역사에 대한 평이한 개설의 시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글의 각주에서 헤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토피아적 성격을 갖는 작품의 서장이다. 사람들은 작 품이 서기 2400년경에 써진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작품을 구성하는 부분들 로서 현재까지 완성된 것은 두 가지, 즉 여기 이 논문과 기우제제사장에 관한 이 야기뿐인데. 기우제제사장 이야기는 〈신 전망〉 5월호에 게재되었다." 한편 헤세는 1934년 8월 4일 토마스 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수년 전부터 가슴속 에 품어온 계획에 대해. 유토피아적 성격의 작품에 대해 일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 니다. 당시 나는 작품의 서장을 벌써 세 번째로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서장은 히 틀러 시대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암시로. 또 부분적 으로는 여러 가지 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서장을 네 번째로 고쳐 썼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서장은 〈신 전망〉에 게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작품의 부분으로 지금까지 완성된 것은 〈기 우제제사장〉뿐입니다." 결국 헤세는 2400년이라는 미래의 시점에서 요제프 크네 히트의 생애를 기록하는 형식으로 소설 《유리알유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알유희》에서는 20세기 "잡문시대"와 그 대체세계인 카스탈리엔, 유리알유희 의 성립은 모두 과거의 일로 다루어진다. 작품 가운데서 헤세는 잡문시대의 시작 과 관련해 "1900년 직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그 무렵에 활동했던 교황 피우 스 15세(이것 역시 허구다)가 추기경 시절에 열렬한 유리알유희연기자였다고 말하 고 있다. 작품의 뒷부분에서 헤세는 카스탈리엔이 창설된 시기를 "이른바 1차 세 계대전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시기"로 묘사하고 있으며, 카스탈리엔이 아직 창설되

지 않았을 때 베네딕트파 교단은 이미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베네딕트파 교단은 529년에 설립되었다. 따라서 잡문시대와 유리알유희의 성립 시기는 대략 1900년에서 2000년까지의 시기가 되며, 카스탈리엔은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설정된다.

이렇게 성립한 카스탈리엔의 정신적 · 문화적 상징이 유리알유희이고 이 유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유리알유희명인인데, 여러 명인들의 뒤를 이어 명인의 직위에 오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소설 주인공 요제프 크네히트이다. 따라서 크네히트는 2000년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활동한 인물이 된다. 결국 작가 헤세는 2400년이라는 미래의 한 지점에서 크네히트의 생애를 재구성하면서 카스탈리엔과 유리알유희, 그리고 이들의 성립 모태요 배경이 되는 20세기 잡문 문화를회고하는 형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유리알유희》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대한 신랄한 패러디가 된다.

헤르만 헤세의 견해에 의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어지는 시기는 문화사적 · 정신사적으로 볼 때 "잡문시대"이고 "전쟁세기"이다. 잡문이 범람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체 인간 생활이나 사회 내에서 정신이 합당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데서, 즉 정신이 본래의 가치와 품위를 상실하고 상품화 · 저질화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잡문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 즉 진리에 대한 커다란 동경과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서 정신적인 작업과 전통적 문화 가치의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활동의 이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교육주(州) 카스탈리엔을 건설한다. 학문과 예술의 전당인 카스탈리엔은 19세기, 20세기 잡문 문화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이상적인 정신과 영혼의 왕국이다. 카스탈리엔 문화의 정수요 상징이 바로 유리알유희이다. 바로 이와 같은 내용적 연관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서장 〈유리알유희—그 역사에 대한 평이한 개설〉은 모두에 매우 암시적인 내용의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에 있어서나 분별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들보다 더쉽게, 더 무책임하게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하고 양심적인 역사가에 있어서는 그 사정이 바로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그 존재가 증명되어질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경건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물로서 취급함으로써 존재로, 탄생의 가능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될 수 있는 사물들만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만 그런 사물들만큼 더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도 없다." 카스탈리엔이나 유리알유희가 바로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그런 사물들이라는 암시다.

서장에 이어 전 12장에 걸쳐 전개되는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는 소설의 본론 부분이다. 여기서는 요제프 크네히트가 바깥세계에서 카스탈리엔으로 소명 을 받아 들어와 여러 교양과정과 여러 단계의 '수업시대'를 거쳐 마침내 유리알유 희명인에 이르는 과정과, 명인의 직위를 버리고 다시 바깥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서술된다. 이때 서술은 주인공이 접하는 외적 환경이나 사건보다는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따라서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는 영혼의 전기ㆍ발전소설ㆍ교양소설이 된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 뒤에 소설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크네히트의 유고〉가 부록 형태로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13편의 "학생시절과 연구생시절 시"와 3편의 전기는 요제프 크네히트가 학생시절과 연구생시절에 쓴 소위 예술작품들이다.

그리고 소설 《유리알유희》 전체는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럼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헤세는 1931년, 즉 《유리알 유희》에 착수하기 1년쯤 전 《빛의 나라를 찾아서》라는 비교적 짧은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에서는 정신의 고향으로서 빛의 나라를 향한, '정신적인 사람들'의 시공을 초월한 여행이 묘사되고 있다. 이 정신적인 사람들이 바로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소설 《빛의 나라를 찾아서》는 《유리알유희》의 전주곡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본 《유리알유희》의 구조를 다시 한번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헌사-모토)-서장-요제프 크네히트 전기-크네히트의 유고'로 되는데, 《유리알유희》는 결국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해세는 서장에서 논문형태의 체계적 서술로 문명사적 · 정신사적 논리를 전개하는 가운데 특히 20세기잡문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크네히트의 전기〉에서는 구체적 인물의 일대기를 여러 가지 자료에 의거하여 객관적 · 사실적으로 재구성하며, 〈유고〉들을 통해서는 주인공 자신의 고백적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관점과 기법을 통해 해세는 주인공 크네히트의 인격과 생애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획득해내고 있다. 해세가 작품 전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일종의 편집자적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유리알유희》는 1931년 시작되어 1943년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작품의 긴 성립 시기는 나치시대와 일치한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성립한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으며, 그 문제들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된다. 히틀러로 상징되는 폭력적인 억압과문화의 침체와 정신의 품위 상실과 야만과 원시의 시대("그들은 더 이상 교회로부터 아무런 위안을 받지 못하고 정신으로부터 아무런 조언도 받지 못한 채 죽음과공포와 기아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에 작가 헤세는 정신과 정신에 대한 봉사와 문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세계를 《유리알유희》 속에 우

뚝 세웠다. 헤세는 루돌프 판비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에게 문제가 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세계의 중독에 대항하여 숨 쉬며 살 수 있는 정신적인 장소 즉 피난처와 성을 쌓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야만적인 권력에 대한 정신의 저항을 표현하여 저 너머 독일에 있는 친구들의 저항과인내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유리알유희》는 정신적인 공간이고 저항의 산물인 것이다. 헤세에게 있어 이 소설은 "추악한 시대에 대항하는 철갑이며 마법의 피난처"이기도 하다. 히틀러가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뒤에서 조용히 자라온 《유리알유희》는 승리의 월계관을 쓴 채 전면으로 부상했다. 1946년 헤세는 《유리알유희》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유리알유희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최초의 답을 우리는 앞서 인용한 바 있는 '모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리알유희는 실재했거나 실재하는 유희가 아니다. 유리알유희는 존재가 증명되어질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경건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물로 취급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존재로, 탄생의 가능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될 수 있는 사물들 가운데 하나다. 유리알유희는 정신 생활의 가능성이고 플라톤적인 꿈이다. 하나의 상상물이요 이데아다. 유리알유희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한 적은 없지만 어느 때, 어느 곳에서고 상상·꿈·이상으로서 존재가 가능한,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이념이다. 헤세는 서장에서 유리알유희의 이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나름대로 그 본질과 형식과 역사를 제시하려고, 즉 어떤 실재성과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독자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려 깊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인간 정신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꿈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독자라면 그러나 서

장과 〈크네히트 전기〉를 읽는 중에 유리알유희에 대해 나름의 표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유리알유희가 《데미안》의 '아브락사스', 《싯다르타》의 '강', 《황야의 늑대》의 '불멸의 존재들'과 '마술극장',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이브의 얼굴', 《빛의 나라를 찾아서》의 '빛의 나라'와 같은 일종의 사물상징이라는 점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알유희의 개념과 관련해 작품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한 표현에 의하면 "유리알유희는 우리 문화의 전체 내용과 가치들을 가지고 하는 유희다. 인류가 창조적인 시대에 인식·고귀한 사상·예술품의 면에서이룩해 놓은 것, 다음 세대들의 학구적인 관찰이 개념화하고 지적인 소유물로 만들어 놓은 것 등 엄청난 양의 정신적 가치를 유리알유희연기자는 오르간연주자가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듯 연주"한다. 유리알유희는 "모든 시대의 사상·공식·음악·문학 등을 일종의 음표들을 통해 표현해낼 수 있는 상형문자"다. 유리알유희는 "정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총화이고 숭고한 예배이며 전체 학문의 모든 분리된 부분들의 신비로운 합일"이다.

'유리알유희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어렵고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알유희의 요람이요 무대인 카스탈리엔도 성격과 본질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카스탈리엔은 어디에 있는가? 작품에서 교육주(州)로 불리고 있는 카스탈리엔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없다. 독일이나 스위스(헤세는 1924년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고 《유리알유희》는 스위스 테신주(州)의 몬타뇰라에서 씌어졌다)의 한 주, 아니면 범위를 더 넓혀 유럽 어느 나라의 한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잡문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래 언젠가에 생겨나게 될 정신과 학예의 공간이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작품 가운데서 카스탈리엔이 '세계' 또는 '바깥세계'라고 불리는 삶의 공간과 대비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카스탈리엔이 계속 교육주로 지칭 되고 그 문화의 정수가 정신적 유희로서 유리알유희라는 사실에서 짐작되는 것이지만 카스탈리엔은 정치와 현실 생활과 역사와자연이 있는 삶의 공간, 즉 바깥세계의 대안세계다. 《유리알유희》 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상황이 바로 '카스탈리엔 대 바깥세계'의 대립구조이다. 《유리알유희》에서 서사는 명상적 생활과 실천적 생활의 대립이라는 기본 축 위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립은 대립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립이 대립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작가 헤세의 근본사상이다. 그에게는 두 세계의 변증법적 지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의 사명은 대립되는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우선은 대립을 대립으로서 인식하지만 다음에는 바로 대립을 한 통일체의 양극으로 인식해야 한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에서는 바깥세계에서 카스탈리엔으로, 카스탈리엔에서 다시 바깥세계로 이어지는 크네히트의 삶의 기록이 문제가 된다. 물론 크네히트의 생애의 대부분은 카스탈리엔에서 전개된다. 카스탈리엔 문화의 핵심적 표현이자 상징은 유리알유희이다. 이 유희와 관련되는 모든 일을 관장하며 그 자신 최고의 유리알유희연기자가 되는 존재가 바로 유리알유희명인이다. 〈유희명인요제프 크네히트 전기〉는 바깥세계에서 넘어온 크네히트가 카스탈리엔 문화를 상징하는 존재인 유리알유희명인의 직에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 직위를 버리고 '바깥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린 전기이다. 크네히트는 왜 다시 카스탈리엔을 떠나는가? 정신 생활의 최고의 경지에까지 이른 크네히트는 무엇 때문에 정신의 왕국 카스탈리엔을 떠나는가?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상의 역사와 현상이 되어 버린 한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러의 시구대로 '아름다운 것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도로 계발된 정신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현

실적인 역사세계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나 자극을 부여받지 않고 자체 목적적인 것으로 전략해 버리면 창조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깊이 자각하게 된 정신이라 하더라도 자신만을 관조하고 생각한다면, 어떤 활동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양은 살아 발전하는 각인된 형식이고 참된 교양의 본질적인 운명은 끊임없이 생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리알유희명인 크네히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원래 유리알유희명인은 아주 단순히 학교선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카스탈리엔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카스탈리엔의 소중한 재산들이 점점 더 많이 노후 되고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학교선생들을, 훌륭하고 용감한 선생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할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선생들을, 젊은이들에게 이해와 판단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과 정신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와 말에의 봉사에 있어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크네히트는 바깥세계에 있는 친구 플리니오의 아들 티토를 가르치기 위해 카스탈리엔을 떠난다.

카스탈리엔에서 바깥세계로 넘어온 크네히트는 그러나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 티토를 만난 다음 날 새벽에 차디찬 산간 호수에서 익사하고 만다. 헤세는 왜 이렇 게 빨리 크네히트를 죽이는가? 크네히트의 바깥세계에서의 새로운 활동에 큰 기 대를 걸고 있는 독자들을 왜 당황하게 만드는가? 크네히트의 갑작스런 죽음을 어 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의 죽음은 좌절이고 우연이고 실패인가? 아니면 무슨 초월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가?

《유리알유희》에 대한 일반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관심은 특히 소설의 결미, 즉 주 인공 크네히트의 죽음에로 집중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의 평가였다. 몇몇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반응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평가들 이 "소름끼칠 정도로 편협하고 우둔한" 것이었기 때문에 헤세는 "그것(《유리알유 희》)을 그냥 혼자 지니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헤세 는 "소설의 결말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대한 저항"을 뼈저리게 느 끼게 된 것이었다. 비평가 에어하르트는 그런 부정적 견해들을 이렇게 요약 · 정리 하고 있다. "크네히트의 죽음은 이 책에서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의문 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크네히트가 자신의 삶에 더 이상 대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 여 준다. 크네히트는 자기절망이라고 하는 죽음 균 때문에 죽었다. 크네히트의 죽 음은 체념을 의미하며, 수수께끼이고 오류이고 좌절이다. 이 죽음에는 너무도 많 은 우연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 소설에는 궁극적인 대답이 결여되어 있다."에어 하르트는 이런 부정적 판단에 동원되고 있는 용어들이 매우 유사한 것에 놀라워하 면서 이 같은 평가들은 작품 자체를 면밀하게 읽고 분석한 것에 근거한 것이기보 다는 전문가들의 여론에서 비롯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한다. 에어하르트는 이어 결 론적으로 크네히트의 죽음이 그의 삶을 "우연하게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 앞의 막들과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삶의 과정 과 잘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헤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에어하르트의 해석은 그 의 소설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원칙적으로 에어하르트의 긍 정적 해석의 관점에서 크네히트의 죽음을 다각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유리 알유희》 전체의 유기적 구성과 작가 헤세의 변증법적 사고와 서술방식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의 서두 부분 〈소명〉에서 이미 크네히트 전기 작가는 크네히트의 죽음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미 여기서 전기 작가는 크네히트의 출신과 유래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와 관련해 최초의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크네히트의 출생과 유래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

가지로 우리는 그의 최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최후가 우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 알려져 있는 한에 있어 크네히트의 생애는 명확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있다. 그의 최후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함에 있어 우리가 기꺼이 전설에 의존하고 그 전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전설이 전하는 바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단계로서 앞서의 여러 단계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의 중간 부분에도 크네히트의 죽음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선취되어 있다. "이 최후는 결코 우연이거나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완전히 앞뒤가 맞는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이 최후가 그 훌륭한 인물의 찬란하고도 찬탄할 만한 여러 가지 업적이나 성공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 또한 우리 과업의 일부가 된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의 첫머리와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결합시키고 있는 만남의 동기(노(老)음악명인과 크네히트, 크네히트와 티토), 크네히트의 삶의 과정과 사유방식을 특징짓는 단계와 각성의 동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전기 작성의 동기 등도 크네히트의 죽음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 의미를 암시해 준다. 노(老)음악명인과 크네히트, 크네히트와 티토의 만남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외형적 만남이 아니라 두 세계, 두 세대의 대변자로서의 정신의 만남이며, 나아가 이 전기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자연과 정신·혼돈과 질서·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우주의 순환원리와 두 세대 사이의 정신적 결합과 계속성을 암시한다. 또주인공 크네히트는 시〈단계〉에서 자신이 언제나 이별과 출발의 각오를 새롭게 하며 한 곳에 머무르는 법이 없이 생명의 부름에 따라 차례로 공간들을 통과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넓히고 끌어올리려 노력했다고 읊고 있다.〈전설〉의 장에서 마치시도 동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는〈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

의 결말부분, 즉 크네히트의 죽음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유리알유희》 전체를 이해 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시적 주체로서 크네히트는 "죽음의 순 간까지도 우리를 새로운 공간을 향해 힘차게 보내줄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꽃은 시들고 모든 청춘은
노년에 밀려나듯이, 모든 삶의 단계,
모든 지혜, 모든 도덕도
제 때에 피어날 뿐 영원히 계속될 순 없다.
생명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마음은
이별과 새 출발의 준비를 해
용감하게, 서러워하지 않고
다르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시작엔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사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는 한 공간 한 공간을 명랑하게 통과해야 하며, 어느 공간에서도 고향처럼 매달려선 안 된다. 세계정신은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려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며 넓히려 한다. 어떤 생활 환경에 뿌리 내려 정들이고 눌러 살면 바로 무기력이 위협처럼 다가온다. 출발과 여행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이 습관의 마비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새로운 공간을 향해 힘차게 보내줄지 모른다. 우리를 향한 생명의 부름은 결코 끝이 없으리라… 그러니 자아, 마음이여, 이별하여 건강해라!

뿐만 아니라 크네히트가 쓴 〈3편의 전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운동하며 전개되는 인간정신의 연속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 암시되는 정신의 순환·초월·전통과 문화의 전수·교육과 도덕·결코 머무는 법이 없는 인간 정신에 대한 봉사 등의 문제들이 〈3편의 전기〉의 공통된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세는 《유리알유희》에서 전통과 정신 일반의 연속성에 대한 이념과 정신적 인도의 문제를 중요한 테마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주제와 관련지어 보더라도 크네히트의 죽음은 결코 좌절이나 체념 또는 오류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해세가 크네히트의 죽음을 묘사하는 데 설정한 시간적 · 공간적 배경과 그 배경의 설명에 동원되고 있는 언어의 상징적인 용법에서도 크네히트의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짐작해볼 수 있다. 해세는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배경으로 하는 차가운 산간 호수를 죽음의 무대로 설정하고 있는데 해세에게 있어 아침과 차가움은 각성과 새 출발을 의미하며, 물은 영원한 변화와 불멸성, 대립을 지양한 삶의 전체성에 대한 상징이다.

크네히트의 죽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죽음을 티토와 관련지을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크네히트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티토의 요구에 따라서 수영을 하며, 따라서 그의 행위는 철저하게 티토와 연관되어 있다. 그의 죽음 역시 티토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크네히트의 죽음은 두 인물 모두

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작가도 이 점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헤세는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를 크네히트의 죽음을 목도한후 이 죽음과 자신의 앞으로의 삶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면서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소년 티토의 심경을 묘사하는 것으로써 끝맺고 있는데 소설의 이 마지막 대목만큼 크네히트의 죽음의 의미를 잘 나타내 주는 것도 달리 없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그(티토)는 전율하며 생각했다. 지킬자존심이나 내보일 저항적 태도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그는 경악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미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온갖 이의에도 불구하고 명인의 죽음에는 자신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이런 죄책감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또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적이 있었던 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리라는 예감이 신성한 전율과 함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해세는 이처럼 《유리알유희》의 끝부분에서 크네히트의 죽음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완곡하면서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았지만 《유리알유희》를 발표한 이후 해세는 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항의성 문의편지를 받았다. 그런 편지들에 대한 답신에서 해세는 크네히트의 죽음에 대한 자기자신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편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개 인용해 보기로 한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죽음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의 죽음입니다. 어린 티토는 그것을 통해 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보다 더 깊이 감동을 받고 또 평생 동안 더 깊이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크네히트의 죽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해석은 그가 용감하 고도 즐거운 기분으로 완수한 희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 고 있는 것처럼 그도 그것을 통해서 그 젊은이에 대한 교육활동을 중단한 것이 아 니라 완수한 것이었습니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죽음은 희생의. 그것도 무위로 끝나지 않은 희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원숙한 경지에 이른 크네히트는 명랑하고 용감한 기분으로 자신에게 더 이상 어떠한 발전가능성도 허용해 주지 않는 한 세 계를 떠나는 것이며, 스스로를 돌봄이 없이 다른 세계의 부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의 죽음에서 수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편지들에서 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헤세 자신은 크네히트의 죽음을 희생의 죽음 으로 이해한다. 삶의 각 단계에서 스스로에게 부과되는 사명을 정신에 대한 봉사 로 수행해 온 철저한 카스탈리엔 사람으로서, 그러면서도 데시뇨리나 야코부스 신 부를 통해 바깥세계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서 두 세계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확 대된 정신을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클라이스트적인 의미의 무한 의식을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 크네히트는 그런 정신과 의식의 전수와 발전을 위해 바깥세계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세대를 위한 봉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크네히트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 티토 와 함께 수영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서 비롯하는 고결한 행위이며, 이때 그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희생과 봉사 이념의 최고 표현이다. 이런 점에서 크네히트의 죽음은 결코 실패나 좌절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용감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완수한 희생이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헤르만 헤세 소설 일반이 갖는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헤세는 1932년 쓴 〈신학소론〉에서 "인간형성 의 3단계"에 관해 논하고 있는데, 이 글은 《데미안》에서부터 《유리알유희》에 이르 는 소설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 헤세에 따르면 인간형성의 길은 죄나 더러움을 모르고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순진무구한 상태. 즉 어린이나 낙원의 상태에서 시작한다. 인간형성의 제2단계는 죄악으로 더럽혀 지고 선악을 인식하게 되는 단계로서 도덕규범과 문화가 제기하는 제반 요구를 따 라야 하고 필경에는 도덕의 실현이나 완전한 봉사, 정의와 선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단계이다. 마지막 제3단계 는 구원의 단계, 즉 신앙의 단계이다. 이를 크네히트의 삶의 과정에 적용해 보면, 그가 음악명인에 의해 카스탈리엔으로 소명을 받을 때의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 태는 제1단계가 되고, 카스탈리엔에서 여러 단계의 교양과정을 거치는 한편 데시 뇨리나 야코부스 신부를 통해 외부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내부에서 자연과 정신 사이의 갈등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고뇌와 절망에 빠져드는 상태는 제 2단계에 해당한다. 이런 고뇌와 절망의 단계를 "진지하게 완전히 분화된 개체로 서" 철저하게 거친 후 두 세계 모두를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에 도 달하여 소년 티토를 가르치러 찾아가는 크네히트는 구원과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형성의 3단계 중에서 헤세로 하여금 특히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제2단계다. 소설가로서 헤세가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개체와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갈등과 또 그것을 통한 개체의 인격적 발전인데 이와 같은 갈등과 발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제2단계이기 때문이다. 제1단계가 정적이고 목가적인상태를, 제2단계가 발전적이고 역동적인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3의단계는 새로운 변화와 전개의 가능성을 지닌 상징적인 단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카스탈리엔을 떠나 바깥세계로 넘어온 크네히트의 행로를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소설가로서 헤세에게 별로 흥미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르며,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신과 자연, 이상과 현실이 조화를 이룬 통일된 모습을 꿈이나 소망으로 암시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어느 작가에게 있어서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헤세 소설들은 대개 궁극적 해결이 결여된 개방적 결말을 갖는데, 크네히트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유리알유희》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크네히트의 죽음은 헤세의 인생과 창작을 지배하고 있는 변증법적 사유방식과 서술방식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죽음은 《유리알유희》에 비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역사적 현실세계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정신문화도, 진정한 정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현실도 상상해보기 어렵지만 삶의 두 영역이 통일된 조화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은 주인공 크네히트에게 있어서나 작가 헤세에게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크네히트의 죽음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크네히트의 죽음은 그 본질상 미와 진리와 정신을 추구하는 예술가인 크네히트가 실천적 삶과 자연과 현실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게 된후 두 세계를 결합시키려고 시도할 때 직면하게 되는 한계 앞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실존적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설의 결말은 결코 비관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스승 크네히트의 죽음은 제자 티토의 자각으로 이어지고 또 이런 자각은 티토가 보다 완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고 보다 완전한 생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크네히트의 죽음은 티토의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의 우연한 종결이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초월로서 실현이자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크네히트의 죽음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희생과 봉 사의 실현에 있다. 자신보다 더욱 고귀해 보이는 사람이 "용감하면서도 즐거운" 기분으로 실천해 보인 희생의 죽음은 일생 동안 티토에게는 경고와 가르침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은 티토뿐만 아니라 독자들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 도록 남아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각성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작가 헤세는 크 네히트의 돌연한 죽음에 실망한 한 독자가 보낸 편지에 답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그것(크네히트의 죽음)은 티토의 마음속에 그렇게 했듯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 의 가시를, 더 이상 결코 완전히 잊힐 수 없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적 동경과 정신적 양심을 일깨우거나 강화시켜 주었던 것인데, 이런 동경과 양심은 당신이 나의 책과 당신의 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때 가 오더라도 계속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유리알유희》의 결말은 자기절 망이니 좌절이니 오류니 궁극적인 해결책의 결여니 하는 말들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다. 크네히트의 죽음에서 오로지 우연적인 요소만을 발견하고 그것이 진실로 상징하는 것, 즉 새롭고 승화된 삶의 단계로의 비상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만이, 그것을 작품 전체와의 유기적 관련성에서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헤세 의 소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그의 특색 있는 인간관과 그의 변증법적 사 유방식 및 서술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만이 아마도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들로 크네히트의 죽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요제프 크네히트의 죽음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헤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읽 은 내용을 진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 람인지도 모른다.

역자 서문	
작품 해설	7
유리알유희–그 역사에 대한 평이한 개설의 시도	······28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	
소명	
발트첼	
연구시대	······128
두종단	163
사명	195
유리알유희명인	225
재임 ····	255
양극	
대화	315
준비	
회람	
전설 ·····	
	400
요제프 크네히트의 유고 ····	
학생 시절과 연구생 시절의 시	
세 편의 전기	
기우제제사장	
고해 신부	
인도식 전기	571

Das Glasperlenspiel

Versuch einer Lebensbeschreibung des Magister Ludi Josef Knecht samt Knechts hinterlassenen Schriften

유리알유희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傳記)와 크네히트의 유고(遺稿)

유리알유희

그 역사에 대한 평이한 개설

··· non entia enim liect quodammodo levibusque hominibus faciliusatque incu—riosius verbis reddere quam entia, verumtamen pio diligentique rerum scriptori plane aliter res se habet, nihil tantum repugnat ne verbis illustretur, at nihil adeo necsse est ante hominum oculos proponere ut certas quasdam res, quas esse neque demonstrari neque probari potest, quae contra eo ipso, quod pii diligentesque viri illas quasi ut entia tractant, enti nascendique facultati paululum appropinquant,

ALBERTUS SECUNDUS

tract, de cristall, spirit, ed, Clangor et Collof, lib, I, cap, 28,

요제프 크네히트의 번역 초고:

… 어떤 관점에 있어서나 분별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이 존재하는 사물들보다 더 쉽게, 더 무책임하게 말로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하고 양심적인 역사가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정 반대다. 그 존재가 증명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지만 경건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물로서 취급함으로써 존재로, 탄생의 가능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될 수 있는 사물들만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없지만 그런 사물들만큼 더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도 없다.

알베르투스 세쿤두스

클랑코르와 콜로프 편: 정신의 결정에 관한 논문, 제1권, 제28장,



유리알유희-그 역사에 대한 평이한 개설의 시도

유리알유희-그 역사에 대한 평이한 개설의 시도

유리알유희 관련 기록들에서 유희명인 요제푸스 3세로 일컬어지고 있는 요제프 크네히트에 관한 전기적인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몇몇 가지를 이 책에다 기록해 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우리는 이런 시도가 현재 지배하고 있는 정신 생활의 법칙이나 관습과 어느 정도 모순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개인적인 것을 소멸시키고 개인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교육국과 제 학문의 계층조직에 편입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정신 생활의 최고 원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리는 또한 오랜 전통 속에서 너무도 광범위하게 실현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계층조직에 훌륭하게 봉사한 개인들에 관한 전기적ㆍ심리적 세부사항들을 찾아내기란 오늘날에 있어서는 대단히어려운 일이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개인들의 이름조차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다. 우리 주(州)의 계층조직이 익명성을 이상으로 삼고 있고, 또 이 이상의 실현에 매우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의 정신 생활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희명인 요제푸스 3세의 생애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그의 인격의 윤곽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려는 우리의 시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은 개인을 숭배하기 위해서거나 우리가 믿고 있는 관습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오로지 진리와 학문에 봉사한다는 의도에서였다.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한 명제를 더 날카롭고 엄격하게 표현하면 할수록 이 명제는 더욱더 강력하게 반대명제를 불러내게 된다. 우리는 우리 관청이나 정신 생활의 익명성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상을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러나 바로 이 정신 생활의 이전 역사, 특히 유리알유희의 발전과정을 한 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 발전과정의 모든 단계와 모든 확장과 모든 변화, 진보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든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든 모든 중요한 계기는 비록 단 한 사람의 진정한 주동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단계와 계기와 변화의 가장 진정한 면목은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키고 개조와 완성에 기여한 인물의 인격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의 전기 작가나 역사가들 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들, 특히 전기적인 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전 시대 작가들은 인격의 본질적인 면을 변칙적인 것이나 파격적 인 것 또는 일회적인 것, 때로는 심지어 아주 병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 럼 보인다. 오늘날의 우리는 그러나 모든 독창성이나 특이성을 넘어 자신을 가능 한 한 완전하게 일반적인 것에 편입시키고 또 가능한 한 완전하게 초개인적인 것 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중요한 인격에 관해 논하게 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고대 세계도 이 같은 이상적인 인격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 어 고대 중국 사상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자' 또는 '군자'의 모습이나 소크라 테스 도덕론의 이상은 오늘날 우리의 이상과 거의 다를 바가 없고, 전성기의 로마 교회와 같은 많은 위대한 정신적 조직은 우리와 비슷한 이상과 워칙들을 구현하고 있었으며, 로마 교회가 낳은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몇몇은, 예컨대 토마스 폰 아 퀴나스 같은 인물은 초기 그리스 시대의 조각품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개인 으로서보다는 오히려 인격 유형의 모범적인 대표자로서 여겨지고 있다. 어쨌든 이 오래되고 진정한 인격적 이상은 20세기에 시작되고 오늘날의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는 정신 생활의 일대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 시대에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예를 들어 그 시대의 전기들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몇 명의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고. 유년기로부터의 해방 · 사춘기 ·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 ·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이 그에게 어떤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는가 하는 등이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에 우리는 매우 놀라지 않 을 수가 없다. 오늘날의 우리는 주인공의 병적인 심리상태나 가정의 역사 · 본능적 생활 · 소화나 수면 같은 것에 대해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않는다. 주인공의 정신 적 과거, 즐겨하는 연구, 독서를 통한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특별히 중 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향취나 가치를 이루는 강력하면서도 신선하고 놀랄 만한 충동이 사라져 버리게 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개성을 그 계층조직상의 기능 속에서 거의 완전하게 발휘시킬 수 있는 능력을 천부적으로나 교육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람만이 주인공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끌수 있는 존재다. 개인과 계층조직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될 경우 우리는 바로 이 갈등을 인격의 위대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삼는다.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정열에 이끌려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역자들에 동조하지 않는 만큼 희생자들, 즉진정으로 비극적인 인물들에 대한 추억도 그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 경우, 즉 진정으로 비극적인 인물들 · 진실로 모범적인 인물들의 경우 그 인품과 이름과 얼굴 생김새와 행동에 대해 우리가 흥미를 갖는 것은 우리 생각에 허용되는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전한 계층조직이라 하더라도, 또 아무리 마찰 없이 작동하고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것은 결코 그 자체 아무래도 좋은 활기 없는 부분들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조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지고 또 그 하나하나가 제 나름의 방식과 자유를 가지면서 생의 기적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들로부터 생기를 부여받고 있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유리알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의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들, 특히 요제프 크네히트 자신이쓴 모든 자료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결과 실제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몇몇 자필 원고들을 입수할 수 있었다.

우리가 크네히트의 인물됨이나 생애와 관련해 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종단 단원들, 특히 유리알유희연기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책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들을 넘어 또한 이해심 많은 독자들을 기대하고 있다

방금 언급한 그 좁은 범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이 책은 결코 개설이나 주석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인공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설명을 종단 밖의 사람들도 읽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별다른 예비지식이 없는 그 독자들을 위해 유리알유희의 의미와 역사에 관한 간략하고도 이해하

기 쉬운 개설을 이 책의 서두에 내세워야 하는 다소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설이 이해하기 쉬운 것임을, 쉬운 것이고자 함을, 그럼으로써 유희 및 그 역사와 관련해 종단 자체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해명한다고 결코 주장하지 않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때가 아직 한참 이른 것이다.

독자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유리알유희의 완전한 역사나 이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진 전기 작가라 하더라도 오늘 날 유리알유희의 완전한 역사나 이론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작업은 후세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인데, 물론 그 전에 그와 관련되는 자료들이나 그런 작업을 위한 정신적 전제조건들이 사라져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글을 유리알유희 교본으로 삼을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런 교본은 장차에도 결코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다. 유희 중의 유희라 할 수 있는 유리알유희의 규칙을 배우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는,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유리알유희에 정통한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장차 유희 규칙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유리알유희 규칙, 즉 유희의 기호와 문법은 일종의 고도로 발달한 신비스러운 언어인데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학문과 예술, 특히 수학과 음악(또는 음악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 신비스러운 언어는 거의 모든 학문의 내용들과 결과들을 표현할수 있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유리알유희는 우리 문화의 전체 내용과 가치들을 가지고서 하는 유희다. 유리알유희는 예를 들어 미술 전성시대에 한 화가가 자신의 팔레트 위의 색깔들을 다루었듯이 우리 문화의 내용과 가치들을 다룬다. 인류가 창조적인 시대에 이룩해 놓은 인식들과 고귀한 사상들과 예술품들, 그 뒤를 이은 시대들의 학구적인 관찰이 개념화하고 지적인 소유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엄청난 양의 정신적 가치들을 유리알유희연기자는 마치 파이프오르간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듯 연주하는 것이다. 유리알유희라는 파이프오르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그 건반과 페달은 정신적 우주 전체를 남김없이 탐색

하며 그 음전은 거의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악기로 하는 연주를 통해서는 정신적 세계의 전체 내용이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유리알유희라는 파이프오르간의 건반과 페달과 음전은 고정되어 있다. 때문에 그 수나 순서를 변경시켜서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상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이다.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유희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일은 유희 최고지도부를 통해 엄격하기 짝이 없는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희의 확립된 조직 내에서, 우리의 비유를 계속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 거대한 파이프오르간의 복잡한 메커니즘 내에서 개별 유리알유희연기자는 무한한 가능성과 결합방식을 구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행해진 수천 개의 유희 가운데 단두개의 유희도 외형적인 면 이상으로 서로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혹시 두 명의 유리알유희연기자가 우연히 아주 똑같은 몇 개의 테마를자신들의 유희 내용으로 삼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두 유희는 유희연기자들의사고방식과 성격ㆍ기분ㆍ숙련도에 따라 각각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유리알유희의 시초와 그 전사(前史)를 어디로부터 비롯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전적으로 역사가의 마음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유리알유희는 사실 모든 위대한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시초라는 것을 갖지 않으며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리알유희가 이미 몇몇 옛 시대에,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나 후기 고대문화에서, 헬레니즘 시대의 심령주의자들에서, 또는 이에 못지않게 고대 중국 사상가들에서, 아라비아 무어 사람들의 정신 생활의 절정기에서 어떤 이념이나 예감의 형태로, 또 어떤 이상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리알유희 과거 역사의 이 같은 궤적은 스콜라철학과 인문주의를 지나 17, 18세기의 수학자 아카데미로, 다시 노발리스의 낭만주의 철학과 마술적인 꿈의 신비스러운 문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학문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정신적인 운동, 모든 플라톤적 아카데미, 모든 정신적 엘리트들의 결사, 구체적인 학문과 보다 자유스러운 학문을 접근시키려는 모든 시도, 학문과 예술 또는 학문과 종교를 조화시키려는 모든 노력에는 유리알

유희에서 분명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던 바로 그 동일한 이념이 바탕을 이루고 있 었다. 아벨라르. 라이프니츠, 헤겔 같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엄밀한 체계를 세워 전체 정신세계를 파악하고 정신적인 것과 예술의 생기 넘치는 아름다움과 구 체적인 제 학문이 갖는 신비스러운 표현력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 다. 음악과 수학이 거의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 시대에는 이 두 부문 사이에 자주 교류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보다 2백 년 앞서는 니콜라우스 폰 쿠 자누스한테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 주는 문장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신은 모든 시물을 가능성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스스로를 가능성에 따라 형성한다. 정신은 신이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물을 통일성과 단순성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스스로를 절대적 필연성에 따라 형성한 다. 뿐만 아니라 정신은 모든 사물을 독자성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스스로를 결 합의 필연성에 따라 형성한다. 또 정신은 모든 사물을 존재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 해 스스로를 결정적 가능성에 따라 형성한다. 나아가 정신은 그것이 수와 기하학 적 도형을 이용하고 또 비유로서의 그것들과 관계를 맺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징적으로도, 즉 비유를 통해서도 사물을 다룬다." 그러나 단순히 쿠자누스의 이 한 가지 생각만이 우리의 유리알유희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며, 이 한 가지 생각만이 사상적 유희로서의 유리알유희와 비슷한 방향의 상상력에서 비롯하거나 그런 방향의 상상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쿠자누스에게서는 유리 알유희를 연상케 하는 비슷한 점들을 그밖에도 더러, 아니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 는 것이다. 수학에 대한 쿠자누스의 각별한 애정, 유클리드 기하학의 도형과 공리 를 설득력 있는 비유로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에 적용시키는 그의 능력과 관 심은 유리알유희의 정신과 매우 닮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쿠자누스가 라틴어 를 구사하는 방법(그는 가끔 자유스럽게 라틴어 단어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데. 라틴어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이를 오해할 염려는 없다)도 때로 유리알유희에 서 사용되는 언어의 자유스러운 유연성을 연상시킨다.

이 개설의 서두에 있는 모토가 이미 잘 보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알베르투스 세쿤 두스도 유리알유희의 조상들 가운데 누구 못지않은 한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우

리가 인용문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수학적인 사색을 음악 작곡의 바탕으로 삼았던 16, 17세기, 18세기의 학식 있는 음악가들도 유리알유희의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던 것이라고 짐작한다. 우리가 고문헌들 이곳저곳에서 찾아볼수 있는 지혜롭고도 신비스러운 유희들은 학자들이나 승려들에 의해서 또는 정신적인 것을 장려하는 궁정에서 고안되어 행해진 것이었다. 장기놀이 같은 것을 예로 들수 있는데 이 놀이에 사용되는 말이나 판은 보통의 평범한 의미 외에 또 그나름의 신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단순히 예술적이기만 한 모든 것을 단연뛰어 넘는 음악이 개인과 민족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인간과 인간이 세운 국가의 비밀스런 지배자 또는 법률서로 여기는, 모든 문화의 초창기에서 유래하는 기록들이나 민단·전설들도 아주 많이 알려지고 있다.음악의 주도 하에 영위되는 이상적이고도 숭고한 인간 생활에 관한 관념은 태고의중국에서부터 그리스인들의 전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알유희도 음악에 대한 이 같은 숭배("노래의 신비스러운 힘은 끊임없는 변용을 통해 여기 지상의 우리를 맞이한다."—노발리스)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유리알유희의 이념을 영원한 것으로, 즉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언제나 존재했던 것으로 현재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으로서의 유리알유희의 실현은 그 나름대로의 일정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우리는 유리알유희 역사의 몇몇중요한 단계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종단의 설립과 유리알유희를 결실로서 남기게 되었던 그 정신운동은 문학사가 플리니우스 치겐할스의 근본적인 연구가 있고 난 뒤부터 그가 만들어낸 '문예란 시대'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역사상의 한 시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명칭은 적절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험하며, 과거 인간 생활의 한 상태를 부당하게 고찰하게 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사실 그 '문예란' 시대도 결코 정신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또 사실 정신적인 면에 있어 결코 빈곤하지

도 않았다. 그러나 치겐할스에 따르면 이 시대는 정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별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니, 그 시대는 인생과 국가의 전체체제 내에서 정신에다 그것에 합당한 위상이나 기능을 부여해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정신 생활의 두드러진 특징을이루는 거의 모든 것이 그 시대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그리 잘 알고 있지 않다. 치겐할스에 따르면 그 시대는 상당한 정도로 '시민적'인 시대였으며 또 개인주의를 널리 숭상하는 시대였다. 이제 우리는 그 시대의분위기를 암시하기 위해 치겐할스의 주장에 따라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즉 그런 특징들이 결코 꾸며내어졌거나아니면 상당한 정도로 과장되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있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들은 그 훌륭한 연구자에 의해 수없이 많은 문헌이나 기타 기록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문예란' 시대를 진지하게 연구했던 그 학자의 주장에 동조하며, 이와 동시에 우리는 이전 시대의 오류나 폐습에 대해 코를 씰룩이며 조롱하는 것은 경망스럽고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유럽에서의 정신 생활의 발전과정은 중세 말부터 두 가지의 큰 경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편에서는 사유와 신앙을 모든 권위적인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노력, 즉 스스로를 성숙된 주체로 자각하는 이성의 로마교회의 지배에 대한투쟁이 있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성의 그와 같은 자유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노력과 이성 그 자체에서 유래하며 이성 그 자체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권위를 찾고자 하는 은밀하면서도 정열적인 노력이 있었다. 이를 우리는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신은 원칙상 서로 모순되는 두 목표를 위한, 때로 놀라울 정도로 모순에 찬 그 투쟁에서 승리했던 것이다. 그 같은 승리가 수없이 많은 희생을 보상해 주는 것인지, 오늘날의 우리 정신 생활의 질서가이단자 재판이나 화형 장작더미에서 시작하여 광기나 자살로 생을 마친 그 많은 '천재들'의 운명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고통이나 발작, 병적 상태를 의미 있는 희생으로 여길 수 있게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것이며 또 그렇게 오래 지속할 수 있

을 것인지 하는 물음은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그것이 좋았던 것인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게 차라리 더 나은 것이었던지, 우리가 그 역사의 '의미'를 인정하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신의 '자유'를 위한 예의 그 투쟁도 사실 이와 같이 일어났던 것이며, 다름 아니라 후의 그 문예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신이 교회의 감독을 완전히 극복하고 또 국가의 감독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어 그 스스로 창안해내고 또 존중하는 진정한 법칙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진정하고도 새로운 권위나 합법성은 아직찾아내지 못했던 까닭에, 정신이 사실 그 스스로 더 이상 감당해낼 수 없는 엄청난자유를 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치겐할스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의 품품위 상실과 상업성 그리고 자기 포기의 예는 어느 면에서보면 실로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 시대를 '문예란 시대'로 부르게 하고 있는 그 작품들. 즉 '문예물' 에 대해 명백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작품들은 일간신문의 내용 가운데 아주 인기 있는 한 부분으로서 수백만 편씩 생 산되어 교양을 갈망하는 독자들의 주영양분이 되었으며, 수천 가지 지식의 대상 에 대해 보고했던 것으로. 아니 그보다는 차라리 '되지도 않는 잡소리들을 늘어놓 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문예물 창작자 가운데 좀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 고 있는 일을 가끔 웃음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치겐할스 는 그와 같은 작품들을 수없이 접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그 작품들을 그 것들을 창작한 사람들의 자기 조롱으로서 해석하려 한다. 왜냐하면 그 작품들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업적으로 생산된 그 기사들 속에 여러 가지의 풍자나 자기 조소가 제시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풍자나 자기 조소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먼저 열쇠가 발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아마도 가 능한 일일 것이다. 쓰레기 같은 글을 써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각종 신문들의 편 집인들이었고 또 일부는 '자유' 문필가들이었는데, 그들은 가끔 심지어 작가로까지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또 아주 많은 사람은 학자 계급에 속했던 것으 로, 아니 명망 있는 대학교수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글들이 즐겨 다루는 내 용은 유명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의 생애에서 취재한 일화와 그들 사이의 서신 교 류였다. 그런 글들은 예를 들어〈프리드리히 니체와 1870년 전후 여성들의 유행〉 이나 〈작곡가 로시니가 좋아한 음식〉, 〈유명한 기생의 생활에서 애완견이 하는 역 할〉 등의 제목으로 되어 있었다. 나아가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화제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예를 들어 〈수세기 동안 계속된 연금술에 대한 꿈〉이나 〈화 학적 · 물리적으로 날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수백 가지 문 제들을 좋아했다. 치겐할스가 열거해 보이는 이런 잡설의 제목을 읽게 될 때, 우 리는 그런 것을 매일 매일의 읽을거리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서 보다는 오히려 명성도 있고 지위도 있으며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작가들이 아무 런 가치도 없는 흥밋거리의 대량소비에 '시녀노릇 하는'—이 표현만큼 그 사정을 특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은 없을 것이다. — 것을 도왔다는 사실에 대해 더 의아 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시녀노릇 하다'라는 표현은 나아가 또 당시 사람들의 기계 에 대한 관계를 특징적으로 보여 준다. 때때로 일상 생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저 명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대단히 유행했는데, 그 같은 의견조사에 대해 치겐할스는 특별히 한 장(章)을 할애하고 있다. 그런 의견조사에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명한 화학자나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인기배우 · 무용 가ㆍ체조선수ㆍ비행사 또는 작가로 하여금 독신 생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경제 위기의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 등 자신의 견해를 밝히게 했다. 그렇게 함에 있어 서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널리 알려져 있는 한 이름과 당시의 매우 현실적인 한 문제를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들은 치겐할스가 이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는, 때로 놀랍기까지 한 많은 예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그는 수백 개의 예를 제 시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모든 왕성한 활동에는 상당한 정도의 풍자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그것은 심지어 숙명적인 풍자 요 절망적인 풍자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파고들어 이해하기란 매 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당시 독서하기를 매우 즐겼던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사 람들은 그 모든 기괴한 사실들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호의적이며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유명한 그림의 소장자가 바뀌게 되거나 귀중한 원고가 경매에 맡겨지

게 되거나 오래된 성이 불타 없어지게 되거나 귀족 칭호를 듣는 사람이 어떤 추문 에 휩쓸리게 되면, 독자들은 수천 편의 잡문에서 그런 사실들에 관해서만 읽게 되 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벌써 또는 그 다음 몇 날에 걸쳐서 또 그때그때의 제 목에 관한 엄청나게 많은 일화(逸話)적 · 역사적 · 심리적 자료와 기타 자료를 얻게 되는 것이었다. 매일 일어나는 사건마다 성급하게 써진 잡문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모든 보도들을 제공하는 방식은. 즉 그것의 분류와 작성은 그야말로 무 책임하게 서둘러 생산되는 대량 상품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 밖에 또 문예란 에 실리는 것으로 어떤 게임 같은 것이 있었으며 그런 게임에 대해 독자들 스스로 가 관심을 가졌고 또 그런 게임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지식의 양을 증대시킬 강 한 동기를 부여받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가로세로 말 만들기 놀이'라는 그 이상스 런 테마에 관한 치겐할스의 긴 주석은 그 문제에 대해 잘 알려 주고 있다. 당시 대 부분 어려운 일을 했으며 또 어렵게 생활을 영위해 나갔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은 여가 시간에 문자들로 이루어진 많은 사각형과 십자들 위를 내려다보며 웅크리고 앉아서는 그 빈자리들을 일정한 게임규칙에 따라 채워 넣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이 갖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괴상한 면만을 보지 않으려 주의하고자 하며 또 그 것에 대한 조소를 삼가려 한다. 어린애 장난 같은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교양을 위 해 잡문들을 읽었던 그 사람들은 결코 순진한 아이들이거나 노는 것을 즐기는 방 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혼란과 동 요의 한가운데에 불안에 떨며 앉아 있었던 것이며 수없이 많은 끔찍한 전쟁과 내 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교양을 위한 그들의 보잘것없는 유희는 그저 별다른 의미 없는 애교 있는 어린애 장난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두 눈을 감아 버리 고자 하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와 불안에 찬 몰락의 예감으로부터 벗 어나 가능한 한 순진무구한 가상세계로 도피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욕구에서 비롯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과 어려운 카드놀이를 하는 방법을 끈기 있게 배웠으며, 가로세로 말 만들기 놀이 수수께끼를 푸는 데 정신없이 몰두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교회로부터 위안을 받지 못하고 정신으로부터 아 무런 조언도 얻지 못한 채 죽음과 공포와 고통과 기아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도 많은 글들을 읽고 강연을 들었던 그들, 그들은 그런 공포에 대항해서 스스로를 강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저 빈둥 빈둥 세월을 보냈으며 결코 내일을 믿지 않았다.

또한 강연들도 많이 행해졌는데, 잡문의 약간 고상한 별종이라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교양 의 개념에 아직 상당한 정도로 매달렸던 그 시대의 시민들에게는 정신적인 도적들 에 의해서 잡문들 외에 또 많은 수의 강연이 제공되었는데, 그것도 결코 특별한 기 회에 하는 축하연설의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심한 경쟁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 은 양으로 그랬던 것이었다. 당시 중소도시에 사는 시민이나 그 부인은 대략 일주 일에 한 번, 그러나 대도시의 경우라면 더욱 자주, 즉 매일 저녁 강연을 들을 수 있 었다. 강연을 통해서 시민은 어떤 한 문제에 대해. 즉 예술작품에 대해. 작가나 학 자나 연구자나 세계여행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며 강연에서 청중은 순전히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었다. 강연은 암암리에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 의 어떤 관련성을, 어떤 예비지식을, 어떤 준비를 수용능력을 전제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전제조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괴테에 대해 재 미있거나 격정적이거나 재치 있는 강연들이 있었는데, 강연에서 괴테는 푸른색 연 미복을 입고 역마차에서 내려서는 슈트라스부르크나 베츨라르의 처녀들을 유혹했 다. 또한 아라비아 문화에 관한 강연도 있었는데, 강연에서는 많은 지적 유행어들 이 마치 주사위 통 속에서처럼 뒤죽박죽 내던져졌다. 청중들은 그것들 가운데 하 나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모두 즐거워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결코 읽 은 적이 없거나 또는 읽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쓴 작가들에 대해 강 연을 듣고,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 영사기 같은 것을 통해 이런저런 사진들도 보았 으며, 그럼으로써 신문들이 제공하는 잡문들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상실해 버린 개별화된 교양적 가치들이나 단편적 지식들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었다. 요 컨대 사람들은 벌써 그 무서운 언어의 평가절하 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인 데, 그 같은 현상은 처음에는 아주 비밀리에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적이고 도 금욕적인 반대운동을 불러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고 강력해져서 정신의 새로운 자기 훈련과 품위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밖의 많은 다른 면에서는 실천력과 위대성을 보여 주기도 했던 그 시대의 불안 정하고 진실 되지 못한 정신 생활을 오늘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승리와 번영 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한 시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정신이 갑자기 허무에, 즉 엄 청난 물질적 궁핍과 일련의 정치적 · 군사적 소요에 이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 타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힘과 품위와, 아니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 신에 직면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 정신이 휩싸이게 되는 공포 의 징후로서 이해한다. 몰락의 분위기가 감돌았던 그 시기에는 또 많은 아주 훌륭 한 정신적 업적들이, 특히 음악학의 기초가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우리는 이 음 악학의 은혜로운 후예들이다. 그러나 과거의 몇몇 시기들을 아름답고도 의미 있게 세계사 속에 편입시키기는 쉬운 일이나 모든 당대는 그 스스로를 올바르게 편입시 킬 수는 없는 것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신적인 제반요구나 업적이 아주 보잘 것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정신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무서운 불 안감과 절망감이 확산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제 막 우리 문화의 청년기 와 창조적인 시기는 지나가고 노년기와 황혼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니체 이후 이미 여기저기서 예감되었던 발견이었다) 모든 사람들 이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차 없이 표현하게 되었던 이런 통찰에 근거해 서 사람들은 그 시대의 그렇게도 많은 불안한 징후들을, 즉 생활의 황량한 기계화 나 도덕의 심각한 타락, 여러 민족들의 무(無)신앙, 예술의 비(非)순수성을 설명했 다. 경이로운 중국 동화 속에서처럼 몰락의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길게 울리 는 파이프오르간의 저음처럼 수십 년 간 여운을 내며 울렸으며, 부패의 형태로 학 교나 잡지 · 학사원으로 흘러들어 갔고. 우울증이나 정신병의 형태로 아직도 진지 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예술가들이나 시대비평가들 대부분의 마음속으로 흘 러들어 갔으며, 조야하고 미숙한 과잉생산의 형태로 모든 예술 속에서 잦아들고 있었다. 침입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쫓아낼 수 없게 된 이 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엄연한 진실을 말없이 인식하고 또 그것을

냉정하게 견뎌낼 수 있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진실을 속여 보려고 노력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화쇠 퇴설을 문학적으로 널리 퍼뜨린 사람들이 많은 편리한 공격점을 제공해 주었다. 나아가 또 그 위협적인 예언자들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시민들 사이에서 청중을 얻 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소유하고 있다 고 생각했고 또 그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던 문화가 이제 더 이상 전혀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은, 시민들이 애정을 기울였던 교양과 예술이 이제 더 이 상 진정한 교양이나 예술이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은 시민들에게는 갑작스 런 통화 인플레이션이나 혁명을 통해 그들의 자본이 위협받는 것만큼이나 파렴치 하고 견딜 수 없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이었다. 그 만연한 몰락의 분위기에 대해서 는 이 외에 또 냉소적인 입장도 있었다. 사람들은 춤을 추러 갔으며, 장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짓으로 여겼다. 사람들은 종말에 가까워져 있는 예술이나 학문, 언어에 대해 정취 넘치는 잡문들을 노래했다. 사람들은 자살자의 쾌감 같은 것을 느끼며 그들 자신이 종이로써 세우 잡무 세계 내에서 정신의 완전 한 반(反)도덕과 개념 과잉을 확립했으며, 자신이 마치 냉소적 침착함 또는 도취적 격정을 가지고서 예술이나 정신, 도덕, 성실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이나 '세계' 가 몰락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다. 훌륭한 사람들 사 이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암울한 비관주의가, 나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악한 비관 주의가 지배했다. 그래서 문화도 진정한 자기 관찰과 새로운 정돈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폐습의 타파나 정치와 전쟁을 통한 세계와 도덕의 재 편 같은 것이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문화는 수십 년 간에 걸친 과도기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쇠퇴의 길을 걷고 그것이 예술가나 교수, 잡문기고가들을 통해 자기포기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바로 그동안에 문화는 소수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준 엄하기 짝이 없는 각성과 자기 검증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잡문들의 전성기 한가운데에 벌써 도처에는 정신에 충실하려고, 온갖 열과 성을 다해 훌륭한 전통과 풍습・방법・지적 양심의 핵심을 그 시대를 넘어 구출해내려고 결심했던 개

인들이나 작은 단체들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 과정들을 인식하는 면에서 보면, 자기 검증과 명상 몰락에 대한 의식적인 저항의 그 과정은 대체로 두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겨진다. 학자들의 문화적 양심은 음악사 연구나 음악 사 교수법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학문은 바로 그 당시에 전성기를 맞 이했던 것이고, 또 잡문세계의 한가운데서 유명해진 두 연구실이 모범적으로 정돈 되고 양심적인 연구방법을 고도로 발전시켰기 때문이었다. 마치 운명의 여신이 극 소수의 용감한 소대원들의 그 노력을 위로하며 수긍하려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그 일이, 즉 그 자체로 보면 우연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보증과도 같아 보이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요한 제바스티 안 바흐의 원고 열 가지가 그의 아들 프리데만의 이전 소유물에서 새로이 발견되 었던 것이다! 타락에 저항한 두 번째의 중심세력은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동 맹이었는데, 이 동맹의 형제들은 지적이기보다도 영적인 훈련을, 즉 경건성과 경 외심의 함양을 중하게 어겼다.—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보호나 유리알 유희의 형식은 특히 명상적인 점에 있어서 그런 면으로부터 중요한 자극을 받았 다. 우리 문화의 본질과 그것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의 면에 있어서도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은 관여했는데, 그것은 학문적이고 분석적인 업적을 통해 서라기보다는 오래된 비밀훈련에 바탕을 둔,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나 문화 상태 로 신비스럽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였다. 그들 중에는 이 전 시대의 음악을 완전히 옛 모습 그대로 연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1600년이나 1650년의 음악을 그 이후 덧붙여지게 되었던 모든 유행이나 세련미, 노련한 기술 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 는 능력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음악가나 가수가 있었다. 역 동성과 고양에 대한 추구가 모든 음악 연주를 지배했으며 지휘자의 지휘나 '해석' 으로 인해 사람들이 음악 자체를 망각하게 되었던 그 시대에 있어 이런 일은 그야 말로 진귀한 어떤 것이었다.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오케스트라가 공개적으로 처음 헨델 이전 시대의 한 조곡을 아무런 강약의 변화 없이, 즉 한 다른 시대의 소 박성과 순결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연주했을 때, 청중들 가운데 일부는 전혀 이해 를 못 했지만 다른 일부는 귀를 기울여서 난생 처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동맹에 속하는 어떤 사람은 브렘가르텐과 모르비오 사이에 있는 동맹 음악당에 한 대의 바흐 오르간을 만들어 설치했는데, 이 오르간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그럴 재력이나 능력이 있었더라면 자신을 위해 만들게 했을지도 모르는 오르간과 완전히 같은 모양이었다. 오르간을 설치한 사람은 동맹에서 당시 벌써 적용되고 있었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18세기에 활동한 자기 선구자의 이름을 빌어 자신을 질버만이라 불렀다.

이로써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화 개념이 생겨나오게 되었던 근원들에 접근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근원들 가운데 하나는 학문들 중에서 가장최근의 것인 음악사와 음악미학이었으며, 바로 뒤를 이어 있었던 수학의 비약적발전이 다음의 근원이었다. 이런 학문들에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지혜로부터나온 한 방울의 기름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의미 해석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문화의 연령 문제에 대한 명량하면서도 체념적이며 용감한 태도 표명이 덧붙여지게 되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 것이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입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문화과정에로의 새로운 편입이라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한일일지 모르지만 이 새로운 입장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예술작품 창조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포기,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세계 경영으로부터의 점진적인 분리, 그리고 이런 것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그 모든 것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유리알유희였다

유리알유희의 성립에 대해서는 1900년 직후에, 즉 잡문의 전성시대가 아직 한참 동안 계속되고 있던 중에 벌써 심화되고 있었던 음악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학문의 상속자들인 우리는 위대하고 창조적인 세기들의 음악을, 특히 17세기와 18세기의 음악을 (고전음악의 시대 자체도 포함해서) 이전의 모든 시대들이 그랬던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심지어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후손들인 우리가 고전음악에 대해 갖는 관계는 창조적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것과는 전연 다르다.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되고 때로 체

념과 우수를 동반하기도 하는 진정한 음악에 대한 우리의 숭배는. 정겹고 소박한 연주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 음악이 생겨나게 되었던 상황이나 운명을 도외시 하게 될 때 우리가 가끔 보다 더 행복했던 시대들로 부러워하게 되는 시대들의 정 겹고 소박한 음악애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20세기 거의 전체는 아직 철학 또는 문학을 중세 말과 우리 시대 사이에 놓여 있는 문화시대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업 적이라고 여겼지만 몇 세대 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수학과 음악을 그런 것으로서 여기고 있다. 우리가 그 세대들과 창조적인 면에서 경쟁하는 것을—적어도 전체적인 면에서는—포기해 버린 이후, 또한 우리가 대체 로 베토벤과 낭만주의 초기에서부터 시작하여 2세기 동안 음악 활동을 지배했던. 음악 연주에 있어서의 조화로운 것과 순전히 감각적인 역동성의 우위에 대한 숭배 를 단념해 버린 이후, 우리는—말할 필요로 없이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즉 비창조 적이고 아류이기는 하지만 경건한 우리의 방식으로—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그 문 화의 모습을 더 순수하고 더 올바르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그 시대들이 가졌던 열정적인 창작욕을 이제 더 이상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15세기와 16세기 에 음악의 여러 가지 양식들이 어떻게 그처럼 오랫동안 변함없이 그 순수성을 유 지할 수 있었던 것인지, 당시 작곡된 그 엄청나게 많은 음악작품 가운데 어떻게 저 질 작품은 도대체가 발견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타락이 시작되는 세기 인 18세기가 어떻게 빛을 내며 빨리 사라지면서도 자신감에 넘치는. 여러 가지 양 식과 유행과 유파의 불꽃을 피워 올릴 수 있었는지 하는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들 에게 있어서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우리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고 전음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속에서 그 세대들의 비밀과 정신, 도덕 경건함을 이 해하게 되었으며 또 모범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예를 들 어 오늘날 우리는 18세기의 신학이나 기독교 문화 또는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은 대수롭잖게 여기거나 아니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흐의 칸타 타나 수난곡 전주곡에서는 기독교 문화의 마지막 승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음악에 대한 우리 문화의 관계는 이밖에 또 하나의 아주 오래되고 매우 신성한 모 범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 유리알유희는 커다란 경의를 표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옛 왕들'이 다스렸던 전설적인 중국에 있어서는 음악이 국가 경영이나 궁정 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음악의 번영은 바로 문화와 도덕, 아니 심지어 왕국 자체의 번영과 동일시되었으며 음악의 대가들은 '옛 조성'의 보존과 그 순수성의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음악이 쇠퇴하면 그것은 곧 정부나 국가의 몰락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였다. 때문에 시인들은 금지되고 악마적이며 천리에 배치되는 조성들, 예를 들어 칭상 조성, 칭체 조성, 즉 '몰락의 음악'에 대해 무서운 이야기들을 했던 것인데 몰락의 음악이사악하게 궁성에서 울려 퍼지게 되면 바로 하늘은 어두워지고 성벽은 흔들려 쓰러지고 제왕과 왕국은 파멸했다는 것이다. 옛 시인들의 수많은 다른 말들 대신 여불위의 《춘추(春秋》》 가운데 들어 있는 음악 관련 장(章)에서 몇 구절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음악의 근원은 매우 심원하다. 음악은 도량에서 생겨나며 위대한 '하나'에 근본을 두고 있다. 위대한 하나는 두 극을 낳고, 두 극은 음양의 힘을 낳는다.

천하가 태평하면, 만물이 안정되고 그 변화에 있어 상위의 것을 따르면 음악은 완성될 수 있다. 욕망과 정열이 그릇된 경로를 밟지 않으면 음악은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한 음악은 그 나름의 근거를 갖는다. 그것은 평정함에서 생긴다. 평정함은 공정한 것에서 생기며 공정한 것은 세계의 의미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의미를 인식한 사람하고만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음악은 천지의 화합과 음양의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쇠퇴해 가는 나라들이나 파멸에 이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음악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음악은 명랑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광란적이 되면 될수록 백성은 더욱 우울해지며 나라는 더욱 위태로워지고 군주는 더욱 깊이 타락하게 된다. 음악의 본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져 버린다.

모든 성스러운 군주들이 음악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는 그것이 갖는 명랑성 때문이었다. 걸(葉)이나 주(紂) 같은 폭군들은 광란적인 음악을 만들었다. 그들은 강한 소리를 아름답다고, 시끌벅적한 소리를 흥미롭다고 여겼다. 그들은 새롭고 이상한 효과를 내는 음과 일찍이 어떤 사람도 들어 본 적이 없는 음조를 추구했다. 그들은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서로 상대방을 능가하려 노력했으며 그럼으로써 절제와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초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백성들이 광적인 음악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음악은 사실 매우 도취적이지만 진실에 있어서 그것은 음악의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 음악은 진정한 음악의 본질로부터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명랑하지가 못한 것이다. 음악이 명랑하지 못하면 백성은 불평을 털어놓게 되고 생활은 손상을 입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음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여 오로지 광란적인 효과를 내는 소리에만 몰두한 데서 연유한다.

이런 까닭에 잘 정돈된 시대의 음악은 조용하고 명랑하며, 그 정부는 균형을 잃지 않는다. 불안정한 시대의 음악은 흥분되어 있고 격렬하며, 그 정부는 순리를 그르 치고 있다. 망해 가는 나라의 음악은 감상적이고 슬프며, 그 정부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

이 중국인의 문장은 우리들에게 모든 음악의 기원과 거의 잊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선사시대에 있어서 음악은 무용이나 다른 모든 예술 활동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의 마술 수단, 즉 오래되고 정당한 마술 수단들 중의 하나였다. 리듬(박수ㆍ발 구르기ㆍ나무 두드리기ㆍ태초의 북치기)으로 시작했던 음악은 다수의 사람들을 같은 기분으로 '조율시키고' 그들의 호흡, 심장박동 그리고 심리상태를 같은 박자 속으로 옮겨놓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힘들에 호소하여 그것들을 불러내도록 하고 또 무용ㆍ결투ㆍ전투ㆍ성스러운 행위로 나아가게 격려하는 데 있어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음악은 이런 근원적이고 순수하며 본원적인 힘을 지닌 본질을, 즉 마법의 본질을 다른 예술보다도 훨씬더 오래 보존했다. 그리스 사람들에서부터 괴테의 노벨레에 이르기까지 역사가들이나 작가들이 음악에 대해 했던 많은 진술들만 생각해 보아도 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행진곡이나 무용곡은 그 의미를 읽은 적이 결코 없었다.—그러나 본래의주제로 돌아가기로 하자!

이제 유리알유희의 시초에 대해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간단히 전하기로 한다. 유리알유희는 독일과 영국에서 동시에, 그것도 두 나라 모두에서 새로운 음 악이론 연구소에서 일하며 연구했던 소수의 음악학자나 음악가들 사이에서의 연주연습의 형태로 생겨났던 것처럼 보인다. 유리알유희의 초기의 모습을 후기나 오늘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사정은 1500년 이전 시대의 기보법과, 박자 표시 종선조차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던 원시적인 음표를 18세기의 악보 또는 심지어악보 인쇄를 때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강약·속도·분절법등등을 나타내기 위한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생략부호들을 갖는 19세기 악보와비교해 보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처음에 유리알유희는 학생들이나 악사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재치 있는 기 억력 연습 또는 연상 연습에 지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여기 쾰른 음악전문대학에서 '발명'되어, 오래전부터 유리알과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어졌음에는 불구하고 그렇게도 많은 세대가 지나간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지니 고 있는 그 이름을 얻게 되기 전에, 영국과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유리알유희 발명자인 칼프 출신의 바스티안 페로트는 다소 기인적이기는 하지만 현명하고 사 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음악이론가로서 문자나 숫자 : 음표 또는 다른 도형 기호 대신에 유리알을 사용했다. 그밖에 또 〈대위법의 성쇠〉라는 논문을 남기기도 했던 페로트는 쾰른 연구소에서 학생들 사이에 이미 아주 폭넓게 퍼져 있는 유희 습관 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 학문의 약부들을 이용해서 고전 악곡의 임의의 동기나 서두를 서로 서로를 향해 불렀던 것인데 그에 대해 상대방은 그 작품을 계 속시키는 것으로써 또는 더 좋게는 상성부나 하성부의 대위법적인 대립주제 등등 으로써 화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기억 연습이요 즉흥연주 연습 이었는데, 아마도 일찍이 쉬츠나 파헤벨 바흐의 시대에 부지런한 음악도와 대위법 학도 사이에서 성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기억 연습이나 즉흥 연습과 (비록 이 론적으로 공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연적으로 쳄발로나 라우테. 플루트 또는 음성 을 통해서였지만) 아주 비슷한 것이었다.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여 옛 날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자기 손으로 몇 대의 피아노와 클라비코드를 제작하기도 했고 분명히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으며, 1800년 이후 잊혀져 있었던 옛날 방식에 따라 손으로 조정한, 팽팽한 줄을 가진 아주 둥근 활을 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전설을 남기고 있는 바스티안 페로트—페로트는 구슬을 연결하여 만든 간단한 어린이용 계산기를 모방해서 수십 개의 철사줄이 든 틀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철사 줄에다 그는 여러 가지 크기나 모양, 색깔의 유리알을 배열할 수 있었다. 철사 줄은 오선에 해당되고 유리알은 음표 등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는 유리알을 이용해 인용한 음악이나 또는고안해낸 테마를 나타내었고, 그것들을 변형시키거나 이조시키거나 발전시키고 변화시켰으며 또 그것들에 대해 다른 음악이나 테마를 대비시켰다.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일종의 장난 짓이었지만 그것은 학생들의 애호를 받아 모방되었고 그 결과 유행이 되었는데, 이런 사정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동안 음악연습놀이는 이 원시적이면서도 애교 있는 방식에 따라 행하여졌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서도 오래 지속되고 의미심장한 한 장치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부터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연구소 학생들이 했던 그 놀이와 페로트의 유리알 꿰어진 철사 줄로부터 후일 발전해 나오게 되었던 것은 오늘날에 와서도 그 서민적인 이름으로, 즉 유리알유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2,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유리알유희는 음악공부를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잃고, 대신 수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그때 그때 특별한 전성기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는 바로 그 학문에 의해서 유리알유희가 애호 받고 이용되고 발전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유희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수학자들 사이에서 유희는 고도의 유연성과 정화의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과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의식 같은 것을 벌써 지니게 되었다. 그와 같은 일은 플리니우스 치겐할스의 표현을 따르자면 커다란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 "하나의 말기문화에, 예를 들어 후기고대, 즉 헬레니즘—알렉산드리아 시대의 그것과 비슷한 어떤 상황에 참여하는 역할을 은근한 자부심으로 발견하게 되었던" 당시 문화의식의 일반적 발전과정과 병행해서 일어났다. 치겐할스는 이렇게 보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유리알유희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개설을 끝내고자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해 둔다. 음악연구소에서 수학연구소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이 같은 변화는 독일에서보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더

일찍,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 유희는 상당한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기호나 생략부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과정을 표현해낼 수 있었다. 유희연기자들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기호들을 서로 발전시켜 가는 가운데 추상적 기호들로써 서로 상대방을 대했으며, 그들 학문의 발전과정들이나 가능성들을 서로 서로에게 시험해 보였다. 이 같은 수학적이고 천문학적인 공식유희는 대단한 주의력과 긴장과 집중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훌륭한 유리알유희연기자의 명성은 당시 벌써 수학자들 사이에서 대단한 것으로 여겨졌다. 유리알유희연기자의 명성은 아주 위대한 수학자의 명성에 필적했다.

유리알유희는 거의 모든 학문에 의해 그때그때 수용되고 모방되었다. 그 학문들에 응용되었던 것인데, 이 점은 고전문헌학과 논리학 분야에서 증명되고 있다. 음악 상의 제반요소들에 대한 분석적인 고찰은 음악상의 과정을 물리적-수학적 공식 으로 파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문헌학은 그런 방법 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언어적 조직체를 물리학이 자연현상을 측량하는 것과 같 은 방법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조형예술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서는 건축과 관련하여 수학에 대한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 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얻게 된 추상적 공식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새로 운 관계와 유사성 · 일치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유리알유희를 이용하는 모든 학문 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공식이나 약부·결합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유희언어를 만 들어 내었으며, 어디를 가나 우수한 정신적인 청년들 사이에서는 공식의 연결이 나 공식의 대화로써 행해지는 그 유희가 사랑을 받았다. 유리알유희는 단순한 연 습이나 단순한 기분풀이가 아니라 집중된 자신감으로 하는 정신훈련이었다. 특히 수학자들은 금욕적이면서도 스포츠맨적인 노련함과 엄격한 형식으로 그것을 행했 으며 그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발견했는데. 이 즐거움은 당시 이미 철저하게 이루 어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향락이나 추구에 대한 정신적인 사람들의 포기를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잡문의 완전한 극복에 승려다운 엄격함을 갖는 새 로운 정신훈련을 낳았던. 정확하기 이를 데 없는 정신의 연습에 대한 저 새로이 일 깨워진 관심에 유리알유희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세계가 달라진 것이었다. 잡 문시대의 정신 생활은 영양 과잉으로 지나치게 성장하여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 이 상한 모양의 식물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뒤를 이은 여러 수정 과정은 뿌리 만 남겨 놓은 채 그 식물을 다시 잘라내는 일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정신 적인 연구에 몰두하고자 했던 젊은 사람들은, 유명하고 떠들기를 좋아하나 아무런 권위도 없는 교수들이 그들에게 옛날의 고상한 교양의 찌꺼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대학에서 이것저것 주워듣는 것을 더 이상 정신적인 연구라 여기지는 않았다. 이 제 그들은 이전 기술자들이 공과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엄격 하게 배우지 않으면, 아니 그들보다 더 엄격하고 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은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으며. 수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스콜라 철학적 연습을 통해 자신들의 사고능력을 정화시키고 고양시켜야 했고, 또 나아 가 이전 몇 세대의 학자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재화들. 즉 신속하고 손쉬운 돈벌이. 대중들 사이에서의 명성과 영예. 신문의 찬사. 은행가 나 공장주 딸과의 결혼, 방종하고 사치스런 물질 생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배 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노벨상을 받으며 아름다운 별 장을 가지고 있는 작가, 훈장을 달고 하인들을 거느리는 의사, 부유한 아내와 화 려한 응접실을 갖고 있는 학자, 산업체 내의 감사직을 맡고 있는 화학자, 잡문 생 산 공장을 갖고 있으며 박수와 화환과 함께 사람으로 넘치는 홀에서 격정적인 강 연을 하는 철학자—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라져 버렸으며 오늘날까지 다시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물론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만한 모범적인 인물로 여 기는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대중적인 명예나 재산. 명성. 사치스런 생활로 나아가는 길은 이제 더 이상 강당이나 연구소. 학위논문들 사이를 통과하고 있지 않았다. 깊이 추락하게 된 정신적인 직업들은 세속 사람들 의 눈으로 볼 때 파산을 한 것이었으나. 그 대신 정신에 대한 속죄자적—열광적 헌 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명예나 안락한 생활을 더 추구하는 재사들은 매력 없 는 것으로 되어 버린 정신성에 등을 돌리고 안락한 생활과 돈벌이를 보장해 주는 직업들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신이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난 뒤 어떤 방식으로 또한 국가 내에서 그 지위를 확

보해 나갔던 것인가를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리가 좀 따르 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방종하고 비양심적인 정신훈련이 몇 세대 이어지지 않아 벌써 실제 생활도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되어 기술적인 직업들도 포함하는 모든 고차적인 직업에서 능력과 책임감이 점점 더 드물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곧 경험하게 되었다.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 정신의 육성, 특히 학교제도 전체는 점점 정신적인 사람들에 의해 독점되었는데, 이는 사실 오늘날에 와서도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가 로마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한 우수한 정신주의자들로부 터 인원을 공급받고 있는 저 익명의 종단의 수중에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계급의 엄격함과 이른바 오만은 때로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못마땅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며, 그 계급에 대해 개개인이 자주 반기를 들기도 했지만—그 주 도적인 위치는 지금도 흔들림이 없다. 정신적인 것 이외의 다른 재화나 이익에 대 한 그들의 포기, 즉 그들의 고결함만이 그들을 유지시켜 주고 보호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는 엄격한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된 자각이나 예감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사고가 순수하지 못하고 맑게 깨어있지 못하면, 정신을 존중하는 기풍이 더 이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배 나 자동차도 더 이상 제대로 가지 못하고 기술자의 계산자와 은행이나 증권거래소 의 산술에 대해 모든 타당성과 권위가 흔들리게 되며 혼란이 다가온다는 것을 누 구나 자각하고 있거나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어쨌든 기술 · 산업 · 상업 등등과 같 은 문명의 외적 현상들도 정신적인 도덕과 성실성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필요로 한 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당시의 유리알유희는 그러나 아직 보편성에 대한 능력을, 즉 개별분과들을 포괄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천문학자나 그리스어 학자, 라틴어 학자, 스콜라철학자, 음악을 연구하는 학생이 각기 재치 있게 규정된 유희를 하고 있었지만 그 유희는 학부나 분과 그것의 세부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 고유한 언어와 규칙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경계를 지양하기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지기까지에는 반세기가걸렸다. 이처럼 더디게 되었던 원인은 의심할 여지없이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의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성질의 것이었다. 그런 지양의 방법은 벌

써 발견되어질 수 있었겠지만 새로이 되살아난 정신성의 그 엄격한 도덕성 전체에는 '어리석은 짓', 즉 여러 분과와 범주를 혼합하는 것에 대한 청교도적인 두려움이, 장난 짓이나 잡문의 죄악으로 다시 떨어지는 것에 대한 깊고도 정당한 두려움이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거의 단 한 번의 발걸음으로 유리알유희로 하여금 자신의 가능성을 자각하도록 하 고 또 그럼으로써 보편적 교양능력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한 개인의 업적 이었으며, 유희의 이 같은 진보는 이번에도 음악과 결부되어 있었다. 열광적인 수 학 애호가이기도 했던 스위스의 한 음악 학자가 그 유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며, 그럼으로써 고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던 것이 다. 이 위대한 사람의 시민적 이름은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다. 그의 시대는 이미 정신적 분야에서 개 숭배를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에서 그는 바젤 출 신의 유희연기자(또는 요쿨라토르)로 전해지고 있다. 모든 발명이 그러하듯이 그 의 발명은 전적으로 그의 개인적인 업적이고 은총이었지만 결코 사적인 필요나 노 력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고, 보다 강력한 어떤 원동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대의 정신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디에서나 그들의 새로운 사고내용을 위한 표현 가능성을 찾아내려는 열렬한 욕구가 강했다. 사람들은 철학과 종합을 동경했으며, 자신의 학문에만 순수하게 몰두하는 것이 가져다 주던 지금까지의 행 복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저기서 학자는 전문 학문의 여러 한계를 무 너뜨렸으며 보편적인 것 속으로 침투해 가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알파벳 에 대해. 새로운 정신적 체험을 기록하고 교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새로운 기 호법에 대해 꿈을 꾸었다. 당시 파리의 한 학자가 쓴 《중국의 경고》라는 제목의 책 이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키호테 같 은 인물로서 조롱을 당했지만 그의 분야, 즉 중국 문헌학의 분야에서 덕망 있는 학 자였던 이 책의 저자는, 옛날 중국 문자처럼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 의 상상력이나 발명능력을 배제함이 없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써 도형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어떤 국제적인 상형문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학문이나 정신교육이 포기해 버릴 경우 학문이나 정신교육이 그 훌륭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그 바젤 출신의 유희연기자였다. 그는 유리알유희를 위해 새로운 언어의, 즉 어떤 기호 어 및 공식어의 원칙을 발명했는데, 이 언어에는 수학과 음악이 똑같이 관여했으며, 이 언어 안에서는 천문학상의 공식과 음악적 공식을 결합시키고, 수학과 음악을 소위 통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써 결코 발전이 종결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귀중한 유희의 역사에서 뒤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에 대한 기초는 당시 그 바젤 출신의 이름 없는 사람에 의해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한때 수학자나 문헌학자 · 음악가의 특수한 오락이었던 유리알유희는 이제 진정으로 정신적인 사람들 모두를 점점 자신의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많은 오래된 대학과 프리메이슨 비밀결사 단체, 특히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매우 오래된 동맹이 그것에 관심을 기울였다. 몇몇 가톨릭 교단도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정신의 공기를 느끼게 되고 그것에 매혹되었는데, 특히 몇몇 베네딕트파 수도원에서는 그 유희가 너무도 많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도대체 이 유희가 교회와 교황청에 의해 용인되고 지지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이후에도 자주 거듭 나타났던 물음이 날카롭게 제기되었다.

바젤 사람의 위대한 업적이 있고 난 뒤 이제 이 유희는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 보여 주고 있는 모습으로, 즉 정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총화, 숭고한 예배, 전체 학문의 모든 분리된 부분들의 신비스러운 합일로 급속히 완전하게 발전해 갔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때는 예술의 역할을, 또 어떤 때는 사변적 철학의 역할을 떠맡았으며, 예를 들어 플리니우스 치겐할스의 시대에는 잡문시대의 문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시대에 있어 많은 예감하는 정신의 동경의 목표를 뜻하는 것이었던 표현, 즉 '마술극장'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불리기도 했다.

유리알유희는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고 난 이후 기술이나 소재의 범위 면에서 무한히 발전해 나갔고 유희연기자에 대한 정신적인 요구의 면에서 고도의 예술이나 학문이 되었지만 그 바젤 사람의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아직 어떤 본질적인 요소를 결여하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모든 유희는 사상과 미의 많은 영역에서 유래하는

집약된 관념들을 병렬시키고 정돈하고 분류하고 대비시키는 것이었으며 초시간적 인 가치나 형식들을 빠르게 회상하는 것이었고 정신의 여러 왕국을 단시간에 능숙 하게 비행하는 것이었다. 한참 뒤에 가서야 비로소 교육제도의 정신적인 목록으로 부터, 특히 빛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관례로부터 서서히 또 명상의 개 념이 이 유희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른 덕목들을 갖추지 못한 기억술의 명인은 교묘하고 현혹적인 유희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참가자들을 무수한 관념들을 신속 하게 나열함으로써 놀라게 하고 혼동시킬 수 있다는 폐단이 분명해졌던 것이다. 이제 그 노련한 기술은 서서히 점점 더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명상이 유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정말이지 명상은 모든 유희의 관중이나 청 중에게 있어 중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에로의 방향전환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유희의 이념연결이나 정신적 모자이크 전체를 민첩한 주의력 과 숙달된 기억력을 가지고 지적으로 쫓아가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보 다 깊고 보다 영적인 헌신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그때그때의 유희지 도자가 불러내게 되는 모든 기호 다음에는 이제 그 기호와 그것의 내용, 유래, 의 미에 대해 조용하면서도 엄격한 명상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명상을 통해 모든 공 연자는 그 기호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유기적으로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종 단과 유희단의 모든 단원들은 관조법과 명상법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엘리 트 학교에서 명상의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왔다. 이를 통해 유희의 상형문자는 단 순한 문자로 타락하지 않게 되었다.

이 당시까지의 유리알유희는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적인 연습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할 수 있었다. 물론 재치 있고 잘 조직되고 성공적인 유희들은 특히 때때로 기록되어지기도 했으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전하여져서 찬탄을 받거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 당시에 와서야 비로소 유희는 공개적인 축제가 됨으로써 서서히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더 가지게 되어 풍부해지기시작했다.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 사적인 유희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에 의해 열심히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

은 '유리알유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아마도 무엇보다도 먼저 축제적이고 공개적인 유희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유희들은 모든 나라에서 유희의 대가 또는 유희명인이 이끄는 소수의 뛰어난 명인들의 지도하에, 초청 받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경청하는 가운데, 세계의 방방곡곡으로부터 온 청중들이 긴장하며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거행되고 있다. 이 유희들 가운데 몇몇은 수일 또는 수주일 동안 계속된다. 이런 유희가 거행되고 있는 동안 모든 공연자와 청중은 잠자는 시간에까지도 적용되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절대적인 침잠의 금욕적이고 몰아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활은 성(聖) 이그나티우스의 명상연습 중의 하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위하는 엄격하게 통제된 속죄자적 생활과 비슷하다.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보태면 될 것 같다. 이 유희 중의 유희는 때로는 이 학문이 나 예술이, 때로는 저 학문이나 예술이 주도권을 잡는 가운데 일종의 보편언어로 발전되어 가는데. 그런 보편언어를 통해 유희연기자들은 의미 있는 기호로 여러 가치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시대에서나 이 유희는 음악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대개의 경우 음악적이거나 수학적인 규칙 에 따라 진행되었다. 하나의 주제나 두 개의 주제나 세 개의 주제가 정해져 전개 되고 변주되었으며, 둔주곡이나 협주곡 악장의 테마와 아주 비슷하게 다루어졌다. 이를테면 유희는 어떤 주어진 천문학상의 항성의 위치에서, 또는 바흐 둔주곡의 주제에서, 또는 라이프니츠나 우파니샤드의 한 문장에서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뒤 그것은 그 주제에서 시작하여 유희연기자 각각의 의도나 능력에 따라 불러일으켜 진 주도이념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거나. 아니면 또 유사한 관념들에 대한 암시를 통해 그것의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초보자는 유희기호를 이용 해 고전음악과 자연법칙의 공식 사이의 공통점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숙달된 자나 명인의 경우 유희는 처음의 주제로부터 자유로이 무한한 결합관계로 발전해 갔다. 어떤 유희연기자들의 유파에서는 특히 법칙과 자유. 개인과 사회와 같은 적대관계 의 주제나 이념을 병렬시키고 대비시키고, 나아가 끝으로 조화롭게 결합시키는 것 이 오랫동안 유행했다. 사람들은 유희에서 두 주제나 명제를 완전히 등가적으로 또 초연하게 전개시키고, 명제와 반명제에서 가능한 한 순수하게 하나의 종합명제 를 도출해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몇몇 천재적인 예외를 빼고는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또는 부조화적인 종결을 갖는 유희는 도대체 인기가 없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는데, 이것은 그 절정에 달하게 되었을 때의 유희가 유희연기자에게 가지게 되었던 의미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것은 완전성에 대한 정선되고 상징적인 형식의 추구를, 숭고한 연금술을, 모든 형상과다양성을 초월하여 그 자체 내에서 통일을 이루고 있는 정신, 즉 신에 대한 접근을의미했다. 예를 들어 옛날의 경건한 사상가들이 진정한 생활을 신을 향한 도상에 있는 존재로서 설명하고 현상세계의 다양성은 신적인 통일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유리알유희의 형상이나 공식들은 모든 학문과 예술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세계어로써 완전함과 순수 존재, 충만한 현실을 향해 유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건축하고 음악하고 철학했다. '실현하다'라는 말은 유희연기자들 사이에서 즐겨 사용되는 말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생성에서 존재로, 가능성에서 실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서 인용했던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문장을 다시 상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밖에 물론 기독교 신학의 용어들도 고전적으로 공식화되어 있고 따라서 보편적인 문화재산으로 여겨지는 한 유희의 기호법에 받아들여졌다. 이를테면 신앙의 주요개념 중의 하나나 성서 구절의 원문, 한 교부나 라틴어로 된 미사 원문에서 유래하는 한 문장은 기하학의 공리나 모차르트의 멜로디와 꼭 마찬가지로 쉽고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었으며 유희 속에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이 유희가 고유의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소수의 진정한 유리알유희연기자들에게 있어 유희는 예배와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비정신적인 세속적 세력의 한가운데에서 존속을 위해 투쟁함에 있어 유리 알유희연기자와 로마 교회는 너무도 서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될 수 없었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할 계기가 자주 나타나기는 했다. 양 세력 모두에게 있어서 지적 성실성과, 보다

엄격하고 명백한 표현에 대한 진정한 욕구가 결별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는 그 유희에 대해 때로는 보다 호의 적인, 때로는 보다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사실 수도회나 고위 및 최고위 성직자 계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 은 수는 유희연기자이기도 했다. 그 유희 자체도 유희들이 공개적으로 행하여지고 유희명인이 존재하게 되고부터는 종단과 교육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 양자 는 로마에 대해 언제나 극진한 공손함과 기사도 정신을 잃지 않았다. 추기경일 때 만 해도 훌륭하고 열성적인 유리알유희연기자였던 교황 피우스 15세는 교황이 되 자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유희를 떠났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가톨릭교도들에게 유희가 금지될지도 모르는 형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교황은 사태가 그렇게 발전하기 전에 죽고 말았다. 많이 읽히고 있는 이 비범한 인물의 전기는 유리알유희에 대한 그의 관계를 교황이 된 그가 오로지 적대적인 형식으로만 극복할 수 있었던 열정의 관계로 설명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국에 의해 호의적으로 장려되고 있긴 했지만 이전에는 개인이나 동료 그룹들에 의해 자유롭게 행해졌던 이 유희는 먼저 프랑스와 영국에 서 조직을 갖추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뒤를 따랐다. 이제 모든 나라에서는 유희위원회와. 유희명인이라는 칭호를 갖는 최고 유희지도 자가 정해졌다. 유희명인이 친히 지도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공개적인 유희는 정 신적인 축제로 격상되었다. 물론 명인은 정신의 육성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 담당 자들과 마찬가지로 익명으로 남았다. 측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의 개 인적인 이름을 몰랐다. 유희명인이 책임을 지는 공적이고 대규모의 유희만이 라 디오 등과 같은 공식적이고 국제적인 전파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공개적인 유 희를 지도하는 것 외에 유희연기자나 유희학교를 장려하는 일이 유희명인의 의무 에 속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유희명인은 유희의 발전을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이지만) 유희의 기호 목록에 새로운 기호나 공식을 받아들이는 문제. 유희규칙의 가능한 확대 문제. 새 로이 포함되어질 수 있는 분야들의 적절성 또는 부적절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위원회만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유희를 정신적인 사람들의 일종의 세계어로 본다면, 각각의 유희명인 지도하에 있는 각국의 유희위 원회들은 그 전체로서 이 세계어의 존속과 발전과 순수성의 보존을 감독하는 학사 원이 된다. 각국의 위원회는 모두 유희 기록을, 즉 지금까지 시험되고 허용된 기호 와 공식의 전체를 소장하고 있는데, 그 수는 이미 오래전에 옛날 중국 문자의 수보 다도 훨씬 많아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학문적 상급 학교, 특히 엘리트학교의 졸업시험이 유리알유희연기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예비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주도적인 학문들 가운데 어느 하나나 음악에 평균 이상으로 정통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암암리에 전제되고 있었으며 또 전제되고 있다. 미래 언젠가 유희위원회 의 위원이 되는 것, 아니 심지어 유희명인까지 되는 것이 엘리트학교에 다니는 15 세 소년들 거의 모두의 꿈이었다. 그러나 박사과정 이수자들 중에는 벌써 유리알 유희와 그것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야심에 아직도 매달리 고 있는 사람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유희를 사랑하는 이들 모두는 유희이론과 명상법을 열심히 익혔으며, '대규모' 유희가 개최될 때 경건하 고 헌신적인 참가자들의 핵심그룹을 형성하여 공개적 유희에 장엄한 성격을 부여 해 주었으며, 그럼으로써 그 유희를 단순히 장식적인 행위로 전락하는 것으로부터 지켜내었다. 이런 진정한 유희연기자들이나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유희명인은 왕 이나 대제사장. 아니 거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독자적인 유리알유희연기자에게 있어서, 나아가 유리알유희명인에게 있어서도 유희는 일차적으로 요제프 크네히트가 일찍이 고전음악에 대해 한 다음과 같은 말의 의미에 있어서 음악 연주이다.

"우리는 고전음악을 우리 문화의 정수요 핵심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뚜렷한 몸짓이요 진술이기 때문이다. 이 음악 속에서 우리는 고대문화와 기독교의 유산, 명랑하고 용감하며 경건한 정신, 비할 데 없을 정도로 기사도적인 도덕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덕이란 결국 모든 고전적인 문화의 몸짓을, 몸짓으로 압축된 모범적인 인간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1500년 과 1800년 사이에 여러 종류의 음악이 만들어지고 양식이나 표현수단은 극히 달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랐지만 정신은, 아니 도덕은 어디에서나 동일했다. 고전음악에 표현되는 인간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하며, 고전음악은 언제나 동일한 종류의 삶의 인식에 근거를 두고서 우연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극복을 추구한다. 고전음악의 몸짓은 결국 인간의 비극성에 대한 자각, 인간 운명의 긍정, 용감성, 명랑성을 의미한다, 헨델이나 쿠프랭의 우아한 미뉴에트든 이탈리아 음악가들이나 모차르트에서와 같이 섬세한 몸짓으로 승화된 감각이든 아니면 바흐에서와 같이 죽음에 대한 결연한 준비이든 고전음악은 언제나 하나의 저항이고 결사적인 용기이고 기사도이며, 그속에는 초인적인 웃음과 불멸의 명랑성의 울림이들어 있다. 우리의 유리알유희 속에도, 우리의 전체 인생·행위·고난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울림이들어 있어야 할것이다."

이 말은 크네히트의 한 제자가 기록해 두었던 것이다. 이 말로써 우리는 유리알유 희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한다.

1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

유희명인 요제프 크네히트 전기

소명

요제프 크네히트의 출신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재 학교의 많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거나 아니면 교육 국에 의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그 는 영재학교와 자신이 태어난 가정 사이의 갈등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갈등 대문에 그와 같은 환경의 많은 학생들은 청춘시절을 어렵게 보내고 또 종단에 들 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대단히 재능 있는 젊은 사람들이 까다롭고 문제 많 은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크네히트는 그야말로 카스탈리엔을 위해서. 종단을 위해서. 교육국 안에서의 봉사를 위해서 태어나고 또 미리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비록 그가 정신적 생활 의 문제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정신에 바쳐진 모든 생활에 내재 하는 그 비극성을 개인적인 고통 없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요제프 크네히 트의 인격을 자세하게 살펴볼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그런 비극성 자체 때문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자신의 운명과 재능과 사명을 실현시키는 데서 보여 주 었던 조용하면서도 명랑한, 아니 빛나는 태도 때문이다. 모든 중요한 인물들과 마 찬가지로 그도 그 나름의 마적인 힘과 운명애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운명애는 암 울한 분위기나 광적인 면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는 숨겨져 있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 우리는 역사를 쓰는 일이. 그것이 객관성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로 아무리 냉정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창작의 범위에 머무르게 되고 그 것의 세 번째 차원을 이루는 것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는, 몇몇 위대한 사람들을 예로 든다면, 가령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진정 명랑한 기분으로 살았던 것인지 아니면 괴 로운 기분으로 살았던 것인지를 전연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 모차르트는 조숙 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하면서도 감동적이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우아함을 지니고 있으며, 바흐는 하느님의 아버지와도 같은 의지를 받아들이듯 수 난과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교화적이면서도 위안을 주는 순종적인 태도를 지 니고 있는데, 이런 점을 우리는 정말이지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사 생활 가운데서 전해져오는 이런저런 사실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들이 남긴 작품에서, 즉 그들의 음악에서 읽어낸다. 나아가 또 우리는 그의 전기에 바탕을 두고서 우리가 그 모습 을 상상해 볼 수 있는 바흐에다 그의 사후의 운명까지 덧붙인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작품 전부가 자신이 죽은 뒤 바로 잊히게 되고, 그의 육필원고는 휴지가 되어 없어지고, 자기 대신에 자신의 아들들 중의 하나가 '위대한 바흐'가 되어 성공을 거 두며, 그 후 그의 작품이 새로이 평가되었다가 잡문시대의 몰이해와 만행 속에 빠 져들게 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살아생전에 이미 알고서도 그에 대해 미소 지으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려본다. 이와 꼭 마찬가 지로 우리는, 아직 살아서 왕성하고 건강한 창작을 통해 찬란히 피어나고 있던 모 차르트가 죽음의 손길 안에서의 편안함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벌써 죽음에 싸 여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여기거나 상상하기도 한다. 어떤 한 작품이 존재하고 있 을 경우 역사가가 달리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작품 과 그 작품의 창조자의 생애를 살아 숨 쉬는 한 통일체의 분리할 수 없는 두 부분 으로서 결합시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모차르트나 바흐를 다룬 다. 요제프 크네히트가 본질적으로 창조적이지 못한 우리시대의 한 사람이고 또 위의 대가들과 같은 의미에서의 '작품'도 결코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를 다루 는 방식도 그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크네히트의 생애를 기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써 또한 그 생애를 해석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 사실로확인된 보도가 거의 없다고 하는 점을 역사가로서 우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크네히트의 생애의 그 마지막 부분이 전설이 되어 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의 계획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 전설이 그저 경건한 창작일 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크네히트의 출생과 유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의 최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는 그 최후가 우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다. 알 려져 있는 한에 있어서 그의 생애는 명확한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의 최후에 대해 이런저런 추측을 함에 있어서 기꺼이 그 전설에 의존하고 또 그것을 믿는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전설이 전하는 바가 그 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로서 앞서의 여러 단계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 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벗어나게 되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없어 져' 버리게 된 한 항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 럼. 전설 속으로 사라져 버린 그 생애가 우리에게는 유기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여 겨진다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우리들이, 즉 이런 기록들을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경 지에 도달했으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해냈다. 유희명인으로서 정신적 으로 개발된 사람들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모범 이 됨으로써 그는 전래의 정신적인 유산을 탁월하게 관리하고 증가시켰으며, 우리 모두에게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명인의 영역에, 즉 우리 계층조직의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어 그것을 그저 지니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그 영역을 가로질러 걸었으며 그것을 뛰어넘어 우 리가 그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감해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차원으로 들어가 버렸 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의 전기가 보통의 차원을 넘어서 게 되고 결국 전설로 옮아가게 되었던 사실도 아주 당연하고 또 그의 생애에 부합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즐 길 뿐, 그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내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어느 특정의 날 에 이르기까지는 실제로 그런 것이기도 한데 크네히트의 생애가 역사가 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서 다루고자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던. 전하여져 오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려고 노력 했다

크네히트의 어린 시절, 즉 그가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시절에 대해 우리는 단

한 가지 사건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사건이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그를 향해 부른 것을, 즉 그의 소명의 제1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최초의 부름이 학문의 방향에서가 아니라 음악의 방향으로부터 왔다는 점이다. 크네히트의 사적인생활에 대한 거의 모든 추억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은 단편적인 전기적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유리알유희를 배웠던 학생, 즉 어느 충실한 숭배자가 남긴 기록의 덕택인데 이 숭배자는 자신의 위대한 스승이 했던 많은 말과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이다.

당시 크네히트는 틀림없이 열두 살이나 열세 살 정도였으며 차버 산림의 가장자리 에 있는 작은 도시 베롤핑엔에서 라틴어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도시는 그가 태어난 곳이기도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소년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라틴어 학 교의 장학생이었고 선생들. 특히 음악선생에 의해서 영재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 록 이미 두세 차례 교육국에 천거되었지만 그와 같은 일에 대해 그는 전혀 아무것 도 모르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아직 영재학교의 학생들을 만나 본 적도 없었고, 더 구나 최고 교육국의 명인들을 만나 본 적은 더욱 없었다. 그럴 즈음에 그는 음악선 생(당시 그는 바이올린과 라우테를 배우고 있었다)으로부터, 머지않아 음악명인이 베롤핑엔으로 와서 학교의 음악수업을 시찰하게 될 테니 요제프가 열심히 연습해 서 스스로 낭패하지 않고 선생을 당황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런 소식은 소년의 마음을 매우 흥분시켰다. 왜냐하면 말할 것도 없이 그는 그 음 악명인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일 년에 두 번씩 시찰 나오는 장학관들과 마찬가지 로 교육국의 고위직들 중의 하나를 맡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열두 명의 반신 (半神)들, 즉 신성하기 그지없는 그 관청의 열두 명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 람이며 전국에서 음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최고위 담당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음악명인이 직접, 음악의 대가가 몸소 베롤핑엔으로 온다는 이야기였다!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만이, 즉 유리알유희명인만 이 소년 요제프에게는 음악명인보다 한층 더 전설적이며 신비스러운 인물로 여겨 졌을 것이다. 오게 되리라는 통지가 있는 그 음악명인에 대한 어떤 엄청나고 불안

감 서린 존경의 염 때문에 그의 가슴은 미리부터 벅차오르게 되었다. 그는 그 명인 을 때로는 왕으로, 때로는 마술사로, 또 어떤 때는 열두 사도 중의 한 사람이나 고 전 시대의 전설적인 위대한 예술가들 가운데 한 사람. 예를 들어 미하엘 프레토리 우스 ·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 프로베르거 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같은 사람 으로 상상해 보았다. —그는 그 항성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나게 될 순간을 대단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 순간에 대한 그의 두려움도 이에 못지않았다. 반 신(半神)들이나 대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신비스럽고 전지전능한 정신세계의 지배 자들 중의 한 사람이 여기 이 작은 도시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 친히 오리라는 것. 그가 자신을 보게 되리라는 것. 어쩌면 그 명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자신을 시험 해 보며 자신을 나무라거나 칭찬해 줄지도 모른다는 것, 이 모든 사실은 대단한 일 이었으며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었고 드물게 보는 유성 같은 것이었다. 더군다나 선생들이 힘주어 하는 말에 따르면 한 음악명인이 몸소 그 도시에 있는 그 작은 라 틴어학교를 방문하는 일은 수십 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소년은 눈앞에 곧 다 가올 일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 보았다. 특히 그는 취주악이 울리고 거리에 깃 발들이 나부끼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꽃놀이까지 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거행하게 될 대축제와 일찍이 그가 새 시장의 취임식 때 경험한 바 있는 환영식 같 은 것을 머릿속에서 그려 보았다. 크네히트의 친구들도 그와 같은 생각들과 기대 들을 품고 있었다. 그의 즐거운 기대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어쩌면 자신이 그 위 대한 대가에게 바짝 다가서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며, 또 그 앞에서, 그 대가 앞 에서 음악 연주나 대답과 관련해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창피를 당할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할 때뿐이었다. 그런 불안감은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에 있어서는 감미로운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겉으로 내비치지 않는 가운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그는 깃발들과 불꽃놀이와 함께 벌어지게 될, 기대되는 축제 그 모 두가. 어린 요제프 크네히트 자신이 아주 가까이에서 그 명인을 보게 되리라는 사 실이나. 아니 그 명인이 이처럼 베롤핑엔을 방문하게 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요제프 크네히트 자신 때문이기도 하다는 바로 그 사실만큼 그렇게 대단할 것도 흥분시킬 것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으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특별히 즐거

운 일이지도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명인은 사실 음악수업을 시찰하기 위해 오는 것이었으며, 음악선생도 명인이 그를 시험해 보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쩌면, 아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정말이지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그 명인은 어린 소년에게 바이올린 연주를 시켜보는 것과는 다른 용무를 보아야 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나이가 좀 더 든 상급반 학생들만을 둘러보고 그들로부터만 음악을 들어보려 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소년은 그 날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 날은 다가왔지만 그것은 실망으로 시작되었다. 거리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지지도 않았고 집들에서는 깃발이나 화환들이 내걸리지도 않았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책과 공책을 들고 평소에 해 오던 수업을 받으러 가야만 했다. 교실 안에서도 장식과 축제다운 분위기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여느 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생은 늘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그 위대한 손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둘째 시간인가 셋째 시간인가에 드디어 때는 오고야 말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학교 사환이 들어와 선생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요제프 크네히트라는 학생이 십오 분 뒤에 음악선생한테 와야 하는데 그때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손과 손톱을 정결하게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크네히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되었다. 비틀거리며 학교를 나선 그는 기숙사로뛰어 들어가 책을 내려놓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 케이스와 연습곡집을 들고서 목이 메는 것 같은 기분으로 부속 건물 안에 있는 음악실로 갔다. 흥분한 한 동급생이 계단 위에서 그를 맞이해서는 한 연습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를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는 너무도 긴 시간처럼 여겨 졌다. 누가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는데 처음 얼핏 보기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 같았다.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머리가 하얀 사람이었으며 아름답고 밝은 얼굴에 날카롭게 쏘아보는 것 같은 연푸른 눈을 지

니고 있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시선이었지만 그 시선은 쏘아보는 듯 했을 뿐만 아니라 명랑한 빛이 서린 시선이기도 했다. 그 시선은 소리 내어 웃거나 미소 짓는 명랑함이 아니라 조용히 빛나는 차분한 명랑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소년과 악수를 하고 그에게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 보인 뒤, 낡은 연습용 피아노 앞에 있는 작은 의자에 점잖게 앉아서 "네가 요제프 크네히트냐? 너의 선생님은 너에 대해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 우리 함께 연주를 좀 해보자"하고 말했다. 크네히트는 그 전에 벌써 바이올린을 케이스에서 꺼내놓고 있었다. 노인이 '가'음을 두드리자 소년은 거기에 음을 맞추었다. 그러고 난 뒤 소년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 태도로, 초조해하는 눈빛으로음악명인을 쳐다보았다.

"무얼 연주하고 싶니?" 명인이 물었다. 학생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넘쳐흐를 만큼 노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차 있었다. 지금껏 그와 같은 사람을 그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머뭇거리는 태도로 그는 연습곡 책을 들어 그 것을 노인에게 내밀었다.

"아니야, 나는 네가 악보를 보지 않고 연주했으면 좋겠어. 연습곡이 아니라 네가 외워서 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곡 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가곡 같은 것이면 되겠어." 명인이 말했다.

크네히트는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으며, 그 사람의 얼굴과 눈길에 흘려서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당황해하고 있는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지만 그는 아무 말도할 수가 없었다. 명인은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어떤 멜로디의 처음 몇음을 치고서는 무얼 묻는 기색의 눈빛으로 소년을 쳐다보았다. 이에 소년은 머리를 끄덕여 보이고서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멜로디를 함께 연주했다. 그것은 학교에서 종종 부르는 옛 노래들 중의 하나였다.

"한 번 더 해 봐." 명인은 말했다. 크네히트는 그 멜로디를 반복했다. 그러자 이때 노인은 그 멜로디에 맞춰 제1성부를 연주했다. 이제 옛 노래는 그 작은 연습실에서 2부로 울려 퍼지게 되었다.

"한 번 더."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크네히트는 연주했다. 명인은 그것에 맞추어 제2의 성부와 제3의 성부를 연주했다. 아름다운 옛 노래는 방 안에서 3부로 울려 퍼졌다.

"한 번 더." 이렇게 말하고 명인은 세 성부를 덧붙여 연주했다.

"아름다운 노래야!" 하고 명인은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는 그것을 알토 음으로 한 번 연주해 봐."

크네히트는 하라는 대로 연주를 했다. 그에게 첫 음을 지정해 주었던 명인은 이제 또 다른 세 성부를 붙여 연주했다. 노인은 거듭거듭 "한 번 더" 하고 말했다. 그때 마다 그것은 더욱 유쾌하게 울려 퍼졌다. 언제나 두세 대성부(對聲部)의 반주가 따르는 가운데 크네히트는 그 멜로디를 테너 음으로 연주했다. 그들은 그 노래를 여러 차례 연주했다. 서로 간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되었다. 연주를 거듭할 때마다 그 노래의 장식음과 변화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더욱 풍부해져 갔다. 기분 좋은 오전의 햇빛이 비쳐드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그 작은 방은 아름다운 멜로디의 울림으로 넘치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노인은 연주를 그쳤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노인이 물었다. 크네히트는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다시 시작했다. 그에 따라 노인은 명랑한 기분으로 세 성부로써 반주했다. 이제 네 성부는 각각 제 나름의 가늘고 맑은 선을 그었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교차하였으며, 서로 얽히고설켜서 여러 가지 명랑한 가락과 선율을 만들어 내었다. 소년과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선율과 그 선율이 어우러져서 빚어내는 여러 가지 형상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선율의 그물에 사로잡혀서 연주를 계속했으며, 그 선율에 가볍게 젖어들면서보이지 않는 어떤 지휘자를 따르고 있었다. 멜로디가 다시 끝나게 되자 마침내 명인은 머리를 돌려서 물었다. "요제프야. 마음에 들었니?"

감사해 하는 마음으로, 빛나는 시선으로 크네히트는 명인을 바라보았다.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요제프는 한 마디 말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자 명 인이 물었다. "푸가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니?"

크네히트는 의아스러워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미 몇 곡의 푸가를 들어보기

는 했지만 수업에서는 아직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었다.

"좋아." 명인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마. 우리가 직접 푸가를 한 곡 만들어 보면, 너는 아주 빨리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제가 하나 있어야 해. 하지만 그 주제를 그리 오래 찾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연주했던 그 노래에서 주제를 가져오도록 하자."

그는 그 노래 멜로디의 한 부분인 짧은 선율을 연주했다. 머리도 꼬리도 없이 그렇 게 잘라내진 선율은 이상하게 울렸다. 그는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연주했다. 그러 자 벌써 연주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벌써 첫 번째의 변주가 나타났다. 두 번째의 변주는 5도 음정을 4도 음정으로 바꾸었고. 세 번째 변주는 첫 번째의 변 주를 한 옥타브 높여서 반복했으며, 네 번째 변주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변주를 반복했다. 주제 제시부는 딸림화음을 이루며 끝이 났다. 제1전개부는 더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 전조되었으며. 제2전개부는 버금딸림화음과 비슷한 형태를 이루며 기음(基音)으로 끝이 났다. 소년은 연주하고 있는 사람의 민첩하게 움직이는 하얀 손가락을 쳐다보았으며, 긴장한 그의 얼굴에 연주의 전개 과정이 어렴풋이 반영되 고 있었지만 두 눈은 내려진 눈까풀 아래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 았다. 소년의 가슴은 명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염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의 귀는 그 푸가를 듣고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 같이 그에게는 생각되 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서 생겨나고 있는 그 악곡의 뒤에 있는 정신을, 법칙과 자 유, 봉사와 지배의 행복한 조화를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이 정신과 명인에게 귀의 하며 온몸을 다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는 이 몇 분 동안에 자신과 자신의 생 이 전 세계가 음악의 정신에 의해 인도되고 정돈되고 해석되는 것을 보았다. 연주 가 끝났을 때 그는 마술사 같기도 하고 왕 같기도 한 존경하는 그 사람이 눈을 지 그시 내려 감고 마음속의 기쁨을 은근히 얼굴빛에 나타내면서 잠시 동안 더 건반 위로 가볍게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행복한 순간들에 대해 환호성 을 질러야 할지, 아니면 그 순간들이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노인이 작은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날카로우면서도 말할 수 없이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면서 "음악을 연주할 때보다 더 쉽게 두 사람이 친구 가 될 수 있는 때는 없지. 이건 아름다운 일이야. 너와 나, 우리는 아마 친구가 될 거야. 요제프야, 아마 너도 푸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하고 말했다. 이 렇게 말하며 그는 크네히트와 악수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문 가까이에서 그는 다시 한 번 돌아서서 점잖게 머리를 약간 숙이며 눈빛으로 작별인사를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크네히트는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부속 건물에 서 나왔을 때 그는 도시와 세계가 깃발이나 화환이나 리본이나 불꽃놀이로 치장되 었을 경우 그랬을 것보다도 훨씬 더 변화하고 신비스러워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성례라고 불러도 좋을 소명의 과정을, 즉 그의 어린 영혼이 그때까지 오로지 소문으로만 들었거나 또는 열렬한 꿈에서만 보았던 이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보이 게 되고 초대라도 하듯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이 세계는 아득히 먼 어딘가에, 과거나 미래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그 것은 현재에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빛을 발하는 것이었고. 이 노명 인과 같은 사람들을 사자(使者)로, 사도(使徒)로 사절로 보내고 있는 것이었는데, 요제프가 생각하기에 사실 그 명인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든 것이 결코 아니었다. 바로 이 세계로부터 어떤 경고와 부름이 그처럼 존경할 만한 사자들 가운데 한 사 람을 통해 그에게도, 라틴어 학교의 어린 학생에게도 왔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그 체험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수 주일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는 그 신성한 순간의 신비스러운 사건에는 또한 현실 세계의 한 사건이 부합되고 있 다는 것을, 즉 그 소명이 단순히 그 자신의 영혼과 양심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나 경고일 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의 여러 힘들이 그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나 경고이기 도 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다. 음악명인이 찾아온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수업을 시찰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 은 그리 오랫동안 숨겨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크네히트의 이름은 이미 오 래전부터, 선생들의 보고에 근거하여,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또는 적어도 그걸 위해 최고 당국에 추천되었던 학생들의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이 소년 크네히트가 라틴어를 잘하는 학생으로서, 성격이 훌 륭한 학생으로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악선생에 의해 특별히 추

천되고 또 크게 칭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명인은 공무여행을 하는 기회에 몇 시간 틈을 내어 베롤핑엔에 들러서 그 학생을 만나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그 에게 있어서는 라틴어 지식이나 손가락의 숙련도(이 점에 있어 그는 선생들이 적 어 놓은 성적표에 의존했는데. 그 성적표를 살펴보기 위해 그는 한 시간 정도 할애 했다)가 아니라 이 소년이 그 인품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다 고차적인 의미에서의 음악가가 될 소질을. 다시 말해서 영감과. 극기와. 경외심과. 숭배에의 봉사에 대 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 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공립 상급학교의 선생들은 학생들을 '영재'로 추천함에 있 어서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소간의 불순한 의도에서 추천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끔 있었으며, 보는 안목이 모자란 어떤 선생이 근면과 야심 그리고 선생에 대한 영리한 태도 이외엔 별다른 장점이 없는 어떤 한 학생을 편애해서 고집스럽 게 추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바로 이런 유형의 학생을 음악명인은 특히 싫 어했다. 그는 시험을 받는 학생이 지금 자신의 미래와 인생경로가 문제되고 있음 을 깨닫고 있는지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을 너무 재치 있게, 너무 의식적이며 영리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쓰는 학생은 딱 질색이었다. 그런 학생은 많은 경우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배격되었다. 학생 크네히트는 노(老)음악명인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에 아주 들 었던 것이었다.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그는 즐거운 기분으로 크네히트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크네히트에 대해 어떠한 메모나 점수도 수첩에 적어 두지 않은 채 생기 넘치고 얌전한 그 소년에 대한 기억만을 지니고서 돌아온 그는. 최고위 당국 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직접 검토하여 영재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

이 명부—라틴어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은 '황금 명부'로 불리고 있었지만 때때로 그것은 "야심가 목록"이라는 멸시어린 말로 불리기도 했다.—에 대해 요제프는학교에서 가끔 이야기가 도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조는 아주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한 학생이 거기에까지 이르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리라는 점을 그 학생에게 훈계삼아 일러주기 위해서일 뿐이라 하더라도 어느 선생이 그 명

를 내렸던 학생들의 명부에다 손수 크네히트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부에 대해 언급할 때면, 그의 어조에는 엄숙함이나 존경의 염 또한 버젓함 같은 것 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야심가 목록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때면. 대개의 경우 그 어조는 불경스러웠으며 다소간 과장된 무관심의 빛을 지니고 있었다. 언 젠가 한 번 요제프는 어느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아니 뭐 야, 그 따위 시시한 야심가 목록에 올라 있는 네놈들에게 침을 뱉어 버릴 거야. 제 대로 된 사내자식이라면 그런 목록에 오르지 않아, 이건 정말이야. 선생들은 아주 멍청하게 공부만 하는 자식들이나 아부하는 놈들을 그런 데로 보낼 뿐이야." 그 아름다운 체험에 이어 주목할 만한 시기가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이제 '선택된 사람들'이나 '청춘의 꽃들'—종단 내부에서 영재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불리고 있었 다. --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선 은 그는 그 체험이 자신의 운명이나 일상 생활에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선생들에게 있어서 그는 벌써 지명된 사람이고 떠나갈 사람이었지만 그 스스로는 자신의 소명을 거의 자신 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서만 체험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그 것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분명한 분기점이었다. 마법사와 함께 보낸 그 시 간은 비록 마음속에서 이미 예감했던 것을 실현시키거나 좀 더 진척시킨 것이었지 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어제는 오늘로부터, 과거는 현재와 미래로부터 분명하 게 갈라지게 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환경에서 깨어난다 하더라도. 자신이 깨어났음을 의심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 지이다. 소명의 종류와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체험의 핵심과 의미는 언 제나 동일하다. 내부의 꿈이나 예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부름이. 즉 한 조각의 현 실이 갑자기 나타나 침투해옴으로써 영혼이 각성되고 변화되고 고양되는 것이다. 지금의 경우 한 조각의 현실은 바로 그 명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아득한 곳에 있는, 반신(半神)처럼 존경할 만한 인물로서만 알고 있던 그 음악명인이, 하 늘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온 대천사가 친히 나타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푸른 눈을 하고서 연습용 피아노 앞의 작은 의자에 앉아 요제프와 함께 연주 를,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연주를 함으로써 음악이 진정 무엇인지를 거의 말 한 마

디 하지 않은 채 그에게 보여주고서는 그에게 축복을 내린 뒤 다시 사라져 간 것 이었다. 이와 같은 일로부터 어떤 결과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 해 크네히트는 우선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건의 직접적 이고도 내면적인 반향에 너무도 사로잡혀 있었고 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머뭇거리듯 자라오던 어린 식물이 기적의 순간에 돌연 자신의 형 태에 대한 법칙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 법칙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이라도 하는 듯 갑자기 더욱 세차게 숨을 쉬며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년 은 마법사의 손길이 그의 몸에 닿은 후 서둘러 열심히 자신의 힘을 모으고 긴장시 키기 시작했으며, 자신이 변화했음을 느꼈고, 자신이 성장했음을 느꼈고, 자신과 세계 사이에 생겨나는 새로운 긴장과 조화를 느꼈으며, 많은 시간에 그의 연령이 나 그의 학우들에게는 아직 힘에 겨운 음악이나 라틴어. 수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는데, 이때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같이 생각되었다. 다른 시간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이 가지게 된 부드러운 기분과 몰두하는 마음 으로 꿈에 잠길 수가 있었으며, 바람소리와 비 오는 소리를 듣고 꽃이나 흘러가는 강물의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무엇을 파악하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감하는 방식으로서였다. 공감과 호기심 그리고 이해하고자 하 는 마음에 끌리게 되어서였으며, 자신의 자아로부터 다른 사람의 자아로, 세계로, 신비로, 성사(聖事)로. 고통스러우리만치 아름다운 삼라만상의 유희로 이끌리게 되어서였다.

요제프 크네히트에 있어서 소명은 이처럼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내면세계와 외부세계의 만남과 서로간의 인정에 이르기까지 발전해 가는 형태로 완벽하리만치순수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소명의 모든 단계를 다 거쳤던 것이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모든 행복과 모든 불안을 다 맛보았던 것이다. 이 고귀한 과정은, 즉 모든 고귀한 정신의 전형적인 청춘시절의 역사와 전사(前史)는 갑작스레 깨닫게 되는 새로운 사실들이나 비밀에 전혀 구애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내면세계와 외부세계는 조화롭고 균형 있게 서로 영향을 미쳤으며 서로를 향해 발전해 나갔다. 이런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이 학생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외적인 운명

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선생들이 자신을 동료로서, 아니 금방이라도 떠나게 될 귀 한 손님으로서 대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동급생들이 자신을 찬양하거나 부러워하기 도 하고 경원하거나 심지어 의심하기도 하며, 자기를 싫어하는 몇몇 학생들이 자 신을 조롱하고 증오하며, 지금까지의 친구들도 자신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 멀 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이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결별과 고립이라는 똑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그 자신의 기분 속에 서 선생들은 점점 연장자의 위치에서 동료로 되어 갔으며, 이전의 친구들은 뒤에 쳐져 있는 동행자들로 되어 갔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자신이 살고 있는 도 시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또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이 있을 곳이 못 된다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제 은밀한 죽음이, 비현실적인 것과 과거적인 것의 분위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 은 임시적인 것이. 닳고 닳아서 이제 더 이상 어디에서도 맞지 않는 옷이 되고 말 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사랑해 왔던 고향을 이렇게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으며 또 어울리지도 않은 생활방식으로부터 이렇게 벗 어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빛나는 자신감의 순간들로 인해 중단되기도 하는, 이별하는 사람·부름을 받은 사람의 생활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에게 커다란 괴로움이 되고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압박과 고통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가. 자신이 사랑하고 익숙해 져 있는 이 세계가 이처럼 사라져 버리고 소원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야심과 거 만과 오만과 불성실 그리고 사랑의 결핍에 사로잡히게 된 자기 자신에게 바로 책 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그 자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가 운데 모든 것이 그를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정한 소명에 수반되는 여러 가 지 고통 가운데서 이와 같은 것들이 가장 쓰라린 고통이다. 소명을 받는 사람은 그 것으로 선물과 명령을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죄의식 같은 것도 걸머지게 되는 것 인데, 이는 전우들 가운데서 뽑혀 장교로 승진한 한 병사가 그 승진과 관련하여 전 우들에 대해 죄책감을, 아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때, 그에게 더욱 그 승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나 크네히트에게는 그런 발전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운명이 부여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교사위원회로부터 자신 이 지명되었다는 사실과 머지않아 자신이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일순 그 소식에 대단히 놀라워했지만 바로 다음 순간에 이 새로운 사실은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기다려 왔던 일 같이 생각되었다. 이 제야 비로소 그는 벌써 몇 주일 전부터 사람들이 그를 향해 조롱하는 말투로 "선택 된 사람"이니 "영재소년"이니 하고 불러댔던 일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그런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저 건성으로 들었을 뿐이었으며 그것을 언제나 조롱하 는 말로서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선택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만하게도 자신을 선택된 사람으로 여기는 네놈"으로 부르려 했던 것이라고 그 는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친구들 사이에서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이질 감의 폭발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긴 했지만 사실 그 스스로를 선택된 사람으로 여 겨본 적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있어 소명은 지위상승으로서가 아니라 오 로지 내면의 경고와 격려로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 모든 것에 도 불구하고 사정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언제나 예감하고. 수백 번이나 느 끼고 있지 않았던가? 이제 때는 무르익게 되었다. 그가 받은 축복은 증명이 되고 정당화되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낡고 끼게 되어 버린 옷을 벗어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를 위해 새로운 옷이 준비되어 있었다.

영재들 사이에 들게 됨으로써 크네히트의 생활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의 발전에 있어서 최초의 결정적인 발걸음이 내디뎌지게 된 것이었다. 영재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영재로 편입되는 것과 함께 소명이라는 내적체험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느님의 은총이다. 혹은 평범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행운이다. 이런 행운을 만나는 사람의 생활은, 운이 좋아 육체와 영혼의 면에서 아주 행복한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이 유리한 점을 가지듯이, 유리한 점이 있다. 영재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아니 거의 모두는 사실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대단한 행운으로, 영예로 받아들여 그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 중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런 영예를 전부터 열렬히 바라고 있기도 했 다. 그러나 고향에 있는 보통의 학교에서 카스탈리엔의 학교로 넘어 오게 되는 일 은 이후 대부분의 선택된 학생들에게 있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게 여겨지며, 그 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예기치 않은 실망을 안겨 주게 된다. 특히 부모의 집에서 행 복하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모든 학생들에게 있어 전학은 괴롭기 짝이 없는 이 별이요 포기가 된다. 특히 영재학교에서의 처음 두 해 동안에 본래의 학교로 되돌 아가는 사례가 상당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타고난 재능이나 근면성 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특히 장차 가족과 고향과의 관계를 점점 더 많이 끊고 결국 종단에 대한 소속감 외에는 다른 어떤 소속감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존중해서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학생들 이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집이나 싫증난 학교로부터 벗 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재학교에 입학함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학생들도 가끔 있다. 예를 들어 엄한 아버지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 는 이런 학생들은 얼마 동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전학이 자신들의 생활 전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내 환멸을 맛보게 되었다.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범적인 학생들도, 즉 박식한 학생들도 카스탈리엔에서 언제나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 이 이런저런 연구를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다. 영재들 사이에서는 연구나 전 문적 지식만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이고 음악적인 목표들도 아울러 추 구되었던 것인데, 이런 목표들 앞에서 어떤 학생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하부 학과들과 분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규모가 큰 네 개 의 영재학교로 이루어지는 그 조직 내에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학이나 문헌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가 진실로 학자가 될 수 있는 소질을 지니고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음악이나 철학 적 재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험요소로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 심지어 카스탈리엔에서는 순수하고 엄정한 전문 학문을 육성시키려는 경향이 아주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때도 가끔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경향의 선도자들은 '공상가들', 즉 음악적인 사람들이나 예술적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조롱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들 주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예술적인 것을, 특히 유리알유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엄하게 금지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크네히트의 생애는 전적으로 카스탈리엔에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요하고 명랑한 지방이며 일찍이 사람들이 시인 괴테의 표현 을 빌려 종종 '교육주'라 부르기도 했던 그 지방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로써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 유명한 카스탈리엔과 그곳의 학교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 하고자 한다. 간단히 영재학교라 불리는 이런 학교들은 현명하면서도 탄력성이 있 는 선발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지도부(이는 소위 '학사위원회'로서 20명의 위원 으로 구성되는데 10명은 교육국을, 10명은 종단을 대표한다)는 전국의 각 지방이 나 학교에서 온 재능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선발한 학생들을 종단을 위해. 교육제 도나 연구제도의 모든 중요한 직책을 위해 후계자로 교육한다. 그 성격이 인문계 적인 것이든 자연과학적, 기술적인 것이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정규학교나 김나 지움 등은 학교에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의 90퍼센트에게 있어서 소위 자유직업을 위한 준비학교가 되는데, 이런 학교들은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끝난다. 거기 대 학에서는 바로 이어서 각각의 전공 연구 과정이 규정대로 이수된다. 이것이 누구 나 다 알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다. 이런 학교들은 상당히 엄 격한 요구들을 하며 능력이 없는 학생들을 가능한 한 배제해 버린다. 이런 학교들 과 병행해서 또는 그 상위에서 바로 영재학교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 영재학 교에는 재능이나 성격이 특출한 학생들만이 시험적으로 입학하게 된다. 이들 학교 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영재학생들은 선생들의 자유로 운 평가에 따라 선발되어 카스탈리엔의 교육국에 천거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 한두 살 먹은 한 학생이 어느 날 그의 선생으로부터 자신이 다음 학기에 카스탈리 엔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 하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니 그 일에 스스로 적합하다 고 느끼는지, 그 일에 자신의 마음이 끌린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를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학생이 승낙하면, 이에는 또

한 양 부모의 무조건적인 동의가 따라야 하지만 영재학교들 중의 하나가 그를 시 험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영재학교들의 교장과 고위 교사들(결코 대학교수들 이 아니다)이 '교육국'을 구성하는데. 이것은 국내의 교육 일체와 정신적인 조직 전 반을 관장한다. 일단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그가 어떤 교과목에서 낙제를 해 일반 학교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는 한. 전문적인 연구나 직업을 위한 연 구는 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영재학생들은 '종단'에, 평교사에서 시 작해서 최고위직, 즉 12명의 연구지도자 또는 '명인'과 유리알유희의 지도자인 유 희명인에 이르기까지의 교육국의 계층조직에 그 필요한 인원을 보충해 주기 때문 이다. 대부분의 경우 영재학교의 마지막 교육과정은 22세부터 25세 사이의 나이 로 종결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바로 종단의 일원이 된다. 이때부터 이전의 영재학 교 학생들은 종단과 교육국의 모든 교육기관과 연구소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영재대학이나 도서관 · 문고 · 실험실 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수의 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 리알유희와 관련되는 시설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영재학생 시절에 언어나 철학, 수학에 또는 그 밖의 무슨 분야에 대해 특별히 전문적인 재능을 나타낸 학생 은 이미 영재학교의 상급반 단계에서 선발되어, 그의 재능에 최선의 자양분을 제 공해 줄 수 있는 과정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공립학교 나 대학의 전문적인 교사가 되는데, 그들은 카스탈리엔을 떠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종단의 단원으로 남는다. 그들은 '보통사람들'(영재들 사이에서 교육 받지 않 은 사람들)에 대해 엄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종단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결코 의사나 변호사. 기술자 등과 같은 '자유로운' 전문가가 될 수 없고 평생 동안 종단 의 규칙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규칙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재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는 조롱하는 뜻으로, 또 어느 면에서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고관'이라 부른다. 이전의 영 재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발견하게 된 다. 그러나 나머지 소수의 학생들은, 즉 카스탈리엔의 여러 학교로부터 고르고 골 라낸 마지막 학생들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연구와, 명상으로 꾸 준히 행해지는 정신 생활로 넘어가게 된다. 대단한 재능을 타고 나기는 했지만 성 격이 고르지 못하거나 신체상의 결함과 같은 다른 이유들로 해서 교사직이나. 상 급이나 하급 교육국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기에 적합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평 생 동안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며 수집활동을 한다. 당국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 람들인 이들이 전체를 위해 하는 일은 대개의 경우 순전히 학문적인 연구 활동이 다. 어떤 사람들은 고문으로서 사전 편찬 위원회나 문고나 도서관 같은 곳에 배 치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모토에 따라서 자신들의 학문 에 종사한다. 이미 그들 가운데에는 아주 동떨어지고 때로 신기하기까지 한 연구 에 일생을 바친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예를 들어 로도비쿠스 크루델리스 같은 사 람은 3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이집트의 원전 모두를 그리스 어와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했으며, 어딘가 좀 이상스러운 면이 있었던 카투스 칼벤 시스 2세는 4권으로 된 방대한 반절판 필사본 형식으로 《12세기 말경의 이탈리아 남부 대학들에서의 라틴어 발음》이라는 저술을 남겼다. 이 저술은 《12세기부터 16 세기까지의 라틴어 발음의 역사》라는 저술의 제1부로서 계획되었던 것이었는데. 천 매에 달하는 원고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저술로 남게 되었으며 어느 누구에 의 해서도 계속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종류의 단순한 학문적인 연구가 여러모로 조 롱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연구들은 장래의 학문이나 국민 전체에 대해 어떠 한 실제적인 가치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은 이전 시대 예술과 마찬 가지로 어느 정도 넓은 목장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 어 떤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가끔 자신 속에 어느 정도의 지식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런 지식은 사전이나 문고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 대를 살고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아주 가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은 학문적 저술들은 가능한 한에 있어서 또한 인쇄되었다. 사람 들은 진정한 학자들이 거의 완전히 자유스럽게 그들의 연구와 유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그들이 하는 연구 가운데 많은 수가 명백히 국민이나 공 동 생활에 아무런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심지어 학자가 아닌 사람 들에게 있어서는 사치스러운 유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문제 삼지도 않았다. 이런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연구의 종류와 관련하 여 조롱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을 받지는 않았으며 그들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더욱 없었다. 그들을 놀러대는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기는 했지 만 그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그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게 되었던 것은 그 학자계급의 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정신적 자유를 사는 데 지불했던 희생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편의를 누리고 소박한 형태로나마 음식물과 의복과 주 거를 제공받고 훌륭한 시설의 도서관과 소장품과 실험실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 었지만 그 대신 부유한 생활이나 결혼 생활, 가정을 단념했을 뿐 아니라 승려 같은 사람들로서 일반적인 경쟁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었다. 재산이나 칭호나 명 예를 몰랐으며 물질적인 면에서 극히 소박한 생활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사람이 오래된 한 비문을 해독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자 할 경우 그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으며 지원도 받았다. 하지만 그가 풍족한 생활이 나 화려한 의복이나 돈이나 칭호를 바라게 되면 가차 없이 제지당했다. 이런 욕망 들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젊은 시절에 '속세'로 돌아가서 보수를 받는 전문 교사나 가정교사나 신문기자가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구미에 맞는 생활을 추구했다.

소년 요제프 크네히트가 베롤핑엔을 떠났을 때 그를 정거장까지 배웅해 준 사람은 그의 음악선생이었다. 선생님과의 이별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기차가 점점 떨어져 감에 따라 밝은 색으로 칠을 한, 오래된 성루의 계단식 지붕이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혼자 내버려지게 되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의 가슴이 조금 설레기도 했다. 다른 많은 학생들은 이 첫 여행을 훨씬 더 격렬한 감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한다. 요제프의 마음은 이미 이쪽보다 저쪽에 더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별의 고통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여행은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그는 에쉬홀츠 학교로 보내지게 되었다. 그는 이 학교의 사진을 이전에 이미 교장 선생님의 집무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에쉬홀츠는 카스탈리엔에서 가장 크고 가 장 새로운 학교촌이었으며 건물들은 모두 근래에 지어진 것이었다. 근처에 도시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시골마을과 같은 작은 거주 지역에 지나지 않는 곳이었는데,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학교시설은 마을 뒤쪽에 보기에도좋게 널찍하고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그 가운데에는 네모 모양의 큰 광장이 있었다.이 광장의 중앙에는 주사위에서 수 5를 나타내는 다섯 개의 점 모양으로 배치된 다섯 그루의 웅장한 삼나무가 원뿔 모양의 검은 가지를 하늘 높이 뻗치고 있었다.이 큰 광장은 물이 흘러들고 있는 두 개의 넓은 수영장을 제외하고는온통 잔디나 모래로 덮여 있었으며,그 수영장으로는 평평하고 넓은 계단이 아래로 나 있었다.햇볕이잘 드는이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높은 건물인 학교건물이 있었다.이 건물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각 부분에는 각각 다섯 개의 원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현관이 달려 있었다.광장 전체를 삼면에서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는 나머지 모든 건물들은 아주 낮고 평평하고장식이 없었으며 온통 똑같은 크기의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었다.이 각각의 부분들 모두는 지붕이 덮인 복도와 작은 계단을 통해 광장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대부분의 복도 입구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카스탈리엔의 관습에 따라서, 도착을 하게 되었을 때 소년은 학교사환의 영접을 받아 교장이나 선생들 앞으로 안내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맞이해 준 사람은 어떤 학우였다. 그는 잘생기고 키가 컸으며 푸른색의 린넨 옷을 입고 있었다. 크네히트보다 몇 살 위인 그는 크네히트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스카르라고 하는데, 네가 살게 될 헬라스 관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 너를 맞이해서 안내하는 것이 나의 임무야. 학교는 내일에나 가면 돼. 모든 것을 좀 들러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을 거야. 너는 곧 익숙해질 수 있을 거야. 네가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처음 얼마 동안 나를 네 친구나 안내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 친구들이 너를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나를 네 보호자로 생각해. 신입생은 언제나 좀 골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더러 있으니까 말이야. 사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야. 이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 숙소인 헬라스로 안내하지.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지 네가 알아야 할 테니까 말이야."

사감으로부터 요제프의 안내자로 지명된 오스카르는 관습대로 이 신입생을 이렇 게 맞이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훌륭히 해내려고 애를 썼다. 사실 이런 역할은 거의 언제나 연장자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열다섯 살 난 소년 이 동료애가 넘치는 붙임성 있는 말을 하고 은근히 격려를 해줌으로써 열세 살 난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이 같은 일은 사실 그에게는 그렇게 어 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손님이 내일 당장에 다시 떠난다 하더라도 그 손님이 주인의 집과 주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떠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인데. 처음 며칠 동안 요제프는 안내자로부터 전적으로 그런 손님 대접을 받았다. 요제프는 다른 두 소년과 함께 쓰게 될 침실을 안내받았으며, 비스킷과 한 잔의 과일 주스 를 대접받았다. 그는 사각형 모앙의 광장 둘레에 있는 숙소들 가운데 하나인 '헬라 스 관'을 돌아보았다. 공기욕을 할 때 수건은 어디에다 걸어 두면 되는지, 또 그러 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 화분은 어느 구석에다 놓아두면 되는지를 그는 전해 듣게 되었다. 저녁때가 되기 전에 그는 또 세탁실의 세탁주임한테로 안내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그는 몸에 맞는 푸른색의 린넨 옷을 건네받았다. 처음 순간부터 요제프 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으며, 그래서 즐거운 기분으로 오스카르의 말을 들어 주었 다. 이미 오래전부터 카스탈리엔에서 살고 있는 이 연장자는 물론 그에게 있어 거 의 신이나 마찬가지의 존재였지만 그에게서는 당황의 빛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 다. 자신의 말 가운데 어려운 그리스어 인용문을 끼워 넣었다가는 이내 점잖은 어 투로. 신입생은 물론 아직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당연히 이해 못하겠지. 누가 신입생한테서 이런 것을 바랄 수 있겠어. 하고 말하는 등과 같이 오스카르가 가끔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려도 그것은 그의 마음에 별로 거슬리지 않았다. 어쨌든 크네히트에게 있어서 기숙사 생활은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 른 어려움 없이 새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의 에쉬홀츠 시절에 관해서도 중 요한 사건들은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학교건물에서 일어났던 무시무시한 화재 사 건도 그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보인다. 오늘날에 와서도 찾아볼 있는 한에 있어서의 그의 성적표에 따르면 그는 음악 과목과 라틴어 과목에서 종종 최고 점 수를 받았으며, 수학과 그리스어 과목에서는 평균점을 약간 상회하는 점수를 유지 했다. '기숙사 일지'에서 가끔 발견되는 그에 관한 기록들로는 "매우 폭넓은 정신, 광범위한 연구, 인정을 받을 만한 성격"이나 "즐거움이 넘치는 진취성이 강한 정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부지런한 성격" 등이 있다. 에쉬홀츠에서 그가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는 이제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처벌 기록부가 다른 많은 서류들과 함께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에 타 버렸기 때문이다. 같은 반이었던 한 학생이 후일에 가서 분명히 말했던 것이라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크네히트는 에쉬홀츠에서 보낸 4년 동안에 단 한 차례(매주 있는 소풍에 불참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을 뿐이었는데, 그것도 어떤 금지된 일을 저질렀던 한 학우의 이름을 대기를 그가 한사코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이 일화는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크네히트가 항상 좋은 학우였으며 결코 윗사람에게 아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처벌이 정말로 4년 동안에 있었던 유일한 처벌이었다고 하는 주장은 어쩐지 사실인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크네히트의 초기 영재학교 시절에 대한 기록은 이처럼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후일 그가 유리알유희에 대해 했던 강의들 가운데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초보자를 위해 행했던 이 강의에 대한 크네히트 자신의 친필 원고가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원고도 없이 자유롭게 했던 그의 강의를 어떤 학생이 속기해 두었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크네히트는 유리알유희에 있어서의 유추와 연상에 관해설명하면서 연상을 '전통적인', 즉 누구나 알 수 있는 연상과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연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리알유희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 그런 개인적인 연상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들어 보이기 위해 내 자신이 학생 시절에 가졌던 개인적인 연상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당시 내 나이는 열네 살 가량이었으며 때는 초봄이었는데, 2월인가 3월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친구가 함께 나가서 말오줌나무의 작은 가지를 몇개 꺾어오자고 제안을 했다. 그는 그 가지들을 작은 물레방아를 만드는 데 관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으며 작지만 중요한 한 체험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아 그

날은 이 세상에서, 아니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 특히 좋은 날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들판은 젖어 있었지만 눈은 사라지고 없었고 시냇가에는 벌써 푸른빛이 싱싱하게 감돌고 있었으며, 아직 잎이 달리지 않은 덤불 속에서는 새싹들이 움트고 있었으 며 막 터져 나온 버들강아지의 눈들이 벌써 파릇파릇한 빛을 띠우고 있었다. 대기 는 향기로, 생명과 모순을 가득 머금은 향기로 넘치고 있었다. 축축한 흙이나 썩 어가는 잎나무의 어린싹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처음 피어난 오랑캐 꽃 향기를 벌써 맡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아직은 하나도 피어 있지 않았 다. 우리는 말오줌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작은 싹들은 돋아나 있었지만 아직 잎 은 달려 있지 않았다. 내가 가지를 하나 잘라냈을 때 갂미로우면서도 씁쓸하고 강 렬한 향기가 내 코를 찌르는 것이었는데, 그 향기는 다른 모든 봄 냄새를 그 자체 속에 끌어 모아 합쳐서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다. 나는 그 향기에 완전히 압 도당하고 말았다. 나는 내 칼 냄새를 맡아 보고 내 손 냄새를 맡아 보았으며 말오 줌나무 가지 냄새를 맡아 보았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향기를 풍겼 던 것은 바로 말오줌나무의 진이었다. 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아 니지만 내 친구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서 자기가 자른 나무의 냄새를 맡고 있었 다. 그도 그 향기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었다. 무릇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 나름의 마법을 지니고 있는 법인데 당시 나의 체험의 핵심은, 젖어서 질퍽거리는 풀밭을 걸어갔을 때와 흙이나 움트는 새싹들의 냄새를 맡았을 때 벌써 행복한 기 분으로 강렬하게 느끼게 되었던 다가오는 봄기운이 말오줌나무의 강한 향기 속에 서 한데 어우러져 감각적인 비유로, 매혹적인 느낌으로 승화된 데 있었다. 이런 작 은 체험이 그 자체로서만 머무르고 말았다 하더라도 아마 나는 그 향기를 이후 다 시는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후일 그 향기를 다시 접하게 되었더라면, 아마도 나는 그때마다 그 향기를 너무도 분명하게 느꼈 던 그 첫 번째 체험에 대한 추억을 늙을 때까지 가슴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이 체 험에는 다시 두 번째의 어떤 사실이 연결되어 있다. 당시 나는 피아노 선생님 댁에 서 오래된 악보 한 권을 발견하고서 그것에 마음이 몹시 끌리고 있었는데. 그 악보 책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집이었다. 언젠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을 기다

리고 있어야 했을 때 나는 그것을 펼쳐보았다. 부탁을 하자 선생님은 그것을 며칠 간 빌려주었다. 여가시간이 되면 나는 그것을 발견한 기쁨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 때까지 슈베르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당시 나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오줌나무 가지를 꺾으러 갔던 그 날인가 그 다음 날에 나는 〈부드러운 대기는 잠에서 깨어나고〉라는 슈베르트의 봄노래를 발견하게 되 었다. 피아노 반주의 처음 몇 화음이 다시 떠올린 추억처럼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이 화음들은 그 어린 말오줌나무들과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감미로우면 서도 씁쓸하게, 그렇게 압축되어 강렬하게, 그렇게 초봄의 기운으로 가득 차서 향 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초봄—말오줌나무 향기—슈 베르트의 화음'이라고 하는 연상은 움직일 수 없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연상이 되 고 있다. 이 화음이 울릴 때면 나는 언제나 바로 그 나무의 진한 향기를 다시 맡게 되는데, 이 둘은 한테 어우러져 초봄을 연상시킨다.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이 연 상에는 무언가 아주 아름다운 어떤 것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도 바꾸 고 싶지 않다. 그러나 '초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두 가지 감각적 인 체험이 동시에 떠오르게 되는 이런 연상은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 다. 이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준 바와 같이 그것은 분명히 남에게 말로 전달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연상을 이해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가운 데 단 한 사람한테서도 나의 개인적인 연상이 똑같이 적용되는 기호가 되고, 자극 이 있으면 어김없이 반응을 보이고 언제나 똑같이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후에 유리알유희 수석 기록관이 된, 크네히트의 동급생 하나가 전했던 바에 따르면 크네히트는 대체로 조용하고 명랑한 소년이었다. 음악을 연주할 때면 그는 가끔 놀라우리만치 차분하거나 행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가 격렬하고 정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지만 그가 아주 좋아했던 율동적인 공놀이를 할때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나 친절하고 건실한 이 소년이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조롱을 당하거나 걱정을 끼치기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그것

은 몇 차례 있었던 학생 퇴학 사건 때의 일이었는데, 이런 퇴학은 사실 특히 하급 의 영재학교들에서는 때로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 어떤 급우가 수업과 놀이 시간에 결석을 하고 그 다음 날에도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그가 병이 난 것이 아 니라 퇴학을 당해서 이미 떠나게 되었으며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게 되는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크네히트는 슬퍼했을 뿐 아니라 며칠 동안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몇 해가 지난 뒤 이 일에 대해 그 자신 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 학생이 에쉬홀츠로부터 돌려보내지게 되 어서 우리의 곁을 떠나갈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것을 일종의 사망 사건으로 느꼈 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누군가가 물었더라면, 경솔함과 태만함으로 인해 스스 로 자신의 장래를 망쳐 버린 그 불쌍한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어쩌면 내 자신도 장차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대답 했을 것이다. 그와 똑같은 경우를 이미 몇 차례 더 경험하고 난 뒤에 가서야. 그런 운명이 내 스스로에게도 닥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마음속으로 더 이상 전혀 믿지 않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문제의 핵심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시 작했다. 이제 나는 선택된 자의 퇴학을 더 이상 불행한 일이라든가 처벌로서 생각 하지 않았다. 퇴학당한 학생들 스스로는 많은 경우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나는 잘 알게 되었다. 경솔한 학생을 그 희 생물로 삼을 수 있는 제재나 처벌이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선택된 자들인 우리 모두가 한 때 그 안에서 살았던 저기 바깥의 '세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력에 넘치 는 위대한 현실이 되어서 그들을 유혹해 결국 다시 불러가고 말았던 것이라는 사 실도 이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그 '세계'는 몇몇 개인에 있어서 뿐만 아니 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먼 세계에 그렇 게도 강하게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은 전혀 약자나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겪었던 그 겉보기의 추락은 결코 추락이나 고 통이 아니라 하나의 비약이요 하나의 위대한 행위였다. 어떤 의미에서는 착실하게 에쉬홀츠에 남아 있는 우리가, 우리가 바로 약자요 비겁한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이런 생각은 얼마 뒤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음악명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는 언제나 대단히 즐거워했다. 이 명인은 적어도 2, 3개월마다 한 번씩 에쉬홀츠에 와서 음악수업을 참관하고 시찰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어느 선생과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그 친구의 집에서 며칠간 손님으로 머물게 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어느 때인가 그는 몬테베르디 작곡의 한 기도 노래의 연주를 위한 마지막 연습을 직접 지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특히 음악과학생들 가운데 있는 수재들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크네히트는 그 명인이 아버지처럼 정답게 대해 준 수재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가끔 한 연습실에서 한 시간 가량 크네히트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가의 작품이나 옛날 작곡법의 한 범례를 같이 연구했다. "그 음악명인과 같이 카논 곡을 만들거나또는 그가 서투르게 만들어진 카논 곡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가끔 비할 데 없이 장엄한 기분이 들거나 명랑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다. 거의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때도 더러 있었으며 웃음을 누를 수 없는 적도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음악수업을 받고 나면 목욕하고 마사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에쉬홀츠에서의 크네히트의 학창시절이 끝나갈 무렵—그는 열두세 명의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다음 단계의 학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교장선생은 늘 해 오던 대로 이 후보생들에게 훈시를 했다. 거기에서 그는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카스탈리엔 학교의 의의와 교칙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설명해 준 다음 소위 종단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의 길을 명시하였는데, 그 길의 끝에 이르면 그들 자신이 종단에 들어가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장엄한 훈시는 학교가 진학생들을 위해 베푸는 축제일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이날 진학생들은 선생들과 동료 학생들로부터 손님 같은 예우를 받게 된다. 이런 날들에는 언제나 신중하게 준비된 연주가 있게 마련인데—이번의 경우 그것은 17세기의 웅장한 칸타타였다. —음악명인도 그것을 듣기 위해 친히 와 있었다. 교장 선생의 훈시가 끝나고 난뒤 화려하게 꾸며진 식당으로 가는 길에 크네히트는 음악명인에게로 다가가서 이

렇게 말하며 물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카스탈리엔 밖의 일반학교나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자유로운'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면, 그 직업들의 대부분은 여기 카스탈리엔에 있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직업들입니다. 이 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째서 그 직업들을 '자유스럽다'고 합니까? 어째서 우리들 카스탈리엔 학생들만이 유독 그런 직업들을 갖지 말아야 합니까?"

음악명인은 크네히트를 한쪽 옆으로 데리고 갔으며, 예의 그 삼나무들 가운데 하 나 아래에서 멈춰 섰다. 눈언저리 살에 가볍게 주름이 잡힐 정도로 짓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는 크네히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얘야, 머슴이라는 의미를 갖는 말 인 크네히트가 네 이름이지. 아마 그때문에 네가 '자유'라는 말에 대해 그렇게도 매 력을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는 말아라. 카스탈리엔 밖의 사람들이 자유로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 말 은 대단히 심각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비장하게까지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 리는 이 말을 반어적으로 사용하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한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직업들이 자유스럽다고 할 수 있겠지. 그로 인해 겉으로는 자 유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택을 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 아 니라 그 가족이며, 아버지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그야말로 자유스럽게 직업을 선 택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 하 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중상모략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반박의 말은 하지 않 기로 하자. 자유가 있기는 한 거야. 그렇지만 그 자유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행위에만 국한될 뿐이지. 그러므로 이후에는 자유는 없게 되는 거야. 대학에서 공부름 하게 될 때부터 벌써 의사나 법률가나 기술자는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은 여려 차례의 시험으로 끝이 나게 되지.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는 사람은 증서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자유롭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겉보기일 뿐이야. 다시 말해서 그는 저급 한 힘들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는 성공과 돈과 야심이나 명예욕과 자신에 대한 다 른 사람들의 호불호에 매달리게 되는 거지. 그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며 돈 을 벌어야 하고 사회 계층이나 가정이나 당파나 신문의 무자비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 대가로 그는 성공하고 부유해지며,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자유나 아니면 그 반대로 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야. 장차 종단의 단원이 될 영재학교의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 사정이 모든 면에 서 정반대이지. 그는 어떠한 직업도 '선택' 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재능을 선생보 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야. 사태가 달리 진행되어서 학생의 개 성이나 재능 또는 실수를 고려한 선생들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이곳이나 저곳으로 배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그는 계층조직의 테두리 안에서, 상급자들이 그 를 위해 선택해 준 자리에서 선택해 준 기능을 맡으면 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는 부자유스러운 것 같지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선택된 학생은 모두 그 첫 과정이 끝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유로운' 직업을 택한 사람은 그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기 위해 편협하고 경직되어 있는 과 정을 거쳐야 하고 융통성 없는 시험들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선택된 학생은 자 립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아주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지. 자기 나름 의 선택에 따라 평생토록 아주 동떨어진 연구를,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어리석다 고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정도로 말이야. 그 태 도만 타락하지 않는다면 그런 연구를 가로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선생으로 적 합한 사람은 선생으로, 교육 행정가로 적합한 사람은 교육 행정가로, 번역가로 적 합한 사람은 번역가로 등용되는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각 자는 자신이 봉사할 수 있으며. 봉사하는 것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는 사실은 무서운 노예상태를 의미하는, 그 직업 의 '자유'로부터 평생 해방된다. 그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당파 를 모르고 개인과 직책 사이의 분열이나 공과 사 사이의 갈등을 모르고 성공에 좌 우될 줄을 모른다. 잘 알겠지. 얘야. 사람들이 자유스러운 직업이라고 말할 때. 그 '자유스러운'이란 말은 상당히 반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란다."

에쉬홀츠로부터의 작별은 크네히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의 뚜렷한 분기점이었 다. 지금까지 그는 행복한 소년 시절을 거의 별다른 분제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질 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며 지내온 것이었지만 이제는 투쟁과 발전과 문제의 시기 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머지않아 상급학교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열일곱 살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도 그런 통지를 받았 다. 이제 한동안 이 선택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각자가 어느 곳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가 되었다. 학생들이 가 게 되는 장소는 출발하기 며칠 전에 가서야 비로소 각자에게 통지되는 것이 예부 터의 관례였다. 졸업식과 떠나는 날 사이의 기간은 휴가였다. 이 휴가 기간에 크네 히트에게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음악명인이 그를 도보여행 을 하여 자기에게로 와서 며칠간 손님으로 머무르라고 초대했던 것이다. 흔히 볼 수 없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학을 하게 된 한 학우와 함께—크네히트는 아직 에쉬홀츠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 단계의 학생들은 혼자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숲과 산을 향해 길을 떠 났다. 나무 그늘 속을 세 시간 걸어 올라가 두 사람이 시야가 확 트인 산등성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발 아래로 에쉬홀츠가 벌써 조그마해진 모습으로 펼쳐 져 있는 것을 쉽게 내려다볼 수 있었다. 시커먼 덩어리가 되어 서 있는 다섯 그루 의 그 큰 나무들,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는 수영장과 높이 솟은 학교건물을 거 느린 잔디 덮인 사각 모양의 광장, 농장들, 작은 마을, 유명한 물푸레나무 숲으로 써 아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두 소년은 서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우리들 가운 데 많은 사람은 이 광경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의 그 광경은 오늘날의 그것과 별 로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큰 화재가 있고 난 뒤 건물들은 거의 이전 모습대 로 복구가 되었으며, 그 큰 나무들 가운데 세 그루는 화재의 피해를 면하고 살아남 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작 별을 고하게 될, 수년 전부터의 자신들의 고향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그 광경으로 인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아름다운 걸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 하고 요제

프를 동행하는 친구가 말했다. "아, 그렇지. 저것을 작별을 고하고 떠나야 할 그 무엇으로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바로 그래." 크네히트가 말했다. "네 말이 맞아. 나에게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에쉬홀츠를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떠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거야. 제대로 떠난 사람은 그야말로 영원히 가 버린 그친구들, 예를 들어 라틴어로 그렇게도 훌륭하고 재치 있는 시구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오토나 물 밑에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헤엄을 칠 수 있었던 우리 친구 샤를마뉴그리고 다른 친구들뿐이었어. 그들은 그야말로 작별을 하고 떠나 버렸지. 그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된 지는 오래였는데 지금 다시 그들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구나. 나를 비웃어도 좋아. 하지만 이 낙오자들은 나에게 있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을 끄는 면이 있어. 배신한 천사 루치퍼가 어떤 위대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며 무엇인가를 달성했던 거야. 그들은 하나의 비약을 감행했으며 그걸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지. 우리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근면과 끈기와 이성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우리는 비약하지 않았던 거야!"

"잘 모르겠어." 친구가 말했다. "그들 중의 많은 사람은 무엇을 한 것도 감행한 것도 아니었어. 그들은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퇴학당하게 되었던 거야. 그러나 어쩌면 내가 네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네가 말한 비약이란 대체무슨 뜻이니?"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 무언가를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야말로 비약을 의미하는 거지! 나는 내 옛날 고향에서의 이전 생활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는 않아. 그것에 내 마음은 끌리지 않아. 나는 이전 고향은 거의 잊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언젠가 때가 와서 꼭 그럴 필요가 있게 되면 나도 한번 벗어나 비약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사소하고 하찮은 것 속으로 그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높은 것을 향해서 말이야."

"그렇고말고. 사실 우리는 높은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에쉬홀츠는 한 단계였

으며, 다음 단계는 좀 더 높을 거야. 마지막엔 종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하지만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자, 다시 떠나도록 하자. 걷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야. 걸으면 기분이 다시 좋아질 것 같구나. 그만 아주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고 말았어."

이런 분위기와 말은 그 친구가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인데 이 속에 이미 크네히트의 청년시절의 격정에 찬 시기가 예고되고 있다.

이틀 동안 도보여행을 하여 그들은 당시 음악명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방인, 고지에 위치하고 있는 몬테포르트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는 이전의 수도원에서 명인은 지휘자들을 위한 강습을 막 하고 있는 중이었다. 친구는 여관에 묵게되었으며 크네히트는 명인의 집에 있는 작은 방에서 머무르게 되었다. 거기서 그가 배낭을 풀어 놓고 세수를 하기가 바쁘게 주인이 들어왔다. 점잖은 그 사람은 청년과 악수를 하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아서, 몹시 피로할 때 그러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 그는 다정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리 좋은 주인이 못 되는가 보구나. 너는 방금 도보여행을 마친 것이니 피로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피로하다. 내 일과는 좀 지나칠 정도로 짜여 있거든. — 그러나 네가 지금 벌써 졸리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당장에 너를 한 시간 동안 내 방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 너는 여기서 이틀을 머무를 수 있다. 내일 너는 너와 같이 온 친구를 내 집으로 식사에 초대해도 좋다. 그러나 섭섭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 너를 위해 필요한 몇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지. 바로 시작해야 하지 않겠니?"

그는 크네히트를 둥근 천장이 있는 큰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낡은 피아노한 대와 두 개의 의자가 있을 뿐 다른 가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의자에 그들은 앉았다.

"머지않아 너는 다른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게다." 명인이 말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 텐데, 그 가운데는 재미있는 것도 많지. 아마 유리알유희도 좀 맛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명상을 배우는 일이다. 겉으로야 누구나가 다 그걸 배우고 있지만 모두가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올바르게 잘 배우기를 바란다. 음악을 배울 때와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러고 나면 그 밖의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된다. 이때문에 내가 너에게 두세 가지 내용을 직접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초대한 이유였다. 그러면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날마다 한 시간씩 명상을 해보기로 하자. 그것도 음악을 통해서 말이다. 너는 지금 우유를 한 잔 받게 될 것이다. 갈증이 나거나 배가 고파서 지장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저녁식사는 나중에나 들어오게 될 것이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우유가 한 잔 들어왔다.

"천천히 마셔라, 천천히." 노인이 주의를 주었다. "서두르지 마라.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아주 천천히 크네히트는 차가운 우유를 마셨다. 존경하는 노인은 맞은편에 앉아서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주 늙어 보였지만 다정스럽게 여겨졌다. 노인의 얼굴은 평화스런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로에 지친 사람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듯 자기 자신의 생각에 깊이 잠겨 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로부터는 안정의 기운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것을 느꼈으며, 그래서 그의 마음도 안정이 되었다.

이제 명인은 자리에 앉은 채 몸을 돌려서 두 손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하나의 주제를 연주했으며, 그것을 다양하게 변주해 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그것은 어느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인 것 같았다. 그는 손님에게 그 음악의 진행을 하나의 무용으로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련의 균형연습으로서, 평균대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크고 작은 발걸음의 연속으로서 상상해 보라고, 이 발걸음이 만들어 내는 형상 외에는 어떤 다른 것에도 마음을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 소절을 다시 한 번 더 연주했으며, 그에 대해 아무 말 없이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그 소절을 또 한 번 더 연주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놓은 채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꼼짝하지 않고 눈을 반쯤 감은 채마음속으로 음악을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도 마음속으로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조각난보선들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고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걸어가고 춤추고

떠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이 운동을 날아오르는 새가 만들어 내는 곡선들로 이해하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 곡선들은 다시 서로 얽혀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잠시 동안 집중된 정신이 풀리게 되자 그는 공허 속에 놓이게 되었다. 당황해하며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 명인의 얼굴이 창백한 모습으로 희미한 빛 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제 그는 잠시 전에 빠져 나왔던 그 정신적인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그 안에서 음악이 울리고 있는 것을 다시 들었으며, 그 안에서 음악이 걸으며 운동의 선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춤추는 발을 보면서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 공간에서 다시 빠져나와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돗자리가 깔려 있는 돌바닥, 희미해져 있는 창밖의 저녁 빛을 다시 느끼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이 생각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가쳐다보았을 때, 그의 시선은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고 있던 음악명인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다. 명인은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게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그리고는 한 손가락으로 그 이탈리아 음악의 마지막 변주를 나직하게 연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라." 명인이 말했다. "내 다시 올 테니까. 네 마음속에서 그음악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해라. 그 형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이건 어디까지나 유희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다 잠이 든다 해도 전혀 상관없다."

명인은 갔다. 꽉 찬 하루 일과가 남겨 놓은 또 하나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즐거운 일도 아니었으며, 그가 원하는 일도 아니었다. 지휘자 강습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재능은 있으나 허영심이 많고 거만한 학생이 하나 있었다. 명인은 이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에게 불손한 태도를 지적해 주고 올바르지 못한 점을 깨우쳐 주어야 했으며, 그에게 자신의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월한 태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권위를 보여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명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궁극적인 질서란 없는 것이며, 인

식된 오류들의 근절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로구나! 끊임없이 되풀이해 똑같은 실수들과 싸우고, 똑같은 잡초들을 뽑아내야 한단 말인가! 뚜렷한 성격을 갖추지 못한 재능, 위계질서를 모르는 숙련된 기술, 이것들은 일찍이 잡문시대에 음악 활동을 지배했지만 음악이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뿌리가 뽑혀져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느새 다시 이것들이 푸른빛을 띠며 자라나 싹을 틔우고 있는 것이었다. 요제프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할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명인은 요제프가 조용하지만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전혀 피로해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소년은 꿈을 꾸고 있기라도 하듯이 말했다. "그러고 있는 동안 음악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음악이 다른 무엇으로 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마음속에서 그 음악이 다시 울리도록 해 보아라." 명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크네히트를 한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빵과 과일이 차려진 식탁이 준 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했다. 명인은 그에게 내일 잠시 지휘자 강습에 참 가하라고 말했다. 소년을 방으로 데려다 주고 돌아가기 전에 명인은 크네히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명상을 하는 중에 너는 무엇을 보았을 거야. 음악이 형상으로서 나타났던 것이지. 혹시 그러고 싶은 기분이 생기거든 그 형상을 그려보도록 해라." 크네히트는 손님방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과 몇 자루의 연필이 놓여 있는 것을 보 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그 음악이 변해서 되었던 형상을 그려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한 줄의 선을 그었다. 그러고는 그 선으로부터 비스듬하게 뻗치는 형태 로, 사이에 각기 다른 간격을 두고서 몇 개의 짧은 선을 옆으로 그었다. 그러자 이 형상은 나무 가지에 차례로 매달린 잎 같은 것을 연상시켰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형상은 그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듭거듭 그려 보고 싶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 장난삼아 그 선을 구부려 원으로 그려보 았다. 그러자 이 원으로부터 옆선들이 방사선처럼 뻗치는 것이었는데. 그 형상은 둥근 화환에 꽂혀 있는 꽃들과 흡사했다. 그러고 난 뒤 그는 자리에 누웠으며 바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제 친구와 함께 쉬었던. 나무 숲 위의 그 산등성이 에 다시 올랐으며, 발 아래로 그 사랑스러운 에쉬홀츠가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 다. 내려다보고 있는 중에, 사각 모양으로 둘러 서 있던 학교 건물이 허물어져 내려 타원형을, 이어서 원형·화환을 이루었다. 화환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회전했다. 마지막에 가서는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더니 터져서 번쩍이는 별들 사이로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벌써 그는 이 꿈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명인이 혹시 꿈을 꾸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꿈에서 무슨 좋지 못한 일이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을 겪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 꿈을 다시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다. 그는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내용의 황당함에 대해 의아스러워 했다. 명인은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대체 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요제프가 물었다. "꿈은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명인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간단하게 말했다.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걸음 걸어가더니 그는 아버지와도 같이 다정하게 물었다. "대체 너는 어느 학교에 가장 가고 싶으냐?" 요제프의 얼굴 이 약간 붉어졌다. 하지만 요제프는 이내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발트첼에 있 는 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명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 다. 너는 'Gignit autem artificiosam…'이라는 옛날 속담을 잘 알고 있겠지?"

여전히 얼굴을 붉힌 채 크네히트는 어느 학생이나 잘 알고 있는 그 속담을 이렇게 보충하며 말했다. "Gignit autem artificiosam lusorum gentem Cella Silvestris." 이를 독일어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발트첼은 유리알유희연기자라고 하는 기교가 풍부한 사람들을 배출한다."

노인은 다정한 눈길로 요제프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어쩌면 네가 갈 길인지도 모르겠구나, 요제프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리알유희에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리알유희는 예술의 대용품이고 유희연기자는 통속작가나마찬가지라 더 이상 결코 정신적인 사람들로 볼 수 없다고, 유희연기자들은 그저제멋대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말들 중에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너는 앞으로 잘 알게 될 것이 다. 어쩌면 너는 그것이 장차 너에게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 이상으로 그 것에 신뢰를 보내는 형태로 지금 유리알유희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 구나.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유리알유희가 위험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리알유희를 좋아한다. 위험하지 않는 길에는 약한 사람들만을 보내는 법 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도 자주 일러 주었던 그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대립되는 것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일이다. 즉. 우선은 대립을 대립으로서 인식하지만 그 다음에는 바로 대립을 하나 의 통일체의 양극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유리알유희와 관련해서도 사정은 이와 마 찬가지이다. 예술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이 유희를 좋아한다. 그걸 통해 그는 상 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엄격한 전문 학자들은 유리알유희를 경 멸한다. —음악가들 가운데도 그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 유희는 개별 학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엄격한 규율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 한다. 좋아, 너도 이런 대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것 이 대상의 대립이 아니라 주체의 대립이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 공상적인 예술가 가 순수한 수학이나 논리학을 피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가 수학이나 논리학에 대 해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고 그것에 관해 무슨 할 말이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본능 적으로 어떤 다른 것에 그의 마음이 끌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 이다. 그렇게 본능적이고 격렬한 애정이나 혐오를 보이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인 간들이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위대한 영혼이 나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격정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우 리 모두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의 시도이고 하나의 도상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완전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도상에 있어야 한다. 중심 을 향해서 노력을 경주해야지 지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잘 새겨들어라. 우리는 엄격한 논리학자나 문법학자이면서 동시에 공상이나 음악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 다. 우리는 음악가나 유리알유희연기자이면서 동시에 법칙이나 질서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는 인간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인간은 언제고 자신의 학문이나 예술을 다른 모든 학문이나 예술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은 유리알유희를 통해서 지극히 명쾌한 논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며, 문법을 통해서 한없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어떤 순간, 어떤 위치로 우리를 옮겨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저항하거나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네히트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애정이나 혐오를 보여 주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보다 정열적인 사람들인 것이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보다 조용하고 보다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명인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나 할 수 있고 또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으려면 분명히 정신력이나 활기나 열정이 모자라서는 안 되고 넘치고 있어야지. 네가 정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신력이 아니라영혼과 외부세계 사이의 마찰이다. 정열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진정한 욕구나 노력의 넘치는 힘이 존재하지 못하고, 그 정열은 개별적이고 그릇된 목표를 지향하게된다. 따라서 긴장과 숨 가쁜 상태가 분위기를 지배하게 된다. 욕구의 최고의 힘을중심으로, 진정한 존재로, 완전한 것으로 향하게하는 사람은 정열적인 사람보다더 조용하게 보인다. 그의 정열의 불길이 언제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토론을 할 때 그런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휘두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도 틀림없이 속으로는 이글거리고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아, 제발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네히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의학설이,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모순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서로 어긋나고 있고 어느 곳에도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세계사를 발전이며 진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그 속에서 쇠퇴와 불합리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진정하고 타당한 학설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명인은 요제프가 이렇게 격렬하게 말하는 것을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명인은 조금 더 걷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진리란 존재하는 거란다. 얘야! 하지만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학설'은, 그것만으로써 완전하게 현명해질 수 있는 절대적인 학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얘야, 너도 완전한 학설을 애타게 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네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신성은 네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이런저런 개념이나 책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란 체험되는 것이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다. 싸울 각오를 단단히 해라, 요제프 크네히트.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 같구나."

이 며칠 동안에 요제프는 처음으로 존경하는 명인의 일상 생활과 업무를 엿보았 다. 명인이 매일매일 하는 일 가운데 작은 부분만을 볼 수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 았지만 요제프는 그에 대해 적잖이 감탄하게 되었다. 그의 마음이 명인에게 빼앗 기게 되었던 것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명인이 그를 그토록 보살펴 주고 그를 초대 해 주었으며, 과중한 일을 맡고 있어 때로 몹시 피로해 보이기도 하는 명인이 자신 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명인은 그를 위해 시간만 내준 게 아니었다. 나중에 가서 요제프가 그렇게 평가할 줄 알 게 된 것이지만 명상에 대한 처음의 그 지도가 그에게 그렇게도 깊고 또 오래 지속 되는 인상을 주었던 것은 특별히 섬세하거나 독창적인 기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인격, 즉 명인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다. 그 다음 해에 그에게 명상을 지도해 주었던 선생들은 더욱 많은 지침과 더욱 정교한 이론들을 가르쳐 주고 더욱 엄하 게 감독하며 더욱 많은 질문을 하고 더욱 많은 것을 고쳐 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이 청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음악명인은 거의 아무 말도 하 지 않았으며 또 거의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사실 명인은 주제만을 제시하고 서 그 스스로 모범을 보일 뿐이었다. 크네히트는 가끔 아주 늙고 쇠락한 모습을 보 이던 명인이 눈을 반쯤 감은 채 명상에 잠기고 나면 다시 매우 조용하며. 매우 힘 차고 명랑하고 다정한 눈빛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았다. —근원으로 이르는 길 을, 불안의 상태로부터 안정의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이보다 더 절실하게 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달리 없었을 것이다. 무슨 문제에 대해 명인이 혹 말 로써 설명해야 할 것이 있을 경우, 그 문제와 관련되는 이런저런 설명의 말을 크네히트는 대개 잠시 산책할 때나 식사할 때 들었다.

우리가 알기로 당시 크네히트는 명인으로부터 유리알유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최초의 안내와 지도를 받았지만 이와 관련해 전해 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다. 요제 프는 자기를 초대해 준 주인인 음악명인이 자기와 함께 간 친구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친구가 자신이 그저 수행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기분을 그리 강하게 느끼지 않도록 해 준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사람은 모든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몬테포르트에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세 차례 명상수업을 받고 지휘자 강습을 참관하고 명인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눈 것은 크네히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체험이었다. 결국 명인은 자신이 잠시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분명히 가장 효과적인 시기를 선택했던 것이었다. 그가 크네히트를 초대한 주목적은 이 청년의 가슴에 명상의 의의를 새겨두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이 초대는 그 자체로, 즉하나의 영예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시로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 것은 제2단계의 소명이었다. 크네히트는 카스탈리엔 내부의 여러 영역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열두 명의 명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단계에 있는 학생을 그처럼 가까이 부른다고 하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한 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작별할 때 두 학생은 작은 선물을 받았는데 요제프는 바흐의 성가 전주곡 두 편이실린 악보책을 받았으며 친구는 아름답게 장식된 호라티우스의 문고본 한 권을 받았다. 크네히트를 떠나보내면서 명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 후면 너는 어느 학교로 가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곳으로 나는 에쉬홀츠로 가던 만큼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몸에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싶은 기분이 들 경우 일 년에 한 번 나에게 편지를 보내 주면 좋겠다. 특히 너의 음악공부의 진행과정에 대해말이다. 선생들에 대한 비판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만 나는 비판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네가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카스탈리엔은 그저 단순히 재능 있는 자들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카스탈리엔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계층조직이라야 한다.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가 오로지 전체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 되어야한다. 이 전체로부터 빠져나가는 길은 없다. 보다 높은 지위로 올라가서 보다 큰과업을 맡게 되는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뿐이다. 그럼 잘 가게, 젊은 친구. 네가 여기 와 준 게 나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두 사람은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올 때보다 더 즐거웠으며 더 많은 이야 기를 나누었다. 며칠 동안 다른 공기를 마시고 다른 풍경을 보아서 다른 생활환경을 접하게 되어서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 에쉬홀츠와 그곳에서 느꼈던 이별의 감정으로부터 더욱 자유롭게 벗어나게 되어 앞으로의 변화와 미래에 더욱 기대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숲 속에서와 몬테포르트 근처의 비탈진 골짜기 위쪽에서 몇 번 쉬었을 때 그들은 호주머니에서 나무로 만든 피리를 꺼내 이중주로 몇 곡의 노래를 불렀다. 학교 건물과 나무들이 내려다보이는, 에쉬홀츠를 굽어보고 있는 바로 그 산등성이에 그들이 다시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 두 사람에게는 이전에 그곳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이미 까마득한 옛날의 일인 것같이 생각되었다. 사물들은 모두 새로운 변모를 보여 주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빨리 아무런 내용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기분과 말들을 그 당시에 가졌던 것에 대해 약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에쉬홀츠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관해 듣게 되었다. 크네 히트는 발트첼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발트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속담은 이 유명한 학교에 대해 "발트첼은 유리알유 희연기자라고 하는 기교가 풍부한 사람들을 배출한다"고 말하고 있다. 카스탈리엔 의 제2. 제3단계의 학교들 가운데서 이것은 예술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학교였다. 다른 학교들에서는 아주 명백히 특정 학문이. 예를 들어 코이퍼하임에서는 고문한 학, 포르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스콜라철학의 논리학, 플란바스테에서는 수 학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와는 달리 발트첼에서는 전통적으로 보편성이, 즉 학문과 제 예술의 결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장려되고 있었다. 그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가 장 잘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유리알유희였다. 물론 다른 모든 학교에서와 마찬가지 로 여기에서도 유리알유희가 공식적으로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은 아 니었다. 발트첼의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는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유리알유희에 바쳐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발트첼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는 사실 공식적인 유리알유희와 그것과 관련되는 여러 시설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이곳에는 장엄 유 희들을 할 수 있는 유명한 유희관이 있었으며, 직원들과 도서관들을 거느리는 거 대한 유희기록보관소가 있었다. 유희명인의 관사도 이곳에 있었다. 이 모든 시설 들은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고 학교는 또 그것들과 어떤 식으로도 결합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그와 같은 시설들이 뿜어내는 정신이 지배하 고 있었으며, 그곳의 공기 중에는 대규모의 공식적 유희가 풍기는 성스러운 기운 같은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이 작은 도시 스스로는 하나의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유희도 가꾸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주민들 사이에서 학생들은 '대학생'이라 불렸으나. 유희학교의 연구생들이나 청강생들은 "루제르" 라 불렸는데, 이 말은 '루조레스'라는 말의 변형이었다. 발트첼의 학교는 카스탈리 엔에 있는 모든 학교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학교로서 학생 수가 지금까지 60명 정도 를 넘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도 이 학교는 분명히 어딘가 특 별하고 귀족적인 면모를 지니게 되었으며, 무엇인가 특출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 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소수의 집단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 존경할 만 한 학교로부터는 지난 수십 년 간에 걸쳐 많은 명인과 모든 유리알유희명인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발트첼에 대한 이런 화려한 명성에 이론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은 발트첼 사람이 허풍을 떠는 문예 애호가이며 버릇나쁜 왕자 같은 사람이라서 유리알유희 외에는 어느 것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때때로 다른 학교들에서는 발트첼 사람들에 대해 그야말로 짓궂고 신랄한 말들이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날카로운 농담이나 비판이야말로 바로 질투와 시기를 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어쨌든 발트첼로 가게 되는 것은 분명히 명예로운 일이었다. 요제프 크네히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야심이 컸던 것은 아니었지만이 영예로운 일을 즐겁고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받아들였다.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는 걸어서 발트첼에 도착했다. 대단한 기대감에 넘치고 마 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춘 채 남문을 통해 걸어 들어간 그는 이내 갈색의 매우 오래 된 작은 도시와, 학교가 그 안에 들어서 있으며 엄청나게 넓게 펼쳐져 있는 이전의 치스터친저 수도원의 모습에 마음이 빼앗기고 매혹 당하게 되었다. 새 옷으로 갈 아입기도 전에, 학교 수위실에서 간단한 환영 식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그는 자신 의 새 고향을 살펴보기 위해 혼자 길을 나섰다. 이전 도시의 외벽이 허물어진 자리 를 지나 강 위로 나 있는 길을 발견한 그는 아치형으로 생긴 다리 위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물방아 둑에 부딪치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동묘지를 지나 보 리수나무 가로수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는 높은 울타리 너머에 비쿠스 루소룸이, 즉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이 사는 작은 특별구역이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축제관, 기록관, 강의실, 영빈관 그리고 교사들의 관사로 이루어 져 있었다. 이 관사들 중의 하나로부터 유리알유희연기자의 차림을 한 어떤 사람 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때 그는 이 사람이 전설적인 유희연기자들 중의 한 사람일 거라고, 아니 어쩌면 유희명인 자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런 분위기가 자아내는 마력을 강하게 느꼈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오래되고 근엄하며 성스럽고 전통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여기는 에쉬홀츠 보다 한 걸음 더 중심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유리알유희 구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다른 마력을 느꼈다. 근엄한 감은 덜할는지 모르지만 적 지 않게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마력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 작은 도시의 풍경 이었다. 장사 일과 개와 어린아이가 있고, 가게와 수공업의 냄새를 풍기고, 가게 문 뒤에 수염을 기른 남자들과 뚱뚱한 여인네들이 있고, 떠들며 노는 아이들과 조 롱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처녀들이 있는 세속적인 세계의 작은 한 부분이었다. 많은 것들이 그로 하여금 멀리 떨어진 이전 세계들. 특히 베롤핑엔을 생각하게 했 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잊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금 그의 깊은 속마음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즉 여러 가지 모습들과 소리들과 냄새들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에쉬홀츠의 세계가 그랬던 것보다 덜 조용하기는 하지만 더욱 다채롭고 더욱 풍부한 세계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같이 여겨졌다. 그러나 학교는 몇몇 가지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우선은 이전 학교의 정확한 연장이었다. 여기서 진실로 새로운 것은 명상연습뿐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서도 그는 사실 이미 음악명인을 통해 어느 정도 맛을 본 터였다. 그는 명상에 잠 기기를 즐겨했지만 처음 얼마 동안은 그것을 기분 좋게 긴장을 풀어주는 유희 이 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후에 가서야 비로소-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 급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의 진정하고도 높은 가치를 체험으로써 깨닫게 될 것이었다. 발트첼 학교의 교장은 학생들이 다소 두려움을 느끼는 독특한 인물로 서 그 이름이 오토 츠빈덴이었는데 당시에 벌써 60에 가까운 나이였다. 학생 요제 프 크네히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록들 가운데서 많은 것은 그의 아 름답고도 정열적인 필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청년의 호기심을 불러일 으킨 것은 선생들이 아니라 동급생들이었다. 그는 특히 두 명의 동급생과 활발하 게 교제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되고 있다. 바로 처 음 몇 달 동안에 벌써 그가 가까워지게 되었던 한 친구인 카를로 페로몬테(그는 후 에 음악명인의 대리인으로서 교육국 내 2인자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크 네히트와 같은 나이였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16세기의 라우테 음악의 양식사를 남 겼다. 학교에서 그는 '쌀벌레'로 불렸으며 호감이 가는 유희친구로 여겨졌다. 요제 프와의 그의 교제는 음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해에 걸쳐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이런 연구와 연습에 대해 우리는 크네히트가 음악명인에게 보낸, 드물기는 하지만 내용이 풍부한 편지들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런 편지들 가운데 맨 처음의 편지에서 크네히트는 페로몬테를 "풍부한 장식법과 장식음, 전음 등이 사용되는 음악의 전문가요 달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크네히트는 그와 함께 쿠프랭이나 퍼셀 그리고 1700년경의 다른 대가들을 연주했다. 그 편지들 가운데 하나에서 크네히트는 그런 연습과, "많은 곡의 경우 거의 모든 음표 위에 장식음이 붙어 있는" 음악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이처럼 몇 시간 계속 반복음과 상발음과 하발음만을 두드리게 되면 손가락에 전기가 흐르는 듯합니다." 이렇게 그는 계속해서 쓰고 있다.

음악에 있어서 그는 실로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었다. 발트첼 시절의 둘째 해인 가 셋째 해에 그는 모든 세기와 양식의 기보법과 음표 기호와 약 부호와 숫자가 붙 은 저음을 어느 정도 유창하게 읽고 연주했다. 그는 손재주에서 시작하고, 감각적 인 것과 기술적인 것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정신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독특한 방식으로 보존되어 있는 한의 서양음악의 왕국에 정통해 있었다. 감각적인 것을 파악하려는 바로 이 같은 열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음악 양식 속에 들어 있는 감각적인 것 · 음향적인 것, 즉 여러 가지 청각적인 인상들로부터 그 양식의 정신을 읽어내려는 노력 때문에 그는 아주 오랫동안 유리알유희의 초보적인 단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후일 그는 강의에 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유리알유희가 음악에서 추출해 놓은 핵심적인 내용 을 통해서만 음악을 알고 있는 사람은 훌륭한 유리알유희연기자일는지는 모르지 만 결코 음악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는 또 역사가라고 할 수도 없다. 음악은 우리 가 그것으로부터 추상해 낸 그 순전히 정신적인 진동이나 도식화된 음의 배열로서 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세기를 통해 음악은 일차적으로 감각적인 것을 즐기는 데서, 즉 흘러나오는 숨결 · 두들겨지는 박자 · 여러 가지 음성이 어우러질 때나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합주를 할 때 생겨나게 되는 다양한 음색이나 마찰 · 자 극을 즐기는 데서 성립되었다. 정신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 운 악기의 발명이나 옛날 악기의 개량, 새로운 조성의 도입과 새로운 구성적 및 화 성학적 규칙이나 금지사항의 도입이 대중의 의복이나 유행과 마찬가지로 언제나하나의 몸짓 · 하나의 외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이런 외형적이고 감각적인 특징들을 감각적으로 철저하게 파악하고 음미해 본 연후에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시대와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음악은 손과손가락 · 입 · 폐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지 두뇌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악보는 읽을 수 있지만 악기를 하나도 완전하게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음악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음악의 역사도 추상적인 양식사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가 음악의 몰락시기에는 언제나 감각적인 것과 양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음악의 몰락 시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크네히트는 음악가 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보였다. 그 가운데에는 초보적인 유리알유희 개론 과목도 들어 있었는데, 학생이 임의대로 택하는 모든 과목들을 그는 음악 때문에 아주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제1학기 말에 교장은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학생 크네히트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으며 학생이 갖는 제반 권리의 입장을 완강하게 고집했다. 그는 교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가 필수과목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면, 선생님께서 저를 나무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4분의 3이나 아니면 그 전부를 음악에 기울인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학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츠빈텐 교장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학생을 마음속에 새겨 두었던 것이며 오랫동안 그를 냉엄한 태도로 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크네히트의 학생시절의 이 독특한 시기는 1년 이상, 대략 1년 반 정도 계속되었다. 아주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되는 성적이었고, 조용히—교장과의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다소 반항적으로 뒤로 물러난 생활을 했으며, 별다르게 눈에 띄는 교우관계도 없었으나 음악 연주에 있어서만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열정으로 몰두했으며, 유리알유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선택과목을 단

념하고 있었다. 이런 젊은이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춘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아주 우연한 일이었고 별로 달 가운 일도 아니었지만 그가 이성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는—고향집에 동생이나 누나가 없는 많은 에쉬홀츠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대단히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었던 것 같이 여겨진다. 그는 많은 독서를 했다. 특히 독일 철학에 대해, 즉 라이프니츠나 칸트 그리고 낭만파 철학자들에 관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 헤겔이 단연 그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았다.

이제 우리는 크네히트의 발트첼 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또 하나의 다른 동급생, 즉 청강생이었던 플리니오 데시뇨리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 을 수가 없다. 데시뇨리는 청강생이었다. 그는 손님으로서, 즉 교육주 내에 계속 머무르고 또 종단에 가입한다는 생각이 없이 영재학교들을 두루 다니고 있는 것 이었다. 가끔 이런 청강생들이 있기는 했지만 물론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다. 당 연한 일이지만 교육국은 영재학교 시절을 보낸 뒤 다시 양친의 집으로, 바깥세계 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을 결코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 전국에는 카스탈리엔이 창설되던 시절에 이 카스탈리엔을 위해서 큰 공 을 세웠던 몇몇 오래된 귀족 가문들이 있었고 이런 가문들에서는 오늘날에 와서까 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능이 그러기에 충분할 경우 가끔 한 자제를 카스탈리엔 영재학교에 보내 청강생 자격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권리는 몇몇 귀족 가문에 있어서는 전통이 되어 있었다. 이런 청강생들은 모든 면에서 여타의 영재학생들과 똑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기는 했지 만 학생들 사이에서 예외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처럼 한 해 한 해 지나감에 따라 고향이나 가정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휴 가 때마다 고향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고향의 풍습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는 까닭에 동료 학생들 사이에서 언제나 손님이나 이방인으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청강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모의 집과 세속적인 인생행로 와 직업과 결혼이었다. 청강생이 교육주의 정신에 감명을 받아서 가정의 동의를 얻어 카스탈리엔에 계속 머무르고 결국 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널리 알려진 정치가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런 청강생이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반 세계의 견해가 영재학교나 종단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시절에 영재학교와 종단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몇 살 아래인 요제프 크네히트가 발트첼에서 만나게 되었던 플리니오 데시뇨리는 바로 이런 청강생이었다. 데시뇨리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재능을 가진 젊은이로 특 히 연설과 토론에서 탁월한 재주를 보였지만 정열적이고 다소 불안정한 성격의 소 유자라서 츠빈덴 교장에게 여러모로 걱정을 끼쳤다. 학생으로서 그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게 행동했지만 청강생으로서의 자신의 예외적인 입장을 망각하고서 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학생들 사이에 동화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투적으로 비 카스탈리엔적이며 세속적인 생활태도를 보였다. 두 학 생 사이에서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 두 사람 모 두 비상한 재주를 타고났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었지만 그 밖의 모든 점에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 대립적이었다. 이런 사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과제로부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끌어내고, 변증법의 법칙에 따 라 대립들 사이에서 또는 대립들을 초월해서 다시금 종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는 대단히 뛰어난 통찰력과 수완을 갖춘 선생이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츠빈덴 교 장이 그럴 만한 재능이나 의지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천재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선생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그에게는 가 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즉 두 학생의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다. 아웃사이더와 혁명 가의 역할을 좋아하는 플리니오는 교장에 대해 언제나 아주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 고 있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요제프 크네히트와는 그의 선택과목 공부와 관련 해 별로 좋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 역시 츠빈덴 교장에게 조 언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음악명인이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를 만나서 도움과 조언을 요청했다. 현명하고 나이든 음악명인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 이 유희를 능란하게 조정했다. 크 네히트의 젊은 시절의 최대의 위험이자 유혹이었던 그 일은 이 명인의 지도하에서 특기할 만한 과제가 되었으며 크네히트는 자신이 그와 같은 과제를 감당할 수 있 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요제프와 플리니오 사이의 우정—적대 관계는 두 가지 주제를 갖는 음악 또는 두 정신 사이의 변증법적 유희 같은 것인데, 그것의 내면적인 전개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먼저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또 마음을 사로잡은 쪽은 물론 데시뇨리였다. 그는 나 이가 더 많고 잘생기고 정열적이며 언변이 좋은 젊은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무 엇보다도 '밖에서 온' 사람이었으며 카스탈리엔 사람이 아니었다. 속세에서 온 사 람이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아저씨와 아주머니,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온갖 규율과 전통과 이상을 갖추고 있는 카스탈리엔이 하나의 단 계, 하나의 과정, 제한된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될 하나의 장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 색다른 존재에게 있어 카스탈리엔은 세계가 아니었으며, 그에게 있어 발트첼의 학 교는 다른 학교와 같은 것이었고. 그에게 있어서 '속세'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수치 스런 일도 형벌도 아니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종단이 아니라 출세가도와 결혼 생활과 정치, 간단히 말해 '현실 생활'이었는데, 이에 대해 카스탈리엔 사람들 은 모두 보다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은밀한 욕구를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카스탈 리엔 사람들에게 있어 이 '속세'는 이전에 참회자들이나 수도승들이 그에 대해 생 각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 즉 가치가 덜하고 금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지 않 게 신비에 차 있고 유혹적이며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플리니오는 자 신이 그런 세계에 속하고 있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 그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럽게까지 여기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아직 소년다운 데가 있고 배우와도 같은 태도로 그러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미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일면을 보이기도 하면서 열심히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견 해와 규범을 카스탈리엔의 그것과 대비시키고. 세속적인 견해와 규범이 보다 낫고 보다 정당하며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인간적인 것임을 선전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했다. 그럴 때 그는 '자연'이니 '건전한 상식'이니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건전한 상식'을 일그러지고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카스탈리엔 학교의 정신과 대립 시켰으며, 유행하는 말이나 거창한 말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조금도 주저하지 않 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우 영리하고 품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서 거칠고 도 전적인 언사에만 치우치지는 않았으며, 발트첼에서 통용되는 토론의 격식들을 상 당히 존중해 주었다. 플리니오는 카스탈리엔의 '스콜라주의적 오만한 정신'에 대해 '속세'와 소박한 인간 생활을 옹호하려고 하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일을 자신이 상 대방의 무기로써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플리니오는 정신적인 교양의 꽃밭을 맹목적으로 짓밟아 버리는 무교양의 사람이 될 생각은 없는 것이었다. 데시뇨리가 어떤 몇몇 학생들의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학생들 뒤편에 서서 말은 하지 않지만 주의를 다 기울이며 요제프 크네히트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벌써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었다. 호기심을 느끼고 놀라워하고 불 안해하면서 크네히트는 이 연사가 하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이 말들을 통해 카스탈리엔에서 권위가 있고 성스럽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가차 없이 비판되 었으며, 크네히트 자신이 그 존재를 믿고 있는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문제시되거 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 물론 크네히트는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말 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대목장의 장사꾼의 말을 듣듯이 분명히 그저 재미 삼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그는 플리니오의 공격적인 말을 비웃거나 진지하게 물리쳐 버리는 반박의 말들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이 플리니오의 주위에는 언제나 몇몇 친구들이 모여들고 있 었다. 그는 언제나 중심이었다. 반박하는 사람이야 있건 없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과 유혹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요제프도 이 활기에 찬 연사 주위에 모 여서 그의 장광설을 들으며 놀라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의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그와 같은 말을 들을 때 불안감을, 아니 공포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는 그런 말들에 섬뜩하리만큼 자신의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느꼈던 것이 다. 그것은 그 말들이 재미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말들은 진정 그에게도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가 이 대담한 연 사의 말에 대해 마음속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존재나 가능성에 대해 알기만 해도 그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회의는 있었다. 처음 에 그것은 그리 심한 고통은 아니었다. 마음이 다소 흔들리고 약간 불안한 기분일 뿐이었다. 격렬한 충동과 양심의 가책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오고야 말았다. 데시뇨리는 자신 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 한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자극적이며 귀에 거슬리기도 하는 말이나 논쟁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 실을 깨닫게 되었다. 말수가 적은 금발의 소년이며 잘 생기고 얌전했지만 다소 수 줍어하는 모습이었다. 데시뇨리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을 때, 이 소년은 얼굴을 붉 히기까지 했으며 어물어물 짧게 대답을 할 뿐이었다. 틀림없이 이 소년은 이미 오 래전부터 자신을 따르고 있었던 거라고 플리니오는 생각했다. 플리니오는 이제 다 정한 태도를 보여서 그에게 보답하고 또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리라고 생각 했다. 플리니오는 오후에 자기 방으로 오라고 그를 초대했다. 그러나 수줍음이 많 고 겁이 많은 이 소년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는 없었다. 플리니오는 소년이 자기를 피하며 대답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년은 그 초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일은 다시 나이가 더 많은 플리니오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 날부터 플리니오는 말이 없는 요제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 력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였으나 나중에 가서는 진정한 마음에서였다. 왜냐하면 그는 요제프가 자신의 상대자라는 것을, 어쩌면 장래의 친구일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반대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 었다. 거듭거듭 그는 요제프가 자신의 가까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열 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꼈지만 이 겁 많은 소년은 그가 가까이 다가가려 고 할 때면 언제나 뒤로 물러서고 마는 것이었다.

이런 태도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오래전부터 요제프는 이런 상대방을 통해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즉 어쩌면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인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하나의 인식이나 계몽이, 어쩌면 또 유혹이거나 위험인 것인지도 모르는 어떤 것이, 여하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무엇이 자신에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플리니오의 여러가지 말이 자신의 가슴속에서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회의와 비판 욕구의 처음 기분

을 친구인 페로몬테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 페로몬테는 그것에 별로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으며, 플리니오를 거만하고 잘난 척하는 녀석이라고 치부하면서 녀석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서는 이내 다시 자신의 음악 연습에 몰두하는 것 이었다. 요제프는 자신의 회의와 불안을 마땅히 교장에게 알려야 하리라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의 그 사소한 논쟁이 있은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교장 에 대해 친밀하고 개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 요제프는 교장이 자신을 이 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다. 나아가 모반자 플리니오에 관한 이야기를 교 장이 결국에 가서는 일종의 중상모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여 더욱 염려스러 웠다. 플리니오가 친구로서 가까이 다가오려 하면 할수록 더욱 고통스럽게 여겨지 게 되었던 이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요제프는 결국 자신의 은인이자 훌륭 한 정신의 소유자인 음악명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하게 되었는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적고 있 다. "플리니오가 저를 동지로 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대화의 상대자 로 삼을 생각인지 저는 아직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유혹에 빠져 불충을 저지르는 것 을 의미하며, 현재 이만큼 카스탈리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의 생활을 파괴하 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돌아갈 양친이나 친구들이 저기 바깥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플리니 오의 가차 없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저는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플리니오의 사고방식 속에는 저로서는 간단하게 부정해 버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또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는 제 마음속의 어떤 목소리에 호소하고 있고, 이 목소리는 가끔 그의 말을 시인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 다. 그런데 이 자연의 목소리는 제가 받은 교육이나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견해 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플리니오가 우리의 선생님들이나 명인들을 승려 계급이라고 부르고 우리 학생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세된 짐승들의 무리

라고 부를 때. 이것은 물론 거칠고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어떤 진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그런 말을 듣고 제 마 음이 이렇게 불안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플리니오는 아주 놀랍고 사람을 의기소 침하게 만드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알유희는 잡문시대로의 전 락이며 여러 가지 예술이나 학문이 사용하는 언어를 해체해서 얻은 기호들을 가지 고서 하는 무책임한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리알유희가 온통 연상으 로 구성되어 있고 온통 유추로써 유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우리의 체 념적인 비생산성이 우리의 정신적 교양이나 입장 전체의 무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든 양식과 모든 시대 음악의 법칙이 나 기교를 분석하지만 그 스스로 어떤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핀다로스나 괴테를 읽고 설명을 하지만 스스로 시를 쓰는 일은 꺼려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난들을 저는 그저 웃어넘길 수 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비난은 아직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비 난이 저의 마음에 가장 심하게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카스탈리 엔 사람들이 스스로 빵을 벌려고 하지 않고 생활의 괴로움과 투쟁을 알지 못한 채, 또 그들의 노동이나 가난이 바로 우리의 사치스런 생활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인류 의 그 한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 채, 인공적으로 길러 지고 있는 노래하는 새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가 말할 때. 이는 정말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친절과 호의를 잘못 이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는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어서 나무라 주십시 오. 저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저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충고의 말 씀 한 마디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 동안은 지금의 이 상태를 이대 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 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제가 너무 약하고 경험이 모자랍니다. 어쩌면 이 게 가장 좋지 않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그리 하라고 엄중하게 명 하시지 않는 한 저는 교장선생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저를 대단히 괴롭히기 시작하고 있는 이 문제로 선생님을 괴롭혀 드리게 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크네히트의 편지에 대한 명인의 회답 역시 서면으로 남아 있었더 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답은 구 두로 이루어졌다. 크네히트의 편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악명인은 몸소 발트첼로 와서 음악시험을 지도하였으며, 그곳에 며칠 머무르는 동안 그의 어린 친구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크네히트의 후일담이 우리에게 알 려 주고 있다. 음악명인은 크네히트를 그리 편안하게 대해주지만은 않았다. 명인 은 크네히트의 학교성적을. 특히 그의 선택과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결과 이 선 택과목의 공부가 너무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 의 일을 시작했다. 그 점에 있어 발트첼의 교장이 옳았던 것이라고 그는 인정해 주 었으며, 크네히트가 교장에게 그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데시뇨리에 대한 크 네히트의 태도와 관련해 명인은 분명한 지침을 제시해 주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서도 츠빈덴 교장과 의논을 하고 난 뒤에야 떠나갔다. 그 결과 데시뇨리와 크네히 트 사이에 함께 체험한 사람들로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미묘한 대결이 펼쳐지 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네히트와 교장 사이에서도 전혀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 관계는, 예를 들어 명인에 대한 관계처럼 친밀하고 신비감에 찬 관계는 여전히 아니었지만 어쨌든 명랑하고 긴장이 해소된 관계였다.

이제 크네히트가 부여받게 된 역할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생활을 결정하게 되었다. 선생들로부터 간섭이나 감시를 받음이 없이 그는 데시뇨리의 우정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향과 공격에 대해 대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음악명인이 그에게 부과한 과제는 카스탈리엔을 그 비판자에 대해 옹호하고, 세계관에 대한 그 논쟁을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요제프가 카스탈리엔과 종단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의 근본원리를 철저하게 익혀서 그것을 거듭거듭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친구 사이가 된 그들 두 사람간의 논쟁은얼마 안 가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그것을 듣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데시뇨리의 공격적이고 풍자적인 어조는 더욱더 세련되어졌으며, 그의 표현은

더욱더 면밀해지고 책임의식으로 차 있게 되었고, 그의 비판은 더욱 구체적이 되 어 갔다. 지금까지 이 논쟁에서 우위에 있었던 사람은 플리니오였다. 그는 '속세'에 서 왔으며 그 속세의 체험과 방식과 공격수단을 갖추고 있었고 또 속세 사람들의 주저함이 없는 태도의 일면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집에서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 누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카스탈리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 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크네히트의 반론을 듣게 되자 그는, 자신이 속 세는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카스탈리엔 사람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는 하지 만 카스탈리엔과 그 정신은 그곳을 스스로의 집으로 삼고 있고 또 카스탈리엔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만큼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에서 자신은 주인이 아니 라 손님이라는 것을, 바깥세계뿐만 아니라 여기 교육주에도 수백 년에 걸쳐 축적 된 경험과 자명한 이치들이 있으며. 여기에도 전통이. 아니 '자연'이 있다는 것을. 이 자연을 그 자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이 자연이 그 대변 자인 요제프 크네히트를 통해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반면에 크네히트는 변호자로서의 자신의 역 할을 다하기 위해서 연구와 명상과 자기 훈련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옹호해야 할 것을 더욱 확실하고 절실하게 익히고 의식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수사적인 면 에 있어서는 데시뇨리가 앞서 있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열정적이고 야심에 찬 그 의 기질 이외에 어느 정도의 세상 경험과 재치가 그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다. 그 는 특히 논쟁에서 지고 있을 때에도 청중을 고려해 넣을 줄 알았으며, 위신을 지키 면서도 재치 있게 물러날 줄을 알았다. 이와는 달리 크네히트는 상대방에 의해 궁 지에 몰리게 될 경우 대략 이런 식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겠 어. 며칠 기다려 줘. 내가 다시 이 문제를 상기시킬 테니까."

이제 이런 관계는 어느덧 점잖은 형식을 취하게 되고, 사실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발트첼 학교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한 요소가되기는 했지만 크네히트의 괴로움이나 갈등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런 사명과 함께 그에게 부과된 고도의 신뢰감과 책임감에 힘입어 크네히트는 그 사명을

다했다. 크네히트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고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의 타고난 역량과 훌륭한 소질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내면적으로 많 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크네히트는 플리니오에 대해 우정을 느끼고 있 었지만 그것은 사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재치가 있는 학우, 즉 세상 물정에 밝고 언변이 좋은 플리니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우정은 친구이자 적수인 플리니오가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서 친구의 모습과 말 · 행동을 통해 알 수 있거나 예감할 수 있게 된 그 낯선 세계, 즉 다정한 어머니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굶주리는 자들이 있고 빈민구제소가 있고 신문이 있고 선거전이 있는 이른 바 저 '실제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크네히트가 카스 탈리엔에 남아 친구들과 산책하고 수영하고 프로베르거의 리체르카리를 연습하고 헤겔을 읽고 있는 동안 플리니오가 방학 때마다 돌아가서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방 문하고 처녀들에게 구애하고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석하고 고상한 클럽의 내빈이 되는, 저 원시적이면서도 세련된 세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었다. 요제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카스탈리엔에 속하며 당연히 카스탈리엔적인 생활, 즉 가족도 그 많은 전설적인 오락도 신문도 고통이나 굶주림도 없는 생활을 영위 한다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플리니오는 영재학교 학생들이 빈둥 거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날카롭게 비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그 도 지금까지 배를 굶은 적이나 자신의 빵을 스스로 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었 다. 정말이지 플리니오의 세계는 결코 더 좋고 더 정당한 세계가 아니었다. 그러 나 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요제프가 세계사를 통해 알고 있는 바였지 만 그 세계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었으며 언제나 오늘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많은 민족들은 그런 세계 이외의 다른 세계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영재학교나 교육 주나 종단이나 명인들 유리알유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대부분은 카스탈리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고 있었다. 더 단순하게, 더 원시적으로, 더 위험하게, 더 위태롭게, 더 무질서하 게 살고 있었다. 이 원시적인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 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가슴속에서 이 세계의 일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나 향수나 연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세계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자신의 가슴속에서 이 세계의 존재를 어느 정도 시인하지만 이 세계로 되돌아가지는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제였다. 그 세계와 나란히, 아니 그 세계의 위에서 제2의 세계가, 카스탈리엔의 세계가, 정신의 세계가, 인공적이고 보다 질서 잡히고 보다 잘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는 감독과 연마를 필요로 하는 세계가, 즉 그 계층조직이 있기 때문이었다. 저 다른 세계를 부당하게 평가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또한 어떤 막연한 동경이나 향수로 그 다른 세계를 엿보지도 않는 가운데 이 정신의 세계에 봉사하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작은 카스탈리엔 세계는 사실 그 큰 다른 세계에 봉사하며, 그 세계에 교사와 서적과 방법론을 제공하는 데 힘쓰며, 자신의 일생을 정신과 진리에 바치는 것을 스스로의 운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학교와 피난처로서 문을 열어 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왜 이 두 세계는 조화롭고 형제처럼 서로 어울려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우리는 이 두 세계 모두를 가슴에 품고 통일시킬 수 없는 것인가?

요제프가 자신의 임무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고 피로해져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느라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던 어느 날 그렇게 자주 오는 편이 아니었던 그 음악명인이 찾아오게 되었다. 명인은 청년이 하는 몇 가지 암시적인 말을 듣고 그런 줄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지나치게 긴장되어 보이는 모습이나 불안에 찬 시선이나 어딘지 모르게 침착성을 잃고 있는 그의 행동에서 그 점을 더욱 분명히 읽을 수가 있었다. 명인은 몇 가지 질문을 해서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불쾌해 하고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질문을 그만두고 말았다. 이로 인해 대단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명인은, 음악상의 조그만 발견을 알려 주려고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이 청년을 한 연습실로 데리고 갔다. 명인은 청년을 보고 클라비코드를 가져오게 해서 음정을 맞추게 한 다음 그에게 한참 동안 소나타 형식의 성립에 관해 특별강의를 했다. 마침내 학생은 자신의 괴로움을 어느 정도 잊고 열중하게 되었으며, 긴장을 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인의 말과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학생에게는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인은 이 학생을 그런 상태로 유도하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끈기 있게 노력했다.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또 그가 자신의 강의를 마치게 되었을 때, 명인은 마지막으로 가브리엘리의 소나타 한 곡을 연주했다. 그러고 난 뒤 명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작은 방 안을 이리저리 천천히 거닐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이 소나타를 아주 열심히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 직 자유로이 연구를 하던 시절의 일이었으며, 내가 교사로 나중에 가서 음악명인 으로 부름을 받기 전의 일이었다. 당시 나는 새로운 관점으로 소나타의 역사를 완 성시켜 보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악적이고 역사적인 그 연구 모두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런 연구들이 진정으로 한가로운 사람들을 위한 공허한 유희나 참되고 실제적인 삶 을 대신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정신적. 예술적 대용물 이상의 것인지 등이 점점 더 의심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때가 다가오고 말았다. 간단히 말해, 나는 모든 연 구와 모든 정신적인 노력과 모든 정신 일반이 우리에게 의심스러운 것이 되고 가 치를 상실하게 되며, 밭을 갈고 있는 농부와 저녁산책을 하는 연인 남녀와 나무에 서 지저귀고 있는 새와 여름의 풀숲에서 우는 귀뚜라미를, 그들이 그렇게도 자연 스럽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나 그들 생활의 시련과 위험과 고통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 위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요컨대 나는 마음의 균형을 상당 한 정도로 잃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결코 즐거운 상태가 아니었다. 그 상태는 정말 견디기 힘들 지경이었다. 나는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 도망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발한 생각들을 해 보았다. 악사로서 세상에 나가 결혼식 무도회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를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옛날 소설 속에서처럼 외 국의 군인을 모집하는 사람이 나타나 나를 보고 제복을 입고 아무 군대나 따라나 서서 아무 전쟁에나 참가하라고 권했더라면, 나는 아마 같이 갔을 것이다. 이후 사 태는 그런 상태에서 흔히 되어 가는 대로 진행되어 갔다. 즉, 내 자신을 아주 잃어 버리게 되었으며, 그 결과 나 혼자서는 어찌해 볼 수 없게 되었고 어떤 도움을 필 요로 하게 되었다."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혼자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는 말을 계속했다. "물론 나에게는 규정에 따라서 연구 고문이 있었다. 그랬으니 그에게서 조언을 구 하는 것이 의당 이치에 맞고 옳은 일이며 또 나의 의무였는지도 모르겠다. 사물 의 이치란 바로 이런 것이란다. 요제프야.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게 되고 정 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곧 시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사람 은 정상적인 길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시정 방법을 찾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법이 란다. 내 연구 고문은 나의 사사분기 보고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엄중하게 나무랐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새로운 발견이나 인식에 이르는 도상 에 들어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비난의 말을 어느 정도 불쾌하게 받아들이 고 있었다. 요컨대 나는 그에게로 가고 싶지가 않았다. 뉘우치는 뜻을 보이고 싶지 도 않았으며 그가 옳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친구들한테 도 나의 괴로운 처지를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나의 이웃에 괴상한 사람이 하나 있기는 했다. 나는 그 사람을 그저 용모를 통해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 었는데, 그는 요가수행자라는 별명을 갖는 산스크리트어 학자였다. 내가 처한 상 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갔다. 어 딘지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괴상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가끔 냉소 를 보내면서도 또한 은근히 경탄해 왔던 그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작은 방으로 찾 아가 그에게 말을 건네려고 했으나. 그가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 그는 인도풍의 의식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으며, 도저히 말을 건넬 수가 없었 다. 그는 은근한 미소를 머금은 채 완전한 무아경에 젖어들어 있었다. 나는 문 옆 에 서서 그가 명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아주 오래 계속 되었다. 한 시간, 아니 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마침내 나는 피로해져서 바 닥에 미끄러져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벽에다 몸을 기댄 채 거기에 앉아서 계 속 기다렸다. 드디어 나는 그 남자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머리를 약간 움직이고 어깨를 폈으며 겹쳐 놓았던 다리를 천천히 풀었다. 일어서려고 했 을 때 그는 나를 보게 되었다. '무슨 용무지?' 그가 물었다. 나는 일어서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서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안드레아 가브리엘리 의 소나타 말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완전히 일어서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그의 의자에다 앉게 하고서는 탁자 가장자리에 걸터앉아서 '가브리엘리라고? 그의 소 나타가 대체 자네한테 어쨌단 말인가?' 하고 물었다. 나는 그동안의 내 처지가 어 떠했던가를, 지금의 처지가 어떤가를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세세 한 일에 얽매인다 싶게 여겨질 만큼 자세하게 나의 이력에 대해. 가브리엘리와 그 의 소나타에 관한 연구에 대해 캐어물었다. 그는 그동안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독서는 몇 시간이나 했는지. 음악 연주는 얼마나 했는지. 어느 시간에 식사를 하 고 잠을 잤는지 알고자 했다. 그에게 나의 속마음을 토로한 처지였기 때문에, 아 니 그의 조언을 들으려 기를 쓰고 달려든 처지였기 때문에, 나는 질문들을 참고 대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기는 했지만 나는 그 질문들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끼 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질문은 점점 더 가혹하게 세부적인 문제로 파고들었다. 지 난 몇 주, 몇 달 간의 내 정신 생활과 도덕 생활이 분석되었다. 그러다 그는, 그 요 가수행자는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내가 영문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대체 자네는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알지 못 한단 말인가?' 정말이지 나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제 그는 나한테 물 어서 알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놀라우리만큼 정확하게 반복했다. 처음에 나타났 던 그 피로감과 불쾌감과 정신적 침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에게, 그런 현상은 막무가내로 지나치게 자유스럽 게 연구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자신과 자신의 힘에 대한 통 제력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통제력을 다시 찾기 에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내가 이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내가 비록 규 칙적인 명상연습을 단념해 버려도 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렇 더라도 적어도 애초의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소홀했던 점을 생각 하게 되어서 그 점을 시정했어야 했던 거라고 그는 지적해 주었다. 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명상을 단념하고 있었으며, 여가를 갖지 못했고, 언제나 불쾌해 하고 산 만해져 있거나, 지나치게 연구에 몰두해서 흥분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는 시일이 지나감에 따라 오랫동안 명상을 중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의식조차 잃어버리게 되었다. 거의 파탄에 이르고 절망에 빠지게 된 그 무렵에 와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죄를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그 황폐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말로 무던히도 애를 썼다. 정신을 집중시키고 깊은 생각에 잠길 수 있는 능력만이라도 점차 회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하는 초보자를 위한 명상연습에 다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방안을 거닐던 명인은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당 시 나의 상태는 그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니 지금에 외서도 좀 부끄럽다. 하지 만 사정은 이런 거란다. 요제프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더 많이 요구하면 할수 록 또는 그때그때의 우리의 과제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할수록 우리 는 샘솟는 것 같은 명상의 힘에, 즉 언제나 새로워지고 있는 정신과 영혼의 조화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또 내가 많은 예를 알고 있지만 -- 때로는 우리를 자극하고 고양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지치게도 하면서 어떤 한 과제가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우리 는 이 힘의 원천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 법인데, 이는 정신적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 는 사람이 쉽게 육체와 그것의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세계 역사에 등장하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명상할 줄을 알았거나 아니면 적 어도 명상을 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그 경지로 나아가는 길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두 결국 실패하거나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과제나 야심에 찬 꿈에 너무 사로잡히고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잃게 되어 현실적인 것에서 거 듭거듭 벗어나고 또 그것에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때문이었 다. 사실 너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처음 명상 연습을 할 때 이미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되니까 말이다. 이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원래의 길에서 한 번 벗어 나 본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엄연한 진실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요제프의 마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그는 자기 자신 이 처하게 된 위험을 감지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명상연습에 임

했다. 명인이 자신의 지극히 사적인 생활의 일단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청년시절과 연구시절의 일면을 처음으로 그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사실은 요제프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도, 명인과 같은 존재도 한 때 젊었던 때가 있을 수 있고 방황을 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존경하는 그 명인이 그를 믿어서 그와 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에 대해 그는 고맙게 생각했다. 사람은 길을 잘못 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규칙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다시 그것들을 이겨내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명인과 같은 존재도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요제프는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

발트첼에서 플리니오와 요제프가 서로 친구 사이로 지냈던 그 2, 3년 동안에 그곳 의 학교는 이 투쟁적인 우정의 전개과정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함께 지켜보았는 데, 이 드라마에는 교장에서부터 가장 나이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조 금씩 참여했다. 두 세계가, 두 원리가 크네히트와 데시뇨리를 통해 구현된 것이었 으며 각자는 상대방을 고양시켜 주었다. 논쟁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가 있는 엄숙하면서도 품위 있는 경연이 되었다. 플리니오가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 아갈 때마다. 고향의 품에 안기게 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제프는 사색에 잠길 때마다. 독서를 할 때마다. 명상연습을 할 때마다. 음악명인 과 다시 만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이 카스탈리엔을 대 표하고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적임자가 되게 했다. 일찍이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소명을 체험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는 두 번째의 소명을 경험 하고 있었다. 그동안의 세월은 그를 완벽하게 카스탈리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이제는 유리알유희의 초보적인 수업을 마친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 이 되었으며, 당시 그는 방학 때를 이용해 한 유희지도자의 감독 하에 독자적인 유 리알유희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여기에서 기쁨과 정신적 긴장완화를 가 져다 주는 풍요롭기 그지없는 한 원천을 발견했다. 카를로 페로몬테와 함께 지칠 줄을 모르고 쳄발로와 클라비코드 연습을 한 이후, 찬란한 유리알유희의 세계에 이렇게 첫발을 들여놓은 것만큼 그를 기쁘게 해 주고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 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의 존재를 보증해 주고 그를 행복하게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페로몬테가 베껴 쓴 형태로 전해지게 되었던. 청년 요제프 크네히트의 그 시들은 바로 이 시절에 씌어졌다. 이 시들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보다 그 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들 가운데서 가장 초기의 것은 크네히트가 아직 유리 알유희에 입문하기 전에 씌어졌던 것인데, 이 시들 역시 그가 자신의 맡은 바 역할 을 수행하고 그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내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시들을 읽어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편에서 보면 정교하지만 또 다른 면 에서 보면 분명히 그저 가볍게 휘갈겨 쓴 것이기도 한 시구들 여기저기에서 당시 크네히트가 플리니오의 영향을 받아서 겪게 되었던 그 깊은 마음의 동요와 위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시행들에는 깊은 마음의 동요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스며들어 있는데. 〈유리알유희〉라는 시에 이르러서는 경건한 헌신의 마음 상태에 어느 정도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그가 이런 시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가끔 이 시들을 친구들에게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에는 벌써 플리니오의 세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 장이, 카스탈리엔의 어떤 규칙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 같은 어떤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카스탈리엔이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의 창작을 단념하고 있는 터이기는 했지만 (거기에서는 음악적인 창작도 양식적인 면에서 엄격한 제약 을 받는 작곡연습의 형태로만 허용되었다) 특히 시를 쓰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 한 일이요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금지된 일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시들은 결코 가벼운 유희가 아니었다. 재미삼아 하는 조각 작품이나 미사여구 놀이가 아닌 것이다. 이 같은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단한 중압이 필 요한 것이었다. 시들을 쓰고 또 그것들을 자신 있게 내보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집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지만 플리니오 데시뇨리 역시 그의 상대방의 영향을 받아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도 그의 투쟁방법을 순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에서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 친밀하면서

도 투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던 이 학창 시절 동안에 그는 상대방이 꾸준히 향상 해서 모범적인 카스탈리엔 사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 교육주의 정신은 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생생하게 다가왔다. 그가 자신의 세계의 분위기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쳐 어느 정도 고양된 상태에 이르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 카스탈리엔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 었으며 그것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 학창 시절의 마지막 해에, 유리 알유희를 배우는 최상급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려 생활의 이상과 그것의 제반 위험에 대해 두 시간에 걸쳐 토론을 하고 난 뒤 그는 요제프와 함께 산책길에 나섰는데, 이 길에서 그는 요제프에게 한 가지 고백을 했다. 페로몬테의 한 편지에 따라 그 고백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 "요제프야, 네가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하 고 있기는 하지만 너는 독실한 유리알유희연기자도 이 주의 숭배자도 아니라는 사 실을 나는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우리 두 사람 모두는 어떤 싸움의 맨 앞자리에 서 있다. 우리들 각자는 자신이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그 상대방의 세계 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그 나름의 부인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너는 고도의 정신도야의 편에 서 있고, 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편에 서 있다. 우리의 싸움을 통해 너는 자연스러운 생활이 갖는 여러 가지 위험을 탐지 해서 그것을 공격의 목표로 삼는 것을 배웠다. 너의 임무는 정신의 도야가 수반되 지 않는 자연스럽고 단순한 생활은 타락으로, 동물적인 것으로 그 이하의 것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지적해 보이는 일이다. 나는 순전히 정신만을 지 향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하며 또 결국에 가서는 비생산 적인가 하는 점을 거듭거듭 일깨워야 한다. 좋아. 각자는 자신이 보다 낫다고 믿 는 것을 옹호한다. 너는 정신을, 나는 자연을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나쁘게 생 각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또 가끔, 너희들이 너무도 소박하게 나를 너희들 카 스탈리엔 생활의 반대자 같은 사람으로.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그 스스로 얼마동 안 카스탈리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함께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들의 연구와 연습 과 유희를 근본적으로 그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 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지게 된다. 아, 친구야, 네가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면 너는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계층조직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없는 애정을 느끼고 있으며 때로 그 계층조직은 행복 그 자체처럼 나를 매료시키고 매혹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는 너에게 고백하고 싶다. 수개월 전 내가 잠시 부모님을 방문하였을 때 내 아버지와 한참 논쟁을 벌여서, 내 학창 시절의 끝에 가서도 내 소원이나 결심이 그런 것일 경우 카스탈리엔에 남아서 종단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내었다는 사실도 나는 너에게 고백하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가 마침내 동의를 했을 때 나는 행복했다. 그러나 나는 이 동의를 결코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나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고 싶은 기분을 잃어 버려서가 결코 아니다. 너희들 곁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의 도피가, 멋지고 고상한 도피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도피가 되리라는 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된 때문인 것이다. 나는 돌아갈 것이며 세속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카스탈리엔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연습 가운데 많은 것을 계속하고 또 해마다 유리알유희 대축제에 참석하는 세속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깊은 감동을 받아서 크네히트는 플리니오의 이런 고백을 친구인 페로몬테에게 전했다. 페로몬테는 예의 그 편지에서 이 이야기에다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다. "내가 그를 언제나 올바르게 평가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플리니오의 이런고백은 음악가인 나에게는 하나의 큰 음악적인 체험이었다. 세계와 정신이라는 대립된 주제가, 또는 플리니오와 요제프라는 대립된 주제가 내 눈앞에서 화해할 수없는 두 원리의 투쟁으로부터 하나의 협주로 승화되어 간 것이었다."

4년간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플리니오는 요제프 크네 히트를 방학 동안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담긴 아버지의 편지를 교장에게 전달했다. 그것은 흔치 않는 무리한 요구였다. 여행을 하고 또 교육주 밖에서 머무르기 위한 휴가 같은 것이, 특히 연구 목적의 휴가 같은 것이 더러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나이가 좀 든 유능한 연구생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었지 학생들에게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다. 어쨌든 그 초대는 명망이 높은 가문의 한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츠빈덴 교장은 그것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여 자기 선에서 거절을 하지 못하고 교육국의 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회부했으며, 교육국은 이어서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 다. 두 친구는 서로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중에 다시 초대하도록 노력하마." 플리니오가 말했다. "언젠가는 꼭 성사시킬 수 있을 거야. 너는 장차 한 번 우리 집과 우리 식구들을 알게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도 그저 구더기 같은 속물이나 장사치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거야. 네가 없어서 나는 몹시 서운할 거야. 어이, 요제프, 복잡한 카스탈리엔에서 속히 출세하도록 해. 너는 계층조직의 일원이 되기에 아주 적합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하인보다는 우두머리 쪽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네 이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너에게는 창창한 미래가 있을 거야. 너는 언젠가는 명인이 될 것이며 고관대작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거야."

요제프는 슬픈 표정으로 플리니오를 쳐다보았다.

"마음대로 비웃어라." 그는 작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며 말했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 야심에 차 있지 않아. 내가 장차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될 때면, 너는 벌써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대학교수나 연방 상원의원이 되어 있을 거야. 마음 변하지 말고 우리들과 카스탈리엔을 생각해 줘, 플리니오. 우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지지는 말아 줘. 아무튼 바깥세계의 너희들 가운데 그곳 바깥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하고 있는 우스갯소리 이상으로 카스탈리엔을 잘 아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야 할테니 말이야."

그들은 서로 악수했다. 플리니오는 떠났다. 발트첼에서의 마지막 해를 요제프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보내게 되었다. 어디까지나 공인의 자격으로 전면에 나서서 힘들게 해오던 일들이 갑자기 끝나게 되었다. 카스탈리엔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옹호자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마지막 해에 크네히트는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유리알유희에 할애했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사로잡게 되었다. 유리알유희의 의미와 이론에 대해 메모를 해 놓은 이 시절의 한 수첩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다. "생명, 즉 육체적 생명과 정신적 생명 전체는 하나의 역동적인 현상인데 유리알유희는 그 근본에 있어서 이 현상의 미적인 측면만을 파악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유리알유희는 이 미적인 측면을 주로 율동적인 과정의 비유를 통해서 파악한다."

연구시대

요제프 크네히트의 나이는 이제 스물네 살가량이었다. 발트첼을 졸업하는 것과 더 불어 그의 학창시절은 끝나고 자유스러운 연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에쉬홀츠에 서의 순진했던 소년시절을 제외하면 발트첼 시절은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명 랑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을 것이다. 학교의 속박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정신적인 세 계의 무한한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며, 아직 어떠한 환상도 잃어버리지 않고, 무한 히 헌신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나 무한한 정신세계에 대해 어떠한 회 의도 품지 않고 있는 청년의 그 거침없는 발견 욕구나 정복 욕구의 주위에는 사실 또 언제나 새롭게 무엇인가 경이로운 것과 가슴 벅차도록 아름다운 것이 나타나 는 것이다. 어떤 한 개별적인 능력 때문에 진작부터 어쩔 수 없이 어떤 한 특수 분 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상 전체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과 보편적 인 것을 지향하게 되는, 요제프 크네히트와 같은 종류의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있 어서는 특히 이 봄날과 같은 자유로운 연구의 시절은 자주 크나큰 행복의 시절이, 아니 거의 도취경의 시절이 된다. 영재학교에서의 사전 훈련이 없다면, 명상연습 을 통한 건강한 정신이 없다면 온건하게 행사되는 교육국의 통제가 없다면 이런 자유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심각한 위험이 될 것이며, 또 많은 사람들에 게 있어서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의 질서가 수립되기 전 시대에, 카스탈리엔이 창설되기 전의 몇 세기 동안에 있어서 이 자유는 고도의 재 능을 갖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위험이요 저주였다. 그 이전 시대의 대학들에는 몇몇 시기에 파우스트적인 기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또 온 힘을 다해서 제 학문과 학문적인 자유라고 하는 드넓은 대양을 향해 나아갔 으나, 무모한 호기심이 빚어내는 온갖 종류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 실 파우스트 자신이 바로 유별난 호기심과 그것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 물이다. 카스탈리엔에서 연구자들이 누리는 정신적인 자유는 과거 시대의 대학들 에서 일찍이 주어졌던 그 자유보다 훨씬 더 크다. 마음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카스탈리엔에서는 야심이나 불안이나 부모의 가난이나 생계와 경력에 대한 전망 등등과 같은 물질적인 고려를 통해서 영향을 받거나 제한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 모든 연구자는 그의 출신이 나 장래의 전망에 관계없이 교육주의 대학이나 연구실이나 도서관이나 기록관이 나 실험실에서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선다. 계층조직은 단지 학생의 지적이고 성 격적인 재능이나 소질에 따라서만 그 단계가 형성될 뿐인 것이다. 한편 카스탈리 엔에는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세속의 대학에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 들을 희생시켜 버리는 자유나 유혹, 위험 같은 것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 론 여기에도 위험이나 마적인 힘이나 현혹이 얼마든지 있지만—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생활이 어디에 있겠는가?—카스탈리엔의 학생은 탈선과 실망과 파 멸의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에게는 주벽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도 없으며, 옛 시대의 학생 세대들이 했던 것과 같은 거창한 활동이나 비밀결사적 인 활동을 하느라 자신의 젊은 시절을 허비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그는 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대학졸업장이 잘못이었다는 사실과 자신이 연구시절에 들어와 서야 비로소 이전의 교육에서 다시는 메꿀 수 없는 결함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발 견하게 되지도 않는다. 카스탈리엔의 질서가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그를 지 켜주고 있는 것이다. 여자에 빠지거나 운동에 탐닉해서 정열을 낭비하게 되는 위 험도 그리 크지 않다. 여자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카스탈리엔의 학생은 온갖 유혹 과 위험이 따르는 결혼 생활도 모르며. 학생으로 하여금 성적인 금욕 생활을 강요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창녀 같은 여자들한테로 내몰았던. 많 은 과거 시대의 그 점잖은 체하는 태도도 모른다. 카스탈리엔 사람에게는 결혼 생 활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따르는 애정의 윤리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카스탈리엔 사람에게는 돈이 존재하지 않고 재산의 소유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고파는 사랑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육 주에서는 시민 가정의 딸들이 그리 일찍 결혼하지 않는 것이 관습인데. 결혼하기 전에 이 딸들은 학생이자 학자인 카스탈리엔 사람을 애인으로 삼기를 아주 열렬히 바란다. 그는 출신이나 재산에 대해 묻지 않으며, 정신적인 능력을 생활능력과 적 어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의 경우 상상력과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고,

돈이 없는 까닭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바치기 때문이다. 카스탈리엔의 학생을 사랑하는 처녀는 그가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묻지 않는다. 사실 그는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이미 일어나기도 했다. 어떤 영재 학생이 카스탈리엔을, 종단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서 결혼을 하여 시민 세계로 되돌아가는 그 드문 경우가 간혹 있기는 했다. 그러나 이런 소수의 변절사건은 학교나 종단의 역사에서 진귀한 일의 역할을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예비학교들을 졸업한 영재학생이 모든 학문분야와 연구 분야를 향해 나아갈 때 누 리게 되는 자유와 자율의 정도는 실로 대단한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나 관심이 처 음부터 모자라는 것이 아닌 한 이 자유는 자유로이 연구하는 사람 모두가 반년마 다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를 통해서만 제한을 받고 있을 뿐인데, 이 계획의 실행여부를 당국은 그리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는다. 다방면에 걸쳐 재능 이 있고 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크네히트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 다.—이 연구시대의 처음 몇 년은 그 폭넓게 주어지는 자유로 인해 무엇인가 대단 히 유혹적이며 매혹적인 점을 지니게 된다. 바로 이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 들에 대해 당국은, 그들이 심하게 방종한 생활로 젖어들지 않는 한, 거의 낙원과도 같은 자유를 허용해 준다. 학생은 마음대로 모든 학문분야를 두루 섭렵할 수 있으 며, 극히 다른 연구 분야들을 서로 결합시킬 수 있고, 여섯 가지나 여덟 가지의 학 문에 동시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소수의 학문에 매달려도 좋은 것이다. 교육주나 종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도덕적인 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 년에 한 차례 자신이 들은 강의와 독서와 연 구소에서의 활동에 대해 보고하는 일뿐이다. 그의 성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관리 와 검토는 그가 전문적인 강좌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데. 유리알유희와 음악대학의 강좌나 세미나도 그중의 하나이다. 물론 이 경우 모 든 연구자는 당연히 공식적인 시험을 치러야 하며 세미나 지도자가 요구하는 논문 을 써야 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이런 강좌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는 여 러 학기나 여러 해 동안 마음대로 그저 도서관에 박혀 앉아 있거나 강의를 듣기만 해도 된다. 어떤 한 개별적인 학문분야에 전념하는 것을 오랫동안 미루고 있는 이 런 학생들은 그로 인해 종단에 들어가는 일이 늦어지게 되지만 그들이 가능한 모 든 학문과 여러 종류의 연구를 두루 섭렵하는 것은 아주 관대히 허락되고, 아니 장 려되고 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외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매 년 한 편의 '전기'를 쓰는 것뿐이다. 때로 조롱을 받기도 했던 바로 이 낡은 관습 때 문에 크네히트는 그의 연구시대에 세 편의 전기를 썼다. 이 전기들은 발트첼에서 생겨난 그 시들처럼 순전히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아니 사실 비밀스럽고 어느 정도 금지되고 있는 형태의 문학 활동인 것이 아니라 정규적이고 공식적인 형태의 문학 활동이다. 젊은 연구생들에게. 즉 아직 종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 끔 특수한 형태의 논문이나 작문을, 즉 임의의 과거 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작성 되는 가공의 자서전, 이른바 '전기'를 쓰게 하는 이 관습은 이미 교육주의 초창기 에 생겨나게 되었다. 학생은 과거 한 시대의 환경과 문화, 즉 정신적인 분위기 속 에 자신을 옮기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존재방식을 생각해내는 과제를 가지 게 되었다. 시대와 유행에 따라서 제정시대의 로마, 17세기의 프랑스 또는 15세기 의 이탈리아,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또는 모차르트 시대의 오스트리아가 선호 되었다.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가공의 자서전을 그것이 전개되는 나라와 시대의 언어와 문체로써 작성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가 끔 1200년 무렵의 로마 교황청의 공용문체나 승려들의 라틴어나 《백 편의 이야기》 의 이탈리아어나 몽테뉴의 프랑스어나 슈반 폰 보버펠트의 바로크식 독일어로 써 진 지극히 훌륭한 전기들이 나오게 되었다. 여기 이 자유스럽고 유희적인 형식 속 에는 재생과 윤회에 대한 동양적인 옛 신앙의 잔재가 계승되고 있었다. 모든 선생 들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현 존재에는 다른 육체로, 다른 시대에서, 다른 조건 하에 서 이루어졌던 이전의 존재들이 앞서고 있을 수 있다는 관념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러나 이것은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의 신앙은 아니었으며 학설은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다른 상황이나 환경에서 생각해 보는 상상력의 연습이며 유 희였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문체비평적인 많은 세미나를 통해서나 종종 유리 알유희를 통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과거의 문화와 시대와 나라 로 침투해 들어가는 연습을 했으며. 자기 개인을 근원적인 힘의 가면이나 무상한 현상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전기를 쓰는 관습은 그 나름의 매력과 많 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관습은 아마도 그렇게 오래 지속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연구생들은 윤회의 이념을 어 느 정도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고안해 낸 전기의 진실성도 믿고 있었 다. 말할 것도 없이 상상적으로 그려낸 이런 전생의 모습들의 대부분은 문체연습 이나 역사적 연구일 뿐만 아니라 소망의 상이나 승화된 자화상이기도 하기 때문이 었다. 전기들의 작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 성격으로 자신을 실현시키 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이상이 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그 성격으로 자신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 전기들은 젊은이들이 갖는 문학적인 욕구를 충족시 켜 주는 합법적인 통로이기도 했는데, 이는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 그리 나쁜 생각 이 아니었다. 진정하고도 진지한 시작(詩作)이 몇 세대 전부터 금지되고 또 학문을 통해서나 유리알유희를 통해서 대체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갖는 예술가적 형상화의 충동이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었다. 이런 충동은 때로 짧 은 소설로까지 확대되기도 했던 그 전기에서 합법적인 활동무대를 발견하게 되었 다. 이때 많은 작자들은 또한 자기인식의 영역으로 첫발을 내딛을 수도 있는 것이 었다. 연구생들이 자신들의 전기를 오늘날의 세계나 카스탈리엔에 대해 비판적이 고 혁명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는데, 이럴 경우 선 생들은 그것을 대개 호의적으로 이해해 주었다. 그러나 이밖에 또 이 전기들은 연 구생들이 더없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어떤 엄격한 통제도 받지 않는 바로 그런 시 기에 있어서 선생들에게 아주 많은 내용을 시사해 주었으며. 작자의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생활이나 상태에 대해 때로 놀랄 만큼 정확한 정보를 선생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요제프 크네히트가 작성한 전기는 세 편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뒤에 가서 그것을 원문 그대로 전할 것인데, 우리 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가 이 세 편의 전기만을 썼던 것인지, 이런저런 다른 전기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분명하

게 알고 있는 것은 크네히트가 세 번째. "인도식" 전기를 제출하고 난 뒤 교육국의 사무처가 크네히트에게 다음에 또 혹 전기를 쓸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가까우며 기 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시대로 옮겨서 작성하고 역사적인 세부사항들에 더 많 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권했다는 사실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나 편지를 통 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후 실제로 크네히트는 18세기를 배경으로 하 는 한 전기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비적인 연구를 했다. 이 전기에서 크네히 트는 예배의 일을 뒤에 가서 음악과 바꾼 사람으로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의 제자 요 외팅어의 친구이며 친제도르프 교회에서 손님으로 잠시 머무르기도 했던 슈바 베의 한 신학자로 나타날 생각이었다. 당시 크네히트가 18세기의 교회법과 경건주 의, 친젠도르프, 예배의식 그리고 교회음악에 대해 오래되고 부분적으로 진귀하기 도 한 문헌들을 많이 읽었으며 초록도 해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가 불가사의한 주교 외팅어의 모습에 그야말로 반해 있었고 대가 벵엘의 인품에 대해 진정한 애정과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으며—그는 특히 벵엘의 초상화를 사진으로 찍게 해서 그것을 얼마 동안 자신의 책상 위에 세워 두었다. —흥미를 느 끼는 것만큼 반감을 품기도 했던 친젠도르프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열심히 노 력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었던 것에 만족하고서 그 작업을 중지해 버렸으며 자신에게는 이런 작업 으로부터 한 편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개별적 인 연구를 너무 많이 했으며 세부적인 사실들을 너무 많이 모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었다. 바로 이와 같은 말에 근거해서 우리는 완성된 그 세 편의 전기가 어떤 학 자의 연구논문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문학적인 인간이나 고매한 인격 소유자의 창작품이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관점이 그 전기들을 부당하게 취 급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크네히트에게는 학교를 마치고 스스로 택한 연구로 나아가는 학생이 가지게 되는 자유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게 되었다. 사실 그는 여느 학생들과 같은 학생이었던 것만이 아니었다. 엄격한 학교 교육과 정확하게 짜인 일과와 선생들의 빈틈없는 감독과 감시라는 질서를 따르고 영재학생의 온갖 어려운 임

무를 다해야 했던 것만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 외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는 플 리니오에 대한 그의 관계로 인해 한 가지 역할과 책임을 떠맡게 되었던 것이었는 데. 이런 역할과 책임은 정신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극에 이를 정도로 그를 자 극하고 또 괴롭히기도 한 것이었다. 적극적이기도 하고 대표자적이기도 한 역할이 었으며 사실상 그의 나이나 힘에 벅찬 책무였다. 때로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 기도 했지만 모든 의지력과 타고난 재주를 다 모음으로써 간신히 다할 수 있었던 책임이었으며 먼 곳으로부터의 강력한 조력, 즉 음악명인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 가 다할 수 없었을 책임이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물네 살가량 된 그는 예사롭 지 않았던 그의 발트첼 학교시절이 끝났을 때 나이에 비해 성숙되고 다소 피로해 있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눈에 띌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 러나 그의 전 존재가 그 역할과 책임을 통해 얼마나 깊이 괴로움을 당했던가. 아니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 무슨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벗어나게 된 그 학생이 처음 몇 년 동안에 획득되어진, 분명 히 때로 간절히 바라오기도 했던 그 자유를 이용했던 방법을 살펴보면 바로 우리 는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마지막 학생시절 동안에 그렇게도 눈에 띄는 자리 에 서 있었으며 어느 면에서는 이미 공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던 크네히트는 이제 즉시 그리고 완전히 그런 입장에서 물러나 버렸다. 사실 이 당시의 그의 생활의 자 취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가 가능한 한 자신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했으며. 가능 한 한 단순한 환경과 공동 생활을 원하고 가능한 한 개인적인 존재방식을 가지려 고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크네히트는 데시뇨리가 보내온 격정적인 몇 통의 장 문 편지에 대해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듯 짧게 회답을 보냈으나. 나중에 가서는 전 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유명한 학생 크네히트는 사라져 버렸으며 더 이상 찾 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명성만 발트첼에서 계속 자자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거의 전설 같은 것으로 되어 갈 뿐이었다.

연구시대가 시작되자 크네히트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발트첼을 피해 버렸는데, 그럼으로써 또한 그는 유리알유희의 상급 및 최상급 과정을 당분간 포기하게 되었 다. 그렇기는 했지만 당시의 어떤 피상적인 관찰자에게 있어서는 크네히트가 유리 알유희를 눈에 띌 만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변덕스럽고 아무 연관관계도 없고 여하튼 전혀 예사롭지 않았던 그 자유스러운 연 구의 과정 전체는 사실 겉보기와는 달리 유리알유희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뿐 아 니라 그 유희로, 그 유희에 대한 봉사로 되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아주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즉 요제프 크네히트는 자신의 연구의 자유를 놀랍고도 독창적인 방법으로, 젊은이 특유의 기발하고도 천 재적인 방법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미 발트첼 시절에 크네히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리알유희의 공식적 인 입문과정과 복습과정을 수료했다.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던 당시에 벌써 친 구들 사이에서 훌륭한 유리알유희연기자란 명성을 얻었던 크네히트는 그 후 유희 중의 유희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희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또 하나의 상급과정을 마치게 되자 아직 영재학교 학생 신분으로서 2급 단계의 유희 연기자들 반열에 들게 되었는데, 이는 그야말로 보기 드물게 영예로운 일이었다. 이로부터 몇 년 뒤 크네히트는 공식적인 복습과정에 함꼐 참여했던 동급생이자 친 구로서 훗날 자신의 조수가 되었던 프리츠 테굴라리우스에게 유리알유희연기자 가 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연구 과정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한 가지 체험을 편지로 알려 주었다.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두 사람이 같은 분단에 배치되어 유리알유희에 대한 우리의 최초의 계획을 구상하느라 그렇게도 열심이었던 그 시절의 어느 날 과 어느 유희를 생각해 보게. 분단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온갖 주 제를 선택하게 했었지. 우리들은 천문학과 수학과 물리학에서 언어학과 역사학으 로 넘어가는 까다로운 단계에 막 접어들고 있었네. 분단장은 호기심 많은 우리 초 보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우리를 허용되지 않는 추상과 유추의 궁지로 유인하는 기술에 있어 명수였어. 그는 어원상으로나 비교 언어학상으로 유혹적인 장난거리 를 우리들에게 슬며시 제시하고선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 걸려들면 재미있 어 하곤 했지. 우리들은 그리스어 장모음 수를 지치도록 세고 있다가 갑자기 곤란 한 처지에 빠져들고 말았는데, 그건 음의 장단에 따라서가 아니라 강약에 따라서

낭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아니 필연성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었지. 이런 경우는 더 있었네.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정신으로서 그렇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면에 서 그는 훌륭하고 아주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했네. 그는 우리들에게 이런저 런 잘못된 과정을 보여 주고 우리를 그릇된 생각을 하도록 유혹했는데. 우리가 위 험한 요소를 알게 되도록 해 준다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 느 면에서는 또 우리 어리석은 학생들을 비웃어 주고, 특히 매우 열심인 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회의를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 네. 그러나 바로 그의 지도하에서 그의 그 복잡한 마술 같은 실험들 중의 하나를 하고 있었을 때, 나는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유용한 어떤 한 유희 주제를 구상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불현듯 우리 유희의 의미와 위대 성에 가슴 뭉클하게 사로잡히게 되고 또 마음속 깊이까지 감동을 받게 되었네. 우 리들은 언어사적인 어떤 한 문제를 여러모로 분석하면서 이른바 한 언어의 전성기 와 절정기를 가까이에서 보고 그 언어가 수세기에 걸쳐서 이르게 되었던 어느 길 을 그 언어와 함께 몇 분 동안 걷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의 마음은 무상성의 대 (大)파노라마에, 즉 아주 복잡하고 오래되고 존경할 만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서서 히 형성된 한 유기체가 그 전성기로 나아가고. 이 전성기는 이미 몰락의 싹을 지니 고 있어 의미 있게 짜인 그 전체 구조물이 내려앉고 변형되고 몰락을 향해 흔들거 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에 걷잡을 수 없이 사로잡히고 말았네.—그와 동시에 나는 문득 즐겁고도 놀라운 기분으로 그 언어의 쇠퇴와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무 로 돌아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언어의 발전기와 전성기와 쇠퇴기는 우리 의 기억 속에. 그 언어와 그것의 역사에 대한 지식 속에 보존 될 수 있고 학문의 여 러 가지 기호와 공식을 통해서나 유리알유희의 그 신비스러운 표현들을 통해 계속 존재하고 또 어느 때고 다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네. 유리알유 희의 언어에 있어서는. 아니 적어도 그 정신에 있어서는 사실 모든 것이 대단히 중 요한 의미를 지니며, 기호 하나하나나 기호들의 결합 하나하나는 이곳이나 저곳으 로, 개별적인 예나 실험이나 증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세계의 비밀 과 핵심으로, 근원적인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갑자기 깨닫게

되었네. 어떤 소나타에서 장조가 단조로 변하는 것이나 어떤 신화나 숭배가 변화 하는 것이나 고전적이거나 예술적인 표현 모두는 진정한 명상으로 관찰해 볼 때, 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하늘과 땅, 음과 양 사이에서 부동하는 가운데 성스러운 것이 영원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신비스런 세계의 내면으로 통하는 직접적인 통로 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 섬광 같은 순간에 인식하게 되 었네. 사실 나는 당시 이미 잘 구성되고 훌륭하게 공연된 많은 유희를 방청자로서 체험한 바 있었으며, 그때마다 많은 훌륭한 정신의 고양과 행복한 통찰을 가진 바 있었네. 그렇기는 했지만 나는 그때까지는 유희연기 자체의 진정한 가치나 위상에 대해 자주 회의를 품는 경향이 있었네. 사실 훌륭하게 해결된 수학문제는 모두 결 국 정신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고, 모든 훌륭한 음악은 들을 때, 아 니 그보다는 연주할 때 더욱 영혼을 고양시키고 도량을 넓혀줄 수 있는 것이었으 며, 모든 경건한 명상은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고 또 마음이 우주와 조화를 이 루게 해 줄 수 있는 것이었네. 사정이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유리알유희는 어쩌면 어떤 형식적인 기술이거나 교묘한 능력이거나 재치 있는 결합에 지나지 않는 것일 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이 유희를 하는 것보다는 명쾌한 수학이나 훌륭한 음악에 몰두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일 거라고 내 가슴속의 의심은 말하고 있었네. 하지만 이 제 나는 처음으로 유희의 내면의 소리를, 그것의 의미를 직접 듣게 되었네. 유희의 내면의 소리가 나에게 이르러 나의 마음속으로 파고 든 것이었네. 바로 그 순간 이 후 나는 제왕과도 같은 우리의 이 유희가 그야말로 '링구아 사크라', 즉 거룩하고 신성한 언어라고 믿고 있네. 자네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네. 내 가슴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시 자네 스스로 도 느끼고 있었으니 말일세. 나는 이 소리를 내가 일찍이 어린 소년으로서 음악명 인에게 시험을 받고 카스탈리엔으로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내 마음과 생활을 변 화시키고 고양시켰던 그 잊을 수 없는 부름하고만 비교할 수 있을 뿐이네. 자네는 그걸 알아차리고 있었네. 그것에 관해 자네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도 더 이상 말하지 않도 록 하세. 지금 자네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네. 자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자네 이외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사실을, 현재 내 가 이것저것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어떤 변덕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에는 오히려 아주 확실한 어떤 계획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네. 당시 제3과정의 학생으로서 우리가 그 분단장의 지도를 받 아 가며 구성했으며 그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예의 그 소리를, 유희연기자에 로의 나의 소명을 경험하게 되었던 바로 그 연습유희를 자네는 기억하고. 아니 적 어도 그 대체적인 윤곽을 기억하고 있을 걸세. 지금 나는 하나의 푸가를 위한 주제 를 리듬상으로 분석하는 데서 시작했고 그중심에 이른바 공자의 한 명제가 있었던 바로 그 연습유희를, 그 유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하고 있네. 그 유희 속 에 나오는 명제들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것을 유희언어에서 그 본래의 언어로, 즉 수학이나 장식론이나 중국어나 그리스어 등등으로 번역하고 있네. 내 생애에 있어 적어도 이번 한 번만은 어느 한 유희의 전체 내용을 샅샅이 연구해 보 고 또 재구성해 볼 생각이라네. 이 일의 첫 부분은 이미 마쳤는데 여기에는 2년이 소요되었네. 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또 몇 년이 더 걸릴 것이네. 하지만 우리는 지 금 일단 카스탈리엔에서 그 유명한 우리의 연구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연구 자유를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용할 생각이네. 이에 대해 이론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우리 선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할 걸세. '우리는 유리 알유희를 모든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들과 개념들을 표현해내고 또 조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와 방법으로서 여러 세기에 걸쳐 고안하고 발전시켜왔다. 네가 나타나서 그것이 또한 사실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려 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너는 네 일생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이를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 는 그렇게 하느라고 나의 일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걸 후회하기를 바라지도 않네. 자. 이제 내 부탁을 말하겠네. 자네는 현재 유희기록관에서 일하고 있고 나는 또 몇 가지 특별한 이유에서 앞으로 한참 동안 발트첼을 떠나 있고자 하 기 때문에, 자네가 가끔 나의 몇몇 질문에 대해 대답을 좀 해주어야 하겠네. 온갖 종류의 주제에 대한 공식적인 기호와 부호를 생략되지 않은 형태로 그때그때 기록 관에서 나에게 좀 보내주길 바라네. 자네를 믿고 있겠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자 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알려주기 바라네."

이 편지보다 적어도 한두 해 뒤에 크네히트가 음악명인에게 보낸 편지에도 유리 알유희와 관계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도 이 자리에서 언급해 두어야 하지 않 을까 싶다. 편지에서 크네히트는 은인인 명인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유희의 본래의 비밀과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아주 훌륭 한. 아니 능숙한 유리알유희연기자가. 아니 심지어는 그야말로 유능한 유희명인까 지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거나 통찰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 알유희 전문가 또는 지도자가 되려 할 경우, 바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 는 사람들보다 유희에 더 위험한 존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희의 내 면, 즉 유희의 비교(秘敎)는 모든 비교와 마찬가지로 하나이자 전체인 것을, 영원 한 숨결만이 영원한 호흡을 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가운데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그 깊은 곳을 지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희의 의미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남 김없이 체험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더 이상 유희연기자일 수 없을 것입 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다양한 세계에 서 있지 않을 것이며, 발명이나 구성이 나 결합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 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리알유희의 의미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희를 저의 천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음악에 몰두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편지를 쓰는 일이 매우 드물었던 음악명인은 이런 말에 분명히 불안을 느끼게 되어서 그것에 답해 점잖게 경고하는 말을 보내었다. "유희명인이 네가 말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밀교 교도'여서는 안 된다고 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네가 그 말을 풍자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기를 나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그 '내면적 의미'에도 충분히 가까이 다가서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유희명인이나 교사는 아주 좋지 못한 교사일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내 일생 동안 음악의 '의미'에 대해 나의 학생들에게 단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음악에 어떤 한 가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나는 언제나 내 학생들이

8분 음표나 16분 음표를 아주 정확하게 세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네가 선생이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아니면 음악가가 되든지 간에 너는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하지만 '의미'를 가르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지는 말아라. 바로 '의미'를 가르치려는 의도 때문에 일찍이 역사 철학자들은 세계사의 반을 망쳐놓고 잡문 시대가 시작되도록 하고 또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 예를 들어 내가 학생들에게 호머나 그리스 비극 작가들에 관해 초보적인 지식을 전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나는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을 신적인 것의 현상적인 형식으로 암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작품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적 · 운율적 수단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그 문학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사나 학자의 소임은 수단을 탐구하고 전통을 가꾸며 방법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지—때로 패배자이자 희생자이기도 한—선택된 자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더 이상 말로 할 수 없는 체험들을 자극하거나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하간 양이 그리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부분적으로 소실되어 버리기도 한 이 당시 크네히트 편지들은 이밖에는 어느 곳에서도 유리알유희와 유리알유희 의 '밀교적' 해석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어쨌든 이런 편지들 가운데 가장 장문이면서 또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편지인 페로몬테와의 편지는 전적으로 음악과 음악양식 분석상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네히트의 연구과정이 보여준, 단 하나의 유희형식을 정확하게 다시 그려보고 수년간에 걸쳐 철저하게 연구해 보는 것에 다름 아니었던 그 독특한 지그재그 운동에는 매우 분명한 어떤 의도와 의지가 관철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찍이 그들이 학생 신분으로서 연습 목적으로 며칠간에 걸쳐 구성했던 것으로 유리알유희의 언어로 하면 15분 안에 읽혀질 수 있는 것이었던 그단 한 가지 유희형식의 내용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크네히트는 여러 해를 소비하고 강의실과 도서관에 앉아 있고 프로베르거와 알렉산드로 스카를라티, 푸가와 소나타형식을 연구하고 수학을 복습하고 중국어를 배우고 음향도형의 체계와. 색도와 음악 조성 사이의 일치에 대한 포이스템의 이론을 철저하게 연

구했다. 우리는 크네히트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지리하고 무엇보다도 고독한 그 길을 선택했던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최종목표(카스 탈리엔 밖의 사람들은 이를 직업선택이라고 말할 것이다)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리 알유희였기 때문이다. 우선 당분간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임시 청강생으로서 비쿠스 루소룸, 즉 발트첼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에 있는 연구소들 가운데 하나 로 들어갔더라면 크네히트는 유희와 관계되는 모든 특별연구들을 쉽게 할 수 있었 을 것이고, 모든 개별 문제들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어느 때고 얻을 수 있었을 것 이며, 그밖에 또 때로 분명히 자진해서 추방상태에 빠져들기라도 한 듯 혼자서 괴 로움을 겪는 대신 친구들이나 동지들 사이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도 있었을 것이 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우리가 짐작하기에 크네히트가 발 트첼을 피했던 것은 자신이 그곳에서 학생으로서 했던 역할과 그것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능한 한 완전하게 지워 없애기 위해서였을 뿐 아니라 유리알유희연기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부터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지도자나 대표자가 되어야 할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을 느낄 수 있 었기 때문이었으며, 끈질기게 달라붙는 운명을 떨쳐 버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 을 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었다. 크네히트는 책임의 무거움을 진작부터 느끼 고 있었다. 자신에 대해 열광하고 있었으나 자신이 피해 버렸던 발트첼의 동료 학 생들에 대해 크네히트는 지금 벌써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를 위해서라 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테글라리우스에 대해 크네히트는 특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크네히 트는 운명이 자신을 전면으로, 대중 속으로 내몰려하는 데도 불구하고 은둔 생활 과 정관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 크네히트의 심적 상태를 대 강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크네히트가 상급 유리알유희 학교의 통상적인 교육과정을 멀리하고 아웃사이더가 되었던 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이유 혹은 충동 이 더 있었다.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연구 충동이 있었던 것인데 유리알유희에 대한 한때의 회의도 바로 이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유리알유희가 진실로 최고의 신성한 의미에서 연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체험해본 바 있었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대부분의 유희연기자와 학생, 아니 지도자와 교사의 일부까지도 고상하고 신성한 의미에서 볼 때 결코 유희연기자가 아니고 유희언어를 신성한 언어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재치 있는 속기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유리알유희를 흥미 있거나 재미있는 어떤 특수한 일 또는 무슨 지적인 스포츠 혹은 야심 경연장 같은 것으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던 것이었다. 크네히트가 음악명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실 크네히트는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탐구가 항상 유희연기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고, 유희는 비교(秘教) 같은 것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기술·학문 또는 사회적 제도이기도 하다는 사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요컨대 많은 회의와 갈등이 있는 것이었다. 유리알유희는 필생의 문제, 아니 당분간에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커다란 중요문제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자신의 투쟁을 호의적인 사제들을 통해 가벼운 것으로 만들거나, 관심을 딴곳으로 돌려버리는 선생들의 미소를 통해 하찮은 것이 되도록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물론 크네히트는 이미 연출된 수만 가지 유리알유희나 장차 가능한 수백만 가지 유리알유희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자신의 연구의 기초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전 학생시절의 강좌에서 자신과 친구가 구상했던 그 우연한 유희계획에서 시작했다. 그 유희는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모든 유리알유희의 의미를 깨닫도록 해주고 또 유리알유희연기자에로의 소명을 체험하게 해주었던 바로 그 유희였다. 이 유희의 개요를 그는 평범한 속기부호로 기록해서 그 몇 해 동안 계속 지니고 다녔다. 거기에는 유희언어의 명칭이나 기호나 부호, 약어로써 천문수학의 공식과 어느 오래된 소나타의 형식원리, 공자의 말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리알유희를 전연 모르고 있는 독자 같으면 이런 유희개요를 장기놀이의 형식과 비슷한 것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들이 갖는 의미와 그것들이 서로 맺을 수 있는 관계나 서로 서로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가능성이 더욱 복잡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말이나 모든 배치 상태,

모든 행마에는 바로 그 행마와 그 배치 등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실제적 내용이 부여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크네히트의 연구시대는 그러나 그 유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원리, 작품과 체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앎을 통해 여러 가지 문화와 학문과 언어와 예술과 세기를 두루섭렵한다고 하는 과제에만 바쳐진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제뿐 아니라 크네히트는 그런 대상들을 바탕으로 유리알유희 예술의 모든 체계와 표현 가능성을 엄밀하게 검토한다는, 일찍이 그의 선생들 중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과제도 설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시대의 결과를 미리 말한다면 이렇게 된다. 크네히트가 여기저기에서 어떤 결점이나 불만스러운 점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유리알유희는 크네히트의 집요한 시험과정을 견뎌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크네히트는 결국 유리알유희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 문화사적인 연구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크네히트의 연구시대의 많은 장소나 장면은 분명히 설명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가능한 한 그는 자신이 혼자서나 아니면 극히 소수의 사람들과만 함께 연구할 수있는 장소들을 좋아했다. 그런 장소들 가운데 몇몇에 대해 그는 늘 감사하는 마음과 애착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주 몬테포르트에 머물렀다. 어떤 때는 음악명인의 손님 자격으로였고 또 어떤 때는 음악사 세미나 참석자 자격으로였다. 그는 종단본부 소재지인히르슬란트에 두 차례 머물렀는데, 그것은 12일간 계속되는 단식및 명상 행사인 '대 수련회'에 참석하기위해서였다. 훗날 그는 특별한 즐거움, 아니 애착을 느끼며 그의 측근들에게 '죽림'에 대해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은 멋진 은 둔지로서 그가 《역경(易經)》연구를 한 장소였다. 여기에서 그는 결정적인 것을 배우고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놀라운 예감이나 지도에 이끌려 어떤 독특한 환경과 예사롭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사람은 소위 '노형(老兄)'이라불리고 있었는데 그는 중국식 은둔지인 '죽림'을 만들어 거기서 살고 있었다. 크네히트의 연구시대에 있었던 이 기이하기 짝이 없는 에피소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크네히트는 수세대 전부터 고전문헌학자 학교촌인 성 우르반에 부속되어 있었던 유명한 동아학관에서 중국어와 고전연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크네히트는 읽기 와 쓰기에 있어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몇몇 중국인들을 친 구로 사귀고 《시경》에 나오는 많은 시들을 외울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곳에 체 류한 지 2년 째 되는 해에 크네히트는 변화의 책인 《역경》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중국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정보를 주기 는 했지만 결코 입문도 할 수가 없었다.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이 동아 학관에는 없었다. 크네히트가 《역경》을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선생 을 하나 주선해 주면 좋겠다는 소망을 거듭 밝혔을 때 사람들은 크네히트에게 '노 형'과 그의 은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변화의 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 써 자신이 그 학관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을 이미 얼마 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이것저것 물어 보는 데 있 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그 전설적인 '노형'에 대해 좀 더 자 세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을 때 크네히트는 그 은둔자가 어느 정도 존경, 아니 명 성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명성이기보다는 오히려 괴팍한 아웃사이더로서의 명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당 면한 이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에 크네히트는 이미 시작해 놓고 있었던 연구논문을 가능한 한 서둘러 종결짓고서 는 동아학관을 떠났다. 현자인지 명인인지 바보인지 알 수가 없는 신비에 찬 그 인 물이 일찍이 죽림을 마련하였던 지방을 향해 크네히트는 걸어서 길을 떠났다. 크 네히트는 그 사이 소문으로 들어 이 인물에 대해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은 대략 25년 전 중국어학과에서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학생이었 다. 이 학생은 바로 그런 공부를 위해 태어나고 또 소명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중 국사람, 서구 사람 가릴 것 없이 가장 뛰어난 선생이라 하더라도 붓글씨 쓰는 기법 에 있어서나 고문헌들을 해독하는 데 있어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었다. 이 사람은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국사람처럼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로 인 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띄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는 고집스럽게도 세미나 지도 교사에서부터 명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급자들을 다른 모든 연구생들이 그러 는 대로 그들의 칭호에다 규정에 정해져 있는 '님'자를 붙여서 부르지 않고 '노형'이 라는 호칭으로 불렀는데 이 같은 호칭은 결국 영원히 그 자신의 별명으로 남게 되 었다. 그는 《역경》의 점괘풀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쑥대를 이용하여 점괘를 능숙하게 풀이했다. 《역경》에 대한 오래된 주석서들 외에 그가 즐겨 읽는 책은 장자의 책이었다. 그러나 동아학관의 중국어과에서는 그 당 시에 이미 크네히트도 벌써 알게 되었던 합리주의적이고 오히려 反신비주의적이 며 엄격하게 유교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노형은 어느 날 자신을 전문교사로서 붙잡아 두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그 연구소를 떠나 방랑길에 올랐다. 붓과 벼루와 두세 권의 책을 들고서였다. 노형은 우리나라의 남 쪽을 찾아갔으며 이곳저곳에 있는 종단단원들 집에서 손님으로 머물렀다. 노형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암자를 짓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적당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다. 끈질기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구두로 설명을 한 결과 노형은 세속 관청과 종단으로부터 그 장소에 이주자로서 나무를 심을 수 있 는 권리를 얻어내었다. 이후 노형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고대 중국식으로 꾸민 전 원 생활 속에서 때로는 괴상한 인물로 조롱을 받고 때로는 성자 같은 사람으로 존 경을 받으며 세심하게 꾸민 중국식 정원을 북풍으로부터 지켜주는 죽림을 보살피 는 일이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명상과 두루마리로 된 고문헌을 필사하는 일 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아무런 불평도 없이 살고 있었다. 노형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 요제프 크네히트는 가끔씩 쉬어 가며 방랑을 했다. 고 갯길을 넘을 때마다 남쪽으로부터 그를 향해 푸른빛으로 향기롭게 다가오는 광경 은 매혹적이었다. 햇볕이 잘 드는 계단식의 포도밭, 도마뱀이 우글거리는 갈색의 담벼락, 근엄한 자태의 밤나무 숲이 있는 그 광경은 남쪽평야와 높은 산지가 멋지 게 어우러진 모습이었다. 늦은 오후에 크네히트는 죽림에 도착했다. 죽림 안으로 들어간 크네히트는 기묘한 정원 한가운데에 중국식으로 지은 정자가 있는 것을 보 고 놀랐다. 나무로 만들어진 관으로부터 샘물이 졸졸 흘러내리고 있었다. 자갈이 깔린 바닥을 따라 흐르는 물은 옆쪽에 있는 둑이 있는 연못으로 가득 흘러들고 있 었는데, 둑이 갈라진 자리에는 온갖 종류의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고 잔잔하고 맑은 물속에는 금붕어 몇 마리가 놀고 있었다. 늘씬하고 강한 대나무 줄기 위에는 댓잎이 평화롭고 부드럽게 넘실거리고 있고 잔디밭 여기저기에는 납작하게 생긴 돌이 놓여 있고 그 돌들에는 고전 서체로 쓴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다. 누런 무명옷을 입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푸른색 눈에 안경을 낀 한 야윈 남자가 쪼그리고 앉아서 손질을 하고 있던 화단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찾아온 사람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무뚝뚝한 것은 아니었지만 숨어사는 사람이나 혼자사는 사람이 흔히 그렇듯 어딘지 어색해하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남자는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크네히트를 바라보며 크네히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약간 당황해하며 크네히트는 인사말로 하리라고 미리 생각해 두었던 중국말을 몇 마디 했다. "어린 제자 실례를 무릅쓰고 노형께 문안인사 올립니다."

"예절바른 손님, 어서 오십시오." 노형이 말했다. "언제나 나는 젊은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며 잠시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또 손님이 원하면 재워 줄 수도 있습니다."

크네히트는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작은 정자 안으로 들어가 차 대접을 받았다. 그런 뒤 정원과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 돌들과 연못과 금붕어를 둘러보았는데 금붕어의 경우 나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저녁식사 때까지 노형과 크네히트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밑에 앉아 옛 고전에 나오는 진중한 내용의 말들이나 시구나 격언을 서로 주고받고 꽃들을 바라보고 산머리에서 장밋빛으로 희미하게 변해가고 있는 저녁노을을 즐겼다. 그러고 난 뒤 그들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노형은 빵과 과일을 차려내고 자그마한 풍로에다 자신과 손님이 각각 하나씩 먹을 맛있는 오믈렛을 구웠다. 식사를 마쳤을 때 학생은 이곳을 찾아온 자신의목적에 대해 독일어로 질문을 받았다. 학생은 독일어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리로 오게 되었는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즉 노형이 허락하는 만큼 오랫동안이곳에 머무르며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하세." 은둔자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손님에게 잠자리를 권했다. 다음 날 새벽 크네히트는 금붕어들이 놀고 있는 연못 둑에

앉아 명암이 혼재하고 여러 가지 색이 신비롭게 감돌고 있는 그 작고 서늘한 세계 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짙은 녹청색과 잉크처럼 검은색이 한데 어우러진 물속에 서는 황금빛 고기의 몸뚱어리들이 넘실거리며 온 세계가 마법에 걸리고 영원한 잠 에 빠지고 꿈속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이 여겨지는 순간 가끔씩 어느 정도 유연한 것 같으면서도 공포감을 자아내는 운동을 해 잠든 어둠을 헤집고 수정 빛과 황금빛을 던지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내려다보면서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명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꿈에 잠겨 있는 형상이었다. 때문에 크 네히트는 노형이 조용히 집 안에서 걸어 나와 발걸음을 멈추고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자신의 손님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을 때에도 그런 줄을 전혀 느끼 지 못했다. 마침내 크네히트가 침잠의 상태를 털어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노형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안으로부터 차를 마시라 고 부르는 노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크네히트와 노형은 서로 간단한 아침인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나서 자리에 앉은 채 샘물의 작은 물줄기 소리. 영원의 선율이 새벽의 정적을 뚫고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그런 뒤 은두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서없이 꾸며진 방의 이곳저곳에서 일을 보며 사이사이 크네히트를 힐끗 건너다 보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신발을 챙겨 신고 다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크네히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꼭 그래야만 한다면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네가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면, 자네는 내 말에 복종하고 금붕어처럼 조용히 지낼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학생은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

"좋아." 노형은 말했다. "그럼 이제 점괘를 보아 하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네." 크네히트가 '금붕어처럼'조용한 태도로 대단한 경외심과 함께 호기심을 갖고서 앉 아 지켜보고 있는 동안, 노형은 차라리 화살 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법한 한 나무통에서 한 움큼의 작은 막대기들을 꺼냈다. 그건 쑥대였는데 노형은 쑥대의 수를 꼼꼼하게 끝까지 다 세고서는 일부를 다시 나무통 속에 넣었다. 쑥대 한 개를

옆으로 제처놓은 뒤 노형은 나머지 쑥대를 똑같은 수의 두 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그중 한 묶음을 왼손에 든 채 오른손의 예민한 손가락 끝으로 다른 묶음에서 아주 소수의 막대기들을 취해서는 수를 세어 가면서 옆으로 제쳐놓았다. 마침내 몇 개 의 막대기만 남게 되자 그는 그 막대기들을 왼손의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이렇 게 무슨 의식을 치르듯 엄숙하게 세어 한 묶음을 몇 개의 막대기로 수를 줄여 놓은 뒤 노형은 다른 묶음에 대해서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노형은 다 세고 난 막 대기들을 한옆으로 제쳐놓은 뒤 두 묶음을 다시 차례대로 음미하면서 세고서는 남 게 되는 소수의 막대기들을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그의 손가락들은 이 모든 과 정을 무엇을 아끼듯 조용하면서도 민첩하게 해치웠기 때문에 그 손동작은 수천 번 이나 행해져 능숙한 재주가 되어 버린, 엄격한 규칙을 따르고 있는 신비롭고 숙련 된 유희 같이 보였다. 이런 유희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난 뒤 마침내 세 개의 아주 작은 묶음이 남게 되었는데. 노형은 이 세 묶음의 막대기 수에서 하나의 기호를 읽 어내고선 그것을 작은 종이 위에다 뾰족한 붓으로 그렸다. 이러고 난 뒤 그 복잡한 과정 전체가 새로 시작되었다. 막대기들을 똑같은 수의 두 묶음으로 나누고 세고 옆으로 제쳐놓고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마침내 또다시 세 개의 작은 묶음이 남게 되고 그 결과는 두 번째 기호였다. 막대기들은 아주 낮고 메마른 소리를 내고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치고 자리를 바꾸고 묶음을 이루고 나누어지고 다시 세 어졌다. 작은 막대기들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 과 정이 끝날 때마다 손가락은 하나의 기호를 그렸다. 마침내 여섯 행의 나란한 음양 기호가 나타났다. 막대기들은 모아져 정성스레 다시 통 속에 넣어졌다. 마법사는 바닥에 깔린 갈대 자리 위에 쪼앉은 채 점괘를 본 결과가 그려진 종이를 앞에 놓고 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몽괘(蒙卦)로군." 그는 말했다. "이 괘의 이름은 '청춘의 어리석음'일세. 위는 산, 아래는 물, 위는 간(艮), 아래는 감(坎)이지. 산 아래서 샘이 솟고 있으니 청춘의 비유지. 근데 이를 풀이하면 이렇게 된다네.

청춘의 어리석음이 성공을 한다. 내가 어리석은 청년을 찾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청년이 나를 찾는다. 첫 번째 점괘를 보며 내가 가르친다. 그가 자꾸 물으면 번거로운 일. 그가 번거롭게 하면 가르침은 없으리. 도움이 되는 것은 끈기."

주의를 기울이느라 너무 긴장하고 있었던 탓에 크네히트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정적이 감돌게 되자 크네히트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크네히트는 감히 물어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들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리석은 청년이 오게 되었던 것이고 머무를 수 있는 것이었다. 크네히트가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던, 그 의미를 짐작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손가락과 막대기들이 벌이는 그 고상한 인형극의 마력에 아직도 마음이 이끌리며황홀해하고 있는 동안, 이와 같은 결과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 점 괘가 말을 한 것이었다. 그에게 유리하게 점괘가 나온 것이었다.

크네히트 자신이 종종 친구들이나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한 기분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이처럼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다시 우리의 객관적인 보고 자세로 돌아가기로 하자. 크네히트는 여러 달동안 죽림에 머물며 쑥대를 다루는 방법을 스승과 거의 같은 정도로 완전하게 배웠다. 스승은 매일 그와 함께 작은 막대기들을 세는 연습을 하고, 점쾌를 보는 데사용하는 말의 문법과 상징법의 기초적인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그로 하여금 64괘를 쓰고 외우는 연습을 시키고 그에게 오래된 주석서를 읽어 주고, 특히날씨가 좋은 날에는 가끔 장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이 밖에 제자는 정원을 가꾸는 법과 붓을 씻는 법과 먹을 가는 법을 배우고, 국이나 차를 끓이는 법과나무 가지들을 모으는 법과 날씨를 보는 법과 중국달력을 보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한편 크네히트는 오가는 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들의 대화에 간혹 유

리알유희나 음악의 문제도 포함시켜 보려고 애를 썼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꺼내면 스승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같은 시늉을 하거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피해 버리거나 아니면 "구름은 짙으나 비는 오지 않는다" 또는 "귀인은 결점이 없다"와 같은 경구로 대답을 했다. 하지만 크네히트가 몬테포르트로부터 자그마한 클라비코드 한 대를 보내오게 해서 매일 한 시간씩 연주를 했을 때에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언젠가 한번 크네히트는 스승에게 자신이 유리알유희에 《역경》의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노형은 소리 내어 웃었다. "그리 해 보게나." 노형은 큰 소리로 말했다. "사정이 어떤 지꼭 알게 될 걸세. 이 세계 안에 멋지고 자그마한 죽림을 마련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일세. 하지만 정원사가 자신의정원에 이 세계를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나는 회의적일세."—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이다. 몇 년 뒤 크네히트가 발트첼에서 이미대단히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때 크네히트로부터 발트첼의 한 교수직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던 노형이 그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만 더 언급해 두고자 한다.

후일 요제프 크네히트는 죽림에서 생활하며 보낸 이 몇 달 동안을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가끔씩은 그의 '각성의 초기 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때부터 크네히트가 하는 말 중에는 '각성'이라는 비유적인 표현 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 말은 그가 일찍이 '소명'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에 부여했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각성'은 그 자신과, 카스탈리엔의 질서와 인간세계 일반의 질서 가운데에서 그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그때그때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그중심이 자기인식 쪽으로 점점 더 많이 옮겨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크네히트는 이 '각성의 초기 시절'이후 자신의 특별하고도 일회적인 위치와 운명에 대한 감정을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된 반면, 전래의 일반적인 계층조직이나 카스탈리엔 특유의 계층조직이 갖는 여러 가지 개념들과 범주들을 점점 더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중국 연구는 죽림에 체류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끝나 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이후 에도 계속되었다. 크네히트는 특히 고대 중국의 음악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 력했다. 고대 중국 작가의 저서에서는 어디서든 음악이 모든 질서와 도덕과 미와 건강의 근원들 중의 하나로 찬양되고 있는 것을 접할 수가 있었다. 사실 크네히트 는 이런 광범위하고 도덕주의적인 음악관을 바로 그와 같은 음악관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명인을 통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프리츠 테굴라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연구의 기본계획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면, 즉 이미 걷기 시작한 '각 성'의 길이 자신을 위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크네히트 는 서슴지 않고 대담하고 기운차게 나아갔다. 노형 곁에서 보낸 수업시대가 크네 히트에게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들 가운데 하나는 그때부터 그가 발트첼로 돌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해마다 크네히는 발트첼에 서 개설되는 상급 강좌들 가운데 하나에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 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그때 이미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에서 관심을 끌고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고, 전체 유희 제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기관, 즉 유희 의 그때그때 운명이나 아니면 적어도 그때그때 방향이나 유행을 사실상 결정하는 힘을 장악하고 있는 익명의 훌륭한 유희연기자들 그룹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그룹의 유희연기자들 가운데에는 유희 관련 시설의 직원들도 들어 있었지만 결 코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대개 유희기록관의 몇몇 외지고 조용한 방에 앉아서 유희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에 몰두하고, 새로운 소재의 영역 을 유희에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멀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 유리알 유희의 형식이나 외면적인 조작이나 경기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취향들이 끊임없 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유희의 대가였으며. 서로서로 상대방의 재능이나 특성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각 구성원들 사이나 아니면 내일이나 모래의 지배자들이나 책임 있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 귀족클럽 같은 분위기였다. 여기에는 조 용하고 세련된 기품이 지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야심에 차 있었지만 그것을 드 러내 보이지는 않았으며, 지나치리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고 비판적이었다.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의 이 엘리트 후계자들을 카스탈리엔의 많은 사람들과, 또한 바깥 나라의 몇몇 사람들은 카스탈리엔 전통의 최후의 꽃으로, 철저하게 귀족주의적인 정신의 정화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장차 한 번 그 일원이 되어 보리라고 여러해를 두고 꿈을 꾸는 야심에 찬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리알유희의 계층조직의 높은 직위를 노리고 있는 이 선택된 후보자들은 어딘가 중오스럽고 타락한 후보자들이었으며, 인생이나 현실세계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이 무위도식하며 정신적인 놀음에 빠져 있는 콧대만 높은 천재들의도당들이었고, 유희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자기 향락적인 정신을 자신의직업과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멋쟁이들과 야심가들의 오만할 뿐 아니라 그 근본에 있어 기생적인 집단이었다.

크네히트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학생들이 자신을 비범 한 인물이라고 뒤에서 찬양하든 출세지향적인 야심가라고 조롱하든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연구뿐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모두 유희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밖에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유희가 진실로 카 스탈리엔에서 가장 고귀한 것인지, 자신의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뿐이었다. 왜냐하면 유희의 법칙이나 가능성의 더욱 깊은 비밀세계로 들 어간다고 해서. 다채롭고 미로와도 같은 기록관의 세계와 유희의 상징법의 복잡한 내면세계에 정통해진다고 해서 그의 여러 가지 회의들이 꼭 해소되었던 것은 아니 었으며, 신앙과 회의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처럼 서로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체험한 바가 있었고, 유희라고 하는 소우주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보는 것과 더불 어서 자연히 유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성에 대한 그의 투시력과 감응 능력 또한 커졌던 것이기 때문이었다. 죽림에서의 전원 생활은 잠시 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던 것인지도 모르며, 또한 혼란스럽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노형의 예는 어 쨌든 그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준 것이었다. 예를 들어 노형처럼 중국사람 행세를 하며 정원 울타리 안에 은신하여 만족스럽고 아름 다우며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아니면 또 피타고리스 학파 의 철학자나 수도사나 스콜라 학파의 철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그러나 그것은 도피였으며, 보편성을 포기해 버리는 것으로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가능하 고 또 허용되는 것이었고, 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일인 것을 위해 오늘과 내일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상한 형태의 도피였다. 크네히트는 진작부터 그것이 자기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길이 그가 갈 길인가? 크네히트는 자신의 내부에 음악과 유리알유희에 대한 뛰어난 재능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힘이, 내적 자주성이, 봉사하는 것을 금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 은 아니지만 오로지 최고의 주인에게만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고집 같은 것이 존 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부에 있는 이런 힘과 자주성과 고집은 그의 생 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성이 아니었다. 그 것은 내면을 향해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도 작용하고 있었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이미 학생시절. 특 히 플리니오 데시뇨리와 대결했던 그 시기에 친구들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 특히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우정을 구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배를 받 고 그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으려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했었다. 그런 경험은 이후에도 자주 반복되었다. 그 같은 경험은 대단히 기분 좋고 마음에 드는 면을 지니고 있고 야심을 북돋아 주고 자신감을 강 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다른 면, 어둡고 무서운 면도 지니고 있었다. 조언과 지도와 모범을 갈망하고 있는 친구들을 약하고 고집이나 품위가 모자란다 고 해서 멸시하려는 경향, 아니 그들을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고분고분한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때때로 고개를 드는 은밀한 기분 자체가 벌써 어떤 금지되 고 추악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밖에 또 크네히트는 플리니오 와 함께 지냈던 그 시기에 화려하고 대표적인 모든 지위는 얼마나 많은 책임과 수 고와 정신적 부담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절실히 체험했다. 크 네히트는 또 음악명인이때때로 지위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 나게 앞서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며 또 어느 면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어떤 사악한 면과 위험한 면을 지니고 있었다. 사실 세계사는 빈틈없이 이어지는 지배자들과 지도자 들과 선동자들과 명령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들 모두는 시작이야 훌륭하게 했지만 결말은 좋지가 않았다. 그들 모 두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다고 말했지만 뒤에 가서는 권력의 노 예가 되고 권력에 마비가 되고 권력 자체를 위해 권력을 좋아하게 되어 버렸다. 때 문에 크네히트에게는 자신이 타고난 힘을 계층조직에 봉사시킴으로써 그것을 신 성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늘 자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힘이 가장 잘 봉사할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의 마음을 끌고 또 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장교나 정 치가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능력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카스탈리엔 에는 그 능력이 위력을 발휘할 장소가 하나도 없었다. 이곳에서 그런 능력은 사실 교사나 교육자에게만 쓸모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활동에 대해 크네 히트는 마음속으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 는 것이라면 크네히트는 무엇보다도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학자 생활을, 그게 아니면 유리알유희연기자 생활을 택했을 것이다. 크네히트는 옛날부터 자신을 괴 롭혀 왔던 물음 앞에 서게 되었다. 유리알유희는 진실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 가? 유리알유희는 정말로 정신왕국의 여왕인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리알 유희는 결국 하나의 유희일 뿐이지 않은가? 유리알유희는 진실로 일생을 통해 온 정성을 다해서 봉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유명한 유희는 여러 세대 전에 일 종의 예술 대용물로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점차 일종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고. 고도의 교양을 갖춘 지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통 일과 정신향상과 침잠의 수단이 되고 있다. 크네히트의 내부에서는 미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 사이의 해묵은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었다. 완전하게 표명되는 적은 결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한 완전히 묵살돼 버리는 것도 아닌 이 같은 물 음은 일찍이 발트첼 학생시절에 쓴 크네히트의 시들 여기저기에서 그렇게도 무섭 고 위협적으로 표현된 물음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같은 물음들은 유리알유희하 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었다. 카스탈리엔 전체와 관계되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크네히트가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꿈속에서 자주 데시뇨리와 논 쟁을 벌이기도 했던 바로 그 무렵의 일이었다. 어느 날 크네히트가 발트첼 연기 자 마을에 있는 널찍한 건물들 가운데 하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때 뒤편에서 큰 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익히 알 고 있는 목소리 같았다. 돌아다보니 키가 크고 구레나룻 수염을 조금 기른 한 청년 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플리니오였다. 지난날의 추억과 반가운 기분이 뒤 섞이는 가운데 크네히트는 플리니오에게 정답게 인사를 했다. 그들은 저녁에 만나 기로 약속했다. 오래전에 세속세계의 대학에서 학생시절을 마치고 이미 관리가 된 플리니오는 이미 여러 해 전에 한 과정을 마쳤지만 짧은 휴가기간을 이용해 청강 생 자격으로 한 유리알유희 강습에 참석하기 위해 오게 된 것이었다. 저녁에 만나 게 되었을 때 이들 두 친구는 곧 당황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플리니오는 청강생이 자 외부세계에서 온 용인되는 아마추어였다. 플리니오는 대단한 열성으로 강습에 임하고 있었지만 이 강습은 외부사람들이나 동호인들을 위한 강습이었다. 두 사 람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컸다. 플리니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관대한 태도를 취 하고 유리알유희에 대한 친구의 관심을 점잖게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플리니오 가 여기에서는 친구가 아니라 어린아이이고 상대방이 깊은 본질에 이르기까지 정 통해 있는 어떤 학문의 주변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플리니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전문가요 대가였다. 크네히트는 화제를 유희에서 다른 쪽 으로 돌리려고 애를 썼다. 크네히트는 플리니오에게 바깥세계에서의 그의 직위나 일.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문제들에서는 이제 크네히트 가 뒤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친절한 가르 침을 받는 어린아이였다. 플리니오는 법률가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 노력 하고 있으며 어느 당의 당수 딸과 약혼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는 요제프가 잘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했으며, 그가 자주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은 요제프에게는 공허하 게 들렸다. 크네히트가 보기에 그런 표현들은 적어도 아무런 내용도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플리니오가 바깥 그의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사 정을 잘 알고 있으며 야심에 찬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 었다. 그러나 일찍이 10년 전에 그들 두 청년을 통해 호기심과 연민의 정을 느끼는 가운데 서로 접촉하고 서로를 느껴본 바가 있었던 두 세계는 이제 화해할 길 없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세속세계 정치가가 카스탈리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애착을 잃지 않아서 벌써 두 번째로 휴가를 유리알유희에 바치고 있다고 하는 것 은 인정해 줄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장차 어느 날 그 자신이 플리니 오의 관할구역에 도착하여 호기심에 찬 손님으로서 몇몇 법정이나 공장이나 또 복 지기관들을 둘러보게 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으리라고 요제프 크네히트는 생각 했다. 두 사람은 서로상대방에 대해 실망했다. 크네히트는 이전의 친구가 거칠어 지고 피상적으로 되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에 데시뇨리는 옛날의 친구가 지독한 정신주의와 비교(秘敎)에 젖어 더욱 거만해졌다고 생각했다. 데시뇨리에게 는 이 친구가 자신과 자신의 유희에 도취한, 철저한 '정신제일주의자'가 되어 버린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데시뇨리는 자신의 공 부와 시험, 영국이나 남쪽 나라로 여행한 일, 정치적 집회나 국회 등에 대해 크네 히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 데시뇨리는 위협이나 경고처럼 들 리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머지않아 알게 되겠지만 곧 불안한 시대가 다가올 걸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걸세. 자네들의 카스탈리엔 존재 전 체가 언젠가 다시 심각하게 문제시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세." 요제프 는 이 같은 말을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물었을 뿐이었다. "자네는 어떤가, 플리니오? 자네는 카스탈리엔에 대해 찬성할 것인가, 아니면 반 대할 것인가?"

"아" 플리니오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내 의견 같은 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 나야 물론 어쨌든 카스탈리엔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존속하길 바라지. 그렇지 않다면 사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지도 않을 걸세. 물질적인 면에서 자네들의 요구는 소박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카스탈리엔을 위해 해마다 상당한 금액을 쓰고 있다네."

"내가 알기로 그 금액은 사실 전쟁 세기에 우리나라가 매년 무기와 탄약 값으로 지

불했던 금액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 돼." 요제프는 웃으며 말했다.

이후에도 그들은 몇 번 더 만났다. 플리니오의 강습이 끝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욱 친절하게 서로를 대했다. 그러나 2, 3주일이 지나 플리니오가 떠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 모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당시 유리알유희명인은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였는데, 그는 세계를 두루 여행하여 세상물정에 밝은 유명한 사람이었다. 자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고 또 매우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희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고행자처럼 엄격하였으며, 그를 대표자적인 측면에서만, 예를 들어 대유희의 지도자로서 성장을 한 모습으로서나 외국에서 온 사절들을 영접할 때의 모습으로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가 다소, 아니 아주 냉정한 이성적 인간이고 음악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저 겉치레의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라고 말들을 했으며, 젊고 정열적인 유리알유희 애호가들은 때때로 그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그러나 모두 그릇된 평가였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열정적인 인간이 아니고 또 대규모의 공개유희에서 거창하고 자극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오히려 피하기는 했지만 탁월하게 구성되고 형식적인 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는 그의 유희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유희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유리알유희명인이 어느 날 요제프 크네히트를 불렀다. 명인은 평상복 차림으로 집에서 크네히트를 맞이했다. 명인은 크네히트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 이 시간에 와서 30분 정도 머무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크네히트는 그때까지 한 번도 혼자서 명인을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며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날 명인은 크네히트에게 방대한 서류 하나를 내놓았다. 어느 파이프오르간 연주자가 명인에게 제출한 건의서로서 수없이 많은 건의서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런 건의서들을 검토하는 것은 유희 관련 최고위직의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대개의 경우 이것은 기록관에 새로운 소재가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신청서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마드리갈의 역사를 아주 자세하게 연구해 이 양식의 발전과정에

서 하나의 법칙을 발견해내어서는 그것을 음악적으로나 수학적으로 기록해서 유 희의 어휘가운데 채택되기를 신청했다. 또 어떤 사람은 줄리어스 시저의 라틴어를 운율적인 특성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그것이 비잔틴 시대의 찬송가에 대한 유명한 음정 연구들의 결과와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어떤 열광적인 사람 은 15세기의 기보법에 대해 새로운 비결을 발명해내었다. 또 예를 들어 괴테와 스 피노자의 점성술을 비교함으로써 놀랍기 짝이 없는 결론들을 이끌어내고. 때에 따 라서는 아주 아름답고 그럴 듯하게 여겨지는 다채로운 기하학적 도형들을 덧붙이 고 있는 빗나간 실험가들의 격정에 찬 편지들도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날의 건의 서를 열심히 검토했다. 비록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미 가끔 그런 종류의 건의서들을 머릿속에 구상한 바 있었던 것이었다. 사실 모든 적극적인 유 리알유희연기자는 유희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서 그것이 전체 세계를 포 괄할 수 있게 되는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생각을 통해서 나 개인적인 유리알유희 연습을 통해서 그런 확대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대에 대해 연기자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확대에서 벗어나 공적인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는다. 고도로 발전한 유희연기자들이 하는 개인적인 유희의 진정하고도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유희의 제반 법칙이 갖는 표현력과 명명 능력과 형식 구성력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함으로 써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들로 행해지는 임의의 한 유희에다 전혀 개인적이고 일회적인 관념들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게 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존경받는 생물학자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말을 하기도 했다. "유리알유희에 있 어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식물이 린네 씨와 라틴어로 이 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크네히트는 명인을 도와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분석했다. 30분의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다음 날 크네히트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크네히트는 2주일 동안 매일 그렇게 와서 유희명인과 단둘이 30분 동안 일을 했다. 처음 며칠이 지나는 동안에 벌써 그의 눈에 띄게 된 사실이었지만 명인은 그로 하여금 슬쩍 한 번만 조사해 보아도 그 무용성이 드러나고 마는 제안들까지도 세심하게 비판적으로

끝까지 검토해 보도록 시켰다. 크네히트는 명인이 그런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 크네히트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명인을 도와서 그의 일을 좀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었다.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런 일들은 오히려 어디까지나 크네히트 자신을, 즉 젊고 노련한 그 자신을 지극히 점잖은 방식으로 아주 세심하게 시험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찍이 소년시절에 음악명인이 나타났을 때와비슷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이제 동료들의 태도에서도 벌써 그 점을 느끼게 되었다. 동료들의 태도는 그를 점점 더 두려워하는 듯하고, 그에 대해 점점 더 거리를 두는 듯 하고, 때때로는 비아냥거리듯 공손하기도했다. 크네히트는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옛날만큼 행복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함께 앉아 일하고 난 뒤에 유리알유희명인은 약간 높고 점잖은 목소 리의 억양이 매우 분명한 말투로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좋아. 내일부터는 더 이 상 오지 않아도 되네. 현재로서는 우리 일은 끝났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다시 자 네를 괴롭히게 될 걸세. 같이 일을 해 줘서 정말 고맙네.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 이 되었네. 그건 그렇고, 나는 자네가 이제 종단 입단 신청서를 내었으면 하네. 별 다른 어려움은 없을 걸세. 내가 이미 종단 사무처에 말을 해 두었네. 이의는 없겠 지?" 그런 뒤 명인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했다. "말이 난 김에 한 마디만 더 하겠네. 대부분의 훌륭한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이 젊은 시절에 그러 는 것처럼 자네도 가끔 유리알유희를 철학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싶을지 모르 겠네. 내 말만 듣고서 자네가 그리 안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말은 해 두겠네. 철학 을 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수단으로써만 해야 하네. 철학의 수단들로써 말일세. 그러나 우리의 유희는 철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닐세. 유리알유희는 독자적인 분과 이며 그 성격에 있어서 예술과 가장 가까운 것이라네. 유리알유희는 독특한 형태 의 예술일세. 이런 사실에서 출발하면 백 번의 실패 뒤에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 을 때보다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걸세. 철학자 칸트는—요즘에야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지—신학적으로 철학하는 것을 '환영(幻 影)의 요술램프'라 불렀지. 우리는 유리알유희가 그런 것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네."

요제프는 매우 놀랐다. 마지막에 한 경고의 말은 흥분을 억제하느라 거의 듣지 못할 뻔했다. 유리알유희명인의 이 같은 말은 그의 자유로운 생활의 끝남과 연구시대의 마감과 종단에의 입단과 조만간에 있을 계층조직에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요제프는 몸을 깊이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어서 바로 발트첼의 종단 사무처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실제로 자신이 새로 입단하게 될 사람들의 명부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단계에 있는 모든 연구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종단의 규칙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있는 종단 단원이면 누구나 입단 의식을 주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규정을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요제프는 음악명인이 그 의식을 주재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요제프는 신분증명서를받고 잠시 휴가를 얻어 다음 날 자신의 후견인이자 친구인 음악명인이 살고 있는 몬테포르트를 향해 떠났다. 요제프가 도착했을 때 존경하는 노인은 몸이 좀 불편한 상태였지만 반가운 마음으로 요제프를 맞이해 주었다.

"때 맞춰 잘 왔네." 노인이 말했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자네를 젊은 형제로서 종단에 입단시킬 수 있는 자격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될 걸세. 나는 나의 직을 내놓으려고 하네. 내 사직에 대해서는 이미 허락이 났네."

종단 입단 의식 자체는 간단했다. 다음 날 음악명인은 규정이 요구하는 대로 두 명의 종단 단원을 증인으로 초대했다. 그에 앞서 크네히트는 종단 규칙의 한 조문을 명상연습의 과제로 받았다. 조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고위 당국에 의해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할 것. 관직의 서열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는 것은 자유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속박은 더욱 커진다. 직권이 커지면 커질수록 봉사는 더욱 엄격해진다. 개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의는 더욱 금지된다." 사람들은 이제 모두 명인의 음악실에 모였다. 일찍이 크네히트가 명상법에 대한 최초의 지도를 받았던 바로 그 방이었다. 명인은 새로 입단하게 된 사람에게 이 시

간을 축하하기 위해 바흐의 합창 전주곡 하나를 연주하라고 주문했다. 그러고 난 뒤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요약된 종단 규칙을 낭독했으며, 음악명인 자신은 의례적인 질문들을 하고 이 젊은 친구로부터 서약을 받았다. 음악명인은 크네히트를 위해 한 시간을 더 할애했다.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명인은 크네히트가 종단 규칙을 어떤 의미에서 깊이 새기고 또 그것에 따라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내가 물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자네가 그 빈자리에 들어오게되어 정말 잘 되었네. 장차 나를 대신해 그 소임을 다할 아들을 얻은 기분이라네." 명인은 말했다. 그러다 요제프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는 것을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 슬퍼하지 말게. 나도 슬프지 않으니까. 나는 몹시 피로하다네. 그래서여가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네. 그 시간을 즐길 생각이네. 자네도 자주같이 즐겨 주었으면 좋겠네. 다음번에 만날 때는 평칭으로 불러 주게. 관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자네한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었다네." 명인은 크네히트가 이미 20년 전부터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예의 그 미소를 지으며크네히트를 떠나보냈다.

크네히트는 서둘러 발트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받은 휴가는 사흘뿐이기 때문이었다. 돌아오자마자 유희명인이 크네히트를 불렀다. 유희명인은 마치 동료처럼 즐거운 기분으로 크네히트를 맞이하면서 크네히트가 종단에 입단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우리가 완전하게 동료가 되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며 유희명인은 말을 계속했다. "자네가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떤 특정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네." 요제프는 조금 놀랐다. 결국 그는 이제 자유를 잃어야 하는 것이었다. "아" 크네히트는 수줍은 듯 말했다. "눈에 별로 띄지 않는 자리에서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 더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명인은 심각한 것같으면서도 약간 비웃는 것 같은 기운이 서린 미소를 지으며 크네히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얼마 동안'이라고 했는데 대체 얼마나 긴 시간을 말하는 건가?" 크네히트는 난처해하며 웃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그럴 줄 알았네." 명인은 맞장구를 쳤다. "자네는 아직도 학생의 말을 쓰고 있고 학생의 개념

들로 사고를 하고 있어, 요제프 크네히트. 지금으로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얼마 안 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걸세. 우리는 자네가 필요하니까 말일세.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후일에도, 아니 우리 조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다음에도 자네는 연구 목적으로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걸세. 자네가 연구의 가치에 대해 당국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말일세. 예를 들어 나의 전임자이며 스승이었던 그분은 유희명인으로서 노인이 된 다음에도 런던의 기록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1년간의 휴가를 신청했고 또 휴가를 받았네. 하지만 그분이 받은 휴가는 '얼마 동안'의 휴가가 아니라 몇 달, 몇 주, 며칠의 일정기간 동안의 휴가였네. 자네는 앞으로 그런 휴가를 기대해야 할 걸세. 그건 그렇고 이제 나는 자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해야겠네. 우리 주(州) 밖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이 한 사람 필요하다는 말일세."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임무였다. 이 나라의 가장 오래된 교육시설 가운데 하나로 카스탈리엔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몇 10년 전부터 유리알유희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마리아펠스의 베네딕트파 수도원이 그곳에서 얼마동안 유리알유희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또 수도원 내에 있는 몇몇 상급 유희연기자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젊은 선생을 한 사람 보내달라고 카스탈리엔에 요청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유희명인은 크네히트를 적임자로 선택하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음악명인은 크네히트를 그렇게 신중하게 시험하고 또 크네히트의 종단 입단을 서두른 것이었다.

두 종단

이제 또다시 크네히트의 상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찍이 라틴어학교 학생 시절음악명인이 찾아온 다음의 상태와 비슷했다. 사명을 띠고 마리아펠스로 가게 된것이 대단한 명예이며 계층조직의 서열에서 힘차게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요제프는 거의 생각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 해도 이제는 예전보다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더 밝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료들의 태도나 행동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읽을 수가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는 뛰어난 유리알유희연기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연기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었지만이제 이 비상한 사명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그는 누구보다도 상사들의 마음에 들고또 그들에 의해 중용될 인물로서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었다. 어제의 친구들이나함께 경쟁하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물러서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단히 귀족적인 이 사회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지나치리만큼 예절을 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간격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의 친구가 모레의 상사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서로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서열과 차이를 이 사회는 지극히 섬세한 진동으로 받아들이고 또표현했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생애에 있어 페로몬테 다음으로 가장 충실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프리츠 테굴라리우스는 그러나 예외였다. 타고난 재능으로 보아서는 최고위 직에 오를 만도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균형감각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었던 테굴라리우스는 크네히트와 같은 나이였는데, 크네히트가 종단에 입단하게 되었던 그 무렵 34세 가량이었다. 크네히트는 약 10년 전한 유리알유희 강습에서 테굴라리우스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벌써 크네히트는 말이 없고 다소 우수에 젖어 있는 것 같은 청년이 자신에게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비록 무의식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이미 크네히트는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의 애정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헌신과 복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정이요 존경이고 거의 종교적인 성격의 열광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내적인 고

귀함과, 내적인 비극성에 대한 예감에 찬 감정을 통해 그림자가 져 있었으며 또 억제되고 있었다. 당시는 아직 데시뇨리와 대결했던 시기의 여파로 마음이 흔들리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별로 믿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그 자신 흥미 있고 비범한 이 친구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테굴라리우스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거리를 유지했다. 테굴라리우스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크네히트가 여러 해 뒤에 전적으로 최고위 당국만이 볼 수 있도록 작성했던 직무상의 비밀기록들 가운데 한 장이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테굴라리우스, 본 보고자와 개인적으로 친구 사이이다. 코이피하임에서 여러 차 례 우수한 성적을 보였던 학생이며 훌륭한 고문헌학자이다. 철학적인 문제에 상당 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라이프니츠와 볼차노에 대해 연구했으며 나중 에는 플라톤을 연구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재능 있고 훌륭한 유리알유희연기 자이다. 그의 좋지 않는 건강과 관련해서 그의 성격이 그러기에 완전히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하늘이 정해놓은 유희명인일 것이다. 테굴라리우스는 지도적 이거나 대표적이거나 통솔적인 지위에 앉아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그를 위해 서나 그 직책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그의 결함은 육체적으로는 울적한 상태나 주기적인 불면증이나 신경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가끔 우울증이 나 고독에 대한 격렬한 요구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불안감이나. 짐작컨대 또한 자 살에 대한 생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서도 명상을 하고 대단한 극기심을 발휘함으로써 용감하게 자신을 바르게 지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심각한 고통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그의 극히 소심한 태도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인지하고 있을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테굴라리우스가 고위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지만 그는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에서 보배와 같은 존재이며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 물 같은 존재이다. 위대한 음악가가 악기를 다루듯이 그는 우리 유희의 기술을 구 사하고 섬세하기 짝이 없는 뉘앙스를 눈을 감고서도 짚어내며 교사로서도 전연 나 무랄 데가 없다. 상급이나 최상급의 복습과정에서—내가 보기에 그는 하급과정을 맡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이다. 학생들의 사기를 꺾어 버리는 일이 없이 그들의 연습유희를 분석하고, 학생 들의 잔재주들을 추적하여 모방한 것이나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것 모두를 정확히 분간해내서 밝히고, 기초가 튼튼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며 그릇된 구조를 취하고 있는 유희에서 오류의 근원을 찾아내어 완전한 해부학적 표본처럼 제시해 보이는 그의 능력은 비할 데 없이 뛰어난 것이다. 분석을 할 때나 수정을 할 때 발 휘되는 바로 이런 흔들림 없고 날카로운 통찰력 때문에 그는 학생들이나 동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런 통찰력이 없다면 그 존경은 그의 불안정하고 고르지 못하며 소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유리 알유희연기자로서 테굴라리우스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천재성에 대해 내가 말 했던 것을 이제 나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그와 친구 사이가 된 초기 시절 우리 두 사람 모두 이미 기술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별로 배 울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던 어느 날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게 된 어느 시간에 그는 당시 자신이 구성해 놓았던 몇 편의 유희를 나에게 보여 주었다. 그 유희들이 훌륭 하게 창안되고, 양식 면에 있어서도 어딘가 새롭고 독창적이라는 것을 나는 첫눈 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기록해 놓은 개요들을 부탁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았다. 나는 그 유희구도들에서, 즉 진정한 그 창작물들에서 무언가 아주 놀랍고 독창적 인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 을 정도로 놀랍고 독창적이었다. 그 유희들은 거의 전적으로 독백적인 구조를 갖 는 소규모의 희곡들이었으며, 완벽한 초상화처럼 그 작가의 개인적인 정신 생활 을, 위험한 것이면서도 천재적인 정신 생활을 반영하고 있었다. 유희의 토대를 이 루고 있으며 그 연결이나 대비가 매우 훌륭한 것이었던 여러 가지 상이한 주제나 주제군 사이에서 변증법적으로 경쟁이나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립 적인 목소리들의 종합이나 조화도 흔히 볼 수 있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조화는 오히려 많은 굴절을 겪고 있었으며, 지치고 절망 에 빠진 듯 언제나 해체에 직면하고 의문과 회의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로 인 해서 그 유희들은 자극적이며, 내가 알기에 그때까지 결코 감행된 바가 없는 분위 기를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유희들 전체가 어떤 비극적인 회의와 체념의 표현이 되고, 모든 정신적 노력의 문제성을 확인시켜 주는 비유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이 유희들은 그 정신이나 유희기술상의 표현법이나 완성도에 있어 말할 수 없이아름다웠기 때문에 눈물이 날 정도였다. 이 유희들 각각은 매우 은밀하고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그 해결책을 지극히 고상한 체념으로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무상성과 모든 고상한 정신적인 목표 속에 결국 내재하게 되는 문제성에 대한 완벽한 비가(悲歌) 같았다.—또 테굴라리우스가 나보다 또는 내 임기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경우를생각해서 나는 그를 지극히 섬세하고 소중하기는 하지만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존재로서 추천해 두고자 한다. 그에게는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모든 중요한유희 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가 혼자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기이한 사람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완전히 크네히트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크네히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정신뿐만 아니라 지배자적인 기질 같은 것도 찬 탄해 마지않았던 테굴라리우스는 크네히트에 대해 감동적이리만큼 헌신적이었다. 우리가 크네히트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도 바로 그를 통해 전해진 것이다. 소수의 뛰어난 젊은 유리알유희연기자들 가운데 친구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련해 친구를 질투하지 않은 사람은 테굴라리우스 혼자뿐이었을 것이다.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친구가 무기한으로 떠나게 된 것을 깊은, 아니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손실로 받아들인 사람도 테굴라리우스뿐이었을 것이다.

요제프 자신은 소중하게 여기던 자유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된 데 대해 느꼈던 어느 정도의 놀라운 기분을 극복하게 되자 이 새로운 상태를 즐거운 기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여행을 하고 싶은 기분과 활동을 하고 싶은 기분을 느꼈으며, 자신이 가게 될 미지의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젊은 종단형제를 바로 마리아펠스로 떠나보내지는 않았다. 우선 그는 3주일 동안 '경찰서'에들어가 있게 되었다. 작은 부서에 대해 다소 거창한 이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정치부나 외무부로 부를 수 있을 교육국 기구 내의 이 작은 부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불리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는 바깥세계에 체재하게 될 종단 단원이 지켜 야 하는 행동규범을 배웠다. 거의 매일 이 부서의 부장인 뒤보아 씨가 직접 크네히 트에게 한 시간 동안 가르쳤다. 이 양심적인 사람은 아직 전혀 경험이 없고 또 아 직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을 외부의 자리에다 보내는 것을 걱정스럽 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유리알유희명인의 결정을 못마땅 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으며, 더욱 애를 써서 젊은 종단형제에 게 속세의 온갖 위험에 대해, 또 그런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친 절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처럼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부장의 성실 한 마음씨와 열심히 가르침을 받으려는 젊은이의 자발적인 태도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속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는 그 시간 들을 통해서 요제프 크네히트는 진정으로 그의 선생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선생도 결국 안심을 하고 깊은 신뢰감을 느끼면서 그를 사명을 수행하도록 떠나보낼 수 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크네히트에게 자기 나름의 어떤 임무를 따로 또 부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의에서였지 정치적인 의도에서 가 아니었다. 이미 카스탈리엔의 몇 명 안 되는 '정치가들'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 던 뒤보아 씨는 카스탈리엔의 법률 및 경제상의 존속 문제나 외부세계에 대한 카 스탈리엔의 관계와 의존성의 문제를 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극히 작은 수의 관리 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학자들이나 연구생들뿐만 아니라 관리들도 포함해서 대 부분의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교육주와 종단을 안정적이고 영 원하며 자명한 세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론 이 세계에 대해 그것이 언제 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시대에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전쟁 의 세기의 말에 정신적인 사람들의 금욕적이고 영웅적인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부 터 지칠 대로 지치고 피를 흘리고 의지할 데 없이 버려진 국민들의 질서와 규범과 이성과 법칙과 표준에 대한 절실한 욕구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 다. 그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배와 경쟁을 단념하는 대신 모든 표준과 법칙의 정신적인 기초를 온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세계의 모든 종단과 '주(州)

들'의 기능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물의 이런 질서는 결코 자명한 것이 아 니며, 그것은 속세와 정신 사이의 어떤 조화를 전제로 하며, 그런 조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세계사는 결코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고작해야 가끔씩 예외적인 것으로서 허 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카스탈리엔의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이런 은밀한 문제성은 거의 모든 카스탈리엔 사람들에 의해 서 별로 깊이 인식되지 못하고 바로 소수의 정치적인 인물들에게 내맡겨져 있었던 것인데, 뒤보아 부장은 그런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크네히트를 충분히 신 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뒤보아는 크네히트에게 카스탈리엔의 정치적 기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대부분의 종단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크네히트 는 이 설명을 불쾌하고 별로 흥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듣고 있는 동안 에 바로 크네히트는 데시뇨리가 일찍이 카스탈리엔이 위기에 처할 가능성에 대해 했던 말과 이미 오래전에 극복되어 잊어버린 것으로 여겨졌던, 젊은 시절 플리니 오와 가졌던 논쟁의 쓰라린 뒷맛 전부를 다시 기억 속에 떠올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크네히트에게는 이 설명이 돌연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그의 각성의 길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가졌던 자리의 끝 무렵에 가서 뒤보아는 크네히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자네를 떠나보내도 될 것 같네. 존경하는 유희명인께서 자네에게 부과한 임무를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자네한테 설명해준 행동규칙들도 마찬가지로 잘 지키도록 하게. 자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나는 즐거웠네. 우리가 이곳에서 자네를 붙잡아 놓고 있었던 3주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네는 알게 될 걸세. 나에게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와 나와 알게 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기분을 자네가 장차 느끼게 될는지 모르겠네만, 그럴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자네는 베네딕트 파 수도원에 가게 될 걸세.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고 신부들의 신임을 얻게 되다 보면 자네는 아마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그들의 손님들 사이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정치적인 분위기들도 느낄 수 있게 될 걸세. 자네가 가끔 그런

것에 대해 소식을 전해 준다면 고맙게 생각하겠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자네스스로를 일종의 첩자로 생각하라거나 신부들로부터 받은 신임을 이용하라거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일세. 자네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보고도나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일세. 자네한테 분명히 말해 두는 바이지만 혹시 어떤정보가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종단과 카스탈리엔의 이익을 위해서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일세. 사실 우리는 결코 정치가가 아니며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닐세. 그러나 우리도 우리를 필요로 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그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걸세. 어떤 정치가가 그 수도원에 찾아온다든가, 교황이 병석에누워 있다든가, 장차 추기경이 될 사람들의 명부에 새로운 후보자가 오른다든가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 경우에 따라 그런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 수 있는 걸세. 우리가 자네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 정보를 얻을 데는 얼마든지 많이 있네. 하지만 작은 정보망이 하나 더 는다고 해서 해로울 거야 없지 않겠나. 자, 그러면 가보게. 내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필요는 없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네의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신부들 사이에서 우리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게. 그럼, 잘 가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크네히트는 쑥대로 점괘를 보아 《역경》에 물어보았다. '여행자'라는 의미와 '사소한 것을 통해 성공하다. 여행자에게는 그저 끈기가 약이다'라는 풀이를 갖는 '여(旅)'라고 하는 괘가 나왔다. 두 번째 점에서 여섯 끗 점괘를 발견하게 되자 크네히트는 《역경》에서 그 풀이를 찾아보았다.

여행자가 숙소에 이른다. 그는 자기 재산을 몸에 지니고 있다. 그는 어린 머슴의 끈기를 얻는다.

즐거운 기분으로 떠나게 되었다. 테굴라리우스와의 마지막 대화만이 두 사람에게 있어 인내심을 시험하는 가혹한 시련이 될 뿐이었다. 프리츠는 스스로를 억제하느라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으며, 무리하게 냉정을 유지하려 한 결과 몸이 돌처럼 굳

어 버린 것 같았다. 프리츠에게 있어 크네히트가 떠나는 것은 바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최고의 것이 떠나는 것이었다. 크네히트의 성격으로서는 한 친구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특히 그렇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는 친구 없이도 지낼 수 있었으며, 연민의 빛줄기를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한테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작별은 그렇게 큰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크네히트는 그 친구 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친구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고 시련이 되는가를 깨닫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 걱정을 했다. 크네 히트는 자주 이 우정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었으며. 그에 대해 음 악명인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자신의 체험과 감정 을 객관화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그는, 자 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신에게 친구를 향한 어떤 열정 같은 것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사실 또는 전적으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이 여러 가지 심각한 결함이나 대단히 연약한 속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점이라는 사실과, 테굴라리우스가 자신에게 바치고 있는 그 일방적이고도 지독한 사랑은 어떤 아름다운 매력이나 측면뿐만 아니라 위험스러운 매력이나 측면도, 즉 사랑이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그 친구로 하여금 때때로 자신의 강한 힘을 느 끼게끔 만들고자 하는 유혹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우정에 있어서 그는 끝까지 대단히 삼가는 태도와 극기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정된 자신의 친구에게 열광하고 있었던 이 연약한 인간과의 우 정이 크네히트로 하여금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이 지니고 있는 그 자신 의 흡인력과 영향력에 대해 자각토록 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 친구는 크네히 트에게 있어 비록 소중한 존재이기는 했겠지만 크네히트의 생애에서 결코 깊은 의 미를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 치는 이런 힘은 본질적으로 선생이나 교육자의 재능 가운데 드는 것이라는 점과. 그런 힘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책임이 수반된다고 하는 점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사실 테굴라리우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크네히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그는 마지막 해에 연기자 마을에서 자신이 처해 있었던 그 고도로 긴장된 분위기를 점 점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 지는 않지만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룹 또는 계급의 일원이 되고 있었다. 그것은 유리알유희연기자 후보자들이나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의 엄선된 그 룹이었는데, 이 그룹으로부터는 명인 밑에서나 기록관 또는 유희 강습에서 보조 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둘 배출되기는 했지만 하급 또는 중급의 관리나 선생으 로 임명되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지도적인 자리를 맡기 위한 예 비적인 존재들이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아주 자세하게, 아니 지독하리만 큼 자세하게 알고 있었으며, 재능이나 성격이나 능력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는 일 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유희를 연구하는 그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이나 보다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는 그 후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바로 보통 이상의 주목할 만한 인재들이었고, 그 능력이나 지식이나 성적에 있어서 바로 최 상급의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한 후보자를 지도자나 성공한 인물로 미리 결정지어 주는 특질이나 색채의 성격은 대단히 크고 주목받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명예심이나 훌륭한 처신이나 체구의 크기나 수려한 용모에 있어서의 약간의 우열 같은 것이, 매력이나 후배들과 당국에 대한 영향력이나 친 절함에 있어서의 약간의 우열 같은 것이 이곳에서는 대단히 중요했으며. 경쟁에서 승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프리츠 테굴라리우스는, 분명히 지배적인 재 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까닭에. 아웃사이더나 관대하게 대접받는 손님으로서만 그 그룹에 속하고 또 어디까지나 그 가장자리에 들고 있을 뿐이었지만 크네히트는 그 핵심에 속하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크네히트를 따르고 숭배하게 되었던 것 은, 정열에 이끌리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린애다운 분방함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젊은 기운이 넘치고 있는 그의 신선하면 서도 우아한 태도, 즉 어느 정도의 순진무구한 태도 때문이었다. 상사들이 그를 좋 아한 것은, 그 순진무구한 태도의 다른 면, 즉 그가 거의 전적으로 명예욕과 출세 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맨 처음에는 아래쪽을 향하다가 점차 상승하여 결국에 가서는 위쪽으로도 향하게 되었던 자신의 인격의 영향을 이 젊은 사람이 자각하게 되었던 것은 최근에 와서 야 일어난 일이었다. 자각한 사람의 관점에서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멀리 소년시 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생애에 두 갈래 선이 관류하면서 그 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나는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바친 헌신적인 우정의 선이었 고, 또 하나는 많은 상사들이 그를 대할 때 보여 주었던 호의적인 관심의 선이었 다. 츠빈덴 교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 대신에 음악명인의 애 호나. 최근의 뒤보아 씨나 유희명인의 애호와 같은 영예로운 일도 있었던 것이었 다. 모든 것이 명백했지만 크네히트는 결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려 하지 않았으 며, 승인하려 들지 않았다. 마치 저절로 그렇게 되기라도 하듯이 아무런 노력을 기 울이지 않아도 어딜 가나 영재들 사이에 들고, 찬탄해 마지않는 친구들과 호의적 인 상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그에게 예정되어 있는 길이었다. 계층조 직의 바닥 그늘진 곳에 쭈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점과 이 정점을 에워싸고 있 는 광명을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는 것이 그의 길이었다. 그는 하급관리나 민간 학 자가 아니라 하나의 지배자가 될 것이었다. 그는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 들보다 더 늦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매력 을 발휘하고 그 순진무구한 분위기를 풍길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늦 게 그 사실을, 그것도 불쾌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을까? 사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결코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바라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있어 지배하 는 일은 어떠한 욕구도 못 되며, 명령하는 일은 또 어떠한 만족도 아니기 때문이었 다. 그는 활동적인 생활보다는 명상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고, 평생 동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눈에 띄지 않는 연구생으로, 즉 과거 세계의 성전 들과 음악의 대사원과 신화와 언어와 이념의 다채로운 뜰과 숲 사이를 두루 돌아 다니는 호기심에 찬 경건한 순례자로 남게 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인정사정없이 활동적인 생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지금 그 는 자신의 주위에서 노력과 경쟁과 명예욕이 빚어내는 긴장감을 지금까지보다 훨 씬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으며, 자신의 순진무구함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기분과, 지난 10년간 누리고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져 버린 자유에 대한 향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이제 바라고 긍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직 그러고 싶은 기분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발트첼과 주를 당분간 떠나 바깥 속세로 여행하게 된 것을 마치 구원처럼 받아들였다.

마리아펠스의 교단과 수도원은 수세기 동안 존속해 오는 가운데 서구의 역사를 함 께 결정했으며, 또 그 고난을 함께 겪었다. 여러 차례의 전성기와 침체기와 부흥기 와 새로운 쇠퇴기를 경험하였으며, 여러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유명하고 탁월한 힘을 발휘했다. 일찍이 스콜라 철학과 토론술의 중심이었던 까닭에 오늘날에 와서 도 중세 신학 관계의 방대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이 수도원은 무기력과 침체의 시기를 넘기고 난 뒤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번에는 음악에 대한 장려 와 그 유명한 합창과, 신부들이 써서 상연한 미사곡과 오라토리오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로부터 이 수도원은 훌륭한 음악적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었으며, 악 보가 가득 든 여섯 개의 호두나무 궤짝을 소장하고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 운 파이프오르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수도원의 정치적 시대가 왔다. 이 시대 역시 어떤 전통과 관습을 남기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몹시 황폐해졌던 시 대에 마리아펠스는 여러 차례 양식과 이성의 외로운 섬이 되었으며, 거기에서는 적대하고 있는 당파들의 우두머리들이 서로 조심스럽게 만나서 협상을 모색했다. 언젠가—이것이 마리아펠스 역사의 최후의 전성기였다.—마리아펠스는 지칠 대로 지친 민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얼마 동안 달래 주었던 어느 평화협정의 산실이 되 었다. 그 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카스탈리엔이 창설되었을 때 이 수도원은 방 과적인, 아니 거부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로마로부터 무슨 지시 를 받았던 것처럼 보였다. 그 수도원에 있는 스콜라 철학 관련 도서관에서 얼마 동 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느 학자를 후대해 달라는 교육국의 요청과 음악사 회의 에 대표자를 한 명 보내 달라는 초대는 모두 정중하게 거절되었다. 노령에 접어들 어서 유리알유희에 활기찬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피우스 원장 이후에야 비로소 교류와 교환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우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다. 서적들이 교환되었으며 서로 귀빈 대우를하게 되었다. 크네히트의 은인인 음악명인도 젊은 시절에 몇 주일 동안 마리아펠스에 머무르면서 악보 원문을 필사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기도 했다. 크네히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생이 가끔 즐겁게 이야기해 주었던 그 장소에 머무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수도원에서는 생각 밖으로 융숭하게 맞아 주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카스탈리엔이 자신의 수재들 가운데서 가려 뽑은 유리알유희 선생을 무기한으로 수도원에 보내어서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은 사실 또 처음 있는 일이었 다. 손님 역할을 하는 초기에 있어서 특히 자신을 개인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오로 지 카스탈리엔의 대표자로서만 생각할 것이며, 친절한 대접이나 혹시 있을지도 모 르는 무덤덤한 태도는 어디까지나 사절의 자격으로서 받아들이고 또 대응해야 한 다는 것을 크네히트는 이미 뒤보아 부장한테서 배운 바가 있었다. 그때문에 그는 처음의 얼떨떨한 기분을 극복할 수 있었다. 처음에 가지게 되었던 낯선 느낌이나. 처음 며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했던 불안감이나 가벼운 흥분상태도 이겨 내게 되었다. 또 수도원장인 게르바지우스가 다정하고 명랑하게 호의를 베풀어주 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이내 새로운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 사이 사이에 깎아지른 것 같은 바위 절벽과 아름다운 가축 떼들이 가득 노니는 기름진 풀밭들이 있는 경치, 거친 산지 경치의 신선하고 힘찬 기운이 그를 기쁘게 해 주었 다. 수백 년의 역사를 말해 주고 있는 육중하고 넓으며 오래된 건물들이 그를 행복 하게 해 주었다. 길게 늘어 선 영빈관 건물의 이층에 있는 두 개의 방으로 된, 아름 답고 소박하고 아늑한 집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개의 교회와 많은 회랑과 기록관과 도서관과 원장의 관사와 여러 개의 마당과 잘 먹인 가축들이 가득 찬 넓 은 축사들과 물이 솟아오르고 있는 분수들과 둥근 천장을 한 거대한 포도주 및 과 일 창고들과 두 개의 식당과 유명한 주교좌성당참사회 회의실과 잘 가꾸어진 정원 들뿐만 아니라 제일 큰 마당 둘레에서 작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평수도사와 통장 이와 구두장이와 양복장이와 대장장이 등등의 작업장이 있는 그 당당한 작은 나라 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연구 행차를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다. 그는 이미 도서관에도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는 크네히트에게 그 유명한 파이프오르간을 구경시켜 주었으며, 크네히트가 오르간을 연주해 보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악보가 들어 있는 궤짝들도 적지 않게 그의 마음을 끌었는데, 거기에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적으로는 아직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엄청난 수의 옛날 음악악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도원에서는 크네히트가 공무상의 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 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다. 몇 날만이 아니라 몇 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사 람들은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진정한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첫 날부터 몇몇 신부가, 특히 원장 자신까지도 요제프와 유리알유희에 대해 즐겨 이 야기를 나누기는 했었지만 수업이나 그 밖의 체계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 기가 없었다. 그밖에 또 크네히트는 그 성직자들의 행동이나 생활방식이나 교제방 식에서 그 자신 일찍이 모르고 있었던 어떤 템포와 어느 정도의 존경할 만한 서두 르지 않는 태도와 느긋하면서도 친절한 인내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런 점은 모 든 신부들에게, 개인적으로는 결코 활기가 없지도 않는 신부들에게까지도 공통적 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그들의 교단의 정신이었다. 그것은 행 복과 고난을 수백 번이나 겪은, 너무도 오래되고 특권을 가진 질서와 공동체가 발 산하는 천 년의 역사를 가진 숨결이었다. 벌 한 마리 한 마리가 벌통과 운명을 같 이 하여 함께 자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떨고 하듯이, 그들은 그 질서나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었다. 카스탈리엔의 생활방식과 비교해 볼 때 이 베네딕트파의 생활방식은 피상적으로 보면 덜 정신적이고 덜 민첩하고 덜 예민하고 덜 적극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대신에 더 안정적이고 영향에 덜 구애받고 더 오래되고 더 견 고한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다시 자연이 되어 버린 정신과 감 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네히트는 호기심과 대단한 흥미를 느끼면 서, 또한 대단히 경탄하면서 이 수도원 생활을 받아들였다. 카스탈리엔이 아직 이 세상에 생겨나지 않았던 시대에 이미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 며, 그때 벌써 1500년의 역사를 누리고 있었던 이 수도원 생활은 크네히트의 성격

의 정관적(靜觀的)인 측면을 대단히 충족시켜 주었다. 그는 손님으로서 존경을 받 았다. 그는 기대 이상으로 지나치게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그런 존경은 격식이고 관례였다. 그것은 그 개인에 대한 존경도 아 니고 카스탈리엔이나 유리알유희의 정신에 대한 존경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대국이 어린 나라에 보여주는 위엄 있는 예의였다. 크네히트는 이런 사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그리 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크네히트는 얼마 후, 마리아펠스 에서의 생활이 매우 즐겁기는 하지만 몹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 의 행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당국에 요청했다. 유리알유희명인이 직접 크 네히트에게 몇 줄을 적어 보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무 생각 말고 그곳 생활을 연구하는 데 마음대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게. 하루하루를 잘 이용 해서 배우도록 하게. 그곳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 사랑을 받고 또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게.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게. 자네 주 인보다 더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말고. 더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말게. 자네를 손님으로서 온 첫날처럼 대하는 일이 앞으로 1년 동안 내내 계속된 다 하더라도 그것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게. 2년 아니라 10년이나 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정성 들여 명상을 하게. 여가 시간이 너무 오래 계속된다 싶으면 매일 최고 4시간까지 몇 시간을 내어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해 보게. 워본들을 연 구하거나 필사하는 일 등등 말일세. 그러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는 말게,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라도 시간을 내도 록 하게."

크네히트는 이런 지침에 따랐으며, 얼마 안 가서 다시 보다 자유스러운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이곳에서의 사명에 그 이름을 부여해 주었던, 유리알유희 애호가들을 위한 교수 임무에 대해서만 아주 많이 생각을 해왔었지만 수도원의 신부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그를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우해 주어야할, 어떤 우호적인 세력의 대표자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원장 게르바지우스는 그 교수 임무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그에게 우선 몇 명의 신부들을

데려다 주었다. 유리알유희 예술에 대해 이미 초급과정을 마친 사람들로서 그에게서 다음 과정을 밟게 될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손님 대접이 좋은 이곳에서 그 고 귀한 유희의 문화는 매우 피상적이고 낮은 수준이었으며 또 사람들은 아주 소박한정도의 유희 지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놀랐으며 또 처음에는 대단히 실망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사실에 이어서 그는 서서히 또 하나의 사실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리로 파견되었던 것은 유리알유희 예술이나 수도원에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 때문이 전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유희에 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지식을 조금 더 가르쳐 주고 그들의 소박한 연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쉬운, 너무도 쉬운 일일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라면 아직 영재 축에전혀 들지 못하고 있는 다른 어떤 유희후보자라도 능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결국 가르친다고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의 진정한 목적일 수는 없었다. 자신이 이곳으로 파견된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바로 그때 수도원 내에서 그의 권위는 다시 갑자기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서 그의 자신감도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손님으로서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매력도 있고 마음에 드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미 그는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을 가끔 거의 좌천 같은 것으로 여겨왔던 터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그는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중국의 《역경》에 대해 말을 내비치게 되었다. 그러자 원장은 귀를 기울이며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자신의 손님이 생각했던 밖으로 중국어와 《역경》에 정통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원장은 그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는 《역경》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으며 《역경》이나 다른 중국의 비서 (秘書)들에 대한 그의 지식도 당시 이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학문적 관심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소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명하고 손님에 비해서 경험이 많으며 세상물정에 밝은 이 사람이 고대 중국의 정치철학이나 인생철학의 정신에 대해 진실로 큰 관심

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상당히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때까지 주인과 손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정중한 태도의 장벽을 처음으로 허물어뜨렸으며, 점잖은 원장에게 일주일에 두 번 《역경》에 대해 강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크네히트가 받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주인인 원장에 대한 관계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오르간 연주자와의 동료애 어린 우정은 깊어지며, 살고 있는 그 작은 종교적인 국가가 그에게 점점 더 친숙해 져 가고 있는 동안, 그가 카스탈리엔을 떠나기 전에 점을 쳐 알아보았던 그 점괘 의 약속도 실현되어 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재산을 몸에 지니고 있는 여행자인 그 에게는 숙소에의 투숙뿐만 아니라 "어린 머슴의 끈기"가 약속되었던 것이다. 약속 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여행자는 좋은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가 진실 로 "재산을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과 학교나 선생들이나 동료들이나 은인들이나 도와주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도. 카스탈리엔의 포근하고 원기를 북돋아 주고 호 의적인 분위기로부터 멀리 떠나서도 그가 흐트러지지 않은 정신과 힘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으며, 그 정신과 힘의 도움을 받아 활동적이며 가치 있는 생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징조였다. 점괘에서 예고되었던 "어린 머슴"은 안 톤이라는 학생승려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이 젊은 사람이 요제프 크네히트 의 생애에 있어서 그 스스로 무슨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의 그 묘하게 분열된 분위기를 보였던 초기의 수도원 생활에 있어서 그는 어떤 암시적인 존재였 으며, 새롭고 보다 중요한 것을 알리는 전령이었고, 다가올 사건들을 전해주는 사 자(使者)였다.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의 학생승려들은 손님이 접근할 수 없는 분리된 건물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라 이 손님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으며 또 분명 히 그에 대해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지만 말은 별로 없으나 눈빛 속에 열정과 재주 가 서려 있는 젊은이이며 이미 승려의 반열에 들만큼 성숙해 있었던 안톤은, 그 출 신이나 기술을 대단히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유리알유희연기자와 비교 적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학생승려들이 유희 강습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고 있었다. 그러나 안톤은 일주일에 몇 차례 사서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바로 이곳 에서 그는 크네히트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가끔 대화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검고 짙은 눈썹과 부리부리하고 까만 눈을 가진 이 젊은 사람이, 이미 수없이 자주 경험한 바 있었으며 매번 피하고 싶은 기분을 느끼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종단 생활의 활기차면서도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한 바 있었던 그 열광적이고 헌신적이며 존경의 염에 찬,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의 애정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크네히트는 점차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곳 수도원에서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리라고 마음을 먹었다. 그에게는 아직도 종교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은 자신을 환대해 준 데 대해 일종의 배반을 하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는 이곳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엄격한 순결의 계율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소년다운 애정이 더욱 위태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는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은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동했다.

가끔 안톤과 마주치게 되는 유일한 장소였던 도서관에서 크네히트는 또 하나의 다 른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 수수한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거의 지나쳐보았던 사람 이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는 이 사람을 보다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평생 동안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랑은 노 (老)음악명인에 대한 그의 사랑과 견줄 만한 것이었다. 이 사람은 야코부스 신부였 다. 베네딕트파 교단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나이 는 60세 정도였다. 몸이 깡마르고 약간 늙은 이 사람은 길고 억센 목에 새매 머리 를 하고 있었으며. 별로 쳐다보지 않는 까닭에 앞에서 보면 어딘가 생기가 없고 맥 이 빠져 보이지만 힘차게 불거져 나와 있는 이마의 선과 깊이 파인 콧등과 날카로 은 갈고리콧날과 다소 짧은 듯 보이나 사람의 마음을 끄는 보기 좋게 솟아 나온 턱 으로 이루어진 그 옆모습이 두드러지게 완고한 개성을 보여 주는 얼굴을 하고 있 었다.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을 때 매우 정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 지기는 했지만 이 조용한 노인은 도서관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에 전용 책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언제나 책이나 원고나 지도로 덮여 있었다. 매우 귀중한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는 수도원에서 그는 진실로 진정하게 연구하고 있는 유일한 학자인 것처럼 보였다. 여하튼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요제프 크네히트로 하여 금 야코부스 신부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한 것은 바로 그 학생승려 안톤이었다. 이 학자가 책상을 놓고 있는 도서관의 그 안쪽 방은 거의 개인 연구실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만 그런 경 우에 있어서도, 그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신부가 그렇게 쉽게 방해받을 것 같은 인 상을 전혀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뒤꿈치를 든 채 공손히 조용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크네히트는 알고 있었다. 말할 것도 없이 크네히트도 이내 조심스 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미 그 부지런한 노인은 그의 관찰에 서 벗어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안톤에게 몇 권의 책을 가져오게 했다. 안돈이 그 안쪽 방에서 돌아 나왔을 때, 크네히트는 그가 열린 문간에 잠시 멈춰 서서 책상 옆에 앉아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그 노인을 돌아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젊은이들이 쓸쓸하고 쇠잔해진 노인들에게 바치는 바와 같은 은근한 관심과 호의의 감정이 섞인. 찬탄과 경의에 찬 정열적인 표정으로 보고 있 었다. 크네히트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다. 사실 그런 모습은 그 자체로서도 아름다운 것이었다. 또 그 모습은, 안톤에게는 육체적인 사랑과는 전 혀 관계가 없는, 노인과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열렬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머리에는 스스로 거의 부끄 러움을 느낄 정도의 어떤 풍자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 진지하게 연구하 고 있는 유일한 학자인 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무슨 불가사의한 인 물이나 동화 속의 존재처럼 생각되고 있다면, 이 수도원의 학문의 수준이란 얼마 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크네히트는 노인을 바라보 았던 안톤의 찬탄과 경의에 찬. 거의 은근한 애정을 느끼고 있는 그 시선으로 인해 이 학식 있는 신부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때부터 크네히트는 가끔 이 노인을 살펴보았다. 크네히트는 고대 로마 사람 같은 그의 얼굴모습을 알게 되 었으며. 야코부스 신부한테서 차차 비범한 정신과 성격을 암시하는 것 같은 이런 저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역사가로서 베네딕트파 역사의 가장 정통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크네히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신부가 크네히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는 이 수도원의 관습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폭이 넓고 대단히 호의적이며 대단히 유쾌하고 또 어느 정도 아저씨다운 억양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다. 신부는 요제프에게 저녁 예배가 끝 난 뒤 자기 방으로 찾아오라고 초대했다. "아시게 되겠지만" 하며 그는 낮고 거의 수줍어하는 것 같은 목소리로, 그러나 놀라울 만큼 또박또박한 말투로 말했다. "저 는 결코 카스탈리엔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며, 유리알유희연기자는 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다른 우리 두 종단이 이제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부터 뒤떨어져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로서 도 가끔 시간을 내어 당신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조금 배워 두었으면 하는 것입니 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나 낮은 목소리와 현명한 빛이 감도는 늙은 얼굴은 지나칠 정도로 정중한 말에 진지함인지 풍자인지 희롱인지를 분간할 수 없 는 묘하면서도 복잡한 분위기를 부여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 성자나 지위가 높은 두 성직자가 인사를 나누면서 정중함과 인내심의 경쟁이라도 벌이듯 끊임없 이 몸을 굽힐 때 느낄 수 있는 복잡한 분위기와 흡사했다. 중국사람들과의 교제로 그 자신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우월감과 조소, 지혜와 고집스러운 허세가 섞인 분 위기는 크네히트에게 하나의 위안이었다. 이런 어조를—유리알유희명인 토마스도 그런 어조를 능숙하게 구사했다.—더 이상 들어 보지 못한 지가 한참이나 되었다 는 것을 크네히트는 깨달았다. 크네히트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대를 받 아들였다. 저녁때 조용한 별관의 한쪽 끝 구석에 있는 신부의 집을 찾아가 어느 문 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귀 를 기울여 보았다. 퍼셀의 소나타였다. 소박하고 평범하기는 하나 정확한 박자로 산뜻하게 연주되고 있었다. 감미로운 삼화음을 가진 순수하고 은근하며 명랑한 음 악은 은근하고 다정하게 그에게로 울려나오고 있었으며, 그로 하여금 친구 페로 몬테와 함께 그런 종류의 곡들을 여러 가지 악기로 연습했던 발트첼 시절을 생각 하게 했다. 크네히트는 즐거운 기분으로 귀를 기울이며 소나타가 끝날 때까지 기 다렸다. 구원받지 못한 침묵의 세계 한가운데에 있는 훌륭한 음악이 모두 그런 것 처럼, 음악은 조용하고 어스름이 깃들은 복도에서 그렇게 쓸쓸하고 세속을 벗어난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순진하면서도 고상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문을 두드렸다. 야코부스 신부는 "들어오시오" 하고 말하더니 겸손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맞이해 주었다. 작은 피아노 옆에는 아직도 두 개의 촛 불이 타고 있었다. 피아노를 연주한 것이냐는 크네히트의 물음에 야코부스 신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반시간 또는 꼬박 한 시간 동안도 피아노를 칩니다. 저는 날이 어두워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는데, 자기 전의 몇 시간 동안에는 책을 읽 지도 않고 글을 쓰지도 않습니다"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음악에 대해. 퍼셀에 대 해. 헨델에 대해. 그야말로 원래 음악적인 종교인 베네딕트파의 오래된 음악교육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크네히트는 이 종단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 각을 피력했다. 대화는 활발해져서 무수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었다. 노인의 역사 지식은 실로 대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노인은 자신이 카스탈리엔 역사와 카 스탈리엔 사상의 역사와 카스탈리엔 종단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연구하지 않았고 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노인은 또 카스탈리엔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카스탈리엔의 '종단'을 기독교 수도단 연합회의 모방으로, 그것도 그 근본에 있어서 독신적인 모방으로 생각하고 있었 다. 카스탈리엔의 종단은 사실 종교와 신과 교회를 토대로 삼고 있지 않았다. 크네 히트는 이런 비판을 겸손한 태도로 듣고 있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종교와 신과 교회에 대해서는 베네딕트파적이거나 로마 가톨릭적인 견해들 외에 그 의도와 노 력의 순수성과 정신 생활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부정할 수 없는 다른 견해들도 가 능할 것이며 실제로 또 존재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 을 했다.

"그렇습니다." 야코부스가 말했다. "그것은 특히 신교도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들은 종교나 교회를 유지할 수는 없었지만 때로 매우 용감한 태도를 보였으며 훌륭한 인물들도 배출하였지요. 저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적대적 인 관계에 있는 기독교 종파들이나 교회들을 서로 화해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저의 중요한 연구 대상들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특히 1700년을 전후한 시대에 있어서의 시도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나 후의 그 불가사의한 친첸도르프 백작 같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시대지요. 그 정신이때로 매우 단 견적이고 미숙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18세기는 정신사적 인 면에서 대단히 흥미 있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시대의 신교도들을 자주 연구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언어학자이면서 사부이고 교육자인 어떤 위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슈바벤의 경건주의자로서 족히 2년 동안이나 도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종단의 정통성과 역사적 사명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도록합시다."

"아, 아닙니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방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사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 사부를 거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지요."

"처음에 저는 할레 사람인 프랑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슈바벤 사람이라야 하 니까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학자의 얼굴은 기쁨의 빛으로 환해졌다. "놀랐습니다." 그는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벵엘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그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경탄할 만한 당신의 주(州)에서는 그처럼 멀리 떨어져 잊혀지고 있는 사물이나 이름을 아는 일이 무슨 자명한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당신이 우리 수도원의 모든 신부들과 교사들과 학생들, 나아가 또한 과거 몇몇 세대의 신부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카스탈리엔에서도 벵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저와 제 친구 두 명 외에는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18세기와 경건주의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몇몇 슈바벤 신학자들이 저의 눈에 띄게 되었으며, 그들에 대해 저는 감격과 존경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벵엘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벵엘은 저에게 사부나 청년지도자의 이상적인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이 사람

에게 너무도 마음이 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오래된 책에 실려 있는 그의 초상화를 사진으로 찍게 해서 한동안 저의 책상 위쪽에 붙여 놓기까지 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예사롭지 않은 운명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가 말했다.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이 연구를 하던 중에 잊혀지고 있었던 이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 슈바벤 신교도가 거의 같은 시기에 베네딕트파의 신부와 카스탈리엔의 유리알유희연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더욱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의 유리알유희를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벵엘같이 그렇게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에게 그토록 마음이 이끌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크네히트도 만족한 듯 웃었다. "그렇지만" 크네히트가 말했다. "요한 계시록에 대한 벵엘의 여러 해에 걸친 연구와 그 책의 예언에 대한 그의 해석체계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친구가 냉정한 태도와 반대 되는 측면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시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명랑한 기분으로 시인했다. "당신은 이런 대립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담 하나 해도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벵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간절히 추구하고 갈망한 것은 유리알유 희였습니다. 저는 벵엘을 우리 유리알유희의 숨은 선구자들과 선조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지고 다시 진지한 기분이 되어 야코부스는 이렇게 물었다. "제가 보기에 벵엘 같은 사람을 당신의 족보에다 올리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농담이었습니다. 물론 변명할 수 있는 농담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성경 연구에 몰두하기 전 아직 젊었던 시절에 벵엘은 백과사전과 같은 작품을 통해 자기 시대의모든 지식을 하나의 중심에 맞추어 균형적으로, 총체적으로 정돈하고 요약하고 싶다는 계획을 친구들에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유리알유희가 하고 있는 일도 이

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백과사전적 사상이 18세기 전체를 풍미했지요." 신부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요제프가 말했다. "그러나 벵엘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여러 분야의 지식과 연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이었고, 하나의 유기적 인 질서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리알 유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아가 저는 또 이런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약 벵엘이 우리 유리알유희와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예언에 나오는 수들을 환산한다든가 반(反)크리스트교도 나 천년 왕국을 예고한다든가 하는 등의 엄청난 방황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벵엘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수학적인 재능은 언어학적인 감각과 결합해서 엄밀성과 상상력이 기묘하게 뒤섞인 '시대의 질서'를 결과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에 그는 여러 해를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역사가가 아닌 것은 정말 잘된 일입니다." 야코부스가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세한 문제에까지 신경을 쓰는 것은 제 전공학문에서 뿐입니다."

성과가 많은 대화였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알게 되었으며 일종의 친구 관계를 맺게 되었다. 베네딕트파에 속해 있는 자신과 카스탈리엔에 속해 있는 이 젊은이, 그들 두 사람이 그 같은 발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비르템베르크의 그 가난한 수도원 교사를, 다정하면서도 바위처럼 견고하고 공상적이면서도 냉정한 그 사람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학자에게는 우연 이상의 일로, 아니 적어도 아주특별한 우연으로 생각되었다. 그들 두 사람을 결합시켜 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일한 자석이 그토록 강하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퍼셀의 소나타로 시작하였던 그날 저녁 이후 실제로 그들을 결합시켜 주는 그 무엇이 있었다. 야코부스는 그렇게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 그렇게 유연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와 의견 교환하는 것을 즐겨했으며, 그에게 있어 이런 즐거움은 아무리 자주 있어도 지나칠 수가 없었다. 크네히 트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가와의 교제는,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그를 통한 교육은 끊임없는 각성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한 단계가 되어주었다. 간단히 말해 크네히트는 야코부스 신부를 통해 역사를 배웠으며, 역사 연구와 역사 기술의 법칙들과 모순들을 알게 되었고, 다음 몇 해에 가서는 그 정도를 넘어 현재와 자신의 인생을 역사적 현실로서 볼 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때로 본격적인 토론과 공격과 변론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물론 야코부스 신부가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러나 젊은 친구의 정신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 갈수록 신부는 이렇게도 크게 촉망되는 청년이 종교적인 교육의 훈련 을 받지 않고 지적이고 미적인 정신의 피상적인 훈련만을 받으며 자라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사정을 더욱 마음 아프게 생각했다. 크네히트의 사고방식에 서 혹 비난할 만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신부는 그것을 카스탈리엔의 '현대적인' 정 신과 이 정신의 비현실성과 유희적인 추상화로 흐르는 이 정신의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크네히트가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때 묻지 않은 생각이나 말 로써 그름 깜짝 놀라게 할 때면, 그는 젊은 친구의 훌륭한 성격이 카스탈리엔의 교 육에 대해 그처럼 강력하게 저항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요제프는 카스탈 리엔에 대한 비판을 아주 냉정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격정에 사로잡힌 노인이 너무 지나치다고 여겨질 때에는 공격에 대해 냉정하게 반박했다. 어쨌든 카스탈리 엔에 대한 신부의 경멸적인 말 가운데에는 요제프로서도 부분적으로는 정당하다 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말도 있었다. 마리아펠스 시대에 요제프는 한 가지 문제 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사와 카스탈리엔 정신 의 관계라는 문제였는데. 야코부스 신부가 "역사의식의 완전한 결여"라고 불렀던 바로 그 문제였다. "당신들 수학자들과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은" 신부는 이렇게 말 할 수 있었다. "오로지 정신사와 예술사로만 이루어지는 세계사를 증류해내었습니 다. 당신들의 역사에는 피와 현실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2세기와 3세기에 라틴어 문장구조가 와해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만 알렉산더나 시저나 예수 그 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오로지 법칙과 공식만 있을 뿐 현실도 선악도 시간도 어제도 내일도 없으며 그저 영원하고 단조로우며 수학적 인 현재가 있을 뿐인 수학을 다루듯이 당신들은 세계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연구하려면 그것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크네히트가 물었다.

"물론 역사에 질서를 부여해야지요." 야코부스는 호통 치듯 말했다. "무릇 학문이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질서부여이고 단순화이며, 소화될 수 없는 것을 정신이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몇 가지 법칙을 찾아내었다 고 생각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진실을 인식할 때 그런 법칙을 고려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해부할 때 해부학자가 대단히 놀라운 여러 가지 사실 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외피 아래에서 기관과 근육과 힘줄과 뼈로 이루 어지는 어떤 구조적인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증명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 해부학자가 자신의 체계만을 보고. 그래서 자신의 대상의 일회적이고 개별적인 현실을 소홀히 한다 고 하면, 그는 바로 카스탈리엔 사람이고 유리알유희연기자입니다. 그는 적합하지 않는 대상을 놓고 수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고찰하는 사람은 우리의 정 신과 우리의 방법이 갖고 있는 질서부여의 힘에 대한 그 감동적이며 순진한 믿음 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해할 수 없는 진실을, 현실을, 사건의 일회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결코 오락이 아니며 무책임한 유희가 아닙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불가 능하지만 꼭 필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일이 역사 연구라고 하 는 사실에 대한 자각을 전제로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혼돈에 몸을 내맡기 면서도 질서와 의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진지 한 과제입니다. 어쩌면 비극적인 과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크네히트가 친구들에게 편지로 전했던 신부의 말 가운데서 특징적인 것 한 가지를 더 들어보기로 한다.

"젊은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들을 세계사라는 과자에 박혀 있는 건포도로 생각합니

다. 그들 역시 세계사의 진정한 실체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 로 위대한 인물들을 위대하게 보이는 인물들로부터 구분해내는 일은 사람들이 생 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하게 보이는 인 물들의 경우 위대하게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은 역사적인 기회와 그것의 예측과 포 착입니다. 사실 일시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인 역사적 기회의 예측과 포착을 벌 써 위대성의 증표로 여기는 저널리스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역사가들이나 전기 작 가들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독재자가 되는 분대장이나 어느 세계 지 배자의 기분을 한 동안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는 고등 창녀가 바로 이런 역사가들 이 좋아하는 인물들입니다. 반면에 이상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은 비극적 인 실패자들이나 순교자들, 한 순간 너무 빨리 왔거나 너무 늦게 온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물론 무엇보다도 우리 베네딕트파 종단의 역사가입니다만 저에 게 있어서 세계사의 가장 매력 있고 가장 놀라우며 가장 연구할 가치가 있는 점은 인물들도 아니고 쿠테타들도 아니고 성공들이나 몰락들도 아닙니다. 저의 애정과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은 우리 종단과 같은 현상들에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정신 과 영혼의 면에서 인간들을 모아 교육하고 개선시키며, 그 인간들을 우생학이 아 닌 교육을 통해서. 피가 아닌 정신을 통해서 봉사와 동시에 지배를 할 수 있는 귀 족으로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저 수명이 긴 조직들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의 역 사에 있어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찬란한 영웅들의 세계나 공회당의 그 거센 함성이 아니라 피타고라스학파나 플라톤 학파가 했던 바와 같은 시도들이었 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명이 긴 유교 체계만큼 저의 마음을 강 하게 사로잡은 현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서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독 교와 그것에 봉사하며 부속되어 있는 종단들이 최고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생각됩니다. 어떤 운 좋은 탐험가가 정복하거나 세운 나라가 이 후 20년이나 50년, 심지어 100년까지 지속하는 것. 이상주의자처럼 좋은 뜻을 지 닌 어떤 왕이나 황제가 보다 훌륭한 정치를 추구하거나 어떤 문화적인 이상을 실 현하려고 노력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어떤 민족이나 다른 공동 체가 전대미문의 것을 이루어 내거나 참아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종 단과 같은 조직체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나 그런 시 도들 가운데 몇몇은 천 년, 2천 년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저에게는 전혀 흥미롭지 않게 생각됩니다. 신성한 종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 으려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네딕트파 · 도미니크파 · 뒷날의 예수회 등등과 같은 종단들이 수백 년 간 지속하였을 뿐 아니라 비록 온갖 발전과 변모와 순응과 박해를 겪기는 했지만 수백 년을 넘기고서도 그 얼굴이나 목소리나 몸짓이나 개성적인 정신을 보존해 왔 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역사적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크네히트는 신부가 노기를 띤 채 당치도 않는 말을 할 때에도 그를 찬탄해 마지않 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그는 아직 야코부스 신부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전연 모르고 있었다. 그는 신부를 그저 깊이가 있고 천재적인 학자로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신부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세계사의 한가운데에 서서 그것을 함께 형성해 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며, 자신이 속하는 종단의 지도적인 정치가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부터 정보와 조언과 중재를 요청받는 정치사와 정치적 현실의 전문 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첫 휴가를 받게 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크네히트는 신부를 그저 학자로서 알고 교제했으며, 그의 생활이나 활동이나 명성이나 영향력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알려져 있는 이 한 가지 면에서만 알고 있 을 뿐이었다. 이 박식한 학자는 자신의 실체를 입 밖에 드러내지 않을 줄 알았다. 서로 친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랬다. 신부의 수도원 동료들도 요제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말이 없었다.

2년쯤 지났을 때 크네히트는 외부에서 온 손님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완전하게 수도원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그는, 파이프오르간 연주자가 작은 경문(經文) 합창곡을 만들어서 그 오래되고 존경할 만하며 훌륭한 전통을 소박하게나마 가늘게이어 가려고 하는 것을 가끔 도와주었다. 그는 수도원의 음악 기록관에서 몇 가지자료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옛날 작품의 몇몇 사본을 발트첼로 특히 몬테포르트로보냈다. 그는 소규모의 유리알유희연기자 초급반을 지도했는데, 이 반에는 이제그 젊은 안돈도 열성적인 학생으로서 참가하고 있었다. 그는 원장인 게르바지우스

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쑥대를 다루는 방법과 점서의 주문들을 이용하는 보다 나은 명상법은 가르쳐 주었다. 원장은 그와 매우 친해지게 되었으며, 가끔 그를 유혹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던 처음 얼마 동안의 생각을 오래전에 포기하게 되었다. 마리아펠스의 사람들이 요제프 크네히트에 대해 어느 정도로 만족해하고 있는가 하는, 유리알유희명인의 공식적인 문의에 대해 원장이 반년마다 보낸 답신들은 온통 칭찬 일색이었다. 카스탈리엔에서는 이런 답신들보다 크네히트의 유희 강습에 관한 교수요목들과 성적표들을 더 자세하게 검토했다. 수준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선생이 그 수준에, 아니 전반적으로 수도원의 관습과 정신에 적응해 가고 있는 방식은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카스탈리엔 당국이 가장 만족스럽게, 아니 그야말로 놀랍게 생각한 것은 크네히트가 자주 친밀하게, 결국에 가서는 그야말로 친구같이 그 유명한 야코부스 신부와 교제하게 된 일이었다. 물론 크네히트 자신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교제는 여러 가지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런 결실들에 대해, 아니 적어도 크네 히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결실에 대해 이야기를 좀 앞질러 한 마디 해 두고자 한다. 그 열매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익어 갔다. 비옥한 저지(低地)에 뿌려진 고 산식물의 씨앗처럼 그것은 머뭇거리듯, 의심에 찬 듯 자라 갔다. 기름진 땅과 좋은 기후에 맡겨진 이 씨앗들은, 그 조상들이 자랄 때 가지고 있었던 수줍어하는 태도 와 못미더워 하는 성질을 자신 속에 유산으로 지니고 있으며, 그 느린 성장 속도는 그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모든 영향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통제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현명한 그 노인은, 반대 극에서 온 동료인 그 젊은 친구가 그에게 전해 주는 그 모든 카스탈리엔 적인 정신이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게 했다. 그러나 그것은 차차 싹이 트게 되었다. 크네히트가 수도원 시절에 체험한 여러 가지 좋은 일 가운데서 가장 좋고 또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일은, 절망적으로 보이던 처음의 상태에서 서서히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생겨 나오게 되어 경험 많은 그 노인이 자신의 마음을 조금 열어 준 것과, 노인이 자신을 존경하는 젊은이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별히 카스탈리엔적인 것에

대해서도 느린 속도로나마 이해하게 되고, 더욱 느린 속도이기는 했지만 그런 이 해를 인정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거의 학생이고 듣는 사람이 고 배우는 사람일뿐이었던 이 젊은이를 통해, 처음 '카스탈리엔적'이나 '유리알유 희연기자' 같은 말들을 풍자적인 어투로써만, 아니 분명히 멸시하는 말들로서 사 용했던 신부는 그런 정신태도, 종단, 정신적인 귀족을 형성하기 위한 시도도 점차 인정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용인하는 정도로,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존경의 염 까지 가지고서 승인하게 되었다. 2백 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카스탈리엔의 종단 은 물론 베네딕트파의 종단과 비교해 볼 때 1천 5백 년이나 뒤떨어져 있지만 신부 는 그 종단의 짧은 역사를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유리알유희를 미적인 호사 로만 보지 않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매우 차이가 있는 이 두 종단이 장차 친교관 계나 동반관계 같은 것을 맺는 일을 불가능한 것으로서 배척하지 않게 되었다. 이 렇게 신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게 된 것을 요제프 스스로는 개인적이며 사적인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카스탈리엔 당국은 그것을 그가 마리아펠스에서 이 룩한 과업과 업적의 정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에 대해 아직 한참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수도원에서의 자신의 임무는 대체 지 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지, 자신이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을 수행하고 있으 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처음에는 승진이나 영전으로 보였으며, 그래서 경쟁 자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던 이곳으로의 자신의 파견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아무런 명예도 없는 한직에 앉게 된 것을, 사용하지 않는 선로 위로 밀려나게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등등의 결론도 없는 생각들을 해 보았다. 사람은 어디서 나 배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카스탈리 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이 수도원은 야코부스 신부 단 한 사람을 제외하면 학 문의 전당도 모범이 될 만한 장소도 아니었다. 또 크네히트는 대체로 수준이 낮은 아마추어들 사이에 고립되어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유리알유희에 있어서 이미 녹 슬기 시작하고 퇴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사실도 제대로 확인해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야심이 별로 없는 태도와, 당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발전해 있었던 운명애적 태도가 이런 불안한 상태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어 주었다. 전체적으 로 볼 때 이 오래되고 안락한 수도원 세계에서 손님으로서, 평범한 전문교사로서 사는 것이 야심에 넘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냈던 마지막 발트첼 시절보다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운명으로 인해 식민지와도 같은 이 작은 지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된다 하더라도,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을 이리로 오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매년 꽤 긴 휴가를 신청해 카스탈리엔으로 가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곳 생활을 조금 바꾸어 보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게 받아들이리라고 크네히트는 생각했다.

이 전기를 읽고 있는 독자는 크네히트의 수도원 체험의 다른 면, 즉 종교적인 면 에 대한 보고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그저 조심스러운 암시 만을 해 보고자 한다. 크네히트가 마리아펠스에서 종교와, 즉 매일 실천되고 있는 기독교와 보다 가깝게 접하였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그저 가능한 추측일 뿐만이 아 니다. 그것은 그 후의 그의 많은 말이나 태도에서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도 하 다. 하지만 크네히트가 마리아펠스에서 기독교신자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로 되었 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 우리는 대답을 보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분야들은 우리 연구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크네히트는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품 고 있는 존경의 염의 정도를 넘어 경건심이라고 불러도 좋을 일종의 외경심을 진 작부터 지니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의 교리와 그것의 고전적인 형식들에 대해 이 미 학생시절에, 특히 교회음악을 연구할 때 충분히 배운 바가 있었다. 그는 특히 미사의 성례와 장엄미사 의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제 베네딕트파 사람들 사 이에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끼며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만 알고 있 던 종교를 아직도 살아있는 종교로서 체험하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많은 예배에 참석했다. 야코부스 신부가 쓴 몇 권의 책을 접하고 또 신부와의 대화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 이후 크네히트는 여러 세기를 지내오는 동안 수없이 많이 비현대 적인 것이 되고 시대에 뒤진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고 경직된 것이 되기는 했지만 언제나 다시 그 원천을 생각해내고 또 그것에 의거하여 어제의 현대적인 것과 당 당하던 것을 물리치면서 스스로를 개혁했던 기독교라고 하는 현상을 완전히 뚜렷 한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야코부스와 대화를 하는 중에 가끔 그에게 제 시되었던, 어쩌면 카스탈리엔 문화도 기독교적 서구문화의 세속화되고 일시적인 파생형식이나 말단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며 장차 언젠가 다시 그 기독교적 서구문화에 의해 흡수되고 환원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도 그는 심각하게 항변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신부에게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의 지위와 임무는 베네딕트파의 질서가 아닌 카스탈리엔의 질서 내에서 정해졌습니다. 제가 그 일원이 되고 있는 이 질서가 영원히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긴 시간 동안 지속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관계없이 저는 여기서 함께 일해야 하며, 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개종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는 형태의 도피로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요한 알브레히트 벵엘도 옛날 어느 작고 일시적인 종파에 봉사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봉사의 태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건, 즉 생명을 바칠 정도로까지 독실한 봉사와 충성심이라는 것은 모든 종파에서,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모든 개인적인 경건성의 진실성과 가치를 결정해 주는 유일하게 타당한 기준은 바로 이 봉사와 충성심입니다"하고 말했다.

크네히트가 신부들 사이에서 머무른 지 2년쯤 되었을 때 언젠가 수도원에 손님이 하나 나타났다. 사람들은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 이 손님을 크네히트로부터 멀리 떼어놓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간단히 인사하는 일조차 일어나지 않게 했다. 이로 인해 호기심이 발동하게 된 크네히트는 그저 며칠 밖에 머무르지 않았던 그 낯선 사람을 살펴보았으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 보았다. 그 낯선 사람이 입고 있는 승복은 틀림없이 가장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원장과, 특히 야코부스 신부와 문을 닫고 여러 차례 장시간 회담을 했으며, 자주 속달 통지를 받기도 하고 또 보내기도 했다. 크네히트는 적어도 소문으로나마 수도원의 정치적 관계와 전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손님이 밀사의 사명을 띤 고위 정치가이거나 아니면 신분을 숨기고 여행하고 있는 영주일 거라고 짐작해 보았다. 이렇게 자신이 관찰한 바를 여러모로 생각해 보고 있는 동안그는 지난 몇 달 동안에도 그런 손님이 한둘 왔던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는데,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들 역시 비밀에 가려진, 의미 있는 존재들로 여겨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졌다. 그때 문득 그의 머리에는 '경찰서'의 장인 그 친절하던 뒤보아 씨가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을 때때로 눈여겨보라고 하던 그의 부탁과 함께 떠올랐다. 크네히트는 아직 그런 보고를 할 기분이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지만 호의를 베풀어주었던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어쩌면 그를 실망시켰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크네히트는 뒤보아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침묵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으며, 편지에 어느 정도 실질적인 무게를 부여하기 위해 야코부스 신부와의 교제에 관해 조금 썼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자신이 보낸 편지 전부가 누구에의해 얼마나 세심하게 읽히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명

크네히트의 첫 번째 수도원 체류는 2년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 였다. 마리아펠스 수도원에 그처럼 손님으로 머물고 있던 마지막 무렵에, 그가 뒤 보아 부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지 2개월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그는 원장 의 응접실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교적인 원장이 중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리라고 생각하고서 그는 바로 찾아갔다. 게르바지우 스는 손에 편지를 하나 들고서 그를 맞이했다. "당신에게 한 가지 명령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고 그는 느긋하면서도 으스대는 것 같은 태도로 만족한 듯 말 했지만 그것은 또 이내 빈정거리며 놀리는 것 같은 어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어조 는 완전히 명백해지지 않은, 이 종단과 카스탈리엔 종단 사이의 우호관계를 나타 내는 것으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으며. 원래 야코부스 신부가 만들어낸 것이었 다. "어쨌든 당신의 유리알유희명인은 대단하십니다. 그분의 편지 쓰는 솜씨는 놀 랍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라틴어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 습니다. 당신들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면, 그것이 예의를 차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조롱하려는 것인지, 공경의 뜻을 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가르치려 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존경하는 그 명인께서는 저 에게 라틴어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것도 야코부스 신부 정도가 예외가 되겠 습니다만 지금 우리 종단 전체를 통틀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라틴어로 말 입니다. 그것은 키케로의 직속 학파에서 나온 것 같은 라틴어이면서도 잘 다듬어 진. 교회라틴어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양념으로 지니고 있는 라틴어인데 이 교회 라틴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그것이 우리 승려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소박한 미끼인지, 풍자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단순히 유희나 형식미나 장식미 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에서 비롯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명 인은 저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한 번 다시 만나보고 포옹하며, 또 반(半)야만인인 우리들 사이에서 오래 생활하는 동안에 당신이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나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그곳 사람들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제가 이 방대한 문학적 예술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라면, 당신에게는 휴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며, 저는 저의 손님을 무기한으로 발트첼로 돌려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휴가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는 것을 우리가 바랄 경우, 당신이 이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그곳 당국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저는 이 편지의 섬세한 내용을 모두 다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토마스 명인도 아마 저한테서 그런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작은 편지는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가셔서 여행을 떠날 것인지, 떠난다면 언제 떠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당신을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쪽 당국에 요청해 당신이 다시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크네히트가 원장으로부터 넘겨받은 편지에서 당국은 크네히트에게 휴식을 위해 서, 상사들과의 상의를 위해서 휴가를 주게 되었으니 가까운 시일 안에 발트첼로 오라는 내용을 짤막하게 전하고 있었다. 수도원장이 특별히 원하지 않는 한 현재 진행 중인 초보자들을 위한 유희 강좌를 마무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 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었다. 연로한 음악명인이 그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다. 편지 의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요제프는 깜짝 놀라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편지 를 쓴 사람인 유리알유희명인이 어떻게 아무리 보아도 공적인 서한에 그리 잘 어 울릴 것 같지 않는 안부 인사를 부탁 받을 수 있었을까? 연로한 음악명인도 포함 해 전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어떤 회의가 열렸음에 틀림없었다. 교육국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사실 크네히트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었다. 하지만 이 인사의 말은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가 느끼기에 그것은 동료애적인 분위기를 묘하게 풍기고 있었다. 그 회의에서 무슨 주제가 논 의되었던지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 인사의 말은. 상사들이 그 기회에 요제프 크네히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무슨 새로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소환되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승진인가, 아니면 좌 천인가? 하지만 편지는 휴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정말이지 크네히 트는 이 휴가에 대해 대단히 기뻐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제자들과 작별인사를 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 지 지침을 남겨야 했다. 자신이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해 안돈이 대단히 슬퍼할 것 이라고 크네히트는 생각했다. 몇몇 신부들한테도 직접 찾아가 작별인사를 해야 했 다. 그래서 이제 크네히트는 야코부스 신부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생각을 하자 크 네히트는 자신도 놀랍게도 가슴속에서 아릿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이 마리아펠스에 대해 애착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 주는 마음 의 움직임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그 자신 익숙해져 있으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 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며. 카스탈리엔은 멀리 떨어져 있어 가까이 접할 수 없 었던 까닭에 2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그의 상상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되어 갔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야코부스 신부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 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으며 카스탈리엔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라 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체험하고 배 웠던 것을 지금까지보다 더욱 명확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는 발트첼로의 여행이나 재회나 유리알유희나 휴가를 생각했을 때 기쁨과 기대감에 넘치게 되었다. 그렇지 만 다시 돌아오리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 기쁨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 이다

크네히트는 바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신부를 찾아가서, 자신이 부름을 받아 휴가를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귀향과 재회에 대한 기쁨과 함께 벌써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도 느꼈고, 그때문에 자신도 놀랐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기쁨은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신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감히 무리한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돌아오고 난 뒤, 신부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야코부스는 웃음으로써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었으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친 카스탈리엔의 교양을 대하게 되면 자신과 같은 단순한 수도사는 그저 아무 말도 없이 감격해 하고 너무도 감탄한 나머지 머리를 가로저을 수 있을 뿐이라고 다시금 능란하게 조롱하는 어조로 수다를 떨었다. 그러나 요제프는 신부가 진

심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다. 작별의 악수를 하기 위해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신부는 그가 한 부탁과 관련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것이라고 다정하게 말하면서 그와 정답게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자신의 수도원 시절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굳게 믿고서 이제 그는 즐거운 기분으로 휴가를 보낼 고향으로 발길을 향했다. 출발을 했을 때 그는 소년과 같은 기분이 되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소년도 청년도 아니라는 것 을 깨닫게 되었다. 해방감과, 방학을 맞은 어린 학생의 행복감에 대해 어떤 몸짓이 나 소리나 어린아이 같은 행동으로써 답하려고 하자마자 바로 그의 가슴속에서 일 어나는 어떤 수치감이나 내적 저항감에서 그는 그런 사실을 느꼈다. 나무 위의 새 들을 향해 환호성을 지른다든가, 큰소리로 행진곡을 부른다든가, 날듯이 율동적으 로 둥실둥실 걷는다든가 하는 등의. 옛날 같으면 너무도 당연하고 마음 가벼운 것 이었을 일들이—이런 일들이 이제는 불가능했다. 그와 같은 동작들을 지금 한다면 그것은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며, 어리석고 유치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른이라는 것을, 감정이나 힘에 있어서 젊기는 하지만 순간 과 기분에 몰두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익숙해져 있지도 자유롭지도 않 다는 것을, 맑게 깨어 있고 구속되어 있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 때문인가? 어떤 직책 때문인가? 수도워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주와 종단을 대 표해야 한다는 그 과업 때문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갑작스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속에 부속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종단 그 자체였으며, 계층조직 그 자체였다. 많은 젊은이들을 늙게, 많은 늙은이들을 젊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것 은, 사람을 단단히 붙들어 잡는 것은, 어린 나무를 지탱해 주는 막대기처럼 지지해 주면서도 동시에 자유를 빼앗는 것은. 사람에게 점점 더 명백한 순수성을 요구하 면서도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순진무구한 상태를 앗아가 버리는 것은 바로 책임이 었으며, 일반적인 것과 보다 고차적인 것에 구속받고 있는 상태였다.

몬테포르트에서 크네히트는 노(老)음악명인에게 인사를 했다. 이 명인 스스로도

일찍이 젊은 시절에 마리아펠스에서 손님으로 머문 적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베 네딕트파의 음악을 연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크네히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다. 크네히트가 생각하기에 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달관한 것 같은 기색은 더욱 많이 보이고 있었지만 겉모습에 있어서는 전번보다 더 힘차고 명랑 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 이제 이전의 그 피로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명인 이 관직에서 물러난 후 더 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욱 말쑥해지고 더욱 점잖아 져 있었다. 노인이 마리아펠스의 파이프오르간이나 악보가 든 궤짝이나 합창곡에 대해 묻고 또 회랑에 둘러싸여진 정원에 있는 나무에 대해 그것이 아직도 그 자리 에 있는지는 알고 싶어 하면서도. 그곳에서의 자신의 활동이나 유리알유희 강좌 나 휴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크네히트로서는 이상 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노인은 크네히트가 다시 떠나기 전에 중요한 말 한 마디 를 해 주었다. "들었네." 노인은 농담이라도 하는 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자네가 외교관 비슷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말일세. 사실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네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는 것 같네. 이 점에 대해 자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없네. 그러나 그 직업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자네 야심이 아니라면 조심하게, 요제 프. 사람들이 자네를 붙잡아 둘 생각인 것 같네. 저항을 하게. 자네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말일세.—아니, 묻지 말게. 나도 더 이상 아무 말 않겠네. 틀림없이 자네도 알게 될 걸세."

이런 경고의 말이 가시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발트첼에 도착했을 때 크네히트는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된 데 대해 일찍이 가져본 적이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 발트첼이 고향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일 뿐 아니라 그 사이에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흥미로워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자신이 새로운 눈과 더 나아진 시력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런 사실은 문이나탑이나 나무나 강이나 마당이나 홀이나 사람들이나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얼굴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휴가를 보내는 동안 크네히트는 발트첼의 정신과종단과 유리알유희에 대해서도 여행을 많이 하고 더욱 성숙해지고 현명해져서 고향에 돌아온 사람이 갖는 승화된 감응 능력과 더욱 커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

치는 이해심을 느꼈다. "나는 이런 기분일세." 발트첼과 카스탈리엔에 대해 한바탕 신나게 찬사를 늘어놓은 끝에 크네히트는 친구 테굴라리우스에게 말했다. "그동안의 모든 세월을 이곳에서 잠 속에서 보낸 것 같은 기분이란 말일세. 행복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의식이 없는 듯 말일세. 그러다 이제 깨어나서 모든 것을 날카롭고 분명하게, 현실로서 증명되어진 형태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일세. 딴 곳에서의 2년 생활이 이렇게도 눈을 날카롭게 해 줄지는 몰랐네." 크네히트는 휴가를 무슨 축제처럼 즐겼다. 크네히트는 연기자 마을의 영재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유희를하고 토론을 벌이는 것과 친구들과의 재회와 발트첼의 정신적 분위기를 특히 즐겼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이런 기분은 유리알유희명인이 그를 일차로 맞이해 준 다음에 가서야 비로소 활짝 피어나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즐거운 기분속에는 아직 어떤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유리알유희명인은 크네히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리 많은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명인은 초보자들을 위한 유희 강좌와 음악기록관에서의 요제프의 연구에 대해 잠 시 언급할 뿐이었다. 하지만 야코부스 신부에 대해서만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거듭거듭 야코부스 신부에 대한 이 야기로 돌아왔다. 요제프가 신부에 대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에게 는 모자랐다. 사람들이 자신과, 베네딕트파 교단에서의 자신의 사명에 대해 만족 해하고, 아니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을 크네히트는 명인의 그 대단히 친절 한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명인의 지시로 그가 바로 이어서 찾아가게 되었던 뒤보 아 씨의 태도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자네는 자네의 소임을 훌륭하 게 다했네" 하고 뒤보아 씨는 말했다. 그리고는 가벼운 미소를 머금으며 이렇게 말 을 계속했다. "자네를 수도원으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그 당시, 나는 정 말 잘못 생각했던 것일세. 자네가 원장뿐만 아니라 그 훌륭한 야코부스 신부의 마 음까지도 사로잡게 되어서 카스탈리엔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 것은 대단한 일일세. 어느 누구도 감히 기대할 수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라는 말일세." 이틀 후 유리알유희명인은 뒤보아 씨와 당시의 발트첼 영재학교 교장, 즉 츠빈덴 교장의 후임자와 함께 크네히트를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를 마치고 이야기 를 나누고 있었을 때, 뜻밖에도 새 음악명인과 종단의 기록관 소장이 찾아왔다. 최 고위 당국자 가운데 두 사람이 더 참석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크네히트를 숙소에까지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초대로 인하 여 크네히트는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가운데 고위직에 대한 극소수의 후보자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와 일반 영재 유희연기자 사이에는 당장에라도 느낄 수 있을 어떤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는데, 각성한 자인 크네히 트는 그런 장벽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밖에 그는 우선 4주간의 휴가와 주 안에 있는 숙소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신분증명서를 받았다. 신고의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어떠한 의무도 그에게 부과되지 않았지만 크네히트는 자신이 상부에 의해서 감시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가 코이 퍼하임이나 히르슬란트나 동아학관으로 실제로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는 바로 현지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초대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몇 주 동안에 그는 종단의 전체 당국자들과 대부분의 명인들 및 연구지도 자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매우 공식적인 초대나 친교관계가 없었더라면 여러 차 례에 걸친 그 여행들은 크네히트에게 있어서 이전 연구시대의 세계와 자유로 되돌 아간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크네히트는 여행을 제한했다. 무엇보다도 테굴라리우 스를 생각해서였다. 테굴라리우스는 그들의 재회의 기쁨이 중단될 때마다 그것을 몹시 괴롭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여행을 제한한 것은 유리알유희 때문 이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가장 새로운 연습과 제기된 문제들에 참여하여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테굴라리우스가 그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어 주었다. 그의 또 다른 가까운 친구 인 페로몬테는 새 음악명인의 측근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 이에 두 번밖에 만날 수가 없었다. 크네히트는 친구가 연구에 몰두하고 있고 또 연 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친구는 그리스의 음악과, 발칸 반도 여러 나 라의 무용과 민요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전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음악사적으로 중요 한 한 과제를 밝히게 되었다. 이 친구는 크네히트에게 자신의 최근 연구와 새로 발 견한 사실들에 대해 열을 내며 신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18세기 말부터 시 작되는, 바로크 음악이 점차 쇠퇴해 간 시기와, 슬라브 민속음악의 방향으로부터 새로운 음악적 본질이 침투해 들어온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즐거운 휴가기간의 대부분을 발트첼에서 유리알유희를 하며 보냈다. 크네히트는 프리츠 테굴라리우스와 함께 유희명인이 지난 두 학기 동안에 상급자들을 위해서 행했던 과외강의를 듣고서 테굴라리우스가 메모해 두었던 내 용을 복습하였으며, 2년 동안 가까이 접할 수 없었던 고귀한 유희 세계로 다시 전 력을 기울여 적응해 들어갔다. 크네히트에게는 유희 세계의 마력이 음악의 마력처 럼 그의 인생에서 뗄 수 없는 것이고, 또 결코 없어져서도 안될 것처럼 생각되었 다.

휴가가 이제 며칠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비로소 유희명인은 다시 마리아펠스에서의 요제프의 사명과 당면한 장래 생활과 임무에 대해 말을 꺼내었다. 처음에는 잡담 이라도 나누는 것 같은 어조였지만 점점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면서 명인은 크네히 트에게 당국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부분의 명인들과 뒤보아 씨가 매우 중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으로 장차 로마 교황청에 카스탈리엔의 상설대표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듯하며 논리 정연한 말로 토마스 명인은 이렇게 자세히 말했다. 로마와 이 종단 사이의 해묵은 거리감을 해 소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 왔다. 아니 적어도 가까이 다가왔다. 장차 어떤 위험 스러운 일이 일어날 경우 양자는 틀림없이 공동의 적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운명공 동체가 되고 자연스레 동맹자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상태는, 즉 정신과 평화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을 그 역사적 과제로 삼고 있는 세계의 두 세 력이 이처럼 서로 소원한 관계로 나란히 계속 지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래 유지 될 수 없는 것이며 원래부터 부당한 것이다. 로마교회는, 여러 가지 손실을 입기는 했지만 지난 대(大)전쟁의 세기의 온갖 동요와 위기를 극복했으며, 그걸 통해 스스 로를 새롭게 하고 정화했다. 반면에 당시의 학문과 교육의 세속적 중심지들은 문 화의 쇠퇴와 운명을 함께 했다.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이 종단과 카스탈리엔의 사 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라도. 경의를 표할 만한 그 역사 때 문에라도 이 교회의 우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고귀하며, 크 고 많은 격랑 속에서 단련된 세력이다. 두 세력의 유사성에 대한 의식과 장차 다가을 모든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두 세력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도 일깨워서 유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크네히트는 '아, 가능만 하다면 저들은 나를 로마로 보낼 작정이로구나. 가능만 하다면 영원히 보내려고 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는 바로노(老)음악명인의 경고를 머리에 떠올리고서 마음속으로 반대의사를 밝힐 준비를 했다).

토마스 명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카스탈리엔 측이 이미 오래전부터 추구해 왔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일보가 마리아펠스에서의 크네히트의 사명을 통해서 내딛어지게 되었다. 그 자체 하나의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예의를 표시하는 행동 이고 어떠한 의무도 수반되지 않은 이 사명은 그쪽 상대방의 초청에 따랐을 뿐 어 떤 다른 목적도 없이 이루어졌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치적으로 전혀 식견 이 없는 유리알유희연기자를 결코 보내지 않았을 것이며, 뒤보아 씨의 부원들 가 운데서 좀 더 젊은 직원을 골라 그 일을 맡겼을 것이다. 이 시도가, 사소하고 소박 한 이 사명이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오늘날 구교 세계의 한 지도적 인물인 야코부스 신부가 카스탈리엔의 정신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무조건 배척해 오던 이 정신에 대해 보다 호의 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사정이 이렇게 전개되는 데 있어 크네히트가 했던 역 할에 대해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사명의 의의와 성과 가 있다. 이 모든 접근의 시도뿐만 아니라 특히 크네히트의 앞으로의 사명이나 임 무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고려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크네히트가 받은 휴가는 본 인이 원할 경우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크네히트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 으며, 대부분의 최고위 당국자들과 알게 되었다. 고위 당국자들은 크네히트에 대 해 신뢰감을 표명했으며. 그래서 유리알유희명인인 자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과 하고 자격과 권한을 강화해서 크네히트를 마리아펠스로 다시 파견하는 문제를 위 임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크네히트는 틀림없이 마리아펠스에서 따뜻한 영접을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

명인은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시간의 여유를 주려는 듯 잠시 말을 끊었다.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은 그러나 공손하고 순종적인 태도로, 자신이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으며 자신의 임무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자네에게 맡겨야 할 임무는" 다시 명인이 말했다. "이런 것이라네. 우리는 조만간 바티칸에 우리 종단의 상설대표부를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네. 어쩌면 상 호간에 그리 될지도 모르겠네. 아랫사람으로서 우리는 로마에 대해 비굴하지는 않 지만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기꺼운 마음으로 제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제1위의 자리는 저쪽에 양보할 생각을 하고 있네. 어쩌면-나는 뒤보아 씨가 아니라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네. —교황은 우리의 제의를 오늘이라도 수락 할 것일세. 그러나 우리는 저쪽이 거절하는 회답을 보내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를 해 두어야 하는 것일세. 로마에서 영향력이 대단히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인 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네. 바로 야코 부스 신부일세. 자네 임무는 베네딕트파의 수도원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지금까지 처럼 살고 연구하고 평범한 유리알유희 강좌를 열며 자네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야코부스 신부를 서서히 우리 편으로 만듦으로써 그가 로마에서 우리의 계 획을 적극 중재하겠다는 약속을 자네에게 하도록 만드는 일일세. 이로써 이번의 경우 자네를 파견하는 최종목적은 그 한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셈이 되었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네. 적어도 1년은 더 걸리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네. 하지만 2년이 걸릴 수 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걸세. 베네딕트파의 느린 템포를 자네는 잘 알 고 있고 또 그것에 적응하는 법을 이미 배웠으니까 말일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도 우리는 조급해 하고 있다거나 갈망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되네. 모든 일은 저절로 그리 되는 것처럼 무르익어 가야 하는 걸세. 그렇지 않겠나? 나 는 자네가 이런 임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지만 혹시 무슨 이의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 주게. 자네가 원한다면 며칠간의 생각할 시간을 줄 수도 있네."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터라 이 임무는 더 이상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 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생각할 시간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순순히 그 임무를 받아들였지만 이렇게 덧붙여 말을 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류의 사명은, 사명을 띤 사람이 자신의 내적 저항감이나 방해요인들을 극복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잘 완수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임무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도 없으며, 그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장래와 관련해서 어떤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명인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소망과 고백을 좀 들어 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유리알유희연기자입니다. 신부들한테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만 2년 동안 연구를 하지 못했으며 새로운 것을 아무것도 배우지못했고 기술을 제대로 연마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적어도 1년, 아니 그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더 이상 퇴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트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짧은 휴가를 자주 주셨으면 합니다. 또 명인님의 세미나 연구실에서 상급자들을 위해 행해지는 강의들과 특별연습을라디오로 언제나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네." 명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어조에는 이미 작별의 기분 같은 것이 스며있었다. 크네히트는 목소리를 약간 높여 한 마디 말을 더 했다. 마리아펠스에서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자신이 로마로 파견되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그 밖의 외교적인 업무가 맡겨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크네히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런 전망은 저의 기분과, 수도원에서의 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외교적인 업무에 좌천되는 것을 저는 조금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인은 양미간을 찌푸리고, 나무라기라도 하듯 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자네는 '와천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은 정말 적절하지 못한 말이네. 어느 누구도 좌천을 생각한 적은 없네. 오히려 영전이나 승진을 생각했네. 장차 사람들이 자네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약속할 권한이 내게는 없네.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자네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겠네. 자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정말 사실로 나타난다면, 아마 나는 자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걸세. 그럼 이제

내 말 잘 듣게. 자네는 남에게 호감을 주고 또 남의 호감을 살 수 있는 재주가 있 네.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네를 거의 아첨꾼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걸세. 사실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자네를 수도원에 파견하게 된 것도 어쩌면 바로 그런 재주 때문일 걸세. 하지만 자네 재주를 너무 많이 이용하지는 말게, 요제프. 자네 의 업적을 너무 높이 평가하려 들지 말게. 자네가 야코부스 신부와의 일을 훌륭하 게 해내면, 그때가 바로 자네 개인적인 소원을 당국에 제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걸세. 내가 보기에 지금은 때가 너무 이른 것 같네. 떠날 준비가 되면 알려 주게." 요제프는 아무 말 없이 이 말을 받아들였다. 비난보다는 그 말의 이면에 숨겨져 있 는 호의를 더 많이 믿어서였다. 그 후 바로 크네히트는 마리아펠스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크네히트는 한계가 명확해진 임무가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아주 기분 좋 게 느꼈다. 뿐만 아니라 이 임무는 중요하고 명예스러운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 보 면 그것은 그저 가능한 한 야코부스 신부와 많이 접촉해서 남김 없는 우정을 얻어 낸다고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자 자신의 소원과도 맞아떨어졌다. 수도원의 고위 관리들, 특히 원장의 어딘가 좀 달라진 것 같은 태도는 그의 새로운 사명이 이 수 도원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자신의 지위도 격상되어 있음을 증명 해 주었다. 이 태도는 전과 다름없이 친절한 것이었지만 이전에 비해 뚜렷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더 정중했다. 요제프는 이제 더 이상 출신과 인품에 대한 호의 때 문에 사람들로부터 친절한 대접을 받는. 특별한 지위도 없는 젊은 손님이 아니었 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이제 카스탈리엔의 고관처럼, 예를 들어 전권을 위임받은 사절처럼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았다. 이제 크네히트는 그런 문제들을 꿰뚫어 보 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화로부터 자기 나름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러나 야코부스 신부한테서는 어떤 태도 변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신부가 그를 다정하고 기쁘게 맞이해 주고, 크네히트의 부탁이나 재촉을 기다림이 없이 전에 약속했던 그 공동 작업을 상기시켰을 때, 그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그의 연구계획과 일과는 이제 휴가 전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유리알유 희 강좌는 이제 연구계획과 의무 영역 내에서 결코 1위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음악 기록관에서의 연구나 오르간 연주자와의 친밀한 공동 작업에 대해 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제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은 야코부스 신부한테서 받는 수업이었다. 그것은 역사학의 여러 분야를 동시에 취급하는 수업이었다. 왜냐하면 신부는 자신의 특별한 제자에게 베네딕트파 종단 의 전사(前史)와 초기 역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중세 초기의 문헌학에 대해서도 가르쳤으며, 그밖에 또한 특별한 시간에는 제자와 함께 어느 옛날 연대기 작가의 원전을 읽었기 때문이었다. 크네히트는 젊은 안톤도 수업에 함께 참여토록 해 달 라고 신부에게 부탁했는데, 신부는 이를 좋게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뜻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종류의 지극히 개 인적인 수업은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크네히트에게 설득 시키는 것은 신부에게 있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크네히트의 주선에 대 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안톤은 결국 연대기 작가 강독에만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에 대해 안톤은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그의 생애에 대해 우리가 이 이상 더 알고 있는 것이 없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있어 그 시간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예롭고 즐거운 일이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극이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의 소유자들과 가장 독창적인 인물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연구하 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에 청강자로서, 어린 신참자로서 조금 참여할 수 있었기 때 문이었다. 반대급부로 크네히트가 신부에게 해 준 것은. 그때그때 성명학이나 문 헌학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카스탈리엔과 유리알유희의 중요한 이념들의 역사와 조직에 대해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이때 제자는 선생이 되었 고. 존경하는 선생은 주의 깊은 학생이 되고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별로 만족해 하지 않는 질문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었다. 카스탈리엔의 정신 전체에 대한 신부 의 불신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카스탈리엔의 정신에는 진정으로 종교 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는, 크네히트의 인품이 그 런 교육의 한 고귀한 결과를 자신에게 보여 주고 있기는 했지만 진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간형을 양성해 낼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크네히트의 수업과 모범

을 통해, 그것이 도대체가 가능한 한에 있어서 일종의 개종을 체험하게 된 지가 오래되고 또 로마에 대한 카스탈리엔의 접근 노력을 중재할 결심을 한 지가 한참이나 되었을 때에도 불신감은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았다. 크네히트의 기록들 가운데에는 그때그때 요점을 메모해 둔 것으로서 이런 불신감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들이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여기에 인용해 본다.

신부: "당신들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요 미학자입니다. 당신들은 오래된 시에서 모음의 장단을 측정하고 그 법칙을 유성의 궤도와 관련짓습니다. 그것은 아주 매력적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의 유희입니다. 당신들의 최고의 비밀이자상징인 유리알유희도 사실 하나의 유희입니다. 이 아름다운 유희를 성례 같은 것이나 아니면 적어도 교화의 수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당신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례는 노력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희는 유희로 남을 뿐입니다."

요제프: "저희들에게 신학적 기초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신부님?"

신부: "아, 신학에 관해 얘기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들은 신학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보다 단순한 몇 가지 기초들만 있어도 당신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에 관한 현실적인 학문이요 현실적인지식이라 할 인간학 같은 것 말입니다. 당신들은 인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야수성도 인간의 신과의 유사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의 특수한 인간이고 배타적인 계급이며 특별한 교육의 시도라고 할 카스탈리엔 사람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크네히트로서는 사실 이런 시간들이 신부로 하여금 카스탈리엔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고 동맹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게 한다고 하는 자신의 과업에 대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하고 또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행운이었다. 이로 인하여 그가 가지게 된 상황은 그 이상 바랄 수도 생각해 낼 수도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내 얼마 안 가서 그는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 사람이 신뢰감에 차서 열심히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반대편에 앉아 있거나 자신과 함께 회랑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 이 사람을 비밀스런 정치적 의도나 거래의 대상과 목표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어쩐지 그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당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크네히트는 이런 상태를 그리 오래 말없이 견뎌낼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정체를 어떤 방식으로 밝힐 것인지 그 형식만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놀랍게도 노인이 그를 한 걸음 앞지르고 말았다.

"이봐요." 노인이 어느 날 별 뜻이 없는 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이리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지극히 기분 좋고 또.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효과적인 의사교환 방식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가지 활 동. 즉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함께 연구한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고 새 롭게 서로 결합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야말로 제때에 찾아와 준 것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경에 접어들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함께 가진 그 시 간보다 더 나은 요양법과 원기회복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 다. 따라서 나로 말하자면, 우리의 교제에서 이득을 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 다. 어쨌든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특히 당신에게 일을 맡겨 사절로 파견한 그 사람들도 우리의 교제에서 그들이 혹 기대하고 있는 만큼 얻게 되었는지 나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훗날의 실망스런 일을 미리 피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분명치 못한 관계가 생겨나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 늙은 현실주의자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의 이 작은 수도원에 당신이 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는, 이 체류가 나의 마음 에 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물론 이미 여러 차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최근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당신의 휴가가 시작될 때까지 나는. 당신이 우리 곁에 체류하고 있는 의미와 목적에 대해 당신 스스로도 전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본 겁니까?"

크네히트가 그렇다고 하자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휴가에서 돌아오고 난 뒤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에 당신이 있게 된목적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생각도 걱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에 대해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좋습니다. 내가 잘못 추측한 것이 아니었습

니다. 어쩌면 당신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는 목적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생각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외교적인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원이나 우리 원장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보시다시피 당신의 비밀은 이제 거의 다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아주 완전히 밝히기 위해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나한테 나머지 비밀까지도 남김없이 알려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대체 당신의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크네히트는 벌떡 일어나 매우 놀라워하고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신부 앞에 마주 섰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크네히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신부님은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시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저보다 한 발 앞서가심으로써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계시기도 합니다. 벌써 얼마 전부터 저는 신부님과 제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신부님께서 이제 그걸 아주 간단하게 밝혀 버리셨습니다. 제가 신부님께 가르침을 주십사고 부탁을 드린 일과, 신부님의 학문에 대해 저에게 지도를 해주시는 것과 관련해 신부님과 제가 약속을 한 일이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저 다행스러울 뿐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저의외교적인 일이고 신부님과의 연구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결코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인은 다정한 말로 크네히트를 위로했다. "나는 우리 두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고자 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확인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앞질러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도 원하고 있는 바라고 한다면, 모든 일은 그야말로 잘된 것입니다." 크네히트가 이제 자신의 임무의 내용에 대해 신부에게 말해 주자, 그에 대해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카스탈리엔에 있는 당신의 상사들은 그렇게 천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호감이 가는 외교관들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기도 합니다. 당신의 임무에 대해서는 조용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결정은 부분적으로 당신이나에게 당신들 카스탈리엔의 헌법과 이념세계를 가르쳐서 그것을 나에게 어느 정

도로 납득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 리 충분한 시간을 가져 봅시다." 크네히트가 여전히 다소 당황해 하는 것 같은 빛 을 보이자 노인은 너털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시다 면, 당신은 내가 앞질러 말한 것을 일종의 훈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 리는 두 사람의 외교관입니다. 외교관들의 만남은 언제나 하나의 투쟁입니다. 그 투쟁이 비록 우호적인 형태를 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우리의 투쟁에서 잠 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행동의 지침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 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시정된 것 입니다. 장기 말의 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수는 올바른 수였습니다." 크네히트는 카스탈리엔 당국이 의도하는 바를 위해 신부의 호감을 사는 일을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여기고 있었지만 신부로부터 가능한 한 많이 배우는 동시에 자 신이 그 박식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에게 있어서 카스탈리엔 세계로 인도하는 믿음 직한 안내자가 되는 것을 더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여러 가 지 이유 때문에 친구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다. 그것은 바로 훌륭 한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적인 위대성이나 에너지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듯 이 보이는 행운이나 그들이 타고난 듯이 보이는 복된 운명 때문에도 종종 부러움 을 사게 되는 것과 비슷했다. 소인은 위대한 사람한테서 바로 그 자신이 볼 수 있 는 것만을 볼 뿐이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경력과 승진 가도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어딘가 보통과는 다른 화려한 점과 빠른 점과,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 이지 않는 것 같은 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그 시기 크네히트의 생애에 대해 '그 는 행운아였다'고 말하고 싶은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또 이런 '행운' 을 외적인 상황들에 따르는 인과적 결과로서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도 덕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든 합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설명하려는 생각도 없 다. 행운은 이성이나 도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행운은 본질적으로 마적인 어떤 것이며, 인류의 초기 꽃다운 단계에 속하는 어떤 것이다. 소박한 행운을 맞은 사 람은, 요정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신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결코 합리적인 관찰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전기적인 관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런 사람은 상징

으로서 개인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의 피안에 서 있다. 그러나 그 생애로부터 이런 '행운'을 결코 배제해 버릴 수 없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실제로 역사적으로나 전 기적으로 서로 일치한다는 점과, 그들이 너무 이르게 또는 너무 늦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에만 있을 뿐이다. 크네히트는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의 생애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바라는 모든 것이 마치 저절로 그리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무릎 위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기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측면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며 카스탈리엔에서 바람직하지도 또 허용되지도 않는 어떤 전기적인 방법을 쓴다면, 즉 개인적인 것 즉 건강이나 질병, 동요와 굴곡에 넘치는 생활 감정과 자신감에 대해 거의 무한정으로 파고든다면, 아마 그런 측면을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 어쩌면 우리는 크네히트의 '행운'과 고난의 완전한 균형을 증명해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그의 인품과 생애의 모습을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주 줄거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이만하기로 하자. 크네히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저 그에 관해서 듣고 있을 뿐인 사람들로부터 크네히트가 많은 부러움을 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말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 있어 그어느 것도 베네딕트파의 이 늙은 신부에 대한 그의 관계만큼 소인들에게 부럽게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관계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생이고, 받는 것이면서 주는 것이고, 호감을 주는 것이면서 호감을 사는 것이고, 우정이면서 동시에 은밀한 공동연구인 관계였다. 크네히트 자신에게 있어서도 죽림에서 노형의 호감을 샀던 이래 이번처럼 호감을 사고 행복감에 젖었던 적은 없었으며, 호감을 사는 일을 통해 이번처럼 그토록 명예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부끄럽게, 선물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극을 받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다. 후일의 그의 우수한 제자들 가운데서 크네히트가 얼마나 자주, 즐겨 기쁜 마음으로 야코부스 신부에 대해 이야기했던가를 중언해 주지 않을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신부에

게서 크네히트는 당시의 카스탈리엔에서는 거의 배울 수 없었을 것을 배웠다. 크 네히트는 역사인식과 역사연구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개요를 습득하고 그것들을 응용하는 초보적인 연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훨씬 넘어서 역사를 학문분야로 서가 아니라 현실로서, 인생으로서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크 네히트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을 역사로 변형시키고 고양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는 아마도 이런 것을 그저 단순히 학자이기만 한 존재로부터는 배울 수 없었을 것 이다. 야코부스는 학식을 훨씬 넘어서는 관조자, 현인인 것만이 아니었다. 야코부 스 신부는 그뿐만 아니라 왕성한 활동가이고 세상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안겨 준 자리를 관조적인 생활의 편안함 속에 포근히 묻히 는 데 이용하지 않았으며, 세상의 온갖 풍파가 자신의 연구실을 통해 불어 지나가 게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온갖 고난과 예감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있 었다. 그는 자신의 시대의 사건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오 래전에 지나가 버린 사건들을 개관하고 정리하고 해석하거나 이념을 문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물질세계와 인간의 모순성을 문제로 삼고 있었다. 그 는 그의 협력자이자 반대자로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예수회 승려와 함께, 로 마교회가 체념과 그 큰 곤란의 시대를 넘기고 난 뒤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그 외교 적, 도덕적 영향력과 그 높은 정치적 위신의 진정한 건설자로 여겨지고 있었다. 선생과 제자 사이의 대화에서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지만--말을 아끼거나 조심스럽게 행동을 함에 있어서 신부가 갖추고 있었던 노련함뿐만 아니라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들어 가는 것에 대해 크네 히트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것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 베네딕트파 신부의 정치적 입장과 활동은 그의 세계사 관찰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의 견해 하나하나와 세상사의 혼란스런 모습에 대한 그의 관 찰 하나하나에는 또한 실천적인 정치가의 목소리가 배어 있기도 했다. 신부는 물 론 공명심에 넘치는 정치가도 권모술수를 일삼는 정치가도 통치자도 지도자도 출 세를 지향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신부는 충고자요 중재자였으며, 그의 활동은 지 혜를 통해서, 그의 노력은 인간존재의 부족함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서 완화되고 있지만 그 명성과 체험과 인간 및 제반 상황에 대한 지식과, 무엇보 다도 공평무사함과 고결한 인품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 다. 마리아펠스에 파견되어 왔을 때. 크네히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 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이 신부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옛날 시대의 학자 계 급도 자주 그러하였듯이 대부분의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순진하 게 아무것도 모르며 살고 있었다. 적극적인 정치적 권리나 의무를 갖지 않고 있었 으며 신문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이 평균적인 카스탈리엔 사람들 의 태도이고 습관이었지만 현실적인 것과 정치와 신문에 대한 두려움은 유리알유 희연기자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심했다. 그들은 즐겨 스스로를 그 주의 진정한 엘 리트로, 정수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그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생활의 담박 하고 승화된 분위기를 어떤 것으로도 더럽히지 않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수도원에 처음 왔을 때 크네히트도 사실 어떤 외교적인 임무를 띤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유리알유희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일뿐이었으며, 뒤보아 씨가 몇 주에 걸쳐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외에는 별다른 정치적 식견을 갖추고 있지 않았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그는 이제 세상물정에 아주 많이 밝아지게 되었지 만 현실적인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발트첼 사람이 갖는 저항감을 그는 포기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야코부스 신부와의 교제를 통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계몽되고 교육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 그가 역사에 대해 아 주 왕성한 지식욕을 느꼈듯이 정치에 대해 어떤 욕구를 느꼈던 때문이 아니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며, 부수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

자신의 무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카스탈리엔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자신의 강의에서 신부를 학생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 명예스러운 과제를 보다 잘 완수하기 위해서 크네히트는 주의 헌법과 역사, 영재학교 체계 그리고 유리알유희 발달사에 관한 문헌들을 발트첼로부터 가지고 왔다. 이런 책들 가운데 몇몇은—그때 이후 크네히트는 이 책들을 다시 읽은 적이 없었다.—이미 20년 전 플리니오 데시뇨리와 논쟁을 벌였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책들이었다. 특별히 카스탈리엔의 관리들을 위해서 써졌던 것이라 그 당시에는 아직 읽을 수가 없었던 다른 책

들을 이제 그는 비로소 읽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연구 분야가 상당히 확대 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자기 자신의 정신적 · 역사적 기초를 새로이 관찰하고 이 해하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부에게 종단과 카스탈리엔 조직의 본질을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지만 곧 자기 자신의 교육과 전체 카스탈리엔 교육의 최대 약점에 봉착하 게 되었다. 일찍이 종단의 성립과 그 성립에 뒤이어 일어난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촉진시켰던 세계사적인 제 상황을 그 자신도 그저 구체성과 질서가 결여된, 도식 화되고 분명하지 못한 모습으로 밖에 상상해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 이었다. 이렇게 해서, 신부는 결코 수동적인 학생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 작업이 더욱 촉진되었으며 의견교환이 매우 활발해지게 되었다. 그가 카스탈 리엔 종단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동안에 신부는 그가 이 역사를 여 러 가지 관점에서 비로소 제대로 보고 체험하며 그 뿌리를 일반 세계사나 정치사 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신부의 열정으로 인해 때로 격 렬한 논쟁으로까지 변하기도 했던 이 밀도 짙은 토론이 여러 해 뒤에 그 결실을 맺 게 될 뿐 아니라 크네히트가 죽을 때까지 생생하게 살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신부가 얼마나 주의 깊게 크네히트의 설명을 들었 고, 또 그 설명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카스탈리엔을 알고 또 인정하게 되었던가는 후일 이 신부가 보인 태도 전체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호 의적이고 중립적인 태도와 빈번한 학문적 교류로부터 시작해서 때로 실제적인 협 력과 동맹관계로까지 발전하기도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로마와 카 스탈리엔 사이의 협조 관계는 이 두 사람의 덕택이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부는 심지어—처음에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기를 거절했다.—유리알유희 이론에 대해까지도 마침내 배우기를 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 종단 의 비밀을, 또 어떤 점에서는 종단의 신앙이나 종교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그는 분 명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알고 있었으며 별로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세계를 철저히 알아보기로 이제 일단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저돌적이면서도 능란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중심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위대한 베네딕트파 신부는 비록 유리알유희연기자가 되지는 않았지만—그러잖아도 유리 알유희연기자가 되기에 그는 나이가 너무 많았다.—카스탈리엔 밖에서 어느 누구 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리알유희와 종단의 정신을 진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 이게 되었다.

연구 시간을 마친 크네히트가 작별인사를 할 때면 가끔 신부는 크네히트에게 그날 저녁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것은 힘든 강의와 긴장된 토론 뒤에 이어지는 평화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런 때에 요제프는 종종 자신의 클라비코드나 바이올린을 들고 갔다. 그러면 노인은 희미한 촛불 빛을 받으며 피아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럴 때면 향긋한 양초 냄새가 그들이 번갈아 가면서나 또는함께 연주하는, 코렐리나 스카를라티나 텔레만이나 바흐의 음악처럼 그 작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노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크네히트는 그러나 잠시 동안의그 음악적인 저녁예배를 통해 원기를 얻게 되어 규정이 허용하는 한 밤늦게까지 연구를 계속했다.

이 시절 크네히트는 신부 곁에서 배우거나 가르치고, 수도원에서 별로 어려움이 없는 유희 강습을 하고, 가끔씩 게르바지우스 원장과 중국에 관한 토론을 하는 것 외에 또 그야말로 방대한 범위에 걸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두 번에 걸쳐 참가하지 않았던 발트첼 영재의 연례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런 경연대회에서는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서너 개의 주제에 기초하여 유리알유희 초안을 완성해내야 했다. 최고도의 형식적 순수성과 서예법을 지키는 가운데 주제들을 대담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이 단 한 번의 기회에 있어서는 경연에 참가한 사람들이 유리알유희의 일반적 규범을 뛰어 넘는 것도 허용되었다. 경연에 참가한 사람들은 공식 규정집과 유희언어 어휘집에 아직채택되어 있지 않는 기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그러지 않아도 공식적인 대(大)장엄유희와 함께 유희연기자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행사였던 이경연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유희기호로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후보자의 경합의 장이 되기도 했다. 아주 드물게 있는 경우이기는 했지만 이 경연의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는, 그의 유희가 그 해의 최고 후보유희로서 장엄

하게 공연되는 것과 함께 그가 제시한 새로운 유희 문법과 어휘가 인정을 받게 되 어 유희기록관과 유희언어에 채택되어지는 것이었다. 일찍이 약 25년 전에 현재의 유리알유희명인인 그 위대한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가 수대기호(獸帶記號)의 연금 술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약어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드문 영예를 누린 적이 있었다. 명인 토마스는 그 이후에도 유익한 신비어로서의 연금술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크네히트는, 거의 모든 경연참가자들과 마찬가지 로 많은 새로운 자료들을 준비하기는 했지만 이번의 경우 새로운 자료들을 사용하 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또 그는, 그러는 것이 사실 그에게 잘 어울리는 일 일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유희방법에 대한 신조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이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현대적이며 개성적인 구조나 주제를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우 명백하고 고전적인 구성, 엄격하게 균형이 잡히고 아주 적절하게 장식적이며 노련하면서도 우아한 전개를 갖는 유희를 만들 었던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발트첼이나 유희기록관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며, 역사 연구에 정력과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의 선생이자 친구인 야코부스 신부의 기호에 가장 잘 부합하리라고 여겨지는 형태로 자신의 유희를 구 성하려는 다소간의 의식적인 소망에 영향을 받았던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로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앞에서 우리는 '심리적 유희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독자들 가운데에는 아마 이 표현을 즉각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크네히트가살던 시대에 이 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용어였다. 사실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유리알유희에 정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조류와 유행과 투쟁과 변화무쌍한 견해와 의미부여가 있었다. 그 시대에는 유희에 관해서 특히 두 가지 견해가 있었으며, 그것을 둘러싸고 논쟁과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유희의 형태를 형식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크네히트는 테굴라리우스와 마찬가지로, 논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인 형태를 옹호하고 촉진시킨 사람들 가운데 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심리

적 유희방법'이라는 표현 대신에 '교육적 유희방법'이라는 표현을 더 즐겨 사용했다. 형식적 유희는 유희의 모든 구체적 내용들, 즉 수학적이고 언어적이고 음악적인 내용들 등등으로부터 가능한 한 긴밀하고 틈이 없고 형식적으로 완전한 통일과조화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이에 반해 심리적 유희는 통일과조화, 우주적인 완결성과 완전성을 내용들의 선택이나 배열, 연결, 결합 대치에서보다는 유희의 각단계에 이어지는 명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따라서 이 명상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이런 심리적 또는, 크네히트가 즐겨 사용했던 대로, 교육적 유희는 외부로부터 완전성의 모습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희연기자가 엄밀하게 규정된 일련의 명상을 통해 완전한 것과 신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유희는" 크네히트는 언젠가 노(老)음악명인에게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었다. "명상이 끝나고 나면, 마치 공의 표면이 그중심을 감싸듯이 유희연기자를 감싸며, 그에게 우연스럽고 혼란스러운 세계로부터 아주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세계를 분리해내어 그것을 자기 자신 가운데로 받아들인 것 같은 기분을 남겨 줍니다."

크네히트가 이 대경연대회에 참가 작품으로 제출했던 유희는 심리적으로 구성된 유희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구성된 유희였다. 이 유희로써 그가 상사들이나 또한 자기 자신에게 마리아펠스에서의 사절 노릇과 외교적인 사명에도 불구하고 유리 알유희연기자로서 자신이 연습의 강도나 유연성이나 세기, 숙련 정도에 있어 조금도 잃은 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크네히트는 이 증명을 훌륭하게 해 보였다. 그 일은 오로지 발트첼의 유희기록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자신의 유희초안의 마지막 완성과 정서를 친구인 테굴라리우스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테굴라리우스 자신도 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원고를 친구에게 직접 전하고 친구와 더불어 그 원고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으며, 친구의 초안도 함께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다. 사흘 기한으로 프리츠를 자신이 있는 수도원으로 불러 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벌써 두 차례나 있었던 그런 부탁을 명인 토마스가 처음으로 들어 주었다. 테굴라리우스는 이 방문에 대해 매우 기뻐하고 카스탈리엔이라는

섬나라 사람으로서 아주 많은 호기심을 품고 왔던 것이었지만 막상 수도원에 오게 되자 극심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아니 이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낯선 인상들 을 받게 되자. 친절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건강하고 다소 거칠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근심이나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기울일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사이에 처하게 되자 거의 병이라도 날 지경이었다. "자네가 살 고 있는 이곳은 전혀 딴 세계의 별인 것 같네." 테굴라리우스는 친구에게 말했다. "나는 자네가 이곳에서 벌써 3년이나 참고 지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점 에 대해 자네한테 놀라고 있네. 자네의 신부들은 사실 매우 친절하게 나를 대해 주 고 있지만 이곳에서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느낌이라네. 어느 것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지 않으며, 어느 것 하나 당연하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저항감이나 고통 없이는 적응할 수가 없네. 이곳에서 2주일을 살아 야 한다면 내게는 아마 지옥 같을 걸세." 크네히트는 친구를 위해 애를 썼으며, 그 도 처음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두 종단, 두 세계 사이의 이질적인 면을 관찰 자로서 함께 살펴보았다. 그는 지나치게 예민한 그의 친구가 그 불안스럽고도 당 황해 하는 태도로 인해 이곳에서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 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연에 출품할 그들 두 사람의 유희초안을 함께 철저하 게,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런 시간을 마치고 건물 다른 쪽에 있는 야코부스 신부 한테로 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면, 크네히트 자신도 갑자기 고향 땅을 떠나 다른 땅 과 공기, 다른 기후와 다른 별을 갖는 다른 나라에 와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 었다. 프리츠가 다시 떠나게 되었을 때 크네히트는 신부에게 이 친구에 대한 인상 을 말해 달라고 졸랐다. "대부분의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당신 친구보다는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코부스는 말했다. "당신이 그 친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 여 주었던 것은 친절미가 없고 지나치게 규율에 묶여 있으며 연약하고, 내가 우려 하는 바이지만 거기에다 다소 거만하기도 한 인간유형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당 신을 기준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당신네들의 태도를 온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하고 예민하고 지나치게 영리하고 안 정성이 없는 저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네들의 주(州) 전체를 다시 싫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네히트가 말했다. "베네딕트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 친구처럼 병약하고 신체적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로 인해 정신적으 로는 대단히 귀중한 사람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 적해내는 눈은 가졌으면서도 그의 훌륭한 장점들을 보아낼 수 있는 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으로 그를 오게 했던 것이 어쩌면 현명하지 못한 일 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으로 오게 됨으로써 그는 저에게 친구로서 큰 도움 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크네히트는 신부에게 자신이 경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크네히트가 친구를 위해 변명하는 것을 신부는 기꺼운 표 정으로 들었다. "멋진 응수였습니다." 신부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 신은 실제로 교제하기가 다소 까다로운 친구들만 온통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 니다." 크네히트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신부는 잠시 즐기 다가 가벼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당신 친 구 플리니오 데시뇨리에 대해 뭐 좀 새로운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요제프의 놀 라움은 더욱 커졌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크네히트는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 다. 전후 사정은 대강 이랬다. 데시뇨리가 한 정치적인 논박의 글을 통해 지극히 반(反)가톨릭적인 신념을 천명하면서 그 기회에 야코부스 신부도 그야말로 신랄하 게 공격한 것이었다. 신부는 가톨릭 신문사에서 일하는 친구들로부터 데시뇨리에 대한 정보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데시뇨리의 카스탈리엔 학생시절과, 그 유명한 데시뇨리와 크네히트의 교우 관계도 언급되고 있었다. 요제프는 플리니 오의 논문을 부탁해 읽어보았다. 그에 이어 크네히트와 신부 사이에 처음으로 현 실 정치 문제를 내용으로 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후 그런 종류의 대 화가 그리 자주 있었던 건 아니었다. 크네히트는 페로몬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렇게 말했다. "우리 플리니오의 존재와 그 곁다리로 내 자신의 존재도 세계 정치의 무대 위에 올라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상스러운 느낌과 함께 거의 무서운 느낌까지 가졌네. 그때까지 내가 일찍이 그 가능성을 생각도 해 본 적이 없는 사정 이었네." 신부는 플리니오의 논박의 글에 대해 오히려 시인하는, 어쨌든 민감한 반 응을 보이지는 않는 태도를 취했다. 신부는 데시뇨리의 문체를 칭찬했으며 데시뇨 리한테서는 영재학교를 다닌 흔적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현실 정치에서는 대개 훨씬 더 낮은 정신과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무렵 크네히트는 친구 페로몬테가 후일 유명해지게 되는. 〈요제프 하이든 이후 의 독일 예술음악을 통한 슬라브 민족음악의 수용과 동화〉라는 제목의 논문 앞부 분의 사본을 보내온 것을 받게 되었다. 논문을 받고 크네히트가 페로몬테에게 보 낸 답장편지에서 중요한 대목은 대강 이러했다. "한때 나도 얼마 동안 그 연구를 함께 했지만 자네는 자네의 연구에서 구속력 있는 결론을 끌어내었네. 슈베르트에 대한, 특히 2중주곡에 대한 두 장은 현대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음악사의 가장 탁월한 글들 가운데 하나이네. 때때로 나를 좀 생각해 주게. 자네가 이룩한 것과 같은 성과로부터 나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네. 이곳에서의 생활에 아주 만족해 할 수는 있지만—이는 마리아펠스에서의 내 사명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세.—나는 때때로 우리 주와 내가 그 일원이 되고 있는 발트 첼의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마음 아픈 일로 느끼고 있네. 여 기서 나는 많은 것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체 험하고 있는 것은 확신이나 전문적인 능력의 증대가 아니라 바로 문제성의 증대일 세. 물론 시야도 더 넓어지고 있네. 특히 처음 2년 동안에 이곳에서 자주 느꼈던 그 불안감이나 이질감. 확신과 명랑한 기분과 자신감의 결여 그 밖의 다른 좋지 못 한 일들에 비하면 지금의 나는 물론 더 안정된 기분을 느끼고는 있네. 얼마 전에 테굴리우스가 이곳을 다녀갔네. 단 3일 동안이었네. 그러나 그는 나를 만날 수 있 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었던 터였고 또 마리아펠스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느끼 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틀째 되는 날부터 벌써 답답한 기분과 스스로가 이방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거의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했네. 사실 수도원도 결국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평화스럽고 친절한 세계이지 결코 감옥이나 병영이나 공 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경험에서 우리 카스탈리엔 주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일에 젖어 있고 또 감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 게 되었네."

카를로 페로몬테에게 보낸 이 편지가 써졌던 바로 그 무렵 크네히트는 야코부스 신부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되어서, 신부는 카스탈리엔 종단본부에 짤막한 편지를 써서 예의 그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 자신이 적극 힘쓰겠다는 의사를 전하게 되었 다. 그러나 신부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유리알유희연 기자 요제프 크네히트"는 자신에게 카스탈리엔적인 제반 사정에 관해 특별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얼마간 더 그곳에 머무르게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덧붙였 다. 말할 것도 없이 카스탈리엔 측은 자랑스러워하는 기분으로 신부의 요구를 들 어 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수확'을 거두어들이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할 것이라 고 생각하고 있었던 크네히트는 종단본부와 뒤보아 씨의 서명이 든. 그의 임무 완 수를 인정하는 서한을 받게 되었다. 고위 당국에서 보내온 이 공식 서한에서 당장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프리츠 테굴라리 우스에게 쓴 짧은 편지에서 크네히트는 이에 대해 환호성이라도 지를 것 같은 기 분으로 알렸다)은, 종단은 유리알유희명인을 통해 유희연기자 마을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의 희망을 전해 들었으며, 그래서 그의 현재 임무를 마치게 되면 이 희망을 전적으로 들어 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짤막한 한 문장이었다. 그는 이 대목 을 야코부스 신부에게도 읽어 보였으며, 신부에게 그 대목에 대해 자신이 대단히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이제 어쩌면 카스탈리엔으로부터 영원히 추 방되어 로마로 파견될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자신이 그동안 매우 걱정해 왔다는 것 도 고백했다.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종단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 습니다. 사람들은 종단의 주변이나 아니면 심지어 추방상태에서 살기보다는 그 품 안에서 살기를 더 좋아하는 법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살게 됚으로써 그 불순한 모 습 가까이로 다가가게 되었던 그 얼마 안 되는 정치를 조용히 다시 잊고 싶으실 겁 니다. 당신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역사를 소홀히 취 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영원히 부전공이나 취미분야로 남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역사가가 될 소질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 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여기 있는 한 우리 두 사람 서로 좀 더 배우도록 합시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발트첼을 자주 방문해도 좋다는 허가를 그리 많이 이용하지 않

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라디오를 통해 연습세미나와 많은 강연 과 유희들을 함께 듣고 있었다. 또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 내의 자신의 고 상한 방에 앉은 채이긴 했지만 유희연기자 마을의 축제관에서 현상경연대회의 결 과를 발표하는 '장엄한 식전'에도 참가할 수 있었다. 그는 그리 개성적이지도 않고 또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지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진지하면서도 매우 품위 있 는 작품을 제출해 놓고 있는 터였기 때문에, 칭찬의 말이나 3등 상이나 아니면 2 등 상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에게 1등상이 결정되었다는 소 식을 듣게 되었다.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가 마음속에서 기쁨을 미처 제대로 느끼 기도 전에 유희명인청 대변인은 벌써 그 아름답고 깊은 목소리로 계속 읽어서 2등 상 수상자로 테굴라리우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이 나란히 그 경 연대회의 영광스런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감격적이고 황홀한 경험이었다. 그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따라 아래로 달 려 내려가서는 발자국 소리 울리는 숙사를 지나 밖으로 나갔다. 이 무렵 크네히트 가 노(老)음악명인에게 보낸 한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선생님,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도 행복합니다. 우선,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해 종단본부로부터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았고 또 계속 외교적인 업무를 보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친구들한테로, 유리알유희로 곧 돌아가게 되리라 는 매우 소중한 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그 형식적인 면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충분한 이유 때문에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것 을 다하지는 못했던 한 유희로 이렇게 1등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모든 것 에 이어 이런 성공을 친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것 은 사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 지만 즐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기였습 니다만 보잘것없는 시기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성공들은 제 깊은 마음속 느낌 으로 볼 때 어딘가 너무 갑작스럽고 또 너무 과분합니다. 저의 감사해 하는 마음에 는 어떤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자리까지 물이 가득 든 그릇에 그 저 한 방울만 더 떨어져도 모든 것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 입니다. 그러나 부디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은 말 한 마디만 해도 벌써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가장자리에까지 물이 넘치게 된 이 그릇은 얼마 안 가서 한 방울보다 훨씬 많은 물방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하지 만 그렇게 될 때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요제프 크네히트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커다란 변화를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자신의 행복한 기분과 그것에 섞여 있는 불 안한 기분에 흠뻑 젖어들어 살았다. 야코부스 신부에게 있어서도 이 몇 달은 행복 하고 마음 편안한 시기였다. 그로서는 제자이면서 동료인 이 사람을 곧 떠나보내 야 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다. 때문에 신부는 연구시간에는 물론이고 자유롭 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도 더욱 크네히트에게 연구와 사색으로 점철되었던 자 신의 인생을 통해 인간 생활과 민족 생활의 수만 가지 양상에 대해 자신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통찰을 가능한 한 많이 물려주려고 애를 썼다. 크네히트의 사명의 의 의와 결과에 대해. 로마와 카스탈리엔 사이의 교류와 정치적 협조의 가능성과 가 치에 대해서도 신부는 가끔 크네히트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크네히트에게 카스 탈리엔 종단의 창설뿐만 아니라 굴욕적인 시련기로부터의 로마의 점진적인 부흥 을 결과했던 그 시대를 연구하라고 권했다. 신부는 또 크네히트에게 16세기의 종 교개혁과 교회분열에 관한 책 두 권을 권했으나, 두꺼운 세계사 책을 읽기보다는 직접적인 원전연구나 그때그때 연구범위를 개관할 수 있는 부분영역으로 한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부는 모든 역사철학에 대한 자신의 깊은 불신감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유리알유희명인

크네히트는 자신이 완전히 발트첼로 돌아가는 것을 봄으로, 즉 연례유희 또는 장 엄유희로 불리는 대규모 공개 유리알유희가 열리는 시기로 미루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런 유희의 기념할 만한 역사에서 그 절정기는, 즉 세계 방방곡곡으로부 터 저명한 사람들과 대표자들이 찾아오며 수주간 계속되는 유희를 하던 시대는 이 미 지나가서 영원히 역사의 사실이 되고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열흘에서 14일까지 계속되는 장엄유희를 하게 되는 봄 대회는 모든 카스탈리엔 사람들에게 여전히 연 례의 큰 축제행사가 되고 있었다. 또 이 축제에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의 미가 부여되고 있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축제는 언제나 똑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은 아닌. 이 주의 모든 주의나 경향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상징적인 조화의 기치 하 에서 통합시키고. 개별 분과들의 이기주의를 서로 화해시키며. 그 분과들의 다양 성을 초월해 있는 통일성에 대한 관념을 환기시키기 때문이었다. 이 축제는 믿음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영감의 힘으로 넘치는 성례였고. 믿음을 가 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종교대용물이었다. 양쪽 모두에게 축제는 순 수한 미의 샘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의미했다. 일찍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수 난곡도—그것이 생겨나게 되었던 시대에서보다는 그것의 재발견에 뒤이은 세기에 서—이와 비슷하게 그 연주자나 청중에게 있어 한편으로는 진정한 종교적 사건이 요 감동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숭배의 대상이요 종교대용물이었으며, 모두에게 있어 예술과 창조적인 정신의 장엄한 구현이었다.

크네히트에게는 자신의 결심에 대해 수도원 사람들이나 고향 당국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연기자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공화국에 다시 편입되고 난 뒤 자신이 차지하게 될 지위가 어떤 종류의 것이 될지 아직 제대로 상상해 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현재의 지위에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머지않아 바로 어떤 다른 직무나 임무를 떠맡게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리라는 짐작을 하고 있었다. 당분간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귀향과 친구들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축제기간을 고대하고 있었고, 야코부스 신부와 함께 지내는 마

지막 날들을 즐겼으며, 수도원장과 승려들이 작별에 즈음하여서도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자신을 환대해 주는 것을 공손한 태도와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고 난 뒤 그는 떠났다. 좋아지게 된 장소와 자신의 뒤에 남겨지게 된 삶의 단계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에 따르는 서운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지만, 지도자나 동료들 없이 한 것이기는 하나 규칙의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행했던, 장엄유희에 대비한 일련의 명상연습을 통해 이미 축제의 기분에 어느 정도 젖은 채로 떠나게되었다. 유리알유희명인에 의해 오래전부터 정식으로 연례유희에 참석해 주도록초대를 받고 있는 야코부스 신부로 하여금 그 초대에 응하게 해서 동행을 하도록설득하는 일에 그가 실패했다는 사실도 이런 기분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다. 크네히트는 그 나이 많은 카스탈리엔 반대자의 유보적인 태도를 이해하고 있었다. 크네히트 스스로는 자신이 일순간 모든 의무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축제에 완전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하다. 보다 큰 어떤 힘들이 불길하게 개입하지 않는한 진정한 축제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다. 비로 인해 망치게 된 행렬도 경건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나름의 성스러움을 지니는 것이며, 잘못 구워진 축제 음식도 그것의 흥을 깰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알유희연기자에게 있어서 모든 연례유희는 축제이며 어느 면에서는 성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부분 부분이 서로 잘 조화되고 서로 높이고 활기를 주고 고양시키는 축제나 유희가 있다. 이것은 사전 준비가 결코 더 모자라지 않는 다른 상연이나 연주가 그저 평범한 것으로 남게 되는 반면 분명하게인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기적 때문에 그러기라도 한듯 절정과 내적인 체험으로 고양되는 연극 상연이나 음악 연주가 있는 것과 같은이치이다. 이런 고상한 체험의 성립 근거가 체험하는 사람의 마음상태에도 있는 것이라면 요제프 크네히트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근심에도 짓눌리지 않은 채 명예를 가득 안고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는 즐거운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장엄유희는 기적의 기운을 맞아서 대단한 정도의 성스러움과 찬란 함을 가지게 될 운명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즐겁지 못하고 분명히 행복 스럽지 못하며 이미 거의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유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희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마음이 고양되고 승화되 는 것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실제의 대표자들이나 주최자들이나 책임자들은, 이런 경우 언제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더 비참하게 이 축제의 하늘을 위협하고 있는 무미건조와 비참함과 실패와 장애와 곤경의 기운을 느꼈다. 크네히트도 물론 이런 기운을 느끼고 또 고도로 긴장되어 있었던 그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깨어져 버리 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는 결코 그런 불운을 지독히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 던 사람들 가운데 들지는 않았다. 이번 유희에 함께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공동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었던 그로서는 그 며칠 동안에, 비록 이 행사에 진정한 화려함이나 은총이 베풀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경건한 참가자로서 훌륭하게 구 성된 그 유희를 긍정적인 태도로 관람할 수 있었으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채 명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었고, 감사에 찬 마음으로 열심히 자신의 내부에서 그런 유희에 참석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축제와 제사의 체험을, 신적인 것의 발치에서 모든 신자들이 신비스럽게 하나로 되는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소 수의 아주 정통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축제행사라도 이런 체험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크네히트도 이 축제를 덮고 있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명인 토마스의 다른 모든 유희와 마찬가지로 유희 그 자체는, 즉 유희의 구도와 구조는 나무랄 데가 없었다. 심지어 이 유희는 토마스 명인이 창작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소박하며 가장 직접적인 유희들 가운데 하나 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상연은 아주 좋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발트첼의 역사에 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다.

이 대규모 유희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크네히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유희연기자 마을에서 신고를 마치고 난 그를 영접해 준 사람은 유리알유희명인이 아니라 그의 대리자인 베르트람이었다. 베르트람은 공손하게 그를 환영해 주었으나 아주 간단하고 무심한 말투로 그에게 존경하는 명인은 요즈음 병석에 누워 계신다

고. 베르트람 그 자신은 크네히트의 사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까닭에 그 의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크네히트가 히르슬란트에 있는 종단본부 로 가 그 곳에서 귀향 보고를 하고 명령을 기다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별인사를 할 때 크네히트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나 몸동작을 통해 그의 냉담하면서도 간단 한 접대방식에 대한 서먹한 기분을 어느 정도 드러내게 되자 베르트람은 변명의 말을 했다. "내가 동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기 바라오. 지금의 특별 한 사정을 이해해 주면 좋겠소. 명인께서는 병석에 누워 계시고 연례 대 유희는 목 전에 다가와 있소. 명인께서 이 유희를 주재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대리자인 내가 그분을 대신해서 관여해야 할지 아직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오. 명인께서 지금보 다 더 좋지 않고 더 어려운 때에 병환에 드실 수는 없었을 것이오. 언제나 그랬듯 이 나는 물론 명인을 대신해서 직무를 돌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소. 그러나 그뿐 만 아니라 또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대 유희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 지도 를 떠맡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힘에 벅찬 일이 되지 않을까 나는 걱정하고 있소." 크네히트는 눈에 띨 정도로 풀이 죽어 있고 어딘가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있는 이 남 자를 가엾게 생각했으며, 어쩌면 이제 이 사람의 손에 축제에 대한 책임이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에 못지않게 유감으로 생각했다. 그는 너무도 오랫동 안 발트첼을 떠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베르트람의 걱정의 원인이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베르트람은. 한 대리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언제 나 지극히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얼마 전부터 영재들, 즉 이른바 복습과정지도교사 들의 신망을 잃게 되어서 그야말로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크네히트는 유리알유희명인을. 그 고전적 형식과 풍자의 영 응을, 그 완벽한 대가, 완벽한 카스탈리엔 사람을 생각했다. 크네히트는 이 명인 이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의 보고를 듣고 자신을 다시 유리알유희연기자의 작은 공 동체에, 어쩌면 측근의 자리에 편입시켜 주리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 다. 명인 토마스가 주재하는 축제유희를 보고 그가 지켜보는 데서 계속 연구하고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크네히트의 소망이었다. 이제 크네히트에게 는 병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명인과, 다른 상사들에게 내맡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종단의 비서와 뒤보아 씨가 그를 맞이하여 보고를 들을 때 보여 주었던 경의에 찬 호의가, 아니 동료애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다. 그는 또한 대화의 첫머리에서 바로 종단사람들이 우선은 자신을 그 로마 관련 계획에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으며 유리알유희로 영원히 되돌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우선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에 있는 영빈관에 숙소를 정해서 먼저 다시 한번 이곳 사정을 살펴본 뒤 연례유희에 참석하라는 친절한 부탁을 받게 되었다. 유희가 시작하기 전 며칠 동안 크네히트는 친구인 테굴라리우스와 함께 단식 연습과 명상 연습에 몰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많은 사람의 별로 유쾌하지 못한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된 그 독특한 유희에 경건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그림자'라고 불리기도 한 명인 대리자의 지위. 특히 음악명인과 유리알유희명인 대리자의 지위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명인들 각각은 한 사람의 대리자를 두고 있 는데, 당국이 그에게 이 대리자를 뽑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명인 스스로가 자 신의 소수의 후보자들 가운데서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그를 대리하는 이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이나 서명에 대해서는 명인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한 후보자가 자신의 명인에 의해 그 대리자로 임명되면 이것은 그 후보자에게 있 어 커다란 영예가 되며 대단한 신뢰감의 표시가 된다. 그로 인해 이 후보자는 명인 의 측근 보좌관으로서 오른팔로서 인정을 받게 되며, 사정이 생겨 명인이 그를 내 보내면 언제라도 명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물론 모든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고위 당국자들의 표결이 있을 경우 그는 그의 명인의 찬 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뿐 결코 연사로 나서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는 없는 것인 데, 이와 비슷한 안전조치들은 다른 것들도 더 많이 있다. 대리자로 임명된 사람이 아주 높고 때로 그야말로 두드러지는 자리에 오르게는 되지만 동시에 이런 임명 은 좌천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계층조직 내에서 어느 면에서는 예 외적인 경우로 고립하게 되며, 그런 임명으로 인해 때로 중요한 역할을 떠맡고 큰 영예를 누리게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로부터 다른 모든 경쟁자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나 가능성을 빼앗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두 가지 점이 그의 예외적 인 지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대리자는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층조직 내에서 더 이상 승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법이 명문화되 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카스탈리엔의 역사에서 분명히 읽어볼 수 있다. 어떤 명인 이 서거하거나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그의 '그림자'가 그의 지위를 이어 받았던 경우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다. 이 '그림자'가 명인을 자주 대리하고. 명인 의 전 존재로 인해 이 그림자가 후계자가 되도록 미리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랬다. 이곳의 관습이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분명하지도 않고 또 유동적인 경계나 구분을 의도적으로 극복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강조하려는 것 같은 인상을 준 다. 명인과 대리자 사이의 구분은 마치 직무와 인물 사이의 구분을 보여 주는 상징 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 카스탈리엔 사람이 대리자라고 하는 고위 측근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장차 자신이 명인이 되리라는, 그가 그렇게도 자주 대신해서 입고 달고 하는 그 관복 및 휘장과 장차 진실로 하나가 되리라는 희 망을 포기한다. 이와 동시에 그 사람은 직무 수행 중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경 우 그 자신 스스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의 명인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그 이상하리만큼 모호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어느 명인이 자신이 선출한 대리자의 희생이 되어 그 대리자가 저지 른 실수 때문에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던 일이 이미 일어나기도 했다. 발트 첼에서 유리알유희명인의 대리자를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말은 대리자가 갖는 독특 한 지위, 즉 그의 명인과의 밀착성, 아니 이른바 동일성뿐만 아니라 그의 공무상의 존재가 갖는 가상성과 비본질적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발트첼에서 대 리자는 '그림자'로 불리고 있다.

유리알유희명인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는 여러 해 전부터 베르트람이라고 하는 '그림자'로 하여금 직무를 맡아보게 하고 있었다. 베르트람은 재능이나 선한 의지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운이 따라 주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는 뛰어난 유리알유희연기자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적어도 수완 없는 교사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명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적인

관리였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관리들 사이에서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 었으며, 젊은 층의 영재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었다. 그는 그의 명인이 보여 주는 기사답고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확실하고도 안 정된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명인은 그를 돌보지 않는 채 그냥 내버려두 지는 않았지만 여러 해 전부터 가능한 한 그가 영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 었으며 도대체가 그로 하여금 대중 앞에 나서게 하는 일을 점점 더 피하고. 오히 려 사무국이나 기록관에서 더 많이 일하도록 하고 있었다. 나무랄 데가 없는데도 분명 좋은 운을 만나지 못해서 남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아니 지금으로서 는 더 이상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의 명인의 병환으로 말미암아서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의 정점에 서게 된 것이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이 연례유희를 주재해야 하게 된다면 그는 축제기간 동안에 전체 주에서 가장 눈 에 띄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중대한 과업을 감당해 낼 수 있으려면 대부분의 유리알유희연기자들, 또는 특히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이 신뢰감을 보임으로써 그를 지원해 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유감스럽 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 해의 장엄유희는 발트첼 사람들에게 있 어 커다란 시련이, 아니 거의 재앙이 되었다.

유희가 시작하기 하루 전날에 가서야 비로소 명인이 중병에 걸려 유희를 주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이처럼 공표가 미루어졌던 것이 혹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되어 유희를 주재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으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명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던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명인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만큼 중병에 걸려 있었으며, 따라서 그의 '그림자'는 마지막 시간의 직전까지 카스탈리엔 사람들을 발트첼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내버려두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지연이 그야말로 실수였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또한 의견이 분분해질 수있다. 그런 지연이 좋은 의도에서 비롯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축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며 명인 토마스의 숭배자들이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갔더라면, 발트첼의 유리알유희연기자들과 베르트람 사이에 신뢰감이 조성되어 있었더라면, 이 '그림자'는—이것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진실로 대리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따라서 명인의 불참도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추측들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우리는 단지 베르트람이 당시 발트첼의 여론이 그렇게 보았던 것처럼 무조건 실패자이거나 심지어 무자격자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다. 베르트람은 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생자였다.

예년이나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내빈들이 이 대(大)유희로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유희명인의 안부에 대한 걱 정과 축제의 진행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가진 채로 온 것이었다. 발트첼과 그 근처 의 마을들은 사람들로 꽉 메워지게 되었고. 종단본부 및 교육국 인사들의 거의 전 원이 도착했으며, 국내의 먼 지방들로부터와 외국으로부터도 축제 기분에 젖은 사 람들이 와 숙소들을 가득 채웠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축제는 유희가 시작하기 전날 저녁에 명상 시간을 통해서 개막되었는데, 이 명상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 사 람으로 가득 메워진 전 축제 지역은 깊고 경건한 묵념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에 첫 번째의 음악 연주가 있었고, 유희의 제1악장의 공표가 있었으며, 이 악장의 두 가지 음악적인 주제에 대한 명상이 있었다. 유리알유희명인의 예복 차림을 한 베르트람은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창백한 모습 이었으며, 하루하루 지나감에 따라 점점 더 피로해하고 괴로워하고 체념적으로 되 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에 가서 그는 말 그대로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유희가 시작한 지 두 번째가 되는 날에 벌써 명인 토마스의 병세가 악화되 었으며 그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다. 바로 이날 저녁 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에서 정통한 소식통들 가운데에서, 병중에 있는 명인과 그의 '그림자'와 관련하여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징후들을 듣게 되었다.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의 극소수 핵심 인사들, 즉 복습과정지도교사들로 부터 나온 그 이야기는, 명인이 유희를 주재할 의사도 있었고 또 실제로 주재할 힘 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의 '그림자'의 야심에 희생이 되어서 이 그림자에 게 그 축제의 과업을 넘기게 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베르트람이 그의 큰 역할을 도대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유희가 실패로 끝 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병환에 들어 있는 명인은 유희에 대해, 자신의 '그림자'와 그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대신하여 실 패에 대한 속죄를 스스로 떠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다름 아닌 바로 이것이 명 인의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열이 오르게 된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이 그 이야기의 유일한 독법은 아니었다. 그러나 영재들의 독법은 바로 그러했다. 이 런 독법은 야심에 찬 후진들인 영재들이 현 상황을 비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극을 해소하거나 해명하거나 변명하는 것을 전혀 도와 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었다. 명인에 대한 존경심에는 그 의 '그림자'에 대한 혐오감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 명인 자신이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그림자가 실패해서 파멸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다시 하 루가 지난 뒤 사람들은 명인이 병상에 누운 채로 그의 대리자와 두 명의 상급 영재 들에게 평화를 유지해서 축제를 위태롭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 을 수 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명인이 자신의 마지막 뜻을 밝혀 당국에다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으면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또 몇 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었다.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는 명인의 병세에 대한 소식들 과 함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돌았다. 축제관과 숙소의 분위기는 날로 가라앉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축제에의 계속 참여를 포기하고 떠나 버리 는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어떤 무겁고 암울한 기운이 전체 행사를 짓누르 고 있었지만 그 외면적인 진행은 정확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 들이 이런 축제들에 대해 알고 기대하고 있는 기쁨이나 고상한 기분 같은 것은 별 로 느껴볼 수 없었다. 마지막 유희가 상연되기 전날 이번 축제유희의 창작자인 명 인 토마스가 영면에 들었을 때, 당국은 여러모로 노력을 해 보았지만 그 소식이 퍼 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상스럽게도 많은 축제 참석자들은 이런 매듭 의 풀림을 일종의 해방으로 느끼고 있었다. 유희를 배우는 학생들과 특히 영재들 은 모두 장엄유희가 끝나기 전에는 조의를 표할 수도 없고 반복되는 상연과 명상 연습으로 채워지는, 이 기간 동안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일과의 진행도 조 금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마지막 축제행사와 축제날을 마치 서거한 존 경하는 명인의 장례식이기라도 한 것 같은 태도와 기분으로 보냈으며,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눈을 반쯤 감은 채 창백한 모습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베르트람의 주위에 얼음처럼 차가운 고독의 공기가 감돌게 했다. 테굴라리우스를 통해 아직 영재들과 활발한 접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노련한 연기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흐름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느끼고는 있었지만 요제프 크네히트는 그런 흐름이나 분위기를 자신의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았 으며, 나흘째인가 닷새째인가 되는 날부터는 심지어 친구 프리츠한테 명인의 병세 와 관련되는 이런저런 소식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자 신도 물론 축제를 덮고 있는 비극의 그림자를 충분히 느끼며 이해하고 있었고. 깊 은 근심과 슬픔으로 명인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함께 사형선고를 받아 버린 듯 보 이는 '그림자' 베르트람을 점점 더해 가는 불편한 심기와 연민의 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크네히트는 사실이거나 지어낸 이런저런 소식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영 향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끈질기고 완강하게 저항하며 엄격하게 정신을 집중시켰 고, 명상과 훌륭하게 구성된 그 유희의 진행 과정에 열심히 힘을 기울였다. 크네 히트는 이 축제를 온갖 부조화나 어두운 기운에도 불구하고 진지하며 고양된 기분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보통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명인의 대리자로서 내빈들 이나 당국인사들을 축제 끝부분에 접견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이 일을 '그림자' 베 르트람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유리알유희 연구자들이 벌이는 전통적인 축제의 날 행사도 이번에는 열리지 않게 되었다. 축제를 마감하는 마지막 음악 연주가 끝난 직후 당국은 명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에 따라서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에서는 장례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영빈관에서 지내고 있던 요제프 크네히트 도 함께 참여했다. 오늘날에 와서까지도 크게 숭앙을 받고 있는 공로가 많은 이 명 인의 장례식은 카스탈리엔에서 흔히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간소하게 치러졌다. 축제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신에게 부과된 어려운 역할을 끝까지 해내었던 명

인의 '그림자' 베르트람은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베르트람은 휴가를 신청해 산속으로 떠났다.

연기자 마을에서는, 아니 전 발트첼에서는 슬픔의 기운이 지배하고 있었다. 작고 한 명인에 대해 친밀한, 특별히 우의에 찬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아무 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고귀한 인품이 보여 주었던 고매함과 순수함은 그 의 현명함과 그의 섬세하게 형성되어 있는 형식 감각과 함께 그를. 그 근본에 있 어 철저하게 민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카스탈리엔이 어느 때고 배출해내는 것은 아니었던 지배자로 그리고 대표자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자랑스럽 게 여기고 있었다. 그의 인품은 정열이나 사랑이나 우정의 영역들로부터는 벗어나 있었지만 그런 만큼 더욱더 그것은 후세 세대들의 존경 욕구의 적합한 대상이 되 고 있었다. 그에게 어느 정도의 애정이 어린, '각하'라는 별명을 안겨 주기도 했던 그 기품과 제왕다운 전아함으로 인해 그는.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가혹한 저항들 이 있기는 했지만 고위 위원회나 각종의 회의나 교육국의 여러 가지 공동 작업 내 에서 또한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 당연히 그의 높은 직책의 후임자 선정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의 선량들 사이에서처럼 활발하게 논의가 된 곳은 달리 어디에도 없었다. 명인 직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유 리알유희 선량들이 그의 파멸을 원했고 또 결국 이루어내었던 그 '그림자'가 사임 을 해서 떠나 버린 뒤 선량들 자신에 의해서 투표를 통해 세 사람의 임시 대표자에 게 분산되었는데, 물론 그 기능들은 유리알유희연기자 마을 안에서의 내부적 기능 이었을 뿐, 교육위원회 내에서의 공무상의 기능은 아니었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 라 교육위원회가 3주 안에 이 관직의 후임자를 임명하게 될 것이었다. 작고하거나 사임을 하게 된 명인이 경쟁자 없이 결정된 한 후계자를 남기게 될 경우 그 직위는 심지어 교육국의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만 거친 후 바로 새 주인을 맞게 되는 것이 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법 오래 걸릴 전망이었다.

추모의 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요제프 크네히트는 친구와 함께 종종 끝난 유희와 이상하리만큼 어두운 기운을 지니고 있었던 그 진행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 다. 크네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대리자 베르트람은 그저 그럭저럭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것만이 아니었네. 진정한 명인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려고 애썼던 것만이 아니었다는 말일세. 내 생각에 그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룬 것이었네. 그는 그의 엄숙하기 그지없는 마지막 직무수행이었던 이번의 장엄유희에 자신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었네. 자네들은 그에게 심했던, 아니 잔인했던 것이었네.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축제도 살려내고 베르트람도 구해낼 수 있었는데도 자네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네. 이 점에 대해 무슨 판결을 내릴 생각은 없네. 자네들에게도 무슨 이유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네. 그러나 이 불쌍한 베르트람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네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게 된 지금, 자네들은 관대해져야한다고 생각하네. 그가 다시 나타날 경우, 자네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서 자네들이 그의 희생을 이해하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하네."

테굴라리우스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그걸 이해했네." 테굴라리우스가 말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네. 자네가 이번 유희에 손님으로서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었네. 그때문에 어쩌면 자네가전체 과정을 그리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 불가능한 일일세, 요제프. 우리는 베르트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결코 가지지 못하게 될 걸세. 베르트람은 자신의 희생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것을 물리려는 노력은 하지않을 걸세."

이제야 크네히트는 베르트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으며, 우울한 기분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네히트는 자신이 실제로 유희가 상연되던 그 날들을 진정한 발트첼 사람으로서나 동료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 손님으로서 경험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베르트람의 희생이 진실로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는 베르트람을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어떤 과업에 굴복해 버린 야심가로, 야심의 다른 목표들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자신이 한때 어느 명인의 '그림자'로서 어느 해 연례유희를 주재했었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 애쓰지 않을 수 없었던 야심가로 여기고 있었다. 지금에서

야 비로소, 친구의 그 마지막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크네히트는—이때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베르트람이 자신의 판관들에 의하여 완전히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다. 사람들은 베르트람이 축제유희를 끝까지 주재하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것이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만 거들어 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베르트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트첼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림자'의 지위는 일단 명인의 완전한 신뢰뿐만 아니라—이 점에 있어 베르트람에 게는 모자람이 없었다. —그에 못지않게 유리알유희연기자 선량들의 신뢰를 필요로 했다. 그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베르트람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면, 그의 주인이요 모범인 그 명인처럼 그의 뒤에 계층조직이 있어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이전의 동료들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그는 아무런 권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동료들과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은 그의 판관이 되어 버렸다. 이들이 무자비하게 굴면 '그림자'는 끝장나게 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베르트람은 산속으로의 여행으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에 그가 어느 절벽에서 떨어져 자살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이후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는 사이에 연기자 마을에는 매일 종단본부와 교육국의 고위 인사들과 최고위 인사들이 나타났다. 그럴 때마다 여러 선량들이나 관리들이 호출되어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선량들 자신들 내부에서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갈 뿐이었다. 요제프 크네히트도 몇 차례 호출되어 상담을 받았다. 한 번은 종단본부에서 온 두 명의 인사들로부터였고, 또 한 번은 문헌학 명인으로부터였으며, 그 다음 번에는 뒤보아 씨로부터였다. 그런 다음 또 한 차례 두 명의 명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다. 크네히트와 마찬가지로 호출되어 가 조사를 받았던 테굴라리우스는 기분 좋게 흥분이 되어 그것을 비밀회의라고 부르면서 그 분위기에 대해 우스갯소리를 했다. 요제프는 유희가 상연되던 그 축제기간 동안에 이미 유리알유희연기자 선량들과 자신의 이전의 밀접하던 관계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

다는 점을 분명히 느꼈던 터였지만 이 비밀회의의 기간에 들어 와서 그는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가 이방인처럼 영빈관에 머무르고 있고 상사들이 그를 자신들과 동급으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복습과정지 도교사들인 선량들 스스로도 그를 더 이상 동료로서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기가 담긴 어떤 공손한 태도나 또는 적어도 거부의 뜻이 담긴 어떤 냉담한 태 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크네히트가 마리아펠스로 부름을 받았던 당시에 벌써 선 량들은 그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옳고도 당연한 일이었다. 자유의 단계 를 벗어나 봉사의 단계로. 연구생과 복습과정지도교사의 단계를 벗어나 계층조직 의 단계로 일단 발걸음을 내딛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상사나 우 두머리의 길에 들어서 있었다. 크네히트는 이제 더 이상 선량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량들이 당분간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만 했다.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사정을 맞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크네히트가 이 무렵 거리감과 냉담한 태도를 특히 강하 게 느끼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주인을 잃게 되었고 그래서 새 로운 명인을 가져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선량들이 지금 더더욱 밀접하게 결합하 여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단호함이나 무자비함 이 바로 얼마 전 '그림자' 베르트람의 운명을 통해 참으로 가혹한 모습으로 드러났 던 터였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테굴라리우스가 극도로 흥분이 된 채 영빈관으로 달려와서는 요제프를 찾아 그를 어느 빈방으로 데리고 갔다. 문을 걸어 잠근 테굴라리우스는 거침없이 뱉어놓았다. "요제프! 요제프! 아, 내가 진작 그걸 느낄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걸 알 수 있었어야 했는데. 사실 그건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으니 말일세. 아, 나는 전혀 제정신이 아니라네. 그래서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정말 알 수가 없다네." 이러고 난 뒤 연기자 마을 안의 모든 정보 출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테굴라리우스는 열심히 소식들을 전했다. 요제프 크네히트가 유리알유희명인으로 선출되리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정도 이상이라는, 아니 이미 확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였다. 많은 사람들이 명인 토마스의 내정된 후계자

로 생각하고 있었던 유희기록관 관장은 이미 그저께부터 분명히 소수의 후보자 압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상담 과정에서 이름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던 세 명의 후보자 선량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어느 명인이나 종단본부의 특별한 호의나 추천을 등에 업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크네히트는 종단본부의 두 인사와 뒤보아 씨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여기에 노(老)음악명인의 비중 있는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음악명인은 최근 몇몇 명인들로부터 친히 방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요제프, 그들은 자네를 명인으로 만들고 있네." 테굴라리우스는 다시 한 번 말을 불쑥 뱉어놓았다. 이때 크네히트는 손으로 친구의 입을 가로막았다. 요제프는 그런 추측을 처음 접한 순간 프리츠 못지않게 놀라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에게는 이런 추측이 아주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프리츠가 '비밀회의'의 현황과 진행과정에 대한 연기자 마을사람들의 견해들을 전해 주었을 때, 크네히트는 친구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가슴속에서 어떤 시인하는 태도 같은 것을, 사실 그 자신 이런 것을 이미 알고서 기다렸으며 사실 그것이 옳고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기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크네히트는 흥분하고 있는 친구의 입을 손으로 막았으며, 마치 무슨 간격이나 거리가 갑자기 생겨나기라도 한 듯 친구를 낯설고 거부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게, 친구여.나는 이런 소문을 안 들은 것으로 하고 싶네. 자네 동료들한테로 가게."

테굴라리우스는 아직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껏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라도 한 것 같은 낯선 눈빛을 대하게 되자 바로 입을 다물어 버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밖으로 나갔다. 후일 테굴라리우스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 순간에 크네히트가 보여 주었던 기이하리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를 그는 처음에 일종의 충격이나 모욕으로, 따귀를 한대 얻어맞은 것으로, 오래된 우정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일종의 배반으로, 크네히트가 곧 오르게 될 최고위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강

조하고 선취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걸어서 동료들한테로 돌아가고 있는 동 안에야 비로소—그는 그야말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걸어가고 있었다.—테굴 라리우스는 그 잊을 수 없는 눈빛, 그윽하고 근엄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괴로워 하고 있는 그 눈빛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친구 크네히트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을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헤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테굴라리우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요제프 크네히트가 베르 트람과 그의 희생에 대해 물었을 때 보여 주었던 생각에 젖은 눈빛과 연민의 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크네히트 자신이 그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희생하고 소멸시켜 버리려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얼굴은 그 렇게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그렇게 숭고하면서도 공손하고, 그렇게 고독하면서 도 운명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친구인 크네히트가 그 얼 굴이 마치 일찍이 존재했던 카스탈리엔의 모든 명인들의 기념비이기라도 한 것 같 은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자네 동료들한테로 가게" 하고 크네히트는 테굴라리우스에게 말했던 것이다. 자신의 새로운 직위에 관해 처음으 로 듣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벌써,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은 큰 질서 속에 편 입되어 세계를 새로운 중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다시는 동료일 수가 없을 것이다.

크네히트 자신도 그의 임명을, 그의 이 마지막 최고의 소명을 그야말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가능한 일로서, 또는 혹시 있을 법한 일로서 인식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런 소명은 그를 몹시 놀라게, 아니경악하게 하기는 했다. 크네히트는 새삼 '나는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 하고 혼잣말을 하고서는, 처음부터 그런 임명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결정이 되어 공표되기 며칠 전에 짐작을 하여 앞서 말을 한 것이었던 그 부산떨던 테굴라리우스를 생각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아직 젊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요제프가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만한 점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동료들 대부분이 적어도 마흔 다섯 살에서 쉰 살에 이르는 나이로 고위직에 올랐지만 요제프는 아직 마흔 살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이른 나이

에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프리츠가 자신의 여러 가지 관찰들, 즉 그 작은 발트첼 공동체의 복잡한 메 커니즘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한 비중 있는 우수 연기자의 관찰들과 그런 관찰들 을 여러모로 결합시켜 본 것들의 결과로써 그의 친구를 놀라게 했을 때, 크네히트 는 프리츠의 말이 옳다는 점을 바로 알아차리고 자신의 임명과 자신의 운명을 바 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식을 접하고 크네히트가 보인 첫 번 째 반응은 자신은 "이런 소문을 안 들은 것으로"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친구를 쫓아내 버린 것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거의 모욕감을 느끼며 친구가 떠나 가 버리자 요제프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 어느 명상실로 갔다. 명상 은 그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힘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억 속의 어느 영상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영상 속에서 그는 텅 빈 방과 그 방 안에 있는 피아노를 보았 다. 유리창을 통해 오전의 차갑게 밝은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다. 방문에 훌륭하고 점잖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호의와 품위로 넘치는 밝은 얼굴을 가진 나이가 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요제프 자신은 라틴어 학교에 다니는 작은 학생이었다. 불안해하기도 하고 행복한 기분에 젖기도 하며 그 방에서 음악명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학생은 이제 처음으로 그를, 그 존경할 만한 사람을, 영재학교들과 명인들이 있는 그 전설적인 주에서 온 그 명인을 보게 되었다. 이 명인은 그에게 음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 이후 명인은 그를 차례차례 그의 주로, 그의 왕국으로, 선량들한테로 종단으로 안내하 고 또 받아들였다. 이제 요제프는 그의 동료요 형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는 사이에 명인은 자신의 마법의 지팡이 또는 홀을 내려놓았으며. 점잖은 채 말이 없고 여전 히 호의적이며 여전히 존경할 만하고 여전히 신비에 차 있는 백발노인으로 변모하 게 되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시선과 모범은 크네히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노인은 한 세대와 몇몇 삶의 단계의 차이로 기품에 있어서 뿐 아니라 또한 겸손 이나 대가다움이나 신비스러움에 있어서 잴 수 없는 양의 차이로 언제나 크네히트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후견인이자 모범인 이 노인은, 떠올랐 다가 지는 항성이 그 형제들을 이끌듯이, 언제나 크네히트에게 자신의 뒤를 이으

라고 부드럽게 강요할 것이었다. 크네히트가 별다른 생각 없이, 최초의 긴장완화 의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내적 영상들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동안, 특히 두 가지 표상이 그 흐름으로부터 빠져나와 오래 도록 남았다. 그것은 두 가지 영상 또는 상징이었으며, 두 가지 비유였다. 그중 한 가지 표상 속에서 소년 크네히트는 이 길 저 길 위에서 앞서 가고 있는 명인의 뒤 를 따르고 있었다. 길 안내자로서 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명인은 뒤돌아보아 그 얼굴을 보일 때마다 더 나이가 들고 더 조용해지고 더 존경할 만해지는 것이었 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을 초월한 지혜와 위엄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 해 가고 있었다. 반면에 이 모범적인 인물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요제프 크네히트 자 신은 여전히 같은 소년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또한 어떤 기쁨 같은 것을, 아니 거의 고집스런 만족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두 번째의 표상은 이런 것이었다. 피아노가 있는 방안의 장면과 노인이 소년 에게로 다가오는 장면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마치 어떤 기계장치의 벨트 에 실려 이끌리고 있기라도 하듯이 명인과 소년은 서로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곧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 누가 앞에 가고 누가 뒤를 따르는지, 그게 노인인지 소년 인지를 더 이상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금방은 소년이 노인에게, 권위자에게, 위 엄 있는 자에게 존경과 복종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 금방은 노인보다 약간 앞서 가고 있는 청춘과 시작과 명랑한 기분을 상징하는 인물이 노인으로 하 여금 봉사하며 또는 존경하며 뒤따르도록 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당치않은 것 같으면서도 의미심장해 보이는 이런 꿈속의 순환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꿈꾸 고 있는 사람이 된 크네히트는 그 자신의 감정 속에서 노인과 하나가 되었다가 소 년과 하나가 되었다가 했으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가 했으며,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복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가 했다. 이런 유동 적인 교대가 계속되는 중에 어느 한 순간이 다가왔는데, 이때 그는 둘 모두가 되었 다. 그는 명인이면서 동시에 어린 학생이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둘 을 초월해 있었다. 그는 이 순환, 아무런 결과 없이 빙빙 돌고 있는 노인과 소년의 경주에서 주최자 · 고안자 · 조종자 · 관람자가 되어 수시로 변화하는 기분에 따라 그 속도를 느리게 하고 최고도로 빠르게 하기도 했다. 이 단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표상이 생겨 나왔는데, 그것은 이미 꿈이라기보다는 상징이었으며, 영상이라기보다는 인식이었다. 이런 표상 또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런 인식이었다. 스승과 제자의 의미 없는 듯도 하고 의미 있는 듯도 한 이 순환은, 청춘을 얻기 위한 지혜의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한 청춘의 이 노력은, 무한히 계속되는 이 활기찬 유희는 카스탈리엔의 상징이었으며, 나아가 그것은 늙음과 젊음, 낮과 밤, 양과 음으로 나누어져 끊임없이 흐르는 인생 그 자체의 유희였다. 이런 인식에 이르게 되자 명상에 잠겨 있었던 크네히트는 영상의 세계로부터 냉정의 상태로 빠져나오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강화된 원기와 명랑해진 기분으로 오랜 동안의 침잠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며칠 뒤 종단본부가 그를 불렀을 때 크네히트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악수와 포 옹을 하는 것 같은 태도로 표현되는 최고위 인사들의 우의에 찬 영접을 침착하게. 진지하면서도 밝은 기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이 유리알유희명인으로 임명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크네히트는 임명식과 서약을 위해 모레 축제관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곳은 얼마 전 작고한 명인의 대리자 베르트람이 마 치 황금으로 장식된. 제물로 바쳐진 동물처럼 그 답답한 축제를 마쳤던 바로 그 홀 이었다. 자유 시간으로 남게 된 임명식 전날은 두 명의 고위 인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가운데 서약문과 '명인규정 요점'을 자세하게 의식적인 명상을 병행하면서 연 구하는 것에 할애되었는데, 이번의 경우 그 두 인사는 종단 사무국장과 수학명인 이었다. 대단히 힘이 들었던 이 날의 점심 휴식 시간에 요제프는 자신이 종단에 입 단하던 일과 그것에 앞서 있었던. 음악명인을 통한 입단 수업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 임명식을 통해 크네히트는 매년 수백 명이 그렇게 하듯이 넓은 문을 지나 큰 교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 바늘구멍을 지나 지극히 높고 좁은 세계로, 명인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후일 크네히트가 노(老)음악 명인에게 고백한 바에 따르면 철저하게 자신을 검토했던 그날 그는 한 가지 생각. 아주 우스꽝스럽고 사소한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시달림을 당했다. 크네히트는 명 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이 상상 밖의 젊은 나이로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 었다는 점을 지적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두려움과 유치할 정도로 허황된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그의 나이에 대한 무슨 빈정거림이 있을 경우 "그렇다면 제발 저를 이대로 조용히 늙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저는 결코 이런 승진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응수하고 싶은 기분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자기 검토를 계속하자 그는 자신의 임명에 대한 생각과 그것에 대한 바람이 무의식적인 면에서는 자신으로부터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을 수 없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이 점을 스스로 시인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생각의 허황함을 인식하게 되어 그것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 날에나 그 이후에 어떤 동료도 그의 나이를 머리에 떠올리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럴수록 새 명인의 선출은 지금까지 크네히트의 경쟁자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되고 비판되었다. 그에 필적할 만한 적수들은 없었지만 경쟁자들은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의 연장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투쟁이나 시험을 거친 연후에나, 아니면 적어도 매우 정확하고 비판적인 관찰을 거친 연후에나 그 임명을 인정해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 새로운 명인의 취임과 임기 초는 고난의 길이다.

한 명인의 임명식은 공개적인 축제행사가 아니다. 교육국과 종단본부의 최고위 인사들 외에 임명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명인을 맞아들이는 해당 분과의 상급반 학생들과 선량들과 직원들뿐이다. 축제관 안에서 거행되는 의식에서 유리알유희명인은 복무선서를 하고, 나아가 몇 개의 열쇠와 직인으로 구성되는 직책 관련 휘장들을 당국으로부터 건네받고, 종단본부 대변인이 입혀 주는 관복, 중요한의식이 있을 때, 특히 연례유희를 주재할 때 명인이 입게 되어 있는 그 화려한 가운을 입어야 했다. 이런 행사가 공개적인 축제의 고조된 열기나 어느 정도의 도취적인 기분을 보여 주지 못하고 그 본질상 의식적이며 오히려 밋밋한 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신에 그것은 최고위 두 당국의 인사들이 전원 참석한다는 그 한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미 대단한 위엄을 지니게 된다.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의 작은 공화국이 자신의 수장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당국 내에서 자신을 대표하게 될 새

로운 주인을 맞게 되는 것, 이것은 중요하고도 보기 드문 사건이다.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연구생들은 이런 행사가 갖는 중요성을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행사를 그저 의식이나 구경거리로서 체험할지 모르지만 다른 모든 참석자들은 그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공동체와 충분히 어우러져 있을 뿐 아니라 본질상 이 공동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자기 자신의 몸과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축제의 기쁨은 전임 명인의 죽음과 그를 위한 애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올해 연례유회의 어수선하던 분위기와 대리자 베르트람의 비극을 통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져 있었다.

관복 착복 의식을 담당한 사람은 종단본부의 대변인과 최고위 유희기록계원이었 는데, 그들은 둘이 함께 가운을 높이 들어서 그것을 새 유리알유희명인의 어깨 위 에다 입혀 주었다. 코이퍼하임에서 살고 있는 고전문헌학의 대가인 문법 명인이 짧은 축사를 했으며. 선량들이 내세운 발트첼의 한 대표자가 열쇠와 직인들을 넘 겨주었다. 파이프오르간 옆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 노(老)음악명인이 친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음악명인은 자신의 제자가 취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상 밖으 로 자신이 참석함으로써 그 제자를 더욱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저런 조언도 해 주기 위해서 임명식에 맞춰 오게 되었다. 이 노인은 축제음악 을 자신의 손으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지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다. 이래서 그는 연주를 연 기자 마을의 파이프오르간 주자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은 그 연주자 뒤 에 서서 그를 위해 악보를 넘겨주고 있었다.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노인은 요제프 를 바라보았으며. 요제프가 관복과 열쇠를 받는 것을 보고 있었고. 요제프가 우선 먼저 서약문을 읽고 그에 이어서 장래의 동료들과 관리들과 학생들에게 자유로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었다. 요제프가 요제프이기를 이미 거의 중단해 버 리고. 그저 관복과 직책을 입고 맡은 사람. 왕관 속의 한 보석. 계층조직이란 건물 안의 한 기둥이기를 시작한 오늘처럼 이 소년 요제프가 노인에게 사랑스럽고 대견 스럽게 보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노인이 단독으로 그의 제자 요제프와 이 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뿐이었다. 밝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노 인은 서둘러 요제프에게 이런 주의의 말을 해 주었다. "앞으로 3, 4주일을 잘 넘기도록 주의하게. 자네한테 많은 요구가 있을 걸세. 언제나 전체를 생각하게. 이제 개별적인 면에서의 실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언제나 생각하게. 자네의 관심을 전적으로 선량들에게 기울여야 하네. 다른 모든 일들은 전혀 괘념하지 말게. 자네를 도와 줄 두 사람을 받게 될 걸세. 그중 한 사람인 요가수행자 알렉산더는 내 지시를 받고 있네. 그의 말을 잘 듣게. 그는 자신의 일을 잘 알고 있네.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고위 인사들이 자네를 자신들의 동료로 선출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는 점을 바위처럼 굳게 믿는 것일세. 그들을 믿도록 하게. 자네를 돕기 위해보내주는 사람들을 믿도록 하게. 자네 스스로의 힘을 무조건 믿게. 그러나 선량들에 대해서는 가볍기는 하지만 항상 맑게 깨어 있는 불신감을 가지도록 하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뿐일세. 자네는 승리하게 될 걸세, 요제프. 나는 그걸알고 있네."

명인으로서 하게 되는 대부분의 직무상의 기능은 이 새 명인에게 있어 익히 알고 있는 친숙한 것으로서 그가 이미 하급 또는 상급 보조자의 자격으로 행한 바 있었던 활동들이었다. 학생들을 위한 강좌,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 휴가 강좌, 외부 참석자들을 위한 강좌로부터 선량들을 위한 연습이나 강의, 세미나에 이르기까지의유희 강좌가 그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 마지막의 선량들을 위한세미나를 제외한 이런 활동들은 새로 임명된 모든 명인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바로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었지만 반면에 일찍이 그것을 행할 기회를 가진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은 그에게 훨씬 많은 걱정과 수고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요제프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새로운 임무에, 즉 최고위 교육위원회 내에서의 협력이나 명인위원회와 중단본부 사이에서의 협조, 전체 당국 내에서 유리알유희와 연기자 마을을 대변하는 일 등 명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그는 이런 새로운 활동에 친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활동이 위협적으로 가져다 주는 이질감을 제거하는 것을 몹시 바라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우선 무엇보다도 몇 주일의 시간을 내어서 규약과 제 격식과 회의록 등을 철저하게 연구

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정보나 수업을 위해서는 자 신이 뒤보아 씨 외에 명인의 격식과 전통 문제의 전문가요 대가인 그 경험 많은 사 람, 즉 종단본부의 그 대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 다. 이 대변인은 그 스스로가 명인인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원래 서열상 명인보 다 아래에 있는 것이었지만 당국 내의 모든 회의에서 사회를 맡아보고 있었으며. 마치 궁정의 대의전관처럼 전통적인 관례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 었다. 현명하며 경험 많고 너무도 점잖아서 그 깊은 속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이 사람에게, 바로 얼마 전 그의 손으로 엄숙하게 자신에게 관복을 입혀준 바 있 었던 이 사람에게 요제프는 그야말로 개인교습을 부탁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발트첼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반나절 여행 거리는 되는 히 르술란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야말로 요제프는 얼마 동안 몬테포르트로 몸을 옮겨 서 노(老)음악명인으로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수업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명인은 이런 개인적이고 연구생적인 소망 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처음 얼마 동안을, 그에 게 별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으리라고 그 자신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일 들에 집중적이고도 전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신의 동 료들인 선량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게 된 한 명인이 마치 공기가 없는 공간 속에 서처럼 싸우다가 질식해 죽는 것을 요제프가 목격하게 되었던 베르트람의 그 축제 유희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 그가 예감했으며, 관복 착복식이 있던 날 몬테포르트 에서 온 노명인이 한 말이 확인해 준 바 있었던 것을 이제 그의 근무일의 매 순간 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의 성찰의 매 순간은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선량들과 복습과정지도교사들, 최상급 단계의 연구, 세미나 연습 복습 과정지도교사들과의 완전히 개인적인 교류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 었다. 그는 기록관 일은 기록관 계원들에게.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는 현재 있는 교 사들에게, 우편물 수발은 비서들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 서 일을 크게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잠시라도 선량들을 그 자신들에게 내맡겨 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 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필요불가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의 가치와 자신의 의지의 순수성을 확신시켜야 했다. 그들을 정복하 고, 그들의 마음을 구하려 노력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내세우는 후 보자 가운데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대결해야 했다. 이때 그에게는 그 자신 이전에 별로 소용이 없으리라 여기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도움을 주었다. 오랫동안 발트첼과 선량들을 떠나 있어서 이제 이곳에서 그는 다시 거의 새로운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 특히 그러했다. 그의 테굴라리우스와의 우정 관계조차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주는 있으나 병약한 아웃사이더인 테굴라 리우스는 분명히 출세 지향적인 이력에 별로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그 스스 로도 별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까닭에, 새 명인이 다소 편에 를 한다하더라도 그것이 동료 경쟁자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크네히트는 대부분의 최선의 일을 그 스스로의 힘으로 다해서 유희세계의 이 가장 높고 가장 생기에 넘치고 가장 동요에 차 있고 가장 민 감한 계층을 샅샅이 탐색하며 파고들어 가야 하는 것이었고, 기품 넘치는 말을 탄 기수처럼 그 계층을 사로잡아야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비단 유리알유희에 있어 서 뿐만 아니라 카스탈리엔의 모든 제도에 있어. 완전히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아 직은 자유롭게 연구하고 있으며 아직은 교육국이나 종단에의 봉사를 위해 투입되 지 않고 있는 후보자들로서 복습과정지도교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 선량들은 가장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그야말로 진정한 예비 인력이고 꽃이고 미래이기 때문 이다. 이들 엄선된 의기양양한 후예들은 비단 연기자 마을에서 뿐 아니라 도처에 서 새로운 교사들이나 상사들에 대해 그야말로 냉담한 태도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 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수장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의와 복종심만을 보이는 까닭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전력을 기울여서 그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키고 극복을 해야 그들은 그 수장을 인정하고. 그의 지 도를 순순히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크네히트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이 과제와 대결했지만 그 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잖이 놀랐다. 그가 이 과제를 해결해 가고 그래서 그에게 지극히 힘이 드는.

아니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그 게임을 이겨 가고 있는 동안, 그가 오히려 걱정을 하 며 생각해보곤 했던 그 다른 의무들이나 과제들은 자연히 뒤로 밀려나게 되었으 며,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 자신 급행열차를 타 고 도착했다가 끝난 뒤 다시 급행열차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당국의 첫 번째 총 회를 그는 거의 꿈속에서처럼 참석했던 것이며, 그래서 나중에 그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더 이상 해 볼 수 없었던 거라고 크네히트는 어느 동료에게 고백했다. 이럴 만큼 그는 자신의 현실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니, 심지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의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또 그 회의를 당국 내에서 의 자신의 첫 번째 무대로 여겨 다소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인데 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이 머릿속으로는 여기 동료들 사이에 앉아 토론 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트첼에. 기록관 내의 그 푸른색 칠을 한 방 안에 가 있 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 그는 이 방에서 사흘에 한 번씩 딱 다섯 명의 참석 자들과 함께 변증법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매 시간은 나머지 전체 근무시간보다도 더 많은 긴장과 정력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나머지 근무시간도 쉽지는 않았으며, 그것을 피해 버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다. 왜냐하면 노(老) 음악명인이 그에게 앞서 전해주었던 것처럼, 당국은 이 초기를 위해 크네히트에게 훈련관이자 감독자인 한 사람을 붙여주었으며, 이 사람은 크네히트의 일과를 시간 마다 감시하고, 시간을 쪼개 쓰는 데 있어 그에게 조언을 하고, 그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너무 지나치게 힘을 쓰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 문이었다. 크네히트는 이 사람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종단본부가 보내준 사람을, 즉 명성이 높은 한 명상 대가를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의 이름은 알렉산더였다. 이 사람은 극도로 긴장할 정도로 일하고 있는 크네히트 가 매일 세 차례 '작은' 또는 '짧은' 명상연습을 하도록, 명상연습 하나하나의 과정 과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다. 이 두 사람, 즉 그 감독관과 그 명상적인 종단단원과 함께 크네히트는 매일 저녁 명상 직전에 자신의 하루 일 과를 뒤돌아보며 재음미하고, 나아진 것과 잘못한 것을 확인하고, 명상지도교사 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자신의 '맥을 짚어 보고',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힘의 분배와 자신의 기대와 근심을 인식하며 측정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하루 일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했으며,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밤으로, 다음 날로 함께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이 동정적이거나 전투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명인이 하 고 있는 그 거대한 작업을 지켜보면서, 이 명인에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자질구 레한 정력 시험, 인내력 시험, 능력 시험을 부과해, 때로는 그의 일을 자극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동안에, 테굴라리우스는 말할 수 없는 공 허감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물론 크네히트가 이제 자신을 위해 따로 주의나 시간이나 배려나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친구에게 있어 자신이 갑자기 빠져 들어가 버리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 완전한 망 각상태에 대해 도무지 덤덤해지거나 냉담해질 수가 없었다. 더욱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만이 아니 었다. 나아가 동료들도 그를 어느 정도 불신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거의 말을 걸어 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테굴라리우스가 비록 야심에 찬 사람들에게 있어 심각하게 방해가 되는 존재일 수는 없었지만 그렇더라 도 그는 한 파로서 젊은 명인의 호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크네 히트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이제 그의 당장의 과제들 가운데에는 다른 모 든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과 함께 우정관계도 배제해 버리는 일이 함께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후일 크네히트가 친구에게 고백한 바에 따르면, 사실 그는 잘 알고 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친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우정관계와 같은 사적인 문제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사라지게 될 만큼 그는 자신을 완전히 도구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예를 들 어 다섯 명하고만 하는 그 세미나에서 프리츠의 모습이나 얼굴이 그의 앞에 나타 나게 되면, 그것은 테굴라리우스가, 한 친구가, 한 아는 사람이, 한 개인이 아니었 다. 그것은 선량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한 연구생이었으며, 그보다는 오히려 후 보자요 복습과정지도교사였다. 그의 일과의 한 부분이었으며, 훈련시켜 그것과 더 불어 승리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군대의 한 군인이었다. 명인 크네히트가 이런 형

태로 처음 자신에게 말을 걸어 왔을 때, 프리츠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명 인의 눈빛을 보고서 이질감과 객관적인 태도가 결코 꾸며댄 것이 아니라 진정이고 철저한 것이라는 점을, 정신적으로 대단히 밝게 깨어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객관적 인 태도로 공손하게 자신을 대하고 있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 상 친구 요제프가 아니라 그저 스승이요 검사관일 뿐이며, 그의 주위에 뜨겁게 흐 르다가 굳어져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빛나는 에나멜 칠 같은. 스스로의 직무가 가 져다 주는 진지함과 엄격함에 의해 에워싸진 채 격리되어 있는 유리알유희명인일 뿐이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이 힘들었던 몇 주일이 지나는 동안에 테굴라리우 스와 관련하여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보고 듣는 일들로 인해 잠을 제대 로 자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몹시 시달리고 있었던 그는 예의 그 소규모 세미 나에서 한 가지 실수를, 즉 작은 감정 폭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명 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느 동료에 대해서 였다. 이 동료가 조롱기가 담긴 어조로 그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이었다. 크네히트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수를 저지른 자의 지나치게 흥분되어 있는 심리상태 역시 분명히 알고 있었다. 크네히 트는 그저 말없이 손가락을 흔들어 보임으로써 그를 훈계할 뿐이었지만 뒤에 그에 게 자신의 명상선생을 보내서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치료 해 주도록 했다. 수주간의 결핍된 생활을 보낸 테굴라리우스는 이런 배려를 다시 깨어나고 있는 우정의 최초의 증표로 생각했다. 테굴라리우스는 그것을 자신한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관심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치료에 응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크네히트는 자신이 그런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사람 이 누구인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단지 명인으로서 행동했을 뿐이 었던 것이다. 어느 선량한테서 흥분된 상태와 바르지 못한 태도를 느끼게 되어 교 육자적인 입장에서 그것에 반응하게 되었던 것이었을 뿐. 일순간도 그 선량을 개 인으로 여기거나 자신과 관련짓지 않았다. 몇 달 뒤 친구 테굴라리우스가 크네히 트에게 이때의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가 보여 준 호의의 표시로 인해 자신이 매우 기뻤고 또 위안도 얻게 되었던 거라고 그에게 힘주어 말했을 때,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요제프 크네히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런 착각을 그대로 내

버려두었다.

마침내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전투는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선량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지치도록 훈련시키고, 야심에 찬 사람들을 순하게 길들이고, 결정을 내리 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오만하게 구는 자들로 하여금 존경의 염을 품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기자 마을의 후보자들이 그들의 명인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에게 굴 복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저 한 방울의 기름이 모자랐을 뿐이었던 것처럼 갑자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감독관은 크네히트와 함께 마지막 업무계획을 세 웠으며, 그에게 당국의 인정 의사를 전해준 뒤 떠나갔다. 명상 지도 선생인 알렉 산더도 마찬가지로 떠나갔다. 아침 마사지의 자리에는 다시 산책이 들어서게 되었 다. 아직 당분간은 연구 같은 것이나 또는 그저 독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미 여러 날 저녁 잠자기 전에 약간의 음악이 다시 연주되었다. 사정 이 바뀌게 된 다음 처음으로 교육국에 갔을 때 크네히트는 그게 무슨 말로 언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자신이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 믿을 만하고 동등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투쟁의 열기와 열정이 지나가자 이제 각성 이, 어떤 서늘한 기운이나 냉정함이 그를 덮쳐오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카스탈 리엔 핵심부에 서 있는, 계층조직의 최고의 지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놀 라우리만치 냉담한 마음으로, 아니 거의 실망감을 느끼며 이 매우 희박한 공기도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그러나 어떤 다른 공기도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 럼 지금 이 공기를 마시고 있는 자신이 물론 완전히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 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일찍이 그 어떤 다른 임무도, 그 어떤 다른 과업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를 다 태워 버렸던 그 혹독한 시험기의 결실 이었다

선량들이 그 수장을 승인하는 일은 이번의 경우 매우 특이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크네히트가 여러 가지 저항의 중지와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의 신뢰와 동조를 느끼게 되고 가장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자신의 '그림자'를 선출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거의 초인적이라고 할 힘겨루기에서 갑자기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승리를 획득한 뒤의 이 순간에서만큼 그에게 그런 존재와 부담해소가 필요한 적은 사실 결코 없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쓰러졌다. 크네히트는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후보자들 가운데서 '그림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서 복습과정지도교 사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그림자'를 선출해 달라고 부탁했다. 베르트람의 운명이 가져다 준 인상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선량들은 이런 제안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여러 차례의 회의와 비밀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보아 그들 주의 가장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을 대리자로서 명인에게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크네히트가 임명되던 때까지 가장 가능성이 많은 명인 후보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었다.

이제 가장 힘든 고비는 지나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시 산책을 하고 음악을 연 주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독서하는 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었다. 테굴라리우스와의 교제나 가끔씩 페로몬테와 편지교환을 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이라 여겨졌다. 때때로 반나절의 한가한 시간이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는 한 차례의 짧은 여행휴가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쾌한 일 들을 가지게 될 사람은 어떤 다른 요제프일 것이었다. 스스로를 전심전력을 기울 이고 있는 유리알유희연기자로, 꽤나 훌륭한 카스탈리엔 사람으로 여기긴 했지만 카스탈리엔적인 질서의 핵심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래 서 그토록 속절없이 이기적으로, 그토록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그토록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적으로 무책임하게 생활해 왔던. 지금까지의 요제프는 아닐 것이었 다. 일찍이 요제프가 얼마 동안 더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 망을 피력했을 때, 명인 토마스가 그에게 해주었던 비난의 뜻이 담긴 그 경고의 말 이 어느 때 갑자기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얼마 동안'이라—그래 그게 얼마나 오 랜가? 자네는 아직도 연구생의 말투를 쓰고 있어. 요제프." 이것은 불과 몇 년 전 의 일이었다. 그때 요제프는 찬탄의 염과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또한 사적인 것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 아주 은밀한 공포감을 가지 고 명인 토마스의 말을 들었으며, 카스탈리엔이 자기 자신도 붙잡아 끌어당겨서,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언젠가는 자신도 어쩌면 저런 토마스 같은 인물로, 명인으로, 수장으로, 봉사자로, 완벽한 도구로 만들려고 들지 모른다고 느꼈던 것이었다. 지금 요제프는 옛날 토마스 명인이 서 있었던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산전수전 다 겪은 현명한 연기자요 학자이며 열심이면서도 오만한 왕자들인 그의 복습과정지도교사들 중의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 그는 이제 어떤 다른, 멀어졌으나 아름다운, 경이로운, 사라져 가 버린 세계를 건너다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일찍이 토마스 명인이 그를 통해 자신의 아름답던 연구생 시절을 들여다보았던 것과 꼭 마찬가지였다.

재임

명인의 직위에의 취임은 처음에는 이득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가져다 주었던 것 으로 여겨졌지만 즉 그것은 온갖 힘과 개인적인 생활을 거의 소모시켜 버리고, 모 든 습관화된 일과 취미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 버리고, 과로하게 함으로써 가슴속 에는 냉담하고 조용한 기분을 머릿속에는 현기증 같은 것을 남기게 되었던 터였지 만 이제 그 뒤를 따르게 된. 회복과 명상과 적응의 시기는 여러 가지 새로운 관찰 이나 체험도 가져다 주었다. 전투를 치르고 난 뒤의 최고의 것은 선량들과의 신뢰 감에 넘치며 우호적인 협조관계였다. 자신의 '그림자'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눔 으로써. 문서교류의 일에 시험 삼아 보조자로서 이용했던 프리츠 테굴라리우스와 함께 일함으로써, 전임자가 남겨놓았던, 학생들이나 협력자들에 대한 기록들과 다 른 메모들을 차례차례 연구하고 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크네히트는 빠른 속도로 더해 가는 애정으로 선량들과 친숙해지게 되었다. 그는 이 선량들을 아주 정확하 게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본질은, 연기자 마을과 이 연기자 마을의 카 스탈리엔 내에서의 역할이 갖는 전체적인 특징이나 꼭 마찬가지로,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사실 그는 여러 해 동안 이 선량들, 복 습과정지도교사들, 발트첼의 이 예술적이면서도 야심적인 연기자 마을사람들 가 우데 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을 그야말로 그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떤 한 부분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으며, 이 공동체와 그 저 친밀하게 함께 지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이 공동체의 두뇌로, 의식으로, 또한 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의 활동과 운명을 그저 함께 체 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도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 점 을 분위기가 고양된 어느 시간에, 즉 초보자를 위한 유희지도교사 교육을 위한 어 느 강좌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낸 적이 있었다. "카스탈리엔은 그 자 체로 하나의 작은 국가이며, 우리 연기자 마을은 이 국가 내의 한 작은 장소, 작으 나 오래되고 자부심에 차 있는 한 공화국입니다. 그 자매들과 같은 지위에 있고 같 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갖는 특별히 예술적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성 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그 자신감이 보다 강화되고 보다 고양되고 있는 공화국입니 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카스탈리엔의 진정한 성스러운 보물이자 그것의 유일 한 비밀이요 상징인 유리알유희를 지킨다고 하는 명예로운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기 때문입니다. 카스탈리엔은 뛰어난 음악가 · 예술사가 · 문헌학자 · 수학자 그리 고 다른 학자들을 길러냅니다. 카스탈리엔의 모든 연구소와 모든 카스탈리엔 사람 은 두 가지 목표 또는 이상만을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가 능한 한 완전한 것을 이루어 내는 것과, 또 그럼으로써 자신의 전공분야와 자기 자 신을 활력에 넘치고 유연하게 유지시켜 그 전공분야가 언제나 다른 모든 분과들과 결합되어 있고 또 내밀하게 교류하고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번 째의 이상은, 인간이 하는 모든 정신적 노력의 내적 통일성에 관한 사상은, 즉 보 편성에 대한 사상은 우리의 이 고귀한 유희를 통해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물 리학자나 음악사가나 그 밖의 어떤 다른 학자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자신의 전공분 야를 금욕주의자처럼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이때로 온당하고, 보편적인 교육에 대 한 사상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특별히 큰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될지 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유리알유희연기자는 그런 제한과 자기만족적 태도를 결코 용인하지도 행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학문의 종합이 라는 사상과 그것의 최고의 표현인 이 고귀한 유희를 지켜 자기만족적 태도로 향 하려는 개별 분과들의 경향으로부터 거듭거듭 구출해내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스스로 구출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 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고 고학자나 교육학자나 천문학자나 그 밖의 학자들에게 자기만족적인 전문 학자적 인 입장을 포기하고 그들의 창문을 모든 다른 분과들을 향해서 항상 열어 놓으라 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미 초급 학교의 단계에서 유리알유희를 필 수과목으로 정해 버리는 것과 같은 강제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배들이 이 유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단순히 상기시키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희와 우리 자신을 필요불 가결 한 존재로 증명해 보일 수 있으려면, 우리는 이 유희를 항상 전체 정신 생활 의 정상에 유지시키고, 개별 학문들의 모든 새로운 성과와 모든 새로운 관점이나 문제제기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보편성과 우리의 고귀하면서도 위험하 기도 한 유희를 통일성에 대한 사상으로 항상 새롭게. 항상 훌륭하고 설득력 있고 유혹적이고 매력 있게 형성하고 실연함으로써 아무리 진지한 연구자. 아무리 열 심인 전문가라 하더라도 우리 유희의 경고의 외침과 그 유혹과 매력을 느끼지 않 을 수 없도록 만드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기자들이 얼마 동안 별다른 열의 없이 일을 한다고 한 번 가정해 봅시다. 초보자들을 위한 유희 강좌는 지루 해지고 피상적인 것으로 될 것이며, 상급자들을 위한 유희에서 전문 학자들은 생 기 있게 움직이는 활동과 정신적인 활기 및 흥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 리의 대(大)연례유희는 두세 차례 계속해서 관객들에 의해 알맹이 없는 의식으로 서, 생기를 잃어버린 것으로서, 낡아빠진 것으로서,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유물 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우리의 유희와 우리는 빠른 속도로 끝나 버리 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한 세대 전에 유리알유희가 서 있 었던 그 화려한 정상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연례유희는 1, 2주일이 아니 라 3, 4주일 계속되었으며, 카스탈리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있어서 그 해의 정점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연례유희에 정부의 대표가 참석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루해하는 손님이 되어 버릴 때가 퍽 자주 있습니다. 몇몇 도시들 과 계층들도 아직은 대표자들을 보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세력의 대표자들은 유희 상연 날이 끝나갈 무렵에 종종 점잖은 형태로, 축제기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도시들이 그 대표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축제를 대폭 간소 화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장차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이 어쩌면 시의 에 적절한 것이라고 암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전개과정을, 아니 이런 붕괴과정을 저지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능한 일입니다만 우리의 유희는 얼 마 안 가 저기 바깥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이해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축 제는 이제 겨우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열리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더 이상 열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희가 그 자신의 고향에서, 즉 우리 주 안에 서 불신을 받고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하며 또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의 싸움은 희망에 차 있으며 또 언제나 승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리 대단하지 않은 열정으로 유희 강좌에 참가했으며, 그 강좌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는 했지만 별다른 감동 없이 마치게 되었던 어린 영재학생들이 갑자기 유희의 정신과 그 지적인 가능성과 그 존경할 만한 전통과 그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감동 되어서 우리의 열렬한 지지자로. 동료로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 습니다. 매년 우리는 장엄유희에서 여러 저명한 학자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알 기에 이들은 연구로 점철된 한 해를 보내는 동안 내내 우리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을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로 내려다보고. 우리 제도가 잘 되어 가기를 늘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대 유희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예술이 갖는 매력에 의해 점점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고 긴장이 풀리고 고양되며, 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마침내는 원기를 얻고 감동된 마음으로, 창피한 기분이 들기 라도 하는 듯 감사의 말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우리 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잠시 살펴보면, 우리는 유희기록관을 그 심장으로 그 중심으로 갖는 다양하고 훌륭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기구를 보게 되는데, 이 기구 를 우리 모두는 어느 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기구에 대해 우 리 모두는, 명인과 기록관장에서부터 말단의 조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봉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에 있어서 최선의 것은 가장 활기에 넘치는 것은 가장 훌 륭한 사람들. 즉 선량들을 선출한다고 하는 그 오래된 카스탈리엔의 원리입니다. 카스탈리엔의 학교들은 전국으로부터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 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연기자 마을의 우리는 열성적이며 유희에 타고난 재 주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단단히 붙들 어 더욱 완전하게 교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강좌와 세미나는 수백 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또 그들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뛰어난 사 람들을 진정한 연기자로서. 유희의 예술가로서 계속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술에 있어서는 모든 예술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발 전의 끝이란 결코 없으며, 우리들 모두는 일단 선량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나면 자신이 우리의 관리 집단에 속하고 속하지 않고는 아무 상관없이 평생 동안 자기

자신과 우리 예술의 계속적인 발전과 세련과 심화에 힘을 쏟게 됩니다. 때때로 사 람들은 우리 선량들의 존재를 사치라고 비난했으며, 우리의 관리직을 언제고 무리 없이 채울 수 있기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선량연기자들을 양성하지는 말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관리들은 결코 그 자체로 충분한 제도가 아니며, 다 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관리가 되기에 적합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훌륭 한 문헌학자 모두가 다 교사가 되기에 또한 적합한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여하 튼 우리 관리들은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이 단순히 재능 있고 유희에 경험이 많은 사 람들의 예비인력으로서 우리의 결함을 보완해 주고 우리의 후계자들을 공급해 주 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점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 다. 우리 제도의 의미와 존재가치에 대해 논의가 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해 그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선량연기자들의 부차적인 기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은 일차적으로 결코 장래의 명인, 강좌지도자, 기록 관 관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 소수의 집단은 유리알유희의 진정한 고향이며 미래입니다. 여기 이 20, 30명의 가슴과 두뇌 속에 서 우리 유희의 모든 발전과 적응과 비약과, 시대정신 및 개별학문들과의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완전한 가치로 혼신 의 힘을 다한 채로 행해지는 것은 오직 여기에서 뿐입니다. 오직 여기 우리의 선량 들 안에서만 우리의 유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고 신성한 봉사가 되며, 도락이나 사치스런 교양이나 잘난 척하는 태도나 미신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 가 되는 것입니다. 발트첼의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인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희의 미 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유희는 카스탈리엔의 심장이며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 우리 연기자 마을의 핵심이며 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이 주의 소금이며 정신이며 원동력입니다. 이 찬란한 유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가 아 무리 많아져도, 여러분들의 열성이 아무리 거세어져도, 여러분들의 정열이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결코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열을 높이십시오, 그 정열을 높 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카스탈리엔 사람들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원

칙적으로 단 한 가지 위험이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와 우리 종단의 정신은 두 가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데. 연구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진리에 대한 사랑의 원칙과 명상적 지혜와 균형감 각의 육성이란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원칙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 들에게 있어 현명하며, 종단 단원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는 학문을 사랑합니다. 각자 자신의 학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한 학문에의 헌신이 그 사람을 이기와 악덕과 경망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예가 수두룩합니다. 파우스트 박 사라는 인물은 그런 위험의 문학적 대중화입니다. 다른 세기들은 정신과 종교. 연 구와 금욕의 결합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그들의 제 학문의 종합에서는 신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상으로써,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요가 수행 으로써 우리 속에 들어 있는 동물과 모든 학문 속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을 쫓아내 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바이지만 유 리알유희도 그 자체 속에 자신의 괴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유리알유희 역시 공허 하기만 한 숙련된 기술, 예술적 허영심의 자기향락, 공명심, 다른 사람들을 지배 하는 힘의 획득으로, 이 힘의 오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 에 우리는 지성의 교육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또 종단의 도덕률에 의거하게 된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의 적극적인 정신활동을 무의식적인 몽환적 활동으로 바꾸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최고의 정신적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적인 생활에서 명상적인 생활 로 도피해서는 안 되며, 그 반대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번갈아 둘 사이의 도상 에 있어야 하며, 둘 모두에 정통해야 하고, 둘 모두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많은 말들이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크네히트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게 되었던 것은 그것이 적어도 명인 직위를 가지게 된 첫 해에 있어서 명인 직위에 대한 그의 견해를 잘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강연을 듣고 기록해 둔 것으로서 우리한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벌써 그가 훌륭한 선생이었음을 잘 보여준

다. (이런 사실은 처음 그 자신에게도 놀라운 일이었다) 가르치는 일이 그에게 매 우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또한 아주 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높은 직책이 이미 처음부터 그에게 안겨 주었던 여러 가지 발견과 놀라운 일들 가 운데 하나였다. 아마도 그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사실 그가 지금까지 선생으로서의 활동을 간절히 바랐던 적은 결코 없었던 것이기 때문 이었다. 물론 그는 선량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미 상급반 연구생 시절에 가끔씩 단기간 동안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고. 여러 단계의 유리알유희 강좌에서 남을 대 신하여 수업을 했으며, 이보다 더 자주 그런 강좌의 참가자들에게 복습지도교사로 서 도움을 주기도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에게는 연구의 자유와 개개 연구 분야에의 전념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 당시에 선생으로서 수완이 좋고 인기도 있었지만 가르치는 일을 오히려 바람직하 지 않는 장애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나아가 그는 사실 또 베네딕트파 수도원에서 강좌를 열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강좌는 그 자체로도 별 의미가 없었을 뿐 아니 라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그 곳에서는 오 히려 야코부스 신부한테서 배우는 일과 그 신부와의 교제가 그의 나머지 모든 일 을 부차적인 일로 만들어 버렸다.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 배우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교양을 쌓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의 최상의 추구목표였다. 그러던 그 제 자가 이제 선생이 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임기 초의 그 어려운 과제, 즉 권위를 얻기 위한, 인물과 직무 사이의 정확한 일치를 보여 주기 위한 투쟁을 극복 하게 되었던 것도 무엇보다도 선생으로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이때 그는 두 가 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신적으로 획득한 것을 다른 사람의 정신 속에 이식 시키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현상형식과 광채로 변화하는 것을 보는 일이 마련해 주는 즐거움, 즉 가르치는 데서 가지게 되는 즐거움과 연구생들 및 학생들의 인격 과 투쟁하며 권위와 지도력을 획득해 행사하는 것. 즉 교육하는 데서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이 둘을 결코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명인의 직위 에 재임하는 동안 많은 수의 훌륭하고도 탁월한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을 길러냈을 뿐 아니라 또한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를 본보기와 모범을 통해서, 훈계를 통해서,

엄격한 인내심을 통해서, 인간으로서나 성격으로서 그의 본질이 갖는 힘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능한 한의 최선의 상태로 개발시키기도 했다.

여기서 다소 앞질러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겠지만 그때 그는 하나의 특징적인 경 험을 하게 되었다. 재임 초기에 그는 전적으로 선량들과, 즉 그의 최상층의 제자 들인 연수생들과 복습과정지도교사들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이들 가운 데 많은 수는 그와 동년배였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숙달된 연기자였다. 선량들에 대해 안심을 하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는 서서히 조심스럽게 해마다 조금씩 더, 그들에게 할애했던 정력과 시간을 점점 거두어들이기 시작했다. 결국 에 가서는 그는 선량들을 가끔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측근들이나 협력자들에게 맡 길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수년간 계속되었다. 한 해 한 해 해가 바뀌어 감 에 따라 크네히트는 자신이 지도하는 강연과 강좌와 연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는 더욱 어린 제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아주 어린 제자들, 아직 연구생이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초보자 강좌를 몇 차례 직 접 주재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어떤 유리알유희명인도 좀처럼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때 크네히트는 제자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아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르치는 데서 더 많은 가쁨을 발견했다. 이 젊은 제자들과 아주 어린 학생들을 떠나 연구생 들이나 선량들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 몇 해 동안에 있어서 그에게는 때로 그 야말로 불쾌한 일이었으며, 그로 하여금 눈에 띌 만큼 힘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심 지어 그는 때때로 더 멀리 뒤로 물러나 훨씬 더 어린 학생들을, 아직 어떤 강좌도 유리알유희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싶은 소망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에쉬홀츠나 다른 어떤 준비학교에서 얼마 동안 어린아이들에게 라틴어 나 노래나 대수학을 가르쳤으면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곳에서는 유리알 유희의 가장 낮은 단계의 초보자강좌에 있어서보다 덜 정신적으로 수업이 이루어 지겠지만 그는 훨씬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교육하기 쉬운 학생들을 만날 수 있 었으며, 그곳에서는 가르치는 일과 교육하는 일이 아직은 더 많이 더 은밀하게 하 나로 통일되어 있었다. 명인의 직위에 재임했던 마지막 2년 동안 크네히트는 '유 리알유희명인'이란 말이 카스탈리엔에서는 여러 세대 전부터 '유희명인'을 의미하 지만 원래는 '학교선생'의 별칭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편지에서 두 차례 자신을 '학교선생'이라 불렀다.

'학교선생'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은 그러나 실현될 수 없었다. 그것은 희끄무레하 고 차가운 겨울날에 한여름의 하늘을 꿈꾸는 것과 같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크네 히트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길도 자유롭게 열려져 있지 않았다. 그의 직 책이 그의 임무를 결정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직책은 그가 이런 임무를 어떻 게 완수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아주 상당한 정도로 그 자신의 책임에 맡겨 두고 있 었다. 크네히트는 처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지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점차 자신의 주요관심을 점점 더 교육에. 자신에게 가능한 한 어린 연 령층에게 기울이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크네히트의 마음은 더욱더 젊은이들에게로 끌리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어떤 비판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크네히트의 직무수행에서 도락적 행 동이나 자의적인 행동을 찾아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사실 직무로 인해서도 크네 히트는 거듭거듭 선량들한테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세미나와 기록관의 일을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보조자들이나 '그림자'에게 맡기게 되었던 시기에도 크네히 트는, 예를 들어 연례 유희 경연대회나 공식 연례유희의 준비와 같은 장기간 계속 되는 일들로 인해 선량들과 매일 활발하게 접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젠가 한 번 크네히트는 친구 프리츠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신민들 에 대한 불행한 사랑으로 인해 평생 동안 괴로움을 당했던 왕들이 있었다네. 이 왕 들의 마음은 농부들과 목동들과 수공업자들과 학교선생들과 아동들에게로 끌렸지 만 이 왕들은 그들의 모습을 좀처럼 볼 수가 없었다네. 왕들은 언제나 자신의 재 상들과 장교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것일세. 이들 재상들과 장교들이 벽처럼 왕들과 그 신민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일세. 한 명인이 겪게 되는 처지도 이러하다 네. 그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려 하지만 보이는 건 동료들뿐이라네. 그는 어린 학 생들과 아이들에게로 다가가고 싶지만 보이는 것은 연구생들과 선량들뿐이란 말 일세."

이야기를 너무 멀리까지 앞지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제 다시 크네히트의 재임 초

몇 년의 시기로 되돌아가기로 하자. 선량들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고 난 뒤 크네히트가 다정하기는 하나 주의 깊은 주인으로서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록관의 직원들이었다. 사무국의 직무절차 구조도 면 밀히 연구하여 정돈해 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듭해서 밀려오는 우편물의 양도 엄청났다. 전체 당국의 회의나 회람도 거듭해서 크네히트에게 여러 가지 임무와 과제를 안겨다 주었는데, 이런 임무와 과제를 잘 파악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는 일은 신임자인 크네히트에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주 내의 여러 분과들의 이해가 엇갈려 그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 이기주의로 흐르게 하는 문제들, 예를 들면 관할권 문제 같은 것이 현안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었다. 그래서 크네히트는 아주 서서히,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경탄을 하며 강력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만큼 비밀스럽기도 한 중단의 기능을 알아 가게 되었다. 종단은 카스탈리엔 국가의살아 숨 쉬는 영혼이고 헌법의 엄중한 수호자였다.

힘들고 일 많던 몇 개월은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요제프의 마음속에는 프리츠테굴라리우스를 생각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어느 정도 본능적으로 한 일이지만 크네히트는 친구에게 몇 가지 일을 부과했을 뿐이었는데, 이것은 그 친구가 너무 많은 여가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프리츠는 자신의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친구는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되고 최고위의 상사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프리츠는 이제 더 이상 사적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고,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그를 '당신'이나 '각하'라는 말로 불러야 했다. 그렇지만 프리츠는 명인 크네히트가 자신에게 부과한 일들을 배려로서, 개인적 관심의 표시로서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다소 변덕스러운 괴짜인 프리츠는 친구의 승진과 전체 선량들의 극도로 흥분된 분위기로 인해 스스로도 흥분 속에 빠져들기도 했으며, 자신에게 부과된 일들로 인해 스스로에게 유익한 형태로 활기를 띠기도 했다. 어쨌든 프리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상황을, 자신이 유리알유희명인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크네히트가 그를 떠나보내었던 그 순간에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견뎌내고 있었다. 프리츠는 또한 그 무렵 자신의 친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엄청난 시련과 능력시험을 잘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예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명했으며 또 깊이 함께 느끼고 있었다. 프리츠는 친구가 불길 속에 선 채다 태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어떤 섬세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아마도 프리츠는 시험을 받고 있는 크네히트 자신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것을 체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테굴라리우스는 유리알유희명인 크네히트가 자신에게 부과한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일찍이 프리츠가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직무와 책임에 대한 자신의 부적합함을 진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결점으로 생각하게 된 때가 있었다면, 조수로서, 관리로서, '그림자'로서 그가 존경하는 이 사람의 곁에 서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당시가 바로 그때였다.

발트첼을 덮고 있는 너도밤나무 수풀은 벌써 갈색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어느 날 크네히트는 자그마한 책을 하나 들고서 자신의 집 옆에 있는 명 인 정원으로 나갔다. 작고한 명인 토마스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호라 티우스 풍의 애정 어린 손길로 종종 직접 보살피기도 했던 바로 그 정원이었다. 다 른 모든 학생들이나 연구생들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크네히트가 존경 할 만한 장소로서, 명인의 휴식 및 명상의 장소로서 마치 마법에 찬 시신의 섬이 나 시골 별장처럼 상상을 해 본 적이 있었던. 그 스스로 명인이 되어 이 정원의 주 인이 된 이후 그리 자주 찾지 않았으며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느긋하게 즐겨본 적 이 없었던 바로 그 정원이었다. 지금도 역시 식사 후의 15분 시간을 이용하여 나 온 것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높게 자란 관목들 사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이리저리 몇 걸음 걷고 있을 뿐이었다. 이 관목들 아래에는 그의 전임자가 옮겨다 심어 놓 은 남국의 상록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다. 나무 그늘 아래는 벌써 서늘했기 때문 에 그는 가벼운 등나무의자 하나를 양지바른 곳으로 들고 갔다. 거기에 앉아 그는 들고 온 작은 책을 펼쳤다. 그것은 〈유리알유희명인을 위한 회중 달력〉이었는데, 칠팔 십여 년 전에 당시의 유리알유희명인 루드비히 바서말러가 작성했던 것으로. 그 이후 그의 후임자들에 의해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조금씩 수정되고 삭제되고 보완되었다. 이 달력은 명인들, 특히 임기 초의 몇 년을 맞이하고 있는 아직 경험 이 없는 명인들을 위한 안내서로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전체 업무 연도를 통틀 어 주별로 명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눈앞에 제시해 주었다. 어떤 경우에는 제목만 적혀 있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이나 개인적인 충고가 덧붙여져 있기도 했다. 크네히트는 현재 주에 해당하는 지면을 찾아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크네히트는 놀랄 만한 사실이나 특별히 급박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장의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몇 줄이 적혀 있었다. "그대의 생각을 서서히 다가오는 연례유희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라. 이른 것처럼 보인다. 아니, 그대에게는 너무 이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충고한다. 이 유희에 대해 무슨 복안을 이미 생각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부터 한 주일, 아니 적어도 한 달을 다가올 유희에 대해 생각해봄이 없이는 결코 보내지 말라. 머리에 떠오르는 착상들을 메모해 두라. 자유 시간 30분이 있을 때면 가끔씩 고전적인 유희의 형식을 연구해보라. 혹 출장을 갈 때에도 그리하라. 훌륭한 착상을 억지로 가지려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몇 달 동안에는 어떤 아름다우면서도 엄숙한 과제가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 과제를 위해서 그대는 스스로의 정신을 강화하고 집중시키고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자주 생각해보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하라."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대가였던 한 현명한 노인이 이런 말을 써 두었던 것은 대략세 세대 전의 일이었다. 어떤 의미로 볼 때 유리알유희가 형식적인 면에서 그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던 시대에서의 일이었다. 당시 유희는 예를 들어 후기 고딕양식이나 로코코 양식에서 건축술이나 장식 기술이 도달했던 바와 같은 실연의 장엄함이나 다채로운 장식 기술에 도달해 있었다. 대략 20년 동안 유희는 그야말로 유리알로 하는 것 같았다. 깨어지기 쉬우며 내용이 빈약한 것처럼 보이고 교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원기 발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섬세한 형태의 장식으로 가득 차있는 유희였었다. 섬세하기 이를 데 없는 율동으로 춤을 추는 것 같은, 아니 때로는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부동(浮動)이었다. 어떤 연기자들은 이 당시의 양식을잃어버린 마법의 열쇠라고 불렀다. 그러나 다른 연기자들은 그것을 외형상 지나친 장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퇴폐적인 것으로 그리고 남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바로 이 당시의 양식을 공동 창조한 대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명인 달력의

그 깊이 생각한, 친절한 충고와 경고의 말을 적어 두었던 것이었다. 요제프 크네 히트가 이 말을 두세 번 꼼꼼하게 읽어보았을 때. 그는 가슴속에서 밝고 기분 좋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단 한 번 느껴본 이후 다시는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기분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명인 취임식 이 있기 전에 그가 했던 그 명상 때의 일이었으며, 당시 그 이상스러운 윤무를, 음 악명인과 요제프. 대가와 초보자. 노인과 청년 사이의 유무를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기분이었다. 일찍이 "일주일, 아니 적 어도 한 달을 다가올 유희에 대해 생각해봄이 없이는 결코 보내지 말라."나 "훌륭 한 착상을 억지로 가지려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와 같은 말을 생각해내어서 적어 두었던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든, 이미 머리끝이 희끗희끗해진 사람이었다. 적 어도 2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 높은 명인의 직책을 수행하 고 있었고. 사람들이 유희를 즐겨 했던 로코코 시대에 의심할 여지없이 극도로 세 련되고 자기 확신에 찬 선량들과 대결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만 해도 아직 4주간 이나 계속되었던 그 찬란한 연례유희를 스무 번 이상 고안해내어 실연했던 사람이 었다. 대규모의 장엄 유희를 구성한다고 하는, 해마다 돌아오는 과제를 벌써 오래 전부터 더 이상 커다란 명예나 기쁨으로서만 여기지를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부 담과 큰 짐으로서, 즉 스스로의 기분을 조정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스스로를 어느 정도 자극해서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로서 생각하는 노인이었다. 이 현명한 노인에 대해. 이 경험 많은 충고자에 대해 크네히트는 감사하는 마음에 찬 경외심을 느꼈는데, 그것은 이 노인이 만든 달력이 이미 여러 차례 그에게 유익한 안내자가 되어 주었던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크네히트는 어떤 유쾌한, 아니 생기와 활기에 넘치는 우월감을, 젊은이로서의 우월감도 느끼고 있었다. 크네히트 는 유리알유희명인이면 가지게 되는 많은 걱정거리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아주 제때에 연례유희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든가. 이 과업을 아주 기 쁘고 집중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다던가. 그와 같은 유희를 하기에 모험심이나 심지어 착상 같은 것이 모자랄 수도 있다던가와 같은 그 한 가지 걱정만은 할 필요 가 없기 때문이었다. 결코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때때로 자신이 몹시 늙어 버렸다고 생각하기도 했던 크네히트는 이 시간에 자신이 젊어지 고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런 멋진 기분에 그렇게 오래 젖어 있을 수가 없 었다. 그런 기분을 충분히 즐길 수가 없었다. 그의 짧은 휴식시간이 이미 거의 다 지나가 버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멋지고 유쾌한 기분은 그의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크네히트는 이런 기분을 지닌 채 갔다. 명인 정원에서의 짧은 휴식과 회중 달력을 읽는 일은 결국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고 또 낳아 주게 되었다. 긴장완화와 잠시 동안의 기분 좋게 고양된 생활 감정뿐만 아니라 두 가지 생각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 둘은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벌써 결심의 성격을 띠 게 되었다. 첫째로 크네히트는 자신 또한 장차 나이가 들어 피로하게 될 경우. 자 신이 처음으로 연례유희의 구성을 성가신 의무로 느끼게 되고 또 이 유희를 위한 착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직위에서 물러나리라고 생각했다. 둘째로 크네히트는 자신의 첫 번째 연례유희를 위한 작업을 곧바로 시 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크네히트는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테굴라리우 스를 동료로서 제1조수로서 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친구에게 만족스럽 고도 기쁜 일이 될 것이었으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현재 마비상태에 빠져 있 는 우정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는 최초의 계기가 될 것이었다. 이런 모색의 계 기나 자극을 친구가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 계기와 자극은 유리알유희명인인 자신이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친구 프리츠가 해야 할 일은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크네히트는 마리아펠스 시절부터 벌써 어떤 한 유리알유희에 대한 착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인데, 그는 그 착상을 명인 자격으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장엄유희에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위를 기준으로 삼아 방향을 정하고 여러 개의 문을 내고 귀신 쫓는 담을 세우고 건물과 마당을 서로 관련지어 배치하고 건물과 마당을 항성의 운행과 달력과 가족 생활에 맞추는 등과 같은 중국 가옥구조의 오래되고도 유교의식적인 본(本)과, 이에 덧붙여 정원이 갖는 상징법과 양식상의 규칙을 유리알유희의 구조와 제차원의 바탕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훌륭한 착상의 내용이었다. 일찍이 《역경》에

대한 어느 주석서를 연구했을 때 크네히트는 이런 규칙들이 갖는 신비스러운 질서 와 의미심장함을 대단히 매력적이고 소중한 우주의 상징으로서, 인간 세계에의 귀 속을 보여 주는 비유로서 받아들였던 것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 속에서 는 태고의 신비에 찬 민족의 정신이 사변적이며 학문적인 고관이나 명인의 정신과 놀라우리만큼 은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 이었다. 무슨 메모를 해 두었던 적은 없었지만 유희의 계획을 그는 매우 자주, 온 정성을 기울여 여러모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희는 전체적으로 이 미 완성된 모습으로 그의 가슴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그가 더 이상 이 계획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그가 명인의 직위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서의 일인 것이 었다. 이 중국적인 이념을 자신의 축제극의 기초로 삼는다고 하는 그의 결심은 지 금 이 순간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프리츠가 이런 착상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에라도 그로 하여금 이 착상의 심화·확대를 위한 연구와 유 희언어로의 번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하고 싶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을 뿐이 었다. 테굴라리우스가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중국어을 배 우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그러나 크네히트 자신이나 동아학관이 이런저런 조 언을 좀 해 주게 되면 테굴라리우스는 문헌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인의 가옥이 갖 는 신비스러운 상징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결국 여기에서는 문 헌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친구 테굴라 리우스는 다소 변덕스러우며, 매일 일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욱 그러했다. 따라서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었다. 결국 회중 달력 속 의 그 조심스러운 노인은 완전히 옳았던 셈이었다. 그런 생각에 크네히트는 미소 를 짓고 흡족한 기분으로 놀랐다.

바로 다음 날, 면담시간이 아주 일찍 끝나게 되었을 때 크네히트는 테굴라리우스를 불러오도록 시켰다. 테굴라리우스는 와서 다소 과장된 순종과 겸손의 표정을 지으며 몸을 굽혀 인사했는데, 크네히트를 대할 때면 으레 가지게 되었던 표정이었다. 대단히 놀랍게도 평소 그렇게도 빠듯하고 말을 아끼게 되었던 사람이 장난기마저 좀 띤 채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연구생 시

절 언젠가 우리가 논쟁 비슷한 것을 벌였으며, 그때 내가 자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설득할 수 없었던 일을 자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동아시아 연 구, 특히 중국 연구가 갖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문제였는데, 나는 자네 도 얼마 동안 동아학관에 들어가서 중국어를 배우도록 자네를 설득하려고 했네.— 그래. 기억하겠나? 오늘 나는 그것을 또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네. 당시 내가 자네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 없었던 것 말일세. 자네가 중국어를 할 줄 안다면, 지금 얼마나 좋겠나! 경이롭기 짝이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테니 말 일세." 이런 식으로 크네히트는 친구를 좀 더 놀려 주고 기대감을 잔뜩 부풀리다가 마침내 자신의 제안을 내놓았다. 대(大)유희의 작업을 곧 시작할 생각이라는 이야 기였다. 그것이 프리츠에게 즐거운 일이라면, 크네히트가 베네딕트파의 수도사들 한테 가 있었던 당시에 크네히트의 장엄한 경연대회 출품용 유희를 완성시키는 데 그가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이 작업의 상당 부분을 프리츠가 완성해 주었으면 한 다는 이야기였다. 거의 믿을 수 없기라도 한 눈빛으로 테굴라리우스는 크네히트를 쳐다보았는데, 그저 상사로서, 명인으로서만 알고 있었던 친구의 그 명랑한 어투 와 그 미소 띤 얼굴로 인해서 벌써 그는 크게 놀라워하고, 또 기분 좋게 흥분하고 있었다. 그가 감동적으로 즐거운 기분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은 그런 제안을 통해 서 표현된 존중의 염과 신뢰감뿐만 아니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도 그런 기분 좋 은 태도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며 또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치료를 위한 하나의 시도였으며, 친구와 자신 사이에 닫힌 채로 있던 문이 다시 열리는 것 이었다. 중국어와 관련한 크네히트의 우려를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그는, 존경하는 친구와. 친구의 유희를 완성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일 각오가 지금에라도 벌써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잘 알겠네." 명인 크네히트가 말했다. "자네의 약속을 받아 들이겠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일정 시간에 공부와 연구를 함께하는 동료가 될 걸세. 아주 까마득하게 여겨지는 그 옛날에 우리가 함께 여러 유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여 완성했던 것처럼 말일세. 이렇게 되어서 기쁘네. 테굴라리우 스. 그러나 이제 자네는 무엇보다도 내가 유희의 기초로 삼으려 하고 있는 그 이념 에 대해 이해를 가지도록 하게. 중국식 가옥이란 어떤 것인지 그것의 건축에 적용 되는 제반규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도록 하게. 동아학관으로 보내는 추천서를 한 장 자네한테 써 주겠네. 그곳 사람들이 자네를 도와줄 걸세. 그게 아니면—또 다른 어떤 방법이, 보다 나은 방법이 갑자기 내 머리에 떠오르지만—그 노형을 한 번 시험해 볼 수도 있을 걸세. 이전에 내가 자네한테 그에 관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 준 바 있었던, 죽림 속의 그 사람 말일세. 중국어를 전혀 할줄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쩌면 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되거나그에게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해보기로 하세.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사람은 자네를 중국사람으로 만들어 놓을수가 있을 걸세."

노형에게 한 통의 전문(傳文)이 보내어지게 되었는데, 전문은 유리알유희명인이 직무 때문에 방문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으니 유리알유희명인의 손님 자격으로 얼 마 동안 발트첼로 와 달라고 그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었으며, 그가 해주었으 면 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일에 관해서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 이 중국사 람은 그러나 자신의 죽림을 떠나지 않았다. 전문을 들고 갔던 사람은 그 대신 짤막 한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다. 붓글씨의 한자로 그림을 그리듯 쓴 편지였는데, 거 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높으신 분을 뵙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개 의 작은 접시를 제물로 쓰십시오. 나이 어린 자가 숭고한 사람한테 인사를 올리는 법입니다." 이렇게 되자 크네히트는 친구를 여러모로 설득해 직접 죽림으로 가서 받아들여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해 보도록 할 결심을 했다. 하지만 이 짧은 여행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죽림의 은둔자는 테굴라리우스를 거의 비굴하다고 할 만 큼 공손하게 맞이해 주기는 했지만 테굴라리우스의 물음 하나하나에 대해 그저 중 국어로 된 다정한 문장으로 대답할 뿐이었고, 유리알유희명인이 질이 좋은 종이 에 자필로 쓴 화려한 추천장에도 불구하고 테굴라리우스에게 머무르라고 초대하 지 않았다. 테굴라리우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기분이 많이 상한 채 발트첼로 돌아왔으며, 명인을 위한 선물로 작은 종이를 한 장 받아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금붕어에 관한 한 오래된 시구(詩句)가 붓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제 테굴라리우스 는 동아학관에서 운수를 시험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곳에서 크네히트의 추천장은 보다 큰 효과를 발휘해 주었다. 사람들은 이 청원자를, 명인의 사절을 정성껏 도와주었다. 테굴라리우스는 얼마 안 가 중국어를 모르는 가운데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의 테마에 관해 완전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테굴라리우스는 이 가옥 상징법을 자신의 유희 계획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크네히트의 착상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죽림에서의 실패의 고통을, 나아가 실패 그자체도 곧 잊어버리게 되었다.

거절을 당한 테굴라리우스가 자신의 노형 방문과 관련하여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 을 때 그리고 이어 혼자서 금붕어에 관한 시구를 읽게 되었을 때, 크네히트는 노형 의 풍모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와 쑥대들 옆에 서 있는 노형의 오두막에서 일 찍이 자신이 머물렀던 일에 대한 회상으로 인해 강렬한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그 것은 동시에 자유와 여유와 연구생 시절과 찬란한 낙원과도 같은 젊은 시절의 온 갖 꿈에 대한 회상이기도 했다. 거룩하면서도 고집이 센 그 은둔자는 뒤로 물러나 스스로를 자유스럽게 하는 일에 있어 얼마나 뛰어난 것이었고, 그의 조용한 대숲 은 그를 얼마나 안전하게 세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었고, 그의 제2의 천성이 되 어 버린 순수하고 세밀하고 지혜로운 중국적 분위기 속에서 그는 얼마나 은근하면 서도 강렬하게 살고 있는 것이었고, 마법에 넘치는 그의 생애의 꿈은 1년, 2년, 10 년. 20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완전하고 집중적이고 밀도 있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의 정원을 중국으로, 그의 오두막을 사원으로, 그의 금붕어들을 신 성한 것으로 그 자신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던가! 크네히트는 한숨을 쉬며 이런 상념으로부터 벗어났다. 자신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아니. 다른 길로 이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똑바로 성실 하게 걸으며 이 길을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이었다.

크네히트는 짬짬이 시간을 내어 테굴라리우스와 함께 유희의 구도를 짜고 구성을 했으며, 기록관에서의 모든 선별 작업과 초고 및 제2원고 작성 작업은 친구에게 맡겼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내용을 통해 우정은 다시 활기를 띠고 이전과는 다른 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유희도 이 괴짜 친구의 독특한 개성

과 섬세한 상상력을 통해 많은 변화와 보완을 겪게 되었다. 프리츠는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는 완성되어서 완전한 것이 된 잘 묶여진 꽃다발이나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다 여러 시간에 걸쳐 불안에 찬 불만감을 느끼며 쉼 없이 애정 어린 손길을 계속 가하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돌보아야 할 하루 치 일로만들 줄 아는, 결코 만족해하지는 않지만 절도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이후 여러 해에 걸쳐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장엄 대유희는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이었다. 테굴라리우스에게 있어서는 친구이자 명인인 크네히트에게 그토록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 자신이 쓸모 있는, 아니 필요불가결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고, 또 공식적으로 거행되는 장엄 대유희를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선량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공동창조자'로서 함께 체험하는 일은 더욱 큰 즐거움이었다.

이 첫 재임 연도의 늦가을, 친구 테굴라리우스가 아직 중국 연구의 초기단계에 있 던 무렵 어느 날 유희명인 크네히트는 사무처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죽 살펴보던 중 "몬테포르트에서 온 연구생 페트루스 도착함, 음악명인의 추처을 받 고 있으며, 노(老)음악명인의 특별한 인사를 전하고 있음. 숙소와, 기록관 출입허 가를 신청. 연구생 숙사에 묵게 함"이라는 메모를 접하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특별 히 신경 쓸 것 없이 연구생과 그가 낸 청원 건을 기록관의 직원들에게 넘기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노(老)음악명인의 특별한 인사" 는 오직 크네히트 자신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일 수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 연구생 을 불러오도록 했다. 사색적이면서도 또한 정열적으로 보이면서도 말수가 적은 젊 은이였으며, 분명히 몬테포르트의 선량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았다. 적어도 명 인을 친견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네히트는 노(老) 음악명인이 그에게 무슨 일을 부탁했느냐고 물었다. "인사입니다. 명인님께 보내 는 아주 친절하면서도 공손한 인사입니다. 명인님, 초대 말씀도 있었습니다." 연 구생이 대답했다. 크네히트는 연구생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낱말들을 조심 조심 골라 가며 젊은이는 말을 계속했다. "존경하는 노명인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간절하게 저에게 명인님께 당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러시면서 그분은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명인님을 한 번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비치셨습니다. 그분은 명인님을 초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명인님께 가까운 시일 안에 당신을 찾아 줄 것을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방문은 어떤 출장 가운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명인님을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 두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부하신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크네히트는 젊은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는 노명인이 아끼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임이 틀림없었다. 크네히트가 조심스럽게 "여보게, 연구생, 자네는 우리 기록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를 생각인가?" 하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명인님께서 몬테포르트로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될 때까지만 머무를 생각입니다, 명인님."

크네히트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고는 "알았네" 하고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왜 노명인께서 나한테 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았는가?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페트루스는 크네히트의 시선을 끈기 있게 견뎌내면서 천천히, 마치 어떤 다른 나라의 말로 표현해야 하기라도 하듯 여전히 조심스럽게 낱말을 골라 가며 이렇게 사정을 설명했다. "당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명인님.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명인님께서도 저의 존경하는 명인님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은 언제나대단히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몬테포르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직복습과정지도교사이면서도 전체 선량들 사이에서 벌써 내정된 음악명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젊은 시절 그분은 선량들로부터 '겸손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런 겸손은, 또 이에 못지않게 그분의 경건한 태도와 봉사적인 정신과 사려 깊은 마음씨와 관대한 태도는 노년에 접어든 이후, 또 명인의 직위에서물러나게 된 이후 그 정도가 더욱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명인님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분은 아마도 명인님과 같은 분들께 당신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와 같은 방문을 아무리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사정때문에 저는 그런 종류의 당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그런 당부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명인님.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있지 않은 당부를 정말로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시는 일은 전적으로 명인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크네히트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여보게, 그러면 자네가 유희 기록관에서 볼 일이란 무엇인가? 그건 그저 구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많은 음표기호들을 채록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문에라도 저는 곧바로 명인님께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보다는 그 짧은 여행이 다소나마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구나." 명인은 머리를 끄덕이며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여행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서두르는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는가?"

젊은이는 잠시 눈을 감았으며, 그 물음이 자신을 몹시 괴롭히고 있기라도 한 듯 이마에 깊은 주름을 잡았다. 그러다 젊은이는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 같은 젊은이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시 명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명인님께서 질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네." 크네히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노명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인가? 염려할 만하다는 말인가?"

명인은 매우 차분한 어조로 말한 것이었지만 연구생은 명인이 깊은 애정으로 노명인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 대화가 시작되고 난 뒤 처음으로 다소 어두운 기운을 띤 젊은이의 시선 속에 한 줄기 호감의 빛이 비쳐들었다. 젊은이의 목소리도 좀 더 호의적이 되고 직접적이 되었다. 마침내 젊은이는 자신의 관심사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명인님." 젊은이가 말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존경하는 노명인님의 건강상태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매우 건강한 어른이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물론 고령으로 인해 기력이 아주 많이 약해지시기는 했습니다. 그분의 겉모습이 눈에 띌 만큼 달라졌거나 그분의 기력이 갑자기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간간이 산책도 좀 하시고, 매일 연 주도 조금씩 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명의 학생에게 오르간 연주를 가르 치셨습니다. 아직 초보자들이었는데, 그분은 언제나 어린 학생들을 당신 가까이에 두시기를 매우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마지막의 이 두 학생마저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징후로서 저의 마음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존경하는 그 어른께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었으며, 그분에 대해 여 러모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바로 그런 생각들로 인해 저는 이곳으로 오게 되 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전에 제 자 신이 노(老)음악명인의 제자였다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 종의 수제자였다는 사정과, 그분의 후임자가 이미 일 년 전부터 저를 일종의 조수 와 시종으로서 그 어른께 보내어. 그분의 생활을 보살펴 드리는 일을 저에게 맡겼 다는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마음에 꼭 드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옛 스 승이시자 후원자인 그분에 대해서만큼 제가 존경심과 애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달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음악의 비밀을 밝혀 주셨으며, 제가 음악 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사상이나 종단에 대한 의식이나 성숙이나 내적인 질서에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분의 영향 때문이었으며, 그분의 덕택입니다. 저는 족히 일 년 전부 터 완전히 그분의 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와 강좌에 관여하기도 하지 만 언제나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시중을 들고 산책하실 때 동행하며, 연주하실 때 거들기도 합니다. 밤에는 그분의 옆방에서 잡니다. 이처 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지냄으로써 저는 그분의.—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 의 노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노화의 단계를 아 주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몇몇 동료들은 가끔씩 저처럼 아주 젊은 사람을 아주 늙은 사람의 시종으로, 생의 동반자로 만들고 있는 이 기이한 일에 대 해 연민에 찬 또는 조롱에 찬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는 아마 어느 누구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명인님께 어떤 종류의 노화가 점지되어 있는지를, 그분이 육신의 면에서 점점

쇠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점점 식사를 덜하시고 짧은 산책에서 점점 더 피로해진 채로 돌아오시곤 하지만 결코 병에 걸리시는 법은 없다는 것을, 그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조용한 노년의 생활 속에서 그분이 점점 더 많은 정신과 경건함과 기품과 소박함을 지녀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수 또는 시종으로서의 저의 일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존경하는 그 어른께서 시중과 보살핌을 전혀 받고 싶어 하시지 않으며, 언제나 주려고 하실 뿐 결코 받으려 하시지 않는다는 점뿐입니다."

"고맙네." 크네히트가 말했다. "존경하는 어른께서 이렇게 충성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제자를 곁에 두고 계시다니 나로서는 반가운 일일세. 자네는 모시고 있는 어른의 부탁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제 제발 나한테 분명히 말해 주게. 내가 몬테포르트로 가는 것이 자네에겐 왜 그다지도 중요한 일인가?"

"명인님께서는 조금 전 염려하는 마음으로 노(老)음악명인님의 건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젊은이는 대답했다. "명인님께서는 저의 부탁으로 인해 분명히 그분의 몸이 편치 않은 것인지도 모르며, 따라서 지금이 그분을 한 번 찾아뵙는 적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그 어른께서 임종에 가까이 이른 것으로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세상 작별 방식은 특별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그분은 거의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분은 길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말씀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지만 지금 그분은 너무도 짧게 말씀하시고 조용해지셔서 그때문에 저는 다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거나 여쭙는 것에 대해 그분이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는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저는 그분의 귀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전처럼 잘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차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주의력을 올바르게 모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보다는 그분은 어쩌

면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우리들 사이에서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당신 자신의 세계에서 살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을 방문하게 되거나 당신 자신한테로 오게 하는 일도 점점 더 드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 말고는 여러 날을 어느 누구도 보시지 않고계십니다. 이와 같은 생활이, 이런 완전한 은둔 생활이, 현세를 초탈한 이런 생활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저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몇몇 친구 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그분께 모셔다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인님, 그분을 방문하시게 되면 명인님은 틀림없이 오랜 친구 분께 기쁨을 안겨 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인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명인님께서 존경하고 좋아하셨던 분과 어느 정도 똑같은 분을 만나 뵙게되실 것입니다. 몇 개월 뒤면, 아니 어쩌면 이미 몇 주일 뒤라 하더라도 명인님에 대한 그분의 기쁨과 관심은 훨씬 덜한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분은 명인님을 더 이상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거나 알아보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시지 않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크네히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 밖을 내다보고 숨을 들이마시며 잠시 동안서 있었다. 크네히트가 다시 연구생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연구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는데, 그는 친견이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명인은 연구생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번 고맙네, 페트루스." 크네히트가 말했다. "자네는 명인이 여러 가지 일을 보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걸세. 나는 지금 바로 모자를 쓰고 여행을 떠날수는 없네. 먼저 이런저런 일들을 정리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해야 하네. 바라건대 모레까지는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걸세. 그래도 괜찮겠는가? 그때까지면 자네는 기록관에서의 자네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그럴 수 있겠는가? 그럼, 시간이 되면 자네를 부르도록 하겠네."

실제로 크네히트는 며칠 뒤 페트루스를 대동하고 몬테포르트로 출발했다. 그곳에서 그들이 노명인이 살고 있는 정원 한가운데의 정자에, 아담하고 매우 조용한 암자에 들어섰을 때 뒤편에 있는 방으로부터 음악이 들려왔는데, 그것은 섬세하고

여리기는 하나 박자가 정확하고 지극히 밝은 음악이었다. 노인은 거기에 앉아서 두 손가락으로 2음부로 된 가락을 연주하고 있었다.—크네히트는 바로 그 음악이 16세기 말의 2중주곡 교본들 가운데 하나에 실려 있는 곡임에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보았다. 그들은 음악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멈춰 서 있었다. 그런 연후에 페트 루스가 그의 명인을 불러서, 자신이 돌아왔으며 손님을 한 분 모시고 왔다고 알렸 다. 노인은 문께로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좋 아하는, 음악명인의 이 반갑게 인사하는 미소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꾸 밈이 없고 밝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다정함과 친절함을 담고 있었다. 거의 30년 전에 요제프 크네히트는 처음으로 이 미소를 보았으며, 그래서 음악 연주실에서 의 그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복된 아침시간에 이 다정한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열 어 바쳤던 것이었다. 그때 이후 그는 이 미소를 자주 다시 보았으며 그때마다 커다 란 기쁨과 경이로운 감동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 다정한 명인의 희끗희끗 한 머리카락이 점차 완전히 회색으로, 점차 흰색으로 변하게 되는 동안에도, 그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지고, 그의 악수하는 힘은 더욱 약해지고, 그의 걸음걸이는 더 욱 힘들어지게 되는 동안에도, 그 미소는 밝음과 우아함과 순수함과 은밀함을 조 금도 잃지 않았다. 친구이자 제자인 크네히트가 보게 된 바이지만 이번에도 이 점 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 푸른 눈과 뺨의 부드러운 붉은 기운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빛을 점점 잃어가게 되었지만 미소를 띤 노인의 얼굴의 명랑하면서도 사 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복음의 빚은 익히 자주 보아온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은밀해지고 신비스러워지고 강렬해져 있었다. 이런 인사를 접하게 된 지금에 와서 야 비로소 크네히트는. 연구생 페트루스가 한 가청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간청을 들어주려 함으로써 그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제 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에 찾아가게 되었던 친구 카를로 페로몬테—당시 그는 그 유명한 몬테 포르트 음악도서관의 관장이었다.—에게 처음으로 크네히트는 그 점에 대해 이야 기했다. 페로몬테는 한 편지에서 이때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게 되었다.

"우리 노(老)음악명인께서는 자네의 스승이셨네. 자네는 그분을 무척 사랑했었지.

지금도 그분을 자주 찾아뵙고 있나?" 크네히트가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를로가 대답했다. "물론 그분은 산책을 하고 있고 저는 막도서관에서 돌아오고 하는 형식으로 가끔 그분을 만나 뵙게 되기는 하지만 여러달 전부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계시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이상 잘 견뎌낼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에 그분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몬테포르트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는 당신의 옛날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을 위해서 하루 저녁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미 1년여 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명인님의 취임식 때 그분이발트첼로 가신 일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랬었군." 크네히트가 말했다. "그러나 자네는 가끔씩 그분을 뵙고 있으니 그분 한테서 무슨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명인님께서는 그분의 좋아 보이는 모습과 그분의 명랑한 기분과 그분의 기이하리만큼 밝은 기색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력은 점차 떨어져 가고 있지만 그 명랑한 기분은 계속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인님께는 그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조수인 페트루스는 자네보다 훨씬 더 자주 그분을 뵙고 있지만 자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익숙해지지는 않았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리 했지만 그는 직접 발트첼로 와서 내가 이렇게 노명인님을 방문하도록 부탁을했네. 자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크네히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페트루스 말입니까? 그는 아주 뛰어난, 천재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박식하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음악전문가이며 다소 답답하거나 우울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노(老)음악명인에 대해 그는 철저히 순종적이라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모든 열과 성을 다해 자신이 숭배하는 주인이자 우상인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페트루스는 그분한테 미쳐 있습니다. 명인님께서도 이런 인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미쳐 있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젊은이는 단순히

어떤 애착이나 정열에 미쳐 있는 것은 아니네. 그는 그저 단순히 자신의 늙은 스승 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그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들과 같은 다 른 사람들보다 그가 더 잘 보고 있거나 아니면 느낌으로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이고도 진정한 현상에 빠져 매혹 당하고 있는 걸세. 그 현상이 나에게는 어 떻게 보였는지 자네한테 설명하려 하네. 오늘 나는 반 년 이상 동안 뵙지 못했던 노명인께 오게 되었네. 그분의 조수가 하는 여러 가지 암시적인 말을 들었던 터라 나는 내 스스로 이번의 방문에 대해 별로 또는 거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 네. 나는 그저 이 존경하는 어른이 얼마 안 있어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나 버릴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었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이라 도 더 뵙기 위해 이리로 왔을 뿐이었네. 그분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을 때, 그 분의 얼굴은 밝게 빛나고 있었네. 그러나 그분은 내 이름 외에는 아무 말씀도 하 지 않았으며, 나에게 손을 내밀었네. 이 동작과 그의 손도 내가 보기에는 빛을 내 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 그 노인 전체가, 아니면 적어도 그의 눈이, 그의 하얀 머리 카락이 그의 밝은 장밋빛 피부가 은은하면서도 서늘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 나는 그분의 곁에 앉았네. 그분은 그 연구생을 내보내었네. 한 번의 눈짓 으로써 말일세. 이제 일찍이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그 기이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시작되었네. 처음에는 물론 그 대화는 나에게 이상스럽고 답답한 것이었으며, 또 한 창피스러운 것이기도 했네. 내가 그 어른한테 끊임없이 말을 걸거나 질문을 해 도 그 어른은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눈길을 한 번 주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대 답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네. 나는 나의 질문과 내가 전하는 말이 그분에게는 그저 귀찮은 소음으로서 들리는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네. 이로 인해 나는 혼란을 일 으키고 실망을 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네. 나는 내 자신이 전혀 쓸모없는 존재 이며 성가신 존재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었네. 내가 명인께 무슨 말을 하여도 내가 돌려받는 것은 미소와 짧은 눈길뿐이었으니 말일세. 정말 말이지 눈길 속에 호감 과 다정함이 그렇게 넘치도록 담겨져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노인이 나를. 내가 하는 이야기와 질문을, 내가 전혀 쓸데없이 이리로 온 것을, 내가 그를 방문 한 것을 드러내놓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걸세. 사실

그분의 침묵과 미소 속에는 결국 그와 비슷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했네. 사 실 이 침묵과 미소는 하나의 거부이고 훈계였네. 그러나 이 침묵과 미소는 조롱기 가 담긴 말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차원에서, 다른 의미단계에서 거부이고 훈계 였네. 내가 피로해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참을성 있고 공손한, 대화를 이끌어내려 는 나의 온갖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 노 인이 나의 인내심과 끈기와 공손함보다 백배나 더한 것이라 하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네. 그런 상황은 15분이나 30분쯤 계속되었 을 걸세. 하지만 나에게는 한 나절처럼 여겨졌네. 나는 슬퍼해하고 피로해하고 불 쾌해하기 시작했으며 여행을 후회하기 시작했네. 내 입안은 바싹 마르게 되었네. 철이 들고 난 이후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하는 말에 일찍이 한 번 도 대답을 안 한 적이 없는 존경하는 그 어른이, 나의 은인이, 내 친구가 거기 앉아 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었네. 아니 어쩌면 듣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어 었네. 거기 앉아 있는 것이었으며, 당신의 명랑한 기분과 미소 뒤로, 당신의 황금 및 가면 뒤로 완전히 꼬리를 감추고 숨어들어 있는 것이었네. 다른 법칙이 지배하 는 다른 세계에 속한 채 도달할 길이 없는 상태로 말일세. 나로부터 그분께, 우리 의 세계로부터 그분의 세계로 말을 전하려는 모든 것은 돌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그분에게서 튕겨 나오는 것이었네. 마침내—나는 이미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 지 않고 있었네.—그분이 마법의 벽을 허물었네. 마침내 그분이 나를 도와주었네. 마침내 그분이 한 마디 말씀을 하셨네. 그것은 그날 내가 들은 그분의 유일한 말이 었네.

'피로해지겠어, 요제프' 하고 그분이 낮은 목소리로, 자네도 잘 알고 있는 감동적인 다정함과 관심이 가득 차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네. '피로해지겠어, 요제프.' 이게 전부였네. 내가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보고 계시다가, 이제나에게 주의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네. 그분은 그 말을 하는 걸 좀 힘들어 하셨네.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더 이상 입술을 움직여 말씀을 해 보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일세.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은 당신의 손을, 나비처럼 가벼운 그 손을 내팔 위에다 놓으셨네. 그러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네. 그

순간 나는 압도당하고 말았네. 그분이 지니고 있는 명랑하고 조용한 기운의 일부가, 그분의 인내심과 안정된 기분의 일부가 내 자신 속으로 옮겨오는 것이었네. 나는 갑자기 그 어른과, 그분의 존재가 취하게 되었던 방향전환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네. 그것은 인간의 무리를 떠나 침잠의 생활 속으로, 말의 세계를 떠나 음악의 세계로, 잡다한 상념들을 떠나 통일된 경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었네. 나는 내가 이곳에서 은혜롭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네. 그때야비로소 그 미소, 그 명랑한 기운의 의미도 알게 되었네. 다시 말해, 여기서 한 시간동안 나에게 당신의 찬란한 세계속에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해준 그분은 바로 성인이요 완성된 자였는데, 그분을 놓고 나는 이야기를 걸고, 이것저것 묻고, 또 대화로 이끌어보려고 했네. 다행스럽게도 나는 너무 늦지 않게 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되었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나도 물리치셔서, 영원히 거부해 버렸을수도 있었을 걸세. 그랬더라면 나는 내가 일찍이 경험했던 가장 기이하면서도 훌륭한 것을 놓치게 되었을 것일세."

"제가 생각하기에" 페로몬테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명인님께서는 우리 노명인을 어떤 성인 같은 존재로 여기시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명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신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는 그것을 몹시 미심쩍어 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신비적인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음악가로서 역사가로서 순수한 범주들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카스탈리엔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기독교적인 종교단체도 아니고 또 인도적이거나 도교적인 수도원도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 가운데로, 즉 순전히 종교적인 범주 가운데로 편입시키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네가—용서하십시오, 명인님. 명인님이—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편입 행위를 일종의 일탈행위로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존경하는 노명인을 위해 성인명부 등재 절차를 밟을 의향을 명인님께서 결코 갖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종단에는 그런 일을 맡아볼 관청도 없을 것입니다. 제발 제 말씀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명인님은 저에게 어떤 한 체 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명인님께서 설명하신 그 현상을 저나 몬테포르트에서 살고 있는 저의 동료들도 물론 보기는 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그저 덤덤하게 받 아들였을 뿐, 그것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가 소홀하고 무감각했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노명인의 변화가 명인님께는 그렇게도 뚜렷하게 눈에 띄고 놀라운 일이 되었는데도 제가 그것을 거 의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변화가 명인님께는 예상치 않는 가운데 완성된 결과로서 다가온 반면. 저는 그런 변화를 서서히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경 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인님께서 몇 달 전에 보 신 노명인님과 오늘 보신 노명인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까이에 있는 저희들은 가끔씩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까닭에 별다른 변화를 찾아보지 못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기적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아무리 조용히 서서히 일어난다 하더 라도, 우리가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제가 그랬던 것 보다는 더 강하게 그것에 영향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는 저 의 무심한 태도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결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현상을 보지 못했던 것은 그것을 볼 생각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분이 점점 뒤로 물러나시고 말이 없어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다정함이 점점 더해 가는 것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그분이 말없이 저의 인사에 답할 때, 그분의 얼굴이 점점 더 밝고 초연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물론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 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현상 속에서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일에 대해서는 거부했습니 다. 제가 이렇게 거부했던 것은 노명인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편 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숭배나 광신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바로 그 광신, 즉 연구생 페트루스가 그의 명인 이자 우상인 그분과 관련하여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은 형태의 숭배 방식에 대한 혐 오감 때문이었습니다. 명인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이런 점을 저는 아주 분 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불쌍한 페트루스에 대한 자네의 혐오감을 자네 스스로에게 드러내기 위한 우회로였네." 크네히트는 웃으며 말했다. "지금은 어떤가? 나도 신비주의자이며 광신자인가? 나도 금지되어 있는 개인숭배나 성인숭배를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네는 나한테, 자네가 그 연구생에게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을, 즉 우리가 무엇인가를,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보고 체험했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겠는가?"

"물론 저는 명인님께 그 점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카를로는 천천히 깊이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명인님께서 보신 것에 대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자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실 줄 아는 노명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나 명랑한 기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선생다운 질문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일단 학교 선생입니다. 제가 명인님께서 보셨고 또 저희들이 보았던 것을 정리하고 설명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이 갖는 실제성이나 아름다움을 추상화나 일반화를 통해 파괴시켜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실제성과 아름다움을 가능한 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남겨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행을 하다가 어느 곳에서 한 농부나 어린아이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가락을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것 역시 저에게는 하나의 체험이 됩니다. 그럴 때제가 바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그 가락을 음표로 기록해 두려고 애를 쓴다면, 이는 결코 제 체험의 폐기나 처분이 아니라 그 체험을 명예롭게 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크네히트는 카를로에게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카를로" 그는 말했다. "우리가 더 이상 서로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일세. 젊은 시절의 친구들이 모두 다시 만날 때마다 옛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닐세.

내가 노명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네한테로 오게 되었던 것은 그 사정을 잘 알고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고 내가 바라는 사람이 여기 이곳에서는 바로 자네 뿐이기 때문일세. 내가 한 이야기를 자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려 하는지 자네가 우 리 명인의 그 승화된 경지를 무어라고 부르려 하는지는 자네 자신에게 맡길 수밖 에 없네. 자네가 그분을 한 번 뵈러 가서 잠시 동안 그분의 체취를 느껴보려 한다 면 나는 기쁘겠네. 은총이든 완성이든 노년의 지혜이든 축복이든 아니면 또 그밖 에 무어라고 부르든, 그분이 도달한 경지는 종교적인 생활에 속하는 것일지도 모 르겠네.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비록 어떠한 종파도 어떠한 교회도 가지고 있 지 않지만 경건한 신앙심은 잘 알고 있네. 바로 우리 노명인께서는 언제나 지극히 경건한 어른이셨네. 여러 많은 종교에는 축복 받은 사람들, 완성에 이른 사람들, 광명을 비추는 사람들, 승화된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 마당이니, 우리 카스탈리엔의 경건성 역시 전성기에 이르지 말란 법이 어디에 있겠는가?—시간이 많이 늦어졌네. 이제 자러 가야 할 것 같네. 내일 아침 아주 일찍 떠나야 한다네. 곧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네. 아주 짧게 내 이야기를 다 마칠 수 있도록 해 주게! 그분이 나에게 '피로해지겠어' 하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나는 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나의 노력을 그만 둘 수 있게 되었고 조용히 있게 되었을 뿐 아니 라 또한 나의 의지를 말과 대화를 이용해서 말이 없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분으로부터 득을 보려는 그 그릇된 목표로부터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되었네. 내 가 단념을 해 버리고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맡겨 버리게 된 그 순간부터 일은 마치 저절로 그리 되는 것처럼 되어 갔네. 자네가 뒤에 가서 내가 쓰고 있는 표현들을 임의대로 다른 표현들로 바꾸어도 상관없네. 그러나 내가 부정확해 보이거나 여 러 범주들을 서로 혼동하고 있더라도 지금은 내 말을 들어 주게. 나는 대략 한 시 간 또는 한 시간 반 동안 그분 곁에 있었네. 그러나 나는 그분과 나 사이에 일어났 던 것 또는 교류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자네한테 전할 수가 없네. 그때 말이 오고 가고 했던 것은 아니었네. 나의 거부적인 태도가 사라지게 된 다음부터 나는 그저 그분이 당신의 평정된 마음과 밝은 기운 속으로 나를 함께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네. 명랑한 기운과 기적과도 같은 안정감이 그분과 나를 감 싸고 있었네. 분명하게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명상을 한 것은 아니었을 테지만 그 것은 아주 잘 행해진.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는 명상과 비슷한 점이 있었는 데, 이 명상의 테마는 아마 노명인의 생애였을 걸세. 나는 그분을, 어린 소년인 내 가 처음으로 그분을 만나 뵙게 되었던 그 옛날부터 지금 그 순간까지의 그분의 삶 의 과정을 보거나 또는 느끼고 있었네. 그것은 헌신과 연구의 일생이었네. 그러나 강제나 야심은 없는, 음악으로 넘치는 일생이었네. 그 일생은, 음악가가 음악명인 이 됨으로써, 그분이 음악을 인간의 최고 목적인 정신의 자유나 순수성이나 완전 성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들 중의 하나로서 선택하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때 이후 로 그분은, 능숙하고 재치 있는 쳄발로 연주자의 손과 다채롭고 거대한 음악가의 기억력에서부터 육체와 정신의 모든 부분과 기관에 이르기까지. 맥박과 숨결에 이 르기까지, 잠과 꿈속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음악으로 충만 되고 변화되고 정화되 는 것 외에는 달리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그분은 그저 음악의 한 상 징, 아니 오히려 한 현상 형식, 한 체현일 뿐인 것처럼 전개되었던 것이었네. 적어 도 나는 그분으로부터 발산되는 것 또는 그분과 나 사이에서 리듬감에 넘치는 호 흡처럼 넘실대며 오가는 것을 그야말로 음악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네. 완전히 비 물질적인 것으로 된, 그 마법의 세계 안으로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여러 성 부로 된 노래가 새로이 참여하는 한 성부를 받아들이듯 함께 받아들이는 비교적인 음악으로서 말일세. 음악가가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라면 아마 이런 은총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을 걸세. 천문학자라면 아마 자신이 달이 되어서 어느 항성 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또는 문헌학자라면 아마 소중하기 짝이 없는. 신비에 찬 근원어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듣게 되었을 것일세. 이만 하면 충분하네. 가보겠네. 참으로 즐거웠네. 카를로."

우리가 이 일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하게 되었던 것은 노(老)음악명인이 크네히트의 생활과 마음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유혹하게 되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크네히트가 페로몬테와 나눈 대화가 페로몬테 자신이 기록한 형태로, 즉 그의 한 편지에의해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되었다는 사정 때문이다. 노(老)음악명인의 '거룩한 모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습'에 대해서는 이 보고가 분명히 가장 최초의 것이고 또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주 많은 수의 전설적인 이야기와 해석들이 있었다.

양극

'중국의 집 유희'로서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드물지 않게 인용 되고 있기도 하는 그 연례유희는 크네히트와 그의 친구에게 그들 공동 작업의 결 실을 가져다 주었으며, 카스탈리엔과 그 당국에 대해서는 크네히트를 최고위의 직 에 임명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다. 발트첼과 연기자 마을과 선량들은 화려하고도 고조된 분위기의 축제기간이 가져다 주는 만족감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었다. 사실 연례유희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이번과 같은 화려한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장 젊고 가장 칭송받는 명 인이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자신의 역량을 펼쳐 보이게 될 뿐만 아니 라 발트첼 사람들이 지난해에 겪었던 손실과 실패를 보상해 주게 될 것이었다. 이 번에는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겁에 질린 대리인이 선량들의 차갑고 거센 질시와 불신에 에워싸인 채 신경질적으로 된 관리들에 의해 충성스럽 기는 하나 아무런 힘찬 기운이 없이 지원을 받는 가운데서 불안하게 그 큰 의식을 주재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용한 가운데,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위기 를 자아내며, 완전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징들로 이루어지는 장엄한 장기판 위의 흰색, 황금색 옷 차려입은 장군 말이 되어서 명인은 자신과 자신의 친 구가 창작한 작품의 상연을 주재했다. 침착함과 힘과 품위의 기운을 발산하면서. 범속한 외침소리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가운데 그는 많은 시자들에 둘러싸인 채 축제장에 나타나, 근엄한 동작으로 자신의 유희의 한 막 한 막을 열었으며, 번쩍번 쩍 빛나는 황금색 철필로 자신의 앞에 있는 작은 흑판 위에다 우아한 동작으로 여 러 가지 기호를 차례로 썼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그 기호들이 유희 상형문자가 되 어, 백 배로 커진 채, 축제장의 뒷벽에 있는 거대한 흑판 위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낮은 소리로 이 기호들을 따라 읽었으며, 대변인들은 큰 소리 로 외쳐대었고, 송신기들은 국내로, 전 세계로 그 기호들을 전파로 내보내었다. 제 1막의 끝에 명인이 그 막을 요약하는 공식을 흑판 위에다 쓰고, 우아하면서도 인상 적인 자세로 명상규칙들을 제시하고, 철필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며, 모범적인

태도로 명상의 자세를 취했을 때에는, 그 축제장이나 연기자 마을이나 카스탈리엔 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도 유리알유희의 신봉자들이 경건 하게 앉아 똑같은 명상을 시작했으며, 축제장 안에서 명인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명상을 계속했다. 모든 것이 이전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과 같은 것 이었지만 모든 것은 감격적이고 새로웠다. 추상적이며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처 럼 보이는 유희의 세계는 지극히 유연해 한 인격의 정신과 목소리와 기질과 필치 에 수백 가지의 섬세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었으며, 그 인격은 지극히 위대하고 잘 개발되어 있어 자신의 착상들을 유희가 갖는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법칙성보 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 보조자들이요 공연자들인 선량들은 잘 훈련 된 군인들처럼 명령에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저 절을 함께하 고 있을 뿐이거나 명상을 하고 있는 명인의 둘레에 휘장을 둘러치는 일을 도와주 고 있는 것일 뿐인 경우에도. 각기 자신의 고유한, 자기 자신의 영감에 바탕을 둔 유희를 연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군중으로부터, 축제장과 발트첼 전 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인의 뒤를 따라 유희의 무한하면 서도 다차원적인 상상의 공간들을 환상적으로, 단계적으로 걷고 있는 그 수천 사 람들의 가슴으로부터 축제의 기본화음과 깊이 진동하는 낮은 종소리가 울려 나오 고 있었다. 이 기본화음과 낮은 종소리는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보다 소박한 사람 들에게 있어서는 그 축제 최고의 거의 유일한 체험이 되고 있었지만 노련한 유희 전문가들이나 비평가들인 선량들과 시자들과 지도자와 명인들에 이르기까지의 관 리들도 매우 경건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축제였다. 바깥세계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도 그 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 그것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참가한 사람으로서 이 며칠 동안에 영원히 유리알유희의 신봉자가 되어 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10 일간에 걸친 축제가 끝난 뒤 요제프 크네히트가 친구인 테굴라리우스에게 자신의체험을 요약해서 표현했던 다음과 같은 말은 좀 기이한 느낌을 준다. "우리는 만족해해도 될 걸세. 카스탈리엔과 유리알유희는 그야말로 대단한 것일세. 거의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일세.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완전한 것인지도, 너무 지

나치게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르겠네. 너무도 아름다워서 쳐다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마음이 될 정도일세.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걸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말은 본 전기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과제 중 가장 까다 롭고 신비스러운 부분으로 접근해 가게 만든다. 아마도 그는 앞으로 얼마 동안은 더 이 부분으로부터 떠나 있고 싶을 것이며, 우선은 명백하고 분명한 사정들이 가 져다 주는 안정된 기분과 느긋한 마음으로 크네히트의 성공과 그의 모범적인 직무 수행과 화려한 인생의 전성기에 대한 보고를 끝까지 계속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 나 이 존경하는 명인의 본질과 생활 속에 깃들어 있는 이원성이나 양극성을 그것 이 테굴라리우스를 제외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되었던 그 단계에 서부터 벌써 인식해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한 일이 될 것이며 또한 우 리의 대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부터는 크네히트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이 같은 분열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끊임없이 맥박치고 있 는 이런 양극성을 그야말로 존경하는 그 명인의 본질의 고유한 특징으로서 받아들 이고 긍정하는 일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카스탈리엔의 한 명인의 전기를 카 스탈리엔을 보다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성인의 생애란 의미에서만 쓰는 것이 허용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작가에게는 요제프 크네히트의 명인으로서의 재 임 기간에 대한 보고를 그 재임 말기의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온통 공적과 의 무완수와 성공을 영광스럽게 열거하는 형태로 형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발트첼에서 유희가 가장 애호 받았던 시대의 명인이었던 저 루드비 히 바서말러도 포함해서 어떤 유리알유희명인의 생애나 직무수행도 기록되어 있 는 사실에만 의거하는 역사가의 시각으로 볼 때 명인 크네히트의 생애와 직무수행 보다 더 완벽하고 더 찬양할 만한 것일 수가 없다. 하지만 크네히트의 이런 직무수 행은 아주 예사롭지 않고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니 많은 평가자들의 감 각으로 볼 때 추문이라고 할 수 있는 종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종말은 결 코 우연한 일이거나 불행한 사건이 아니었으며 그것은 전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였 다. 그러므로 이런 종말이 존경받는 그 명인의 빛나고 찬양할 만한 여러 가지 업적 이나 성공과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한 과 제가 될 것이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높은 직책을 훌륭하고 탁월하게 관리하고 대 변한 사람이며 나무랄 데 없는 유리알유희명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카스탈리엔의 영광을 위기에 처해서 사라져 가고 있는 위대성으로 보고 또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그랬 던 것처럼 아무런 예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카스탈리엔의 영광 속에서 살고 있 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카스탈리엔 의 영광의 유래와 역사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시간에 예속되어 있는 시간의 무자비한 힘에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는 역사 적인 존재로서 느끼고 있었다. 역사적 과정을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한 이 런 각성과,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인격과 활동을 생성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흐 르고 함께 활동하는 세포로서 자각하게 되는 것은 그의 역사 연구를 통해 위대한 야코부스 신부의 영향을 받아 그의 내부에서 성숙해지게 되었고 또 분명한 의식으 로 고양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소질과 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 하고 있었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인격을 진실로 생생하게 느끼게 된 사람이라면, 이 인생의 특징과 의미를 진실로 잘 추적해 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질과 싹 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했던 날들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의 첫 번째 축제유희를 마쳤을 때, 대단히 성공적으로 인상 깊게 카스탈리엔의 정신을 보여준 뒤 "카스탈리엔과 유리알유희는 언젠가는 다시 사라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네.—하지만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걸세"하고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일찍부터, 역사를 깊이 연구한 사람이 되기 한참 전부터도 그 내부에 어떤 세계감정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세계감정은 생성된 모든 사물의 무상성과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사물의 문제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소년 시절이나 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선생들을 실망시키게 되어 영재들을 떠나 다시 바깥세계의 보통 학교로 되돌아가게 되는 사정으로 인해한 동급생이 에쉬홀츠에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마다 그가 몹시 답답한 기분과 마음

의 동요를 느꼈다는 보고를 접하게 된다. 전해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퇴학 당한 학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린 크네히트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 다. 따라서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은 이러 저런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때문이, 즉 이런저런 학생이 퇴학을 당해서 떠나 갔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카스탈리엔의 질서와 카스탈리엔 의 완전함이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소년답게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 가볍게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점이 그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주의 영재학교에 입학한다 고 하는 행운과 은총을 맞게 되었으나 다시 그 은총을 놓쳐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 는 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명을 성스러우리만큼 진지 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점을, 비(非) 카스탈리엔적인 세계의 힘을 증명해 주는 어떤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어쩌 면--이를 확인해 볼 길은 없다.--바로 그런 사건들이 크네히트의 가슴속에 그 당 시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교육국의 무오류성에 대한 최초의 회 의를 불러내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교육국은 얼마 안 있어 스스 로 다시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학생들도 가끔씩 카스탈리엔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도, 즉 권위에 대한 비판의 최초의 움직임도 함께 작 용하게 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년 크네히트는 언제나 한 영재학생의 궤 도이탈과 송화을 하나의 불행한 사건으로서뿐 아니라 또한 당치 않는 일로서. 추 악한 오점으로서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오점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비난이었으며 전 카스탈리엔으로 하여금 책임을 함께 느 끼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학생 크네히트가 그런 기회에 가지게 되었 던 동요의 기분과 낭패감은 바로 이런 사실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주의 경계 너머 바깥에는 카스탈리엔과 그 법칙에 어울리지 않는 세계와 인간 생활이 있었다. 그것은 이곳의 질서와 계산법을 따르고 있지 않았으며. 이 질서와 계산법 에 의해 다스려질 수도 순화되어질 수도 없었다. 물론 그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도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도 자신이 따라야 할 법칙과 모순을 일으키는 본능이나 환상이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서서히 많은 노

력을 기울여 다스릴 수 있게 된 본능이었다.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본능이 상당히 강해지게 되어서 그것이 모든 경고와 처벌을 뛰어넘게 되고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을 카스탈리엔의 영재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즉 기율과 정신의 육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카스탈리엔적인 도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의 눈에 사악한 지하세계처럼, 유 혹적인 운동장이나 유흥장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 다시 데려갈 수 있 었다. 수세대 전부터 많은 어린 양심들은 죄의 개념을 바로 이런 카스탈리엔적인 형태로 경험하고 있었다. 역사는 이기주의와 본능 생활이 지배하는 이 죄의 세계 의 소재와 역동성이 없이는 생성될 수 없으며 종단과 같은 숭고한 조직체도 이 혼 탁한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또 언젠가는 그 흐름에 다시 휘말려 들어가게 되 리라는 사실을 그가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 성인이 되 어 역사를 잘 알게 된 때의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크네히트의 인생에서 나타났던 모든 강력한 운동이나 노력이나 동요의 바탕에는 바로 이 카스탈리엔 문제가 깔려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결코 사유상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그의 내심과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책 임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하고 신봉하는 이념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이 나 공동체가 병에 걸려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스스로 병이 나서 쇠약해지 고 죽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맥락에서 계속 더 살펴나가게 되면 우리는 크네히트의 초기 발트첼 시절, 즉 그의 마지막 학생 시절과,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가 있는, 청강 생 데시뇨리와의 그의 의미 깊은 만남을 접하게 된다. 카스탈리엔의 이상을 열렬 히 옹호하는 사람인 크네히트와 세속세계의 아들인 플리니오 사이의 이 같은 만남 은 학생 크네히트에게 있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격렬한 체험이었을 뿐만 아니 라 깊은 의미를 갖는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체험이기도 했다. 당시 크네히트는 그 중요하면서도 힘든 역할을 떠맡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연히 그에게 주어진 것처 럼 보였지만 이후의 그의 인생은 바로 그 역할을 새로이 떠맡게 되고 점점 더 완전 하게 그 역할에 성숙해져 간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만큼 그

의 전체 본질에 너무도 잘 부합하는 역할이었다. 카스탈리엔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이 역할을 그는 대략 10년 뒤 야코부스 신부를 상대로 다 시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유리알유희명인으로서도 끝까지 그 역할을 했다. 종단 과 그 법칙들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자로서의 역할이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배우 기 위해서 또 카스탈리엔의 봉쇄나 경직된 고립이 아니라 외부세계와 카스탈리엔 의 생기에 넘치는 협조나 대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노력했다. 데시뇨리와의 정신과 언변의 경쟁에 있어서는 아직 어느 정도 유희적인 것이었던 것이 후일 대단히 중요한 적수이자 친구인 야코부스를 상대로 했을 때는 심각하고 진지한 것이 되었다. 이 두 상대방에 대해 크네히트는 자신의 진가를 발 휘하였으며 그들과 대등하게 겨루었고 그들로부터 배웠다. 그는 논쟁과 교류를 통 해서 적지 않게 주고받았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크네히트는 상대방을 굴복시 키게—사실 애초부터 이것이 투쟁의 목표는 아니었다.—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 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대표하는 원칙이나 이상을 명예롭게 인정하도 록 강요할 수는 있었다. 박식한 베네딕트파 신부와의 논쟁이 로마교황청에 카스탈 리엔의 비공식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실제적인 결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게 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평소 카스탈리엔 바깥의 세계와 어떤 종류의 긴밀한 관계도 맺어 오지 않고 있었던 크네히트는 플리니오 데시뇨리와의 투쟁적인 우정관계를 통해 그 현명하고 늙은 신부와의 교류를 통해 그 세계에 대해 어떤 지식을, 아니 어떤 예감을 가지게되었는데, 카스탈리엔에는 이런 지식이나 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별로 없었다. 그것도 사실 진정한 세속 생활의 모습을 알게 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지만마리아펠스에 체재했던 것을 예외로 한다면 크네히트는 초기 유년 시절을 빼고는이 세속 생활을 보거나 함께 체험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러나 데시뇨리를 통해서, 야코부스를 통해서 역사연구를 통해서 그는 이 현실세계에 대해 생생한 예감을 얻게 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직관에 의한 것이며 경험을 별로 동반하지 않는 예감이었지만 그것은 당국의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카스탈리엔 사람들보

다도 그를 더 지혜롭게, 세속 생활에 더 개방적이게 해 주었다. 언제나 그는 진정 하고도 충성스러운 카스탈리엔 사람이었으며 또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다. 하 지만 그는 카스탈리엔이 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까다롭고 문제 많은 성격의 소유자이며 섬세한 기교를 자랑하는 유리알유 희연기자이고, 지나치게 세련되고 겁이 많아 옛날 마리아펠스를 잠시 방문했을 때 거친 베네딕트파 수도사들 사이에서 너무도 끔찍하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되어 그곳에서는 한 주일도 견뎌낼 수 없겠다고 말하고서는 그 곳에서 2년을 끄떡없이 견뎌내었던 친구 크네히트를 찬탄해 마지않았던 철저한 카스탈리엔 사람인 프리 츠 테굴라리우스와의 우정은 어떠한 사정에 있는 것이었던가? 우리는 이 우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다. 그중 많은 생각들은 다시 버릴 수밖에 없었 으나 몇몇 가지 생각들은 타당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런 생각들은 모두 다년간에 걸쳐 계속된 이 우정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었던 가 하는 물음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작해야 베네딕트파의 신 부인 야코부스와의 우정을 제외하고는 크네히트의 모든 우정관계에 있어서 그가 우정을 찾고 구하고 필요로 하는 쪽이 아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스 스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끌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고 부러움을 사 고 사랑을 받았다. 순전히 그가 지닌 귀족적인 풍모 때문이었는데, 그의 '각성'의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그 자신 이런 재능을 의식하고 있기도 했다. 벌써 초기 연구 생시절의 일이지만 테굴라리우스 역시 그를 찬탄하고 그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 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그에 대해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여러 사 정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이 친구를 진실로 좋아했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크네히트가 그 친구한테서 어딘가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단순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비범한 재능이나 지칠 줄 모르는, 특히 유리알유희의 모든 문제에 통 달하고 있는 그 천재성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크네히트의 강력하고도 지속 적인 관심은 친구의 그 훌륭한 재능에 대해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그 친구가 가 진 결함이나 약점에도 주어지고 있었다. 테굴라리우스를 다른 발트첼 사람들에게 성가신, 때로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점에 크네히트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불가사의한 사람은 너무도 철저하게 카스탈리엔 사람 이라 그의 전 존재방식은 카스탈리엔 주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카스탈리엔 주의 분위기와 높은 교양에 너무도 깊이 젖어 있어서, 그의 그 까다로 은 기질이나 기묘한 성격만 아니었더라면 그를 바로 최고의 카스탈리엔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최고의 카스탈리엔 사람은 동료들과 잘 어울리 지 못했으며,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관리들로부터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다. 언 제나 성가신 존재가 되었으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 그러므 로 용감하고 현명한 친구의 보호와 지도가 없었더라면 테굴라리우스는 아마도 일 찍 파멸로 이르고 말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의 병이라고 불렀던 것은 결국 따지 고 보면 하나의 악덕, 불경스런 태도, 성격적 결함 같은 것이었다. 위계질서 같은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마음가짐과 생활태도였다. 테굴 라리우스는 종단 내에서 용인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현재의 질서 에 순응했다. 학식에서뿐만 아니라 유리알유희 예술에서 지칠 줄 모르고 또 결코 만족해하는 법이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다방면에 걸친 정신인 한에 있어서 그 는 훌륭한, 아니 탁월한 카스탈리엔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즉 계층조직과 종단규율에 대한 태도의 면에 있어서는 매우 평범한, 아니 좋지 못 한 카스탈리엔 사람이었다. 테굴라리우스의 악덕 중에서 가장 큰 악덕은 지속적 으로 명상을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이었다. 명상의 의의는 바로 개인을 보다 큰 질서 속에 편입시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만약 그가 명상을 정성껏 했더라면 아마 도 그는 그의 신경병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생활태도와 흥분 되거나 우울한 기분으로 얼마 동안 보낸 까닭에 그가 상사들에 의해 벌로서 감시 가 따르는 엄격한 명상연습을 강요받게 되었을 때마다 명상은 다소 개별적인 면에 서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명상은 호의적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 었던 크네히트도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다. 그러나 테굴라리우스는 결코 그렇지 가 않았다. 테굴라리우스는 고집이 세며 변덕스럽고 큰 질서 속에 진지하게 편입 되는 것에는 아무런 의사나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다. 언제나 활발한 정신으로 넘 치고. 비관적인 재치가 번득여 어떤 사람도 그 대담하고 때로 어두우면서도 화려 한 그의 착상들을 피할 수가 없는 흥분된 시간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키기도 했지만 테굴라리우스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도대체가 그는 치유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테굴라리우스는 조화와, 질서에의 편입 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자신의 자유와 영원한 연구생 생활만을 사랑하고 있 었다. 계층조직에의 편입의 길을 걸어 평화의 경지에 도달하기보다는 평생 괴로 위하는 자, 예측할 수 없는 자, 제 고집대로 사는 독행자, 천재적인 바보, 허무주 의자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었다. 그는 평화로운 경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 고 있었고, 계층조직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나 고립되어지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있었다. 조화와 질서를 이상으로 삼 는 한 공동체 내에서 극도로 불편하고 동화시키기 힘든 존재였다. 그러나 바로 이 처럼 까다롭고 동화시키기 힘든 존재임으로 해서 그는 명확하게 질서 잡힌 한 작 은 세계 내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불안요인이고 비난이고 화기고 경 고였으며, 새롭고 대담하고 금지되어 있고 오만한 생각들을 갖도록 자극하는 사람 이었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난 한 마리 버릇없는 숫양이었다. 바로 이런 점 때문 에 테굴라리우스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친구 크네히트의 마음을 끌 수 있었 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테굴라리우스에 대한 크네히트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언제나 연민의 정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위기에 처해 있으며 대개 의 경우 불행한 테굴라리우스는 친구 크네히트의 온갖 기사도다운 감정에 대해 호 소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크네히트가 명인의 직에 오른 뒤에도 업무 와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 찬 직무 생활의 와중에서 그 우정관계를 계속 유지시키 게 된 충분한 이유는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테굴라리우스는 크네히 트의 생애에 있어 데시뇨리나 마리아펠스의 신부에 못지않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 한 존재였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테굴라리우스는 그 두 사람과 꼭 마찬가지로 각 성시키는 요소로서, 새로운 전망을 향해 열려 있는 작은 창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크네히트는 이 기묘한 친구한테서 특 정 유형의 대표자를 감지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또한 의식적으 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유일한 선구자적인 인물을 통해서 외에는 아직 존 재하지 않고 있었던 유형이었다. 새로운 접촉이나 자극을 통해 카스탈리엔의 생활 이 젊고 힘찬 기운을 얻을 수 없게 될 경우 장차 카스탈리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 유형의 카스탈리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고독한 천재들과 마찬가지로 테굴 라리우스는 하나의 선구자였다. 그는 실제로 아직 존재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일이 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카스탈리엔에서 살고 있었다. 바깥세계에 대해 더욱 폐쇄 적이며, 명상적인 종단규율의 노화와 이완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 는 그런 카스탈리엔에서, 최고도로 비상하는 정신과 높은 가치들에 대한 더할 나 위 없이 깊은 헌신이 여전히 가능은 하지만 고도로 개발되고 거침이 없이 부동하 는 정신이 고도로 배양된 그 능력들을 스스로 즐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떠한 목 표도 가지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다. 크네히트에게 있어 테굴라리우스 는 카스탈리엔적인 최고의 능력의 화신이면서 동시에 그 능력의 도덕적 타락과 파 멸을 경고하는 전조였다. 이런 프리츠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도 소중한 일이었다. 그러나 카스탈리엔이 온통 테굴라리우스 같은 인물들이 살게 되는 꿈의 왕국으로 용해되어 버리는 일은 막아야 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아직 요 원한 것이지만 존재하고는 있는 것이었다. 크네히트가 알고 있는 카스탈리엔이 그 고귀한 고립의 장벽을 조금만 더 높이 쌓게 되면. 거기에다 종단규율의 붕괴와 위 계적인 도덕의 타락이 덧붙여지게 되면, 테굴라리우스는 더 이상 기이한 개인이 아니라 타락하고 파멸해 가고 있는 카스탈리엔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이 미래 의 카스탈리엔 사람이 그 자신과 극히 가까운 사이로 그의 곁에서 살고 있지 않았 더라면 아마도 명인 크네히트는 그런 파멸의 가능성이, 아니 그 시작이나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는 중요하기 짝이 없는 인식이나 우려를 훨씬 뒤에 가지게 되었거나 아니면 끝내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크네히트의 맑게 깨어 있는 의식 으로 볼 때 이 미래의 카스탈리엔 사람은 하나의 징조이고 하나의 경고이자 부름 이었다. 그것은 현명한 의사에게 있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병에 걸린 최초의 환자 와 같은 존재였다. 더군다나 프리츠 테굴라리우스는 결코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었 다. 그는 높은 수준의 재능을 갖춘 귀족적인 풍모의 사람이었다. 선구자 테굴라리 우스에게서 처음으로 드러나게 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병이 장차 확산되어 카스탈리엔 사람의 모습을 바꾸어 놓게 되면, 주와 종단이 장차 타락하고 병든 모습을 지니게 되면, 미래의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순수하게 테굴라리우스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 것이었다. 그들은 테굴라리우스의 그 소중한 재능들과 우수가 깃들은 천재성과 가물거리는 기교자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그의 불확실한 태도와 도락에 치우치는 경향과 기율과 공동체의식의 결여만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근심이 많은 시간에 크네히트는 아마도 이런 암울한 환상과 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며, 명상을 통해서나 고양된 활동을 통해 이런 환상과 예감을 극복함에 있어서 그는 분명히 많은 힘이 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 테굴라리우스의 경우는 또한 우리들에게 크네히트가 자신에게 닥쳐오는 문제나 어려운 일이나 병적인 사태를 결코 피하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방식 에 대해 대단히 훌륭하고도 교훈적인 예를 보여 준다. 크네히트의 주의와 세심한 배려와 교육자적인 지도가 없었더라면 위기에 처한 그의 친구는 아마도 일찍 파멸 하고 말았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연기자 마을에서는 그 친구로 인해서 틀림없이 많은 장애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사실 그 친구가 연기 자 선량들의 일원이 되고 난 직후부터 이미 그런 장애와 어려운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터였다. 친구가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어지간히 잡아둘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유리알유희에 봉사하는 형태로 사용하며 고귀 한 업적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승화시키는 데 있어서 명인 크네히트가 보여주었 던 기교와. 친구의 변덕과 기이한 행동들을 견뎌내고 그 친구의 본질 속에 깃들어 있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지침이 없이 호소함으로써 극복해내는 데 있어 그가 보 여 주었던 신중하면서도 참을성 있는 태도를 우리는 인간치료의 걸작으로서 찬탄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크네히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개최되었던 연 례유희들을 그 문체상의 특징의 면에서 한 번 자세하게 연구하고 분석해보는 일은 훌륭하고, 또 어쩌면 많은 놀랄 만한 인식들을 가져다 주는 과제가 될 것이다. —우 리는 이런 과제를 유리알유희를 연구하는 우리의 한 역사가의 가슴속에 진지하게 심어 두고 싶은 마음이다. —그것은 기품이 넘치면서도 소중한 착상이나 표현이 번 득이는 유희들이었으며, 화려할 뿐 아니라 리듬의 면에서 그토록 독창적이면서도 대가연하며 으스대는 태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유희들이었다. 이 유희들의 기본 계획과 구조는 연결되는 명상을 지도하는 일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크네히트의 정신적 소산이었지만 그 세부적인 장식과 유희기법상의 세공은 대부분 그의 보조 자인 테굴라리우스의 작품이었다. 이런 유희들이 사라져 버리고 잊히게 되었다 하 더라도 그때문에 크네히트의 생애와 활동은 그것이 후세 사람들에게 대해서 갖게 되는 매력과 본보기로서의 힘을 그렇게 많이 잃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행스럽 게도 그러나 이 유희들은 사라져 버리지 않았다. 모든 공식 유희들과 마찬가지로 이 유희들도 기록이 되어서 보존되고 있다. 기록관에 사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도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젊은 연구생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 고 많은 유희 강좌나 세미나에 대해 훌륭한 보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유희들 을 통해서는 또한 저 보조자 테굴라리우스도 계속 살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잊혀 버리게 되었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이런 저런 일화들을 통해 유령처럼 돌아다니게 되는 기묘한 과거의 인물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처럼 크 네히트는 질서에 편입시키기 힘든 자신의 친구 프리츠에게 어떤 자리와 활동분야 를 지정해 줄 수 있음으로 해서 발트첼의 정신적인 재산과 역사를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더 풍요롭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친구의 인물과 기억에 어떤 영 속성을 확보해 주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일이지만 위대 한 교육자 크네히트는 친구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함에 있어서 교육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수단은 바로 친구의 사랑 과 찬탄이었다. 찬탄과 사랑을, 크네히트의 강하고도 조화로운 인격과 그의 지배 자다우 풍모에 대한 열광을 명인 크네히트는 프리츠한테서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다른 경쟁자들이나 제자들한테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호 의적이고 유화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행사하게 되었던 권 위와 영향력을 자신의 높은 관직에 근거해서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사랑과 찬탄 의 토대 위에서 구축했다. 크네히트는 다정한 태도나 인정이 담긴 친절한 말 한 마 디가, 무관심한 태도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가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다. 크네히트의 열렬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어느땐가 크네히트가 강좌와 세미나에서 일주일 동안 자신과 한 마디의 말도 나누지않고 자신을 전혀 보고 있지 않는 듯 자신을 공기처럼 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그의 전체 제자 시절에 그가 체험한 가장 가혹하면서도 효과적인 벌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우리가 이상과 같은 고찰들과 회고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시론 적 전기를 읽고 있는 독자로 하여금 이쯤에서 크네히트의 인격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양극적 근본경향을 이해하게 하고. 크네히트의 인생의 절정기에 이르기까 지 우리의 설명을 따라온 독자에게 그 다채로운 이력의 마지막 단계들에 대한 마 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인생의 두 가지 근본 경향 또는 극은, 그것의 음과 양은 한편에서의 보존과 충성. 자신을 돌보지 않는. 계층조직에 대한 봉사의 경향과, 다른 한편에서의 '각성'과 전진, 현실세계의 파악과 이해에 대한 경향이었 다. 경건하고 봉사적인 요제프 크네히트에게 있어서 종단과 카스탈리엔과 유리알 유희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어떤 것이었다. 그러나 각성하고 밝게 내 다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요제프 크네히트에게 있어서 그것들은, 그것들이 갖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고 투쟁으로 얻어지고 그 존재형식에 있어 변화 가능 하고 노화와 불임과 파멸의 위험에 내맡겨져 있는 형성물들이었다. 크네히트는 이 런 형성물들의 이념은 언제나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한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들이 그때그때 보여주는 상태들은 무상하고 또 비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한 정신적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면서 그 힘과 의미에 대해 서는 찬탄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순전히 그 자체가 목적인 것으로 여기며, 전체 나 라나 세계 내에서의 자신의 과제나 협력을 망각하고, 끝으로 찬란하기는 하나 점 점 더 비생산적인 것으로 치닫고 있는. 전체 생으로부터의 분리 속에서 영락해 가 는 경향에서 그 위험을 보고 있었다. 이런 위험을 그는 전적으로 유리알유희에 몰 두하게 되는 것에 대해 주저하고 또 그것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던 그 옛날에 이 미 예감했다. 이런 위험을 그는 수도사들과, 특히 야코부스 신부와 토론을 하는 중 에, 물론 그는 그들에 맞서 카스탈리엔을 적극 옹호했지만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닫 게 되었다. 이런 위험은, 그가 다시 발트첼에서 살게 되고 또 유리알유희명인이 되 고 난 이후, 여러 가지 명백한 징후들을 통해서, 많은 관리들이나 자기 자신의 관 리들이 보여주는, 충성스럽기는 하나 세상사로부터는 등을 진 순전히 형식적인 업 무방식에서, 발트첼 복습과정지도교사들의 재치 있기는 하나 오만한 전문가적 태 도에서 무엇보다도 테굴라리우스의 그 감동적이면서도 섬뜩한 모습에서 끊임없 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어려웠던 재임 첫 해를 보낸 뒤에 이제 크네히트는 역사 연구도 다시 하게 되었 다. 크네히트는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카스탈리엔의 역사를 깊이 연구했으며. 그럼으로써 카스탈리엔이 그 주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 에 놓여 있지 않으며, 특히 외부세계에 대한 주의 관계가, 즉 주와 세속 생활이나 정치나 나라의 교육과의 상호작용이 수십 년 전부터 퇴보의 길에 접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론 교육국은 학교제도나 교육제도의 문제들과 관련해 서 아직까지는 연방의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물론 주는 여전히 나라에 다 유능한 선생들을 공급해 주며, 학문의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그 권위를 행사하 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습관과 기계적 타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카 스탈리엔의 여러 영재 학교 출신으로서 카스탈리엔 밖의 학교에서 봉직하기를 열 렬히 자원하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와 그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다. 과 거에는 카스탈리엔의 견해가. 예를 들어 중요한 송사에 있어서도 즐겨 청문이 되 었던 것이었지만 이제 나라 안의 관청들이나 개인들이 카스탈리엔에서 조언을 구 하게 되는 경우는 점점 더 드물어지게 되었다. 카스탈리엔의 교육수준과 바깥 나 라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것들은 결코 서로 접근해 가 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극단적인 방법으로 서로 갈라져 나가고 있었다. 카스탈리 엔의 정신이 더 다듬어지고 세련되고 과도하게 훈련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바깥 세계는 그 주를 주인 채로 내버려두고, 그것을 어떤 꼭 필요한 존재나 일용할 빵 같은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이물질로 생각했다. 어떤 골동품에 대해서 처럼 그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따라서 당분간은 또한 그것을 버려 버

리거나 없이 지내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즐겨 거리를 유지하며, 그 내 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실천적인 생활에 더 이상 제대로 어 울릴 수 없는 정신 상태나 도덕이나 자아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게 되는 이물 질로서 생각하게 되었다. 이 교육주의 활동에 대한 바깥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특 히 유리알유희도 포함해서 교육주의 여러 제도들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바깥 나 라의 생활이나 운명에 대한 카스탈리엔 사람들의 관심과 꼭 마찬가지로. 퇴보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크네히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유리알유희명인인 자신이 연기자 마을에서 오로지 카스탈 리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과만 상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근심거리 였다. 이때문에 크네히트는 초보자들을 위한 강좌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 려고 노력하였으며, 가능한 한 어린 학생들을 가까이에 두기를 바랐다.—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학생들은 아직 전체 세계나 인생과 그만큼 더 결합되어 있는 반 면에 그만큼 덜 길들여지고 전문화되어 있었다. 때때로 크네히트는 바깥세계와 사 람들과 소박한 생활에 대해 타오르는 그리움을 느꼈다. —이런 소박한 생활은 저기 바깥 미지의 세계 속에 아직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도 가끔씩 그 리움 같은 것을, 공허감이나, 공기가 너무 희박해진 공간 내에서 살고 있는 것 같 은 기분 같은 것을 느껴볼 수 있었다. 교육국도 사실 이 어려운 문제를 잘 알고 있 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휴련이나 놀이를 강화시키는 것을 통해 서나 여러 종류의 수공업적 일이나 정원 일을 시도해 보는 것을 통해 그 결함을 해 소하기 위해서 교육국은 적어도 그때그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했다. 우리가 올바르게 관찰한 것이라면, 근년에 들어와 종단본부에서는 지나치게 훈련 된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전문화된 학문추구 방법들을 파기해 버리려는 경향 도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명상실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가 우리보 다 한참 앞서서 우리 공화국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기구를 노화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개혁이 요구되는 조직으로서 인식한 것이기는 했지만 요제프의 견 해에 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의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옳지 못한 종단 단원일 필요는 없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리알유희명인의 직위에 재임한 둘째 해부터 크네히트 는 다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도 카스탈리엔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 외에. 야코부스 신부가 베네딕트파의 종단에 관해서 저술했던 크고 작은 모든 책 들을 독파하는데 주로 몰두했다. 크네히트는 뒤보아 씨와, 당국의 회의가 있을 때 마다 항상 서기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코이퍼하임의 한 문헌학자와 더불어 역사적 관심을 대화를 통해 마음껏 표출하거나 또는 그런 관심들이 새로운 자극을 받게 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원기를 돋우어 주는 반가운 일이며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일상 접하는 주위 사람들 사이에서 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이 보이는 불쾌감 은 그의 친구 프리츠의 존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런 대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한 메모지를 발견하게 되 었는데, 이 대화에서 테굴라리우스는 격정적으로 카스탈리엔 사람에게 있어 역사 는 전혀 연구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분명히 우리는 재치 있고 유쾌한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대단히 격정적인 방식으로 역사해석 과 역사철학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철학들과 마찬가지로 즐거운 일입 니다. 누군가가 그런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면, 저는 그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 니다. 하지만 그 물건 자체는, 그런 즐거움의 대상은, 역사는 너무도 추잡하고 진 부하고 악마적이고 추악하고 지루한 것이라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에 몰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이기심과 영원히 똑같은. 영원히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영원히 스스로를 찬양하 는 투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권력을, 물질적이며 잔인하고 동물적인 권력을 얻기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카스탈리엔 사람의 관념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최소한의 가치조차도 지니지 못하는 그런 물건을 위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 다. 세계사는 강자들이 약자들을 강탈하는 것에 관한,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신과 긴장감이 결여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진정한 역사를, 다시 말씀 드려 시간을 초월해 있는 정신의 역사를 공명심에 찬 인간들이나 야심가들의, 권 력과 태양의 옆자리를 얻기 위한 그 세상만큼이나 오래되고 우둔한 싸움질과 연결 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것으로부터 설명하려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정신 에 대한 반역이며, 저로 하여금 19세기나 20세기에 널리 세력을 펼치고 있었던 어 느 종파를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일찍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 종파는, 옛 민족들이 신들에게 올린 제사와 그 신들과 그들의 사원과 그들에 관한 신화는 다 른 모든 훌륭한 현상들이나 마찬가지로 먹을거리와 일거리의 계산 가능한 과다의 산물이고 노동임금과 빵 값에서 추산될 수 있는 긴장감의 결과이었으며, 예술이 나 종교는 가상적인 모습이고. 오로지 기아와 탐욕에만 매달리고 있는 인류를 은 폐하고 있는 이른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아주 진지하게 믿고 있었습 니다."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던 크네히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 신과 문화와 예술의 역사는 일반 역사나 다른 부분의 역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 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한 번 슬쩍 물어보았다. 그러자 친구는 격한 어조로 말을 받 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을 저는 부인합니다. 세계사는 시간 속에서의 경주이며,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한 질주입니다. 거기에서는 언제나 누가 힘 이나 행운이나 야비한 태도를 충분히 가져서 호기를 놓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행위와 문화적 행위와 예술적 행위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시간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그 본능과 태만의 더러운 구렁텅이를 떠나 다른 차원으로, 다시 말씀드려 초시간적인 것, 시간으로 부터 해방된 것, 신적인 것, 철두철미 비역사적이며 반역사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네히트는 친구의 말을 즐거운 기분으로 듣고 있었으며, 결코 재치가 없는 것도 아닌 그 격렬한 말을 좀 더 계속하도록 친구를 부추겼다. 그러다 크네히트는 이렇게 말을 하며 대화를 조용히 마무리했다. "정신과 그것의 활동에 대한 자네의 사랑에 정말 놀랐네. 그러나 정신적인 창조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닐세. 플라톤의 대 화편이나 하인리히 이자아크의 합창곡 악장이나 또는 우리가 정신적 행위니 예술 작품이니 객관화된 정신이니 하고 부르고 있는 모든 것은 순화와 해방을 얻기 위 한 투쟁의 최종적 산물, 마지막 결과일세,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들은, 자네도 그렇 게 말하고 있지만 시간으로부터 초시간적인 것에로의 탈출일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작품들은 완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 앞서 있었던 투쟁과 노력에 대 해 더 이상 아무것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네. 우리가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일세. 사실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그런 작품들에 의지해서 살고 있네. 우리들은 사실 이런 작품들을 재생산하는 것 외에 는 달리 더 이상 창조적일 수 없는 것일세. 바로 이런 작품들로써 이루어지고 있으 며 또 이런 작품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초시간 적이고 투쟁이 없는 피안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늘 살고 있는 것일세. 우리는 정신 적인 것으로의 승화함에 있어서. 자네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면. 또는 추상화 함에 있어서 계속 더 멀리 나아가고 있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유리알유희에 서 현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남긴 그 작품들을 그 세부 부분들로 분석하고, 그들 작 품들로부터 문체상의 규칙들과 형식상의 구조와 승화된 해석들을 도출해내며, 그 작품들이 마치 구성 요소들이기라도 한 듯 이런 추상화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네. 그렇다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네. 자네한테 이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평생토록 추상화만 호흡하고 먹고 마 실 수는 없는 것일세. 발트첼의 한 복습과정지도교사가 자신의 관심을 기울일 만 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역사는 이 한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네. 역사 는 현실세계를 문제로 삼는다는 점 말일세. 추상화는 매력적인 것일세. 하지만 나 는 사람은 공기도 마시고 빵도 먹어야 한다는 견해에 찬동하네."

크네히트는 때때로 시간을 내어서 백발이 성성해진 노(老)음악명인을 잠깐씩 방문했다. 존경하는 노인은 이제 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또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명랑하고 차분한 상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병이 든 것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보통의 죽음과는 아주 달랐다. 그것은 탈 물질화 현상의 진행이었으며, 가라앉아 들어가는 노인의 얼굴의 눈빛과 잔잔히 흘러나오는 기운 속에 생명이 점점 더 강하게 모여드는 가운데 육체적인 실체와 기능들이 소멸해 가는 것이었다. 몬테포르트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순수하며 자신을 돌보지 않는 한 인생의 이런 저녁들과 여려져

가는 빛에 어느 정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된 사람은 크네히트나 페 로몬테 젊은 페트루스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와 정신을 가다듬고서 노명인이 긴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작은 방 안으 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부드럽게 사라져 가고 있는 그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 었으며 말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완성의 경지를 함께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런 복된 순간들이면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찬란한 빛줄기들의 세계 속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 영혼의 수정과도 같은 세계 속에서 머물게 되었으며 현세적인 것을 초 월한 음악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마치 높은 산의 꼭대기에서 돌아오기라도 하듯 정화되고 강화된 마음으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크네히트는 노명인의 부음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서둘 러 그리로 갔으며 고요히 영면한 노명인이 자리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다. 작 은 얼굴은 오그라들고 가라앉아 조용한 루네 문자가. 아라베스크 무늬가. 신비스 러운 형상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 뜻을 해독할 길은 없었으나. 미소와 완성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다. 무덤 옆에서는 음악명인과 페로몬테에 이어 크네히트도 추도사를 했다. 크네히트는 해탈한 음악의 현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위대한 스승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최고위 당국의 자상하고 현명하며 최고 연장자인 종단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다. 크네히트는 노명 인의 고령과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은총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노명인의 모습을 통해 노명인의 최후의 며칠을 함께 지켜보았던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던 정 신의 불멸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할 뿐이었다.

여러 차례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었던 까닭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크네히트는 노명인의 전기를 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직무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가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이런저런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는 여유가 더 이상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언젠가 크네히트는 자신의 한 복습과정지도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이 누리고 있는 넘치는 자유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자네들 연구생들이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일세. 하지만 내가 아직 연구생이었던 시

절에는 나도 그러했었네. 연구하고 공부하며 빈둥거리지 않고 스스로를 부지런하다고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많은 자유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지. 그러다 갑자기 당국의 부름을 받게 되지. 일을 맡게 되는 것이네. 교수직이나 사명이나 직무를 얻게 되는 것일세. 이때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과제와 임무의 그물 속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그물은 그 안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더 가까이, 더 촘촘히 죄어들게 되지. 온통 자질구레한 과제들이지만 모든 과제는 제때에 맞춰 할 수밖에 없네. 하루의 업무는 시간에 비해 훨씬 많은 과제들을 안겨준다네. 이런 사정이 나쁠 것은 없네. 달라져서도 안 될 일이고 말일세. 그러나 강의실과 기록관과 사무실과 접견실을 오가고 회의에 참석하고 출장을 떠나는 사이사이에 잠시 한 번 한때 가졌으나 잃어버리게 된 그 자유, 하고 싶은 일뿐 아니라 아무런 제한이 없는 폭넓은 연구를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생각하게 되면, 문득 그 자유가 몹시 그리워지고 또 이런 상상도 해 보게 된다네. '다시 한 번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가능성을 실컷 한 번 즐겨 보련만' 하는 상상 말일세."

자신의 제자들이나 관리들을 계층조직에 봉사하도록 적응을 시키는 데 있어 크네 히트는 아주 섬세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어떤 임무를 맡기거나 보직을 할 때마다 크네히트는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서 썼다. 크네히트가 사람들의 점수나 성격을 기록해 둔 책을 보면 우리는 그의 판단이 대단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판단은 언제나 일차적으로는 사람의 됨됨이나 성격과 관련되었다.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들을 평가하거나 다루는 것이 문제가 될 때면 사람들은 또한 즐겨 그에게서 조언을 구했다. 예를 들어 노(老)음악명인의 마지막 애제자였던 연구생 페트루스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일종의 은밀한 광신자였던 이 젊은이는 존경하는 노(老)음악명인의 시자(侍者), 간호사 숭배의 염에 찬 제자로서의 그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러나 노명인이 서거함에 따라 그런 역할이 자연스레 종말을 맞이하게 되자 페트루스는 당장에 우울증에 빠지고 비통한 기분에 젖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런 기분을

이해하고서 얼마 동안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하지만 이런 우울증과 비통한 기분이 보이는 여러 가지 징후들은 얼마 안 가서 당시의 몬테포르트의 수장이었던 음악 명인 루드비히로 하여금 심각한 우려를 갖게 했다. 페트루스는 영면에 든 노명인 의 노년의 거소였던 암자에서 계속 살겠다고 고집했다. 페트루스는 그 작은 집을 지키며 그것의 가구와 정돈된 상태를 이전과 꼭 같이 유지하고. 특히 서거한 노명 인이 임종했던 긴 의자와 임종 침대와 쳄발로가 있는 거실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 는, 자신이 지켜야 할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유품들을 세심하게 보존하 는 것 외에 페트루스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은 존경하는 명인이 쉬고 있는 무덤 을 돌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기억의 장소들 옆에서 평생 동안 계속 서거 한 노명인을 경배하고, 이 장소들을 성당기사처럼 성소로서 지키며, 또 이 장소들 이 순례지가 되는 것을 보는 일에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장례식이 있 고 난 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했었다. 그러다가는 노명인이 말기에 그 러했던 것처럼 드물게 하는 극히 작은 양의 식사에 만족했었다. 페트루스는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명인의 뒤를 이어받고 또 그를 따라 죽어 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와 같은 상태를 오랫동안 견뎌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페트 루스는 자신을 집과 무덤의 관리자로서. 기억의 장소들의 영원한 관리인으로서 보 여 주게 되는 그 행동으로 넘어갔다. 이 모든 사실들로부터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 는 바이지만 고집이 셀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매력적인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이 젊은이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 그 럼으로 해서 결코 다시는 일상적인 일로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다. 어쩌면 그는 내심으로 자신이 더 이상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페로몬테의 한 메모에는 "이전 노명인의 시자였던 그 페트루스 는 머리가 돌았어"라고 하는 짧고도 냉담한 평이 적혀 있다.

물론 몬테포르트의 이 음악연구생은 발트첼의 유희명인 크네히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존재였다. 크네히트는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어서 몬테포르트의 문제에 관여해 자신의 일을 더 늘리고 싶은 욕구를 분명히 전 혀 느끼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 강제로 그의 암자에서 쫓겨날 수밖 에 없었던 이 불쌍한 페트루스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비통한 기 분과 혼란한 마음으로 인해 고립과 현실감 상실의 상태에 빠져 들어가 있었다. 이 런 상태에 있는 페트루스에게 규율을 어겼을 때 보통 적용하게 되는 조치들을 취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크네히트가 호의적 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그의 상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명인의 사무 실로부터 크네히트에게 조언과 관여를 부탁하는 청원서가 오게 되었다. 그러는 사 이에 규율을 어긴 연구생 페트루스는 일단 병이 난 것으로 간주되어 감시를 받는 가운데 병동의 한 입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처음 이 어려운 문제에 차라리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 고, 그 결과 도움을 주는 일을 한 번 해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된 다음에는 세찬 기 세로 그 문제와 대결했다. 사람들이 페트루스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여 겨서 그 혼자 여행을 하도록 해 준다면 그를 시험 삼아 받아들이겠다고 크네히트 는 제안했다. 크네히트는 그 젊은이에게 보내는 짤막하고도 다정한 초대편지도 동 봉했는데, 편지에서 크네히트는 젊은이에게 이리 오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면 잠시 동안 자신을 방문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서, 노명인의 마지막 날들에 관 해 그로부터 여러 가지 유익한 설명들을 듣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몬테포르트의 의사는 주저하는 태도로 동의했다. 사람들은 연구생 페트루스에게 크네히트의 초 대장을 전해 주었다. 좋지 못한 상태에 깊이 빠지게 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그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빨리 떠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일일 것 이라고 크네히트가 정확하게 짐작했던 대로 페트루스는 곧바로 여행을 떠나겠다 고 말했으며, 더 이상 거절함이 없이 제대로 식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페트루스 는 여행증을 받아 출발을 했다. 페트루스가 발트첼에 도착했을 때에는 상태가 꽤 좋아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그의 태도에서 비치는 불쾌하고 침작하지 못한 기색은 크네히트의 지시에 따라 무시되었다. 그는 기록관의 내방객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 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벌 받아야 할 사람이나 온전하지 못한 사람 또는 어떤 식으로든 질서를 벗어난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는 그렇게 심하게 병이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마음에 드는 이 분위기를 높이

평가할 수 있었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삶으로의 귀로를 이용할 수가 있었 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몇 주일 머무르는 동안 그는 명인 크네히트에게 대단히 성 가신 존재였다. 크네히트는 노(老)음악명인의 마지막 음악 연습과 연구에 대해 기 록을 하도록 하는 형태로 가장해서 일을 시키고 또 그것을 항상 감시함으로써 그 에게 한 가지 과제를 부여했으며, 이와 더불어 계획적으로 그에게 기록관에서 자 질구레한 막일을 시키도록 했다. 페트루스는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도와줄 사 람들이 없어서 그러니 시간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궤도를 이탈한 그 젊은이가 다시 길을 제대로 찾도록 도와주었다. 페트루스가 평상심을 되찾아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보였을 때야 비로소 크네히트는 몇 차례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그에게 교육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며, 서거한 노명인에 대한 우상숭배 는 성스러운 우상숭배이며 또 카스탈리엔에서 허용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망상을 완전히 깨부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몬테포르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페트루스가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회복된 것처럼 보 였을 때 그에게 한 가지 일을 마련해 주었다. 한 하급영재학교에서 음악선생 보조 로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서도 페트루스는 훌륭한 태도를 보였다.

크네히트의 교육자적이며 심령의학자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찍이 크네히트 자신이 노(老)음악명인을 통해서 그러하게 되었던 것과 비슷하게 그의 인격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힘을 통해 진정으로 카스탈리엔적인 정신에 입각한 생활을 하도록 감화를 받았던 젊은 연구생들의 수도 적지 않다. 이 모든 예들은 유리알유희명인 크네히트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예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격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페트루스나 테굴라리우스와 같이 불안정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존경할 만한 명인 크네히트의 애정에 넘치는 노력은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병적인 상태나 연약한 기질에 대해 특별한 주의력과 민감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처음으로 각성을 하게 된 이후 결코 다시는 그것이 누그러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일이

없이 카스탈리엔의 생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들과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 카스탈리엔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지만 경솔함이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해 위험들을 보지 않으려 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용감한 그의 성격으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짐 작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이런 위험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대하는, 당국 내의 대부분의 그의 동료들이 취 하고 있는 입장은 결코 그의 입장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이런 위험들을 또는 적어 도 그 일부를 똑똑히 보고 있었고 또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카스탈리엔의 초기 역 사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이런 위험들 한가운데에서의 생활을 하나의 투쟁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이런 생활을 긍정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많은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그 안에서의 생 활을 그저 목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다. 베네딕트파 종단에 관한 야 코부스 신부의 저술들로부터도 그는 종단은 전투적인 공동체이며 경건한 신앙심 은 투쟁적인 태도라고 하는 관념을 익히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는 이렇게 말한 적 이 있었다. "악마와 마귀들을 모르는, 그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을 모르는 고귀 하고 승화된 생활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주(州)에서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내 놓고 우정관계를 맺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때문에 크네히트가 명인 임기 초 몇 년 동안 동료들 가운데 어느 누구와도 우정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크네히트는 코이퍼하임의 문헌학자를 대단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종단 지도부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것은 거의 완전히 배제되고 객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상의 협조관계를 넘어 진지하게 서로 접근하여 우정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네히트는 장차 이런 우정관계도 체험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교육국의 비밀문서들을 열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국의 회의나 투표에서 크네히트가 취했던 태도와 행동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가끔씩 친구들을 상대로 했던 말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뿐이다. 크네히트는 회의들에

서 명인 재임 초의 말이 별로 없던 태도를 항상 유지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자신이 발기자이거나 안건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극히 드물게 연사로 나섰던 것처럼 보인다.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만 크네히트는 우리 계층조직의 상 부 인사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래의 그 대화 어조를 아주 빠르게 습득하였으며, 그 런 격식들을 구체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우아한 기품과 풍부한 창조력과 유연한 태도를 보여 주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계층조직의 최고위 인사 들, 즉 명인들이나 종단본부 인사들은 예법을 세심하게 지키며 서로 이야기를 주 고받고 있는 것만이 아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사이에서는 또한 어떤 경향이나 비밀규칙 또는 법칙 같은 것이 지배하고 있기도 하다. 견해의 차가 크면 클수록 토론을 벌이고 있는 논제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 엄격하고 세심 하게 격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짐작컨대 예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이런 격식 은 다른 기능들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보호수단으로서의 기능 을 가지고 있는 것같이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이처럼 지극히 공손한 토론 어조는 토론하는 사람이 격한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 그들이 완벽한 태도를 유지하도 록 도와줄 뿐 아니라 나아가 종단과 교육국 자체의 위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 는 것이다. 결국 이런 어조로 인해 종단과 교육국은 예법의 가운과 성스러움의 베 일을 쓰게 되는 것인데, 때로 연구생들이 조롱을 하기도 하는 그 공손한 격식은 어 쩌면 바로 이 점에서 그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크네히트 이전 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의 전임자인 명인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가 이런 격식을 아 주 탁월하게 구사한 인물이었다. 사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크네히트가 그의 후 계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의 모방자라고는 더욱 할 수 없다. 크네히트는 오히려 중국사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었으며, 그의 은근한 예법은 보다 덜 극단적 이었고 또 풍자적인 면도 덜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도 그의 동료들 사이에서는 공손함에 있어서 결코 남에게 지지 않는 인물로서 여겨지고 있었다.

대화

전기(傳記)를 작성해보려는 우리의 시도에 있어서 우리는 유희명인 크네히트의 인생이 그 말기에 보여주게 되었던, 또 그것으로 인해 그가 명인의 직위와 카스탈리엔 주를 떠나 다른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었던 바로 그 전개과정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되었다. 크네히트는 명인의 직위와 주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직무를 나무랄 데 없이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또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과 협조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누렸던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의 직무 수행에 관한 우리의설명을 계속하는 것을 그만두려한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크네히트가이 직무에 대해 피로를 느끼고 또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크네히트는 이미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그 직무가 제공해주는 가능성들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으며, 위대한 인물들이 전통과 순종적인 편입의 길을 떠나 이름 부를 수 없는 최고의 힘들을 믿고서 새로운 것, 아직 지시된 바 없는 것, 아직 시도된 바 없는 것을 시험해 보고 또 그것에 책임을 지게 되는 단계에 도달해있었다.

이런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크네히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세심하고도 냉정하게 검토해 보았다. 그는 대단히 빠른 나이에 재능 있고 야심에 찬 카스탈리엔 사람이 바람직하고 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의 정점에 도달했었다. 야심이나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추구함이나 의도적인 적응과정이 없이 그는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 거의 그의 의지에 반해서 그렇게 되었다. 어떠한 직무에도 종속되지 않는 소박하면서도 독립적인 학자 생활이 그의 본래의 소망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직위와 더불어서 그는 여러 가지 고귀한 재산들과 권한들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똑같이 높게 평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명예들과 권한들 가운데 몇몇은 재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거의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보다 덜 양심적으로 임했

던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특히 그는 최고위 당국 내에서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일 에 협력하게 되는 것을 언제나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위의 가장 본질 적이며 특징적이고 특수한 과제. 즉 엄선된 완벽한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을 독려하 는 것도, 그것이때로 그에게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이들 연기자들이 자신들 의 명인에 대해 대단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즐거운 일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짐인 것 같았다. 크네히트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것은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기쁨과 성공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 다. 그는 자신이 직위로 인해 어린아이들이나 소년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나 성인 들만을 상대하게 된 사정을 곤경이나 희생으로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는 이런 사정들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성찰이나 체험이나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 이기 때문에 명인 재임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자기 자신의 활동과 발트첼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직무를 자신이 가지 고 있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생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로 생 각하게 되었다. 그런 성찰이나 체험이나 인식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 모두가 알 고 있으나, 또 어떤 것은 그저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자신의 직무가 주는 부담 으로부터 벗어나려 노력하고 눈에 덜 띄기는 하지만 보다 더 집중적인 연구를 소 원하고 카스탈리엔의 사정에 대해 비판한 명인 크네히트가 도대체 올바르게 행동 한 것이었던지 그가 촉진자나 용감한 투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 의 모반자나 탈영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 리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한 것 이상으로 논의 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발트첼을, 아니 전 주 를 두 진영으로 갈라놓게 되었으며, 지금도 그런 논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위대한 명인을 존경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논쟁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으려 한다. 요제프 크네히트의 인물과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평가들이 빚은 논쟁에서 비롯하는 종합적인 견해가 사실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돼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가하거나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가 능한 한 진실 되게 존경하는 우리의 명인의 최후에 대한 역사를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역사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전설이라고, 진정한 정보들과, 분명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 여러 출처에서 이리저리 흘러 나와 주(州) 내의 우리 젊은 층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단순한 소문들이 뒤섞여 있는 보고(報告)라고 부르고 싶다.

바깥세계로 나가는 길을 모색해 보느라 이미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고 있 었던 어느 무렵 요제프 크네히트는 전혀 예기치 않게 한 인물과 다시 만나게 되었 는데, 이 인물은 그가 젊은 시절 친하게 지냈으나 그 후 거의 잊고 있었던 플리니 오 데시뇨리였다. 카스탈리엔 주 창설에 공로가 큰 오래된 가문의 아들로 이전에 발트첼 학교의 청강생이었고, 국회의원이자 정치평론가로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이 사람이 어느 날 전연 뜻밖에 공무로 주의 최고위 당국에 나타났다. 카스탈리 엔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하는, 2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가 새로이 치러지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에서 데시뇨리가 이 위원회의 한 위 원이 되었다. 데시뇨리가 이런 위원 자격으로 처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은 히르슬 란트에 있는 종단본부청사에서 열렸던 한 회의에서의 일이었는데, 거기에는 유리 알유희명인인 크네히트도 참석하고 있었다. 이 만남은 크네히트에게 강력한 인상 을 심어 주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다. 우리는 테굴라리우 스를 통해서 완전하게 해명되어질 수 없는, 그의 생애의 이 시기에 그의 친구가, 아니 그의 측근자가 되었던 데시뇨리 자신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 을 알고 있다. 수십 년간 잊고 있다가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었을 때 종단의 대변인은 관례대로 새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명인들에게 소개 하고 있었다. 데시뇨리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 명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부끄러움까지 느끼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시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젊은 시 절의 친구를 첫눈에 다시 알아보지 못한 때문이었다. 몸을 굽히며 인사말을 건네 는 의례적인 인사를 그만두고서 이제 다정하게 친구에게 손을 내밀며 크네히트는 친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으며, 무슨 변화 때문에 오래된 친구인 자신이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인지를 밝혀 보려고 애를 썼다. 회의가 진행 중인 동 안에도 크네히트의 시선은 가끔 예전에 그렇게도 친숙했던 그 얼굴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데시뇨리는 크네히트를 "명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크네히트가 두 번이나 부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데시뇨리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 옛날의 호칭을 사용해 그를 다시 "자네"라고 불렀다.

크네히트가 알고 있는 플리니오는 격정적이고 명랑하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활달한 젊은이였다. 훌륭한 학생이면서 동시에 젊은 세속인으로서 세속을 등진 젊 은 카스탈리엔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때로 즐겁게 여기고 있었다. 자만심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탁 터놓는 성 격이었으며, 전혀 소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동갑내기들에게 있어 흥미 있고 매력 적이며 사랑스러운 존재였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의 멋진 외모와 분명 한 태도 청강생이자 바깥세계의 사람인 그를 감싸고 있는 이질적인 분위기로 인해 서 매혹적인 존재였다. 여러 해 뒤에. 연구생 시절의 말엽에 크네히트는 그를 다시 보게 되었다. 당시 그는 천박해지고 거칠어져 있었으며 이전의 매력을 완전히 잃 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크네히트는 그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 또 다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젊음과, 명랑한 기분과. 이야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의견교환을 하는 데 대한 관심과, 적극적이며 부지런하고 외향적인 태도를 완전히 포기해 버렸거나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처럼 보였다.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옛날의 친구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의를 기 울이게 하지도 않았고 또 먼저 인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이름이 호명되 고 난 뒤에도 명인 크네히트를 "자네"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그렇게 하라는 정중 한 부탁이 있고서도 매우 주저하는 태도로 그것에 응했던 것처럼 그의 태도와 시 선과 말하는 방식과 표정과 몸동작에 있어서도 이전의 그 공격적인 면과 탁 트인 태도. 활기찬 기운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그 자리에는 삼가는 태도나 억눌린 기분 이, 주저하고 물러서는 태도가, 일종의 무력감이나 고도의 긴장이, 또는 그저 피로 감인 듯도 한 것이 대신 들어와 있었다. 젊음의 매력은 그런 것 속에 빠져서 사라 져 버리고 없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천박하고 지나치게 거친 세속 적 요소들도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 사람 전체가, 아니 무엇보다 도 그의 얼굴이 이제는 고뇌의 표정으로 특징지어지는 것 같았는데. 일그러져 있 는 것 같기도 하고 고귀한 기품이 넘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회의의 진행을 뒤 따라가고 있는 동안 유리알유희명인은 그런 모습에 계속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 고 있었는데, 활기에 넘치고 멋지며 인생을 즐기는 이 사람을 이토록 사로잡아서 이렇도록 뚜렷한 모습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종류의 고뇌일 것 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경험한 바 없는, 그가 알 고 있지 못한 어떤 고뇌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것의 실체를 알아내기 위해 이처 럼 깊이 생각에 잠기면 잠길수록 크네히트는 연민의 정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게 된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로 이끌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니 이런 연민의 정과 사랑의 감정 속에는 그토록 슬픈 모습을 하 고 있는 젊은 날의 이 친구에 대해 그 자신이 어떤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이 친구 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무엇인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가볍게 스 며들어 있었다. 플리니오의 고뇌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고 또 그 것을 다시 버리고 난 연후에 크네히트는 '저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고뇌는 평범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것은 고귀한 고뇌이다. 어쩌면 비극적인 고뇌인지도 모른 다. 저 얼굴의 표정은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한 종류의 것이다'라는 생 각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다. 카스탈리엔 밖의 세속 사람들의 얼굴에서 가끔 이 와 비슷한 표정을 보았던 것을 그는 기억했으나. 그것은 결코 이처럼 강렬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바는 없었다. 그가 알고 있기에 과거의 인물들의 초상에 서도. 많은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의 초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초상들에서는 병적인 것 같기도 하고 운명적인 것 같기도 한 어 떤 감동적인 비애나 고독이나 무력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얼굴표정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에 대한 아주 섬세한 예술가적 감각과 개성적인 인물들에 대한 예 민한 교육자적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명인 크네히트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 터 어떤 관상학적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들로 어떤 체계를 세 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런 특징들을 본능적으로 믿고 있었다. 예를 들어 그에 게 있어서는 특별히 카스탈리엔적이거나 특별히 세속적인 형태의 웃음이나 미소,

명랑함이 존재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또 특별히 세속적인 형태의 고뇌나 비애가 존재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바로 이런 세속세계의 비애가 데시뇨리의 얼굴에 나타 나고 있었다. 그것도 너무 강렬하고 순수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마치 이 얼굴은 많 은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고뇌와 아픔을 가시화 하는 사명을 띠고 있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이런 얼굴표정 때문에 마음이 불 안해졌으며 깊은 동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에게 중요하게 느껴진 것은 바깥세계가 자신의 잃어 버렸던 친구를 이제 이리로 보내 주었으며, 그래서 플리니오와 요제 프가, 이전에 학생으로서 논쟁을 벌였을 때처럼, 이제 진실로 궁극적으로 각각 바 깥세계와 종단을 대변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고독해 보이고 슬픔으로 그늘이 진 얼굴을 통해 바깥세계가 이제는 그 웃음이나 삶의 환희. 권력에의 추구. 거친 태도를 카스탈리엔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뇌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욱 중요하고 또 더욱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데시뇨리 가 자신을 가까이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하려 하고, 아주 천천히 매우 주저하 는 가운데 생각을 바꿔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았다는 사실도 크네히트로 하여금 여 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으나 결코 불쾌하게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밖에 또 그의 학 생시절의 친구가 스스로 카스탈리엔에서 교육을 받았던 까닭에 사람들이 이미 경 험한 바도 있었던 것처럼 카스탈리엔에 대단히 중요한 그 위원회의 까다롭고 불쾌 해하거나 또는 심지어 아주 악의를 품고 있는 위원이 결코 아니라 종단을 숭배하 고 주를 후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서 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 실도 그러나 크네히트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다. 물론 플리니오는 이미 여러 해 전 부터 유리알유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다.

명인 크네히트가 어떻게 해서 친구의 신뢰를 서서히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자세하게 보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명인의 침착하면서도 명랑한 기분과 애정에 찬 점잖은 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름대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리니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크네히트의 노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크네히트가 그렇게도 진정으로 노력하는데 어느 누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결국 데시뇨리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던 그때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게 되 었을 때 이미 여러 차례 있었던. 발트첼을 한번 방문해 달라는 크네히트의 초청을 받아들였다.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 어느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빛과 그늘 사이 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 지방을 이리저리 지나. 학창시절의 우정의 여러 장소들을 향해 차를 타고 나갔다. 크네히트는 차분하고 명랑한 기분이었다. 그와 동행하고 있는 손님은 조용했으나 불안한 모습이었다. 텅 빈 들판처럼 햇빛과 그 림자 사이에서, 재회의 기쁨과 이방인이 되어 버린 슬픔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 다. 동리 근처에서 그들은 차에서 내려 이전 학생시절에 그들이 함께 걸었던 옛날 의 길들을 걸으며 이런저런 친구들과 선생들을 생각했으며, 당시 자신들이 나누었 던 대화들도 더러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데시뇨리는 하루 동안 크네히트의 손님 으로 머물렀는데, 크네히트는 친구에게 그날 내내 친구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이런 저런 일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저녁—손님 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크네히트의 거실에 단둘 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벌써 다시 거의 옛날과 같은 다정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명인이 시간 시간마다 하는 일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 날은 이 낯선 사람에게 큰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그날 저녁 그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가 펼쳐지게 되 었는데 데시뇨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대화를 기록해 두었다. 부분적으로 중 요하지 않는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또 많은 독자들을 방해하는 형태로 우리의 냉정한 서술을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데시뇨리가 기록해둔 그대로 그 대화 를 여기서 전하고자 한다.

"자네한테 아주 많은 걸 보여줄 생각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네." 유희명인 이 말했다. "예를 들어 내 멋진 정원 말일세. 자네는 아직도 '명인의 정원'과 명인 토마스가 심은 나무들을 기억하고 있나?—그렇군. 그밖에도 또 많은 것이 있지. 장차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날과 시간도 오리라고 기대하네. 어쨌든 자네는 어제 부터 많은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었을 걸세. 또한 내 직무상의 일과 하루 일과의 성격에 관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걸세."

"그 점에 대해 나는 자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플리니오가 말을 받았다.

"이곳을 떠나 있었던 세월 동안에도 자네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네들을 생각하긴 했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자네들의 이 주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주가 어떤 기이하고도 큰 비밀들을 안고 있는 것인지 다시 느끼기 시작했네. 자네는 오늘 내가 자네의 직무와 일상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주었네. 요제프, 이 것이 마지막이 아니었기를 나는 바라고 있네. 내가 이곳에서 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주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세. 오늘은 아직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 그러나 나는 자네의 신뢰가 나에게도 어떤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느끼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나의 과묵한 태도로 말미암아 자네가 몹시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언제 나를 한 번 방문하게되면 자네도 내 사정이 어떠한지 잘 알게 될 걸세. 그에 대해 오늘은 아주 조금 밖에 이야기할 수 없네. 자네가 나에 대해 다시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만 말일세.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형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나 자신은 후련한 기분도 다소 느낄 수 있을 걸세.

자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나라에 공로가 있을 뿐 아니라 자네들이 살고 있는 이 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오래된 가문 출신일세. 대지주들과 고위 관리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적인 가문일세. 좀 보게. 이런 간단한 말만 해놓고 보아도 벌써 자네와 나를 갈라놓는 간격이 생겨 버리지 않는가! 내가 '가문'이란 말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말로써 어떤 단순한 것, 자명한 것 명백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지. 하지만 그게 과연 그런가? 이 주에서 살고 있는 자네들은 종단과 계층조직은 가지고 있지만 가문은 가지고 있지 않아. 자네들은 가문이나 혈통이나출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비밀스러우면서도 강력한 마력이나 힘들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우리 인생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말이나 개념들도 그 근본에 있어서는 사정이 이와 비슷한 것일세.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말들이나 개념들은 대부분 자네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일세. 아주 많은 수의 말들이나 개념들은 자네들이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며, 또 다른 말들이나 개념들은 자네들에게 있어 우리들에게 있어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일세. 이런 마당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는가! 자. 내 말 좀 들어 보게. 자네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어떤 외국인이 나 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일세. 그 말을 내가 젊은 시절에 배웠고 또 스 스로 말해 본 적도 있는 외국인인지라 대부분을 나는 이해하지. 하지만 반대로 놓 고 보면 사정이 꼭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일세. 내가 자네한테 말을 하면, 자네는 그 낱말들을 겨우 반쯤만 알고 있거나 그 섬세한 뉘앙스나 진동을 전혀 모르고 있는 언어를 듣게 되는 것일세. 자네의 것이 아닌 인간 생활이나 존재방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일세. 자네가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자네에 게 낯선 것으로, 고작해야 반쯤 이해되는 것으로 남게 될 뿐이지, 학생시절에 우리 가 가졌던 많은 논쟁들과 대화들을 기억해 보게. 내 쪽에서 보자면 그것들은 하나 의 시도에, 자네들 주의 세계와 언어를 나의 세계나 언어와 조화시키려는 많은 시 도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네. 내가 더불어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해 보았던 모 든 사람들 중에서 자네는 가장 개방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사람이었네. 자네는 당당하게 카스탈리엔의 여러 권리를 옹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변하는 다 른 세계와 그 권리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것을 멸시하지도 않았네. 정말 말이지 당시 우리는 서로 아주 가까워졌었네. 자, 이만 하겠네. 여기에 대해 서는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세."

데시뇨리가 생각에 잠기며 말을 잠시 중단했을 때 크네히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걸세. 두 나라 국민이나 두 언어가 동일한 민족과 언어에 속하는 두 개인처럼 그렇게 아무런 문제없이 서로 잘 의사를 교환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일일세. 그러나 이것이 의사교환과 전달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하는 걸세. 민족과 언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한 전달이나 쌍방 간의 완전한 이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 법일세. 교양의 장벽, 교육의 장벽, 재능의 장벽, 개성의 장벽 같은 것 말일세. 한편에서 우리는, 원칙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네.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계에는 그들 사이에 진정하고 나무랄 데 없으며 은밀한

전달과 의사교환이 가능한 단 두 명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네. —이 두 주장 모두 옳은 것일세. 이것은 음과 양, 낮과 밤 같은 것으로 양쪽 모두 옳은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상기해 보아야 하는 걸세.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완전히 남김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는 나도물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에서 나는 자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서양사람, 나는 중국사람으로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서로 서로에게 아주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서로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짐작하고 또 예감할 수 있을 걸세. 어쨌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세."

데시뇨리는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의 사정에 대해 뭘 좀 이해하 기 위해서 자네가 꼭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우선 말하겠네. 먼저 가정이라고 하 는 것이 있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젊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힘 이 되는 것 말일세. 자네들 영재학교의 청강생이었던 동안에는 나는 가족과 아무 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네. 일 년 내내 자네들 곁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 며, 방학이 되어 집에 오면 온갖 요구와 청을 다 들어 주었네. 나는 외동아들이었 네. 잔잔한, 아니 격정적인 애정으로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네. 집을 떠나게 될 때마다 내가 느꼈던 유일한 고통은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이었네. 아버지와 나 의 관계는 냉정하기는 했지만 다정한 것이었네. 자네들 곁에서 보내게 되었던 소 년시절과 청년시절 동안에는 적어도 그러했네. 오래전부터 카스탈리엔을 숭배해 오고 있었던 그는, 내가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유리알유희와 같은 고상한 것 들을 배우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네. 방학이 되어 집에 와 머물 게 되면, 그것은 때로 그야말로 대단한 것이었으며 축제와도 같은 것이었네. 가족 들과 나는 서로 거의 언제나 축제의상을 입고 있는 상대방을 볼 수 있을 뿐이었네. 이런 방학을 보내기 위해 떠나게 될 때면 가끔 나는 뒤에 남아 있는 자네들을 불쌍 하게 생각했네. 그런 행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자네들을 말일세. 이 당시 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걸세.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자 네는 사실 나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일세. 나는 거의 카스탈리엔 사람이 되어 있

었네. 다소간 세속적이며 거칠고 피상적인 카스탈리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행복하고 당당한 기분으로 넘치고 있었으며 활기에 차 있고 정열적이었네. 이때 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네. 물론 그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 었네. 발트첼에서 지내던 그 무렵 나는,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 네들 곁에서 습득하게 된 우월한 지식을 이용하여 그 곳 세계를 정복하게 될 그때 가 행복한 시절이고 또 내 인생의 절정기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니 말일세. 그 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자네를 떠나고 난 뒤 나에게는 대결과 싸움이 시작됐 는데, 그 대결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 싸움에서 나는 승리자가 되지 못 했네. 내가 돌아오게 된 그 고향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집만으로 이루어져 있 는 것이 아니었으며, 나를 포근히 감싸주고 또 발트첼에서 습득한 나의 고상한 태 도를 인정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네. 양친의 집 자 체 내에서도 얼마 안 가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일과 어려운 문제들과 불화가 있게 되었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된 사실이지만 나를 지켜주고 있었 던 것은 소박한 믿음, 즉 나 자신과 나의 행복에 대한 소년다운 신앙이었네. 자네 들로부터 배워 온 종단규범과 명상의 습관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네. 그러나 내가 정치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대학은 너무도 많은 실망과 환멸을 안겨 주었네. 학생 들 사이에서 오가는 어투, 그들의 일반적 교양이나 사교의 수준, 많은 교사들의 인 격. 이것들은 내가 자네들한테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도 다른 것이었네. 자 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한때 나는 자네들의 세계에 대해 우리들의 세계를 옹호하 면서, 가식 없고 소박한 생활을 찬양하느라 때로 그야말로 잔뜩 떠벌렸던 적이 있 었네. 여보게. 그게 벌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면 그때문에 나는 심하게 벌을 받게 되 었던 셈이었네. 그 소박하고 순진무구한 본능 생활, 소박한 것이 보여 주는 그 순 진함과 가식 없는 천재성, 이런 것은 농부들이나 수공업자들이나 또는 그 밖의 사 람들한테서 등 어딘가에서 아마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을 찾 아 볼 수가 없었으며 그런 것에의 참여는 더더욱 할 수 없었네. 이것 역시 자네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지만 나는 여러 차례의 이야기를 통해 카스탈리엔 사람들의, 즉 계급적 배타성과 선민의식의 오만함을 지니고 있는 이 거만하고 나약한 세습계 급의 오만불손함과 허세를 비판했었네. 그런데 말일세, 바깥세계의 사람들은 젠체하는 발트첼의 모범학생이 일찍이 그럴 수 있었던 것에 못지않게 그들의 그릇된 관행과 시원찮은 교양과 거칠고 요란스러운 유머와 우둔하고 교활하며 편협하게 실제적이고 이기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편협한 자연성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소중하고 신의 뜻에 맞고 또 선택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들은 나를 비웃거나 나의 어깨를 두드렸네. 그러나 내가 지니고 있는 이질적인 면, 즉 카스탈리엔적인 면에 대해 드러내 놓고 강한 증오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네. 고상한 것 일반에 대해 비천한 것이 보이는 증오심이었는데, 그것을 나는 일종의 영예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었네."

데시뇨리는 하던 말을 잠시 중단하고 크네히트를 쳐다보았다. 자신이 크네히트를 피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심쩍어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이 친구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의 시선은 친구의 시선 속에서 깊은 주의와 다정함의 표정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기분은 좋아졌으며 마음도 안정되었다. 상대방이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친구는 잡담이나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듯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명상에 집중할 때처럼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호감을 가지고서이기도 했는데, 크네히트의 시선 속에 배어 있는 호감의 표정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런 표정은 너무도 다정했으며 거의 어린아이의 표정 같았다. 그는 그 다양한 일과와 지혜로우면서도 권위가 있는 직무수행을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감탄한 바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의 얼굴에서 이런 표정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일종의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 인생이 아무 데도 소용이 없고 그저 하나의 오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네. 그것이 혹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그 의미란 대개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걸세. 카스탈리엔이 모국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었는가, 나로서는 또 이렇게 거꾸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우리나라가 그 고귀한 주와 그것의 정신에 대해 얼마나 멀어지고 또 무관심하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육체와 영혼,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크게 괴리되어 있 는가, 그들은 서로에 관해 얼마나 모르고 있으며 또 서로를 얼마나 알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대의 한 구체적인 개인이 너무도 명백하게 너무도 처절 하게 인식하고 또 체험하게 되었다는 의미 말일세. 내 인생에 무슨 과제나 이상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이 두 원리의 통일체로 만들고 두 원리 사이에서 중재 자. 연결자 조정자가 되는 것이었네. 나는 이것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고 말았 네. 아무튼 내 인생 전부를 자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네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 실패를 잘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사정 들 가운데 한 가지만 자네한테 이야기하겠네.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난 뒤 당 시 어려움은 내가 카스탈리엔 사람, 모범적인 학생으로 간주되어 받게 되었던 조 롱이나 비난을 이겨내는 데 그렇게 크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네. 새로운 동료들 가 우데 몇몇은 내가 영재학교에 다녔던 것을 일종의 특혜로. 세인의 관심을 끄는 일 로 생각하고서 나를 몹시 괴롭히고 더욱 심한 궁지로 몰아넣기까지 했으니까 말일 세. 정말 어려웠던 것은 또는 불가능한 것인지도 몰랐던 것은 세속세계 한가운데 서 카스티알리엔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인생을 영위한다는 것이었네. 처음에는 이 점을 거의 깨닫지 못했네. 나는 자네들 곁에서 배웠던 규칙들에 따라서 생활했는 데, 얼마 동안은 여기에서도 그 규칙들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나를 강화시켜 주고 또 보호해 주는 것처럼 여겨졌고. 나의 명랑한 기분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 시켜 주는 것처럼 생각되었네. 나의 계획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보였네. 대 학생 시절을 혼자 독립적으로, 가능한 한 카스탈리엔적인 방식으로 보내며, 전적 으로 지식의 추구에만 몰두하고 학생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철 저하게 어떤 한 직업을 위해 전문화시키고 그 학생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자유 와 보편성에 대한 의식을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은 교 육과정 속으로 억지로 내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계획 말일세. 하지만 카스탈 리엔이 나에게 갖추어 주었던 이 보호막은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네. 사실 나는 체념적으로, 은둔자처럼 내 마음의 평화와 명상적인 정신의 안 정을 유지하려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네. 정말이지 세상을 정복하고 이해하며

또 그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이해하도록 강요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네. 세 상을 긍정하고, 가능한 한에 있어서 그것을 정복하고 또 개선시키고자 했기 때문 이었네. 아니, 내 개인 속에서 카스탈리엔과 세계를 결합시키고 화해시키고자 했 기 때문이었네. 실망스러운 일이나 논쟁이나 흥분할 만한 일을 겪고 난 뒤 뒤로 물 러나 명상을 하게 될 때면, 처음엔 그것은 언제나 위안이었고 긴장완화였으며 심 호흡이었고 또 유익하고 다정한 여러 가지 힘들에로의 회귀였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네. 바로 이런 명상이. 즉 영혼의 도야와 단련이 나를 그 곳에서 격리시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불편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생 각하게 만들고, 내 자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 다는 사실을 말일세. 내가 다시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때에만, 어떤 점에 있어서 도 내가 그들보다 나을 게 없을 때만, 명상에로의 도피와 같은 이런 위안거리도 가 지고 있지 않을 때만 다른 사람들을. 즉 세상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네. 내가 사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물론 그 사정 을 미화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걸세. 어쩌면. 아니 거의 사정은 그저 이렇게 되 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 즉, 같이 훈련받고 그래서 같은 기분을 가지게 된 친구들 이 없고, 선생들의 감독이 없고 또 발트첼의 그 안전하고도 치료적인 힘이 있는 분 위기가 없게 되자 점점 태만해지고 부주의해져 관행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순간들이 오면, '관행은 이 세속세계 속성들 중의 하 나이다. 이것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나는 내 주위의 이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다'라고 그것을 변명하게 되었네. 자네한테 사정을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조 금도 없네. 하지만 이 점 또한 부정하거나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네. 혼란을 느끼 게 되는 곳에서도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싸웠다는 것 말일세. 그것은 나에게 있 어 심각한 문제였네. 그러나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의미 있게 큰 질서에 내 자신을 편입시키려고 한 내 시도가 나의 환상이었던지 아니었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 연한 일이 일어났네. 세계는 나보다 더 강한 것이어서 서서히 나를 압도하여 삼켜 버리고 말았네. 인생이 내 말을 가로막고 세계가 나를 동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라도 하는 것 같은 형국이었네. 우리가 발트첼에서 벌였던 논쟁에서 내가 그 정당 성과 소박성과 강력함과 존재론적 우월성을 그렇게도 찬양하면서 자네의 논리에 대항해 옹호했던 바로 그 세계가 말일세. 자네도 기억하고 있을 걸세.

이제 자네한테 어떤 다른 사실을 상기시켜야 하겠네. 자네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에게는 대단히 많은 의 미를 갖는 것이었네.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네. 중요할 뿐 아니라 끔찍한 것이기 도 했네. 대학생 시절은 끝나게 되었네. 순응하게 되었던 것이었네. 굴복하고 말 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굴복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네. 오히려 나는 여전히 마음 속으로 내 자신을 자네들과 동류로 여기고 있었으며, 굴복해서 당하는 형태로서가 아니라 처세상의 이유에서 자발적으로 이런저런 순응과 적응을 하게 되었던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또한 학생시절의 많은 습관과 욕구들을 아직 고집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유리알유희도 들어 있었네.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 었던 것은 아닐 걸세. 동급이나. 특히 상급의 유희 동료들과의 끊임없는 연습이나 교류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배울 수 없기 때문일세. 혼자서 하는 유희가 진정한 유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는 기껏해야 자문자답이 실제의 진정한 대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걸세. 나는, 내 사정이나 유희기술이나 내 교양이 나 내 영재학생 기질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 보물 들을 또는 적어도 그중의 일부를 구출해내려고 애를 썼네. 나와 더불어 유리알유 희에 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정신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 고 있었던 그 당시의 내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유희초안을 하나 구상해 보이거나 또는 한 유희명제를 분석해 주었더라면, 그것은 아마 전혀 아무것도 모 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술 같은 것으로 여겨졌을 걸세. 대학에 다닌 지 3년째 인가 4년째 되던 해에 발트첼에서 개설된 한 유희 강좌에 참가하게 되었네. 그 지 방, 그 작은 도시, 우리가 다니던 그 오래된 학교, 연기자 마을을 다시 보는 것은 나에게는 애수에 찬 기쁨이었네. 하지만 자네는 거기에 없었네. 당시 자네는 몬테 포르트나 코이퍼하임의 어느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유별나게 정진하는 사 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네. 내가 참가한 유희 강좌는 사실 우리와 같은 불쌍한 속세 사람들이나 아마추어들을 위한 휴가강좌에 지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힘이 드는 것이었네. 그랬던 까닭에 강좌 마지막에 흔한 '3점'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자랑스러운 기분을 느꼈네. 유희 성적 증명서에 '양'으로 기록되는 점수였지만 이 점수를받은 사람이면 아직은 충분히 휴가강좌에 다시 참가할 수 있었네.

그로부터 다시 몇 해가 지난 뒤 나는 다시 한 번 온 힘을 다 내어서 자네전임자가실시했던 어느 휴가강좌에 참가신청을 했네. 그러고는 발트첼에 어느 정도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네. 옛날 교본들을 다시 정성 들여 읽었으며, 명상연습에 다시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도 해 보았네. 간단히 말해 나는, 비록 보잘것없는 수단들로써 한 것이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 어느 진정한 유리알유희연기자가 대 연례유희에 대비해서 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그 휴가강좌에 대비해 연습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모았던 것이었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서 발트첼로 갔네. 그 사이 몇 년 동안 와 보지 않았던 터라 이내 다시 전보다 훨씬 더 어리둥절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으나 그와 동시에 황홀한 기분이기도 했네. 내가 그곳 말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유창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잃어버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네. 이번에는 자네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내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었네. 자네도 그걸 기억할 수 있겠나, 요제프?"

크네히트는 진지한 눈빛으로 데시뇨리의 눈을 들여다보고 머리를 끄덕이며 가볍 게 미소를 지었으나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알았네." 데시뇨리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네도 기억하고 있는 거로군. 자네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학교시절 친구와의 우연한 재회, 가벼운 만남과 실망. 그저 계속 지내나가며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지 않는다. 수십 년이 지난 뒤 상대방이 불쑥 그것을 상기시키게 될 때 외에는. 뭐 대강 이런 것 아닌가? 뭐 다른 것이었나? 자네에게 뭐 그 이상이었나?"

스스로의 마음을 억제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데시뇨리는 대단한 흥분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있었던 그무엇이 한꺼번에 폭발하려는 것 같았다.

"자네는 너무 앞질러 말하고 있네." 크네히트는 매우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세. 내 차례가 되어 변명을 하게 될 때 말일세. 지금은 자네가 말을 하고 있는 걸세, 플리 니오. 보아하니 자네한테는 그때의 만남이 그리 유쾌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네. 당 시 나한테도 그것은 그렇지가 않았네. 자, 그때 사정이 어땠는지 계속 이야기해 보 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보게."

"그리 해 보겠네." 플리니오가 말했다. "자네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네. 또한 자네한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당시 자네는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이 나를 대 해 주었네. 아니, 그 이상이었네. 그 두 번째의 휴가강좌에 참가한 이후 다시는 와 본 적이 없었던 여기 발트첼로 자네의 초대를 받아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아니 카스탈리엔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것을 수락했을 때 이미 나는, 그것 이 지금 우리 두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자네 와 더불어 그 당시의 체험을 이야기해 보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네.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계속하겠네. 휴가강좌에 참가하기 위해 오게 되었던 나는 영빈관에 묵 게 되었네. 그 강좌에 참가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대략 내 나이 또래였으나, 몇 몇 사람은 심지어 나보다 훨씬 많은 나이였네. 스무 명 남짓한 수로 대부분 카스 탈리엔 사람들이었으나, 시원찮고 별반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이거나 유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겠다는 생각을 아주 늦게야 가지게 되었던 초보자들이었네. 그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 다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네. 기록관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강좌를 주재했던 지도자는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또 우리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지만 강좌 그 자체는 거의 처음부터 2급의, 쓸모없는 수업의 성격을 띠고 있 었네. 비록 어느 누구도 그 점을 시인하지는 않지만 아무렇게나 끌어 모은 참가자 들이나 선생 모두가 실제적인 의미나 성공을 조금도 믿지 않는 형벌강좌의 성격 을 말일세.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들 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희생하게 할 만큼 그 것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충분히 크지도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 학 식 있는 전문가는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그들에게 수업을 하고 또 그 자신 그것으 로부터 그렇게 많은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연습을 시키 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묻고 싶은 심정이었네. 그 당시에 알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가서 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던 사실이지만 그 강좌 에서 나는 분명히 운이 나빴네. 참가자들의 구성만 다소 달랐더라도 그 강좌는 흥 미 있고 효과적인, 아니 열광적인 것일 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였네. 사람들이 뒤 에 가서 나에게 해 준 이야기지만 서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또는 이미 이전부터 서 로 알고 있어서 가까운 사이인 사람이 두 명만 참석하고 있어도 때로 그런 강좌는 모든 참석자들이나 선생과 함께 활기를 띨 수 있네. 자네는 유리알유희명인이니까 틀림없이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걸세. 그건 그렇고 어쨌든 나는 운이 나빴던 것이 네. 이리저리 대충 끌어 모아 만든 우리 참석자들 가운데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 는 작은 세포가 없었네. 아무런 열기도 아무런 비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네. 어 른이 된 학생들을 위한 맥 빠진 복습강좌로 머무르고 말았네. 날은 하루하루 지나 갔으며 그때마다 실망 또한 커져 갔네. 하지만 유리알유희뿐만 아니라 사실 발트 첼이 또 있었네. 성스러운 소중하게 간직한 내 추억들이 서려 있는 장소가 말일세. 유희 강좌가 실망을 안겨준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귀향의 축제가, 옛날 친구들과의 접촉이 또한 어쩌면, 그에 대해 내가 가장 많고 가장 뚜렷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 으며 나에게 있어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더 강하게 카스탈리엔을 대변하는 그 친 구와의, 요제프 자네와의 재회가 남아 있었네. 청소년 학생 시절의 친구들을 몇몇 다시 보게 된다면, 너무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지방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 에 내 젊은 시절의 좋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예를 들어 자네도 다시 가 까이로 다가오게 되어 이전처럼 대화를 통해 논쟁이. 자네와 나 사이보다는 오히 려 내 카스탈리엔 문제와 나 자신 사이의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리 된다면 이 번 휴가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었네. 그리 된다면 강좌나 다른 모든 것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었네.

우연히 마주치게 된 두 학교시절 친구는 순진했네. 그들은 기뻐하며 내 어깨를 두 드리고는 나의 전설적인 세속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유치한 질문들을 했네. 그러 나 다른 몇몇 친구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네. 이들은 연기자 마을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신진 선량들 가운데 일원이 되어 있었네. 이들은 소박한 질문들을 결코하지 않았으며, 자네의 성전 안에 있는 여러 장소들 중 한 곳에서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어 나를 피할 수가 없게 될 때면, 다소 지나치리만큼 애써 공손하게, 아니 상냥하게 인사를 했고, 나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자신들이 몹시 바쁘며 옛 친분을 새롭게 할 시간이나 호기심이나 관심이나 의향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실컷 강조했네. 그래서 나도 그들을 귀찮게 굴지않았네. 그들의 평정한 기분을 방해하지 않았네. 그들의 그 고상하고 명랑하고 조롱기에 차 있고 카스탈리엔적인 평정한 기분 말일세. 감옥에 갇힌 사람이 철창을통해서 보듯,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들이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바라보듯 나는 그들을, 그들의 분주하면서도 명랑한 일상을 바라보았네. 명랑하고 잘생기고 교양 있고 행실 바르고 안정된, 잘 가꾼 얼굴과손을 가진 그 사람들을 말일세.

이런 중에 자네가 나타나게 되었네, 요제프. 자네를 보았을 때 내 가슴속에서는 기쁨과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네. 자네는 마당 위를 걸어가고 있었네. 뒤에서 걸음걸이를 보고 자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자네의 이름을 불렀네. '마침내 한사람이 나타났어. 마침내 한친구가 나타난 거야. 적수인지도 모르지만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철저하게 카스탈리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카스탈리엔적인 것이 가면이나 철갑으로 굳어 버린 것은 아니지. 진정한 인간, 이해할 줄 아는 인간이지'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었네. 자네도 그 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나는 매우 기뻐하고 있었으며 자네한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네. 사실 실제로도 자네는 나를 대단히 친절하게 맞아주었네. 자네는 아직 나를 기억하고 있었네. 아직도 나는 자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이었네. 자네는 내얼굴을 다시 보고 기뻐했네. 이리해서 마당에서 잠시 즐겁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 버리게 되지도 않았네. 자네는 나를 초대해 주었으며 하루 저녁 시간을 내 주고 희생해 주었네. 그러나 역보게, 크네히트, 그날 저녁이 어떠했던가? 아주 쾌활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공손하게 거의 동료 같은 기분으로 서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 두 사람 모두 얼마나 애를 썼던가? 활기 없는 대화를 이 화

제에서 저 화제로 질질 끌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던가? 이미 다 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자네와의 이 경험은 더 좋지 않는 것이었네. 한때 있었던 우정을 위해 그처럼 쓸데없이 애써 노력하는 것은 마음을 더욱 아프 게 하는 일이었네. 그날 저녁은 마침내 내 환상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고 말았네. 내가 결코 친구도 대등한 경쟁자도 아니며, 카스탈리엔 사람도 아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며, 성가시게 알랑거리는 멍청이, 교양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자비하리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고 만 것이었네. 더군다나 그것이 이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운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실망과 답답한 기분이 그처럼 완벽하 게 은폐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은 그야말로 더욱 견딜 수 없는 것이었네. 자네가 나 를 질타하고 비난을 퍼부었더라면, 자네가 나더러 '여보게, 어찌된 셈인가? 어떻 게 해서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 하고 불만을 털어놓았더라면 아마 나는 행 복해 했을 것이며 또 답답한 기분도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걸세. 하지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네. 카스탈리엔에 대한 내 소속감이나 자네들에 대한 내 사랑이나 유리알유희에 관한 내 공부나 우리 두 사람 사이의 동료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네. 복습과정지도교사 크네히트는 귀찮은 내 발 트첼 방문을 받아들여 하룻저녁 동안 나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시달리다가는 이제 지극히 완벽한 형식으로, 비위를 맞추는 말들을 해서 나를 다시 내쫓아 버렸네." 데시뇨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중단했다. 그러고는 괴로운 표정으로 명인 을 바라보았다. 명인은 온갖 주의를 다 기울여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으나 그 자 신은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있었다. 명인은 미소를 띠고 옛날 친구를 바라보고 있 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다정함과 관심의 빛이 가득 담겨 있었다. 상대방이 이야기 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호의에 넘치는 눈빛으로, 만족감, 아니 즐 거움의 표정으로 친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친구는 1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다 플리니오는 "웃고 있는 건가?" 하고 격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웃고 있는 건가?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크네히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그 사정을 훌

륭하게 설명했네. 정말 훌륭했네. 자네가 설명하고 있는 꼭 그대로였네. 그것을 이 렇게 드러내고 또 그 장면을 이처럼 완전하게 내 눈앞에 다시 그려 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네 목소리 속에 담겨 있는, 모욕감과 불만의 그 흔적도 꼭 필요 했을 것일세. 또한 자네는,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여전히 문제를 그 당시의 눈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문제의 어떤 부분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네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르게 해 주었네. 다소 고통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어 행 동을 다소간 가장할 수밖에 없는 두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 말일세. 두 사람 중 하 나, 자네는 가면극을 그만두는 대신 그런 처지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의 실제의 심 각한 고통을 명랑한 태도 뒤에 숨겨 버리는 과오를 마찬가지로 저지르게 되었던 것일세. 상황을 바꾸어 놓는 일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자네한테 달려 있었던 것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도 자네가 그 만남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던 것을 자네 자신보다는 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까지 좀 느끼고 있네. 자 네는 정말로 그 점을 깨닫지 못했나? 하지만 자네는 그 사정을 아주 잘 설명했네. 이 점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 실제로 나는 그 이상스러운 저녁시간의 답답 한 기분과 당혹스러운 기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시 느끼게 되었네. 나는 다시 잠 시 동안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우리 두 사람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네. 아닐세, 자네의 이야기는 아주 옳은 것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즐겁네."

"글쎄." 플리니오는 다소 의아해하며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불쾌한 기분과 불신의 기색이 다소 배어 있었다. "내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적어도한 사람을 즐겁게 해 주었다면, 그야 물론 유쾌한 일일세. 하지만 잘 알아두게. 그것은 나에게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네."

"그러나 지금은" 크네히트가 말했다. "지금은 자네도 알지 않나? 사실 우리 두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명랑한 기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 말일세. 그에 대해 우리는 웃어 버릴 수도 있는 걸세."

"웃어 버린다고? 대체 어떻게 말인가?"

"유리알유희를 배우기 위해서, 옛날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전

카스탈리엔 사람 플리니오에 관한 이야기는, 온갖 카스탈리엔적인 격식에도 불구하고 불쑥 찾아든 플리니오에 대한 당혹스러운 기분을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그것이 거울에 비춘 듯 다시 그 자신 앞에 제시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잘 숨길 수가 없었던 복습과정지도교사 크네히트에 관한 이야기와 꼭 마찬가지로 지나간 완전하게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일세.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자네는 정말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네, 플리니오. 자네는 훌륭하게 이야기를 했네.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걸세. 이 이야기가 아주 완전히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해 웃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 행복한 일일세."데시뇨리는 어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명인의 좋은 기분을 조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유쾌하고 다정한 어떤 것으로 분명히 느꼈다. 이런 명랑한 기분 뒤에는 대단한 진지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느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던 중에 옛날 체험의 쓰라린 기분을 너무도 고통스럽게 다시 느끼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는 고해의 성격을 너무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데시뇨리는 바로 어조를 바꿀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자네는 어쩌면 잊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미 어조는 어느 정도 달라져 있었지만 주저해 하면서 데시뇨리가 말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자네에게 있어서와 같지 않았다는 것 말일세. 자네에게 있어서는 고작해야 불쾌한 일 정도였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패배이고 파탄이었네. 그랬을 뿐 아니라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들의 시작이기도 했네. 당시 강좌가 끝나자마자 발트첼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는 이리로 오지 않겠다고 결심했네. 카스탈리엔과 자네들 모두를 증오할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네. 나의 모든 환상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내가 더 이상 자네들의 일원이 아니라는 점을, 아니 어쩌면 이미그 전부터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자네들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네. 조금만 더 잘못 되었더라면 나는 변절자가 되었을 것이며 자네들의 명백한 적수가 되었을 걸세."

명랑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크네히트는 데시뇨리를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그랬을 걸세." 크네히트가 말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해 주었으면 하네. 하지만 지금으로서 우리가 처한 사정은 대충 이런 것이 아닐까 하네. 우리는 젊은 시절에 친구였네. 그러다 헤어져서 매우 다른 길을 가 게 되었네. 그 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네. 이것이 바로 자네가 그 불행한 휴가 강좌에 참가했던 당시 사정이었네. 자네는 반쯤 또는 완전히 세속 사람이, 나는 다 소 잘난 체하는, 카스탈리엔적인 제반 격식을 염두에 두는 발트첼 사람이 되어 있 었네. 오늘 우리는 그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재회를 기억하게 되었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당시의 그 당혹스러운 기분을 다시 보게 되었네. 우리는 그 모습을 참아낼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해 웃어 버릴 수 있게 되었네. 지금에 와서는 사실 모 든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말일세. 나 또한 숨기고 싶은 생각이 없지 만 당시 자네가 나에게 준 인상은 나를 상당히 당혹스럽게 했네. 그것은 대단히 불 쾌하고 부정적인 인상이었네. 자네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었 네. 나에게는 자네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자극하는 형 태로 서투르고 거칠고 세속적인 것 같이 여겨졌네. 나는 젊은 카스탈리엔 사람으 로서 세속세계를 모르고 있었으며, 사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었네. 자네는 젊 은 이방인이었는데, 자네에 대해 나는 자네가 무엇을 하려고 우리한테로 왔는지 또 자네가 무엇 때문에 유희 강좌에 함께 참가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네. 자네는 영재학생의 모습을 이제 더 이상 조금도 지니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 니까 말일세. 나도 자네한테 그랬겠지만 당시 자네는 나의 신경을 자극하는 존재 였네. 물론 나는 자네한테 아무런 공적도 없는, 자신과 비카스탈리엔 사람 유희 애 호가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만한 발트첼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걸세. 나에게 있어 자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귀찮게 감상적으로 나의 관심과 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야만인 또는 교양이 모 자라는 사람이었네. 우리는 서로를 거부했네. 서로 증오할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 네. 갈라서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네. 어느 쪽도 상대방에게 줄 것이 없고 또 어느 쪽도 상대방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었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수치스럽게 묻혀 있던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으며, 이제 그 장면과 우리 두 사람에 대해 웃을 수 있게 되었네, 플리니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의도와 가능성을 가지고서 아무런 감상도 억눌린 질투 심이나 증오감도 자만심도 없이 서로를 향해 다가왔기 때문이네. 사실 우리 두 사람 모두 이미 오래전에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네."

데시뇨리는 마음이 가벼워져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점을 확신해도 될까? 사실 그 당시에도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일세."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하네." 크네히트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애를 쓰고 지나치리만큼 노력을 했었네. 당시 우리는 서로를 참아낼 수가 없었네. 본능적으로 말일세. 우리들 각자는 서로 상대방에게 친숙하지 못하고 방해가 되고 낯설고 불쾌한 존재였네. 우리가하루 저녁 동안 억지로 그 힘든 희극을 연출하게 되었던 것은 단지 어떤 의무감이나 연대감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네. 이 같은 사실을 나는 이미 그 당시에, 자네가나를 방문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분명히 깨닫게 되었네. 일찍이 있었던 우정관계나 적대관계를 우리 두 사람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네. 그것을 없애 버리기보다는 다시 되살려서 어떤 식으로든 계속 시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네. 그에 대해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으나무엇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네. 이랬던 것 아닌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플리니오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지금에 와서도 아직 자네는 어딘지 지나치게 공손한 것 같네. 자네는 '우리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서로를 찾고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네. 찾고 사랑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쪽에서의 일이었네. 실망하고 괴로움을 겪게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네. 자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의 만남이 있고 난 뒤자네의 인생에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아무것도 없을 걸세.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운 전환점이었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네처럼 웃어서 넘길 수가 없는 걸세."

"용서하게." 크네히트는 달래기라도 하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내가 성급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자네를 나처럼 웃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네. 자네 말이 옳네. 당시 자네는 상처를 입게 되었네. 자네가 그렇게 생각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물론나 때문이 아니었네. 그것은 분명히 자네들과 카스탈리엔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간격과 거리감 때문이었네. 친구 사이로 지냈던 학생시절 동안에 이미 우리 두 사람이 극복했던 것으로 보였으나 이제 갑자기 무서우리만큼 넓고 깊게 우리들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그 간격과 거리감 때문이었네. 개인적으로 나한테 무슨 책임을 지울 일이 있다면 자네의 그 불만을 솔직하게 말해 주었으면 좋겠네."

"아, 그것은 결코 불만이 아니었네. 비탄 같은 것이었을 걸세. 당시 자네는 이런 비탄을 듣지 않았네. 지금에 와서도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 당시 자네는 그에 대해 미소를 지으며 단정한 태도로 답했는데 오늘도 자네는 그 렇게 하고 있네."

명인의 시선 속에서 우의와 깊은 호감의 빛을 느낄 수 있었지만 데시뇨리는 이 점을 강조하기를 그만둘 수 없었다.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지고 왔던 짐을 마침내 한 번 벗어 던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크네히트는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크네히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런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이제야 자네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 어쩌면 자네 말이 옳은 것인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자네한테 이 점을 꼭 상기시키고 싶네. 자네가 비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내가 관심을 보이기를 기대할 수 있으려면, 뭐니 해도 먼저 자네가 그 비탄의 기분을 실제로 분명하게 표현했어야 했다는 점 말일세. 그러나 그날 저녁 영빈관에서 있었던 대화에서 자네는 결코 비탄의 기분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나와 꼭 마찬가지로 아주 활발하고 씩씩한 태도를 보였네. 자네는 나와 꼭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비탄할 게 전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네. 그러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네는 내심으로 내가 그 은밀한 비탄을 듣고 또 자네의 그 가면 뒤에서 자네의 진정한 얼굴을 보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네. 그런데 말일세, 당시 나는 사실, 물론 모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점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었네. 하지만 자네의 자존

심을 손상시키지 않고 어떻게 자네 때문에 걱정하고 있으며 또 자네에 대해 동정 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자네한테 이해시킬 수 있었겠나? 내 손이 텅텅 비어 있 어 조언이든 위안이든 우정이든 자네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는 마당에, 우리가 가 는 길이 너무나도 다른 마당에 내가 자네한테 손을 내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었 겠나? 자네가 명랑한 태도 뒤에 숨기고 있었던 그 은밀한 불만과 불행은 사실 그 당시의 나에게 있어서는 성가시고 귀찮은 것이었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불쾌 한 것이었네. 그것은 관심과 동정에 대한 요구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자네 태도 는 그런 요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성가시고 유치 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나의 감정이 냉담해지도록 도와줄 뿐이었네. 자네는 나와 동료이기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카스탈리엔 사람, 유리알유희연기자이기를 원하고 있었네. 그러면서도 자네는 너무도 자제력을 잃고 있고, 너무도 이상하며, 너무도 이기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네. 그 당시에 내가 내린 판단은 대략 이 런 것이었네. 자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카스탈리엔적인 기질이 거의 아무것도 남 아 있지 않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네. 자네는 분명히 기본 적인 규칙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네. 물론 이것은 내가 상관할 문제 가 아니었네. 그러나 자네는 왜 그렇게 발트첼로 와서 우리들을 동료로서 대하려 고 했는가 말일세.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성가시고 불쾌했네. 당시 자네가 나의 아주 공손한 태도를 거부의 태도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옳 은 것이었네. 사실 나는 자네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네. 그것은 자네가 세속 세계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네. 그것은 바로 자네가 카스탈리엔 사람으로 여겨 지기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 후 여러 해가 지난 뒤. 최근에 자네가 다 시 나타났을 때 자네에게서 그런 점은 더 이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네. 세속세계 의 사람처럼 보였으며 다시 바깥세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 자네의 얼굴 에 나타나고 있는 슬픔과 근심 또는 불행의 표정이 특히 이상하게 내 마음을 흔들 어 놓았네. 그러나 모든 것이, 자네의 태도, 자네가 하는 말, 심지어 자네의 그 슬 픈 기분까지도 내 마음에 들고 아름다웠으며 자네한테 잘 부합하고 어울렸네. 그 어느 것도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았네. 나는 아무런 내적 갈등도 없이 자네를 받아 들이고 긍정할 수 있었네. 이번에는 지나치게 공손하고 점잖은 태도가 필요 없는 것이었네. 그래서 나는 바로 자네를 친구로서 받아들였으며, 자네한테 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했네. 사실 이번에는 그 사정이 전번과는 오히려정반대였네. 이번에는 오히려 내 쪽에서 자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네. 반면에 자네는 매우 자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자네가 우리 주에 나타나 우리 주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나는 속으로 일종의 애정과 충성심의 표시로서 받아들이고는 있었네. 결국 자네는 나의 노력에 응해 주었네.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또 내가 기대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옛날 우정을 새롭게 할 수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네.

조금 전에 자네는 젊은 시절의 그 만남이 자네에게는 고통스러웠으나 나에게는 아 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네. 자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니 그에 대해서는 왈 가왈부하지 않도록 하세. 그러나 여보게. 이번의 우리의 만남은 나에게 결코 의미 가 없는 것이 아닐세.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말할 수 있는 것 보다 자네가 어떤 식으로든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 네. 간단히 암시적으로 말하자면,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순히 잃어 버렸던 친구 가 다시 온 것을 그것과 함께 과거의 한 시절이 되살아나 새로운 힘과 변화를 보여 주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세.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부름. 하나의 환영을 의미하는 것일세. 이것은 나에게 자네들의 세계로 가는 길을 열어 주고 있는 것일세. 자네들과 우리들 사이의 종합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문제 앞에 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걸세. 자네한테 분명히 말하지만 이와 같은 일은 그야말로 적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일세. 이번의 이 부름을 맞이하는 나는 귀머거리가 아닐 세.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깨어 있는 것일세. 이 부름을 듣고도 사실 전혀 놀 라지 않고 있으니 말일세. 내 생각에 이 부름은 마음을 열 수도 또한 닫아 버릴 수 도 있는. 외부에서 오는 낯선 어떤 것이 아닐세. 이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 처럼 오고 있는 것일세. 내 자신 속에서 아주 강하고 절박한 것으로 되어 버린 어 떤 욕구와 고난과 동경에 대한 대답인 것일세.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세. 벌써 시간이 늦어졌네. 두 사람 모두 쉬어야 하네.

앞에서 자네는 나의 명랑한 태도와 자네의 슬픈 기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내가 자네의 '비탄'을 미소로써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네의 비 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지금에 와서도 그러지 않는다는 뜻으로 했던 말인 것 같네. 여기에 바로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 네. 왜 비탄은 명랑한 태도로 들으면 안 되는가? 왜 그것은 미소로써가 아니라 다 시 슬픈 기분으로써 대해야 하는가? 자네가 근심과 답답한 기분을 가지고 다시 카 스탈리엔으로, 나에게로 왔다고 하는 사실에서 어쩌면 자네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 리의 명랑한 태도가 어딘가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네. 지금 나는 자네의 슬픈 기분과 무거운 기분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있고 또 그런 기분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그런 기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세. 자네가 지니고 있는. 세속세계 내에서의 자네의 생활과 운명이 자네에게 가져다 준 그 표정을 나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네. 이런 표정이 앞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보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네한테 어울리고 또 자네에게 속하는 것이며, 나에게는 소중하고 존경할 만한 것일세. 이런 표정이 어디에서 연 유하는 것인지 나는 그저 짐작만 해 볼 수 있을 뿐일세. 자네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만큼 그에 대해 나중에 나한테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덮어두게. 나로서 알 수 있 는 것은 자네가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뿐일세. 하지만 자네 는 어째서 내가 자네와 자네의 무거운 기분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려 한다고. 또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데시뇨리의 얼굴은 다시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체념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가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네. 우리들은 각각이 그저 암시적으로만 상대방의 것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을 뿐인 서로 다른 두 표현방식이나 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가 우리는 서로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인 것 같은 기분 말일세. 나에게는 우리들 가운데 누가 도대체 진정하고 완전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지, 자네들인지 아니면 우리들인지, 또는 도대체가 우리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가치가 있기는 한 지, 그것이 언제나 의심스럽게 생각된

다네. 어떤 때에는 나는 자네들 종단사람들과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을 존경심과 열 등감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명랑하며 영원히 유희하고 자신의 고유한 생활을 향유하며 결코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는 신들이나 초인들처럼 우러러 보았 네. 그러나 다른 때에는 자네들은 부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경멸할 만하 기도 한 존재들로 여겨졌네. 거세된 사람들, 인위적으로 영원히 유년 시절에 붙잡 아 둔 사람들인 것이었네. 아무런 격정도 없는, 산뜻하게 울타리가 쳐진 깨끗하게 청소가 된 유희 세계. 유치원 세계에서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이었네. 코를 깨끗하게 닦고 몸에 이롭지 않는 감정이나 생각의 동요는 모두 진정 시키거나 억눌러 버리는 세계 말일세. 평생토록 재미있고 위험하지 않고 피 흘리 지 않는 유희를 하며, 방해가 되는 생활의 동요, 훌륭한 감정, 진정한 정열 가슴속 의 격정은 모두 명상적인 요법을 통해 즉시 억제하거나 왜곡하거나 중화시켜 버리 는 세계 말일세. 자네들이 비겁하게 취생몽사 하듯 살고 있는 그 세계는 인위적이 고 생식력을 상실하고 자잘한 것에 마음을 쓰는 세계, 그저 반쪽짜리 세계요 사이 비 세계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저런 악덕이나 열정 · 배고픔 · 신맛 · 짠맛도 모르는 세계, 가정도 어머니도 아이도, 아니 심지어 여자도 거의 모르는 세 계 아닌가! 본능적 생활은 명상을 통해 억제되고 있으며, 경제나 재판이나 정치와 같은 위험하고 모험적이며 책임지기 어려운 일들은 수세대 전부터 다른 사람들에 게 맡겨 버린 것이었네. 비겁하게도 잘 보호받는 가운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아 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거추장스런 이런저런 의무들을 지지 않는 가운데 기생충과도 같은 생활을 하면서,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그 모든 전문적인 학문들 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세. 바깥의 험난한 세속세계에서 가련하게 내몰린 인간 들이 진정한 삶을 살고 진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음절과 철자의 수를 헤아 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유리알유희를 행하고 있는 것일세."

크네히트는 피로한 기색 없이 다정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데시뇨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여보게" 크네히트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 말을 듣고 있으니 우리의 학생 시절과 당시 자네가 보여 주었던 비판과 공격적인 기질이 너무도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구먼. 하지만 나는 오늘 더 이상 당시에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네. 오늘 나의 임무는 자네의 공격에 대항해서 종단과 주를 옹호하는 것이 아닐세. 나 에게는 참으로 고마운 사실이지만 일찍이 내가 그때문에 지나치리만큼 애를 썼던 적이 있었던 그 어려운 임무는 이번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일세. 지금 막 자 네가 다시 하게 되었던 바로 그런 멋진 공격에 대해 대응하기란 다소 어렵다는 얘 길세. 예를 들어 자네는 지금 저기 바깥세계에서 '진정한 삶을 살고 진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그것은 아주 절대적이며 아름답고 진실한 말처럼, 아니 거의 어떤 금언처럼 들리네. 이런 말에 대해 누군가가 반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불순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그 자신의 '진정한 노동'이 부분적으로는 카스탈리엔의 번영과 유지 를 위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가 없을 걸세. 하지만 이런 농담은 그만하기로 하세. 자네가 하는 말에서 알 수 있고 또 그 말의 어조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자네는 여전히 우리한테 증오에 찬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한테 절망적인 사랑과 질투심 또는 동경에 넘 치는 마음도 가지고 있네. 자네는 우리들을 비겁한 사람들, 무위도식하는 사람들 또는 유치원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로 생각하고 있네. 그러면서도 자네는 가 끔 우리들을 영원히 명랑한 기분에 싸여 있는 신들로 생각하기도 했네. 어쨌든 자 네가 한 말에서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 자네의 슬 픔, 자네의 불행, 또는 달리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지만 그것에 카스탈리엔이 책임 이 있는 것은 아닐 거라는 점 말일세. 그것은 어디든 다른 데에서 연유하는 것임에 틀림없네. 만약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에게 오 늘 자네가 하는 비난이나 비판은 틀림없이 소년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토론에서와 똑같은 것이지는 않았을 걸세. 다음번에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때. 더 많은 것들 을 들려주게, 나는 자네를 더 행복하고 더 명랑하게 해 줄 수 있는, 또는 적어도 카 스탈리엔에 대한 자네의 관계를 더 자유스럽고 더 편안한 것으로 해 줄 수 있는 길 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고 있네.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한에서 보면 자네는 우리들과 카스탈리엔에 대해, 자네 자신의 청년시절과 학교시 절에 대해 그릇되고 융통성 없고 감상적인 관계에 서 있네. 자네는 자신의 영혼을 카스탈리엔적인 면과 세속적인 면으로 나누고, 자네가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일들 때문에 지나치게 괴로워하고 있네. 그러나 어쩌면 또 자네는 자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할 다른 일들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내 짐작이네만 자네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더 이상 명상연습을 하지 않고 있을 걸세. 그렇지 않은가?"

데시뇨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네 통찰력은 정말 대단하구먼. 명인 나리! 꽤 오 래전부터라고? 내가 명상의 매력을 포기해 버린 지는 벌써 여러 해가 되었네. 자 네는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걱정하게 되었나? 여기 발트첼에서 휴가강좌에 참가 하고 있었던 나에게 자네들이 그토록 공손한 태도와 멸시에 찬 태도를 보여 주면 서 동료애를 구하는 나의 노력을 그렇게 점잖게 묵살해 버렸던 그 당시에 나는 이 곳을 떠나 돌아가면서 결심을 했네. 내 마음속에 들어 있는 카스탈리엔적인 요소 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어 버리기로 말일세. 그때부터 나는 유리알유희를 포기해 버렸네. 더 이상 명상도 하지 않았네. 심지어 음악도 꽤 오랫동안 싫어하게 되었 네. 그 대신에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세속세계 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을 가르쳐 주었네. 우리는 술을 마시고 여자를 사고 그랬 네. 손에 넣을 수 있는 온갖 환각제들을 다 시험해 보았으며, 예절바른 것이나 존 경할 만한 것 이상적인 것 모두에 대해 침을 뱉고 또 그것들을 비웃었네. 물론 이 렇게 지나친 상태는 그리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네. 그러나 나로부터 카스탈리엔적 인 허식의 마지막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내기에 충분할 만큼은 오래 계속되었네. 그 후, 몇 년 뒤에 가끔 나는 내가 너무 막무가내로 열중했다는 점을, 그래서 몇몇 명상기술을 아주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네. 하 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오만해져 있었던 터라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었네." "너무 오만해져 있었다고?" 크네히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랬네. 너무 오만해져 있었네. 그 사이 세속세계에 깊이 빠져서 세속세계의 인간이 되어 버린 것이었네. 오로지 세속적인 인간이고자 했을 뿐이었네. 세속인간들의 생활, 즉 열정적이고 순진하고 잔인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이며 행복과 불

안 사이에서 깜박거리는 생활 외에 달리 어떤 생활도 바라지 않고 있었네. 자네들 방법의 도움을 받아 마음이 다소 편안해지고 또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 을 나는 거부하고 있었네."

날카로운 눈빛으로 명인은 데시뇨리를 쳐다보았다. "여러 해 동안 그런 생활을 계속했단 말인가? 그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다른 수단도 써 보지 않았는가?" "아닐세, 써 보았네." 플리니오가 말했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네. 때때로 나는 다시 술을 마시고 있네. 또 대개의 경우 잠을 잘 수 있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마취제도 사용하고 있네."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라도 하듯 크네히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가는 다시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는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탐색이라도 하듯 진지한 눈빛이었으나 점차 부드럽고 다정하고 명랑한 눈빛으로 되어 갔다. 데시뇨리는 그렇게 살피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애정이 넘치고, 그렇게 순진무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가차 없고, 그렇게 명랑하고 다정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을 그때까지 어느 인간의 눈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런 시선이 처음에는 자신을 당황하게 하고 또 자극했으나 이내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고 또점차 부드러운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데시뇨리는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데시뇨리는 좀 더 저항해 보려고 애를 썼다.

"자네는 나를 더 행복하고 더 명랑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네." 데시뇨리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내가 그것을 도대체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있네."

"글쎄." 요제프 크네히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더 명 랑하게 해 줄 수 있다면, 그가 우리한테 요구하건 말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해야 할 걸세. 도대체 어떻게 자네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또 바라지 않는 것일 수 있겠나? 자네가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마주앉아 있는 것도, 자네가 우리들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다 바로 그때문인데 말일세. 자네는 카스탈리엔을 미워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경멸하고 있네. 어떤 올바른 판단이나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털어 버리고자 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자네는 자네의 세속성과 슬픔에 대해 지나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네. 그렇지만 자네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과 우리들의 명랑한 태도에 대한 은밀하고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동경에 끌려 온 것이기도 했네. 그래서 결국 자네는 다시 와서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시험 삼아 써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네. 그런데 여보게, 이번에 자네는 정말 좋은 시기에 오게 되었네. 나 또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네들 세계로부터의 어떤 부름과 활짝 열려지는 어떤 문을 고대하고 있었던 시기에 자네가 와 준 것이었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세. 여보게, 자네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네. 이에 대해 자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장차 알게 되겠지만 나도 자네한테 고백할 것이 좀 있을 걸세. 시간이 늦었네.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고, 나는 또 하루의 일과가 기다리고 있네. 이제 곧 잠을 자야 할 걸세. 하지만 15분만 더 시간을 내 주게. 부탁이네."

크네히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들 사이 여기저기에서 띠 모양의 아주 맑은 밤하늘을 볼 수 있었고 밤하늘에는 별들도 넘칠 듯 떠 있었다. 크네히트가 바로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있는 창가로 걸어갔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규칙적인 호흡으로 가을밤의 여리고 찬 공기를 음미하면서 명인은 서 있었다. 명인은 손으로하늘을 가리켰다.

"자, 좀 보게." 크네히트가 말했다. "저 구름들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띠 모양의 하늘을 말일세. 처음 슬쩍 보면 가장 어두운 곳이 바로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네. 그러나 이내 깨닫게 되지만 저 어둡고 부드러운 것은 그저 구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심오한 깊이를 갖는 우주는 바로 저 구름 산의 가장자리와 계곡에서 비로소 시작하여 무한한 세계 속으로 잠겨들고 있는 걸세. 바로 저 무한한 세계 속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 밝음과 질서의 최고 상징이 되는 저 별들이 찬란하게 띠 있는 것일세. 우주와 그것이 갖는 모든 신비의 심오한 깊이는 검은 구름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닐세. 그 심오한 깊이는 밝고 명랑한 것 속에 있는 것일세. 자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네. 잠자기 전에 잠시 많은 별들이 떠다니고 있는 저 만과

해협을 바라보게. 그때 자네 머리에 혹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꿈들이 있으면 그것 들을 물리치지 말게."

괴로운 감정인지 행복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가운데 묘하게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느낌이 플리니오의 가슴 속에서 일었다. 까마득한 옛날에,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발트첼에서 보낸 학생시절의 그 아름답고 명랑하던 초기에 이와비슷한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명상연습을 하게 되었던 일을 플리니오는 머리에 떠올리고 있었다.

"한 마디만 더 하도록 허락해 주게." 유리알유희명인은 낮은 목소리로 다시 이야 기를 시작했다. "명랑성에 대해, 별의 명랑성과 정신의 명랑성에 대해. 우리 카스 탈리엔 특유의 명랑성에 대해 자네한테 좀 이야기했으면 하네. 자네는 명랑성에 대해 일종의 거부감을 느끼고 있네. 아마도 그것은 자네가 슬픔의 길을 걷지 않으 면 안 되었기 때문일 걸세. 또 자네는 모든 밝은 기분과 유쾌한 기분을. 특히 우리 카스탈리엔의 밝은 기분과 유쾌한 기분을 천박하며 유치하다고, 비겁하다고 생각 하고 있네. 우리가 현실세계의 여러 가지 공포나 심연을 피해 밝고 잘 정돈된. 단 순한 형식 및 공식과 단순한 추상과 세련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 네. 그러나 슬픔에 젖어 있는 자네, 내 말 좀 들어 보게. 그런 도피가 있기도 할 걸 세. 단순한 공식들이나 만지고 노는 비겁하고 겁 많은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없지 도 않을 걸세. 아니.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걸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명랑성이, 하늘의 명랑성과 정신의 명 랑성이 그 가치나 찬란한 빛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세. 우리들 가운데 있는 쉽게 만족하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명랑해 보이는 사람들의 반대편에 는 다른 사람들이, 그 명랑한 기분이 결코 유희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함이 요 심오한 깊이인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세대가 서 있다네. 그런 사람을 나는 한 분 알고 있었네. 우리의 이전 음악명인이 바로 그분이라네. 자네도 전에 발트첼에서 가끔 본 적이 있었던 그분 말일세. 그분은 생애의 말년에 명랑성의 덕목을 대단한 정도로 지니고 있었네. 그 명랑한 기분은 마치 태양에서 햇빛이 방사되듯 그분으 로부터 방사되었으며, 호의로서, 삶의 환희로서, 밝은 기분으로서, 신뢰로서 확신

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고, 그 찬란한 빛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마음속에 새 기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계속 빚을 발하는 것이었네. 나도 그분의 빚을 받게 되었 네. 나에게도 그분은 당신의 명랑한 기분과 가슴속의 찬란한 빛을 조금 나누어주 었네. 우리 페로몬테와 몇몇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네. 바로 이런 명랑성 에 도달하는 것이 나에게는 나의 많은 동료들에게는 모든 목표들 가운데 가장 높 고 가장 고귀한 목표일세. 종단본부의 몇몇 원로들한테서도 자네는 이런 명랑성 을 찾아볼 수 있을 걸세. 이런 명랑성은 허세도 아니며 자기도취도 아닐세. 이것 은 최고의 인식이며 사랑인 것일세. 일체의 실재에 대한 긍정이며, 온갖 나락과 심 연의 가장자리에서의 냉정한 각성일세. 이것은 성자들이나 기사들의 덕목일세. 이 것은 결코 파괴할 수 없으며,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에 임박해 감에 따라 오로지 더 해 가기만 하는 것일세. 이것은 아름다움의 비결이며 모든 예술의 진정한 실체일 세. 인생의 찬란함이나 전율을 마치 춤이라도 추는 것 같은 경쾌한 시구로 노래하 는 시인이나 그런 찬란함이나 전율을 순수한 현재로서 울려 퍼지게 하는 음악가는 빛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며 지상의 기쁨과 밝음을 더해 주는 사람일세. 비록 처음 에는 우리들을 눈물과 고통스러운 긴장감 사이로 이끌지만 말일세. 우리들의 마음 을 사로잡는 시구를 쓴 그 시인이 쓸쓸하고 고독한 사람이었을 수 있으며, 그 음악 가가 우울한 몽상가였을 수 있을 걸세.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그 작품은 신들이 나 별들의 그 명랑한 기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세, 시인이나 음악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의 어둠이나 고통이나 불안이 아닐세. 그것은 한 방울의 순 수한 빛, 영원한 명랑성인 것일세. 모든 민족들이나 언어들이 신화나 우주생성론 이나 종교를 통해 세계의 깊은 의미를 밝히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최고의 것은 바로 이 명랑성인 것일세. 자네는 고대 인도사람들 을 기억하고 있을 걸세. 발트첼 시절 우리 선생님이 훌륭하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 었던 그 민족 말일세. 고뇌와 명상과 속죄와 금욕의 민족이었네. 하지만 이 민족의 정신이 발견해 낸 마지막의 위대한 보물은 밝고 명랑한 것이었으며, 세계를 극복 한 사람들과 부처님의 미소는 명랑한 것이었고 이 민족의 심오한 신화들에 등장하 는 인물들은 명랑한 사람들이었네. 이 신화들이 설명하고 있는 세계는 그 초기에 거룩하고 복되고 찬란하고 봄처럼 아름답게, 황금시대로서 시작하네. 그러다 이내 병이 들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네. 거칠어지고 비참하게 되어 가는 것이네. 점점 더 깊이 쇠퇴해 가는 네 시대의 말에는 소리 내어 웃으며 춤을 추는 시바 신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기에 이르게 되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은 아니네. 꿈꾸는 비슈누 신의 미소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며, 이 신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새롭게 젊고 아름답고 찬란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네. 어떤 다른 민족보다도 깊은 통찰력이 있고 또 깊이 고뇌할 줄 아는 이 민족이 전율과 수치심을 가지고 잔인한 세계사의 유희와 영원히 순환하는 욕망과 고통의 수레바퀴를 바라보고 난 뒤에, 창조된 것의 무상성과 인간의 욕망과 악행뿐만 아니라 동시에 순수와조화에 대한 인간의 깊은 동경도 보고 또 이해하고 난 뒤에 창조의 이 모든 아름다움과 비극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찬란한 비유들을, 창조의 시대와 파멸에 관한, 타락한 세계를 춤추듯 짓밟아 조각조각 내어버리는 그 강력한 시바 신에 관한 조는 듯 누운 채 능숙하게 황금빛 신들의 꿈에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게 하고 있는 그 미소 짓는 비슈누 신에 관한 비유들을 발견해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놀라운 일일세.

이제 우리 자신의 카스탈리엔적인 명랑성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단순히 위대한 명랑성의 후기의 보잘것없는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정당한 것일세. 학문은 명랑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항상 어디에서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네. 우리에게 있어서 학문은, 즉 진리에 대한 숭배는 미에 대한 숭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명상을 통한 영혼의 도야와도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명랑성을 결코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일세. 우리 유리알유희는 그 자체 속에 이 세 가지 원리 모두를, 즉 학문과 미에 대한 숭배와 명상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유리알유희연기자라면 잘 익은 과일이 그 감미로운 과즙에 흠뻑 젖어 있듯이 명랑한 기분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하는 걸세. 유리알유희연기자는 무엇보다도 음악의 명랑성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걸세. 이 음악의 명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감성, 즉 세계의 여러 가지 공포와 불길 한가운데를 밝게 미소 지으며 춤추듯 걸어 나가는 것, 엄숙

한 마음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 외에 달리 어떤 것도 아닌 것일세.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연구생으로서 이런 점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 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런 명랑성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네. 앞으로도 나는 더 이상 이 명랑성을 포기하지 않을 걸세. 불행한 처지에 놓이고 괴로운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절대 포기하지 않을 걸세.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 이제 우리 자도록 하세, 곧 다시 이리로 와서 자네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나도 자네한테 이야기해 주겠네. 발트첼 에도 명인의 생활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아니 절망적인 일들이나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자네는 듣게 될 걸세. 하지만 지금 은 음악이나 조금 듣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고 음악을 조금 듣는 것은 자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면제보다도 더 나은 것일세." 크네히트는 자리에 앉아 신중하고 아주 조용히 퍼셀이 작곡한 소 나타의 한 악장을 연주했다. 야코부스 신부가 즐겨 듣는 곡이었다. 황금색 빛의 방 울처럼 선율은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연주 소리가 너무도 조용했기 때문에, 뜰 안에 있는 오래된 샘에서 노래하듯 흐르고 있는 물소리까지도 간간이 들을 수 있 을 정도였다. 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들은 부드러우면서도 엄숙하게, 절제하는 듯 보이면서도 감미롭게 서로 만나고 또 어우러지고 있었다. 선율들은 씩씩하고 명랑하게 은근한 윤무를 추며 시간과 무상의 허무를 뚫고 걸어 나가고 있었으며, 계속되고 있는 짧은 시간 동안 그 방과 밤 시간을 넓혀 주고 우주처럼 크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요제프 크네히트가 손님과 작별인사를 했을 때. 손님은 지금까지와 는 다른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비

크네히트는 실마리를 푸는 데 성공했다. 활기에 넘치고 두 사람 모두의 원기를 북 돋아 주는 교제와 교류가 크네히트와 데시뇨리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체념적이고 우울한 기분 속에서 살아 왔던 이 사람은 친구의 판단이 옳았 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는 실제로 치유와 밝은 태도와 카스 탈리엔적인 명랑성에 대한 동경에 이끌려서 다시 이 교육주로 오게 되었던 것이었 다. 질투심에 찬 테굴라리우스가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특별한 임무나 용무가 없이도 자주 오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명인 크네히트는 그 와 그의 생활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다. 데시뇨리의 생활은 그가 처음 털어놓았던 말을 듣고 크네히트가 짐작해보게 되었던 것만큼 그렇게 특별한 것도 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었다.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젊은 시 절에 플리니오는 정열적이고 행동을 갈망하는 그의 태도의 좌절과 굴욕을 경험했 다. 그는 세속세계와 카스탈리엔 사이에서 중재자나 조정자가 되지 못하고 고립되 고 슬픔에 빠진 국외자가 되었으며, 자신의 출신과 성격을 이루고 있는 세속적인 구성요소와 카스탈리엔적인 구성요소를 하나로 통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저 단순히 좌절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 과 체념 속에서 제 나름의 얼굴과 아주 특별한 운명을 가지게 되었다. 카스탈리엔 에서 받은 교육은 그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적어도 처음에는 갈등과 실망만을 그에게 가져다 줄 뿐이었으며, 그의 기질 상 견디기가 힘든 깊은 고립과 고독을 안겨 줄뿐이었다. 일단 고립된 자, 적응하지 못하는 자의 그 험난한 길에 들어서게 된 마당이므로, 그 자신도 또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더 크게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특히 데시뇨리는 이미 대학생 시절부터 가족과. 특히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는 정 도의 대립 관계가 되었다. 실권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은 아니 지만 데시뇨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생동안 계속 보수적이고 정부 에 동조적인 정치와 정당을 확고하게 지지해 오고 있는 사람이었던 데시뇨리 아버

지는 모든 개혁을 싫어하고, 권리와 참여에 대한 약자들의 모든 요구에 반대하고, 명성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옛날의 질서와 자신에게 정당하고 신성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에 대해 충실하고 헌신적이었다. 때문에 데시뇨리 아버지는, 그렇다고 무슨 종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동조자였고, 정의감이나 자선과 도움에 대한 호의나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소작인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 집요하게 원칙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이런 완강한 태도를 자신이 속하는 정당의 정강과 슬로건을 내세워 논리를 가장하면서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는 무슨 확신이나 통찰에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기사다운 태도나 기사도적인 명예심 현대적이며 진보적이고 시류에 맞는 것을 특히 과소평가 하는 태도가 그의 성격상의 특징이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속하는 신분의 사람들이나 자신의 가문의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에 지배되고 있었다.

그런 아버지를 아들인 플리니오가 실망시키고 자극하고 또 분노하게 만들었다. 대학생인 데시뇨리가 아주 야당적이며 현대적인 한 정당에 접근해서 그 당원이 되어버린 때문이었다. 시민—자유적 성향을 갖는 한 오래된 정당의, 젊은 세력들이 주축이 된 좌파가 그 당시에 형성되어서 신문 기자이자 국회의원이며 대단한 영향력을 갖는 대중연설가인 베라구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정열적이며 때로 자기자신에 대해 조금 황홀해하거나 감동을 느끼기도 하는 대중의 벗이자 자유의 투사였는데, 대학이 있는 도시들에서 공개 연설을 통해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다른 많은 열광한 청중들이나 숭배자들뿐 아니라 젊은 데시뇨리도 그의 지지자가 되게 했다. 대학에 실망하여 하나의 지주를, 자신에게 이제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버린 카스탈리엔 도덕의 대용물을, 어떤 새로운 이상이나 강령을 찾고 있었던 이 젊은이는 베라구트의 연설에 매료되어서 그의 열정과 공격적인 기질과 재치와 비판자적인 태도와 출중한 외모와뛰어난 언변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베라구트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생겨나와 그의 당과 목표들을 위해 활동하는 대학생 단체의 일원이 되었다. 플리니오 데시뇨리의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아들에게로 가생

애 처음으로 아들에게 대단히 화를 내고 야단을 쳤으며, 아버지와 가족과 가문의 전통을 배신하고 배반했다고 나무랐다. 당장에 그 잘못을 시정하고 베라구트나 그 정당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그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자신의 태도를 일종의 순교자적인 것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젊 은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결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 플리니오는 야 단을 끝까지 참아내고 난 뒤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포기하고 국 가나 경제나 정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기심에 넘치는 지배자들의 무리로부터 지시 받기 위해서 자신이 10년 동안 영재학교를 다니고 또 몇 년 동안 대학에 다녔 던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때 그에게는 위대한 호민관들의 모범에 따라 자신의 이해나 계급의 이해를 결코 돌보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순수하고 절대적인 정의와 인간성 외에는 달리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았던 베라구트의 교훈이 도움이 되어 주었다. 아버지 데시뇨리는 쓰라린 웃음을 터뜨리면서, 어른들의 문제에 관여하 기 전에 여러 세대에 걸친 존경할 만하고 고상한 가문 사람들보다 인간 생활과 정 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망상하기 전에 적어도 우선 먼저 학업을 마치라고 아들에게 충고했다. 그는 가문의 타락한 후손이며 배반을 함으로써 이제 가문의 배후를 공격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마디 한 마디 말을 할 때마다 더욱 상대방과 뜻이 갈라지고 상대방을 서로 화나게 했으며 또 서로 모욕을 주었다. 그 러다 마침내 노인은. 분노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거울 속에서 보았기라도 한 것처럼, 서늘한 수치심을 느껴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를 떠 나가 버렸다. 이때 이후 양치의 집에 대한 옛날의 그 별 문제없이 친밀하던 관계는 다시는 플리니오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자신이 속하는 단체와 그 단체의 신자유주 의에 그가 계속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학업도 마치기 전에 베라구트의 측 근 제자, 조수 협력자가 되고 또 몇 년 뒤에는 그의 사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었 다.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세속세계와 고향에 다시 적응하 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미 데시뇨리의 영 혼은 균형을 잃고 있었고 또 그의 생활은 심각한 문제성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런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이제 그는 완전히, 노출되고 어렵고 까다로운 처지에 빠지

게 되었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소중한 어떤 것을 얻었다. 일종의 신앙을 얻게 되었다. 정의와 진보에 대한 그의 젊은이다운 욕구에 부응하는 정치적 소신과 소 속정당을 가지게 되었다. 베라구트라는 인물한테서 하나의 스승, 지도자 나이 많 은 친구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우선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나이 많은 친구는 그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를 높이 평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하나의 방향과 목표를, 하나의 일과 필생의 과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에는 비싼 대가를 치 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젊은 사람은 가정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 연스럽게 물려받아 가지게 되었던 자신의 위치를 상실해 버리게 된 것에 대해 대 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훌륭한 계급에서 축출된 것과 그 계급이 보이는 적 대적인 태도를 일종의 광적인 순교자적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그가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남아 있었다. 너무도 사랑했던 어머니에게 괴로 움을 안겨 주고, 어머니로 하여금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서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지도록 해서. 어쩌면 그때문에 어머니의 목숨을 단축시키게 되었던 것인 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괴로운 생각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고통이었다. 어머니는 데시뇨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 어머니가 죽고 난 뒤 플리니오 데 시뇨리는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는 그 집. 그 오래된 가문의 저택을 팔아 버렸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인생의 지위나 관직·결혼·직업을 바로 그 희생 때문에 매우 사랑하고 또 철저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 되고 또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데시뇨리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달랐다. 자신의 정당과 그 지도자·자신의 결혼·자신의 이상주의에 계속 충실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정치적, 세계관적 감격주의는 진정되었으며, 독선을 위한 투쟁도 고집을 위한 고통이나 희생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아니었다. 여기에 직업 생활에서의 경험과 환멸이 더해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베라구트의 추종자가 되었던 것이 그야말로 오직 진리와 정의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던지. 그의 연설가적 내지 호민관적 기질이나 매력, 대중들 앞에 나설 때 의 그의 능숙한 태도, 낭랑하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 남성적이며 호탕한 그의 웃 음, 영리하고 아름다운 그의 딸이 그것에 적어도 반쯤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 었는지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 계급적 충성심과 소작인들에 대한 완고한 태도를 가졌던 아버지 데시뇨리가 정말 덜 고상한 관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지가 점점 의문스럽게 생각되었다. 도대체 선과 악이나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는 것인지, 결 국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가 유일하게 타당한 심판관인 것은 아닌지 하는 것들도 의문스럽게 생각되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플리니오는 잘못하고 있었다. 왜냐하 면 사실 그는 행복감이나 안정되고 긍정적인 기분이나 신뢰감이나 확실한 상태 속 에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나 회의나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 문이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심한 의미로 불행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 지만 여러 가지 긴장이나 분규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 생활은 어쩌면 그 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인지도 몰랐지만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 던 안정된 기분이나 행복감이나 순진무구한 기분이나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는 못했다. 그것은 사려 깊고 균형 있는 태도를 많이 요구했으며 많은 긴장과 노력 을 기울이게 했다. 잘생기고 훌륭한 재주를 타고난 어린 아들 티토도 진작부터 갈 등과 화해. 구애와 질투의 원인이 되었는데 두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사랑을 받아 버릇이 나빠지게 된 아들은 점점 어머니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결국 그녀의 편 이 되고 말았다. 이것은 데시뇨리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의 가장 쓰라린 마음으 로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통이요 상실이었다. 데시뇨리는 이런 인생에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는 그런 인생을 극복했으며 자기 나름의 태도를 발견하여 그것을 견지했다. 그것은 존경할 만한 태도였다. 그러나 심각하고 어려우며 우울 한 기분이 깃들어 있는 태도였다.

크네히트는 여러 차례의 방문이나 만남을 통해 이 모든 사실들을 친구로부터 차차 듣게 되었지만 그 자신도 이런 의견 교환의 기회에 자신의 경험이나 문제에 관해 많은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크네히트는 결코 상대방이 고백을 하고

난 뒤 시간이 바뀌고 기분이 달라짐에 따라 그것을 다시 후회하게 되어 그것을 철 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처지에 빠지도록 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솔직하고 정성 을 다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플리니오의 신뢰감을 유지시키고 강화시켰다. 크네 히트의 생애가 서서히 친구의 눈앞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 에는 분명한 구조를 갖는 위계적인 질서 내에서 전개되는 단순하고 직선적이고 모 범적이고 잘 정돈된 인생이고 또 성공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었지만 그러면서도 차라리 힘들고 많은 희생이 따르고 또 그야말로 고독한 인생이 었다. 외부세계에서 온 데시뇨리는 이 같은 인생의 많은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중요한 줄기들이나 근본적인 기분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 데시뇨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젊은 층과 그릇된 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 대한 크네히 트의 욕구름. 화려함이 없고 체면유지에 대한 영원한 압박감이 따르지 않는 소박 한 활동. 예를 들어 하급학교의 라틴어교사나 음악교사로서의 활동에 대한 욕구를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크네히트의 개업의사적이고 교육자적인 방식에 부합했지만 크네히트는 대단히 솔직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환자의 마음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 환자에게 자신을 돕고 자신에게 봉사할 수 있 다는 암시도 주었으며, 그럼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극을 주었다. 실제 로 데시뇨리는 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었다. 중요문제에 있어서는 별 로 그렇지 못했지만 세속 생활의 수백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크네히트의 호기심이나 지식욕을 충족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더 많은 도움이 되어 줄 수 있었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는 젊은 시절의 친구가 다시 미소를 짓고 웃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무엇 때문에 크네히트가 떠맡았던 것인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친구가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에게 유용한 존재가 될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든 무슨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람인 데시뇨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데시뇨리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다. "친구 크네히트가 어떻게 해서 나같이 체념적이고 폐쇄적

인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 보려고 하게 될 때면 거듭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대부분 마법에 바탕을 두고 있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장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했 네. 크네히트는 주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장난꾸러기였으며, 장난과 위트와 재치에 넘치는 사람이었네. 마법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모습을 감 추거나 신출귀몰하거나 하는 일에 매우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었네. 내가 생각하 기에 크네히트는 내가 처음으로 카스탈리엔 당국에 나타나게 되었던 그 순간에 벌 써 나를 사로잡아 자기 방식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로, 즉 나를 각성시키고 보 다 나은 형태로 바꾸어 놓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네. 적어도 그는 바로 그 첫 순간부터 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가 나 를 떠맡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네. 나는 크네히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의 일을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네. 반사적으로 하는 것일세. 그들은 자 신이 어떤 과제 앞에 놓이게 된 것을 직감하는 것이라네.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자신 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지체 없이 그 소리에 몰두하는 것이네. 크네히트는 내가 불신에 차 있고 겁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의 품에 뛰어들거나 그에게 도 움을 청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한때 그렇게도 개방적이고 이야 기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였던 내가 실망한 빛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그 는 알게 되었는데, 이런 장애가, 결코 작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바로 그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처럼 보였네. 내가 매우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는 결코 긴장을 늦 추지 않았네. 결국 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게 되었네. 그렇게 함에 있 어서 그는 무엇보다도 우리들 서로간의 관계가 주고받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다 시 말해 그의 힘에는 나의 힘이, 그의 가치에는 나의 가치가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는 마찬가지로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이 상응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었네. 첫 번째의 그 긴 대화 에서 그는 나의 출현과 같은 것을 자신이 기다리고, 아니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는 것을 나에게 암시했네. 그 후 차차 그는 나에게 명인의 직위에서 물러나고 주를 떠난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는데, 이때 그는 언제나 그렇게 하는 데 있 어서 자신이 나의 충고나 도움이나 침묵을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 히 하였네. 바깥 세속세계에 있는 친구라고는 나뿐이고 또 그는 아무런 경험도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네. 분명히 고백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좋았네. 또 그런 말은 내가 그에게 전적인 신뢰감을 보이고 또 어느 면에서 나를 그에게 내 맡기게 되는 것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네. 나는 그를 전적으로 믿게 되었네. 그러 나 나중에 가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다시 매우 의문스럽고 불가능한 것 으로 되었네. 그가 정말로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느 정 도인지, 또 나를 사로잡는 그의 수단과 방법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 인지. 소박한 것인지 아니면 계산된 생각이 따로 있는 것인지. 솔직한 것인지 아 니면 인위적이고 즉흥적인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네. 그는 나보다 월등 히 뛰어난 존재이고 또 나에게 너무도 많은 호의를 베풀어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런 것을 조사해 볼 엄두를 전혀 낼 수가 없었네. 어쨌든 지금에 와서 나는. 그의 처 지가 나의 그것과 비슷하며 내가 그의 동정이나 호의에 기대고 있는 만큼 그도 나 의 동정이나 호의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가상적인 주장을 하나의 겸손 일 뿐으로, 나를 사로잡기 위한 설득력 있고 기분 좋은 하나의 암시일 뿐으로 생각 하고 있네. 하지만 나는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느 정도까지 의식적이고 계산 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 왜냐하면 명인 요제프는 그야말 로 훌륭한 예술가였기 때문이네. 한편에서 그는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아 무래도 상관없을 정도로 교육하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치료하는 것, 돕는 것. 역량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충동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 리 작은 일이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그야말로 불가 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네. 즉, 당시 크네히 트는 친구나 훌륭한 의사나 지도자처럼 나를 돌보아 주고. 더 이상 나를 내버려두 지 않았으며, 결국에 가서는 가능한 데까지 나를 각성시키고 또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 말일세. 이것은 주목할 만하고 또 그의 본질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지만 크 네히트는 자신이 명인의 직위에서 벗어나는 데 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카스탈리엔에 대한 때로 거칠고 소박한 내 비판을, 아니 회의와 비난을 냉정하게, 때로는 심지어 적극 동조하면서 듣고 또 그 스스로도 카스탈리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나를 다시 그곳으로 유인해서 이끌고 갔네. 내가 다시 명상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일세. 카스탈리엔적인 음악과 명상, 카스탈리엔적인 명랑성, 카스탈리엔적인 용감성을 통해서 나를 교육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네. 자네들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비카스탈리엔적이고 반카스탈리엔적인 나를 다시 자네들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으며, 자네들에 대한 나의 불행한 사랑을 행복한 사랑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네."

데시뇨리는 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는데, 그가 이처럼 찬탄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명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소년들이나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평이 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을 이용하여 스스로를 교육해 종단의 생활을 하도록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미 오십이 다 되어 가는 사람에게 있어 그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가 때문이었다. 데시뇨리가 완전한 카스탈리엔 사람이, 심지어 모범적인 카스탈리엔 사람이 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크네히트가 의도했던 것, 즉 끈질기고쓰리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의 슬픈 기분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민감하고 소심하게되어 버린 그의 영혼을 다시 조화롭고 명랑한 것으로 만들며, 그의 많은 좋지 못한습관들을 좋은 습관들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물론 유리알유희명인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많은 세부적인 일들을 모두 다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크네히트는 이 손님을 위해서 발트첼과 종단의조직과 인력을 이용했으며, 심지어 얼마 동안은 데시뇨리의 명상연습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종단본부 소재지인 히르슬란트에서 온 한 명상지도교사를 데시뇨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기까지 했다.

명인의 직위에 재임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크네히트는 처음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친구의 초대에 응해 수도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종단본부의 장은 크네히트와 친밀한 사이인 알렉산더였는데, 종단본부의 허가를

받아서 크네히트는 그 방문을 위해 하루 동안의 휴가를 얻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면서도 크네히트는 1년 전부터 이 방문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는 터였다. 한 편으로 크네히트는 우선 친구를 확실하게 해 두고자 했기 때문이었고, 다른 한편 으로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다. 뭐니 해도 그것은 친구 플리니오로 하여금 경직되고 슬픈 기분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 무도 많은 비밀을 안고 있는 바로 그 세속세계로 처음 걸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 었다. 크네히트는 친구가 데시뇨리 가문의 오래된 도시 집을 팔고 새로 사게 되었 던 현대식 집을 보게 되었는데, 이 집은 훌륭하고 매우 현명하며 조심스러운 그의 부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그 부인은 다시 그녀의 잘생기고 시건방지며 차라 리 버릇이 없다고 해애 할 아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그 집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를 대하는 독선적이며 오만하고 어딘가 군림하는 것 같은 태도를 배운 것처럼 보 였다. 뿐만 아니라 이 집의 사람들은 모든 카스탈리엔적인 것에 대해 냉담하고 불 신에 찬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은 명인의 인격에 대해 그렇 게 오랫동안 거부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은 유리알유희명인의 직위에서 어떤 신비 로움과 성스러움과 전설적인 면도 보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의 분위기는 매우 딱딱하고 어색했다. 크네히트는 예의 주시하고 기다리면서 조 용히 행동했다. 부인은 냉정하고 격식을 차린 공손한 태도로. 마음속으로 거부감 을 느끼면서 그를 대하고 있었는데, 마치 집안에 묵게 된 적군 고위 장교를 대하는 듯 했다.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들 티토였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관찰하듯 혹 즐기기라도 하듯 보았을 뿐 아니라 이런 상황 들을 또 충분히 이용했던 것처럼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것보다도 더 집안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부인 사이에서는 부드럽고 조심스 러우며 다소 불안한. 마치 발끝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공손함을 띤 어조가 지배하 고 있었는데, 부인 쪽이 남편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구사하고 있 었다. 아버지는 아들과 친구처럼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은 그 런 노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버릇없이 거절해 버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힘들고, 순진하지 못하며, 억눌린 충동들에 의해 불안하게 내몰리고 있고. 장애와 폭발에 대한 공포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 공동 생활이었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방식은, 집 전체의 양식과 마찬가지로, 혹 있 을지도 모르는 침입이나 습격에 대비해서 아무리 견고하고 촘촘하고 안전하게 보 호벽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코 지나칠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어딘가 좀 지나치게 가식적이고 의도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크네히트는 또 한 가지 점을 분명하게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새로이 가지게 되었던 명랑한 기분의 상당 부분이 플 리니오의 얼굴에서 다시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었다. 발트첼에서나 히르슬란트 에 있는 종단본부청사에서 그 무겁고 우울한 기분을 이미 거의 완전히 털어 버렸 던 것처럼 보였던 플리니오는 여기 자신의 집에서 다시 완전히 우울한 기분 속에 빠져 있었으며, 비난의 기분과 함께 동정심을 불러내고 있었다. 집은 아름다웠으 며 부와 사치스러움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모든 방은 크기에 알맞게 가구들이 배 치되어 있고 두세 가지 색으로 기분 좋게 조화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곳저곳에는 가치 있는 예술품이 놓여 있었다. 크네히트는 즐거운 기분으로 이것저 것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눈을 황홀하게 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그에게 어느 정도 지나치게 아름다운 것으로, 지나치게 완전하고 잘 고안된 것으로, 생성도 변 화도 발전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는 이 아름다운 방들이나 물건들도 어떤 주술의 의미와 보호를 추구하는 어떤 몸짓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이 방 들이나 그림들과 꽃병들과 꽃들은 조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인생을 에워 싸고 동반하고 있지만 이 인생은 바로 그렇게 짜 맞추어진 환경을 가꾸는 방법 외 에는 달리 어떤 방식으로도 조화와 아름다움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느 끼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유쾌하지 못한 인상들을 남기게 되었던 첫 번째 방문이 있고 난 뒤 크네히트는 친구가 한 명상지도교사를 집으로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해 주었다. 그 집의 매우 답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이후 크네히트는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그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친구를 위해 그가 찾고 있었던 사실들도 많이 있었다. 이 첫

번째의 방문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교육문제 와 어린 티토에 관한 대화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 대화에는 티토의 어머 니도 활발하게 참여했다. 명인은 점차 현명하면서도 의심이 많은 이 부인의 신뢰 와 공감을 얻게 되었다. 언젠가 크네히트가 반 농담 삼아 그녀의 어린 아들이 적절 한 시기에 카스탈리엔으로 보내어져 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 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이 말을 무슨 비난이기라도 한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 이면서 이렇게 변명했다. 티토가 실제로 그곳에서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 인지는 그야말로 아주 의문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매우 재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아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아 이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을 자신은 결코 스스로에게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 야기였다. 사실 바로 그런 시도는 일찍이 그 아이의 아버지한테서 한 번도 성공되 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또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플리니오의 아버지와 그 오래 된 가문의 모든 전통과 관계를 끊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들을 위해 오래 된 데시뇨리 가문의 특권을 이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주 마지막 에 가서 그녀는 고통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정 이 아주 달랐다 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아이와 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야 기였다. 그 아이가 없으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 들어 주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깊이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부지불식간에 하게 되었던 이 말에 대해 크네히트는 많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것, 그토록 고상하고 화려하며 잘 조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집과 남편과 일찍이 그녀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유산인 정치와 정당 등 모든 것이 그녀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그녀의 아이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자신이 그 아이와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 집과 그들의 결혼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나쁘고 해로 운 조건 하에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토록 영 리하고 또 겉으로 보기에 그토록 냉정하며 그토록 현명한 부인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이었다. 크네히트는 그녀의 남편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

게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보려는 생각도 전혀하지 않았다. 그러나 드물게 있는 그의 방문을 통해서 플리니오가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린 가정의 상태에 어떤 절도와경고가 주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명인으로서는 데시뇨리의 집에서 점차 그 영향력과 권위를 얻게 되었지만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이 세속세계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더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갔다. 하지만 우리는 크네히트가 여러 차례 수도를방문했던 것에 대해 그가 그곳에서 보고 체험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아주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암시한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크네히트는 지금까지 히르슬란트에 있는 종단본부의 장에게 직무상의 역할이 요 구하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크네히트가 종단본부의 장을 보게 만나 게 되는 것은 히르슬란트에서 열리는 교육국 전체회의 때뿐이었다. 그때에도 이 장은 대개 동료들의 접견이나 환송과 같은 보다 형식적이고 의전적인 직무만을 수 행할 뿐이었고, 회의진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은 대변인이 맡아보고 있었다. 크 네히트가 명인의 직에 취임했을 무렵에 이미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종단 본부 장의 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을 유리알유희명인인 크네히트는 대단히 존경하 고 있었지만 그 장은 크네히트에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주지 않았다. 크네히트에게 있어서 그는 이미 더 이상 인간이. 개인이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였 다. 그 종단본부 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위엄과 정신통일의 상징적 인물로서, 말없 는 정점, 꼭대기로서 교육국과 전체 계층조직이라는 건물 위에서 둥실둥실 떠돌고 있었다. 바로 그 존경할 만한 인물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종단은 그 자리에 새로운 장으로 알렉산더를 선출했다. 알렉산더는 여러 해 전 종단본부가 우리의 요제프 크네히트에게 그의 직무수행의 초기를 위해 붙여 준 바 있었던 바로 그 명 상의 대가였다. 그때 이후로 명인은 이 훌륭한 종단 사람을 존경해 오고 있었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종단 사람도 유리알유희명인이 매일 자신의 세심한 배려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신의 고해자가 되었던 그 시기에 아주 가까이에서 그의 인간적인 본질과 태도를 관찰하고 또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 있었던 이 우정은 알렉산더가 크네히트의 동료가 되고 교육국의 의장이 되었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에게 분명한 것으로 의식되었고 또 그 뚜렷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서로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우정에는, 그것에 또한 공통의 젊은 시절 체험이 결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적 생활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것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동료로서의 공감이었다. 그것의 표현은 환영인사나 작별인사를 할 때 조금더 많은 다정한 기분을 보인다거나, 보다 잘 보다 빨리 서로 이해하게 된다거나, 예를 들어 또 휴회 시간에 잠시 잡담을 나누는 것 등에 국한되었다.

종단명인이라고도 불리는 종단본부의 장은 종단 법규상 그의 동료들인 명인들보 다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종단명인이 최고위 당국의 여러 회의의 의장이 된 다는 전통을 통해서 그는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고 있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종 단은 점점 더 명상적이고 승려적인 성격을 더해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의 권 위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었다. 물론 계층조직과 주 내부에서만 그랬던 것이지 바 깥세계에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종단본부의 장과 유리알유희명인은 교육국 내 에서 점점 더 강한 정도로 카스탈리엔 정신의 진정한 두 대표자로 되어 왔다. 사실 또 명상을 통한 정신 도야와 유리알유희는 카스탈리엔 이전 시대에서부터 전해 내 려오고 있는 매우 오래된 학문분야들. 예컨대 문법학, 천문학, 수학 또는 음악학 과 비교해 볼 때 진정으로 카스탈리엔을 특징짓는 재산들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 로 현재 이 두 재산을 대표하며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들의 위엄을 확증해 주고 고양시켜 주는 것이며. 인생에 있어서의 온기와 만족감을 더 해 주는 것이고, 자신들의 인격을 통해 카스탈리엔 세계의 가장 핵심적이며 성스 러우 두 재산, 두 요소를 구현하고 또 모범적으로 실천해 보인다고 하는 그들의 과 업을 달성토록 하는 또 하나의 자극이었다. 그러므로 크네히트에게 있어 그것은 그의 내부에서 강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삶의 공간으 로 나아가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속박, 또 하나의 저항을 의미했다. 그렇 지만 그런 경향은 중단 없이 계속 발전해 나갔다. 그것은 대략 그가 명인의 직위에 취임한 지 6년째인가 7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는데 그 자신이 이런 경향을 완전하 게 의식하게 된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져 왔으며 '각성'의 인간인 그에 의해 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의식적인 생활과 사유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말해 도 괜찮으리라 생각하지만 자신의 직위와 카스탈리엔 주를 장차 떠나게 되리라는 생각이 그에게 친숙하게 느껴진 것은 대략 이 무렵부터의 일이었다. —그것은 때로 는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해방에 대한 믿음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형태였 고, 또 때로는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과 비슷한 형태였다. 다시 돌아온 젊은 시절의 친구 플리니오와의 그 첫 번째 대 화에서 크네히트는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말로 표현했었다. 그것은 말이 없고 폐 쇄적이 되어 버린 친구의 마음을 열고 얻기 위해서 그랬을 뿐일 수도 있겠지만 다 른 사람에게 이처럼 처음으로 털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새로운 각성과 새로워진 삶 의 기분에 그런 각성과 기분을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는 한 사람을, 밖으로의 최초 의 방향전환을, 실현을 위한 최초의 충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계속된 데시뇨리와의 대화에서, 장차 언젠가 자신 의 지금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의 비상을 감행하겠다고 하는 크네히트의 소원은 이미 결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는 사이에 크네히트 는 이제는 더 이상 존경의 염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회복되고 치유된 자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가까워지게 된 플리니오와의 우정을 세심하게 가 꾸어 나갔으며, 그것을 외부세계와 온갖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는 그 외부세계의 생활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생각하고 있었다.

명인이 아주 한참 뒤에 가서야 비로소 친구인 테굴라리우스에게 탈출의 비밀과 계획을 알려 주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놀라워할 필요가 없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모든 우정관계를 호의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개관하고 또 다스릴 줄을 알았다. 크네히트의 인생에 플리니오가 다시 등장하게 됨으로써 프리츠에게는 경쟁자가, 크네히트의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새로우면서도 오래된 친구가 나타나게 되었다. 크네히트로서도 결코 놀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런 사정에 대해 테굴라리우스

는 당장 격렬한 질투심으로 반응을 보였다.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사실 얼마 동안 은, 즉 그가 데시뇨리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되고 또 그를 올바르게 질서 속에 편 입시키게 될 때까지는 테굴라리우스를 적당히 달래서 멀리 떼어 놓는 것이 오히 려 그의 마음에 더 드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발트첼과 명인의 직위를 조용히 떠난다고 하는 그 의 소원을 테굴라리우스와 같은 인물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킨단 말인가? 장차 크네히트가 발트첼을 떠나게 되면, 그는 영원히 이 친구로부터 사라 져 버리게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좁고 위험한 길로 친구를 함 께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 친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용기를 보인다 하더라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의중을 친 구에게 알리게 될 때까지 크네히트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고 생각하고 주저했다. 그러나 탈출에 대한 결심이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는 그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다. 친구를 마지막까지 모르는 채로 내버려두고, 어느 면 친 구가 모르는 가운데서 그 결과를 사실 친구도 함께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는 계획 을 추진하고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매우 배치되는 일이었을 것이 다. 플리니오의 경우에 있어서와 꼭 마찬가지로 크네히트는 가능한 한 테굴라리 우스를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실제적인 또는 적어도 그런 것으로 상상하는 협력자 내지 동조자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활동은 모든 상황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바로 그만큼은 전달하기를 원하고 또 친구가 그만큼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일이기는 했지만 카스탈리엔 제도의 몰락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한 크네히트의 생각은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친구에게 알려져 있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중을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을 때, 명인은 바로그런 생각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마음이 대단히 편하게도 프리츠는 자신에게 은밀하게 전해진 그 내용을 비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명인이 교육국 내에서의 자신의 직위를 다시 내던져 버리고 발에 묻은 카스탈리엔의 먼지를 털어 내며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생을 선택한다고 하는

생각은 오히려 그를 기분 좋게 자극하고, 아니 그를 즐겁게 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독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모든 규범을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테굴라리 우스는 언제나 당국에 반대하는 개인들의 편에 서 있었다. 그래서 재치 있는 방법 으로 공권력을 타도하고 조롱하며 속이는 일이면 언제든지 그를 끌어들일 수 있었 다. 그럼으로써 크네히트에게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크네히트는 곧바로 친구가 보인 반응에 대응했다. 당국과 고투한 관료들에 대한 일종의 기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친구의 견해에 그대로 동조하면서 그런 기습에서의 공범자 · 협력자 · 공모자로서의 역할을 그에게 지정 해 주었다. 당국에 보내는 명인의 청원서를, 명인으로 하여금 그 직위에서 물러나 도록 한 모든 이유들을 열거,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청원서를 준비 하고 작성하는 일은 주로 테굴라리우스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도 테굴라리우스는 카스탈리엔의 성립과 번영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대한 크네히 트의 역사적 견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런 연후에 역사적인 자료들 을 수집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크네히트의 소원과 제안을 설명해야 했다. 이럼으로 써 테굴라리우스는 지금까지 그가 거부하고 무시해 왔던 분야, 즉 역사연구에 관 심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것에 그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 것처럼 보 였다. 그래서 크네히트는 서둘러 그것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그에게 주었 다. 테굴라리우스는 궤도에서 벗어난 외로운 시도를 위해 자신이 끌어 모을 수 있 는 열의와 끈기를 다해서 그의 새로운 과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고집스러운 개인 주의자인 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계층조직에 대해 그 결점들과 문제점들 을 증명해 보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들을 자극하게 되는 입장에 자신이 처하도록 해 줄 연구들에서 묘한 분노의 감정이 섞인 쾌감을 느끼게 되었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이런 쾌감에 별로 공감하지 않고 있었으며 친구의 여러 가지 노력이 성공을 거두리라고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현재 사정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속박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과업들을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합리적인 이유들 을 들어서 당국을 극복할 수도 없고 또 여기서 해야 할 일의 일부를 테굴라리우스 한테 맡길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테굴라리우스가 아 직은 계속 자신의 옆에서 생활하게 될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 일을 시켜 관심을 다 른 데로 돌리게 한 것은 그로서는 매우 잘된 일이었다. 다음번에 만났을 때 플리니 오 데시뇨리에게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난 뒤 크네히트는 이렇게 덧붙여 말했 다. "친구 테굴라리우스는 지금 일에 열중하고 있으며, 자네가 다시 옴으로 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네. 그의 질투심은 이미 거의 치료된 것이나 마찬가지네. 나를 위하는 것이면서 나의 동료들에게 반 대하는 것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그에게서 좋은 효과를 내고 있네. 그는 거 의 행복해하기까지 하고 있네. 그러나 내가 그의 활동에서 그것이 그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좋은 효과 외에 어떤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지는 말 게, 플리니오, 우리의 최고위 당국이 계획되고 있는 그 청원서를 수리하리라고 하 는 것은 그야말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일세. 아니, 불가능한 일일세. 기껏해야 당국은 나에게 가벼운 비난이 섞인 경고로 답할 걸세. 나의 의도와 그것의 실현 사 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우리 계층조직의 기본법 그 자체일세.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어 있는 청원서라 하더라도 그런 청원서에 따라 자신의 유리알유희 명인을 내보내고 또 그에게 카스탈리엔 밖에서의 활동을 허락하는 당국이라면 그 당국 또한 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게 될 걸세. 뿐만 아니라 종단명인 알렉산더가 또 있네.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인물일세. 뭐니 해도 나는 결국 이 싸움을 내 혼자서 끝까지 치르지 않으면 안 될 걸세. 하지만 당분간은 테굴라리우스로 하여 금 그 예리한 감각을 실컷 발휘하도록 내버려 두세. 그럼으로써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얼마간의 시간뿐일세. 발트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나의 퇴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의 모든 것을 잘 정돈된 채로 남겨 두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나는 시 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말일세. 하지만 그 사이에 자네는 나를 위해 자네들 세 계에서 숙소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게. 아주 소박한 일자리라도 괜찮네. 어쩔 수 없 는 경우라면 음악교사 자리 같은 것도 상관없네. 그저 하나의 시작, 하나의 도약대 이기만 하면 되니까 말일세."

그와 같은 일은 언제라도 문제없으며, 때가 다가오게 되면 자신의 집을 얼마 동안

이라도 친구가 사용해도 좋다고 데시뇨리는 말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건 안 되네." 그는 말했다. "내가 손님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네. 나는 일을 가져야 하네. 자네 집에 머무른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며칠 이상 계속되면 집안의 긴장이나 어려움만을 더해 주게 될 걸세. 어디까지나 나는 자네를 믿고 있네. 자네 부인도 사실 나의 방문에 익숙해져 있으며 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방문자나 유리알유희명인이 아니고 피난민이나오래 머무는 손님이 되면 이 모든 것은 대번에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걸세."

"그렇지만 자네는 너무 딱 잘라서 생각하고 있네." 플리니오가 말했다. "자네가 우선 먼저 이곳에서 자유롭게 되어 수도에서 거처를 가지게 될 경우 얼마 있지 않아서 자네가 자네한테 걸맞은 자리를, 최소한 대학교수 자리를 얻게 되리라는 것—이것을 자네는 분명히 믿어도 될 걸세. 그러나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일세. 또 당연한 얘기지만 자네가 이곳을 완전히 떠나게 된 이후에라야 나는 자네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걸세."

"그야 물론 그렇지." 명인이 말했다. "그때까지는 내 결심은 비밀로 남아 있어야하네. 우리 자신의 당국이 사정을 알게 되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내가 자네들의 당국의 처분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세. 하지만 사실 또 나는 무엇보다도 어떤 공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일세. 나의 요구는 소박한 것일세. 어쩌면 자네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소박한 것일지 모른다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방 하나와 그날그날 먹을 빵일세.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교사로서 교육자로서의 일과 소임일세.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명 또는 몇 명의 제자나 학생일세. 함께 살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자나 학생 말일세. 나는 대학교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네. 한소년의 가정교사나 그 비슷한 것이 되면 나는 대학교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즐거워할 걸세. 내가 찾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일일세.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인간일세. 어느 대학으로 초 빙되면 처음부터 나는 다시 인습적이며 신성시되고 있고 기계적인 직무기구 속으

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걸세.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반대의 것일세." 머뭇거리는 것 같은 태도로 이제 데시뇨리는 이미 얼마 전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 었던 한 가지 소망을 털어놓았다.

"한 가지 제안을 했으면 하네." 그는 말했다. "적어도 그것을 들어 주고 또 호의적 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네. 어쩌면 자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걸세. 그리 되 면 자네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되고 말일세. 이곳에서 내가 자네의 손님이 되었던 그 첫 날 이후 자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나를 계속 도와주었네. 자네는 내 생활과 내 집도 알게 되었으며 그곳의 사정이 어떤지도 알고 있네. 사정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보다는 좋아졌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와 내 아들 사이의 관계 일세. 이 아이는 버릇이 없으며 건방지네. 이 아이는 우리 집 안에서 우대 받고 보 호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네. 사실 이 아이가 그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쉽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아직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나 내가 이 아이의 마 음을 얻기 위해 비위를 맞추었기 때문이었네. 그 후 이 아이는 완전히 어머니 편 이 되어 버렸네. 점차 나의 모든 효과적인 교육수단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고 말 았네. 이런 사정에 대해 나는 어쩔 도리가 없었네. 일정 부분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내 인생 전체에 대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나는 체념하고 있었네. 그러나 자네의 도움을 받아 내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된 지금 나는 다시 희 망을 품게 되었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자네도 알고 있을 걸세. 그러지 않아 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티토가 얼마 동안 자신을 돌보아 줄 선 생을, 가정교사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에 내가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일세. 이것은 이기적인 소망일세. 그 점을 나는 잘 알고 있네. 자네가 이런 일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건지도 나는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의 말을 듣고 나는 이런 제안을 입 밖에 낼 용기를 가지게 되었네."

크네히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맙네, 플리니오. 이보다 더 내 마음에 드는 제안은 없을 걸세. 자네 부인의 동의만 남아 있을 뿐일세. 나아가 자네 부부 두 사람은 당분간 나한테 아들을 전적으로 맡길 결심을 해야 할 걸세. 내가 그 아이를 수중에 넣기 위해서는 양친의 집으

로부터의 일상적인 영향이 제거되어야 하니까 말일세. 이 점에 대해 자네 부인과 의논을 해서, 부인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게. 신중하게 처리하게. 서 두르지 말게!"

"자네 생각은 어떤가? 티토에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가?" 데시뇨리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나?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좋은 혈통과 훌륭한 재능을 물려받고 있네. 다만 이런 요소들의 조화가 없을 뿐이네. 이런 조화에 대한 욕구를 그 애의 가슴속에 일깨우고, 아니 강화시키고, 결국 분명히 의식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일이 될 걸세. 이 일을 나는 기꺼이 맡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제프 크네히트는 두 친구에게 각각 아주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제 나름의 일을 맡기게 되었다. 데시뇨리가 수도에서 그의 부인에게 새로운계획을 설명하면서 그녀가 이 계획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는 동안, 발트첼에서는 테굴라리우스가 크네히트의 지시를 따르며 도서관의 한 골방 연구실에 앉아서계획하고 있는 문건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는 명인이 읽도록 해준책들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역사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프리츠 테굴라리우스는 전쟁의 시대의 역사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다. 유희를 함에 있어서 언제나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그는 점점 더해가는 의욕으로 종단의 암울한 이전시대인 그 시대의 여러가지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일회들을 수집하고 있었으며 그결과 굉장히 많은 일화들을 모으게 되었다. 명인은 몇 개월 뒤 자료들을 제출 받게되었을 때 그것의 10분의 1도 채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 무렵 크네히트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도를 방문했다. 무릇 건강하고 조화로 운 인간은 어려움에 처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주 쉽게 환영을 받는 것처럼, 데시뇨리 부인은 점점 더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남편의 계획에 찬성하게 되었다. 티토와 관련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 하면, 티토는 어느 땐가 명인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다소 버릇없는 말투로 명인에 게 모든 사람이, 학교의 선생들까지도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기 때 문에 명인이 자신을 '자네'라고 부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네히트는 매우 공손한 태도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사과했다. 크네히트는 티토에게 자신의 주에서는 선생이 모든 학생들이나 연구생들에게, 이미 어른이 된 학생들에게도 '자네'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크네히트는 소년에게, 자신과 함께 잠시 밖으로 나가 시내를 좀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산책을 나가게 되었을 때 티토는 그를 구 시가지의 어느 화려한 거리로도 안내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부유한 명문 귀족 가문의 수백 년도 더 된 오래된 집들이 거의 빈틈이 없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견고하며 폭이 좁고 키가 높은 이런 집들 가운데 어느한 집 앞에서 티토는 멈춰 섰다. 그리고는 현관 위에 붙어 있는 문장을 가리키며이렇게 물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크네히트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 이건 데시뇨리 가문의 문장(紋章)입니다. 이건 오래된 우리 종갓집인데 3백 년간 이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래도 좋은 흔해빠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 아버지가 무슨 변덕이 나셨는지 이 멋지고 당당한 종갓집을 팔아 버리고 현대식 집을 새로 지었기 때문입니다만 그 집도 지금에 와서는 이미 더 이상 그렇게 현대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옛날 집을 몹시 아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크네히트가 다정하게 물었다. 티토가 격정적으로 긍정의 뜻을 표하면서 "이런 일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을 반복했을 때 크네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올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집 옆에 새 집이 서 있는 가운데 그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아마도 그는 옛날 집을 그대로 지켰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아름다우며 존중할 만합니다. 여기 이 집과 같이 아름다운 집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집을 짓는 것 역시 아름다운 일입니다. 공명심과 야심에 찬 한 젊은이가 다 되어 있는 집에 순순히 들어가 편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아주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는 집을 짓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아직 당신 나이 또래로 무턱대고 덤비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를 알고 있

는 바에 의하면, 이 집을 팔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신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가족과 심각한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카스탈리엔에서 받았던 교육은 그에게 있어 그렇게 완전히 올바른 교육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격정에 휘말려 저지 르게 된 몇 가지 성급한 일로부터 그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급한 일들 가 운데 하나가 아마 이 집을 판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가문의 전 통과 아버지, 과거의 의존적인 생활 전체를 모욕하고 또 선전포고를 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나는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 지만 인간은 묘한 존재라. 나는 또 하나의 다른 생각이 아주 그럴듯하게 머리에 떠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 집을 판 그 사람은 그렇게 팔아버림으로써 가문에 어 떤 아픔을 주려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려 했던 것 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가문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가문은 그를 우리의 영재학 교로 보내어 그곳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와 요구들을 가지고서 그를 맞이했습니 다. 하지만 더 이상 심리학적 해석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집을 판 일과 관련되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와 갈등이, 그 증오가, 증오로 변형 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것을 보여 줍니다. 활기에 넘치고 재능이 있 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갈등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그런 예를 많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고 이 집을 다시 가문의 소유로 만드는 일을 자신의 필생의 과업으로 삼는 미래의 한 젊은 데시뇨리를 충분히 상 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티토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옳다고 생각지 않으시는 겁니까?"

"여보게, 젊은이. 나는 그 사람의 재판관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후대의 어느 한 데시뇨리가 가문의 위대성과 함께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의무를 생각하게 되어 국가와 민족과 정의와 복지에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매우 강한 인물이 되어 집도 다시 사들일 수 있게 된다면.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집 문제 이외에 어떤 다른 인생의 목표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야말로 그저 무엇에 미친 사람, 무엇에 홀린 사람, 격정적인 사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만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의 갈등의 진정한 의미를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이해할수도 있고 또 동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문의 명성을 더 높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오래된 가문이 애정으로 그 집에 매달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가문이 젊어지고 새로운 위대성을 가지려면, 그 자손들이 언제나가문의 목표보다는 더 큰 목표에 봉사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산책길에서 티토는 주의를 다해서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님의 말을 들었지만 다른 기회에는 다시 거부적이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느 때 그렇 게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던 두 부모 모두가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한테서 티토는 자기 자신의 버릇없고 제멋대로 하는 생활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힘을 느끼게 되었다. 때로 그는 아주 불손한 태도를 보 였다. 그러나 이럴 때면 언제나 유감의 기분과 보상하고 싶은 기분이 그 뒤를 따랐 다. 번쩍거리는 철갑처럼 명인을 둘러싸고 있는 명랑하면서도 공손한 태도 앞에서 약점을 보이게 된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경험이 없고 다소 거칠 어져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티토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어 쩌면 매우 사랑할 수 있고 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었다. 티토가 이런 사실을 특히 강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은, 일 때문에 붙잡혀 있는 아버 지를 기다리며 혼자 있는 크네히트와 마주치게 되었던 30분 동안의 일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티토는 손님이 눈을 반쯤 감은 채 조각상과도 같은 자세로 꼼 짝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깊은 명상에 잠겨 조용하고 차분한 기운을 발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발소리를 낮추고 발뒤꿈치를 든 걸음걸 이로 다시 조용히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앉아 있던 손님이 눈을 뜨 더니 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방안에 있는 피아노를 가리키며 그에게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그리 순조롭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선생들로부터 충 분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 까닭에 더 이상 음악공부 시간을 갖지 않고 또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은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되기는 했지만 음악을 듣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고 티토는 말했다. 크네히트는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 앞에 앉아 그것이 조율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서는 스카를라티 작곡의 한 안단테 악장 을 연주했다. 그가 최근 어느 유리알유희 연습에 기초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악장이 었다. 잠시 뒤 그는 연주를 중지했다. 소년이 주의를 다하고 있고 열심인 것을 알 았기 때문에 그는 소년에게 유리알유희 연습이 대강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략하 게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 음악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부분으로 분석했으 며, 이 부분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종류의 분석법을 제시해 보이며, 음악 을 유희용 상형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암시했다. 티토는 처음으로 명인을 손님으 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가 거부하는 유명한 학자로서 보지 않 게 되었으며, 명인이 그 자신의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대단히 섬세하고 정밀한 기술을 배워 명인으로서 그것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의 의미를 티 토는 그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었지만 그것은 한 인간 전체와 그의 헌 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자신을 아주 어른으로, 아주 현명한 사람 으로 생각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복잡한 사물들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의 자존심을 북돋아 주었다. 그는 차분해졌으며, 이 30분 동안에 이 주목할 만한 사람의 그 명랑한 기분과 안정되고 차분한 기분이 어디에서 비롯 하는 것인지 어렴풋이 예감하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있어서의 크네히트의 직무상의 활동은 일찍이 그의 직무를 넘겨 받았던 그 어렵던 시기에서만큼 철저했다. 자기 업무의 모든 부문을 바람직한 상태로 남기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목표였다. 이런 목표를 그는 실제로 또 달성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없어도 되거나 또는 적어도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한다고 하는 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사실 우리 최고위 관직에 있어서 사정은 거의 언제나 이러하다. 명인은 그저 거의 최상급의 장식품, 번쩍거리는 휘장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그의 업무영역 저

위에서 둥둥 떠다닌다. 그는 다정한 정령처럼 가벼운 동작으로 빨리 왔다 빨리 가 며, 두어 마디 말을 하고, 머리를 끄덕여 긍정의 뜻을 표하며, 몸동작을 통해 명령 을 암시하고, 이내 곧 사라지며, 이내 곧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다. 그는 음악 연주 자가 악기를 다루듯이 자신의 직무기구를 가볍게 다룬다. 어떤 힘도 어떤 생각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진 행된다. 그러나 이 기구 안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관리는, 명인이 여행을 떠나거 나 병석에 들 경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단 몇 시간 동 안이나 또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그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연기자 마을이라는 그 작은 나라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시찰하는 동 안, 특히 그의 '그림자'가 머지않아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자신을 대신해야 한다고 하 는 그 과업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 모든 마 음을 다 기울이고 있는 동안, 크네히트는 또한 동시에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 이미 그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것과, 잘 고안된 이 작은 세계의 모든 소중 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지도 또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그는 이미 발트첼과 자신의 명인 직위 를 거의 자신의 뒤에 놓여 있는 어떤 것으로. 그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고 또 많 은 것을 가르쳐 주기는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떠한 힘이나 행위도 불 러낼 수 없는, 다 통과해 버린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서서히 자신을 해방시키며 작별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가 또한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된 사실 이지만 그가 이질화되고 또 떠나려는 생각을 하게 된 진정한 이유는 카스탈리엔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 아 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의, 그의 마음의, 그의 영혼의 활동하지 않는 채 빈 것 으로 남아 있었던 한 부분이 이제 그 권리를 요구하며 스스로를 실현시키려 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종단의 헌법과 규약들도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연구했으며, 자신이 주를 떠나는 것이 원칙적인 면에 있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며 그가 처음에 생각했 던 것처럼 실현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양심상 의 이유로 사임을 하는 것은 그의 자유였으며 종단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 종단 단원이 이런 자유를 이용하는 것은 비록 매우 드문 일이었고 또 최고위 당 국의 한 구성원이 이런 자유를 이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지만 종단서약 은 종신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종단을 떠나는 그 일이 그에게 그토록 어렵 게 보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엄격한 법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자신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계적인 정신 그 자체. 즉 충성심과 동맹에 충실한 정신이었 다. 분명히 그는 비밀리에 떠나 버릴 생각이 결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얻 기 위해서 상세한 청원서를 준비했다. 순진한 테굴라리우스는 그것을 작성하느라 손가락에 멍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이 청원서가 성공하리라고 생각지는 않 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달래고 그에게 경고할 것이었다. 어쩌면 또 최근 야코부 스 신부가 세상을 떠난 마리아펠스로나 또는 로마로의 요양휴가를 그에게 제시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를 자유롭게 해 주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 점을 크네히트는 점 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를 자유롭게 내보내는 것은 종단의 전통을 정면 으로 거스르는 일이 될 것이었다. 만약 당국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으로 당국은 그 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시인하는 셈이 될 것이었다. 카스탈리엔에서의 생활이, 심지어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의 생활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인간에게 만족스러운 것이지 못하고 체념적이며 포로와도 같은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하 는 것이 될 것이었다.

회람

우리는 우리 이야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미 암시했던 것처럼 이 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며 역사적 보고의 성격보다는 차라리 전설의 성격을 더 많이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크 네히트 전기의 끝에서 두 번째 장(章)을 믿을 수 있는 한 기록으로, 즉 유리알유희 명인 크네히트 스스로 당국에 자신의 결심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당국이 자신을 유리알유희명인 직위에서 해임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방대한 편지로 채울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기분 좋은 일이다.

분명히 말해 둘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요제프 크네히트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 고 있듯이 대단히 정성 들여 준비했던 이 편지의 성공을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 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청워서'를 차라리 더 이상 전혀 작성하지 않고 또 제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크네히트는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모 든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힘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 본인 에게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유리알유희명인은 친구인 테굴라리우스 를 자기 계획의 후원자·동조자가 되게 함으로써 친구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즐거워 했지만 지금 일어난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고 바랐던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프리츠의 마음을 얻거나 유혹을 해서 어떤 일을 시켰지만 당사자인 자신은 이 일의 가치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러 나 친구가 마침내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 제출했을 때 크네히트는 그 일을 이제 와 서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또 그가 그 일의 결과를 이용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사실 그 일을 통해 그가 이별의 아픔을 달래 주려고 했던 그 친구는 틀림없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실망을 하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자신의 눈앞에서 이제 거의 무의미한 일로 되어 가고 있는 '청원서' 작성의 길을 택하기보다는 즉시 자신의 직을 사임하고 종단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는 것이 당시 그의 의도에 더 부합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친구를 생각해서 크 네히트는 한 번 더 얼마 동안 자신의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부지런한 테굴라리우스가 작성한 원고를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것은 주로 그가 증명이나 예증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했던 역사적인 자료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또한 계층조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세속세계와 세계사에 대해 예리하고도 재치 있게 표현된 많은 비판의 말들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도 이는 그리 심하게 틀린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러 달에 걸쳐 대단히 끈기 있게 작업하여 완성된 이 원고가, 사실 그럴 가능성이 매우크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책은 그것을 공표하기에 적절한 자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는 명인이 자신의 친구가 작성한 원고를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는 점뿐이다. 친구가 그 원고를 엄숙한 태도로 그에게 내놓았을 때, 그는 그것을 충심 어린 감사와 치하의 말을 하면서 건네받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를 기쁘게 해 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그 원고를 자기 앞에서 읽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 테굴라리우스는 며칠 동안 30분씩, 때는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명인의 정원에 함께 앉아서, 만족한 기분으로 그에게 자신의 원고를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장(章)들을 읽어 주었는데, 그런 낭독은 두 사람이 소리 내어 크게 웃음으로 해서 가끔씩 중단되기도 했다. 테굴라리우스 로서는 즐거운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크네히트는 뒤로 물러나 친구가쓴 원고의 몇몇 부분을 이용하면서 당국에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작성했는데, 더이상 어떠한 주석도 가할 필요가 없는 이 편지를 원문 그대로 다음에서 전하고자한다.

교육국에 보낸 유리알유희명인의 편지

유리알유희명인인 제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희망을 저의 장엄 보고서에 함께 포함 시키지 않고 따로 분리된, 어느 면에서 보자면 보다 사적인 이런 편지의 형태로 당 국에 전달하기로 결심한 것은 여러 면에 걸친 고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가 이 편지를 만기가 다 된 공식 보고서와 동봉을 하면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처리 될 것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것을 저의 동료 명인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회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충실한 자신의 직무수행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되거나 이런저런 위 험에 직면하게 될 때 그런 사정을 당국에 알리는 것은 명인의 의무들 가운데 하나 입니다. 현재의 저의 직무수행은, 비록 제가 저의 혼신의 힘을 다해 직무에 봉사하 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는 직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 겨집니다) 이런 위험은 제 자신의 인격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서만 비롯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적어도 저는 유리알유희명인으로서의 제 개인 적 자격의 약화라고 하는 도덕적 위험을 동시에 제 개인 밖에 존재하고 있는 객관 적인 위험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 다. 저는 저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 끼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가 가꾸고 육성시켜야 할 유리알유희 그 자체가 위험 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암시한 바의 그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가 일단 그런 위험을 인식하게 된 후 바로 그 위험이 현재 제가 서 있는 곳과는 다른 장소로 저를 절박 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당국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어떤 비 유를 통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다락방에 앉아서 까다로운 학문연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집의 아래쪽 부분에서 불이 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인지 아닌지, 자신의 목 록들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고 그는 아래로 달려 내 려가 집을 구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유리알유희를 연구 하며, 온통 섬세하고 까다로운 공구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며 카스탈리엔이라는 우리 건물 맨 위충들 가운데 하나에 앉아 있는 것이며, 본능적으로 후각으로 아래 어딘가에서 불이 타고 있다는 것과 우리 건물 전체가 위태롭고 위험한 처지에 빠지고 있다는 것과 이제 제가 음악을 분석하거나 유희규칙을 세련시킬 것이 아니라연기가 나고 있는 그곳으로 서둘러 가야 한다는 것에 온갖 주의를 다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카스탈리엔이라는 제도. 우리의 종단. 유리알유희와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학문 활동과 교육활동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 그 호흡하는 공기나 발 을 딛고 서 있는 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우리 종단 단원들에게 있어 아주 자명 한 것입니다. 이 공기와 이 땅이 혹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어느 날 우리가 마실 공기가 모자라게 되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해 보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으나 잘 정돈되고 밝 은 세계 안에서 편안하게 보호를 받는 가운데 사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이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세 계가 항상 존재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젊은 시절 아주 기분 좋은 이런 환상 속에 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스탈리엔에 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국에 의해 이리로 보내어져 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카스 탈리엔과 종단과 교육국과 강의실과 기록관과 유리알유희는 결코 옛날부터 언제 나 존재하고 있는 것 즉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고귀하기는 하나 만들어진 모든 것 과 마찬가지로 인간 의지에서 비롯하는 후대의 산물로 무상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있어 아무런 현실성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런 사실을 못 본 척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들 가운데 4분의 3이상은 바로 이런 기이하면서도 기분 좋은 착각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과거 수백, 수천 년 동안 종단도 없고 카스탈리엔도 없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다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료들과 존경하는 당국에게 이

런 사실을, 이런 자명한 이치를 상기시키며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 위험들에 대해 한번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구할 때, 즉 제가 호감을 받을 수 없으며 쉽게 비난을 살 수 있는 예언자, 경고하는 자, 참회 설교자의 역할을 잠시 떠맡을 때 저는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비난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희망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제 편지를 끝까지 읽어 주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개별적인 문제들에 있어 심지어 저의 주장에 동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만 되어도 고마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작은 정신왕국이라 할 우리 카스탈리엔과 같은 제도는 안팎의 여러 가지 위험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안에서 나타나는 위험들은, 또는 적어도 그 위험들 가운데 많 은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으며 관찰되고 있고 또 제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수의 학생들을 영재학교로부터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서 우리가 그들을 우리 사회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험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결코 근절될 수 없는 속성들이나 충돌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리라고 기대 하는 바입니다만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열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인 것은 아직 아니며 단지 카스탈리엔적인 생활에 부적합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세 속세계로 돌아간 뒤 그들에게 적합한 생활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 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제도는 그 존재가치 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 그것이 자신 의 품위와 자기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상급 계층을, 정신적인 귀족계급 을 자임하면서 항상 새로이 그런 계급을 양성해 낸다고 하는 그 본래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우리는 자연스럽고 참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품위 없는 사람들이나 태만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단적 거만함, 즉 모든 귀족, 모든 특권적 지위 가 그릇 가지게 되기 쉬우며 또한 모든 귀족이 정당하게든 부당하게든 그때문에 가끔 비난을 받게 되는 계급적 오만함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의 사정은 벌써 그렇 게 훌륭한 것이 못 됩니다. 사회의 역사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귀족계급을 형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귀족계급의 형성은 사회 역사의 정점이고 왕관입니다. 어

떤 종류의 것이든 귀족주의가, 즉 소수 정예의 지배가 모든 사회 형성 노력의, 언 제나 용인되는 것이지는 않지만 진정한 목표요 이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정치적 귀족이든 또는 다른 귀족이든, 태생 귀족이든 선발과 교육의 귀족이든 새 로이 형성되는 귀족계급을 보호와 여러 가지 특권을 통해 후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권력은, 전제군주적인 권력이든 정체불명의 권력이든, 언제나 나타나고 있었 습니다. 혜택 받은 이 귀족계급은 언제나 그 태양 아래에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 나 태양 속에 서서 특권을 누리는 일은 언제나 발전의 어느 단계에서부터 귀족계 급에게 유혹이 되었으며. 그것의 부패를 결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의 종단을 귀족계급으로 생각하고서 우리 자신을. 전체 국민과 세계에 대한 우리 의 행동이 우리의 특별한 지위를 어느 정도로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지, 귀족계급 의 특징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오만함과 거만함과 계급적 자만심과 현학적인 태 도와 배은망덕한 이기적 태도가 이미 어느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 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여 러 가지 걱정이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카스탈리엔 사람은 종단의 규 칙에 대한 복종심이나 근면한 태도, 개발된 정신성은 결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 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과 세계, 세계사에의 자신의 편입에 대한 통찰을 그는 매우 자주 심각하게 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자기 존재의 토대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잎이나 꽃, 가지 또는 뿌리로서 어떤 살아 있는 유기체 에 속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옷을 입혀 주며 교육과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 줌으로써 국민이 자신에게 바치는 희생에 대해 그는 뭘 좀 예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나 특별한 위상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종단과 활동의 목적에 관해 그는 어떤 실 제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외들이, 찬양할 만한 많은 예외들이 있음을 인 정합니다만 저는 이 모든 물음들에 대해 부정의 답을 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보통 의 카스탈리엔 사람은 아마 바깥세계의 학식이 없는 사람을 멸시의 기분이나 시기 심이나 증오감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깥세계의 사람을 자신의 동 료로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는 바깥세계의 사람을 자신에게 빵을 제공해 주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거기 바깥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조차 도 함께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활동의 목적을 학문 그 자체를 위한 학 문의 연구로 또는 그저, 결코 완전히 그런 것이 아닌데도 즐겨 보편적인 것인 체 하고 있는 교양의 정원에서 느긋한 기분으로 소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카스탈리엔적인 교양은, 분명히 고귀하고 숭고한 고양으로서 그에 대해 제가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면서 대변하고 있는 대부분 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관이나 도구가 되거나 적극적으로 목표들을 지향하거나. 보다 큰 것이나 보다 깊은 것에 봉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향유와 자기찬양으로. 정신적인 특별한 능력의 개발과 고양으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일 외에 실제로 어떤 다른 것도 바라지 않는 성실하고 대 단히 훌륭한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 테서 교육을 받은 선생들, 특히 우리 주의 편안한 분위기나 정신적 사치를 멀리 한 채 바깥 나라의 세속 학교들에서 체념적이기는 하나 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봉 사를 하고 있는 선생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말한다면 거기 바 깥세계의 이 훌륭한 선생들은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 진실로 카스탈리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바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 족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많은 혜택을 나라와 민족에게 다시 갚고 있는 것입니 다. 대단한 작용력을 갖는 도덕적 요소로서도 그 위력이 입증된 바 있는 정신적 기 초를, 즉 다른 무엇보다도 법의 토대이기도 한 진리에 대한 의식을 나라와 세계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일이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점-이 점을 우 리 종단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좀 검토해 볼 때 우리들 대부분은, 세계의 안녕은, 대단히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는 우리 주의 바깥 에서도 정신의 성실성과 순수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자신들에게 있어 결코 가장 중 요한 일이, 아니 도대체가 중요한 일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기 바깥에서 용감하 게 활동하고 있는 그 선생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벗어버리는 일과 우리 유리알유희연기자·천문학자·음악학자 수학자가 누리는 특권들을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아주 기꺼이 그 선생들에게 내맡겨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그 오만한 태도나 계급적 배타심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들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한 업적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은 종단규정에 따른 물질적인 면에서의 절약하는 생활태도에 대해 그것이 마치 하나의 큰 덕목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해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카스탈리엔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내적 해악과 위험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코자 합니다. 시절이 조용할 경우 앞으로도 한참 동안 우리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해악과 위험은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은 우리의 도덕과 이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상황이나 민족의 의지에도 아주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빵을 먹고 도서관을 이용하고 학교와 기록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민족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면 또는 나라가 가난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그럴 능력을 잃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생활과 연구는 끝나 버리게 됩니다. 장차 어느 날 우리나라가 카스탈리엔과 우리의 문화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사치스런 존재로 여기게 된다면,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가 장차 어느 날 우리를, 지금까지처럼 호감을 가지고서 우리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대신 기생충이나 해충, 아니 이단자나 원수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된다면—이것은 바깥으로부터 우리를 위협해 오고 있는 위험들입니다.

제가 평균적인 카스탈리엔 사람의 눈앞에 이런 위험들을 제시해 보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역사에서 가져온 몇 가지 보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때 저는 어느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에, 거의 순진한 것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무지나 무관심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 고 계시다시피, 우리 카스탈리엔 사람들의 세계사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약합니 다. 아니, 우리들 대부분은 관심을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만 역사에 대한 정당한 태도와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무관심과 오만이 뒤섞인 이런 혐 오감으로 인해 저는 종종 조사를 해보고픈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혐 오감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역사—제 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매우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정신사나 문화 사가 아닙니다.—의 내용들이 어딘가 가치가 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세계사는 권력과 재산과 영토와 원료와 돈, 간 단히 말해 물질적인 것과 양적인 것, 우리가 비정신적인 것 또는 차라리 멸시할 만 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물들을 얻기 위한 무자비한 투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 다. 우리에게 있어 17세기는 데카르트나 파스칼, 프로베르거, 쉬츠의 시대이지 크 롬웰이나 루이 14세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사에 대해 우리가 혐오감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어느 특정 형태의 역사고찰과 역사기술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인,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근거가 있는 불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역사고찰과 역사기술은 우리 종단이 창설되기 전의 그 몰락의 시대에 널리 유행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해 우리는 처음부터 최소한의 신뢰감도 갖지 않고 있 었습니다. 이른바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의 재기 넘치는 개화와 또한 동시에 위험천만한 영향을 우리는 헤겔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뒤를 이은 세기에 들어와서 추악하기 그지없게 역사를 왜곡하고 진리의식을 타락시켰 습니다. 이른바 역사철학에 대한 애호는, 우리가 보기에 대규모의 정신적 타락과 정치적 권력투쟁의 시대, 즉 우리가 가끔 '전쟁의 세기'로, 그러나 대개의 경우 '잡 문시대'로 부르고 있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그 시 대의 폐허 위에서, 그 시대의 정신—또는 비(非)정신—을 타도하고 극복하는 데서 현재의 우리 문화가, 우리 종단과 카스탈리엔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기독교의 수행하는 은둔자가 세속의 일을 대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세계사를, 특히 현대 세계사를 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오만과 관계가 있 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온갖 충동과 유행과 욕망과 소유욕과 권력욕과 살 인 욕구와 폭력과 파괴와 전쟁과 야심에 찬 재상들과 매수된 장군들과 파괴된 도 시들의 집합장소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세계사가 갖는 많은 측면들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역사의 한 부분, 형성된 어떤 존재, 계속적인 성장과 자기변화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역사인 것이며 우리는 세계사와 그 내에서의 우리의 위상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의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모자랍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로.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 오늘날의 교 육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그 시대로. 우리 종단이 그 한 예가 되는 바의 많은 종 단들이나 계층조직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그 시대로 눈을 한 번 돌려보면 바로 알 게 되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계층조직이요 고향인 우리의 카스탈리엔은 세계사에 대해 우리처럼 그렇게 체념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창설되 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인들과 창설자들은 전쟁의 시대 말기에, 파괴된 세계에서 그들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대략 이른바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 터 시작되는 그 시대의 세계 상황을 설명하려 할 때 우리가 흔히 그 설명의 중요한 근거로서 내세우는 사실입니다만 바로 그 당시에 정신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지 고 있었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권력가들에 있어 정신은 가끔씩 이용되는 부차적인 투쟁수단에 지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 우리는 '잡문적' 부패의 한 결과를 보 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권력투쟁에 동원되었던 비정신성이나 야수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비정신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성 이나 방법론의 면에 있어서 그것이 이른 대단한 업적을 못 보아서가 아니라 정신 을 일차적으로 진리에의 의지로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또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투쟁에서 이용되었던 정신적인 것은 물론 진리에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의 폭발적인 수 의 증가에서 비롯하게 된 불안과 격동에 어느 정도 확고한 도덕적 질서가 뒷받침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 있던 그와 같 은 질서는 현실적인 구호들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투쟁의 진

행과정 속에서 이해하기 힘들고 무서운 사실들을 접하게 됩니다. 4세기 전 루터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던 때와 아주 흡사하게 갑자기 전 세계는 엄청난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 에서 갑자기 새것과 오래된 것. 조국과 인류. 적과 백 사이에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원수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로서는 그 '적'과 '백'의 힘과 내적 역동성을. 그 모든 구호들이나 전투적 외침들의 진정한 내용과 의미를 결코 더 이 상 재구성해 볼 수 없으며, 그것을 이해한다거나 공감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 니다. 루터의 시대에 있어서와 비슷하게 전 유럽에서, 아니 반지구상에서 경건한 자와 이단자, 젊은이와 늙은이, 과거의 옹호자와 현재의 옹호자가 열광적으로 또 는 절망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선은 때로 지도 와 민족과 가족을 가로질러 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 실입니다만 그렇게 서로 싸우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신과, 또는 적어도 그들의 지 휘자들 대부분에게 있어 그 모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로 또 우리는 그 투쟁에서 지도자나 대변자로 활약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 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조야한 선의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 만 어느 정도의 이상주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처에서 싸움과 살인과 파 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양 측 모두가 악마에 대항하는 신을 위해 싸 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광과 광포한 증오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야만적 시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일종의 망각 상태로 빠져들고 말았는데, 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우리의 모든 제도들의 성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제도들의 전제조건이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풍자가가 있다면, 그는 이런 망각을 귀족이 되어 출세를 하게 된 어떤 사기꾼이 자신의 출생이나 부모와 관련해서 갖는 그 망각상태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의 시대를 좀 더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기록들을 읽었으며, 이때 패배한 민족들이나 파괴된 도시들에 대해서보다는 그 시대의 정신적인 사람들의 행동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사정은 어려웠으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나 종교가들 가운데 순교자들 이 더러 있었으며, 그들의 순교와 모범은 전율과 공포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시대 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정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폭압적 시대의 압력을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복을 해서 자신의 재능과 지식과 방법을 권력자들의 처분에 내맡겼습니다. 당시 마사 게텐 공화국의 한 대학교수가 했던 말은 유명합니다. 2곱하기 2가 얼마인가를 결 정하는 것은 교수단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 호되는 공간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야당을 결성해서 항의문을 발표했습니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작가는 당시—치겐할스의 책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입 니다.—단 한 해 동안에 2백 편도 더 되는 항의문과 경고문, 이성에의 호소문 등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자신이 직접 읽은 것보다 더 많은 수였을 것입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배웠습니다. 굶어 죽는 것과 얼어 죽는 것도 배웠으며, 동냥하는 것도, 경찰을 피해 몸을 숨기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들은 일찍 죽었으며, 죽은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자나 문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더 이상 즐 거운 일이나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권력자나 구호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사람은 일자리와 빵을 얻었지만 자신의 동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로 부터 비난도 받았으며, 대개의 경우 무엇보다도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 습니다. 그런 봉사를 거부한 사람은 굶어 죽거나 방랑 생활을 하거나 비참한 생활 이나 망명 생활을 하는 중에 죽거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인한, 전대미문의 가 혹한 자연도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이나 전쟁의 목적에 봉사할 수 없는 학문연구가 빠른 속도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학교교육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특히 세계사는 그때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 각각에 의해 전 적으로 자기 자신과 연관되어지면서 끝없이 단순화되고 날조되었습니다. 역사철 학과 잡문이 학교에까지 침투 ·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격동과 야만의 시대였고 혼란과 광기의 시대였으며, 이 시대에 민족들과 정당들, 늙은이와 젊은이, 적과

흑은 서로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릴 만큼 흘리고 또 피폐해질 대 로 피폐해진 다음에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분별력, 공통의 언어의 재발 견과, 질서, 예법, 유용한 법도와, 더 이상 권력적 이해에 지배되지 않으며 또 매 순간 변경되지 않는 알파벳과 구구셈 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점점 더 간절해지 는 소망이었습니다. 진리와 정의, 이성, 혼돈의 극복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분출 하게 되었습니다. 폭력적이며 철저히 밖을 지향하는 시대의 말에 나타난 그 진공 상태, 새로운 시작과 질서에 대한 만인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해진 그 소망, 이것이 바로 우리 카스탈리엔과 우리의 존재를 낳은 바탕이었습니다. 극 소수의 용감한, 거의 굶어죽을 정도였으나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버텨내었던 진실 로 정신적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능성을 의식하기 시작했으며, 고행자적-영웅 적 극기심을 발휘해 질서와 법을 세우기 시작했고, 도처에서 크고 작은 단체를 만 들어 작업을 하고. 구호들을 일소하고 맨 아래 바닥에서부터 다시 정신성과 교육 과 연구와 교양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완성되었습니다. 초라한 영웅 처럼 시작되었던 이 집은 서서히 커져 호화로운 건물이 되었으며, 여러 세대가 흐 르는 동안 종단, 교육국, 영재학교, 기록관, 장서각, 전문학교, 연구소 유리알유희 만들어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지나치게 호화롭다 할 바로 이 건물에서 상속자, 수익자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무사안일에 빠져 버린 손님같이 이 건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건물의 기초 밑에 놓여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의 희생에 대 해, 우리들이 있게 한 그 고난에 찬 체험들에 대해 우리의 건물을 세우거나 허가했 으며, 우리와 또 오늘날의 우리의 뒤를 이을 많은 카스탈리엔 사람들이나 명인들 도 부양하고 허락할지도 모르나 자신이 성장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쓰러뜨리고 삼켜 버리듯이 장차 우리의 건물을 다시 넘어뜨리고 삼켜 버리게 될 세계사에 대 해 전혀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고찰에서 돌아와 결론을 내리면, 즉 오늘날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체제와 종단은 세계사의 수수께끼와도 같은 활동이때로 아 름다운 것과 바람직한 것에 허용해 주는 번영과 행복의 절정기를 이미 지났습니 다. 우리는 쇠퇴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쇠퇴의 과정은 어쩌면 앞으로도 한 참 동안 더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졌던 것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것 입니다. 길은 이제 내리막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붕괴될 운 명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런 붕괴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내일은 아니 더라도 모레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능력을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데서 비롯하는 것만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 다는 오히려 저는 바깥세계에서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에 바탕을 두고 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그 런 징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는 다시 또 그 무게중심을 옮기려 하고 있습니 다. 권력의 이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삶과 자유의 위기가 멀리 동쪽으로부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정치가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전통을 고수하면서 우리와 카스 탈리엔적인 이상들을 충실히 지키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 니다. 지금 벌써 국회의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가끔씩 아주 분명한 어조로 카 스탈리엔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다소 호화로운 사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단지 방어를 위한 무장이라고 하더 라도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면 곧바로 대대적인 긴축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정부가 우리한테 아무 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종단과 그것이 보장해 주고 있는 정신문화의 항상성이 나라에 대해 비교적 작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 니다. 다른 시대들, 특히 많은 기부금을 받는 대학들과 수없이 많은 고문관들과 호 화판의 연구소들이 있었던 그 초기 잡문시대와 비교해 볼 때 이런 희생은 사실 그 리 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세기에 전쟁과 군비가 집어삼켰던 희생에 비한다면 이런 희생은 그야말로 형편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군비가 어쩌면 얼마 안 있어 또다시 지상명령이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다시 장군들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카스탈리엔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전쟁과 파멸의 위험에 몸을 내맡길 것인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게 될 때 국민들이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인가 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또한 의심할 여지없이 곧 전쟁 이데올로기가 활개를 칠 것이고,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전쟁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학자와 학문연구, 라틴어와 수학, 교양과 정신수련의 존재권리를 인정해 주는 구호—세계관이 말입니다.

이미 그런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장차 이 물결은 우리를 쓸어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태에 대한 우리의 통찰력과 각성과 용기의 정도에 따라 제한 된 것이나마 저 결단과 행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되 어 있는 것으로 세계사를 인류사로 만들어 주는 바로 그 자유를 말입니다. 원한다 면 우리는 눈을 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은 아직 제법 멀리 떨어져 있기 때 문입니다. 현재 명인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앞으로도 조용한 가운데 끝 까지 살 수 있을 것이며, 위험이 가까이로 다가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 게 되기 전에 조용한 가운데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분 명히 저 혼자에게 있어서만이 아닐 것입니다만 그런 조용한 상태가 마음 편한 일 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일이 더 이상 제 자신의 인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리라는 것에 대해 만족해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계속 제 직무를 수행하 고 또 유리알유희를 연기하고픈 생각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전혀 그러고 싶지 않 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비정치적인 사람들인 우리들도 세계사의 일원이며 그것 의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때문에 저는 이 편지의 서두에서 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또는 적어도 위 협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 생각과 근심의 상당 부분이 장차 다가올 위험들에 관한 문제로 쏠리는 것을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이 우 리들과 저에 대해 혹 가지게 될 수 있을 모습들을 제 상상력을 동원해 그려보는 일 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또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을 펼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학자가, 아니 오히려 현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플라톤의 주장을 저는 대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더 초창기였습니다. 카스탈리엔과 비슷 한 존재를 만든 사람이기는 했지만 플라톤은 결코 카스탈리엔 사람이 아니었으며 왕가 출신의 타고난 귀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귀족주의자들로서 하나의 귀족계 급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신적 귀족이지 혈통귀족이 아닙니다. 인류가 장차 혈통 귀족을 정신적 귀족과 함께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 은 이상적인 귀족주의일 것입니다만 꿈으로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카스탈 리엔 사람들은 예절바르고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지배하기에는 적 합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통치를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배자가 필 요로 하는 힘이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통치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그때 우리 의 진정한 영역, 우리의 본래의 관심분야, 즉 모범적인 정신 생활의 육성은 쉽게 소홀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오만한 지식인들이 흔히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지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꼭 멍청하거나 잔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 배를 하기 위해서는 바깥세계를 지향하는 능동적 활동에 대한 흔들림 없는 욕구와 목표나 목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선 택함에 있어서의 어떤 재빠른 판단이나 저돌성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학자—우리는 스스로를 현자라 부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가 가져서 는 안 되는 또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고가 행위보 다 더 중요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우 리는 가능한 한 깊이 꼼꼼하게 따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치를 해서는 안 되며 정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연구와 분석과 측정의 전문가들 이며, 모든 문자와 구구셈 표와 방법들의 보존자요 끊임없는 검토자이고, 정신적 인 표준과 무게단위의 검정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밖의 많은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자·발견자·모험가·정복자 새로운 해석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차적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때문에 국민들 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 기능은 모든 지식의 원천들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U로써 X를 만드는 것이 장사나 정치나 그 밖의 분야에 있어서는 때로 어떤 업적이나 독창적인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전 시대 격동의, 이른바 '위대한' 시절에 전쟁이나 대변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종종 지식인들에게 그들이 정치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잡문시대 후기의 사정이 그러했습니다. 그 시대의 요구들 가운데에는 정신의 정치화또는 군사화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포의 몸체를 만들기 위해 교회의 종이 그렇게 되고 병력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정신도 전쟁의 수단으로 압류되어서 이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런 요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상시에 학자를 교단이 나 책상으로부터 데려와 군인으로 만드는 것. 경우에 따라서 그 스스로가 군에 자 원하는 것, 나아가 전쟁에 휘말린 나라에서 학자가 모든 물질적인 면에 있어 극도 로, 굶어죽을 정도에 이르기까지 내핍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서는 아 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교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가 누 리는 특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상시 그가 바치는 희생도 그만큼 더 커야 할 것입 니다. 우리는 장차 모든 카스탈리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 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될 경우. 우리 의 편안한 생활과 안락한 생활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민족에게 희생할 각오가 되 어 있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정신 그 자체와 정신성의 전통과 규범을 현실과 국민 또는 장군들의 이해에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의미하는 것 은 아닙니다. 국민이 다 함께 극복해야 할 일이나 희생이나 위험을 기피하는 사람 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생활의 제 원칙을 물질적인 이해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 예를 들어 2 곱하기 2가 얼마인가에 대한 결정을 권력자들에게 맡 겨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의식, 지적인 성실성, 정신의 제 법칙과 제 방법에 대한 성실성을 어떤 다른 이해 에 희생시키는 것은, 그것이 조국의 이해에 대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배반입니다. 여러 가지 이해와 구호가 싸우는 가운데에서 개별인간이나 언어나 예술이나 모든 유기적인 것이나 정교하게 고도로 개발된 모든 것이나 꼭 마찬가지로 진리가 가치 박탈 되고 왜곡되고 유린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저항하는 것이며, 진리를, 즉 진리에 대한 추구를 우리의 지상의 신조로서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연설가, 작가, 선생으로서 알고서도 거짓을 말하며, 알고서도 허위와 왜곡을 지지하는 학자는 유기체적 근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단히 현실적인 것 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민족에 대해 이익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국민의 공기와 땅, 음식물과물을 오염시키며, 사고와 정의를 병들게 하고, 민족을 파멸시키려 드는 모든 사악하고 적대적인 것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카스탈리엔 사람은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부득이한 경우자기 개인은 희생시킬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진리에 대한 충성심은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정신은 진리에 순종할 때에만 선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정신이 진리를 배반하게 되면, 정신이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매수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바로 잠재적인 악이 되고, 아직은 자연의 순수한 일면을 지니고 있는 그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야수성보다도 훨씬 더나쁜 것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나라와 종단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종단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 보는 일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한 그 모든 물음들을 깊이 숙고해 보는 동안에 저는 제가 꼭해야 할 일로서 바람직한 것에 대한 명확한 표상을 제 스스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존경하는 교육국에 개인적인 청원을 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제회람의 결미가 될 것입니다.

유리알유희명인인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직무상 우리 교육국을 이루고 있는 명인 들 중에서 아마도 외부세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수학자. 문헌 학자 · 물리학자 · 교육학자 그 밖의 모든 명인들은 세속세계에도 있는 분야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카스탈리엔적인 학교들, 즉 우리나라나 다른 모든 나라의 보 통의 학교들에서도 수학과 언어학은 수업의 근본을 이루고 있으며, 세속의 대학에 서도 천문학과 물리학이 연구되고 있고, 또 전혀 학식이 없는 사람들도 음악을 연 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학문 분야들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 종단보다 훨 씬 더 오래된 것입니다. 이 분야들을 종단이 창설되기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또 그 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유리알유희만이 우리의 고유한 발명품이고 특기 고 총아이고 장난감입니다. 유리알유희는 우리의 특별히 카스탈리엔적인 형태의 정신성의 지극히 세련된 마지막 표현입니다. 유리알유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 물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면서도 가장 쓸데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면서 도 가장 깨어지기 쉬운 보석입니다. 유리알유희는 카스탈리엔의 존속이 문제시될 때 가장 먼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중 에서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서 그럴 뿐만 아니라 세속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없어도 좋을 카스탈리엔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 다. 나라의 모든 불가피하지 않는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가 될 때 영재학교들 의 지출을 줄이고, 도서관과 장서를 유지, 확충시키기 위한 기금을 줄이거나 결국 삭제하고, 우리의 식사를 줄이고, 우리의 의복을 더 이상 새것으로 교체해주지 않 을 것이지만 우리의 제학문의 종합에 드는 모든 중요한 학문분야들은 그대로 존속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유리알유희만은 존속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총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기자 마을을 폐쇄하고 우리의 유희를 제거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에게 최소한의 손해라도 입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군인들 가운데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유 리알유희는 우리 건물 중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부분입니다. 다 른 사람도 아닌 유리알유희명인 자신이. 세상과 가장 거리가 먼 분과의 수장 자신 이 맨 먼저 다가오는 지진을 예감하거나 그런 기분을 가장 먼저 당국에 표명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사정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치적인, 특히 전쟁으로 인한 대변혁이 있을 경우 유리알유희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개인들이 계속 유리알유희에 애정을 쏟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빠른 속도로 쇠퇴할 것입니다. 다시는 복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의 시대에 이어 나타나게 될 분위기는 유리알유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도로 개발된 어떤 관행들, 예를 들어 1600년 무렵의 직업가수들의 합창이나 1700년경의 교회에서의일요일 장식가곡과 꼭 마찬가지로 유리알유희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던 음향을 그 천사처럼 빛나는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불러낼 수 있는학문이나 마법은 결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리알유희도 잊히지는 않겠지만 결코 되돌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후 유리알유희의 역사를, 즉 그것의 발생과 전성기와 종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탄식을 하며 우리가 그렇게도 평화롭고 편안하고 조화로운 정신세계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유리알유희명인입니다만 우리 유희의 멸망을 저지하거나 또는 지연시키는 것을 결코 저의(또는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하더라도 지상의 역사와 현상이 되고 나면 그것이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해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바꾸어 놓으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유리알유희가 사라지게 되면 카스탈리엔과 세계는 하나의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그런 손실을 당장에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는 아직도 구출되어질 수 있는 것을 구출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리알유희가 없는 카스탈리엔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경외심, 정신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카스탈리엔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유리알유희명인이 없어도 교육국은 그럭저럭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거의 잊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사실 '유리알유희명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로써 지칭하고 있는 전문적 기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리알유희명인'은 아주 단순히 '학교선생'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카스탈리엔이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카스탈리엔의 소중한 재산들이 점점 더 많이 노후 되고 부서지면 부

서질수록 '학교선생', 훌륭하고 용감한 선생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선생을, 젊은이들에게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르쳐 주고 진리에 대한 경외심과 정신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와 언어에 대한 봉사에 있어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실은 장차 언젠가 그 존재가 끝나 버리게 될 것인 우리 영재학교에만 또는 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농부와 수공업자와 군인과 정치가와 장교와 지배자가 어린 시절 교육받고 배우는 저 바깥세계 세속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생활의 토대는 거기 나라 안에 있는 것이지 연구소나 유리알유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나라에 선생들과 교육자들을 공급해 왔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깥세계의 학교들로부터 변함없이 계속 재능 있는 영재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 카스탈리엔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리라고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학교들 즉 세속학교들에서의 겸손하고도 책임감 있는 봉사를 점점 더 많이 우리 임무의 가장 중요하고도 명예로운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런 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저는 존경하는 교육국에 올리고 싶은 제 개인적인 청원에 다시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로 교육국이 유리알유희명인으로서의 제 직책을 해제시켜 주시고, 저에게 크든 작든 바깥세계에 있는 한 평범한 학교를 맡겨 주시고, 그 학교로 점차 일정 수의 젊은 종단 단원들 즉 제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생으로 초빙해 우리의 기본원칙들이 세속세계 어린아이들한테서 살과 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 저를 성의껏 돕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국원들께서 제 청원과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호의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바로 명령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알유희명인 드림

추신:

존경하는 야코부스 신부님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그의 개인교습들 가운데 하나에서 제가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공포와 깊은 불행의 시대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한 가운데서도 아직 하나의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정신적인 것일 수 있을 뿐이다. 과거를 향해서는 이전시대의 교양을 구해내고, 미래를 향해서는 그러지 않으면 물질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들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서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정신을 대변한다."

테굴라리우스는 이 문건 속에 자신이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 문건의 최종 원고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앞서 작성한 훨씬 더 상세한 두 원고는 테굴라리우스가 읽어볼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처럼 보인다. 크네히트는 이 편지를 발송했으며, 친구보다 훨씬 덜 초조해하는 마음으로 교육국의 답신을 기다렸다. 크네히트는 앞으로는 자신이 취하게 될 조치들을 친구가 알지 못하게 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래서 크네히트는 그 문제와 관련해 친구와 계속 의논하는 것을 그만두었으며, 답신이 도착하기까지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참 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만 넌지시 말해 주었을 뿐이었다.

그 후 크네히트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교육국의 답신이 도착했을 때 테 굴라리우스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히르슬란트에서 온 답신은 이런 내용이었다.

발트첼의 유리알유희명인 귀하

존경하는 동료님!

종단본부와 명인 일동은 당신의 온정에 넘치면서도 식견이 풍부한 회람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잘 받아 보았습니다. 편지에 담겨져 있는 역사적 회고는 미래에 대 한 사려 깊은 전망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확실히 부분적으로 또한 온당하기도 한 성찰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많은 생각을 해 볼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유익한 결론 을 끌어낼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가짐. 스스 로를 돌보지 않는 진정한 카스탈리엔 사람의 마음가짐, 우리의 주와 그 생활과 관 습에 대한, 제2의 천성이 되어 버린 은밀한 사랑, 근심에 싸여 현재 다소 불안해하 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가짐을 깨닫고 기쁨을 느꼈으며,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습 니다. 이 사랑의 현재의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기분, 그것의 희생에 대한 각오, 그 것의 활동에 대한 충동. 그것의 진지함과 열성 그것의 영웅적인 일에 대한 관심 도 우리들은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못지않게 기쁨을 느끼고 또 인정을 하 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 유리알유희명인의 성격 · 실천력 · 열 정 · 용감성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순전히 학문적인 목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미 적 유희처럼, 냉정한 관찰자로서 역사를 연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지 식이 현실에의 적용으로, 행위로,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그 유 명한 베네딕트주의자의 제자인 명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일입니까! 또 존경하 는 동료님, 당신의 개인적 소원의 목표가 그토록 소박한 것이고, 당신이 정치적인 과업이나 사명에, 영향력 있고 명예에 넘치는 자리에 마음이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리알유희명인. 즉 학교선생이 되기만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 신의 그런 성격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당신의 회람을 처음 읽었을 때 벌써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던 인상들이 나 생각들의 일단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동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것이거나 또 한 적어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러 가지 설명이나 경고, 부탁을 자세하게 평가함에 있어서는 교육국은 통일된 입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열리게 되었던 회의에서는 특히,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다 고 하는 당신의 견해가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하는 문제와 함께 그 여 러 가지 위험들의 성격, 범위 시간적 근접성에 대한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습 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그것들에 대해 열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신께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어느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의 견해에 동감하지 않았습 니다. 당신의 상상력과 역사적. 정치적 고찰의 선견지명만은 인정되었으나, 세부 적인 면에서 당신의 추측들 또는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들 가운 데 그 어느 것도 완전하게 시인되는 것으로나 또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지 않았습니다. 종단과 카스탈리엔적인 질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 는 평화시대의 유지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 도대체 원칙적으로 그 것들이 정치적 역사나 상황의 중요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도 여러 가지 단서를 달면서, 당신의 견해에 동조했습 니다. 전쟁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뒤 우리 대륙에 나타나게 되었던 안정의 상태는 부분적으로 앞서 있었던 끔찍한 전쟁들의 결과로서의 일반적인 탈진상태와 빈혈 증 때문이기도 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당시 서구세계가 세계사의 중심. 헤게모 니 쟁탈전의 주 무대이기를 그만두었다는 사정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수 사람 들의 견해였습니다. 종단의 공적을 조금이라도 의문시하지 않고서는 카스탈리엔 적인 사상에, 명상적인 영혼 도야의 기치 하에서 정신을 고도로 훈련시킨다고 하 는 사상에 대해 진정으로 역사형성적인 힘을. 즉 정치적 세계 상황에 대한 활발한 영향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충동이나 야심은 카스 탈리엔적인 정신의 성격과 거리가 매우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매우 진지한 몇 차례의 상론에서 강조된 것입니다만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나 평화와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카스탈리엔의 의지도 아니며 또 운명도 아니라 는 것이었습니다. 카스탈리엔적인 것은 모두 이성과 관계되고 또 이성적인 것 내 에서 전개되며, 이런 이성적인 것에 대해 아마도 세계사는, 낭만주의적 역사철학 의 신학적, 문학적 열광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역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의 살인적, 파괴적 기구를 세계이성의 방법들로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할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라도 벌써 그와 같은 운명에 대해 말할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정신사를 슬쩍 한번 개관만 해 보아도, 정신의 큰전성기가 원칙적인 면에 있어 결코 정치적 상황에 의해 설명될 수 없으며, 오히려문화나 정신이나 영혼은 그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역사는 은밀하며 피를흘리지 않고 또 성스러운 제2의 역사로서 이른바 세계사, 즉 물질적인 힘을 얻기위한, 결코 중지하는 법이 없는 투쟁과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대번에 명백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종단은 '현실적인', 무자비한 세계사가 아니라 그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세계사와만 관계한다는 것이었으며, 정치적인 역사를 감시하거나 또는 그것을 형성하는 일을 돕는 것은 결코 종단의 과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세계의 정치적 상황이 실제로 당신의 회람이 암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종단은 그에 대해 기다리며 참는 것 외에 달리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적극적인 태도표명에 대한 호소로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당신의 견해는, 몇몇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단호히 거부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정세에 대한 당신의 견해와 가까운 미래에 관한 당신의 암시적인 설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들은 분명히 많은 동료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 주었으며, 심지어 몇몇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센세 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많은 발표자들이 당신의 폭넓은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에 대해 대단한 존경심을 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과 견해를 같이 하지 않았으며, 그 반대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주목할 만하고 또 상당히 흥미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리만큼 비관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오히려 더 우세했습니다. 어떤 명인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과 시련들을 아주 암울하게 그려보임으로써 당국을 몹시 놀라게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가 위험스러운 일, 아니 오

만불손한 일 또는 적어도 경망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만물의 무상함을 가끔 환기시키는 일은 분명히 허용되며, 모든 사람은, 더욱이 책임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때때로 스스로를 향해 '죽음을 생각하라!' 하고 외쳐야 하는 것이지만 아주 일반화해서 허무주의적으로 명인 계급 전체와 종단 전체, 계층조직 전체에 대해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동료들의 안정된 마음과 아름다운 꿈에 대한 점잖지 못한 공격일 뿐 아니라 당국 자체와 그것의 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책이나 일, 자신의 제자들, 종단에 대한 자신의 책임, 카스탈리엔 안에서의 카스탈리엔을 위한 자신의 생활—이 모든 것이 내일이나 모레면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명인이 매일 아침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면, 이 명인의 활동은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가 없으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만나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신께서 우리의 간략한 전언으로부터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당신의 회람은 그에 대해 당신이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원인의 대부분은 아마도 객관적인 사실에, 즉 현재의 당신의 견해나 소망과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의 그것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면에서의 이유들도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당신이 동료들을 직접 만나 구두로 의논을 했더라면 일은 훨씬 더 순조롭고 또 긍정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문서적 회람의 형식만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장애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견교환에 있어서는 보통 흔하지 않는, 동료 간의 전언과 개인적인 소원, 즉 청원의 결합이 오히려 훨씬 더 큰 장애요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결합을 상서롭지 못한 변화의 시도로 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탈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신의 소망이라고 하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 즉 직위로부터 해임 하여 세속세계의 학교에서 봉직할 수 있도록 발령을 내려달라는 당신의 청원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아주 당돌하게 제기된 아주 특이한 배경설명을 갖는 청원에 대해 당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또 당국이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청원자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당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정하는 주체가 더 이상 종단이 아니고 당국의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의 계층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과 소질, 재능을 스스로 평가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찾으려고 한다면, 카스탈리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리알유희명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권하며, 그 지휘를 우리가 그에게 맡겼던 그 명예로운 직무를 앞으로도 계속 수행할 것을 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당신의 편지에 대해 답신을 해 달라고 한 당신의 부탁은 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혹시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답신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당신의 기록이 갖는 자극과 경고로서의 가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의 내용에 대해당신과 구두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그것도 곧바로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단본부는 당신을 신뢰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부로서는 당신의 편지 가운데 그 대목이, 즉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능력이 줄어들고 있거나 또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대목이 우려를 낳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는 아니었지만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크네히트는 이편지를 읽었다. 당국의 사람들이 '우려를 낳는 근거'를 가지게 되리라는 것은 그가이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일이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특별한 징후에서도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 연기자 마을에는 히르슬란트에서 온 한 손님이 나타났는데, 정규 신분증과 종단본부의

추천장을 지참하고 있었다. 그는 기록관과 도서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하면서 며칠 동안의 손님 대접을 요구했으며, 청강생 자격으로 크네히트의 몇몇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조용하고 주의 깊으며 이미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었는데, 연기자 마을의 거의 모든 부서와 사무실에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테굴라리우스에 대해 수소문을 했으며, 근처에서 살고 있는 발트첼 영재학교 교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 사람이 연기자 마을의 사정이 어떠한지, 소홀히 행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명인은 건강하게 직무를 보고 있는지, 직원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혹 동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파견된 관찰자라는 데에는 조금의 의심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족히 일주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으며, 크네히트의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가 관찰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나 조용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두 관리의 눈에 띄게 되었다. 종단본부는 이 관찰자의 보고를 먼저 기다렸다가, 그런 연후에 그답신을 명인에게 보냈다.

그러면 이제 이 답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의 필자는 누구인 것일까? 그 문체로 보아서는 필자를 알 수가 없었다. 사안이 그런 만큼 보통의, 공적인 공문서 문체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 편지는 처음 읽었을 때 짐작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개성과 사적인 면을 드러내 주었다. 이 답신 전체의 기조를 이루는 것은 위계적인 종단 정신과 정의감 종단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크네히트의 청원이 얼마나 불쾌하고 불편하고, 아니 성가시고 화나는 기분을 자아냈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읽어볼 수 있었다. 이 답신의 필자는 그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벌써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 청원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런 불쾌감과 거부의 반대편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움직임과 기분이 나타나고 있었다.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동정심이었으며, 크네히트의 청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개진되었던 모든 유화적이고 호의적인 평가나 의견들을 강조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종단본부의 장인 알렉산더가 이 답신의 필자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길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 요제프 크네히트의 이력에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전했기를 기대한다. 이 이력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후대의 한 전기 작가가 틀림없이 또 많은 개별 사실들을 확인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명인의 마지막 날들에 관해 독자적인 설명을 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발 트첼의 어떤 연구생보다도 그것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며, 우리들 사 이에서 여러 가지 필사본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추측컨대 사라져간 그 명인의 몇몇 훌륭한 제자들이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유리알유희명인에 관한 전설〉보다 그 일을 더 잘해낼 수도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전설'을 우리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삼았으면 한다.

전설

우리 명인이 떠나간 것에 대해, 그것의 원인에 대해, 그의 결심과 행보의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해, 그의 운명의 의미나 모순에 대해 동료들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그것들은 나일 강이 범람하게 된 그럴 듯한 원인들에 대해 디오도루스 시쿨루스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을 자아낸다. 그러므로 이런 설명들에다 다시 또 새로운 설명들을 보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일뿐 아니라 부당한 일이기도 하다고 우리들은 생각한다.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신비스럽게 바깥세계 속으로 들어간 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더욱 낯설고 더욱 신비스러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 버린 그 명인에 대한 추억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려 한다. 그에 대한 우리의 소중한 추억을 살찌우기 위해,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당국이 자신의 청원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담아 보냈던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명인은 가벼운 전율과 냉정해지는 기분과 각성의 신선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은 시간이 다가왔음을, 이제 더 이상 주저나 지체가 있을 수 없음을 그에게 말해 주고 있었다. 그가 '각성'이라 이름 지어 불렀던 이런 독특한 감정을 그는 자신의 생애의여러 결정적인 순간들로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활기를 돋우어 주는 것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며, 작별과 출발의 감정이 혼합된 것이었고,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봄의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시계 쪽을 쳐다보았다. 강의를 해야할 때까지는 아직한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는이 시간을 명상에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서 조용한 '명인의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로 가는 길에는 시구 하나가 그를 동행했는데, 그것은 그가 갑자기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던 시구였다.

모든 시작에는 어떤 마법이 따르기에…

그는 이 시구를 조용히 읊고 있었으나. 옛날 어느 시인이 이 시구를 쓴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구는 그의 마음을 끌고 또 그의 마음에 들었으며, 지금 이 순간의 체험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정원에 이르러 그는 시들어 떨어진 첫 낙엽들로 덮여 있는 어느 벤치 위에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으며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런 뒤 그는 맑은 기분으로 명상에 잠기게되었는데, 이 명상 속에서 이 생애의 순간의 상황은 보편적이며 초개인적인 영상들을 통해 정돈되었다. 그러나 작은 강의실을 향해 돌아오는 길에 벌써 예의 그 시구가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다시 이 시구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으며, 그것이 좀 다른 형태라야 하리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갑자기 그의 기억이 분명해지면서 그를 도와주었다. 낮은 소리로 그는 읊조려 보았다.

모든 시작엔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어,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사는 것을 도와준다.

그러나 그는 그 강의시간이 끝난 지도 한참이 되고 또 다른 모든 일과도 다 마치게 된 저녁 무렵에 가서야 비로소 이 시구들의 출처를 알아내게 되었다. 이 시구들은 연 옛날의 어느 한 시인이 썼던 것이 아니었다. 이 시구들은 그 자신이 학생 시절과 연구생 시절에 썼던 시들 중의 하나 안에 들어 있는 구절들이었다. 그 시는 이런 시구로 끝나고 있었다.

그러니 자아, 마음이여, 이별하여 건강해라!

바로 이날 저녁에 그는 자신의 대리자를 불러서, 그에게 자신이 내일 무기한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알렸다. 모든 현안을 간단한 지시의 말과 함께 그에게 넘겼 으며, 평소 단기간 출장여행을 떠나기 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면서도 사무 적으로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일의 내막을 자세하게 알리지 않고, 작별인사를 나눔으로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친구 테굴라리우스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이미 진 작부터 분명한 사실이 되어 있었다. 성격이 몹시 예민한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체계획이 위태로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끝이 나 버린 행동이나 사실에 대해서는 친구로서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지만 깜짝 놀랄 이 이야기를 하거나 작별인사를 나누게 되 면 친구는 전혀 도움이 될 것이 없는 격한 행동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었다. 한동안 크네히트는 심지어 친구를 다시는 찾아보는 일 없이 떠나 버릴 생각까지 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는 그런 행동은 어 려운 문제를 피해 도망을 치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친 구가 흥분 상황이나 우둔한 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도록 친구를 배려해 주는 것은 현명하고 또 온당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런 관용을 베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취침 시간이 되기까지에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다. 지금 테굴라리우스를 찾아간다 해도 그 친구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었다. 벌써 어두워져 있는 널찍한 안뜰을 지나 그는 걸어갔다. 그는 친구 의 방문을 두드렸다. '마지막일지도 몰라'라는 묘한 기분을 느끼면서였다. 친구는 혼자 있었다. 책을 읽고 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던 친구는 반가운 기색으로 그에 게 인사를 하고는 읽던 책을 하옆으로 밀쳐놓으며 찾아온 명인에게 앉으시라고 했 다

"오래전에 쓴 시 한 수가 오늘 머리에 떠올랐네." 크네히트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중의 몇 구절이 말일세. 그 시 전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자네 혹알고 있나?"

그러고 나서 크네히트는 이렇게 읊조렸다. "모든 시작엔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 어."

복습과정지도교사 테굴라리우스는 그리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잠시 생각해본 뒤 그는 그 시를 다시 기억해내게 되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어느 책상서랍에서 크네히트가 쓴 시들의 원고를, 손으로 쓴 최초의 원고들을 가져왔는데 이 원고들은 일찍이 크네히트가 그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다. 그는 그 원고들을 뒤적여 두 장의 종이를 뽑아냈는데 거기에 그 시의 초고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명인에게 건네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테굴라리우스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명인께서 직접 한번 보시 면 좋겠습니다.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만 명인께서 이 시들을 기억하시게 된 것은 여러 해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제프는 주의 깊게 다소 감동한 기분으로 그 종이들을 살펴보았다. 일찍이 연구생으로서 동아학관에 머무르고 있던 동안에 이 두 종이 위에다 시구들을 적어 넣었던 것이었다. 이 종이들로부터 아득한 옛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벌써 제법 누렇게 변해 버린 종이, 젊은 기분이 넘치는 필치, 본문 가운데의 지우고 고친 흔적, 이 모든 것은 거의 잊히고 있다가 이제 경고라도 하듯 고통스럽게 다시 깨어나고 있는 한 옛 시절에 대해 말해 주고 있었다. 그는 이 시구들이 생겨났던 해와 계절뿐만 아니라 날과 시간도 기분도, 당시 그의 마음을 꽉 채워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며 그 시구들을 낳았던 그 강력하면서도 당당했던 기분도 기억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자신이 각성이라 명명하고 있는 영적 체험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어느 특별한 날에 그는 이 시구들을 썼다.

이 시의 제목은 분명히 이 시 자체보다 앞서서, 그것의 첫 행으로서 생겨났던 것이었다. 힘이 넘치는 필체의 큼직한 문자로 적어 놓은 제목은 이러했다.

〈초월하라!〉

나중에 가서 비로소, 즉 다른 시절에, 다른 기분과 삶의 상황 속에서 이 제목은 그 감탄부호와 함께 지워지게 되었으며, 그 대신에 보다 작고 가늘고 소박한 문자로 된 다른 제목이 써지게 되었다. 새 제목은 〈단계〉였다.

당시 그가 시상에 감동되어서 〈초월하라!〉는 그 낱말을 자기 자신을 향한 부름이나 명령이나 경고로서, 자신의 행위와 인생을 바로 그런 기치 하에 두며 그 행위와 인생을 하나의 초월로, 즉 하나의 공간, 하나의 도정을 단호하면서도 명랑한 기분으로 통과하고 채우고 넘어서는 것으로 만들려는, 새로이 형성되어 확인된 결심으로서 휘갈겨 썼던 것을 그는 지금 다시 머리에 떠올려 보았다. 나직한 소리로 그는 몇 구절을 읆조려 보았다

우리는 한 공간 한 공간을 명랑하게 통과해야 하며 어느 공간에서도 고향처럼 매달려선 안 된다. 세계정신은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려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며 넓히려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나는 이 시구들을 잊고 있었네." 크네히트가 말했다. "이 시구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연히 머리에 떠올랐을 때,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인지 나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으며, 내가 쓴 시구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 지금 자네한 테는 이 시구들이 어떻게 생각되는가? 자네한테도 뭐 말해 주는 바가 있는가?" 테굴라리우스는 생각에 잠겼다.

"특히 이 시는 저에게 언제나 이상한 기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테굴라리우스가 잠시 뒤 말했다. "이 시는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았던. 어쩐지 저의 마음을 불쾌하 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당신의 몇 편의 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옛날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 하는 명인님, 〈초월하라!〉는 행군명령을 그 제목으로 붙이신, 다행스럽게도 나중 에 가서 훨씬 더 나은 제목으로 그 제목을 대체하신 당신의 이 시가 제 마음에 제 대로 들었던 적은 결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가 어딘가 명령적이거나 도덕주의적이거나 교훈적인 일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서 그런 요소 를 제거할 수 있다면,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그런 허식을 씻어낼 수 있다면, 이 시 는 당신의 가장 훌륭한 시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저는 방 금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진정한 내용은 〈단계〉라는 제목으로 어느 정 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 또는 '음악의 본질'을 이 시의 제목으로 삼으 셨다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아니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 다. 그 도덕주의적이거나 설교적인 태도를 빼고 나면 이 시는 그야말로 사실 음악 의 본질에 관한 성찰이, 또는 제 생각으로는 음악과 그것의 변함없는 현재성, 그것 의 명랑함과 단호함, 그것의 운동성, 방금 비로소 밟게 된 공간이나 공간의 부분을 떠나서 계속 행진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그것의 쉼 없는 결단과 각오에 대한 찬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음악의 정신에 관한 그런 성찰이나 찬가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다시 말씀드려 당시에 벌써 교육자적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한 당신께서 이 시를 경고나 설교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 시는 완벽한 보석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시는 지나치게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릇된 사고라고 하는 병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시는 음악과 인생을 서로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매우 의문스러우며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음악의원동력이 되고 있는, 자연스럽고 도덕과 무관한 그 추진력을 이 시는 부름과 명령과 훌륭한 교훈을 통해 우리를 교육하고 발전시키려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시에서는 어떤 환상이, 일회적이며 아름답고 대단한 어떤 것이 교육적 목적을 위해 왜곡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저는 진작부터 늘 이 시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인은 즐거운 기분으로 듣고 있었으며, 친구가 말을 하면서 어떤 분노에 찬 열기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명인은 친구의 그런 열기가 좋았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 그는 약간 농담조로 말했다. "어쨌든 음악과 이시의 관계에 대해 자네가 한 말은 옳은 것일세. 그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거나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네가 말한 '공간들의 통과'와 내 시의 근본사상은 실제로 음악에서 비롯하는 것일세. 내가 그 사상을 망치고 그 환상을 왜곡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 어쩌면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걸세. 내가 이 시를 썼을때 이 시는 이미 더 이상 음악을 다루고 있지 않았으며, 한 가지 체험을 다루고 있었네. 그 아름다운 음악적 비유가 나에게 도덕적 측면을 보여주면서 내 가슴속에서 자극이 되고 경고가 되며 또 생명의 부름이 되었던 체험 말일세. 자네가 특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이 시의 명령적 형식은 명령을 하고 교훈을 주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세. 명령이나 경고는 오로지 내 자신을 향하고 있으니 말일세. 뭐라고 해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네만, 자네는 이 시의 마지막 행에서 그 점을 읽어볼 수 있었을 걸세, 여보게. 나는 하나의 통찰을, 하나의 인식을, 하나의 내적 환상을 체험했던 것이며, 그런 통찰의 내용과 도덕을 나 자신을 향해 외

처 부르고 또 내 자신의 머릿속에다 불어넣고 싶어 했던 것이었네. 그런 사실을 내가 잘 모르고 있기는 했지만 이 시가 나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도 바로 그때문일세. 지금에 와서 이 시구들이 훌륭한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시구들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되었네. 그 경고가 잊히지 않은 채 내 가슴속에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이니까 말일세. 이 경고는 오늘 다시 나에게 새로운 기분을 안겨 주고 있네. 이것은 작으나 아름다운 체험이며, 자네의 비난으로 망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닐세. 하지만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네. 여보게,연구생이던 우리 두 사람이때로 생활규칙을 어겨 가며 밤이 깊어지도록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앉아 있었던 그 시절은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명인은 더 이상 그럴 수가 없는 것이네!"

"아" 테굴라리우스가 말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크네히트는 웃으며 테굴라리우스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여보게, 용기로 말하면 나는 전혀 다른 행동들도 할 수 있을 걸세. 잘 자게, 늙은 불평꾼!"

방을 나섰을 때 크네히트는 유쾌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텅 비어 있는, 연기자 마을의 회랑들과 마당들을 지나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진지한 기분이 되었다. 작별의 진지한 기분이었다. 작별은 언제나 기억 속의 모습들을 일깨우는 법이라 이 길에서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인 그가 새로 진학한 발트첼 학생으로서 예감과 희망에 부푼 채 처음으로 발트첼과 연기자 마을을 지나 걸어갔던 그 처음의 순간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제 와서야 비로소, 쌀쌀한 밤공기에 침묵하고 있는 나무들과 건물들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이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낮 동안에 그렇게도 활기에 넘치던연기자 마을이 조용해지면서 잠에 젖어들고 있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듣고 있고,수위실 위의 작은 등불이 분수대 수면에 반사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으며, 명인의 정원 위로 밤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느꼈다. 그는 느린 걸음걸이로 연기자 마을의 모든 길과 구석구석을 샅샅이 걸었으며, 자신의 정원 문을 한 번 더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픈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열쇠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는 퍼뜩 냉정을 되찾게 되었으며 생각을 돌리게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 와 몇 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에는 수도에 있는 데시뇨리에게 자신의 도착 을 알리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러고 난 뒤 그는 세심한 명상을 통해 지금의 흥 분된 마음을 진정시켰다. 내일 있을 카스탈리엔에서의 마지막 일, 즉 종단본부의 장과의 대화를 힘찬 기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명인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차를 불러서 떠났다.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초가을 첫 안개에 젖은 아침을 뚫고 그는 히르슬란트를 향해 갔으며, 정오경에 도착해 종단본부의 의장인 명인 알렉산더의 면회를 신청했다. 명인은 보자기에 싼 작고 멋진 철제 상자 하나를 지니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 비밀금고 안에서 가져온 것이었는데, 그 안에는 그의 직위의 상징인 직인과 열쇠들이 들어 있었다.

종단본부의 대 사무실에서 명인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소 놀라워하고 있었다. 사전 연락 없이 또는 초청 받은 일 없이 한 명인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은 일찍이 거의 없었던 일인 때문이었다. 종단본부 의장의 명에 따라 크네히트는 손님대접을 받았다. 잠시 뒤 사람들은 오래된 회랑 안에 있는 휴게실로 그를 안내하면서, 의장님은 두세 시간 후에 시간을 내어 그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에게 전했다. 그는 종단규정집 한 부를 부탁해 받아서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 규정집 전부를 통독하면서, 자신의 계획의 단순성과 적법성을 마지막으로 확실히 했다. 그러나 그 계획의 의미나 내적 타당성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와서도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다. 그는 규정들 가운데 한 조문을 머리에 떠올렸다. 일찍이 자유롭던 청년시절과 연구시절의 말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그것에 관해 명상해 보도록 시킨 바 있었던 그 조문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종단에 입단하기 바로 전의 일이었다. 그는 이 조문을 찾아보고서 명상에 잠겼는데. 이때 그는 지금의 자신이 다소 불안해하고 있던 옛날의 그 젊은 복습과정지도교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규정의 그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고위 당

국이 그대를 어느 관직으로 부르면, 이 점을 잘 알아 두라. 관직의 서열 내에서의 모든 승진은 자유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관직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봉사는 더욱 더 엄격해진다. 개성이 강해지면 강해 질수록 자의는 더욱 금지된다." 이 모든 것들은 일찍이 얼마나 궁극적인 것으로. 얼마나 명백한 것으로 들렸으며, 그러면서도 또 그때 이후로 많은 말들, 특히 '속 박'. '개성'. '자의'와 같은 아주 의문스러운 말들의 의미는 그에게 있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게, 아니 뒤바뀌게 되었던가! 그런데도 이것들은, 이 조문들은 얼마나 아름 답고 명백하고 확고하게 짜여 있고 또 차탄할 만큼 암시적이었으며, 한 젊은 정신 에게 얼마나 절대적이고 초시간적이고 또 철저하게 참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가! 아, 카스탈리엔이 바로 세계이기만 하다면, 그저 세계 속의 한 작은 세계 또는 대담하게 억지로 떼어낸 세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면서도 결코 쪼갤 수 없는 전체 세계이기만 하다면, 사실 이 조문들은 실제에 있어서도 그 랬을 것이다! 지구가 하나의 영재학교라면, 종단이 만인의 공동체이고 종단 의장 이 신이라면, 이 조문과 규정 전체는 얼마나 완벽한 것이겠는가! 아. 사정이 그런 것이라면, 인생은 얼마나 멋지고 찬란하며 순수하게 아름답겠는가! 사실 실제로도 그랬던 적이 일찍이 있었다. 일찍이 그가 그렇게 보고 또 체험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 종단과 카스탈리엔 정신을 신성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주를 세계로, 카스 탈리엔 사람들을 인류로 전체 세계의 비카스탈리엔적인 부분을 일종의 어린아이 세계로, 주의 前 단계로, 경외심을 가지고 카스탈리엔을 우러러보면서 젊은 플리 니오와 같은 소중한 손님을 가끔씩 보내는, 최종적인 문화와 구원을 아직 기다리 고 있는 미개척지로 보고 또 체험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 또한, 즉 요제프 크네히트와 그 자신의 정신 또한 얼마나 독특한 사정에 처해 있었던가! 그에게 고유한 형태의 그 통찰력과 인식을, 각성이라고 명명했던 그 현실 체험을 옛날에, 아니 어제까지도 그는 세계의 심장, 진리의 중심을 향한 단계적 침투로, 어느 정도 절대적인 것으로, 그저 단계적으로 완수할 수밖에 없으나 그 이념에 있어서 연속적이며 직선적인 도정 또는 전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플리니오라는 인물을 통해 외부세계를 인정하면서도 카스탈리엔 사람으로

서 그것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엄격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그는 일찍이 젊은 시 절에 각성으로, 전진으로, 무조건 가치 있고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가? 수년간에 걸친 회의가 있고 난 뒤 그가 유리알유희와 발트첼 생활을 선택했을 때 에도 그것은 다시 전진이었으며 진실한 것이었다. 명인 토마스에 의해 공무에 가 담하게 되고 음악명인을 통해 종단에 입단하게 되었을 때나, 나중에 명인으로 임 명되었을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온통 직선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정 위에서의 크고 작은 발걸음들이었다.—그러나 이 도정의 끝에 이른 지금 그는 결 코 세계의 심장에, 진리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의 각성 또한 새로 운 상황 속에서의 한 차례의 눈뜸, 한 차례의 자신의 재발견, 새로운 상황에로의 편입에 지나지 않었다. 그를 발트첼로, 마리아펠스로, 종단으로, 명인의 직위로 이 끌어 왔던 바로 그 엄혹하고 명백하고 부명하고 직선적인 길이 이제는 그를 다시 밖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일련의 각성의 행위는 동시에 일련의 작별이었다. 카스 탈리엔, 유리알유희, 명인의 직위는 모두 변화되고 해결되어야 할 테마였으며, 통 과되고 초월되어져야 할 공간이었다. 그것들은 이미 그의 뒤쪽에 놓여 있었다. 옛 날에 크네히트는 오늘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행했지 만 그때 이미 그가 의문시되는 내용의 일단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적어도 예감하 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연구생 시절에 쓴 시로서 단계와 작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시의 제목으로서 그는 '초월하라!'는 외침을 내세우지 않았 던가?

이렇게 볼 때 그의 도정은 원형을 이루고 있었다. 타원형이나 나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밖에 또 무슨 형이 되었든 직선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직선은 분명히 기하학에만 존재할 뿐 자연이나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가 주는 자기 경고나 자기 격려를 그 시와 그 당시의 각성을 잊은 지 한참이 지난 뒤에도 충실하게 따랐다. 물론 그것은 완전한 것이지 못했고, 주저하는 마음이나 회의, 변덕, 투쟁이 없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한 단계한 단계를, 한 공간 한 공간을 용감하고 냉정하게 어느 정도 명랑한 기분으로 통과했다. 노(老)음악명인처럼 그렇게 명랑한 기분으로써는 아니었지만 피로감이나 우

울한 기분을 가지지는 않았으며 배반이나 불충의 마음도 가지지 않았다. 카스탈 리엔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배반이나 불충이 되는 일을 그가 지금 저지르려고 한다 면. 종단의 모든 도덕을 무시한 채 겉으로 보기에 자기 자신의 개성을 돌보는 형태 로, 즉 자의적으로 그가 행동을 한다면, 이것 역시 용감성과 음악의 정신 안에서. 즉 씩씩하고 명랑한 기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 밖의 면에 있어서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 자신에게 너무도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다 른 사람한테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다 시 말해 지금의 그의 행동의 '자의'는 실제에 있어 봉사요 복종이었으며, 그는 자 유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지의 새롭고 무자비한 속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 는 도망자가 아니라 부름을 받은 자였으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종 하고 있었으며, 지배자가 아니라 희생자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 덕목들은, 즉 명랑한 기분과 씩씩한 태도와 용감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들은 작아지 기는 했으나 계속 남아 있었다. 나아감이 없고 인도됨이 있을 뿐이며, 독자적인 초 월이 없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회전이 있을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목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며 본래의 가치와 마법을 유 지하고 있었다. 이런 덕목들의 본질은 부정보다는 긍정 속에, 회피보다는 복종 속 에 존재하고 있었다. 스스로가 지배자이고 주동자이기라도 한 듯 행동하고 생각하 는 것. 인생과 자기 환상. 즉 자기결정과 책임의 외관을 갖는 그 허상을 아무런 검 토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 근원이야 알 수 없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인식하기보 다는 행동하도록, 정신적이기보다는 충동적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속에도 그런 덕목들의 본질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았다. 아, 이런 문제들에 관해 야코부스 신 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이와 비슷한 종류의 생각들이나 공상들이 그의 명상의 여운이었다. '각성'에 있어서는 진리나 인식이 아니라 현실이 그것의 체험과 극복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각성을 통해서 사람은 사물의 핵심에,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현재의 사태에 대한 자기 자아의 입장을 파악하게, 승인하게 또는 용인하게 될 뿐이었다. 각성을 통해서는 법칙이 아니라 결심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세계의 중심

으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때문에 각성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또한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말과 표현으로부터 이상하게 먼 것이었다. 인생의 이런 분야에 관한 전달은 언어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예외적으로 누군가가 좀 더 이해해 주는 일이 있다면, 이 이해하는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일찍이 프리츠 테굴라리우스가 가끔씩 그를 좀 더 많이 이해해 주었다. 플리니오의 이해는 그보다 더 먼 데까지 미치는 것이었다. 이밖에 누구를 또들먹일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었다.

날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잊어버린 채 크네히트가 완전히 생각속에 잠겨 있었을 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바로 깨어나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서 있던 사람은 잠시 기다렸다가 이내 다시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이제 크네히트는 대답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환과 함께 방을 나섰다. 사환은 크네히트를 사무실 건물로 데리고 갔으며, 더 이상의 보고 없이 의장의 집무실로 안내했다. 명인 알렉산더가 크네히트를 맞이했다.

"미리 알리시지 않고 오셔서 유감입니다." 명인 알렉산더가 말했다. "그때문에 기다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는지 알고 싶어 몹시 궁금합니다. 그리 나쁜 일은 아니겠지요?"

크네히트는 웃었다. "아닙니다. 그리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아주 갑작스럽게 온 겁니까? 제가 이리로 온 까닭을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알렉산더는 진지하면서도 걱정스런 표정으로 크네히트의 눈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알렉산더가 말했다. "이것저것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며칠 사이 이미 저는 당신으로서는 그 회람 건이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으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국으로서는 그에 대해 다소 간단하게 당신에게 어쩌면 실망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의미와 어조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제프 크네히트가 말했다. "사실 저는 당국의 답신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다른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조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어조는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답신을 보고 알아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만 답

신을 작성한 분에게 있어 그 답신은 힘이 드는, 아니 거의 근심을 갖게 하는 일이었고, 그분은 저에게 별로 달갑지 않고 또 저를 다소 부끄럽게 만드는 그 답신에다 약간의 듣기 좋은 소리를 끼워 넣으려는 욕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런 욕구는 아주 훌륭하게 충족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그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그 답신의 내용을 수락하신 것입니까?"

"그저 통보를 받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인정도 했습니다. 답신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가벼운 경고의 말을 곁들인, 제 청원에 대한 거절뿐일 것입니다. 저의 회람은 어딘가 좀 예사롭지 않았고 당국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개인적인 청원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던 점에서 그렇게 잘작성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부적인 답신 외에 달리 어떤 답신도 저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 종단본부 의장은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다시 말씀 드려 우리의 편지에 대해 당신께서 결코 고통스런 기분으로 놀라시지 않으셨다니 저희들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편지를 써서 부치실 때 이미—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성공을 거두고 긍정적인 답을 받으리라고 믿고 있지 않으셨다면, 아니 진작부터 실패를 확신하고 계셨던 것이라면, 어쨌든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필요했을 그 회람을 무엇 때문에 끝까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또 부치셨습니까?"

크네히트는 다정한 눈빛으로 알렉산더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의장님, 제 편지는 두 가지 내용, 두 가지 의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무런 효과 없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위를 해제해서 저를 딴 곳에 발령해 달라는 부탁 말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저는 어느 정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명인이면 누구나 사실 개인적인 문제는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니 말입

니다. 이 부탁은 거절되었습니다. 이를 저는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회람은 그 부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또 지니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실들과 또 부분적으로는 생각들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당국에 알려서 그 것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일을 저는 제 소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모든 명인들이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명인들이, 경고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만 제 설명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대부분이 이런 음식을 아주 꺼려하는 기분으로 받아들이고 또 차라리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읽었으며,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제가 믿고 있었던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환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사실 저는 환호나 동의를 추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불안과 동요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신께서 언급하신 이유들 때문에 제가 만약 그 편지를 부치는 일을 포기했다면, 저는 그것을 몹시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크게 영향을 미쳤든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든,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기상신호,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의장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저의 의문이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경고와 기상신호와 주의가 당국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셨다면, 왜 당신께서는 그 황금과도 같은 말을 사적인 부탁과, 더욱이나 그 수락이나수락 가능성을 당신 자신이 전혀 믿지도 않는 그런 부탁과 결합시켜서 그 영향력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손상시킨 것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직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은 틀림없이 밝혀질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의 회람의 약점은 거기에, 즉 기상신호를 청원과, 경고를 부탁과 결합시킨 데에 있습니다. 경고의 말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청원서를 이용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두로나 문서로 아주 쉽게 그들에게 접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청원서는 합당한 사무절차를 밟게 되었을 겁니다."

크네히트는 다정한 눈빛으로 알렉산더를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크네히트는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당신 말씀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복잡한 문 제를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경고의 말이나 청원 모두 일상적이고 평범한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예사롭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나게 되었으 며 관례를 벗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미 그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 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절박한 계기가 없는데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들의 유한성과 그들의 존재 전체의 문제성을 생각해 보라고 간절히 요구한다면. 이는 흔히 있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또 카스탈리엔의 한 명인이 주 밖에서의 어 떤 교사 자리를 희망한다면, 이것 역시 흔하고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한에 서 제 편지의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편지 전체를 진정으로 심각하게 읽었다면. 그는 그 결과로서 틀림없이 이런 판 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다소 불평에 찬 한 사람이 그의 생각들을 공표하면서 동료들에게 설교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 어서는 그의 생각과 그의 어려운 처지가 몹시 심각하며, 그는 자신의 직무와 직위, 과거의 이력을 내버리고 소박한 자리에서 새로이 시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 고, 그는 직위와 안정된 생활과 명예와 권위에 싫증을 느끼게 되어 이것들에서 벗 어나고 이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판단 말 입니다. 이런 판단으로부터는—저는 계속 제 편지를 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 두 가지 결론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덕설 교의 작자는 유감스럽게도 좀 미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명인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결론과—또는 반대로, 이 성가신 설교의 작자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 적이고 건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의 설교와 비관적 견해들 뒤에는 변덕스 런 기분이나 불평 이상의 것이. 즉 하나의 현실.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는 결론 말입니다. 편지를 읽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진행될 과정을 저는 대략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점에서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청원과 기상신호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시키기는커녕 그 두 가지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었습니다. 이런 거부에 대해 저 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으며 사실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

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원칙적인 면에서 저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부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원칙적인 면에서 이를 시인하는 바입니다만 제가 그런 거부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공을 거두리라고 믿고 있지 않았던 저의 그 청원은 일종의 구실이었으며 하나의 몸짓, 하나의 의례였습니다."

명인 알렉산더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으며 거의 어두운 기색이 되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명인 크네히트의 말을 막지는 않았다.

"청원서를 보냈을 때" 크네히트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호의적인 대답을 진지하게 고대하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부적인 대답을 보다 높은 차원의 결정으로서 순순히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국의 대답을 보다 높은 차원의 결정으로서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지 않았다.—', 제가 제대로 들은 것입니까, 명인님?" 알렉산더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또박 또박 강조하며 크네히트의 말을 가로막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크네히트는 몸을 약간 굽혔다. "그렇습니다. 똑바로 들으셨습니다. 청원서의 성공 가능성을 거의 믿지 않으면서도 제가 청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은 질서와 격식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존경하는 당국의 손에다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쥐어 준 셈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이미 당국이 그런 해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질질 끌려 다니거나 설득을 당하지 않고 행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한다는 말입니까?" 알렉산더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 마음과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입니다. 명인의 직위에서 물러나고, 당국으로부터 명령이나 휴가가 없더라도 카스탈리엔 밖에서 활동을 시작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단본부 의장은 눈을 감았으며 더 이상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크네히트 는 알렉산더가 비상명상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갑작스런 위험이나 위협의 경우에 자기 통제나 내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종단 단원들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서, 폐를 텅 비우고 두 차례 아주 길게 호흡을 중지하는 동작을 동반하는 명상법이 었다. 크네히트는 자신 때문에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가, 배의 근육으로 시작되는 느린 호흡과 더불어서 잠시 뒤다시 혈기를 되찾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아니 사랑하는 그 사람의 눈이 다시 열려, 일순간 멍하니 맥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맑게 깨어나서 생기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복종을 함에 있어서나 명령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위대한 이 사람의 그 맑고 억제된, 언제나 기율이 잡혀 있는 눈이 이제 자신 쪽으로 향해, 침착하고 냉정한 기운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또 자신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크네히트는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크네히트는 이 시선을 오랫동안 묵묵히 견뎌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당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는 마침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인 직위에 대해 또는 카스탈리엔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었거나 또는 세속 생활에 대한 동경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이나 의무에 충실하기보다는 그런 기분에 더 많이 따르기로 결심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우리에게 털어놓고 종단에서 충고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도 느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 당신은 격식을 지키고 마음의 부담을 덜기위해서 청원서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이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될 때 의지하실 수 있을 청원서 말입니다. 당신의 예사롭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 또 당신의 의도는 진실 되고 존중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로서는 그런 행동을 달리는 전혀 상상해 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욕구ㆍ결심을 가슴속에 품은 채, 다시 말씀드려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탈자가 된 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당신 직무에 머물러 있으실 수 있었고, 또 겉으로보기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리로 온 것은" 유리알유희명인은 변함없이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문제를 당신과 함께 의논하고, 당신의 모든 물음에 대해 답하기 위해서입니 다. 저는 일단 독자적인 길로 들어서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당신이 저와 제 처지와 제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연후에야 비로소 히르슬란트와 당신의 사무실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더 명인은 생각에 잠겼다. "제가 당신의 행동과 계획을 언젠가 인정하리라는 걸 기대하신다는 뜻입니까?" 그는 잠시 뒤 머뭇거리듯 물었다.

"아, 그게 아닙니다. 인정 같은 것은 전혀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주실 것과, 제가 이곳을 떠날 때 당신의 존중하는 마음 한 가닥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내에서 제가 아직 남겨 놓고 있는 유일한 작별입니다. 저는 오늘 발트첼과 연기자 마을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잠시 동안 눈을 감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그 말은 너무 도 놀라운 것이었다.

"'영원히'라고 하셨습니까?" 알렉산더가 말했다.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실 생각이더 이상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데 정말 뛰어나십니다. 죄송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아직도 유리알유희명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또는 아닙니까?"

요제프 크네히트는 가지고 온 작은 상자를 집어 들었다.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크네히트는 말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을 통해 당국의 손에 직인과 열쇠를 돌려드림으로써 그런 지위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상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조사해 보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연기자 마을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종단본부 의장은 이제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갑자기 더 늙어 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

"당신이 들고 온 작은 상자는 오늘은 이곳에다 놓아두도록 합시다." 그는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직인을 인수하는 것이 바로 사임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저로서는 어쨌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국원의 3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 당신은 오래된 관례와 격식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로서는 이 같은 새로운 방식에 그리 빨리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시간 여유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는 친절을 저에게 베풀어주실 수 있겠지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명인님. 명인님께서는 저를 명인님에 대한 저의 존경심을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님은 제가 이 주를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드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종단본부의 의장으로서 명인님의 직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명인님, 직인과 열쇠를 명인님 손에 돌려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우선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만 당신께서 종단 단원으로서 한 제 서약을 해제해 주실 것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슬픈 표정으로 무엇을 알아내고자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크네히트의 눈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눌러 참고 있었다. "존경하는 명인님, 이제 제 혼자 좀 있 게 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하루 동안의 것으로서는 충분한 걱정거리와 충분 한 생각거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일 다 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정오 한 시간 전쯤에 다시 이리로 와 주십시오."

알렉산더는 공손한 태도로 명인을 내보냈다. 체념의 기색이 역력하고 더 이상 동료로서가 아니라 이미 아주 낯선 사람으로서 대하는 어떤 의식적인 공손함이 가득배어 있는 것 같은 그 태도는 그가 한 어떤 말보다도 유리알유희명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얼마 뒤 저녁식사로 안내하기 위해 크네히트를 모시러 온 조수는 크네히트를 귀빈용 식탁으로 안내하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알렉산더 명인께서는 뒤로 물러나 긴명상에 들어가셨으며, 명인님께서도 오늘은 어떠한 사교도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명인님을 위해서는 귀빈용 숙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유리알유희명인의 방문과 그의 말을 통해 대단히 놀라게 되었던 것이었다. 유리알유희명인의 편지에 대한 당국의 답신을 정리한 후, 명인이 가끔씩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고 또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임박한 대화를 생각해

보기는 했었다. 그렇지만 모범적인 순종적 태도와 훌륭하고 세련된 격식과 겸손한 태도와 성실한 마음씨를 가진 명인 크네히트가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어느 날 불쑥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의 직위를 당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사임하 고 또 깜짝 놀랄 방식으로 모든 관례와 전례를 파기해 버릴 수 있으리라는 것은 그 로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크네히 트의 행동, 그가 하는 말의 어조나 표현,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는 분명히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의 내용과 정신은 얼마나 끔찍하고 혹독 하고, 얼마나 낯설고 놀라우며, 또 얼마나 철저하게 비카스탈리엔적이었던가! 어 느 누구도 이 유리알유희명인을 보거나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병이 났다거나 과로하고 있다거나 흥분하고 있다거나 스스로를 완전히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당국이 발트첼에서 행하도록 한 바 있었던 자세 한 조사도 사실 연기자 마을의 활동과 업무에서 지장이나 무질서나 또는 무사안일 의 기미를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정은 그랬는데 이 무서운 사람이, 어제까지 만 해도 동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나타 나 그의 직무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든 상자를 마치 여행 가방처럼 내놓으며 명인 이기를 그만두었다고. 교육국 국원 · 종단 단원 · 카스탈리엔 사람이기를 그만두었 다고,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그저 잠시 들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종단본부 의장으로서의 그의 직책 때문에 일찍이 알렉산더가 처하게 되었던 그 어떤 상황보다도 놀랍고 힘들고 또 싫은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말을 들 었을 때 알렉산더는 침착성을 잃지 않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썼던 것이었다. 이제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유리알유희명인을 보호 · 감금시키도록 한 다음 바 로.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교육국의 모든 국원들한테로 급사를 보내 그들을 소집 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단 말인가? 무엇인가 이를 저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가능하고 또 합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알렉산더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가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다. 그런 조치들을 취해본들 대체 무 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명인 크네히트에게는 체면 손상이 있을 뿐이고, 카스탈리 엔에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고작해야 불편하고 어려운 이 일을 더 이상 혼자 책

임지지 않게 됨으로써 종단 본부 의장인 자신에게 약간의 부담 경감이 주어질 뿐이었다. 이 파국적인 문제에 도대체 아직도 고쳐 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크네히트의 명예감정에 호소하는 일이 아직도 가능하고 또 그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혹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일은 오직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었다. 다른 어느 누가 아니라 그들 두 사람이, 즉 크네히트와 알렉산더가 이처절한 싸움을 끝까지 치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생각에 이르게되자 알렉산더는 크네히트가 근본적으로 옳고 또 점잖게 처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교육국을 떠났으면서도 크네히트는 최종담판과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 종단본부 의장인 자신에게로 찾아왔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금지된 증오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입장과 행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알렉산더 명인은 이런 판단에 충실하기로. 그래서 전체 국워들은 개입시키지 않기 로 결심했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되자 비로소 알렉산더는 이 문제를 세부적으 로 곰곰이 생각해보기 시작했으며, 특히 유리알유희명인의 행동이 대체 합법적인 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사실 이 명인은 자신의 정 직성과 자신의 전대미문의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인 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이제 유리알유희명인의 그 과감한 계획을 하나의 문 구로 표현해 그것을 종단의 규정에 비추어 검토해보기 시작했을 때 알렉산더는 스 스로도 깜짝 놀라게 되는 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종단 규정의 원문에 의거해 살 펴볼 때 사실 요제프 크네히트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었거나 또는 위반할 생 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었다. 수십 년 이래 그 견고성에 대해 검토를 받 은 바 없는 원문이기는 하지만 종단 규정 원문에 의하면 모든 종단 단원은 때에 맞 취 여러 가지 권리와 생활공동체로서 카스탈리엔을 포기하는 한 어느 때고 자유롭 게 탈퇴할 수 있었다. 크네히트가 직인을 반납하고 종단에 자신의 탈퇴를 알리고 바깥세계로 나간다면, 그는 물론 유사 이래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일, 예사 롭지 않고 놀랄 만한 어떤 일 아주 괘씸한 짓일지도 모르는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일 수는 있지만 결코 종단규정의 원문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는 하나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행동을 크네히트가 종 단본부 의장의 등 뒤에서 하지 않고 똑똑히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려고 한 것은 명 시되어 있는 그의 의무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었다.—하지만 계층조직을 떠 받치는 기둥들 가운데 하나인 그 존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명시적인 규정 못지않게 신성하고 자명한 수백 가지의 규범들이 틀림없이 그를 말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 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도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의 행동을 위해 명문화된 그 규 정을 이용할 수 있었단 말인가?

알렉산더는 시계가 한 시를 치는 소리를 들으며 부질없는 상념에서 빠져나왔다. 욕실로 가 목욕을 하면서 10분 동안 정성들여 호흡을 조절했다. 그리고는 명상실 을 찾았다. 자기 전에 한 시간 동안 더 마음속에 힘과 안정된 기분을 채우기 위해 서였고, 그런 뒤에는 내일까지 이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한 젊은 조수가 종단본부 영빈관으로부터 명인 크네히트를 의장한테로 안내했는데 이 조수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명상과 자기 훈련에 뛰어난 대가들을 자주 보아 왔고 또 그들 사이에서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터이기는 했지만 이 조수는 존경하는 두 명인의 모습과 행동과 인사법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그로서는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대단한 정도의 정신집중과 청정한 상태였다. 이 조수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바에 의하면, 그것은 최고위직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인사가 전혀 아니었다.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명랑한 기분으로 가볍게 차리는 격식이나 또는 근엄하면서도 즐거운 기분으로 행하는 의전적 행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또 예의나 공손함이나 지나친 겸손의 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낯선 사람을, 멀리서 온 훌륭한 한 요가수행자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으며, 이 요가수행자는 종단의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그와 우열을 가리기 위해 온 것 같았다. 그 조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말과 행동은 대단히 공손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나 두 명인의 시선과 얼굴은 조용한 기운과 침착함, 정신집중으로, 그러면서도 두 사람 모두 광선이 통과하고 있

거나 전류라도 흐르고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 었다. 우리 목격자가 이 만남에 대해 보거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뿐이었 다. 두 사람은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사라져갔는데, 아마도 명인 알렉산더의 개 인 사무실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여러 시간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어 느 누구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눈 대화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고 있는 내용은 위원 데시뇨리 씨가 가끔씩 들려주었던 이야기에서 비롯한다. 요제프 크네히트가 그 대화와 관련하여 이런저런 내용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다. "저는 어제 당신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의장이 말문을 열었다. "거의 정 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 다. 물론 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육국과 종단본부의 임원입니다. 규정의 조문에 따르면 당신에게는 탈퇴를 선언하고 직위를 사임할 권리가 있습니 다. 당신은 당신의 직위를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종단 바깥에서의 생활의 시도를 필연적인 일로 여기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시도를 감행하시되. 당신의 그 단 호한 결단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장기간의 또는 심지어 무기한의 휴가 형태로 하시 라고 제안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당신의 청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바라 고 있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네히트가 말했다. "제 청원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저는 분명히 종단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인 직위에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친절하게 제안해 주신 것은 일을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장기간 또는 무기한의 휴가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올지 안 올지 알 수도 없는 명인은 발트첼이나 유리알유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년이나 2년 뒤 돌아온다 하더라도 명인 직책과 전문분과인 유리알유희를 놓고 볼 때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뿐 아무것도 더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깥세계가 그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고 세계가 그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그도 세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안정된 기분으로 돌아와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전의 올바른 일들을 돌볼 것입니

다."

"과분한 친절이십니다. 감사합니다만 이런 친절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가 찾고 있는 것은 세속 생활에 대한 호기심 또는 열망을 잠재우는 일이 아니라 그 보다는 오히려 단호한 행동입니다. 저는 실망을 하게 될 경우를 예상해 무슨 대비 책을 강구해놓은 채 바깥세계로 나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세상구경이나 좀 해 보려는 조심스런 여행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모험과 고난과 위 험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세계와 과업과 행위를, 또 결핍과 고통을 갈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의에 찬 그 제안을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제 마음이 흔 들리도록 해서 저를 다시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발 계속하지 마시기를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방문 한 일이 제 청원의 때늦은,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 승인을 가져다 준 다면, 이 방문은 저에게 있어 그 본래의 가치와 신성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청원서를 낸 후 저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길 은 이제 저의 전부가, 저의 법칙이, 저의 고향이, 저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한숨을 내쉬며 동의의 뜻으로 머리를 끄덕였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거나 바꾸는 일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겉보기와는 전혀 달리 당신은 어떠한 권위나 이치, 호의 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막무가내의 살인마 또는 악한이라 누구도 그 길을 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마음을 돌리거나 당신에게 영향을 주고 자 하는 일을 우선은 단념코자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리로 오셔서 이야기하시려 했던 것 말입니다. 당신이 카스탈리엔을 떠날 마음을 가지게 된 내막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그 행동들과 결심 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참회든 변명이든 비난이든 귀담아 듣겠습니다." 크네히트는 머리를 끄덕였다. "살인마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비난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를 말로 표현하기란 매우,

아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은 저로서는 일종의 변명이 되겠

습니다만 당신에게는 일종의 참회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크네히트는 안락의자 등에 몸을 기대며 천장 쪽을 쳐다보았다. 아치형의 천장에는 옛 시절에 그려진 그림의 희미한 흔적이 아직도 유령처럼 감돌고 있었다. 히르슬 란트의 수도원 시대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꿈속처럼 가늘고 희미한 선과 색조와 꽃과 장식으로 된 그림이었다.

"제가 명인의 직위에 대해서도 염증을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사임할 수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은 유리알유희명인으로 임명된 지 수 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느 날 저는 먼 옛날 유명했던 제 선배 명인 루드비히 바서말러가 쓴 작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선배 명 인은 직무연도를 월별로 나누어서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지침과 조언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다가오는 그 해의 공식 유리알유희를 때때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유쾌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좋은 착상들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명 상을 통해 그쪽으로 기분을 조정하라는 그의 주의를 읽게 되었습니다. 최연소 명 인으로서의 당당한 기분에 젖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의의 말을 읽게 되었 을 때 저는 그런 말을 기록해 두었던 그 노인의 걱정에 대해 젊은이다운 패기를 다 소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각하고도 위험스러운 느낌, 무언가 위협적이고 누르는 것 같은 기분 같은 것이 여운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 본 저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 니다. 다가오는 축제유희에 대한 생각이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자부심이 아니라 불안감을 안겨 주는 날이 장차 오면, 고통스럽게 애쓰며 새 축제유희를 맞을 것이 아니라 사임을 하고 당국에다 직인과 열쇠를 반납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말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업무 파악의 힘든 고비들을 막 넘기고 순조로운 상태에 들어와 있었던 터라, 저 역시 언 제가 나이가 들어 일과 인생에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유리알유희를 위한 착상들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 때문에 불쾌해 하고 당황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능성을 조금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심이 제 가슴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은 어쨌든 그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명인님은 저를 아주 잘 알고 계 셨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보다도 저를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명 인님은 그 힘들었던 취임 초기에 저의 고문이시고 고해 신부이셨으며, 최근에서야 발트첼을 다시 떠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무언가를 살피는 것 같은 눈빛으로 크네히트를 쳐다보았다. "저에게 그보다 더 아름다운 임무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당시 저는 당신과 제 자신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의 모든 유쾌한 일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저는 지금 그 당시의 넘치는 기쁨에 대해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당신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종단이 실망을 맛보고 카스탈리엔이 동요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에 대해 저는 책임의 일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동행자·조언자였던 그 당시에, 몇 주 더 당신의 연기자마을에 머물러 있어야 했거나 또는 좀 더 가혹하게 당신을 대하고 또 좀 더 엄격하게 당신을 통제했어야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네히트는 명랑한 눈빛으로 그 시선에 대답했다.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인님. 자꾸 그러시면 저로서는, 최연소로 명인이 된 제가 그 많은 의무와책임이 따르는 제 직무를 아주 힘들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당시 명인께서 저에게하셨던 그 많은 주의의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막 제 머리에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만 당신께서는 언젠가 그런 시간에 저에게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알유희명인인 제가 악한이나 무능한 자라 하더라도, 제가 명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제가 의도적으로 저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해약을 끼치려 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중한 카스탈리엔을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보다 더 많이 방해하고 더 깊이 흔들어 놓을 수는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의 작은 파도가 일고 몇 개의 원이 그려지다가는 이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카스탈리엔의 절서는 그토록 견고하고 그토록 확실하며, 그 정신은 그토록 불가침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가능한 한 사악한 카스탈리엔 사람이 되고자 하고 가능한 한 종단에 해를 입히고자 제가 시도한다 해도 거기에 당신은 분명히 전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 당신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결코 당신의 평

정한 마음을 심각하게 방해하지도 또 방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를 계속하겠습니다.—명인 직위에 오른 초기에 벌써 제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 던 것, 그런 결심을 잊지 않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제가 때때로 경험하게 되었으며 제 스스로 '각성'이라 부르고 있는 어떤 영 적 체험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신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당 신이 제 스승이고 지도자이셨던 그 당시에 언젠가 한 번 저는 당신께 그것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인의 직위에 취임한 후 그런 체험이 저를 떠나 버렸으며, 점 점 더 먼 곳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저는 그 당시에 당신께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의장은 인정해 주었다. "당시 저는 당신이 그런 종류의 체 험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약간 놀랐습니다. 그런 체험은 평소 우리한테서는 찾 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세계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재능 있는 사람들한테서. 특히 정치가들이나 장수들한테서 나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다소 병적이며, 전체적으로 보아 오히려 재능이 모 자라는 사람들, 즉 예언가나 심령술사나 무당들한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 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용장들과 예언가나 마술사들과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에게는 생각되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제가 보기에 당시 어제까지 훌륭 한 종단 단원이었습니다. 사려 깊고 분명하며 공손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목 소리, 신적이거나 또는 악마적인 목소리 또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사로잡혀 그 것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당신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각성'의 증세들을 인격적인 성장을 가끔씩 자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정도로 간단히 해석해 버렸습니다. 그런 자각으로 부터 생겨난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꽤 오랜 기간 그런 영적 체험 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제 막 어떤 관직에 오르게 되었고 또 아직 은 너무 큰 외투처럼 자신을 에워싸는 과업을 떠맡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은 그 과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각성들이 보다 높은 존재들이 보내는 계시 같은 것 또는 객관적이고 영원하거나 거룩한 진 리의 세계로부터 오는 전언이나 외침이라고 믿으셨던 적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그 점이 바로 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고 어려움입니다." 크네히트가 말 했다. "말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는 일, 분명히 합리의 밖 에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각성을 체험 했을 때 신이나 악마 또는 어떤 절대적 진리의 현현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체험에 그 무게감과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그 진리 적 내용이나 그 고차원의 근원이나 그 성스러움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것의 실재성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실재적입니다. 예를 들어 격심한 육체적 고통 이나. 폭풍과 지진 같은 자연의 사건들이 보통의 때나 상태와는 전연 달리 실재성 과 현실성 · 회피불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쏟아 져 내릴 소나기에 앞서 불며 우리를 서둘러 집으로 가도록 내몰고 또 우리 손에서 대문을 빼앗으려 하는 돌풍 또는 세상의 모든 긴장 · 고통 · 갈등을 우리 턱에 집 중시키고 있는 듯 보이는 심한 치통—이것들의 실재나 의미를 우리들은 그러고 싶 은 기분을 가지게 될 경우 나중에 가서 한 번 의심해보기를 좋아하는 법이지만 그 체험의 순간에 있어서 그것들은 어떤 종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고 터져 버릴 정 도로 실재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의 '각성'은 저에게 있어서 바로 이와 비슷한 종류의 고양된 실재성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저의 '각성'이 각성이라 불리는 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그런 순간이면 실제로 저는, 오랫동안 잠자고 또는 반쯤 잠자 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깨어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예민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커다 란 고통이나 동요의 순간들은 그 설득력 있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순 간들은 숨 막히게 하는 현실성과 긴장의 감정이 불타오르게 합니다. 그런 순간들 에 이어서는 동요의 결과로서 아름답고 밝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당치않 고 어두운 것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일어난 것 은 위대성과 필연성 중요성의 기운을 지니며.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과 구분되어 두드러집니다.

이제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크네히트는 잠시 숨을 돌리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성(聖) 크리스토포루스에 관한 전설을 기억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크리스토포루스는 대단히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배자가 되어 통치하는 일을 마다하고 봉사 하고자 했습니다. 봉사가 그의 강점이고 기술이었으며, 그는 봉사에 통달해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것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지배자라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지배자 보다 더 강한 어떤 지배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는 이 지배자에게 봉사했 습니다. 이 위대한 봉사자는 언제나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좀 닮은 것 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제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제 생애 유일한 시기, 즉 연구생 시절에 저는 오랫동안 어느 지배자에게 봉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를 탐구하며 방황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을 우리 주의 가장 소중하고 특징적인 결실로서 인식해 오고 있었던 터이기는 했지만 저는 유리알유희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거부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불신의 눈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 혹적인 힘을 일찍이 맛보아. 지상에 유리알유희에 몰두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고 화려한 일은 없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또한 이미 아주 일찍부터, 이 매혹적인 유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소박한 취미 유희연기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일 찍이 한 단계 더 깊이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킨 까닭에 그 유희를 절대적으로 요구 하고 또 그것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힘과 관심을 다 기울여서 그 매력적인 유희에 영원히 헌신하는 것. 그 것에 대해서는 제 가슴속의 어떤 본능적 충동이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트첼 연기자 마을의 정신이 전문가 정신 내지 장인 정신, 고도로 개발되고 지극 히 다양한 형태로 단련된 정신이기는 하지만 전체 인생이나 전 인류로부터 유리되 어 오만한 고립상태로 고착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단순한 것과 전체 적인 것과 건강한 것에 대한 소박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생각하며 검토 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결심이 서게 되어. 저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리알유 희를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최고의 완성을 추구 하고 오로지 가장 위대한 지배자에게만 봉사한다고 하는 바로 그 충동이 제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명인이 말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보든 또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고 싶어 하시든. 저는 언제나 당신의 그 모든 독특한 점들의 근저에 서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너 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자신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인격자가 취할 도리가 결코 아닙니다. 재능이나 의지력이나 인내심의 면에 서 1등급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중심이 잘 잡혀 있는 까닭에 그는 자신이 속하는 체계 내에서 아무런 마찰이나 정력의 낭비 없이 조화롭게 활동합니다. 이 와 똑같이 훌륭한. 아니 어쩌면 훨씬 더 훌륭한 재능을 가진 또 하나의 사람이 있 습니다. 그러나 그 축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반을 궤도를 벗어난 운동에 허비하며, 이런 운동은 그 자신과 그의 주위세계 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당신은 이 부류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당신은 그 점을 정말 보기 좋게 숨길 줄 알았 습니다. 이때문에 그 죄악은 지금 더욱 격렬하게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 크리스토포루스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위대한 점이나 감동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 리 계층조직에 봉사하는 사람의 모범은 아닙니다.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맹세를 바친 지배자를 생사를 불문하고 봉사해야지, 더 훌륭한 지배자를 만나면 바로 지배자를 바꾼다고 하는 은밀한 유보조건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 게 하면 봉사자는 스스로 자기 지배자의 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 는 것도 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최고의 지배자에게만 봉 사하려 하고 있으며. 당신이 봉사하려고 하는 지배자들의 등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일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크네히트는 주의를 기울여 듣고 있었다. 슬픔의 그림자가 잠시 그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크네히트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다. "훌륭하신 판단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판단이십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됩니다. 저는 유리알유희명인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저는 그야말로 최고의 지배자에게 봉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방의회 내의 우리 후원자인 제 친구 데시뇨리가 언 젠가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바 있습니다만 적어도 당시 저는 오만하 고 콧대 높으며 냉담한 유희의 대가 선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또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연구생 시절 이후 그 '각성'이 있는 이후 저에게는 '초 월하다'라는 말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계몽주의 철학자의 글 을 읽던 중에 명인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의 영향을 받아서 알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때 이후로 이 말은, '각성'이란 말과 꼭 마찬가지로, 저에게 그야말 로 주문 같은 것이 되어서, 요구를 하고 내몰고 위안을 주고 또 희망을 약속해 주 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의 초월이라야 한다.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는 것이라야 한다. 하나의 음악이 결코 지치거나 쉬는 법 없이 계속 맑게 깬 채, 언제나 완전히 현재인 채 주제와 템포를 차례차례 해결하고 끝내고 완성하고 넘어가듯이, 이 공 간 저 공간을 차례로 지나 넘어가야 한다. 대략 이런 형태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 다. 각성의 체험과 관련해서 이미 그런 단계와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한 삶의 단 계의 마지막 시기는 각각 조락과 사멸의 기운을 그 자체 속에 지니고 있으며, 이런 기운은 이내 새로운 공간에로의 이행으로, 각성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비유, 즉 초월의 비유도 말씀드리는 것 은 당신이 저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것이 혹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입니 다. 유리알유희를 선택한 결정은 하나의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계층조직에 처음으 로 분명하게 편입되었던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또 명인으로서 의 직무 가운데서도 저는 그런 단계적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무가 저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은 음악 연주나 유리알유희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교 육하는 일도 행복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또 저는, 제 자들이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을 잘못 받지 않았으면 않았을수록 교육은 더 많은 기쁨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차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해가 지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나이 어린 학생들을, 더욱 어린 학생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초급학교선생이 되면 정말 좋 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저의 상상은 가끔 이미 제 직 무 범위 밖에 있는 일들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크네히트는 잠시 말을 끊고 쉬었다. 의장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저를 점점 더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명인님. 당신의 생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온통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 사적인 소망, 사적인 발전과정과 결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당신과 같은 지위에 있는 카스탈리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의장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비애가 뒤섞인 기분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마음을 다잡고서 명랑한 어조의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명인님, 지금 우리는 결코 카스탈리엔과 교육국, 계층조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당신께 커다란 폐를 끼쳐 드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심리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의 직무수행이나 임무완수에 대해, 카스탈리엔 사람으로서 명인으로서 저의 가치나 비(非)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 직무수행의 상태는 제 생활의 외적인 면 전체와 마찬가지로 다드러난 채쉽게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당신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라실 만한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걸었으며 지금 이미 저를 발트챌 밖으로 인도했고 내일이면 저를 카스탈리엔 밖으로 인도하게될 바로 그 길을 당신께 설명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시만 더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의 작은 주 밖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연구서를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연구서에서 이 세계는 그저 먼 과거로서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바깥세계에서 온 청강생인 제 동급생 데시뇨리를 통해서였고, 뒤에 가서는 베네딕트파 신부들 곁에 머무르게 되었던 사실과 야코부스 신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 제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극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코부스를 통해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벌써 기초가 되어서 발

트첼로 돌아오고 난 뒤 제가 고립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 다. 제가 베네딕트파 수도원을 떠나 다시 돌아온 나라는 역사와는 거의 무관한 나 라. 학자들과 유리알유희연기자들이 지배하는 주(州)였습니다. 극히 고상하고 대 단히 안정된 사회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바깥세계에 대한 예감과 그것에 대 한 호기심,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저 혼자뿐인 것 같았 습니다. 많은 것들이 저의 이런 처지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제가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으며. 그들과 동료가 되는 일은 저에게 있어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한 명예였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고도의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 었으며, 충분한 일거리도 있었고, 재능 있고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아주 많이 있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야코부스 신부 곁에서 보낸 수업시대에 이미 제가 카스 탈리엔 사람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세계 즉 전체 세계 가 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그 세계 속에서 제가 함께 활동하기를 요구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발견으로부터 여러 가지 욕구와 소망 · 요구 · 의무가 뒤따랐지만 저는 결코 그것들을 좇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카스 탈리엔 사람이 생각하는 바깥세계의 생활은 어딘가 뒤떨어지고 열등한 것이었으 며, 무질서와 난폭과 격정과 혼란으로 점철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은 아 름답지 못하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깥세계와 그곳 의 생활은 카스탈리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다채로운 것 이었습니다. 세계는 생성과 역사와 시도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으로 가득 차 있 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세계는 온갖 운명과 온갖 고양된 마음 과 온갖 예술과 모든 인간적인 것의 고향이며 모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언 어와 민족 · 국가 · 문화를 형성시켰으며, 우리와 우리 카스탈리엔을 형성시켰던 것도 바로 그 세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소멸해 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 보다 더 오래 살아남게 될 것도 바로 그 세계였습니다. 저의 스승 야코부스는 바로 이런 세계에 대한 애정을 제 가슴속에 일깨웠으며, 이런 애정은 쉬지 않고 자라나 면서 영양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스탈리엔에는 그런 애정에 영양분을 공 급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 세계의 밖에 있었습니 다. 그들 스스로가 작고 완전한, 그러나 더 이상 생성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세계가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네히트는 깊은 숨을 쉬면서 잠시 말을 끊었다. 의장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 고 그저 무엇을 기다리는 것 같은 태도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기 때문에 크네히트 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말을 계속했다. "이제 저는 여러 해 동안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직무를 수행하고 그것 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바깥세계에 대한 제 애정의 문제도 해결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만 그 직 무가 그와 같은 애정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로 저는 그 직무가 이 애정으로부터 이득을 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 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어떤 명인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덜 완전하고 훌륭하게 제가 직무를 수행했던 것일 수 있을 것입니 다. 하지만 저는 나무랄 데 없는 많은 동료들보다도 제가 마음속으로 더 많이 각성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활기에 차 있다는 사실과. 제 학생들이나 보조자들에게 이런 저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통과의 단절 없이 서서히 온건하게 카스탈리엔의 생활과 사고를 확대시키고 북돋으며, 그것에다 세계와 역 사로부터 새로운 피를 공급해 주는 일을 저는 제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섭리에 의한 것 같습니다만 이와 거의 같은 무렵 바깥세계에서는 한 세 속인이 저와 똑같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어 카스탈리엔과 세계의 교류와 결합 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플리니오 데시뇨리였습니다."

명인 알렉산더는 입을 약간 비죽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그 사람이 당신한 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썩 유쾌한 것을 기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감싸주고 있는 그 타락한 테굴라리우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데시뇨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히 질서를 파괴하도록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인님. 그러나 부분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랬기는 했지만 데시뇨리는 제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조용한 생활 에 바람을 좀 불어넣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다시 바깥세계와 접촉하게 되었 습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저는 이곳에서의 제 생활이 끝에 이르렀음을, 제 일에서 느끼는 진정한 기쁨이 사라져 버렸음을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인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스스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공간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공간이 바로 카스탈리엔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카스탈리엔이라는 공간이 마치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진지하게 몰두하기에 충분히 크지 못하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이 공간을 다 섭렵하고 극복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크네히트는 힘차고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공간의 경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은 개인으로서의 제가 여기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경계에 이르게 되어서, 유리알유희명인으로서의 제 일은 끊임없는 반복과 공허한 연습·공식이 되고 있고 저는 아무런기쁨이나 감동이 없이, 때로는 심지어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 일하고 있습니다. 이일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당신의 견해이지 종단이나 그 규칙의 견해는 아닙니다. 종단 단원이 이런저런 기분을 가질 수 있고, 때때로 자신의 일에 대해 피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일도 특기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 규정은 조화로운 상태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인님. 사실 명인님은 저의 직무수행 상태를 똑똑히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 제 회람을 받으셨을 때만 해도 당신은 사람을 보내서 연기자 마을과 저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직무는 제대로 수행되고 있고 사무국과 기록관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유리알유희명인은 병이 난 것도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견뎌내고 힘과 침착한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옛날에 당신께서 저에게 훌륭하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규정들 덕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에게 몹시 힘든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있어서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기분이나 변덕 또는 욕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께 확신시켜 드리는 일이 그에 못지않게 힘이 듭니다.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셨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저의 인격이나 직무수행이 나무랄 데 없고 유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이만한 요구도 벌써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렉산더 명인은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눈을 깜빡거렸다.

"동료님" 알렉산더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마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인(私人)이기라도 한 것처럼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 만 그것은 당신한테만 적용될 뿐입니다. 그야말로 당신은 지금 사인이니 말입니 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인으로서의 제 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단본부의 의장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은 모든 말에 대해 당국에 책임을 집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 떠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한테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하 더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한 사인의 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직무와 책임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제가 오늘 말하거나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 는 당신과 당신의 문제에 대해 당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일의 전후 사정 에 대한 당신의 설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또는 심지어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 하는 것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비록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담고 있긴 했지만 어제까지 당신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카스탈리엔 사람이고 또 명인이었으며, 직무에 대한 권태감의 여 러 가지 유혹과 발작적 증상들을 경험하긴 했으나 당신은 그것들을 훌륭하게 이겨 내고 극복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규정을 다 지켰던 나무랄 데 없고 흠잡을 데 없었던 명인이 오늘 갑자기 타락해 버린다고 하 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변하고 병들어 있었으며, 자신을 계속 아주 훌륭한 카스탈리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그렇지가 못했던 명인을 생각해 보는 편이 저로서는 차라리 더 쉬운 일입니다. 역시 의문이 생기는 문제입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의무에 충실한 명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하기를 거역하고, 타락한 행동을 저질러 버린 터라 당신에게는 그와 같은확인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크네히트가 말을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어째서 그게 저한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명성과 이름이, 제가 이곳에 남기게 될 기억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바깥세계에서 카스탈리엔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제 자신을 위해 무엇을 건져내기 위한 때문이 아니며, 당국을 통해서 제 행동을 승인 받기 위한 때문은 더욱 아닙니다. 장차 제 동료들이 저를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또 문제성이 많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점을 저는 예상하고 있었으며 또 그 점을 감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배반자나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것은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평가입니다. 저는 당신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으며, 저에게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었고, 굳게 믿어 선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 운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것조차 인정해 주실 수 없다면 저는 패배한 것이며, 제가 당신께 드린 모든 말씀은 허사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 딱 한 가지입니다." 알렉산더가 대답했다. "제가 믿고 있고 또 제가 대변해야 하는 법칙들을 깰 수 있는 권리를 경우에 따라서 개개인의 의지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질서를 믿으면서 그와 동시에 또한 이 질서를 깰 수 있는 당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제발 제 말씀을 막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당신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운명적인 행동의 의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자신의 계획에 대한 소명을 믿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행동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당신도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당신의 마음을 되돌리고 당신의 결심을 바꿔 놓으려던 애초의 제 생각들을 저는 단념해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종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국에 대해서는 당신의 자발적인 사임에 관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이 이상 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요제프 크네히트."

유리알유희명인은 승복의 태도를 취해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 작은 상자는 이미 의장님께 맡겼습니다. 발트첼의 사정에 관해서, 특히 복습과정지도교사들과, 저의 후임자로서 특히 고려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인물들에 관해서 제가 기록해 두었던 것 몇 가지도 이제 당국에 전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께 넘겨 드리겠습니다."

크네히트는 호주머니에서 몇 장의 접은 종이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장도 일어섰다. 크네히트는 그에게로 다가가, 쓸쓸해 보이면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한참 동안 그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러다 몸을 굽혀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작별의 악수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도 단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대단히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일도 그 점은 조금도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애하는 명인님."

알렉산더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약간 창백한 모습이었다. 일순간 그는 손을 들어 올려 작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알렉산더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를 숙여 인사에 답하며 알렉산더는 크네히 트를 떠나보냈다.

떠나는 사람이 방을 나가 문을 닫았을 때도 의장은 계속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 가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마지막 발걸음 소리도 잦아들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을 때 알렉산더는 잠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그러는 중에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으며,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사환이 방안으로 들어와, 어떤 손님이 와서 그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

"한 시간 뒤에 만날 수 있다고 전하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전하게. 급한 일이 있네.—아니, 잠깐만 기다리게! 사무국으로 가서 수석서기관에게 모레 회의가 있음을 전 교육국원들한테 지금 즉시 신속하게 알리라 한다고 전하게. 전원이 꼭 출석해야 하며, 중병 말고는 어떤 것도 불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을 꼭 전하라고 하게. 그런 다음 관리인한테로 가서, 내가 내일 아침에 발트첼로가야 하니 7시에 차를 대기시키라고 하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젊은 사환이 말했다. "유리알유희명인님의 차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말인가?"

"명인님은 어제 차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조금 전 이 건물을 떠나시면서 그분은, 당신은 걸어서 갈 것이라 여기 이 차는 당국의 처분에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알았네. 그러면 내일은 그 발트첼 차를 이용하도록 하겠네. 자, 내가 한 말을 복 창해 보게."

사환은 이렇게 복창했다. "손님은 한 시간 뒤에 만난다. 그는 이야기를 짧게 해야 한다. 수석서기관은 모레 회의가 있음을 전 국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원이 꼭 출석해야 하고, 중병만 불참 사유로 인정된다. 내일 아침 7시에 유리알유희명인님의 차로 발트첼로 출발한다."

젊은 사환이 다시 방밖으로 나갔을 때 알렉산더 명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크네히트와 함께 앉았던 책상 쪽으로 갔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아직도 그의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그 사람이 그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안겨준 것이었다. 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되었던 그날들 이후 알렉산더는 언제나 그 사람을 좋아해 왔다. 많은 다른 특징들 가운데서특히 크네히트의 걸음걸이도 그는 사랑하고 있었다. 힘차고 씩씩하면서도 경쾌한,아니 거의 떠다니는 것 같은,기품과 천진스러움, 근엄함과 날렵함 사이를 떠다니는 것 같은 걸음걸이였다. 독특하고 사랑스러우며 고상한 걸음걸이로 크네히트의얼굴과 목소리에 너무도 잘 어울렸다. 이런 걸음걸이는 그 특유의 카스탈리엔 사

람 기질과 명인 기질에도, 그 특유의 기품과 명랑한 태도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이었는데, 그런 기품이나 태도는 때로는 그의 전임자인 토마스 명인의 그 귀족주 의적인 풍모를 다소 상기시켰으며, 또 어떤 때에는 노(老)음악명인의 그 소박하면 서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품을 머리에 떠올리게도 했다. 그는 벌써 떠나 버 렸다. 이 성급한 사람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걸어서 떠나 버린 것이었다. 어쩌면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웃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손가락이 긴 그의 아름다운 손이 유리알유희 주제의 상 형문자를 그림을 그리듯 쓰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알렉산 더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접은 종이쪽지들을 집어 들어 읽기 시작했다. 짧 은 메모였고, 아주 간단명료한 문체였다. 문장 대신에 표제만 적어 놓은 곳도 간혹 있었다. 얼마 안 있어 연기자 마을을 정비하게 될 때 새로 명인을 선출하게 될 때 당국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현명한 참고의 말들이 작고 아름다운 문자로 적혀 있었다. 말과 필체도 얼굴이나 목소리나 걸음걸이와 꼭 마찬가지로 요제프 크네히트 특유의 그 분명한 본질을 잘 보여 주고 있었다. 당 국이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의 후임자로 삼기란 어려운 일일 것 같 았다. 진실로 주인다운 사람, 진실로 뛰어난 인격자는 그야말로 드물었다. 그런 인 물은 모두 하늘이 내리는 혜택이고 선물이었다. 선량들의 주(州)인 여기 카스탈리 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요제프 크네히트는 걷는 것이 즐거웠다. 실로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걸어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보니 옛날 마리아펠스 수도원을 떠나 카스탈리엔으로, 발트첼의 연례유희로, 토마스 폰 데어 트라베 명인 '각하'의 서거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토마스 명인의 후임자가 되도록 했던 바로 그 연례유희로 돌아올 때 한 도보여행이 사실 자신이 했던 마지막 도보여행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시절을, 아니 그것을 넘어 연구생 시절과 죽림 시절을 회상하게 될 때면, 지금까지 그는 늘 자신이 밋밋하고 냉랭한 기운이감도는 방안에서 기분 좋게 햇빛이 비치고 있는 아득히 먼 들판을, 되돌릴 수 없는

세계를, 추억 속의 낙원이 되어 버린 것을 내다보는 느낌이었다. 회상은 언제나, 우울한 기분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아주 멀리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을, 신비스럽고 장엄한 기운을 띠며 오늘의 일상과 구분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 금은 그렇지가 않았다. 가까이에서는 울긋불긋 힘찬 색깔을, 먼 곳에서는 부드러 운 숨결 같고 꿈속처럼 은은하며 청색과 자주색을 넘나드는 색조들을 볼 수 있는 이 맑고 밝은 9월의 오후. 느긋한 기분으로 걸으며 한가로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 도보여행은 이제 먼 세계나 낙원처럼 체념 어린 오 늘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오늘의 여행 은 당시의 그 여행과, 오늘의 요제프 크네히트는 당시의 요제프 크네히트와 형제 처럼 닮아 있었다. 모든 것이 다시 새롭고 신비에 차 있고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었다. 일찍이 존재했던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며, 많은 새로운 것을 더 지닐 수 있었다. 그는 실로 오랜만에 일상과 세계를 이처럼 편안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자유와 자기결정의 행복한 기분이 진한 술처럼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이런 기분, 이런 멋지고 황홀한 환상을 더 이상 느껴보지 못했던 지가 얼마나 오래였던가! 크네히트는 곰곰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런 소 중한 기분이 침해를 받고 구속을 받게 되었던 그때를 기억해내었다. 그것은 토마 스 명인과 나눈 어느 대화중의 일이었는데, 그때 토마스 명인은 다정하면서도 나 무라는 빛이 서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또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 었던 순간에 느끼게 되었던 그 끔찍한 기분도 똑똑히 기억해내었다. 그때 기분은 사실 고통이나 격심한 괴로움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불안감. 목덜미를 스 치는 가벼운 전율. 횡격막 위로 느끼는 감각의 경고. 생활 감정의 온도 그리고 특 히 속도의 변화 같은 것이었다. 그토록 불안하게 죄어들던, 질식이라도 시킬 듯 멀 리서 위협처럼 다가왔던 그 운명적 순간의 기분이 오늘 보상을 받고 있거나 또는 치료되고 있었다.

어제 히르슬란트로 오는 중에 크네히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었다. 오늘 지금 그는 알렉산더와 나는 대화의 세세한 내용을, 그와의 싸움을,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억제하고 있었다. 그는 긴장해소와 자유의 기분에 완전히 몸을 내맡기고 있었으며, 이런 기분은 고된 하루 일이 끝난 뒤 편안한 기분이 농부의 마음을 채우듯이 그의 온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으며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다. 자신이 없어도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그는 잠시 빠져들게 되었으며, 어떤 일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느끼지 않았다. 밝고 다채로운 일광이 부드러운 빛을 내며 완전히 비유가 되고 완전히 현재가 되어서, 아무런 요구도 없이, 어제도 내일도 없이 그를 감싸주고 있었다. 만족한 기분에 넘치는 이 사람은 걸어가면서 가끔 행진곡들을 흥얼거리며 노래했다. 일찍이 에쉬홀츠의 영재학생들이소풍갈 때 3, 4성부로 나누어 불렀던 바로 그 행진곡들이었다. 그의 인생의 그 명 랑한 여명기로부터 작고 밝은 여러 가지 추억들과 선율들이 새들의 노래처럼 너울 날아왔다.

크네히트는 잎이 벌써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어느 벚나무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풀숲에 앉았다. 상의의 안쪽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어떤 물건을 하나꺼내었다. 크네히트가 이런 것을 지니고 있으리라고는 명인 알렉산더가 상상도 할수 없었을 물건이었는데, 그것은 나무로 된 피리였다. 크네히트는 다소 애정 어린눈길로 피리를 살펴보았다. 소박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이 악기를 가지게 된 지는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대략 반 년 정도였다. 크네히트는 만족스런 기분으로자신이 이 피리를 가지게 되었던 날을 기억해 보았다. 당시 그는 몬테포르트로 가서 카를로 페로몬테와 몇 가지 음악이론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기회에 몇몇 시대의 목관악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친구에게몬테포르트의 악기보관소를 구경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오래된 오르간・하프・현악기・피아노들이 가득 차 있는 몇몇 방을 즐거운 기분으로 둘러본 뒤 그들은 학교에서 쓰는 악기들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크네히트는작은 피리들이 한 상자 가득 담긴 채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중 하나를 찬찬히살펴본 뒤 시험 삼아 불어보고서는 친구에게 피리들 중에 하나를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카를로는 웃으면서 한 개 고르라고 말하고 인수증에 서명을 하라

고 했다. 그런 뒤 카를로는 악기의 구조와 조작법과 연주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크네히트는 그 멋진 작은 악기를 가지고 돌아와, 에쉬홀츠의 소년시절에 퉁소를 불어 본 이후 다시는 관악기를 연주해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이미 여러차례 한 가지를 다시 배워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가끔씩 연습을 했다. 연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음계뿐만 아니라 옛날 멜로디들이 수록되어 있는 교본도 이용했는데, 페로몬테가 초보자들을 위해 편찬해 놓은 것이었다. 이제 명인의 정원으로부터 또는 침실로부터 가끔 그 작은 피리의 부드럽고도 감미로운 선율이 흘러나오게되었다. 능숙한 연주자가 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크네히트는 이미 꽤 많은수의 합창곡과 노래들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는 곡들을 다 외우고 있었다. 몇몇곡들에 대해서는 가사도 외우고 있었다. 그 노래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시간에잘 어울리는 노래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다. 크네히트는 몇 구절을 흥얼거려보았다.

내 머리와 팔다리 맥없이 누워 있었네. 하지만 지금 나는 꼿꼿이 서서 씩씩하고 유쾌하게 얼굴 치켜들고 하늘을 쳐다보네.

그러고 나서 크네히트는 악기를 입술에다 대고 멜로디를 연주했다. 부드러운 빛이 감도는 먼 곳을, 멀리 있는 높은 산들을 바라보며 그는 명랑하면서도 경건한 노래가 감미로운 피리의 선율을 타고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 하늘과 산과 노래와 일광과 하나 되어 만족해하고 있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끼어져 있는 이 매끈하고 둥근 나무 악기의 감촉을 흡족한 기분으로 느끼면서 그는 몸에 걸친 옷 말고는 이 작은 피리가 발트첼에서 들고 나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그에게는 많은 물건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개인 소유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었

다. 특히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발췌한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 그랬다. 크네히트는 그 모든 물건들을 그대로 두고 왔다. 연기자 마을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 었다. 하지만 이 작은 피리는 가져오게 되었던 것인데, 피리를 지니고 있게 된 것에 대해 크네히트는 기뻐했다. 피리는 점잖고 사랑스러운 길동무였다.

도보여행자 크네히트는 다음 날 수도에 도착해 데시뇨리의 집을 찾았다. 플리니오 는 계단을 내려와 맞이해 주었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얼싸안았다.

"우리는 걱정하며 애타게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플리니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네, 여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으면하네. 그 사람들이 순순히 자네를 놓아주었구먼! 그러리라고는 정말 믿지 않았는데 말이야."

크네히트는 웃으며 말했다. "보다시피 여기 이렇게 와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틈나는 대로 이야기해 주겠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내 학생과 인사를 나누고 싶네. 물론 자네 부인한테도 인사해야 하고 말일세. 내 새 임무와 관련해 무슨일을 해야 할지 모든 문제를 두 사람과 의논했으면 하네. 한시라도 빨리 일을 시작하고 싶네."

플리니오는 하녀를 불러 지금 바로 아들을 데려오라고 일렀다.

"어린 주인나리님 말입니까?" 그녀는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물었으나 이내 서둘러 자리를 물러났다. 그 사이 주인은 친구가 묵을 손님방으로 친구를 데리고 가서, 크 네히트의 도착에 대비해 크네히트가 어린 티토와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에 대비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인지에 관해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를 크네히트가 부탁한 대로 했다는 이야기였다. 처음에 약간 반대를 하기는 했으나 티토의 어머니도 그런 부탁을 수긍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산간호숫가 전망 좋은 곳에 벨푼트라 부르는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크네히트는 당분간 바로 그곳에서 제자와 함께 지내게 되리라는 얘기였다. 한 늙은 하 녀가 두 사람의 시중을 들게 될 것인데 그녀는 벌써 며칠 전에 별장으로 가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물론 한시적으로 머무는 것일 뿐이고 길어야 겨울이 시작될 때까지일 뿐이지만 바로 처음 얼마 동안 그렇게 뚝 떨어져 지내

는 것은 틀림없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는 이야기였다. 티토가 산과 벨푼트 별장을 아주 좋아해 거기 높은 곳에서 지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무런 저항 없이 거기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도 자신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별장과 근처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이 있다는 사실이 퍼뜩 데시뇨리의 머리에 떠올랐다. 데시뇨리는 크네히트를 서재로 데리고 갔으며, 부산한 동작으로 서류가방을 찾았다. 찾아낸 서류가방을 열어 손님에게 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데시뇨리는 농가 풍의 방과 타일을 붙인 벽난로와 복도들과, 호숫가의 목욕장과 폭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디 마음에 좀 드는가?" 데시뇨리는 간절하게 물었다.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가?"

"왜 안 되겠나?" 크네히트는 차분하게 말했다. "대체 티토는 어디 있는 건가? 찾으러 보낸 지가 벌써 한참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이것저것 좀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티토도 아니고 티토를 데리러 간 하녀도 아니었다. 티토의 어머니, 데시뇨리 부인이었다. 크네히트는 일어서서 인사했다. 그녀는 크네히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했으며, 다소 억지스러운 것같은 친절한 태도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순간 크네히트는 공손한 미소 뒤에 근심과 분노의 기색이 숨겨져 있는 것을 느꼈다. 환영의 인사말을 몇 마디 하자마자 그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격렬한 어조로 심중에 있던 말을 털어놓았다.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애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외출한 것일 거요." 플리니오가 진정시켰다. "바로 올 거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벌써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아침에 벌써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요?"

"어느 시간에든 으레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쓸데없이 당신을 흥분시키고 싶지 도 않았고요. 나도 처음에는 사실 불길한 일을 조금도 상상해보지 않았어요. 산책 나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때부터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오늘 점심을 들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라면 점심때 당신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때까지도 나는 스스로를 달래보려고 했어요. 애가 그냥 좀 부주의해서 나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그런 게아니었어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크네히트가 말했다. "그 아이는 제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과, 그 애와 저와 관련해 두 분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겠 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명인님. 심지어 그 애는 이런 계획들에 대해 거의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애한테는 적어도 다시 어떤 학교로 보내지는 것보다는 명 인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더 마음에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네히트가 말했다.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인, 아드님은 아주 자유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엄격한 스승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전망은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파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 선생한테 넘겨지기 전에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정말로 피해 버리겠다는 희망에서였다기보다는 약간 미루어도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부모와 부모가 데리고 온 선생한테 한 방 먹임으로써 전체 어른들과 선생들의 세계에 대한 자신의 반항심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시뇨리로서는 크네히트가 이 사건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많은 근심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에는 온갖 위험한 일들이 다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다. 아들이 정말로 도망쳐버린 것인지도 모른다고, 아들이 심지어 자살할 생각까지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 소년을 교육함에 있어 그동안 소홀히 하고 잘못 해 왔던 모든 점을 시정하기를 희망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안타깝게도 그 것이 복수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네히트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플리니오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무슨 대책

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충격적인 일을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 채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조급하고 신경질적인 흥분상태에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는데, 그것은 친구의 마음에 몹시 거슬렸다. 결국 티토가 가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놀곤 했던 몇몇 집으로 연락을 해보기로 결정을 보았다. 이런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데시뇨리 부인이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친구와 단둘이 남아 있게 되었을 때 크네히트는 기뻐했다.

"플리니오" 크네히트가 말했다. "자네는 마치 아들이 죽어서 집안으로 실려 오기 라고 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네. 이젠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 차에 치이지도 벨라도나 열매를 따먹지도 않았을 걸세. 여보게, 그러니 정신 차리게. 어린 아들이 지금 여기 없으니, 그 대신에 잠시 자네를 좀 교육시켜야 하겠네. 잠시 자네를 살 펴보았는데, 자네는 정상이 아닌 것 같네. 운동선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나 압박을 받게 되면, 그 순간 그의 근육은 마치 자동이기라도 한 것처럼 필요한 운 동을 하게 되네. 팽창하거나 수축을 해서 그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 와주는 것일세. 이와 마찬가지로 자네는 그 충격—또는 자네가 마치 충격이기라도 한 것처럼 과장해서 받아들였던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면에서 공격이 있을 시의 그 최초의 방어수단을 썼어야 했네. 플리니오 학생. 그럼으로써 천천히 잘 가다듬어서 숨을 쉬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네. 하지만 자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흥분된 상태를 연기해야 하는 배우처럼 숨을 쉬었단 말일세. 자네는 정신무장이 충분히 잘 되어 있지 못하네. 자네들 세속세계 사람들은 고통이나 근심에 대해 전 혀 특별한 방식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되네. 거기에는 속절없고 감동적인 면이 있으며, 가끔은, 진실로 고통이 문제되거나 또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대한 면도 있네. 그러나 일상에 있어서는 이런 방어의 포기는 아 무런 무기도 못 되는 것일세. 그렇게 되도록 배려할 생각이네만 자네 아들은 장차 마음의 무장을 더 잘 갖추게 될 걸세. 그 애가 그걸 필요로 하면 말일세. 그럼 이제 나하고 몇 가지 연습을 해 보세. 플리니오. 자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벌써 다 잊어 버렸는지 한번 살펴보세."

대단히 절도 있는 명령을 내려 효과적인 호흡연습을 시킴으로써 크네히트는 친구가 가 작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제 크네히트는 친구가 이치에 맞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나친 공포감이나 근심을 다시 물리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티토의 방으로 올라갔다. 어린애다운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는 것을 크네히트는 즐거운 기분으로 살펴보았다. 침대 옆 작은 책상위에 놓여 있던 책을 집어든 그는, 그 속에 꽂아 둔 작은 종이쪽지가 삐죽이 나와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사라져 버린 아이가 남긴 말이 적혀 있는 쪽지였다. 그는 쪽지를 데시뇨리한테 건네주면서 웃었다. 데시뇨리의 얼굴빛도 이제 다시 밝아졌다. 쪽지에서 티토는 부모에게, 오늘 아침 이른 새벽에 떠났다고, 혼자산으로 가 그곳 벨푼트에서 새 선생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자신의자유가 다시 귀찮게 제한되기 전에 이런 작은 기쁨을 허락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짧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이 여행을 선생과 함께, 벌써 피감독자나 포로가 되어서 하는 것에 대해 자신은 말할 수 없는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네." 크네히트가 말했다. "그럼 나는 내일 이 아이를 뒤따라 여행을 떠나겠네. 자네 별장에서 틀림없이 그 애를 만날 수 있을 걸세. 자.

이날 나머지 시간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명랑했으며 긴장감도 해소되어 있었다. 이날 저녁 크네히트는 플리니오의 간청에 못 이겨 지난 며칠 동안의 사정을, 특히 알렉산더 명인과 나눈 두 차례의 대화를 친구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크 네히트가 작은 종이쪽지에 이상스런 내용의 시 한 구절을 써 놓았던 것도 이날 저 녁의 일이었다. 그 작은 쪽지는 오늘날 티토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제 어서 부인한테 가 이 사실을 알리게."

집 주인은 저녁 식사하기 전 한 시간 동안 크네히트가 혼자 있도록 내버려두었다. 크네히트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책장을 보게 되었는데, 책장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알지 못하는 책들 앞에 서서 아무렇게나 손을 뻗어 아무 곳에서나 금박장식과 작가 이름, 판형과 가죽색깔이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뽑아드는 것, 이것 역시 절제의 긴 세월 동안 잃어 버렸던 거의 잊어버렸던 기쁨이었는데,

이 기쁨이 이제 은근하게 그의 연구생 시절을 상기시켰다. 우선 크네히트는 느긋 한 기분으로 책 등에 적혀 있는 제목들을 훑어보았으며, 자신 앞에 꽂혀 있는 책들 이 온통 19세기와 20세기의 문학작품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색이 바란 무명천 장정의 책 한 권을 뽑아내었다. 《바라문의 지혜》라는 제목에 마 음이 이끌렸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선 채로, 조금 있다가는 앉은 채로 그는 책장 을 넘겼다. 수백 편의 교훈시였는데 교훈적인 설교와 실천적인 지혜가, 고루한 사 고방식과 진정한 시인 정신이 묘하게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이상스럽고도 감동적인 책에는 신비스런 기운이 결코 없지 않았지만 그 신비스 런 기운은 거칠고 평범한 시들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훌륭한 시들 은 그야말로 하나의 교훈이나 지혜를 표현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들이 아니라 시인의 마음이, 그의 사랑의 능력 · 성실성 · 인간애 · 시민적이며 견실한 성격이 표현되어 있는 시들이었다. 존경의 염과 즐거운 기분이 묘하게 섞인 느낌으로 책 속으로 파고들어 가려 했을 때, 시 한 구절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 구절을 만족스럽고 동의하는 기분으로 마음 깊이 받아들였으며, 바로 이날을 위해 자신에 게 보내진 시구이기라도 한 듯 그 시구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시 구였다.

소중한 날들이 지나가는 것 기꺼운 마음으로 보나니, 더욱 소중한 것이 무르익어 옴이로다. 정원에서 기르는 귀한 식물, 가르칠 어린아이, 쓰게 될 예쁜 책 같은.

크네히트는 책상서랍을 열어 작은 종이 한 장을 찾아내었다. 그리고는 종이 위에 그 시구들을 베껴 썼다. 나중에 그는 이 시구들을 플리니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시구들이 내 마음에 들었네. 무언가 특별한 점을 지니고 있네. 아주 밋밋하면서도 대단히 은근하단 말일세! 이 시구들은 내 자신과 지금의 나의 상황과 기분에 썩 잘 어울리네. 내 비록 정원사가 아니라 귀한 식물을 기르는 데 나날들을 바칠 생각은 없지만 나는 선생이고 교육자이긴 하단 말일세. 그래서 내 임

무로, 내가 교육시키고자 하는 어린아이한테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일세. 이를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이 시를 쓴 사람, 즉 시인 뤼케르트에 대해 말하면, 그는 아마도 이 세 가지 고상한 열정을, 즉 정원사의 열정과 교육자의 열정과 작가의 열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세 번째의 열정이 제1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네. 마지막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으니 말일세. 그는 자신의 열정의 대상에 너무도 깊이 빠져서 은근한 애정을 느끼고 있네. 그래서 그는 그 대상을 그저 책이라 하지 않고 '예쁜 책'이라 부르고 있네. 얼마나 감동적인가 말일세!"

플리니오는 웃었다. "잘 모르긴 하지만" 플리니오가 말했다. "이 멋진 축소명사는 그 자리에 1음절어가 아니라 2음절어가 필요했던 운율마술사의 기교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걸세."

"하지만 그를 과소평가하지는 마세." 크네히트는 변명했다. "일생 동안 수만 시행 을 쓴 사람은 하찮은 운율상의 이유 때문에 궁지에 몰리지는 않는 법일세. 그런 게 아닐세. '쓰게 될 예쁜 책'이란 말이 얼마나 은근하게. 그러면서도 또한 얼마나 수 줍게도 울리는지 그냥 좀 들어 보게. '책' 대신 '예쁜 책'이라고 했던 것은 어쩌면 단순히 애정 때문만이 아닌지도 모르는 일이네. 미화와 유화의 의미에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을 걸세. 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 자신 가끔 일종의 격정이나 악덕으로 생각할 만큼 이 시인은 자신의 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인지 도 모르는 일이네. 아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네. 그럴 경우, 이 '예쁜 책'이란 말은 애정의 의미나 여운뿐 아니라 미화와 완화와 사과의 의미나 여운도 지니게 될 걸세. 도박꾼이 한 판 벌이자고 하지 않고 '작은 한 판' 벌이자고 말하거나. 술 꾼이 한 '방울' 또는 한 '모금'만 더 마시자고 말할 때의 그 의미나 여운 말일세. 하 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네. 어쨌든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자 신이 쓰고자 하는 예쁜 책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에 대해 나는 전적인 동감과 공 감을 느끼고 있네. 교육하고자 하는 열정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네. 예쁜 책을 쓰는 일도 내 마음 가까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직무로부터 벗어나게 된 지금 나는, 장차 한가한 시간에 기분이 좋을 때 책을,

아니 작은 책을, 친구들이나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책을 쓰리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 다시 무언가 소중한 유혹을 느끼고 있네."

"무엇에 대해 쓸 것인가?" 데시뇨리가 궁금해 하며 물었다.

"아. 그거야 상관없네. 쓰는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닐 걸세. 내용은 그저 하나의 계 기가 될 뿐일 걸세. 들어앉게 하는 계기, 많은 자유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행복을 누리는 계기 말일세. 이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조일 걸세. 경건함과 친밀 함, 진지함과 경쾌함 사이를 잘 조화시킨 중용적 어조일 걸세. 교훈적인 어조가 아 니라 체험하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이것저것들에 대해 정답게 전달하고 말하는 어 조가 될 걸세. 프리드리히 뤼케르트가 자신의 시구에서 교훈과 사색, 전달과 잡소 리를 혼합시키고 있는 방식은 아마도 나의 방식이 되지 않을 걸세. 그러나 이런 방 식의 어떤 점은 내 마음에 소중하게 생각되기도 하네. 이 방식은 사적이면서도 자 의적이지 않고. 경쾌하면서도 엄격한 형식적 규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점이 내 마 음에 든단 말일세. 하지만 당분간은 나는 작은 책을 쓰는 즐거움이나 문제들에 대 해 마음을 쓰지 않을 걸세. 지금은 다른 일을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니 말일 세. 그러나 장차 언젠가는 아마 작가가 되는 행복도 나에게 꽃피어 나게 될 걸세.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작가의 모습으로서 말일세. 유쾌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세심하게 사물들을 대할 걸세. 혼자만의 즐거 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몇몇 소수의 좋은 친구들이나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말일세."

다음 날 아침 크네히트는 벨푼트를 향해 출발했다. 어제 데시뇨리는 크네히트와 동행해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었다. 크네히트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었으며, 그럼에도 또 데시뇨리가 설득의 말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거의 큰소리까지 지를 정도였었다. "그 아이로서는" 크네히트는 잘라 말했다. "끔찍한 새 선생을 맞아 감당해내는 것만 해도 벅찬 일이 될 걸세. 이런 마당에 또 아버지의 모습까지 참아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네. 특히 지금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반가운 것이아닐 걸세."

플리니오가 그를 위해 빌렸던 여행용 차를 타고 시원한 9월의 아침을 달리는 동안

크네히트는 어제의 유쾌하던 여행기분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그는 가끔 운전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주위 풍경이 마음에 들 때면 때때로 차를 세우게 하거나 천천히 몰게 했다. 가끔씩 작은 피리를 불기도 했다. 멋있고 신나는 여행이었다. 수도와 평지로부터 낮은 산들을 향해 멀리 높은 산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었다. 끝나가고 있는 여름으로부터 점점 더 깊이 가을로 들어가는 여행이기도 했다. 정오쯤 해서 마지막 큰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는데 벌써 잎이 많이 떨어져 버린 침엽수림을 뚫고 물보라를 일으키며 바위 사이를 흐르는 산 속 개천을 따라 다리를 건너고 육중한 담과 작은 창문을 가진 채 외롭게 서 있는 집들을 지나서 돌이 많고점점 더 강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는 산 속의 세계로 구불구불 나 있었다. 이 산 속의 세계의 거칠고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낙원과도 같은 많은 작은 꽃들은 더욱사랑스럽게 피어나고 있었다.

마침내 도달하게 된 작은 별장은 회색 빛 바위 사이에 숨은 채 산간호숫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바위들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여행자는 거친 고산에 어울리는 건축양식의 억센, 아니 침침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러나 이내 그의 얼굴은 명랑한 미소로 환해졌다. 열린 문간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알록달록한 셔츠와 짧은 바지를 입은 젊은이였다. 그가 가르치게 될 학생 티토임이 분명했다. 도망을 쳐버렸던 이 학생 때문에 특별히 심각하게 걱정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크네히트는 안심이 되고 고마워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티토가 여기 있고 별장 문간에서 선생한테 인사를 한다면 모든 일은 다 잘된 것이었다. 이리로 오는 중에 그가 그 가능성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런 일들은 삽시에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그러면서도 약간 난처해하며 크네히트를 맞이해 주었다. 크네히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소년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 님 혼자 여행하시게 했던 것은 나쁜 뜻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크네히트가 미처 대 답도 할 수 있기 전에 티토는 다정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게 무슨 뜻 이었는지 선생님께서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아버지와 함께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잘 도착한 것은 이미 아버지께 전해드렸습 니다."

크네히트는 웃으며 티토와 악수하고, 그의 안내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녀도 그에게 인사를 했으며 곧 저녁식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평소에 없던 어떤 욕구에 이끌려 책상 앞에 있는 소파에 이제 잠시 앉았을 때 문득 크네히트는 그 멋진 자동차 여행으로 인해 자신이 이상하게 피로해 있다는, 아니 지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후 시간을 보내고 학생이수집해 놓은 산꽃들과 나비들을 구경하는 동안 피로감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그는 현기증 같은 것까지 느꼈으며 전에 없이 머릿속이 텅 비고 기분 나쁘게 힘이 빠지며 심장의 박동이 고르지 못한 것을 느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약속된 취침시간까지 계속 티토와 함께 앉아 있었으며 자신의 불편한 상태를 티토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느라 무척 애를 썼다. 학생으로서는 다소 의아스러운 일이었지만 명인은 수업의 시작이나 시간표, 마지막에 낼 성적 등에 대해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티토가 이런 좋은 분위기를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되어 선생님이 새로운 환경을 좀 알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제법 긴 산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도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산책이 기다려지는구먼." 크네히트가 말을 이었다. "나도 바로 자네한테 한 가지부탁을 했으면 하네. 자네가 채집해 놓은 식물들을 보던 중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인데, 자네는 산 속 식물에 대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네. 사실 우리가 여기함께 있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동화되는 것일세. 자네가 내 시원찮은 식물학 지식을 검토하고 이 분야에서 나한데 좀 가르쳐 주는 것으로써 시작을 해 보세."

그들이 서로 밤 인사를 나누었을 때 티토는 매우 만족한 기분이었으며, 여러 가지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다. 명인 크네히트가 다시금 마음에 쏙 드는 것이었다. 학교 선생들이 즐겨 그러는 것처럼 거창한 말을 쓰고 학문이나 도덕·정신적 귀족 등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명랑하고 친절한 사람은 그 태도나 말에 있어서 무언가 의무를 지우고 또 고상하고 훌륭하며 기사답고, 보다 고차적인 노력이나 힘을 불러내는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학교 선생을 골탕 먹이

고 속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 아니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도무지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없었다. 그는—아니, 대체 그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인 것인가? 대체 이 낯선 사람의 무엇이 그토록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인지, 그러면서도 또 자신에게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 이에 대해 티토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티토는 그것이 그의 귀족적인 풍모·고상한 기품·신사다 운 태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점에 그의 마음이 이 끌리고 있었다. 이 신사 크네히트는 기품이 있었다. 그의 가문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의 아버지는 어쩌면 구두장이였는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는 신사였으며 귀족이었다. 그는 티토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기품이 있 었다. 자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기품이 있었다. 자기 가문의 귀족주의적인 본능과 전통을 높이 평가한 까닭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젊 은이는 여기서 처음으로 정신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진 귀족과, 조건이 좋을 경우 가끔 기적을, 길고도 긴 조상과 세대의 대열을 훌쩍 넘어 단 하나의 인간 생활 내 에서 평범한 아이를 귀족으로 만든다고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만나게 되었다. 열정적이며 자부심이 강한 소년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종류의 귀족의 일원 이 되어 그것에 봉사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 임무가 되고 또 명예가 될 수 있을지 도 모른다고 하는 예감이. 아주 온화하고 다정하면서도 철두철미 신사인 이 선생 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구현되는 형태로 자신의 생의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자 신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또 자신에게 목표를 정해주려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 다고 하는 예감이 일렁거리고 있었다.

안내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오게 되었던 크네히트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바로 자리에 눕지 않았다. 오후 시간을 보내는 데 그는 몹시 힘이 들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이 젊은이 앞에서 자신의 그 이상스러운, 그 사이 더욱 심해진 피로감이나 불쾌감 또는 병적인 상태를 조금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표정이나 태도나 목소리를 온 신경을 다 써 가다듬는 것은 힘들고도 성가신 일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명한 상태, 이 불편, 이 불안스런 현기증, 불안감이기도 한 이 격심한 피로

를 정면으로 대결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선 그는 그 원인을 밝혀 이해 하려고 했다. 이것은 한참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기는 했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그가 판단하기에 몸의 불편한 상태는 전적으로 오늘의 여행 때문이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를 평지에서 족히 2천 미터나 되는 고산으로 옮겨 놓은 그 여행 때문이었다. 소년시절에 가졌던 몇 차례의 소풍 이후 이런 높은 곳에 올라와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그는 이 갑작스런 위치 상승을 제대로 감당할수 없었다. 적어도 하루나 이틀 더 이런 불편한 상태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가서도 이 불편한 상태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다면 티토와 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 되면 이 멋진 벨푼트에서의 플리니오의 계획은 바로 실패하는 것이었다. 아쉬운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리 큰 불행은 아닐 것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잠자리에 든 크네히트는, 발트첼을 떠난 이후 자신이 했던 여행을 회상해 보느라 심장의 박동과 흥분한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를 쓰느 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보냈다. 학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해 보았 다. 유쾌한 기분을 느끼며 그렇게 한 것이긴 했지만 무슨 특별한 계획을 세웠던 것 은 아니었다. 우수하기는 하나 고집이 센 이 망아지는 그저 호감과 습관으로써 길 을 들이는 것이 상책이리라 생각되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도 서두르거나 강요해 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소년이 서서히 자신의 능력과 힘을 깨닫도록 하면서 그 와 동시에 그의 가슴속에 그 고귀한 호기심을, 학문과 정신과 미에 대한 열정에 힘 을 부여해 주는 그 고귀한 불만감을 불러일으키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임무 는 아름다운 것이었다. 사실 그의 학생은 그 재능을 일깨워 완성시켜야 하는 평범 한 소년인 것만이 아니었다. 영향력 있고 부유한 귀족의 외동아들로서 그는 장차 지배적인 위치에 설 인물이기도 했다. 나라와 민족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여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이기도 했다. 모범적이고 지도적인 위치에 서 게 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카스탈리엔은 이 오래된 데시뇨리 가문에 무언가 계속 빚을 져오고 있었다. 일찍이 자신에게 맡겨진 바 있었던, 이 티토의 아버지를 카스탈리엔은 충분히 철저하게 교육시키지 못했다. 카스탈리엔은 이 아버지를 세 계와 정신 사이에서의 그의 어려운 위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들지 못했으며, 그럼으로써 재능 있고 훌륭한 젊은 플리니오가 인생을 조화롭게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의 외동아들마저도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안고 있는 문제성 속으로 함께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니 무언가 치료해 놓지 않으면, 무언가 보상해 놓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었다. 어떤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임무가 바로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는 배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로서는 기쁜 일이었으며, 의미 있는 일같이 생각되었다.

아침에 집 안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척이 있었을 때 크네히트는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 옆에 목욕용 가운이 준비되어 있었다. 가벼운 잠옷 위에 가운을 걸쳐입고서 크네히트는 전날 저녁 티토가 가르쳐 주었던 대로 집의 뒷문을 통해 반쯤 트여 있는 복도 쪽으로 걸어 나갔다. 복도는 집과 목욕장과 호수를 연결하고 있었다.

크네히트의 눈앞에는 작은 호수가 짙은 녹색 빛으로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가로놓여 있었다. 건너편에서는 높은 바위절벽이 그 예리하고 들쭉날쭉한 꼭대기로 희미하고 초록빛이 감도는 차가운 아침하늘을 찌르며 그늘 속에 비스듬히 솟아서 거칠고 냉랭한 기분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바위절벽 꼭대기 너머에서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날카롭게 솟은 어느 바위의 가장자리 여기저기에서 햇빛이 분말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몇 분만 지나면 들쭉날쭉한 산꼭대기위로 해가 나타나서 호수와 깊은 산골짜기를 넘칠 듯 비추어댈 것이었다. 주의를 기울이며 진지한 기분으로 크네히트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숙하고 진지하고 아름다운 이 광경은 어딘가 낯선 듯 보이면서도 그와 관계가 있고 또 그에게무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인간을 환영하지 않는, 인간을 초대하지 않는, 인간을 거의 용납하지 않는 고산 세계의 중압감과 차가운 태도와 엄숙한 이질감을 어제의 여행 때보다도 더욱 강렬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새롭고 자유로운 세속 생활에로의 제1보가 자신을 바로 이곳으로, 적막하고 차가운 이 고산세계로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상스러우면서도 큰 의미가 있

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목욕바지 차림으로 티토가 나타났다. 그는 손을 내밀어 명인과 악수했다. 그리고 는 건너편의 바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때맞춰 잘 나오셨습니다. 곧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 여기 높은 곳은 정말 대단합니다." 크네히트는 다정한 태도로 그에 게 머리를 끄덕여 주었다. 크네히트로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티 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달리기와 싸우기와 걷기를 좋아했다. 그것은 바로 아 버지의 느슨하고 절도 없이 타성에 젖은 태도와 생활방식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는 데, 티토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런 습관들과 경 향들은 때로 자연 상태의 아이와 같은 생활과 정신을 멸시하는 태도—과장에 대한 경향은 데시뇨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의 타고난 기질인 것처럼 보였다.—를 가지게 하기도 했지만 크네히트는 이런 습관들과 경향들을 높이 사고 있었으며 이 불같은 성정의 젊은이의 마음을 얻고 또 길들임에 있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 데 하나로서 운동친구 관계도 이용하리라 결심하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 법들 가운데 하나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들에 드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예 를 들어 음악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었다. 당연한 일 이지만 또한 그는 육체적인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 젊은이와 겨루어 보리라는. 아 니 그를 능가해 보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그저 순수하게 함께 행동함으 로써 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스승이 비겁한 사람도 책상물림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 여주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었다.

티토는 긴장한 눈빛으로 시커먼 바위 꼭대기 쪽을 건너다보고 있었는데, 이 꼭대기 너머에서 하늘은 아침노을 빛으로 넘실대고 있었다. 이제 그 바위 꼭대기의 한 작은 부분이 번쩍 빛을 냈는데, 그것은 마치 벌겋게 달아오른 쇠붙이가 막 녹으려드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꼭대기의 선은 희미해졌으며 갑자기 더 낮아져 버린 것 같았다. 녹으면서 내려앉아 버리는 것 같았다. 벌겋게 달아오르는 그 빈자리로부터 해가 눈부시게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땅과 별장과 목욕장과 호수의 이쪽 둑은 햇빛을 받게 되었다. 강렬한 햇빛 속에 서 있게 된 두 사람은 이내 이 빛의 기분좋은 온기를 느꼈다. 이 순간의 장엄한 아름다움과 젊음과 힘이 넘치는 행복감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된 소년은 양팔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사지를 펴고, 이어 바로 온몸을 움직임으로써 열정적인 춤을 추어 새벽이 열리는 이 광경을 찬양했으며, 그를 둘러싼 채 넘실대며 빛나고 있는 만물들과의 자신의 내밀한 조화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승리감에 넘치는 해를 향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경외심에 찬 모습으로 다시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면 뻗쳐진 양팔은 산과 호수와 하늘을 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서는 어머니 대지를, 손바닥을 펴고서는 호수의 물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자신과 자신의 젊음과 자유와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 생명감을 장엄한 제물인 양 천지신명께 바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갈색 어깨 위에서는 햇빛이 반사되고 그의 두 눈은 햇빛에 부셔 반쯤 감겨져 있었다. 젊음이 넘치는 얼굴은 감동에 찬, 아니 거의 광적이라 할 수 있을 진지함의 표정을 띤 채 가면처럼 굳어져 있었다.

바위처럼 침묵하는 적막 속에서 새벽이 열리는 그 장엄한 광경에 명인 크네히트도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이 광경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을 주었던 것은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인간의 동작, 즉 그의 제자의 아침과 해를 맞이하는 화려한 춤이었다. 이 춤은 아직 덜 다듬어진 변덕스러운 젊은이를 예배라도 올리는 것 같은 진지한 분위기로 고양시켜주면서, 이를 바라보고 있는 크네히트 자신에게 젊은이의 깊고 고상하기 이를 데 없는 경향과 재능과 운명을 한 순간에, 해의 출현이 그 차고 어두운 산간호수 골짜기를 밝히고 샅샅이 비추어 댔듯이, 그렇게 갑작스레 환하게 다 드러내 주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크네히트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더욱 거칠며 접근하기 힘들고, 정신과 멀고, 또 이교도적인 것 같이 생각되기도 했다. 도취경에 빠진 젊은이의 이 엄숙한 제사 춤은 일찍이 젊은 플리니오의 언변과 시구가 그러했던 것을 넘어섰으며, 이 젊은이를 몇 단계 더 높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 춤으로 인해 젊은이는 더욱 낯설고, 이해할 수 없고, 부르기 힘든 존재로 나타나기도 했다.

소년 자신도 자신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황홀경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가 지금 추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미 추어 본 적이 있거나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춤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미 잘 알 고 있는, 그가 고안해 낸, 해와 아침의 축제의식이 결코 아니었다. 시간이 조금 흐 른 뒤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의 춤과 그의 이 신비스러운 황 홀경에는 산 공기와 해와 아침 기운과 해방감만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정하면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명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난. 그 자신을 기다 리고 있는, 그의 젊은 인생의 변화와 단계도 그에 못지않게 관여하고 있었다. 이런 아침 시간에 어린 티토의 운명 속에서는 그의 영혼 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한테 어 우러지고 있었으며, 그럼으로 해서 이 시간을 거룩하고 엄숙하고 성스러운 시간으 로 만들어 수천의 다른 시간과 구분 짓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비판도 의심도 하지 않는 채, 티토는 이 복된 순간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했다. 경건한 마음을 춤추고, 해를 향해 기도하고, 몰아의 경지에서 하는 동작과 표정을 통해 기쁨과 인생에의 믿음과 경건한 마음과 경외심을 나타내 보였 다. 당당하면서도 헌신적인 태도로 그는 자신의 경건한 영혼을 춤을 통해 해와 신 들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이 제물은 존경할 만하면서도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는 사람, 현자이며 음악가이기도 한 사람, 신비에 찬 세계에서 온 신비스러운 유희의 대가, 그의 장래의 스승이자 친구가 될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기도 했다.

떠오르는 해의 빛이 빚어내는 황홀경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잠시 동안만 계속되었다. 감동한 모습으로 크네히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학생은 변신하여 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새롭고 이질적이며 완전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그와 대등한 존재로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동쪽에서 비쳐 오는 햇빛을 듬뿍 받으며 방금 체험한 것의 소용돌이에 깊이 감동한 채 별장과 목욕장 사이의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때 티토는 춤의 마지막 걸음을 내딛자마자 행복한 도취경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며, 혼자 놀다 불시에 들키게 된 동물처럼 우뚝 멈춰 섰다.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이 예사롭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행했을 뿐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까지도 한 명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때문이었다. 조금의 지체

도 없이 그는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을 따랐다. 갑자기 어딘가 위험하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압도해 버렸던 이 이상스런 순간의 마법의 그물을 힘차게 찢어 버리게 해 주는 생각이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가면처럼 엄숙한 표정이었던 그의얼굴이 어린아이 같은, 다소 멍청한 표정을 띠었다. 깊은 잠을 자다 아주 갑작스레 깨워지게 된 사람의 얼굴 같았다. 그는 무릎을 몇 번 흔들어 보았으며, 놀라 멍청해진 눈빛으로 스승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방금 무슨 중요한 일이, 아니 이미 벌써 거의 늦어져 버린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라도 한 듯, 오른쪽 팔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은 시늉으로 뻗쳐서는 반대편 호수 둑을 가리켜 보였다. 그 둑은 호수 수면의 절반과 마찬가지로 아직 큰 그늘 속에 놓여 있었는데, 이 그늘은 바위산이 아침햇살을 받게 됨에 따라서 그 산 밑 부분 쪽으로 그 범위가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었다.

"우리가 아주 빨리 헤엄쳐 가면" 티토는 소년답게 조바심에 찬 어조로 불쑥 말했다. "햇살이 미처 비쳐들기 전에 저쪽 둑에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입에서 터져 나오자마자, 해와의 내기 수영을 알리는 이 신호가 주어지게 되자마자 티토는 머리를 앞쪽으로 한 채 힘차게 뛰어들어서 호수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자만심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당황해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아주 서둘러 사라져 버려 앞서 있었던 그 장엄한 광경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으면 도대체가 견딜 수 없기라도 한 것 같은 동작이었다. 물이 튕겨 오르며 그의 머리 위를 덮쳤다. 잠시 뒤에 머리와 어깨와 팔이 다시 물 위로 나타났는데, 빠른 속도로 멀어지며 회색빛 섞인 초록빛 수면 위에서 계속 보이고 있었다.

호숫가로 나올 때 크네히트는 목욕을 하거나 수영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 그로서는 날씨가 너무도 쌀쌀했으며, 거의 병이 든 상태에서 밤을 보냈던 까닭에 몸이 너무도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았던 광경에 감동한채, 자신의 제자로부터 친구처럼 초대를 받고 부름을 받은 채 따뜻한 햇볕 속에 서있게 된 지금, 그는 그런 모험을 별로 두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어른

으로서의 냉정한 판단에 따라 힘겨루기를 거부함으로써 지금 젊은이를 혼자 내버려두고, 그래서 실망을 시키게 되면, 이 아침시간이 길을 열어 약속해 주었던 것이 다시 가라앉아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그는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었다. 급하게 고산으로 여행을 하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었던 그 불안과 피로의 기분이 분명히 그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불편한 상태는 그야말로 무리한 일을 통해서 과감한 대결을 통해서 가장 빨리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부름이 경고보다 더 강했으며, 의지가 본능보다 더 강했다. 서둘러 크네히트는 가벼운 목욕가운을 벗고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제자가 뛰어들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음처럼 찬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에 뜨거운 한여름에도 아주 잘 단련된 사람들만이 견뎌낼 수 있는 호수의 물이 살을 가르는 것 같은 지독한 냉기로 그를 맞았다. 어느 정도 심한 냉기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혹독한 냉기일 줄은 몰랐다. 이 찬 기운은 마치 이글거리는 불꽃이라도 가진 양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으며, 끓어오르는 것 같은 열기의 순간이 지난 뒤엔 빠른 속도로 그의 몸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호수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신보다 한참 앞서서 티토가 헤엄쳐 가고 있는 것이 다시 보였다. 얼음처럼 차고 거칠고 적의에 찬 이 젊은이가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이 벌어진 거리를 좁히기 위해, 수영경주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소년의 존경심과 동료애와 마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죽음이 그를 거칠게 대하며 옴짝 달싹 못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는 한 크네히트는 온 힘을 다해 싸우며 죽음에 저항했다.

해엄쳐 가던 젊은이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으며, 명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 물속에 뛰어든 것을 알고서는 만족한 기분을 느꼈었다. 이제 다시 그는 뒤를 살펴보았다. 명인이 더 이상 보이질 않았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여기저기 살피며 불러보았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 방향을 바꾸어 서둘러 헤엄쳐 갔다. 더 이상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헤엄을 치고 잠수를 하며 오래도록 가라앉아 버린 사람을 찾으려 애썼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다. 지독한 냉기 속에서 그 자신도 힘이 다 빠져 버리게 되었다. 현기증을 느끼고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 그는 땅에 다다르게 되었다. 명인의 목욕가운이 둑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티토는 그 목욕가운을 집어 들고서는 자신의 몸과 사지를 사정 없이 문질러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굳어져 있던 피부는 다시 온기를 띠었다. 마비 라도 된 듯 햇볕 속에 웅크리고 앉아서 티토는 물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록색의 차가운 물은 이제 이상하리만큼 공허한 느낌으로, 낯설게 적의를 품은 채 그를 바 라보고 있었다. 육체적 피로감이 사라지고 의식이,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감이 다 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티토는 허탈감과 함께 깊은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나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티토는 전율하며 생각했 다. 지킬 자존심이나 내보일 저항적 태도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게 되어 버린 지금 에 와서야 비로소 티토는 경악한 마음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이미 이 사람을 얼마 나 사랑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온갖 이의에도 불구하고 명 인의 죽음엔 자신도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이런 죄책감이 자 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며, 또 지금까지 그가 자신에게 요구했 던 적이 있었던 것보다 더욱 위대한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리라는 예감이 신성한 전율과 함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

요제프 크네히트의 유고

요제프 크네히트의 유고

학생 시절과 연구생 시절의 시

비탄

우리에겐 결코 존재가 허락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저 흐름일 뿐. 우리는 기꺼이 모든 형식 속으로 흘러든다. 낮, 밤, 동굴 그리고 성당 속으로. 우리는 통과해 지나간다. 존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내몬다.

이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형식을 하나씩 채워간다. 어떠한 형식도 우리의 고향이나 행복이나 고통이 되지 못한다. 언제나 우리는 도상에 있고, 언제나 우리는 손님이다. 들판도 쟁기도 우릴 부르지 않으며, 우릴 위한 빵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

신이 우리를 어찌 하려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는 우리를, 말이 없고 유연하며 웃지도 울지도 않으며 잘 이겨지기는 하지만 결코 구워지는 법이 없는 진흙을 손에 쥐고 주무른다.

한번 돌로 굳어 보았으면! 한번 영속해 보았으면! 이를 향해 우리의 동경은 영원히 꿈틀거린다. 그러나 불안한 전율만이 영원히 남을 뿐, 우리의 길에는 결코 휴식이 없다.

환영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소박한 사람들은 물론 우리의 회의를 참지 못한다. 세계는 평평하다고, 심연의 전설은 허튼 소리라고 그들은 우리에게 간단히 설명한다.

예부터 친숙하고 편안한 두 차원 외에 정말 또 다른 차원들이 있다면, 그때 인간은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며, 그때 인간은 어떻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냐고 한다.

그러니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하나의 차원을 없애 버리자!

흔들림이 없는 그 자들이 진실로 옳고 심연의 응시가 그토록 위험하다면, 세 번째의 차원은 없어도 될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남몰래 갈망하노라

우아하고 정신적이며 아라비아 무늬처럼 섬세하게 우리의 인생은 요정의 그것같이 부드럽게 춤을 추며 허무의 둘레를 도는 것 같다. 우리의 존재와 현재를 희생시킨 허무의 둘레를.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숨결처럼 부드럽고 순수하게 조화된 아름다운 꿈과 정다운 놀이여, 그대의 명랑한 표면 아래 깊은 곳엔 밤과 피와 야만에 대한 동경이 타오르고 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놀이의 준비를 갖춘 채 허공 속에서 아무런 강제나 어려움 없이 자유로이 돌고 있다. 그러나 남몰래 우리는 현실을, 생산과 탄생을, 고통과 죽음을 갈망한다.

문자

때로 우리는 펜을 들어 하얀 종이 위에 기호들을 쓴다. 그것들은 이런저런 것을 의미하며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그 나름의 규칙을 갖는 유희다.

그러나 미개인이나 달나라 사람이 와서 그런 종이를, 이랑마다 루네 문자 심어진 밭을 호기심에서 눈 여겨 살핀다면, 그는 거기에서 낯선 세계의 모습을, 낯설고 이상한 화랑을 마주보게 되리라. 그는 A와 B가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어, 눈이 되고 혀가 되고 사지가 되어, 저기서는 경건하게 여기서는 욕망에 쫓겨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리라. 눈 속의 까마귀 발자국인 듯이 그는 읽으리라. 그는 함께 뛰고 쉬고 괴로워하고 날게 되리라.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그리고는 온갖 창조의 가능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검은 기호들 사이로 출몰하는 것을, 운율을 맞춘 장식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 사랑이 타오르고 고통이 경련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런 문자의 운율 맞춘 격자 뒤에서 맹목적 충동에 사로잡힌 세계 전체가, 뻣뻣하게 걷는, 삶의 충동과 죽음, 쾌락과 고통이 형제가 되도록, 좀처럼 구분될 수 없도록 할 만큼 서로 닮은 기호 속에 난쟁이처럼 마법으로 숨어 든 채, 축소되어 그에게 다가올 때, 그는 놀라고 웃고 울고 떨게 되리라.

마침내 미개인은 견딜 수 없는 불안 때문에 소리 지르고, 불길을 일으키고 이마를 쳐들어 기도 올리며 수수께끼 문자 적힌 하얀 종이를 불살라 버리리라. 그러고 나면 그는 아마 잠들며 느끼리라. 현실 아닌 이 세계가, 이 허튼 마술이, 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존재한 적이 없는 것 속으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흡수되는 것을. 그리고는 탄식하고 미소 지으며 회복하리라.

옛 철학자를 읽으며

어제만 해도 매력과 품위로 넘쳤던 수백 년 걸쳐 익은 정선된 사상이 갑자기 생기 잃고 시들어져 의미를 잃어버린다. 오선에서 조표나 음표

지워 버린 악보처럼. 어떤 건물에서 신비스런 중심이 빠져나간 것이다. 조화롭게 보였던 것은 덧없는 소리를 내며 비틀거리고 사라져 버린다. 길이 여운을 남기며.

그러니 사랑 받고 찬양 받는 늙고 현명한 얼굴은 구겨질 수 있는 것이며, 정신적으로 빛나던 그 얼굴의 빛은 죽음에 이르러 가련하게 헤매는 주름살의 유희 속에서 떨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의 크나큰 기쁨은 모르는 사이에 불쾌한 일로 조각날 수 있는 것이다. 만물은 썩고 시들고 죽어야 한다는 인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하고 있기라도 한 듯.

그러나 이 구역질나는 시체의 골짜기 위에서 고뇌에 차 있기는 하나 결코 썩는 법이 없이 동경에 찬 정신은 타오르는 봉화를 치켜들고 죽음을 물리치며 스스로를 불멸케 한다.

최후의 유리알유희연기자

자신의 유희 도구인 다채로운 구슬들을 손에 쥔 채 그는 구부리고 앉아 있다. 그의 주의에는 전쟁과 페스트로 유린된 나라가 있다. 폐허 위에는 땡댕이 넝쿨이 자라고. 댕댕이 넝쿨 속에서는 벌들이 붕붕댄다. 조용한 노년 같은 세계에는 지친 평화의 낮은 찬미가가 울리고 있다. 노인은 다채로운 구슬들을 헤아려 보고. 여기서 파라 것과 흰 것을 잡고 저기서 큰 것과 작은 것을 골라 그것들을 한데 결합시켜 유희를 한다. 이전에 그는 기호들로 하는 이 유희에서 대단했으며 모든 기술과 모든 언어의 대가였고 양극에까지 알려진. 세상사에 밝고 세계경험 많은 유명인이었으며 언제나 제자들과 동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제 그는 여분으로, 늙은이로, 낡은 것으로 혼자 남게 되었다. 어떤 제자도 더 이상 그의 축복을 구하지 않으며 어떤 명인도 그를 논쟁에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가 버렸고. 카스탈리엔의 사원과 도서관과 학교도 더 이상 없다. 노인은 구슬을 손에 든 채 폐허의 들판에서 쉬고 있다. 한 때 많은 것을 의미했던 상형문자들. 그것들은 이제 다채로운 유리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소리 없이 노인의 손에서

굴러 나와 모래 속으로 사라진다.

바흐의 한 토카타에 대하여

태고의 침묵이 응시한다, 암흑이 지배한다. 찢겨진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와 맹목의 무로부터 세계의 바닥을 끌어내고 공간들을 세우고 밝음으로 어둠을 헤집고 산마루와 산꼭대기, 절벽과 골짜기를 예감케 하고 대기를 부드럽고 푸르게 하며 대지를 굳게 한다.

이 빛줄기는 싹을 배태하고 있는 것을 창조적으로 둘로 갈라 행위와 전쟁을 낳는다. 놀란 세계는 빛을 내며 타오른다. 빛의 씨앗이 떨어진 곳엔 변화가 일어나고 질서가 생기며, 찬란한 세계는 생의 찬가를, 창조자인 빛의 승리를 노래한다.

이 위대한 충동은 이어 신을 향해 비약하며 생동하는 만물을 헤치고 아버지인 정신을 향해 돌진한다. 그것은 기쁨과 고통이 되고 말이 되고 그림이 되고 노래가 되며, 세계를 차례로 대성당의 개선문으로 만든다. 그것은 본능이요 정신이요 투쟁과 행복이요 사랑이다.

꿈

산 속 수도원의 손이었던 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을 때. 도서관에 갔다. 이상스런 글자 적힌 수천의 양피지 책 등이 벽을 따라 저녁 햇빛 받으며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지식욕과 환희에 넘쳐 나는 시험 삼아 첫째 책을 뽑아 들고 읽었다. 《워의 면적을 구하는 마지막 방법》 이 책을 가져가야지 하고 나는 바로 생각했다. 황금빛 가죽으로 된 사절 판의 또 다른 책 등에는 작은 글씨로 씌어 있었다. 《아담은 어떻게 다른 나무에서도 따 먹었는가》 다른 나무에서? 어느 나무에서? 생명의 나무에서! 그렇다면 아담은 불멸의 존재인가? 여기 온 것이 헛되지는 않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절 판의 큰 책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의 등과 측면과 모서리는 무지개 색조로 빛나고 있었다. 손으로 써 놓은 그 책의 제목은 이러했다. 《색과 소리의 의미일치. 개개의 색과 색의 혼합에 어느 정도로 조성이 부합하는가에 대한 증명》 아. 색의 합창은 얼마나 희망차게 나를 향해 타올랐던가! 나는 희미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며 책을 한 권 들 때마다 그것은 증명되었다. 그것은 낙원의 도서관이었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여기에는 일찍이 나를 괴롭혔던 모든 의문과 일찍이 내 마음을 태웠던 모든 인식에의 갈증에 대한 답이 있었으며, 모든 굶주림에 대해 정신의 양식이 저장되어 있었다. 어떤 책을 슬쩍 살펴보아도 모든 책에는 희망에 넘치는 제목이 씌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어떠한 곤경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는 일찍이 생도가 예감하며 탐내었던. 일찍이 명인이 과감하게 추구했던 모든 과일을 딸 수 있었다. 여기에는 모든 지혜와 문학과 학문의 의미가. 가장 핵심적이고 순수한 의미가, 모든 문제의 신비스런 힘과 그 열쇠와 말이. 정신의 오묘한 정수가 희귀하고 신비스런, 대가들의 책 속에 보존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의문과 비밀을 푸는 열쇠가 있었는데. 그것은 신비스런 시간의 은총을 받는 사람 몫이었다.

그래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책들 중의 하나를 책상 위에 놓고
그 신비스런 그림글자를 해독했다.
사람들이때로 꿈속에서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장난삼아 해 보고 운 좋게 성공하듯이.
이내 나는 12궁 안에 지어진,
별이 빛나는 정신의 공간 속으로 날아올랐다.

그 공간 안에서는 일찍이 제 민족의 예감이 상징적으로 보았던 모든 계시와 수천 년에 걸친 세계체험의 유산이 서로 만나 끊임없이 새롭게 결합되었으며 서로 관련을 맺고 있었고. 낡은 인식이나 상징이나 발견으로부터 항상 새롭고 고차적인 의문이 힘차게 솟아나고 있었다. 나는 몇 분 혹은 몇 시간 읽음으로써 전 인류의 행로를 다시 한 번 걸었으며. 인류의 오래된 지식과 새로운 지식의 공통된 깊은 의미를 받아들였다. 그림글자의 형상들이 서로 얽혔다 풀어지고. 원무를 이루었다 흩어지며. 한데 어우러져 새로이 결합되는 것을 나는 읽고 보았다. 끝없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상징적인 형상들의 만화경이었다.

그런데 책에 눈이 부셔서
내가 눈을 잠시 쉬기 위해 책에서
얼굴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이곳의 유일한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홀 안에는 문서계원 같아 보이는 한 노인이
책들 쪽으로 향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진지하게, 자신의 직무에 열심인 채
책들을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 분주한 일의 종류와 의미를 아는 것이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다.
노인이 늙은이의 야윈 손으로 책 한 권을 뽑아
책 등에 써진 것을 읽고서
창백한 입으로 제목—많은 귀중한 독서시간에 대한
보증이 되는 황홀한 제목!—에다 입김을 불어
손가락으로 슬며시
그것을 지워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롭고 다른, 전혀 다른 제목을
미소를 지으며 쓰고서는
걸어가기 시작하여 여기서 한 권 저기서 한 권
책을 뽑아 그 제목을 지워 버리고 다른 제목을 쓰는 것을 나는 보았다.

황망히 나는 그를 오래 쳐다보다가 내 판단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겨우 몇 줄 읽고 있었던 그 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조금 전 나를 즐겁게 해 주었던 일련의 영상들을 나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방금 전에 내가 그 안을 거닐었던. 그렇게도 풍요롭게 세계의 의미를 다루고 있었던 기호의 세계가 해체되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흔들거리고 빙빙 돌았으며 희미해지는 듯했고. 그것은 녹아 없어지면서 텅 빈 양피지의 희미한 빛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어깨에 손길이 닿는 것이 느껴져 내가 쳐다보았을 때. 내 옆에는 열심이던 그 노인이 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섰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나의 책을 집어 들었다. 전율이 얼음처럼 내 몸을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휘감았다. 그의 손가락이 해면처럼 책 위를 미끄러졌다. 텅 빈 가죽 위에다 그의 펜은 새로운 제목과 의문과 약속과, 가장 오래된 의문의 가장 새로운 변형을 정성껏 또박또박 썼다. 그런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과 펜을 들고 갔다.

봉사

태초에는 경건한 군주들이 지배하여 밭과 곡식과 쟁기를 성스럽게 하고 인류 가운데서 제사와 척도의 권리를 행사했다. 인류는 일월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보이지 않는 자들의 정의로운 지배를 갈망한다. 보이지 않는 자들의 영원히 빛나는 모습은 고통과 죽음의 세계를 모른다.

신의 아들들의 성스러운 행렬은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다. 인류는 쾌락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절제도 감격도 없는 영원한 생성으로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예감은 결코 죽지 않았다. 몰락 속에서도 기호의 유희와 비유와 노래를 통해 성스러운 외경심의 경고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언젠가 혹시 어둠이 사라지도록, 언젠가 혹시 시간의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태양이 다시 신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손에서 제물을 가져가도록.

비눗방울

말년의 한 노인이 오래고 오랜 세월의 연구와 사색으로부터 자신의 만년의 대작을 걸러 내어, 그 얽힌 넝쿨에다 재미 삼아 여러 가지 감미로우 지혜를 짜 넣는다.

도서관과 기록실을 한없이 더듬었던, 야심에 불타는 한 열성적인 대학생이 정열에 넘쳐서 천재적인 깊이가 가득 찬 청년시대의 작품을 쓴다.

한 소년이 앉아서 대롱에다 대고 분다. 그는 아롱진 비눗방울을 숨결로 부풀린다. 방울 하나하나는 빛을 내며 찬송가처럼 찬양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분다.

이 셋 모두는, 노인과 아이와 대학생은 세계의 미망의 거품으로 신비스런 꿈을 엮는다. 이 꿈은 그 자체 아무 가치 없지만 그 안에서 영원한 빛은 미소 지으며 자신을 알고 더욱 즐겁게 타오른다.

《이교도 반박 총서》를 읽고

예전엔 인생은 더 진실 되고 세계는 더 정돈되고 정신은 더 순수하고 지혜와 학문은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은, 플라톤이나 중국인들의 책에서 도처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한 경이로운 사실들을 읽게 되는 그 옛 사람들은 더 풍요롭게, 더 명랑하게 살았다. 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잘 정돈된 논리의 전당에 들어설 때마다 원숙하고 감미롭고 순수한 진리의 세계가 멀리서 우리에게 인사하는 듯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도 밝게 빛나고. 자연은 온통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인간은 신으로부터 나와 신을 향해 형성되고 있었고. 법칙과 질서는 정연하게 고지되고 있었으며. 모든 것은 틈새 없이 완성되어 전체를 이루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 후세 사람들은 투쟁하도록. 광야를 방황하도록, 오로지 회의하고 쓰라린 풍자를 하도록 저주받고 있는 것 같으며. 우리에겐 충동과 동경 외에는 어떤 것도 부여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렇지만 장차 우리 자손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다. 그들은 우리를 미화해서 복된 자로, 현자로 보게 되리라. 그들은 우리 삶의 슬피 뒤엉킨 합창 중에서 조화로운 여운만을, 타서 없어지는 고통과 투쟁의 아름답게 얘기되는 신화만을 듣게 될 것이기에. 우리들 가운데서 자신을 가장 믿지 않고 가장 많이 물으며 회의하는 사람이 어쩌면 시대에 영향을 미치고 젊은이의 교화에 모범이 되리라.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어쩌면 장차 복된 자로 부러움을 사게 되리라. 어떤 고난도 어떤 공포도 몰랐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었던 시대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의 행복과 같은 행복을 누렸던 사람으로서.

우리 가슴속에도 모든 시대의 정신을 형제라 부르는 영원한 정신에 대한 정신이 살고 있기에. 오늘을 넘어 사는 것은 이 정신이지 그대나 내가 아니다.

단계

모든 꽃은 시들고 모든 청춘은 노년에 밀려나듯이 모든 삶의 단계, 모든 지혜, 모든 도덕도 제때에 피어날 뿐 영원히 계속될 순 없다. 생명의 부름이 있을 때마다 마음은 이별과 새 출발의 준비를 해 용감하게, 서러워하지 않고 다르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모든 시작엔 어떤 마법이 깃들어 있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사는 것을 도와준다.

우리는 한 공간 한 공간을 명랑하게 통과해야 하며 어느 공간에서도 고향처럼 매달려선 안 된다. 세계정신은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려 하지 않고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이고 넓히려 한다. 한 생활환경에 뿌리내려 정들이고 눌러 살면 바로 무기력이 위협처럼 다가온다. 출발과 여행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습관의 마비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를 새로운 공간을 향해 힘차게 보내줄지 모른다. 우리를 향한 생명의 부름은 결코 끝이 없으리라. 그러니 자. 마음이여, 이별하여 건강해라!

유리알유희

우주의 음악과 명인들의 음악을 경건하게 듣고 축복 받은 시대의 훌륭한 정신들을 순수한 축제로 불러낼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한없이 격랑 치는 것, 인생이 흘러들어 명징한 비유들을 이루고 있는 신비스런 상형문자의 비밀로 우리는 우리를 높인다.

그것들은 성좌처럼 맑게 울린다. 그것들에 봉사함으로써 우리 생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신성한 중심 쪽을 향해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것들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 편의 전기

기우제제사장

수천 년 전에는 여자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부족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 존경과 복종을 받는 쪽은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훨씬 더 귀하게 생각되었다.

마을에 한 조상할머니가 있었다. 100세쯤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나이였다. 이미 아 주 오래전부터 손가락 하나 움직이거나 말 한 마디 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지만 모 든 사람들로부터 여왕처럼 존경과 공경을 받고 있었다. 허구한 날 그녀는 자신의 오막살이집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시중을 드는 몇몇 친척들이 그녀를 둘러싸 고 있었다. 마을의 여인네들이 와서 그녀에게 존경심을 표시하고 자신들의 관심사 들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보이고, 또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기를 바랐다. 임 신한 여자들은 그녀에게 와서 자신들의 몸을 만져 주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 어달라고 부탁했다. 조상할머니는 때로는 손을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고, 또 때로는 그저 머리만 끄덕이거나 가로저었으며, 계속 꼼짝 않고 앉아 있기도 했 다. 그녀가 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거기 그 렇게 앉은 채 지배하고 있었다. 가늘게 다발이 진 하얀 머리카락을 가죽으로 된 것 같은, 먼 곳을 바라보는 독수리 눈 주위에 흘러내리게 한 채 앉아 있었다. 존경과 선물과 부탁과 소식과 보고와 불평을 받아들이면서 앉아 있었다. 일곱 딸을 둔 어 머니로서. 수없이 많은 손자들과 증손자들의 할머니. 증조할머니로서 모든 사람들 에게 알려진 채 앉아 있었다. 깊이 잡힌 주름살 위에, 갈색 이마 뒤에 마을의 지혜 와 전통과 법과 도덕과 명예를 간직한 채 앉아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나절이었다. 구름이 끼어 일찍 어두워지고 있었다. 조상할머니의 진흙으로 지은 오막살이집 앞에는 그녀 자신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 앉아 있었다. 딸은 조상할머니 못지않게 머리가 희고 기품이 있었으며 나이 또한 별로 적지 않 았다. 그녀는 앉은 채 쉬고 있었다.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은 문지방이었다. 날씨가 추울 때면 털가죽을 덮고 앉는 평평한 돌이었다. 밖으로 약간 떨어져 땅바닥 위에 는 몇 명의 어린아이들과 몇 명의 여인네들 소년들이 모래 속이나 풀 속에 자리를 잡은 채 반원형으로 빙 둘러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비가 오지 않거나 얼지 않는 날이면 매일 저녁 그들은 이곳에 앉아 있었다. 조상할머니의 딸이 이야기하는 것 을, 옛날이야기를 하거나 짧은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듣기 위해서였다. 예전에는 조상할머니 자신이 이 일을 했었다. 이제 그녀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야 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딸이 그녀를 대신해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딸은 이 모든 이야기들과 노래들을 조상할머니로부터 물려받 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소리와 모습과 조용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와 동작. 어 조도 물러받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젊은 축은 딸을 그 어머 니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이 딸이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 앉아 부족의 역사와 풍습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미 더 이상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저녁나절이면 그녀의 입으로부터 지혜의 샘물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하얀 머리카락 아래로 부족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고 그녀의 부드럽게 주름살이 잡힌 늙 은 이마 뒤에서는 마을의 추억과 정신이 숨 쉬고 있었다. 누군가가 지혜롭고 짧은 노래들이나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면, 그건 모두 그녀한테서 배운 것이었다. 그녀 와 조상할머니 외에 부족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더 없었다. 하 지만 그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측후 제사장 또는 기우제제사 장으로 말수가 아주 적은 신비에 찬 인물이었다.

조상할머니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소년 크네히트도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아다였다. 크네히트는 소녀를 좋아하고 있었으며 가끔씩 동행을 해서 보호해 주고 있었다.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크네히트는 사랑에 대해 아직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 자신 아직 어린아이였다. 소녀를 동행하고 보호해 준 것은 소녀가 기우제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이었다. 기우제제사장을 크네히트는 대단히 존경하며 흠모하고 있었다. 조상할머니와 그녀의 딸 외에 이 기우제제사장만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조상할머니와 그 딸은 여자들이었다.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처럼 될 생각을 하거나 그들처럼 되고 싶은 소망을 가슴속에 품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기우제제사장은 대단히 접근하기 힘든 사람이었다. 소년으로서는 그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회적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우제제사장의 딸에 대한 크네히트의 배려는 기우제제사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우회로들 중에 하나였다. 크네히트는 가능한 한 자주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기우제제사장의 오두막에서 그 딸을 함께 데려와, 저녁나절에 노파의 오막살이집 앞에 앉아서 그녀가 하는이야기를 들었으며, 그런 다음에는 다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크네히트는 오늘도 그렇게 했으며, 그래서 지금 그는 소녀와 나란히 시커먼 무리들 가운데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노파는 오늘 마녀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

"때때로 마을에는 성질이 고약해서 누구와도 잘 지내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 이런 여자들은 대개 아이를 갖지 못한다. 이런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성질이 하도 고약해서 마을사람들이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럴 때면 사람들은 밤에 그 여자를 붙잡으러 가며, 그 남편을 밧줄로 묶고, 회초리로 그 여자를 때려 준 다음 멀리 숲 속이나 늪지대로 내쫓는다. 사람들은 그 여자에게 악담을 퍼부으며,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다음 사람들은 남편의 밧줄을 다시 풀어 준다.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을 경우 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짝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마을 밖으로 쫓겨난 그 여자는, 죽지 않을 경우, 숲 속과 늪지대를 해매고 다니며 동물들의 말을 배우게 된다. 오랫동안 이곳저곳 해매고 다니다가 그녀는 어느 날 작은 마을을 발견한다. 마녀의 마을이다. 성질이 나빠살던 마을에서 쫓겨난 여자들이 모두 이곳에 모여들어서 그들 스스로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살며 못된 짓을 하고 마술을 부린다. 그들 자신에게 아이가 없는 까닭에, 특히 그들은 정상적인 마을들에서 온 아이들을 유인하기를 좋아한다. 어떤 아이가 숲 속에서 길을 잃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늪에 빠졌거나 늑대한테 물려갔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마녀에 의

해 그릇된 길로 유인된 것이었으며, 그녀에 의해 마녀의 마을로 함께 붙들려 간 것 이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이고 우리 할머니가 마을의 최 연장자였던 시절, 어느 날 한 계집애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감귤을 따러 갔다. 감귤을 따던 중에 지쳐서 이 계집아이는 잠이 들었다. 이 아이는 아직 키가 작았기 때문에 고사리 풀들에 덮 여 버렸다. 다른 아이들은 계속 걸어갔으며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 이미 저녁때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아이들은 자신 들 가운데 그 계집애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총각들을 내 보냈다. 이들은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아이를 찾으며 이름을 불러댔다. 그런 뒤 그들은 그 아이를 찾아내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런데 이 작은아이는, 실컷 자고 일어났을 때, 숲 속을 멀리멀리 걸어 나갔다. 두려운 마음이 더해지면 질수록 더 욱 빨리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알 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가운데 지금껏 누구도 가 본 적이 없었던 곳을 향해 그저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목에는 나무 속껍질 을 꼬아 만든 줄에 꿴 멧돼지이빨이 걸려 있었다. 이 멧돼지이빨은 아버지가 아이 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 이빨을 사냥을 나갔다가 가져왔으며, 그것에다 돌 조각으로 구멍을 내어서 그 구멍에다 속껍질 줄을 꿰었다. 그러기 전 에 아버지는 멧돼지 피 물에다 이 이빨을 세 차례 끓였으며, 그때 좋은 주문을 외 웠다. 그런데 이런 이빨을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마술로부터 보호되 었다. 이제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튀어나왔다. 마녀였다. 그녀는 반가운 얼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녕, 예쁜 아이야, 길을 잃어 버렸니? 나와 함께 가자꾸 나.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다 주마.' 아이는 그녀와 함께 갔다. 그러나 낯선 사람한 테는 절대로 멧돼지이빨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했던 말이 문 득 아이의 머리에 떠올랐다. 그래서 아이는 걸어가며 몰래 그 이빨을 줄에서 떼 내 어서는 그걸 허리띠 속에다 찔러 넣었다. 낯선 여자와 계집애는 여러 시간을 걸었 다. 벌써 밤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을 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녀의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계집애는 컴컴한 헛간에 갇히 게 되었다. 마녀는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자러 갔다. 다음 날 아침 마녀가 말했다.

'멧돼지이빨을 지니고 있지 않니?' 아이가 말했다.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개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숲 속에서 잃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속껍질로 된 목걸이 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이빨이 달려 있지 않았다. 그러자 마녀는 돌로 된 사발을 하나 가져왔다. 거기에는 흙이 담겨져 있었으며, 흙 속에는 세 포기의 풀이 심어져 있었다. 아이는 풀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마녀는 첫 번째 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네 어머니의 목숨이다.' 이어 그녀는 두 번째 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것은 네 아버지의 목숨이다.' 그런 뒤 그녀는 세 번째의 풀을 가리켰다. '이것은 네 자신의 목숨이다. 이 풀들이 녹색 빛으로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살아 있으며 건강하다. 하나가시들게 되면, 그것이 그 목숨을 나타내는 사람은 병들게 된다. 지금 내가 하나를 뽑아낼 것이지만 하나가 뽑혀지게 되면, 그것이 그 목숨을 나타내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그녀는 아버지의 목숨을 나타내는 풀을 손가락으로 쥐고서 잡아당기기시작했다. 그녀가 약간 잡아당겨 하얀 뿌리가 조금 보이게 되었을 때, 풀은 깊은 신음소리를 내었다."

"신음소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크네히트의 옆에 앉아 있던 작은 소녀는 마치 뱀에게 물리기라도 한 듯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나 버렸다. 그 이야기 때문에 느끼게 되었던 공포감과 오래 싸워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견뎌낼 수 없었던 때문이었다. 한 노파가 웃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이 아이 못지않게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감정을 억누른 채 계속 앉아 있었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경청과 공포감의 꿈속 같은 상태에서 제대로 깨어나게 되자마자 마찬가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녀의 뒤를 쫓아 달려갔다. 노파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기우제제사장의 오막살이집은 마을 연못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그 방향에서 달아나 버린 아이를 찾으려 했다. 유혹이라도 하듯, 마음을 달래기라도 하듯 흥얼거리고 노래하고 읊조리며 그는 소녀를 유인해내려고 애를 썼다. 여인네들이 닭을 가까이 부를 때 내는, 길게 뽑으며 듣기에 좋고 마법을 노리는 그런 목소

리로 불렀다. "아다" 그는 소리쳐 불렀다. "아다, 예쁜 아다. 이리 나와, 아다. 겁내지 마. 나란 말이야. 크네히트란 말이야." 그는 노래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또 노래했다. 아이의 무슨 소리를 미처 듣기도 전에, 아이의 무슨 모습을 미처 보기도 전에 크네히트는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손안으로 불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크네히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난 뒤 아이는 어느 오두막집 벽에 등을 바싹 붙인 채 길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다는 몸을 크네히트에게 바싹 붙였다. 아다에게는 크네히트가 키가 크고 힘이 세며 이미 어른인 것 같이 여겨졌다.

"무서웠어, 응?" 크네히트가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 누구도 너를 괴롭히지 않아. 모두다 아다를 좋아하고 있어. 가자, 집으로 가자." 소녀는 아직도 몸을 떨며약간 훌쩍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더 차분해져 있어서 고맙고 신뢰에 찬 마음으로 함께 갔다.

오두막집 문으로부터 불그스름한 빛이 희미하게 비쳐 나오고 있었다. 안에서는 기우제제사장이 몸을 구부린 채 아궁이 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흘러내린 그의 머리카락 사이로 밝고 붉은 빛이 비치고 있었다. 불을 지퍼서 두 개의 작은 냄비에다 무엇인가를 끓이고 있는 것이었다. 아다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크네히트는 밖에서 잠시 호기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서 끓이고 있는 것이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크네히트는 대번에 알았다. 식사는 다른 냄비에다 하는 것이었으며, 사실 또 식사를 만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기우제제사장은 이미 크네히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문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안으로 들어와! 아다 너냐?" 제사장은 냄비뚜껑을 덮고 냄비 주위를 불길과 재로 돋우고서는 몸을 돌렸다.

크네히트는 그 이상스러운 냄비들 쪽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이 오두 막집에 들어설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크네히트는 호기심과 경외심 답답한 기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럴 수만 있으면 자주 이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기회와 구실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언제나 이 자극하는 듯도 하고 경고하는 듯도 한, 다소 답답한 기분을 느

끼게 되었는데, 이 기분 속에서는 열렬한 호기심이나 기쁜 마음이 두려운 마음과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오래전부터 제사장의 뒤를 따라다니고, 그가 있으리라 짐작이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가까이 나타나고, 또 마치 사냥꾼 처럼 그의 뒤를 밟으면서 말없이 봉사를 하고 시중을 들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을 제사장도 사실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기우제제사장 투루는 밝게 빛나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크네히트를 쳐다보았다. "여기서 무슨 볼일이 있느냐?" 그는 냉정한 어조로 물었다. "남의 오두막집을 찾을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얘야."

"아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투루 기우제제사장님. 얘는 조상할머니 댁에 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마녀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가 무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얘는 비명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다, 너 겁쟁이로구나. 똑똑한 아이는 마녀들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그렇잖니?"

"그럼요. 그렇고말고요. 하지만 마녀들은 온갖 못된 마술을 부릴 줄 안단 말이에 요. 멧돼지이빨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말이에요."

"그래, 너도 멧돼지이빨을 갖고 싶니? 생각해 보자꾸나. 하지만 훨씬 더 좋게 있어. 어떤 약초뿌리야. 나중에 갖다 주마. 가을철에 찾아 뽑아야 하니까. 이 약초뿌리는 똑똑한 여자애들을 온갖 마술로부터 지켜줄 뿐 아니라 심지어 더 예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단다."

아다는 미소를 띠며 즐거워했다. 오두막집 냄새를 맡고 약간의 온기를 느끼게 되어 마음은 이미 진정되어 있었다. 수줍어하는 것 같은 태도로 크네히트가 물었다. "제가 그 약초뿌리를 찾으러 가면 안 됩니까?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투루는 눈을 가늘게 떴다. "많은 사내아이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지." 투루가 말했다. 그러나 목소리에 무슨 악의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조롱기가 스며들어 있을 뿐이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가을철이돼야 할 수 있는 일이니 말이야."

크네히트는 오두막에서 물러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소년의 집 쪽으로 사라졌다. 크네히트에게는 부모가 없었다. 그는 고아였다. 그가 아다에게, 그 아이의 오두막 집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런 사정 때문이기도 했다.

기우제제사장 투루는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남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도 이야기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많 은 사람들은 그를 괴벽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를 시무룩하다고 여기는 사 람들도 더러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 고 있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그의 학자적이고 은둔자적인 무관심한 태도와 관련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제 사장은 다소 성가시기는 하나 똑똑하고 아주 현명한 이 소년이 자신의 뒤를 따르 며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아주 처음부터 그는 이 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1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그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또 이런 사실이 의미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사실 은 소년에게 있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노인 자신에게 있어서도 많은 것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년이 기우제제사장의 일에 깊이 빠져 있고 이 일 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마을에서는 언제나 이런 소년이 있었다. 이미 여러 소년들이 그렇게 다가왔었다. 쉽게 겁을 집어먹고 용기 를 잃어버린 소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는 이미 이런 소년 들 가운데 둘을 여러 해 동안 제자로, 도제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뒤에 멀리 떨 어져 있는 다른 마을로 결혼을 해 갔으며 그곳에서 기우제제사장이나 약초채집사 가 되었다. 그 후 투루는 혼자 지내왔다. 장차 다시 또 한 제자를 받아들인다면 그 건 후계자로 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될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사정은 늘 그랬다. 그것은 옳은 것이었고 달리 될 수가 없었다. 언제나 거듭해서 한 재능 있는 소년이 나타나 기우제제사장을 흠모하고 그 뒤를 따라야 하고 기우제제사장 이 자기 일을 대가답게 해 나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재능이 있었다. 쓸 만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를 훌륭하게 보이게 하는 몇 가지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탐구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꿈꾸는 것 같은 눈초리를 가지고 있고 점잖고 조용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이나 머리가 풍기는 분위기 에서 무언가 느끼고 탐지하고 밝게 깨어 있는 즉 소리나 냄새에 주위를 기울이는 면모를, 어딘가 새 같고 사냥꾼 같은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은 분명히 날씨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어쩌면 마술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소 년은 쓸 만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사실 크네히트는 아직 너 무 어렸다. 그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에게 보여줄 필요는 결코 없었다.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었다. 어떤 과정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되었 다. 그가 겁먹고 놀라고 위축되고 용기를 잃어버린다면 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할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인내심을 갖고 봉사하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었다. 이곳 저곳 따라다니며 그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었다. 두세 개의 별이 떠 있는 구름 낀 하늘을 머리에 인 채 내려앉는 어둠을 뚫고 크네 히트는 마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만족스러운 느낌이었으며 기분 좋게 흥분 되어 있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하고 또 없어서는 안 될 것일 뿐 만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도 다 누리고 있는 즐거운 일, 아름다운 일 세련된 일에 대해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교양도 예술도 모르 고 있었다. 그들은 비스듬히 기운 진흙 오두막집 외에 다른 집들은 모르고 금속이 나 철제 공구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옥수수나 포도 같은 것들도 알려져 있지 않았다. 양초나 램프 같은 발명품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 단한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크네히트의 인생이, 그의 관념의 세계가 덜 풍 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는 무한한 신비요 그림책으로서 그를 에워싸고 있었 으며 그는 하루하루 새날을 맞을 때마다 그 세계를 조금씩 새롭게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 동물의 생활이나 식물의 성장에서 비롯하여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까지 이 르는 세계였다. 말없이 신비에 싸여 있는 자연과 불안에 찬 소년의 가슴속에서 숨 쉬고 있는 고립된 영혼 사이에는 온갖 유대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인간의 영혼 이 가질 수 있는 온갖 긴장감, 불안감, 호기심 동화의 욕구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의 세계에는 문자로 기록된 지식도 역사도 책도 문자도 없고 그의 마을로부터 서 너 시간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모든 것은 전혀 알려져 있지도 또 도달할 수 도 없었지만 그 대신에 그는 그 자신의 마을에서 아주 완전하게 한 덩어리가 되어 살고 있었다. 어머니들이 다스리는 마을 즉 고향 즉 부족공동체 생활은 민족이나 국가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수천 개의 뿌리로 가득 찬 토양을 주고 있었는데 이 얽히고설킨 뿌리들 가운데서 그 자신도 하나의 힘줄 이 되어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만족한 기분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에서 밤바람이 속삭이며 낮게 딱, 딱 소리를 내고 있었다. 축축한 흙냄새가 났다. 갈대와 진흙 냄새가 났다. 반쯤 마른 나무 타는 냄새가 났다. 짙고 다소 향기로운 냄새였으며 다른 어떤 냄새보다도 더 고향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년의 집 가까이 다가갔을 때 오두막집 냄새가 나고 소년들의 냄새가 나고 좋은 사람들의 몸 냄새가 났다. 크네히트는 갈대거적대기 아래를 소리 없이 지나 포근하게 숨 쉬고 있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짚 덤불 위에 몸을 뉘었다. 마녀 이야기와 멧돼지이빨과 아다와 기우제제사장과 아궁이에 놓여 있던 냄비들을 생각했다. 그러다 잠이 들었다.

투루는 아주 천천히 소년을 받아들었다. 그는 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소년은 언제나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소년을 노인에게로 이끌고 있었다. 왜 그리 되는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을 때가 자주 있었다. 숲 속이나 늪지대나 평원의 어느 한적한 곳에서 덫을 놓거나 동물이 지나간 흔적의 냄새를 맡거나 무슨 약초뿌리를 캐거나 또는 열매를 모으고 있을 때 노인은 종종 갑자기 소년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는 채 여러 시간 전부터 뒤를 따르면서 소년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럴 경우 그는 어떤 때는 전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고 또 어떤 때는 투덜거리면서 그추적자를 인정사정없이 쫓아 버렸다. 또 어떤 때는 자신한테로 가까이 오도록 해종일 자기 곁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이것저것 보여주며 알아맞히어 보도록 하고 시험을 해 보고 약초들 이름을 가르쳐 주고 물을 길어 오게 하거나 불을 지피게 하기도 했다.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 투루는 여러 가지 조작법과 유익한 방법들과 비결들과 공식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의 비밀을 엄수하

라고 소년에게 엄중히 가르쳤다. 마침내 크네히트가 좀 더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 노인은 이제 그를 완전히 자신 곁에 두게 되었다. 노인은 크네히트를 제자로 인정하고 크네히트를 살고 있던 집에서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데려왔다. 이로써 크네히트는 모든 마을사람들 앞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크네히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라 기우제제사장의 제자가 된 것이었다. 이는 그가잘 이겨내고 무엇인가 유용한 존재가 되면 기우제제사장의 후계자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

노인이 크네히트를 자신의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온 그 시각부터 그들 사이를 가로 막고 있던 장벽은 허물어졌다. 존경심과 복종의 장벽이 아니라 불신과 격의의 장 벽이 허물어진 것이었다. 투루는 항복하고 크네히트의 끈질긴 노력에 정복되었다. 이제 투루는 크네히트를 훌륭한 기우제제사장으로, 후계자로 만드는 것 외에는 어 떤 일도 원하지 않았다. 그런 가르침을 위해 무슨 개념이나 이론이나 방법론이나 기록이나 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극히 작은 수의 낱말이 있을 뿐이었다. 사부 투루가 교육하는 것도 크네히트의 이성이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감각이었다. 많은 전통과 경험, 당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알고 있었던 지식의 전부를 관리하 고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방대하면서도 긴밀한 체계를 이루는 경험들과 관찰들과 본능들과 탐구자의 습관들이 서서히, 희 미하게 젊은이의 눈앞에 전개되었으나 그것들 중 어느 것도 개념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거의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 감지되고 학습되고 검토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의 바탕과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사자(死者)들의 영혼이 머물게 하고 또 그 영혼들을 다시 새로운 탄생을 위해 내보냄으로써 새로운 사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 련하는 가운데 거듭거듭 차오르고 또 이지러지는 달(月)과 그 달의 여러 가지 단계 와 작용에 관한 지식이었다.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노파의 곁을 떠나 노인의 아궁이에 걸려 있는 냄비들 쪽으로 갔던 그 날 저녁과 비슷하게 크네히트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또 하나의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한밤과 새벽 사이 시간이었다. 자정이 지난 지 두 시간쯤 된 그때 기우제제사장은 크네히트를 깨워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

다. 마지막으로 그믐달이 떠오르는 광경을 크네히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기우제제사장은 아무런 말이 없이 꼼짝하지 않고 젊은이는 다소 겁을 먹고 또 잠이모자라 오들오들 떨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숲 언덕 한가운데 시야가 탁 트인 상태로 돌출 되어 있는 어느 평평한 돌 위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내 기우제제사장이 앞서 지적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 그가 앞서 설명했던 그 모양, 그 기울기로 가느다란 달이 솟아올랐다. 부드럽게 휜 선 같은 모습이었다. 불안에 차고 마법에 걸린 것 같은 기분으로 크네히트는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는 달을 쳐다보았다. 검은 구름들 사이의 맑은 하늘 섬에서 달은 유유히 떠오르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저 달은 모습을 바꾸며 다시 차오를 게다. 그러면 메밀 씨를 뿌려야할 때가 다가오는 게야." 기우제제사장은 손가락으로 날을 꼽아보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전의 침묵상태로 빠져들었다. 홀로 내버려지기라도 한 것처럼 크네히트는 이슬로 반짝이는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깊은 숲 속으로부터 길게 뽑는 부엉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일어섰다. 크네히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마치 꿈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훗날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저 달로 날아갈 것이네. 그때면 자넨 어른이 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될 걸세. 내 딸 아다를 아내로 삼게. 걔가 자네 아들을 낳으면 내 영혼은 다시 돌아와 자네들의 아들 속에 살게될 걸세. 아들 이름을 투루로 하게. 내 이름이 투루니 말일세."

제자는 놀란 태도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솟아오른 가느다란 그믐달은 벌써 구름에 반쯤 가려 있었다. 사물들과 사건들 사이의 수많은 연관관계와 결합과 반복과 교차에 대한 어떤 예감이 젊은이의 마음을 이상스럽게 흔들어 놓았다.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숲과 언덕들 위로 기우제제사장이 앞서 정확히 예고했던 대로 날카롭고 가느다란 그믐달이 나타나게 되었던 이 낯설고 어두운 밤하늘 앞에 자신이 관객으로서, 동시에 또한 연기자로서 서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상스런 기분을 느꼈다. 크네히트에게는 그가,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기우제제사장이, 자신의 혼이 달에 머물러 있다가 크네히트의

아들로서 과거 기우제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게 될 어떤 사람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 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경이에 찬 존재로, 수천의 비밀에 휩싸여 있는 존 재로 생각되었다. 구름 낀 하늘처럼 이상스러운 형태로 열리고 군데군데 투명한 모습으로 미래가, 운명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미래와 운명 에 관해 알고 그것들을 언급하고 또 그것들에 관해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크네 히트에게 경이 같이. 그러면서도 또한 질서로 넘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간들을 내다보는 것 같이 여겨졌다. 일순간 크네히트에게는 저 하늘 위에서의 조용하면서 도 확실한 달의 행로, 인간들과 동물들의 생활, 그들의 공동 생활과 적대관계, 만 남과 투쟁, 위대하고 하찮은 모든 것 개개 생명체 속에 함께 깃들어 있는 죽음 등 모든 것이 정신에 의해 파악될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 되었다. 최초의 강한 예감 속에서 크네히트는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전체로서 보거 나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철저하게 질서 잡히고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정신에 의 해 파악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이 전체 속에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거나 느 끼고 있었다. 거대한 신비들과 그것들의 기품과 깊이 그것들의 이해 가능성에 대 한 그런 최초의 예감이 살랑거리는 수천의 나무 꼭대기 위로 솟아 있는 바위에, 밤 기운 같기도 하고 새벽 기운 같기도 한 차가운 숲속 공기 속에 앉아 있는 이 젊은 이의 마음을 마치 유령의 손길처럼 흔들어 놓았다. 크네히트는 그런 예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당시에도 그랬고 이후의 전 생애를 통해서도 그랬다. 하지만 그 에 대해 여러 차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이후 생활이나 경험에서 그 시간과 그때의 체험은 언제나 함께 나타났다. "그걸 생각하라." 그 시간과 체험 은 늘 말해 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달과 너와 투루와 아다 사이에 빚줄기와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죽음이 있고 영혼의 나라가 있고 그 곳으로부터의 재래가 있다는 것을, 세계의 모든 형상과 현상에 대해서는 네 마음 속에 하나의 답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네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간에 게 가능한 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관해 많은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생 각하라." 그 목소리는 대략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크네히트가 이렇게 정신 의 목소리와 그 유혹과 그 요구와 그 신비스런 구애를 듣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 다. 크네히트는 이미 여러 번 달이 하늘을 떠가는 것을 보았고, 이미 여러 차례 밤 에 부엉새 울음소리를 들었고. 또 이미 여러 차례 말수가 아주 적긴 하지만 기우제 제사장의 입에서 오래된 지혜나 고독한 명상의 말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 그 러나 오늘 이 시간 그것은 새롭고 달랐다. 전체세계에 대한 예감이, 여러 가지 연 관성과 관계들 그 자신도 함께 포함시키면서 공동책임을 지게 만드는 체계에 대 한 감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연관성과 관계 · 체계를 풀 수 있는 열쇠 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긴 발자국을 보고 해당 동물을, 뿌리나 씨앗을 보고 해당 식 물을 알아맞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성이나 정령, 인간, 동물, 약제나 독약 등 전체 세계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사람은 만물을 그 전체성에서 파 악하고 개개의 부분이나 징후에서 다른 모든 부분을 읽어낼 수 있을 것임에 틀림 없었다. 뛰어난 사냥꾼들이 있었다. 그들은 동물의 발자국이나 똥이나 털이나 흔 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두세 개의 하찮 은 털을 보고 어떤 동물의 털인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동물이 어린지 늙었는 지, 수컷인지 암컷인지도 알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구름의 형상이나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나 동물 또는 식물의 이상스런 행동에서 다가오는 며칠 동안의 날씨 를 미리 짐작해내었다. 그의 스승 투루는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으며 빗 나가는 법이 거의 없었다. 또 다른 사람들도 타고난 재주들을 가지고 있었다. 서른 걸음 거리에 있는 새를 돌로 맞힐 수 있는 소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 법이나 은총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손에 쥐어진 돌이 저절로 날아가는 것 이었다. 돌은 명중시키려 하고 새는 명중되려 하는 것이었다. 병자가 죽을 것인지 아닌지. 임산부가 남아를 낳을 것인지 여아를 낳을 것인지 등 미래를 미리 아는 사 람들도 있다는 소문이었다. 조상할머니의 딸은 그것으로 유명했고,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기우제제사장도 그런 능력을 얼마간 가지고 있었다. 이러고 보면 그 거대 한 연관성의 체계 속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어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인식되 어질 수 있고, 또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과거의 것과 미래의 것을 보고 또 읽어낼 수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크네히트는 그 순간 생각했다. 이 중심에 들어서 있는 사람에게는 산골짜기로 물이, 배추밭으로 토끼가 달려오듯이 지혜가 달려올 것이 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명사수의 손을 떠난 돌멩이처럼 정통으로, 틀림이 없 이 핵심을 명중시킬 것이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의 힘으로 그 모든 하나하나의 재 주와 능력을 자신 속에서 통합시켜 부려 쓸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런 사람은 완전하 고 지혜롭고 능가할 수 없는 인간일 것이었다. 그런 사람처럼 되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런 사람을 향해 길을 떠나는 것은 길 중의 길이요 목표였다. 그와 같 은 일은 인생에 신성함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대략 이런 식 으로 그 순간의 체험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우리의 개념적 언어로 말해보고자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체험의 강렬함과 거센 열기를 조 금도 전달해 줄 수 없을 것이다. 한밤중의 기상, 위험과 신비로 넘치는 어둡고 조 용한 숲속을 지나 걷는 것,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높이 솟은 평평한 돌 위 에서 기다리는 것. 그믐달의 출현. 현명한 기우제제사장의 아끼듯이 하는 몇 마디 말, 예사롭지 않는 시간에 기우제제사장과 단둘이 앉아 있는 것 등등, 그 모든 것 을 크네히트는 일종의 축제로, 비밀축제로, 비법 전수의 축제로 받아들이고 있었 다. 어떤 결사나 예배단체에,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 즉 세계의 비밀에 대 한 봉사적이면서도 경의에 찬 관계에 입회하는 의식으로서 체험하고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체험과 이와 비슷한 많은 것들은 결코 관념이나 말이 될 수 가 없었다. 그런데 어떤 다른 관념보다도 더 멀고 불가능한 것은 아마 이런 관념이 었을 것이다. "나 혼자만 이런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객관적 현 실인가? 저 기우제제사장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인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하게 되는 생각들은 새롭고 독자적이고 일 회적인 것인가, 아니면 저 기우제제사장이나 그 이전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똑 같은 것을 체험하고 생각했던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굴절과 차 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실재했다. 빵 반죽 속에 효모가 속속들이 스며있 듯 그 모든 것 속에는 실재성이 스며들어 있었다. 구름, 달, 변화무쌍한 하늘의 광 경, 맨발 아래의 축축하고 차가운 석회암바닥, 여린 밤공기 속에 속삭이듯 내리고 있는 축축하고 찬이슬, 기우제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털가죽 속에 간직되어 있는,

아궁이연기와 나뭇잎자리 냄새를 풍기는 기분 좋은 집 냄새, 그의 거친 목소리 속에 배어 있는 기품 넘치는 울림, 노년과 죽음에의 준비를 말해 주는 조용한 여운이 모든 것은 너무도 실재적이었고, 거의 폭력적이라 할 수 있을 기세로 젊은이의 감각 속을 파고들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봄에 있어서는 감각적 인상들이 잘만들어진 체계나 사유방식들보다도 더 깊은 자양분이 되는 법인 것이다.

기우제제사장 투루는 하나의 직업을 행사하며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특별히 갖 추게 된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 생활 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는 높은 지위의 관리로 사람들의 존 경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체 부족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될 경우 부족으로 부터 보수와 임금도 받았다. 그러나 그런 일은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뿐이었다. 그 가 하는 역할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엄숙한, 아니 성스러운 것은 봄에 모 든 종류의 과일나무와 약초의 파종 날짜를 정하는 일이었다. 투루는 이 일을 달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규칙에 따라 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비 추어 수행했다. 그러나 파종 개시의 엄숙한 행사 자체는, 즉 공동경작지에 한 움큼 의 씨앗과 열매를 최초로 뿌리는 일은 이미 더 이상 그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 런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해마다 이 일을 주재하는 것은 조상할머니 자신이거나 아니면 그녀의 친척 가운데서 가장 나이 많 은 여자였다. 투루가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되는 것은 그야말로 기우제제사 장으로서 일을 보아야 하는 경우들에서였다. 오랜 가뭄이나 장마 또는 혹한이 들 판을 덮쳐 부족을 기근으로 위협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럴 때면 투 루는 제사나 주술. 기원 의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가뭄과 흉작에 대처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극심한 가뭄이나 길고도 긴 장마가 있을 때 다른 모든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천지의 정령들이 어떠한 설득이나 애원이나 위협의 말에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취하는 한 가지 수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나 할머니 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수 단은 바로 마을사람들이 기우제제사장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조상할머니도 그런 것을 겪고 또 보았다는 것이었다.

날씨에 관한 일 외에 투루는 또 일종의 사적인 일들을 맡아보고 있었다. 무당으로 서, 부적이나 주문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조상할머니가 맡아하지 않는 몇몇 경 우들에 있어 의사로서 일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면에 있어서 기우제제 사장 투루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자기 차례가 되면 공동경 작지 가꾸는 일을 도왔고 오두막집 근처에 자기 소유의 작은 텃밭도 가지고 있었 다. 나무열매와 버섯과 장작을 모아 저장했다. 고기를 잡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염소도 한두 마리 길렀다. 농부로서 여느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냥꾼, 낚시꾼, 약초채집꾼으로서 그는 여느 사람과 많이 달랐다. 그는 기인이고 천재였으며, 많은 수의 자연적 · 신비적 책략과 솜씨와 비결과 수단을 알고 있다는 평판을 듣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가 엮어 만든 버드나무가지 올가미에 한 번 걸린 동물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낚시 미끼를 향기가 좋고 맛이 좋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가재를 유인해낼 줄 알았다. 그가 많은 동물들의 말도 알아들을 줄 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그의 주 전문분야는 그의 신비스런 지식의 분야 즉 달과 별을 관찰하고, 날씨 변 화를 알리는 기상현상을 꿰뚫어 보고, 날씨 변화와 식물 성장을 예감하고, 신비스 런 효능을 발휘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그 는 약제로서나 독으로, 마법을 지닌 것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물리쳐 주는 축복과 보호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동물계나 식물계의 여러 형상들을 잘 알고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했다. 그는 모든 약초를 알고 있고 또 찾아냈다. 아무리 귀한 약초 라 하더라도 찾아냈다. 약초가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언제 뿌리를 캐면 좋은지 알고 있었다. 모든 종류의 뱀과 두꺼비를 알고 있고 또 찾아내었다. 뿔과 발굽과 발톱과 털의 사용방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여러 가지 기형, 불구, 괴기한 형상. 공포감을 자아내는 형상에 정통해 있었고 나무나 잎이나 씨앗이나 호두열매 나 뿔이나 발굽에 붙어있는 큰 돌기, 작은 돌기, 미세 돌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이성적으로보다는 감각적으로 즉 발로 걷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 고 촉각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음으로써 더 많이 배워야 했으며, 투 루는 말이나 이론을 통해서보다는 보기와 시범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

쳤다. 스승 투루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그렇게 할 경 우에도 말은 몹시 인상적인 그의 동작들을 좀 더 명백히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크네히트가 받는 수업은 예를 들어 젊은 사냥꾼이나 낚시꾼이 훌륭한 대 가한테서 받는 수업과 별로 다르지 않았으며, 그것은 크네히트를 매우 기쁘게 해 주었다. 이미 자신 속에 있는 것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크네히트는 잠복 하는 법, 귀를 기울이는 법, 살금살금 다가가는 법, 관찰하는 법, 조심하는 법, 냉 정하게 깨어 있는 법, 냄새 맡는 법, 낌새채는 법 등을 배웠다. 그러나 크네히트와 스승 투루가 잠복하며 노리고 있는 야수는 여우와 오소리, 수달과 두꺼비, 새와 물 고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 전체, 의미, 연관성이기도 했다. 일시적이고 변 덕스러운 날씨를 포착하고 인식하고 짐작하고 예견하는 것, 독이 든 딸기나 독사 한테 물린 상처 속에 예비 되어 있는 죽음을 깨닫는 것. 구름과 폭풍이 달의 여러 가지 상태와 관련을 맺으면서 씨앗이나 식물의 성장에 대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나 동물의 생명의 성장이나 파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신비 를 헤아리는 것 등등을 그들은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사실 수천 년 뒤의 과학이나 기술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추구했다. 자연을 정복하 고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 혀 다른 방법으로 목표를 추구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연과 분리하지 않았고 자 연의 비밀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 번도 자연에 대립하거나 적대 하지 않고 언제나 그것의 한 부분이었으며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에 헌신했다. 그 들은 자연을 더 잘 알고 있었고 또 더 현명하게 자연을 대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무리 오만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자연과 정령들의 세계를 두려 위하는 마음 없이 좋아하고 섬긴다거나 또는 심지어 그 세계에 대해 우월감을 느 끼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에게 이런 오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연력의 제요소들 즉 죽음과 여러 마신들에 대해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어 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두려움 이 인간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 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데, 특별한 형식들을 통해 두려움을 펼쳐 버리고 이겨내고 숨겨 버리는 데 기여했다. 두려움은 사람들의 생활을 누르는 압력이었다. 이런 큰 압력이 없었다면 그들의 생활에 공포는 없어 졌겠지만 생활의 밀도 또한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의 일부를 경외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경건한 신앙심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이고 선구자들이었다. 그 시대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많이 있었다. 그런 제사와 의식의 일정 부분은 기우제제사장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

오두막집에서는 크네히트와 함께 어린 아다가, 노인의 총애를 받는 그 어여쁜 딸 이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래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노인은 제 자가 딸을 아내로 삼도록 해주었다. 이때부터 크네히트는 기우제제사장의 조수 로 여겨지게 되었다. 투루는 조상할머니에게 크네히트를 자신의 사위이자 후계자 로서 소개하고, 크네히트가 자기 대신 여러 가지 일과 업무를 맡아하게 했다. 늙 은 기우제제사장은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뀜에 따라 점점 더 노년의 조용하고 관 조적인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면서 자신의 모든 직무를 크네히트에게 맡겼다. 늙 은 기우제제사장 투루가 죽었을 때—이상한 액체가 든 몇몇 개의 냄비 위로 몸을 굽힌 채. 허연 머리카락을 불길에 그을린 채. 아궁이 옆에 쪼앉은 채 그는 죽어 있 었다. —젊은 제자 크네히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을사람들에게 기우제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스승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줄 것을 마을평의회에 요청하고. 스승의 무덤 위에서 많은 양의 귀하고 값진 약초들과 나무뿌리들을 제 물로서 태웠다. 장례 후 이미 여러 해가 지나갔다. 그 사이에 벌써 크네히트와 아 다 사이에 여러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잖아도 좁은 아다의 오두막집을 더욱 비좁게 만든 크네히트의 아이들 가운데 투루라는 사내아이가 있었다. 작고한 기우 제제사장 노인 투루가 달로의 저승여행에서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었 다

크네히트가 거치는 과정은 이전 스승이 거쳤던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그의 두려

움의 일부는 경건한 신앙심이, 정신이 되었다. 젊은 혈기와 깊은 동경의 일부는 생 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일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을 하는 중에, 아다 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갔다. 그가 항상 최대의 애정 을 쏟으며 열심히 연구한 것은 달과, 달이 계절이나 날씨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 분야에서 그는 스승 투루의 경지에 이르렀고 마침내는 능가했다. 달이 차고 이지 러지는 것은 인간의 생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인간을 에워싸는 온갖 공포 가 운데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요 달에 정통한 사람인 크네히트는 달에 대한 자신의 친밀하면서도 활기에 넘치는 관계로 부터 죽음에 대한 성스럽고도 정화된 관계도 체득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원숙한 나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죽음의 공포를 덜 느꼈다. 공손한 마 음을 가지고서 또는 애원하듯이 또는 다정다감하게 달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자신이 달과 은밀하게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달의 일생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생애의 여러 가지 사건과 운명에 은밀히 참여하고 있었다. 달이 이지러지고 또다시 새롭게 차오르는 것을 마치 어떤 비밀 축제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함께 체험했다. 재앙이 덮쳐 달이 질병과 위험과 변화와 피해에 내맡 겨진 것처럼 보일 때면, 달이 빛을 잃고 색이 희미해지며 거의 사라져 버리기라도 할 듯 어두워질 때면 크네히트는 달과 함께 괴로워하며 공포에 떨었다. 그럴 때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달에 관심을 보이고 달을 걱정하고 어두워지는 달에서 위협과 재앙을 느끼고, 늙고 병든 달의 얼굴을 불안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가 다른 사람들보다 달과 더 은밀하게 결합되어 있 고 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달의 운명을 함께 괴 로워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비슷한 체험들에 대 한 그의 기억은 누구보다도 더 선명하고 분명했고, 그의 신뢰감은 더 완전하고 영 원과 윤회에 대한, 죽음의 승화와 극복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은 누구보다도 더 컸다. 그의 헌신의 정도도 누구보다도 더 높았다. 그런 시간이면 그는 자신이 달의 운명을 파멸과 재생에 이를 때까지 함께 체험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아니, 그럴 때면 그는 가끔 오만한 기분까지도 즉 정신을 통해 죽음에 거역하고 싶은, 초 인간적인 운명에 헌신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강화하고 싶은 오만한 용기나 결심 같은 것까지도 느꼈다. 이런 기분의 일단은 그의 태도 속에도 배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크네히트는 지혜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대단히 평정한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천지신명 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런 재주와 능력을 여러 차례의 가혹한 시련을 통해 시험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언젠가 흉년이 들고 날씨가 매우 좋지 않은 한 시기를 이겨내 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 시기는 2년이나 계속되었다. 그 시기는 그의 생애 최대 의 시련이었다. 그때 재앙과 불길한 징조는 여러 차례 미루어진 파종에서 이미 시 작하고 있었다. 뒤이어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불행과 피해가 씨앗들을 덮 치고 결국에는 거의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마을사람들은 혹독한 기근에 들게 되 었고 크네히트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이 비참한 한 해를 극복하고 기우제제사장 으로서 믿음과 영향력을 조금도 잃지 않고 부족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겸손한 마 음과 다소간의 침착한 태도로 그 불행을 견뎌내도록 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벌 써 대단한 일이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많은 사람이 죽은 혹독한 겨울이 지난 뒤 에 지난해의 모든 재난과 비참한 상황이 되풀이되었을 때. 여름 들어 끈질기게 계 속된 가뭄으로 인해 마을 공동경작지가 바싹 말라 갈라터지고 쥐들이 엄청나게 불 어나게 되었을 때. 기우제제사장이 혼자 하는 기도나 제사도 마을사람들 전체가 하는 공적인 행사나 북소리 합창이나 기원제도 아무런 소용이나 효과가 없게 되었 을 때, 이번에는 기우제제사장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무자비하게 드 러나고 말았을 때. 책임을 떠맡고 공포에 떨며 동요하고 있는 마을사람들을 상대 로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보통 이상의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때 크네히트는 2, 3주일 동안 철저하게 혼자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마을사람들 전체가. 굶주림과 절망이. 기우제제사장을 제물로 바치는 것만이 천지신명의 마음을 다시 달랠 수 있는 것이라는 오래된 민간신앙이 버티고 서 있었다. 크네히트는 복종함으로써 승리했다. 그는 그런 민간신앙에 조금도 저 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서 재난의 극복에 힘을 합쳤다. 거듭거듭 물을 찾아내고 샘과 실개천을 탐지해 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축들이 모조리 죽어버리게 되는 일을 막았다. 크네히트는 특히 이 고난에 찬 시기에 당시 마을의 조상할머니 즉 저주에 찬 절망감과 신경쇠약증에 사로잡혀 있는 조상할머니를 조력과조언과 경고의 말, 주문과 기도, 모범과 위협을 통해 지켜줌으로써 그녀가 좌절하고 모든 일이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막았다. 불안과 전반적인 동요의 시기에는 자신의 인생과 사유를 정신적인 것과 초개인적인 것에 더 많이 집중시킬 수 있는 사람이, 존경하고 관찰하고 숭배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욱 쓸모 있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당시 적나라하게 증명되었다. 처절했던 그 두 해는 하마터면 그를 제물로 만들어 죽일 뻔했지만 결국 그에게 높은 인기와 신망을 안겨주었다. 다수의 무책임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을 평가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를 믿고 따랐다.

그의 인생이 이런 시련들과 그 밖의 다른 많은 시련들을 거치는 가운데 크네히트는 부 원숙한 장년의 나이에 이르고 생의 전성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크네히트는 부족 두 조상할머니의 장례를 도왔다. 여섯 살 난 잘생긴 어린 아들을 잃었다. 늑대가 아이를 물고 간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중병을 이겨내었으니 스스로 자신의 의사였다. 기아와 혹한의 고통을 겪었다. 이 모든 일은 그의 얼굴에, 또 그에 못지않게 그의 영혼에도 표시를 남겼다. 정신적인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한 종류의 불쾌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사람들은 멀리서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사정이 어려울 때면 그들을 필요로 하지만 결코 그들을 좋아하지도 자신들과 동류로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피한다는 것도 크네히트는 알게 되었다. 병에 걸린 사람이나 불행에 빠진 사람은 이치에 닿는 충고보다는 전래의 또는 자유롭게 만들어낸 주문이나 경고의 글을 훨씬 더 즐겨 받아들인다는 것,인간은 내적으로 변화하거나 또는 그저 자신을 검토라도 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불편과 외적 속죄를 감수한다는 것,인간은 이성보다는 마법을,경험보다는 주문을 더 쉽게 믿는다는 것 등도 크네히트는 알게 되었다. 많은 역사책들은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들은 모두 이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많이 달 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탐구하는 정신적 인간은 사랑을 잃어 버려서 는 안 된다는 것, 인간의 여러 가지 욕망과 우둔한 행동을 거만한 기분 없이 대해 야 하지만 결코 그것들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현자와 협잡꾼, 성직자와 사 기꾼, 도움을 주는 형제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기생충 같은 사람 사이의 거리 는 언제나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베풀어주는 도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사기꾼에게 돈을 지불하고 허풍선이한테 이용당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도 크네히트는 배우게 되 었다. 인간들은 신뢰감과 사랑으로 지불하기를 원치 않고. 돈과 물건으로 지불하 기를 더 좋아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고 또 스스로 속기를 바라고 있었다. 인간을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비겁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 다.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사악한 속성들이나 본능을 많이 공유하고 있 음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인간이 정신이고 사랑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에 대립하면서 그것의 승화를 바라는 그 무엇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살 찌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이미 이야기의 본 줄거리에서 너무 벗어나 고 또 지나치게 앞질러 표현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크네히트로서는 아마도 이 런 생각들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크네히트는 이런 생각들로 나아가는 도상에 있 었던 거라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의 길은 장차 이런 생각들에 이르고 또 그것들을 넘어 나아가게 될 것이었다.

여러 가지 사상을 갈망하면서도 감각적인 것 속에서, 즉 달과 향기로운 약초와 짭짤한 맛이 나는 나무뿌리와 맛 좋은 나무껍질, 약용식물 재배나 향유 제조, 날씨나 대기에 몰두하는 일 등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것 속에서 훨씬 더 많이 살며 그 길을 걷는 동안 크네히트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게 되었는데 그런 능력들 중에는 후대 사람들인 우리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렴풋이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들도 있었다. 그런 능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이었다. 몇몇 특별한 경우 하늘도 무심해서 그의 노

력들을 잔인하게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기도 했지만 크네히트는 수백 번이 나 비를 내리게 했다. 그것도 거의 매번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였다. 제물들을 바침 에 있어, 기원 의식이나 굿, 북소리 음악 의식에 있어 크네히트는 무엇을 바꾼다거 나 생략해 버리는 일을 조금도 감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야말로 그가 하는 활동의 공식적인 · 공개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공무상의 성 직자적인 외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제물을 바치고 행진을 하며 보낸 날 저녁에 하늘이 뜻을 굽히고 지평선이 시커먼 구름으로 덮이고 바람이 습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고 첫 빗방울이 떨어질 때. 그건 분명 대단한 일이고 벅찬 기분을 가 지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좋은 날을 잡고 무망한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우제제사장의 비상한 안목이 먼저 필요했다. 천지신명께 애 원할, 아니 채근할 수 있으나 감격과 절도로, 그 의지에 순응하는 태도로 해야 하 는 것이었다. 크네히트에게는 아름답고 승리감에 넘치는 성공과 소원성취의 체험 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체험들이 있었다. 그 자신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체험들이었다. 그 자신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성적으로보다는 감각적 으로 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인 체험들이었다. 여러 상태의 날씨, 여러 밀도의 공기 와 기온, 여러 가지 구름과 바람, 여러 종류의 물, 흙, 먼지 냄새, 날씨를 다스리는 여러 정령들의 여러 가지 위협과 약속, 기분과 변덕이 있었으며, 크네히트는 그 모 든 것들을 그의 피부와 머리카락과 모든 감각으로 미리. 함께 느끼고 있었다. 때문 에 그는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또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았다. 함께 진동하면 서 날씨를 자신의 내부로 집중시켜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 구름과 바람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자의적으로나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 니었다. 자신과 세계, 내부와 외부 사이의 구분을 완전히 지양해 버리는 유대감이 나 관련성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크네히트는 황홀한 기분으 로 일어서서 들을 수 있고. 황홀한 기분으로 쪼그리고 앉아 모든 숨구멍을 다 열어 놓을 수 있고, 공기와 구름의 활동을 자신의 내부에서 공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또 생산할 수 있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의 한 악장을 우 리의 가슴속에 불러내어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였다. 그럴 때면 그 는 숨만 죽이기만 하면 되었다.—그러면 바람이나 천둥은 잠잠해졌다. 머리를 끄덕이거나 흔들기만 하면 되었다.—그러면 우박이 떨어지거나 멈추었다. 미소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제 세력들의 화해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었다.—그러면 저기 높은 하늘에서는 첩첩이 포개져 있던 구름이 서로 흩어져 여리고 밝은 푸른빛을 드러내었다. 아주 순수한 기분과 지극히 평정한 마음을 가지게되는 그런 경우 크네히트는 다가오는 며칠간의 날씨를 조금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그의 피속에 전체 악보가 씌어져 있어 이 악보에따라 외부세계에서 연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다. 이런 때가 크네히트로서는 좋은 시절, 최고의 시절이고 보람이며 기쁨이었다.

그러나 외부세계와의 이런 은밀한 유대가 끊어져 버리거나 날씨와 세계가 친밀하 지 않게 되고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리면, 그의 내부에서도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고 여러 가지 교류는 중단되어 버렸다. 그럴 때면 크네히트는 자신 이 훌륭한 기우제제사장이 못 된다는 것을 느꼈으며, 자신의 직무나 날씨와 수확 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성가시고 온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때 크네히트 는 가정적이 되었다. 아다의 말에 순종하고 그녀를 돕고 그녀와 함께 부지런히 집 안일을 돌보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연장을 만들어 주고 이것저것 끓여 약을 만 들었다.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가능한 한 다른 남자들과 비슷하게 되고 또 관례 나 풍습에 완전히 순응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나 형편이나 행동거지에 대해 아내나 이웃 아낙네들이 하던. 평소 오히려 귀찮게 들렸던 이야기들까지도 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지만 좋은 시절이면 크네히트는 집에 머무는 경우 가 드물었다. 그럴 때면 그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밖에 있었다. 고기를 잡고 사냥 을 하고 뿌리들을 찾아다녔다. 풀숲에 누워 있거나 나무들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냄새를 맡고 귀를 기울이고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 내었다. 모닥불을 피워서 연기 구름의 형태와 하늘구름의 형태를 비교했다. 스승이자 전임자였던 투루가 평생 그 렇게 했던 것처럼. 피부와 머리카락을 안개와 비와 공기와 햇빛과 달빛으로 적시 면서 여러 가지 상이한 영역의 본질과 현상형식이 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 연의 지혜나 변덕스런 기분이 그 운동법칙과 창조의 비밀의 한 작은 부분을 드러

내는 것처럼 보이는 형상물들을, 즉 서로 동떨어진 것을 비유적으로 자신 속에 통 일시키고 있는 형상물들을 수집했다. 예를 들어 인간이나 동물의 얼굴 형상을 가 진 나뭇가지의 마디, 마치 나무로 되어 있기라고 한 듯 무늬가 들어 있는 물에 닳 고 닳은 자갈들, 화석이 된 선사시대의 동물형상들, 기형의 또는 짝을 이룬 모양 의 씨, 콩팥이나 심장 모양의 돌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나뭇잎 위의 무늬들과 우 산 버섯 머리 부분에 있는 그물 모양의 선들을 읽으면서 신비스러운 것과 정신적 인 것과 미래의 것과 가능한 것을 예감했다. 기호의 마법이었으며, 수와 문자에 대 한 예감이었고, 수천의 형상으로 무한한 것을 단순한 것과 체계와 개념으로 포착 하는 것이었다. 뭐니 해도 그의 내부에 정신을 통해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모 든 가능성들이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름이 없고 또 명명되고 있지도 않지만 가능한 것으로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아직 싹과 봉오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에게 본질적이고 고유하고 유기적인 것으로서 그런 가능성들이 그의 내 부에서 커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기우제제사장을 넘어 초기의 원시적인 시 대라고 생각되는 그의 세대를 넘어. 다시 또 수천 년을 더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 도, 인간이 있는 곳이면 벌써 어디에서나 바로 정신과, 시작이 없으며 자신이 후대 에 와서 각각 내놓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이미 내포하고 있었던 그 정신과 마주치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자신의 여러 가지 예감들 가운데 하나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증명 가능한 것으로 접근시키는 일이 기우제제사장의 임무는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이런 예감들은 또한 증명이 거의 필요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문자나 기하학이나 의학이나 천문학의 많은 창시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는 그 창시자들의 사슬의 알려지지 않은 한 부분으로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이나 마찬가지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었다. 그는 자신이 물려받았던 것을 전달하고 새롭게 획득한 것이나 투쟁하여 얻은 것을 첨가했다. 그도 제자들을 가지게 된때문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크네히트는 두 명의 제자를 기우제제사장으로 길러냈는데 그들 중 하나는 후일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여러 해 동안 크네히트는 특별히 주목을 받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활동했다. 그래서 처음으로—그것은 어느 대 흉작과 기근이 있은 지 얼 마 되지 않아서였다. -- 한 젊은이가. 기우제제사장의 일과 이 기우제제사장에게 마 음이 이끌리게 된 한 젊은이가 그를 찾고 관찰하고 엿보고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 했을 때, 크네히트는 이상스럽게 우울해지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며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 크나큰 체험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그때 처음으로 크네히트는 청춘시절은 지나가고 한창 때는 넘어가고 꽃은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그 강렬하면서도 엄격한, 목을 죄는 것 같으면서도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 자신 지금껏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지만 크네히트는 소년 에 대해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는데 이는 과거에 스승 투루가 그 자신을 대했 던 방식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냉담하고 거부적이며 기다리게 만들고 유보 적인 태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본능적으로 생겨난 것이었다. 그것은 돌아가 신 스승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젊은이가 충분히 진지한지 아닌지를 먼저 오랫동안 살펴보아야 한다든가 비결을 전수 받는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해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어렵게 해주어야 한다든가와 같은 도덕적 · 교육적 고려에서 비롯하는 것도 아니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미 나이가 좀 들고 혼자만의 길을 걷는 유식한 기인이면 모두가 다 숭배자들이나 제자들에 대해 그렇 게 하는 것처럼, 크네히트도 그냥 그렇게 제자들을 대했을 뿐이었다. 당황해하게 되고 소심해지고 거부적이 되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아름다운 고독과 자유, 산야를 돌아다니는 일, 혼자 자유롭게 사냥하고 채집하고 꿈꾸고 귀 기울이 는 일 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습관이나 취미, 비밀. 명상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었을 뿐이었다. 존경의 염과 호기심 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접근해 오는 소심한 젊은이를 크네히트는 결코 따뜻하게 대 해 주지 않았다. 젊은이가 소심함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결코 도와주지 않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도 않았다. 이제 마침내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한 명 의 사자(使者)를 보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얻 으려 애쓰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자신에게 애정과 친근감을 느끼고 자신과 마찬 가지로 비밀의 세계에 봉사하는 일에 소명을 받은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크네

히트는 결코 기쁨과 보상으로, 세인들의 인정과 기분 좋은 성공으로 생각하지 않 았다.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처음에 크네히트는 그것을 귀찮은 방해로서, 자신의 권리와 습관에 대한 침해로서, 이제 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몹시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그의 자유로운 생활을 강탈하는 것으로서 느꼈을 뿐이었다. 크네히트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저항하며 젊은이를 속이고 자신을 숨기고 자신의 행적을 지우고 따돌리고 피하는데 있어 온갖 묘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그의 사 정은 과거 투루의 사정과 마찬가지였다. 젊은이의 오랜 동안의 말없는 구애는 서 서히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의 저항을 아주 서서히 무력하게 만들어 녹여 버리게 되었다. 젊은이가 입지를 점점 더 넓혀감에 따라 크네히트는 점차 젊 은이에게 관심을 기울여 마음을 열고 젊은이의 욕구를 인정해 주고 젊은이의 구애 를 받아들였으며, 가르친다는 것과 제자를 갖는다고 하는 때로 매우 귀찮은 이 새 로운 임무를 피할 수 없는 일, 운명적인 일, 정신이 원하는 일로 생각하는 것을 배 웠다. 크네히트는 점점 더 많이 꿈으로부터, 무한한 가능성과 수천 가지의 미래를 느끼며 즐기는 것으로부터 작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한한 진보와 모든 지혜 의 집약에 대한 꿈 대신에 이제는 제자가 나타나 서 있는 것이었다. 작지만 가까이 나타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하나의 현실이었다. 침입자요 훼방꾼이기는 하지만 물 리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진정한 미래로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단 하 나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다.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의 생애와 업적. 고결한 마음 씨와 사상과 예감들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작은 싹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좁은 길이었다. 한숨을 쉬고 이빨을 깨물며, 그러면서도 미소 를 지으며 크네히트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물려받은 것을 전달하고 후계자를 교육한다고 하는, 어쩌면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것인지도 모르는 이 중요한 직무에 있어서도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는 대단히 힘들고 쓰라린 경험과 실망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고 오랜 동안 기다리고 또 거절을 당한 뒤에 그를 스승으로 받들 수가 있게 된첫 번째 제자의 이름은 마로였는데, 마로는 크네히트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환멸을 안겨주었다. 마로는 공손하고 사근사근했으며 오랜 기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행세를 했다. 그러나 마로는 이것저것 부족한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용 기가 부족했다. 특히 밤과 어둠을 무서워했는데 그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애썼 다. 크네히트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한참 동안은 그것을 장차 없어 지게 될 어린 시절의 잔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잔재는 없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제자에게는 자신을 버리고 아무런 의도 없이 관찰하는 일과 직무상의 여러 가 지 일이나 사태와 사상이나 예감에 몰두할 수 있는 재능이 전혀 없었다. 마로는 영 리했다. 명쾌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헌신하는 마음 없이도 배울 수 있 는 것은 쉽게 확실하게 배웠다. 그러나 점차 드러나게 된 사실이지만 마로는 이기 적인 생각과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바로 그때문에 기우제제사장의 일을 배우려 고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무슨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큰 인상을 심고 싶어 했다. 마로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재주를 타고난 사람 의 허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랐고 조금 알게 된 지식과 기 술로 친구들 앞에서 허풍을 떨었다.—이런 것 역시 어린애다운 행동일 수 있기 때 문에 앞으로 나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마로는 칭찬만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과 이익도 추구했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 시작 했을 때 스승은 몹시 놀랐으며 젊은이한테로 향했던 마음을 점차 거두었다. 크네 히트의 문하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젊은이는 두세 차 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 스승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 스 승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제멋대로. 뇌물을 받고 병에 걸린 아이를 약으로 치료 하기도 했고, 어느 오두막집에서 쥐 피해를 물리치는 굿판을 벌리기도 했다. 온갖 경고의 말과 다짐의 말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비슷한 행위들을 하 다 들키게 되었을 때, 스승은 그를 문하에서 떠나보내고 그런 사실을 조상할머니 에게 알렸으며, 배은망덕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젊은이를 기억에서 지워 버리려고 애를 썼다.

크네히트의 이런 쓰라린 경험을 훗날 보상해 주었던 것은 뒤에 맞이하게 되었던 두 명의 제자들이었다. 그들 중 두 번째 제자가 특히 훌륭했는데, 그는 바로 크네히트 자신의 아들인 투루였다.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이자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

던 투루를 크네히트는 매우 사랑했을 뿐 아니라 이 제자가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 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 제자의 가슴 속에는 분명히 할아버지의 영혼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 모 두를 미래 세계에 전했다고 하는. 그 자신에게 직무가 너무 벅차게 느껴지게 될 경 우 어느 날이고 간에 그것을 넘겨 줄 수 있는 한 사람. 즉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의 아들이 되는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 마음 뿌듯한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러나 크네히트는 그 못난 첫 번째 제자를 자신의 인생이나 생각에서 완전히 쓸어 낼 수는 없었다. 그 못난 제자는 마을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 람들한테서 아주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결혼을 했 고 일종의 요술쟁이, 익살꾼으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심지어 북 장단 패에서 고수장 역할까지 하고 있었다. 그는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의 숨은 적수, 그네히 트를 시기 · 질투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크네히트는 그로부터 여러 차 례 크고 작은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크네히트는 지금껏 우정을 가꾸거 나 남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필요 로 한 것은 혼자만의 생활과 자유였다. 일찍이 소년 시절에 스승 투루에게서 그랬 던 것을 빼고는 크네히트는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구한 적이 한 번 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크네히트는 원수와 증오하는 사람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문에 그의 인생의 여러 날들은 괴롭고 힘든 날들이 되었다.

마로는 대단한 재주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재주가 아래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성장한 기초가 튼튼한 유기적 강점 즉 훌륭한 자질과 좋은 피와 좋은 성격의 섬세하고도 고상한 표지가 되지 못하고 소위 그저 얻은 것, 우연한 것, 아니 억지로 빼앗은 것 또는 훔친 것이 되는 까닭에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선생들에게 불만족스럽고 귀찮은 존재가 되는 부류의 제자들, 그런 부류의 재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높은 지력과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나 인격이 시원찮은 제자는 언제나 선생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법이다. 선생은 제자에게 전대로부터 물려받은 지식과 방법을 가르치고 또 그로 하여금 정신적인 생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바로 이 재능만 있는 사람들의 쇄도로 부터 지혜와 비법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진정한, 보다 큰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생이 그야말로 제자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 니라 선생과 제자 모두 정신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뛰어 난 재능을 가진 어떤 제자들 앞에서 선생들이 두려움이나 전율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이유이다. 그런 종류의 제자는 가르치는 일이 갖는 전체 의미와 봉사정신을 왜곡한다.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봉사할 줄은 모르는 제자를 기르는 일은 근본에 있어 봉사정신의 침해를 의미하고 정신에 대한 일종의 배반을 의미한 다. 많은 민족들의 역사에서 정신적인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바로 그 재능만 있는 사람들이 공공단체나 학교, 학술단체, 국가의 지도부로 쇄도하게 되고 모든 관직에 대단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으나 그들 모두 지 배하려고만 할 뿐 봉사할 줄을 몰랐던 시대들이 여럿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 다. 그런 부류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직업의 기초 지식들을 미처 획득 하기 전에 적시에 그들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래서 필요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 그 들을 비정신적인 직업으로 나아가는 길로 되돌려 보내는 것은 때로 분명히 아주 어려운 일이다. 크네히트도 실수를 한 것이었다. 그는 제자 마로를 너무 오랜 기간 관대하게 대해 주었던 것이었다. 경박한 야심가한테 아까운 비법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주었다. 그 결과는 일찍이 크네히트 자신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만큼 심각 한 것이었다.

어느 해의 일이었다. —크네히트의 수염은 이미 아주 희끗희끗한 색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질서가 대단한 힘과 술수를 가진 마신들에 의해 흔들리고 파괴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런 파괴는 무서우면서도 장엄하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철저하게 경악케 하고 또 공포로 채우면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하늘의 이변으로 가을에 시작하였는데 추분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기우제제사장크네히트는 추분을 전후한 시기를 언제나 다소 엄숙한 기분과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관찰하고 체험했다. 가을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바람이 가볍게 불고 약간 쌀쌀한 날씨였다. 하늘은 유리처럼 맑고, 아주 높은

곳에서 불안스레 떠다니고 있는 몇몇 조각구름들만 지평선 아래로 떨어진 태양의 불그스름한 빛을 한참 동안 머금고 있을 뿐이었다. 싸늘하고 창백한 우주 공간 속 을 떠다니는 보드랍고 비누거품 같은 빛다발이었다. 크네히트는 이미 며칠 전부 터 해마다 낮이 점점 더 짧아지는 이 시기에 느껴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렬하고 더 이상한 어떤 것을, 하늘에서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대지와 식 물들과 동물들의 불안감을. 대기 중에 감돌고 있는 어떤 불안한 기운을. 모든 사물 들 속에 스며들고 있는 무엇인가 불안정하고 기다리는 듯하고 불안하고 예감에 찬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그 날 저녁시간의 구름조각들도 그런 것들 중의 하나였는 데. 오랜 시간 동안 마치 경련이라도 일으키는 듯 계속 빛을 머금고 있는 구름들이 흘러가는 모습은 땅 위에서 불고 있는 바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애원 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슬퍼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구름 조각들의 그 불그스름한 빛이 차갑게 식어 사라져 버리자 갑자기 구름조각들 자체 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안은 조용했다. 조상할머니의 오두막집을 찾았던 사람들 과 그 집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고 없었다. 몇몇 사내아이들만 아직 서로 쫓고 쫓기며 싸움질을 하고 있었다. 그밖에 모든 사람들 은 이미 오두막집 안에 들어가 있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지도 이미 오래였다. 많 은 사람들은 벌써 자고 있었다. 기우제제사장 외에 저녁노을로 붉게 물든 구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다. 크네히트는 자신의 오두막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밭에서 이리저리 걸으며 날씨를 곰곰이 생각해보았으나 마음이 긴장되 고 안정을 가질 수가 없었다. 쐐기풀 사이에 있는 장작 패는 데 이용하는 나무그루 터기 위에 앉아 때때로 잠시 쉬기도 했다. 붉은 빛을 머금고 있던 마지막 구름조각 이 사라져 버리자 아직도 밝고 푸르스름하게 여린 빛을 띠고 있는 하늘에 갑자기 별들이 더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 빠른 속도로 수와 밝기를 더해 가고 있었다. 조 금 전만 해도 두세 개밖에 보이지 않던 자리에 벌써 열 개. 스무 개의 별이 돋아 있 었다.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는 별들과 별들의 무리와 체계 가운데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수백 번이나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별들의 어김없는 재래는 무 언가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별들은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었다. 멀리 높은 곳에 어떤 온기도 발산하지 않으며 차갑게 떠 있지만 별들은 확신 에 찬 모습으로 빈틈없이 정렬하여 질서를 알리고 영원을 약속해 주고 있었다. 지 상의 생활에, 인간의 생활에 그토록 낯설고 멀고 또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 생활의 온기나 동요나 고통이나 황홀경에 전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지만 또 그 고 상하면서도 냉정한 기품과 영원성을 내세워 인간 생활에 조소를 보내도 될 정도로 인간 생활보다 우월한 것이지만 별들은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어쩌 면 우리를 지도하며 지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인간적인 지혜, 정신 적인 재산, 확신에 차고 고귀한 정신이 허무를 극복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면, 그것 들은 바로 별들과 같은 것이고 별들처럼 냉정하게 빛을 내고 차가운 전율로 위안 을 가져다 주고 영원히, 또 다소 조롱기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었다. 기우제제사 장 크네히트에게는 때로 그렇게 생각되었다. 큰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고 축축 한 것이고 하늘 바다를 헤엄치는 살찐 마법의 고기인 달에 대해와 같이 별들에 대 해 가깝고 마음을 설레게 하고 끊임없는 변화와 재래 속에 단련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니지만 크네히트는 별들을 깊이 숭배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을 통 해 별들과 결합되어 있었다. 별들을 오래 쳐다보며 그들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고, 자신의 현명함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불안감을 별들의 냉정하고 차분한 시선에 바 치는 것은 때때로 목욕을 하고 영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다.

긴장되고 희박한 공기에 예리하게 갈리기라도 한 듯 매우 밝았을 뿐 오늘도 별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별들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차분한 기분을 가질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공간들에서 오는 어떤 힘이 그를 잡아당기고 숨구멍들을 아프게 하고 눈을 빨아들이면서 조용히,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어떤 흐름, 어떤 경고의 진동 같은 것이었다. 옆쪽 오두막집 안에서는 아궁이불의 따뜻하고 희미한 빛이 불그스름한 색으로 빛나고 있는 가운데 작고 포근한 생활이 흐르고 있었다. 부르는 소리, 웃는 소리, 하품하는 소리가울리고 있었다. 인간의 체취, 피부의 온기, 어머니의 따뜻한 정, 어린아이들의 잠이 호흡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그렇게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내려앉는 어둠을 더욱 짙게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별들을 한없이 멀고 높은 곳으로 더욱더 멀리

내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크네히트가 오두막집 안에서 아다가 멜로디를 붙인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재우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마을사람들이 이후 여러 해를 두고 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이변이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빛나고 있던 별들의 그물 여기저기에서 불길과 불꽃이 일었다. 보통 때는 보이지 않는 별 그물 의 실들이 불꽃을 튀기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 높이 던져진 돌처 럼 격렬하게 타올랐다. 이내 다시 꺼지면서 여기에 하나, 저기에 둘, 또 여기에 서 너 개 하는 형태로 허공을 가로질러 비스듬히 별들이 떨어져 내렸다. 맨 처음 떨어 져 내려 사라져 버린 별에서 미처 눈을 떼기도 전에. 그 광경을 보고 멈춰 버린 심 장이 미처 다시 뛰기도 전에. 가벼운 곡선을 이루며 비스듬히 하늘을 가로질러 떨 어지고 있는, 또는 내던져지고 있는 등불들은 이미 수십, 수백 개의 무리를 이루며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었다. 떨어지는 별들은 소리 없는 거대한 폭풍에 실려 있기 라도 한 듯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이루며 침묵하고 있는 밤을 가로질러 몰려가고 있었다. 우주의 가을이 모든 별들을 시든 나뭇잎처럼 하늘의 나무에서 털어 내어 소리 없이 저 멀리 허무 속으로 내쫓고 있는 것 같았다. 떨어지는 별들은, 수천, 수 만 개의 별들은 시든 나뭇잎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동남쪽에 있는 산 숲 너머로, 유사 이래 일찍이 어떤 별도 떨어진 적이 없는 곳으로, 바닥도 없는 그 어떤 곳으로 떨어져 내려 사라지고 있었다.

심장은 멈춰 버리고 눈은 어른거리는 가운데 크네히트는 머리를 목 속 깊이 움츠 린 채 공포에 질리기는 했으나 물릴 줄을 모르는 눈빛으로 변해 버린, 마법에 걸려 버린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면서도 무서운 그 광경을 너무도 분명히 의식하면서 서 있었다. 그날 밤의 이 무서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크네히트는 익히 잘 알고 있던 별들이 흔들리고 흩날려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본 것 같이 생각했으며, 대지가 앞서 그를 삼켜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안 있어 바로 창공이 시커멓게 되고 텅 비어 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뒤 크네히트는 다른 사람들은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예전부터 익히 잘 알고 있던 별들은 여기저기 도처에 그대로 떠 있다는

것. 별들의 무질서한 흩날림은 옛날부터 친숙한 별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대지와 하늘 사이의 공간에서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떨어져 내리고 있는 또는 내던 져지고 있는, 그렇게 갑작스레 나타났다 또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이 새 로운 별들은 옛날부터 있어 온 제대로 된 별들과는 어딘가 다른 색깔과 열기로 빛 나고 있다는 것을 크네히트는 깨닫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의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 주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소용돌이치는 비 상이 대기를 가득 채우는 그 별들이 쉬이 생겨났다 쉬이 사라져 버리는 새로운 다 른 별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현상이 무섭고 불길하고 재난이고 무질서인 것에는 변 함이 없었다. 바싹 말라 버린 크네히트의 목구멍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다. 크 네히트는 땅 쪽으로 눈길을 돌려. 자기 혼자만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바로 다른 오두막집들로부터 공포에 질린 신음소리와 외침소리와 고함소 리가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소리 질러 남들에게 알리고,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과 자고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잠시 뒤면 불안과 공 포가 온 마을을 덮칠 것 같이 생각되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크네히트는 이런 상 황을 받아들였다. 이런 불길한 사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신과, 기우제제사장 인 자신과 관계되었다. 하늘과 대기의 질서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자신과 관계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크네히트는 언제나 하천의 범람이나 우박 · 폭풍 같은 대 이변들을 미리 알아차리거나 예감했었다. 그때마다 언제나 마을의 어머니들이나 최 연장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경고를 했었다. 최악의 사태 를 막았고. 자신과 자신의 지혜와 용기. 높은 힘들에 대한 자신의 신뢰감을 마을사 람들이 절망감을 이겨내게 하는 데 투입했었다. 이번에는 왜 사전에 아무것도 알 지 못하고 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가? 너무도 분명하게 가졌던 그 어둡고 불길한 예감에 대해 왜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않았던가?

크네히트는 오두막집 입구의 거적을 들치고서 나직한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막내아이한테 젖을 물린 채 그녀가 나왔다. 그는 아내한테서 아이를 받아 짚 덤불 위에 내려놓았다. 크네히트는 아다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표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시로 손가락 하나를 입술 위에다 갖다 대면서 아내를 오두막집 밖으로 데리고 나 갔다. 참을성 있게 조용하던 그녀의 얼굴이 대번에 불안과 공포에 질려 일그러지 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을 재워야 돼. 아이들에게 보여서는 안 돼. 알겠지?" 크네히트는 낮은 소리로 급히 말했다. "누구도 집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돼. 투루도 안 돼. 당신도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

크네히트는 머뭇거렸다. 어느 정도까지 말해야 하는 건지,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드러내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서였다. 그러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당신이나 아이들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 말을 바로 믿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녀의 얼굴이나 마음이 조금 전에 겪었던 공포감으로부터 다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를 비껴 다시 하늘을 쳐다보며 그녀가 물었다. "아주 좋지 않은 건가요?"

"좋지 않아." 크네히트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한테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집안에 머물러 있어. 거적을 단단히 닫고 나는 마을사람들한테로 가서 의논을 해야 돼. 자. 들어가. 아다."

크네히트는 그녀를 오두막집 출입구를 통해 집안으로 밀어 넣고서 거적을 내려 단단히 닫았다. 그리고는 비 오듯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는 별들을 쳐다보며 잠시 서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숙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이제 어둠을 뚫고 마을 안쪽으로, 조상할머니 오두막집 쪽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거기에는 이미 마을사람들 반이 모여 있었다. 낮은 소리로 웅성거리는 가운떼 불안감 때문에 마비되고 반쯤은 억눌려진 공포와 절망감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었다. 어떤 여인네들과 남정네들은 일종의 광기와 환락으로 공포감과 파멸의 감정에 몸을 내맡겨 마치 미친 사람처럼 뻣뻣하게 서 있거나 아무렇게나 사지를 휘둘러대고 있었다. 어떤 한 여인네는 입에 거품을 물고 혼자 절망적이면서도 음란하기도 한 춤을 추면서 긴 머리카락을 한 다발씩 뜯어내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깨달았다.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흥분상태에 빠져 정

신을 잃고 있었으며, 떨어져 내리는 별들 때문에 정신이 홀려 미쳐 있었다. 광기와 흥분과 자기 파괴 욕구의 광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몇 용기 있는 사 람들과 사려 깊은 사람들을 모아 힘을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다가온 것 이었다. 조상할머니는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의 종말이 다가온 것으로 생 각하고 있었으나 그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으며, 그 단호하고 고집스럽 고 심하게 찡그린 표정이 거의 조롱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얼굴로 닥 친 운명을 대하고 있었다. 크네히트는 그녀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다.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별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그녀는 시력이 나빠져 이제 더 이상 알아 볼 수 없어서 그러는 지, 아니면 별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이나 관계가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와 너무 달라 서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크네히트가 하는 말을 받아들 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단호한 빛으로 찡그려져 있었던 얼굴 표정을 계속 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 을 그 자신들이나 마신들에게 내맡겨 버리지 말아 달라고 크네히트가 애워을 하자 그녀는 즉시 그에 동의했다. 그녀와 기우제제사장을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둘 러섰다. 불안에 떨기는 했지만 미쳐 버리게 되지는 않았던 사람들로서 지도를 받 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곳에 도착하기 직전에만 해도 크네히트는 모범과 조리와 말과 설명과 격려를 통해 대 혼란을 막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조상할머니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이미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크네히트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체험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체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고 또 그 체험을 그들에게로 옮겨 놓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었다. 그의 격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 별들 자체가, 아니 그별들 모두가 떨어져 내리고 우주의 폭풍에 휘말리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고, 또 사람들이 속절없는 공포감이나 경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흥분상태를 견뎌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마을사람들 가운데서 극히 소

수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이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만이라도 얻을 수 있을 때쯤이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광란에 빠져 버리 게 될 것이었다. 흔히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성적인 힘이나 재치 있는 말로써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다른 방법들이 있었다. 이성의 힘으로 대결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해소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이 죽음 의 공포를 관리하고 정리하며 그것에 격식과 체통을 부여해 주는 것, 절망하여 뒤 죽박죽 미쳐 날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일사불란한 통일체로 만들고 통제되지 않은 채 거칠게 터져 나오는 개별적인 목소리들을 하나의 합창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크네히트는 바로 그 일에 착수했다. 그 방법은 바로 효과를 발휘 했다. 크네히트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기도문 구절을 큰 소 리로 외쳤다. 평상시 공개적 추도식이나 참회 의식 때, 예를 들어 어느 조상할머 니의 추도식 때나. 역병과 홍수 같은 큰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 하는 제사 의식이나 참회 의식 때 맨 먼저 외우게 되는 바로 그 기도문이었다. 크네히트는 박자를 맞추 어 기도문을 외치고 손뼉을 치며 박자를 거들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 는 것과 똑같은 박자로 머리가 거의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 으켜 세웠다. 또다시 몸을 굽혔다가 일으켜 세웠다. 열 명, 스무 명의 다른 사람들 도 벌써 같은 동작을 하고 있었다. 백발의 조상할머니는 선 채 높낮이가 있는 어 조로 중얼거리고. 가볍게 몸을 굽혀 가면서 그 의식적인 동작들을 지도하고 있었 다. 다른 오두막집들로부터 또 누가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오자마자 바로 이 의식의 박자와 열기에 가세했다. 완전히 미친 상태에 빠져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얼마 안 가 힘이 다 떨어지게 되어 쓰러져 옴짝달싹 하지 못하고 누워 있거나 예배라도 올 리는 것 같은 이 의식의 낮은 기도의 합창과 박자감에 찬 절 동작에 압도되어 함께 휩쓸려 들어갔다. 일은 성공한 것이었다. 절망하여 미쳐 날뛰는 사람들의 무리는 희생과 참회를 워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로 변했다.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하 나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스스로의 마음속에 가두어 놓거나 혼자 울부짖어 토해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정돈된 합창을 통해 일정한 박자를 맞추 며 자신을 어떤 주술적인 의식에 편입시키는 데서 편안함을 느끼고 또 마음이 강 해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의식에는 여러 가지 신비스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위안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생각인데이런 생각은 공동체 감정을 배가시켜 준다. 이런 의식이 사용하는 절대로 틀림이없는 묘방은 절도와 질서, 리듬과 음악이다.

밤하늘은 온통 여전히 떨어져 내리는 비늘 같은 별들로 덮여 있었다. 이 별들의 비늘은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는, 빛의 방울들로 된 폭포 같았는데, 이 폭포는 족히두 시간 동안이나 계속 그 크고 불그스름한 빛의 불꽃 방울들을 흩뿌리고 있었다. 이러는 사이에 마을사람들의 공포감은 헌신과 귀의의 마음으로, 희구의 외침과 참회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인간들의 불안과 약한 마음은 질서로서, 조화된예배로서 질서를 벗어난 하늘을 대하고 있었다. 떨어져 내리는 별들의 비가 지쳐더욱 가늘게 흘러내리기 시작하기 전에 기적은 완수되어 그 치료적인 힘을 발산했다. 하늘이 서서히 진정되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몹시 지친 참회자들 모두는 자신들의 의식으로 천지신명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늘을 다시 정돈시켰다고하는 후련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다.

공포의 그 날 밤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다. 그 해 가을과 겨울 내내 사람들은 그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벌써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듯 하는 소리나 주문을 외는 것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적 어조로, 훌륭하게 이겨낸 재난이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위험을 되돌아보는 흡족한 기분을 느끼면서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세세한 내용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전 대미문의 광경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의 방법으로 놀라게 되었던 것이었다. 모두가 자신이 맨 먼저 그 광경을 보았노라고 주장했다. 아주 겁이 많아서 뻗어 버리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을 놓고 놀려대기까지에 이르렀다.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의 흥분상태가 아직 한참 동안 더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체험하게 되었다. 무엇인가 큰 사건이 일어났다.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던 것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그 거대한 사건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잊혀 가는 것에 크네히트는 조금도 편승하지 않았다. 그 무서운 체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떤 경고가 되어서 그에게 남아 있었다. 다시는 진정될 수가 없는 자극이 되어서 남아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또 행렬이나 기도나 참회 의식을 통해 진정되어진 것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어지거나 해소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의미 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그 것을 물고 늘어지는 가운데 크네히트는 완전히 사색가가 되고 해석자가 되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 이 놀라운 자연의 대 사건 자체만으로도 벌써 여러 가지 관점을 갖는 무한히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그것을 본 사람이라면 족히 일생을 두 고 계속 그에 대해 생각을 해 볼 수 있었다. 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별들을 그 자신 과 비슷한 전제조건으로, 비슷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마을에 서 단 한 사람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의 아들이자 제자인 투루뿐이었을 것이다. 이 한 목격자의 시인의 말이나 수정의 말만이 크네히트에게는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네히트는 아들을 자게 했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전대미문 의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왜 진지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요 공동관 찰자인 아들을 단념했던 것일까, 이 문제를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그의 가슴속에 서는 그렇게 한 자신이 훌륭하고 정당한 것이었고, 자신이 어떤 현명한 예감에 따 랐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더욱더 강해졌다. 크네히트는 제자이자 동료인 아들도 포함해 가족들이 그 광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 아니, 심지어 아들은 특 히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 누구보다도 아들에게 애착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었다. 그때문에 별들이 떨어지는 광경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다. 우선 크 네히트는 잠. 특히 젊은이의 잠의 훌륭한 정령들을 믿고 있었다. 나아가 크네히트 는, 기억이 그를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이미 그 순간에, 즉 하늘의 불길 한 징조가 시작되고 난 직후에, 생명의 위험이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다가 오고 있다는 사정보다는 미래에 닥쳐올 재난의 전조.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도 기 우제제사장인 그 자신하고만 깊은 관계가 있는 재난의 전조를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가 직무를 통해 결합되어 있는 그 세계로부터 어 떤 위험이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것은 분명 무 엇보다도 그 자신과 관계가 있을 것이었다. 냉정하고 단호한 의지로 그런 위험을 맞이하는 것,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며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서도 의기소 침해하거나 품위를 잃거나 하지는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가 그 큰 전조에서 끌어낸 경고요 결심이었다. 다가올 이런 운명은 성숙되고 용감한 사람을 필요로할 것이었다. 때문에 아들을 끌어들인다면, 아들도 함께 고통을 겪게 하거나 사실을 알게 한다면,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일 것이었다. 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리고 단련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운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지는 아무래도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들 투루는 자신이 잠을 자 버림으로써 그 장관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든 그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그의 전 생애를 놓고 다시는 그와 비슷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지도 몰랐다. 하나의 큰 체험과 세계의 기적을 놓치게 된 것이었다. 이래서 그는 한동안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내 이런 불만은 해소되었다. 아버지 크네히트가 애정 어린 관심을 더욱 많이 보임으로써 투루에게 보상을 해 주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투루를 자신의 직무상의 모든 일에 참여시켰기 때문이었다. 다가올 일들을 예감하게 된 크네히트는 눈에 띌 정도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투루를 가능한 한 완전하고 노련한 후계자로 완벽하게 교육시켰다. 비 오듯이 떨어져 내렸던 그 별들에 대해 투루와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매우 드물었지만 크네히트는 점점 더 철저하게 투루를 자신의 비결과 비법, 지식과 탐구의세계에 참여시키고, 또 일찍이 누구하고도 함께 한 적이 없는 행보나 실험, 자연관찰에도 투루를 참여시켰다.

겨울이 오고 또 지나갔다. 습기가 많고 차라리 따뜻하다고 할 수 있는 겨울이었다. 별들은 더 이상 떨어져 내리지 않았다. 별다른 큰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사냥꾼들은 부지런히 사냥을 나갔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운 날씨일 때 오두막집들 위로 높이 솟은 울타리 여기저기에서는 내걸어 놓은 뻣뻣하게 얼어버린 짐승가죽들 묶음이 덜커덩덜커덩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숲에서 주워모은 나뭇가지들을 평평하게 다듬은 긴 장작 위에 실어서 눈 위로 끌고 왔다. 바로그 짧은 혹한기에 마을에서 한 노파가 죽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로 묻을 수가 없

었다. 얼어붙은 시체는 땅이 다시 좀 풀릴 때까지 며칠 동안 오두막집 문 옆에 웅 크리고 있었다.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우제제사장의 불길한 예감은 약간 현실로 나타났다. 아 무 활기도 없고 날씨도 영 좋지 않고 달의 버림을 받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봄이 었다. 달은 계속 늦게 떴다. 파종 날짜를 잡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별자리들이 서 로 일치하는 때가 한 번도 없었다. 들판의 꽃들은 궁상스런 모습으로 피어나 있었 다. 피지 못한 꽃봉오리들은 죽은 채 가지에 매달려 있었다. 크네히트는 깊은 근심 에 싸여 있었으나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지 아는 사람은 아다와 투루뿐이었다. 크네히트는 흔히 하는 주문들을 외웠을 뿐 아니라 사적이고 개인적인 제물들도 바쳤다. 마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향기가 좋고 황홀한 기분이 들게 만드는 죽과 차를 끓이고. 수염을 짧게 깎고. 초승날 밤 에 깎은 수염을 송진과 젖은 나무껍질과 함께 태워서 짙은 연기를 피워 올렸다. 가 능한 한 오랫동안 마을 제사나 기원 의식, 북소리 합창 같은 공식 행사들을 피하 고, 어떻게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 불길한 봄의 저주받은 날씨를 자신의 개인적 인 문제로 남도록 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파종 시기가 이미 한참이나 지나게 되었 을 때 크네히트는 조상할머니에게 보고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서도 불행과 불쾌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 좋은 친구였을 뿐 아니라 거의 어머니처럼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늙은 조상할머니가 그를 맞이한 게 아니었 다. 몸이 불편한 그녀는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모든 임무와 걱정거리들을 여 동생에게 맡겨 놓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은 기우제제사장을 매우 냉랭한 태 도로 대했다. 그녀는 언니의 엄격하고 올곧은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으며, 오락 과 놀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로 그런 경향 때문에 그녀는 고수장이자 요 술쟁이인 마로와 가까웠는데, 마로는 그녀에게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 고 아첨하는 소리들을 많이 해주었다. 마로는 크네히트의 적수였다. 바로 첫 번째 대화에서 벌써 크네히트는 냉랭하고 꺼려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의 말을 반박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파종 문제와 이런저런 제사와 기도행렬 문제를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의 설명과 제안은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그

러나 조상할머니 여동생 노파는 그를 냉랭한 태도로 마치 하인처럼 맞이하고 대했 다. 병환에 든 조상할머니를 뵙고 약이라도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의 소원은 거절되었다. 크네히트는 서글프고 비참한 기분으로 입안에 쓰디쓴 맛을 느 끼며 그녀와의 첫 번째 대화에서 돌아왔다. 그런 뒤 크네히트는 반 달 동안 줄곧 파종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날씨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러나 날씨는, 때로 그렇게도 그의 내면의 흐름과 조화를 잘 이루었던 날씨는 집요하게 그의 노력을 비웃고 적대적이었다. 주문도 제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기우제제사장으로서는 이제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다. 조상할머니의 여동 생한테로 다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번 방문은 인내심을 가져 줄 것과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 통사정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바로 알아차리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광대 마로와 그와 그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분명했다. 파종 날짜를 정하거나 또는 공식적인 기원 제사 의식을 준비해야 하는 것과 같은 당위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노파는 너무도 아는 척을 많이 하고, 과거 기우제제사장의 제자였던 마로한테서나 배울 수 있었을 몇 가지 표현들을 사용했다. 크네히트는 사흘간의 빌미를 얻어 전체 사정을 새롭게, 보다 나은 형태로 제시하면서 하현달이 뜨는 첫 날을 파종 날로 잡았다. 노파는 그에 동 의하고 예를 갖춰 재가해 주었다. 그와 같은 결정은 이어 마을사람들에게 공표되 었다. 파종식을 위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 그러나 한동안 모든 것이 다시 제자 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던 그때 마신들은 다시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었다. 고 대하며 준비한 파종식이 있기 바로 전날 조상할머니가 죽었다. 파종식이 연기되는 대신 장례식이 공표되고 준비되었다. 그와 같은 장례식은 1급 의식이었다. 새 조 상할머니와 그녀의 여동생들과 딸들 뒤에 기우제제사장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대 규모 기원햇렬이 있을 때 입는 예복을 입고 높고 끝이 뾰족한 여우 가죽 모자를 쓰 고 아들 투루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아들 투루는 두 가지 소리가 나는 박달나무 딸랑이를 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작고한 조상할머니와 그녀의 여동생 즉 새 조상 할머니에게 많은 경의를 표했다. 고수들을 이끌고 보란 듯이 앞으로 나선 마로는 관심을 모으고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을사람들은 슬피 울면서도 축제 기분을 느끼 고 있었다. 비탄과 축제일과 북소리 음악과 제물을 즐기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날이었다. 그러나 파종은 다시 미루어졌다. 크네히트는 위엄 있고 침착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깊은 근심에 젖어 있었다. 조상할머니와 함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좋은 시절을 땅 속에 묻어 버리기라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장례식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새 조상할머니의 희망에 따라 파종식이 대단히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행렬을 이룬 사람들은 엄숙한 기분으로 들판을 한 바퀴 걸어서 돌았고, 조상할머니는 최초의 한 줌 씨앗들을 엄숙하게 마을 공동경작지에다뿌렸다. 여동생들이 씨앗이 든 자루를 들고 그녀의 양편에서 걷고 있는 가운데 조상할머니는 자루에서 한 움큼씩의 씨앗을 집어내었다. 마침내 파종식이 끝났을 때크네히트는 가벼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렇게 엄숙하게 뿌려진 씨앗은 어떤 기쁨도 어떤 수확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잔인하기 그지없는 한 해였다. 겨울과 혹한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시작한 날씨는 그 해 봄과 여름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술책과 적의를 다 드러내 보였다. 가늘고 키가 작게, 부실하게 자란 작물들이 마침내 들판을 덮게 되었던 여름에 최후·최악의 사태가 닥쳐왔다. 유사 이래 일찍이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 한발이었다. 태양은 허여스름한 열기를 뿜으며 여러 주일 동안 계속 푹푹 쪄대고 작은 개천들은 바싹 말라 버렸다. 마을 저수지는 잠자리와 엄청나게 많은 모기들의 낙원이 된 채 더러운 늪이 되어 남아 있을 뿐이었고, 바싹 말라 버린 땅은 깊이 갈라져 있었다. 이삭들은 병들고 시들어 버렸다. 가끔씩 구름이 모여들기도 했지만 날씨는 계속 건조했다. 어쩌다 한 번 한 줄기 비가 내리면, 건조한 동풍이 여러 날 그 뒤를 따랐다. 때로 높은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 반쯤 말라 있던 나무꼭대기가 순식간에 타오르는 불길에 싸여 타 버리기도 했다

"투루야" 크네히트는 어느 날 아들에게 말했다. "이 일은 좋게 끝날 것 같지가 않구나. 온 천지신명이 우리를 버리고 있구나. 그날 별들이 떨어져 내린 것이 이 일의 시작이었느니라. 아무래도 내 목숨을 바쳐야 할 것 같구나. 새겨들어라. 내가제물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순간 네가 내 일을 맡아보도록 하여라.

네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몸을 태워서 재를 들판에 뿌리도록 하는 일이다. 너희들은 기근이 크게 드는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게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이 재앙은 기세가 꺾이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도 마을의 종자씨앗을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하여라. 내년은 좀 나아질 게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게다. 젊은 새 기우제제사장을 가지게 되어 좋다고 말이다."

마을은 온통 절망감에 휩싸였다. 마로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었다. 기우제제사장 크네히트는 위협의 말과 저주의 말을 자주 들었다. 아다는 병이 나 구토와 열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다. 기도행렬도 제사도 길게 계속되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북소리 합창도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크네히트는 모든 일을 주재했다. 그것은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시 흩어져 가고 나면 그는 혼자였다. 기피인물이 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필요한지 크네히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를 제물로 바칠 것을 마로가 이미 조상할머니한테 요구했다는 사실도 크네히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명예와 아들을 위해 크네히트는 마지막 조치를 취했다. 그는 투루에게 훌륭한 예복을 입혀서 조상할머니한테로 데리고 갔다. 크네히트는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추천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직위를 사임하고 자신을 제물로 바칠 것을 제안했다. 조상할머니는 그를 잠시 호기심에 찬 눈빛으로 살피면서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머리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크네히트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은 바로 그날 거행되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참석했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질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다. 아다 역시 심한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예복을 입고 높은 여우 가죽 모자를 쓴 투루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거의 지칠 지경이었다.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 있지 않는 한 모든 유명인사와 고위 관직의 인사들도 함께 왔는데, 두 명의 여동생을 대동한 조상할머니, 마을의 연장자들. 북소리장단 패의 고수장 마로 등이었다. 이들의 뒤를 이리저리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늙은 기우제제사장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야말로 조용하고 숨 막히는 행진이었다. 사람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둥그스름하게 생긴 넓은 공터를 찾아내었다. 크네히트 자신이 의식

장소로 지목한 바로 그 공터였다. 대부분의 남정네들은 돌로 만든 도끼를 들고 있었다. 화장식을 위한 나무를 자르는 데 힘을 합치기 위해서였다. 공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기우제제사장을 가운데 세우고 그를 중심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빙둘러섰다. 좀 더 멀리 떨어져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큰 원을 그리며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해 하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우제제사장 자신이 말문을 열었다. "저는 여러분의 기우제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제 임무를 가능한 한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지신명은 저의 뜻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더 이상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러면 천지신명의 마음도 진정될 것입니다. 제 아들 투루가 여러분의 새 기우제제사장이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죽으면 제 아들의 지시를 따르도록하십시오. 편히 계십시오! 그런데 누가 저를 죽이겠습니까? 저는 고수장 마로를 추천합니다. 그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일 것입니다."

크네히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거운 가죽 모자를 쓴 까닭에 얼굴이 벌겋게 된 투루가 괴로운 심정으로 들러서 있는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마침내 조상할머니가 화를 내고 발을 구르며 마로에게 앞으로 나오라는 눈짓을 하고는 그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앞으로 나오라니까! 도끼를 들고 내리치란 말이다!" 마로는 손에 도끼를 들고서 이전의 스승 앞에 섰다. 그는 스승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증오하고 있었다. 말 없는 늙은이의 입가에 서려 있는 조롱의 기색은 그의 마음을 시리도록 아프게 했다. 마로는 도끼를 쳐들어 머리 위에서 흔들어댔다. 목표물을 겨눈 채 머리 위에서 도끼를 흔들어대며 스승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마로는 스승의 눈이 감겨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크네히트는 눈을 감지 않았다. 크네히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 눈을 똑바로 뜨고서 도끼를 든 사내를 쳐다보았다. 거의 아무런 표정도 없는 눈이었다. 찾아볼 수 있는 약간의 표정은 그러나 연민과 조소 사이를 감돌고 있었다.

마로는 미쳐 날뛰며 도끼를 내던졌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는 중얼거렸으며, 둘 러 서 있는 유명인사들 사이를 지나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몇몇 사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람들이 낮은 소리로 킥킥거렸다. 조상할머니는 너무도 분노한 나머지 얼굴빛이 아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오만한 기우제제사장에 대해 보다는 비겁하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마로에 대해 더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연장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눈짓을 했다. 근엄하고 조용한 노인이었다. 그는 도끼에 의지한 채 서 있었고, 이 모든 불쾌한 장면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노인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크네히트에게 잠시 다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들은 소년시절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이제 크네히트는 눈을 꼭 감고머리를 약간 숙였다. 노인은 크네히트를 도끼로 내려쳤다. 크네히트는 쓰러졌다. 새 기우제제사장 투루는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몸짓으로 필요한 일을지시할 뿐이었다. 곧 장작더미가 쌓아지고 그 위에 시신이 놓였다. 신성한 두 나무토막을 맞대고 비벼 불을 만들어 내는 엄숙한 의식이 새 제사장 투루의 첫 번째 직무수행이었다.

고해 신부

이미 고령에 접어들긴 했지만 성인 힐라리온이 아직 살아 있었던 무렵이었다. 가자 시에 요제푸스 파물루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세속 생활을 영위하며 이단적인 서적들을 탐독했다. 그러다 뒤꽁무니를 쫓아다니게 되었던 어느 여인을 통해 기독교 도덕의 신성한 가르침과 진정한 묘미를 알게 되어 거룩한 세례를 받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이후 여러 해 동안 시내에 있는 여러 사제들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특히 당시 대단히 유행한 광야의 경건한 은둔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타오르는 것 같은 호기심을 느끼며들었다. 그러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대략 서른여섯 살의 나이로 일찍이 성 바울과 안토니우스가 걸었고 그 후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남은 재산을 장로들에게 넘겨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도록 하고 나서 그는 성문 근처에서 친구들과 작별을 했다. 그러고는 도시를 떠나 광야로, 덧 없는 세속 생활을 떠나 참회자의 가난한 생활로 방랑길에 올랐다.

여러 해에 걸쳐 몸은 햇볕에 그을리고 야위어졌다. 바위나 모래 위에서 무릎이 벗겨지도록 기도를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대추야자열매 몇 개를 씹어 먹었다. 악마들이 시련과 조롱과 유혹으로 괴롭히면 기도와 참회와 헌신으로 그것들을 물리쳤다. 성인들의 전기에서 자주 묘사되고 있는 것을보게 되는 그런 기도이고 참회이며 헌신이었다. 그는 여러 날 밤을 잠을 자지 않고 별들을 쳐다보기도 했다. 별들도 시련을 안겨 주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성좌들의 의미를 읽어내었다. 성좌들 안에서 신들의 이야기와 인간의 여러 가지 상징을 함께 읽어내는 법을 일찍이 배웠던 때문이었다. 사제들에 의해 철저하게 배척되고 있었지만 이교도적 시절의 여러 가지 상상이나 관념과 함께 한참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지식이었다.

당시 그 지방에서는 거칠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 샘이나 얼마간의 풀이나 크고 작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은둔자들이 살고 있었다. 더러는 아주 혼자, 또 더러는 피사의 공동묘지에 있는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작은 수도자 단체 를 이루어 가난과 이웃사랑의 생활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절절한 아르스 모리 엔디 즉 '죽음의 예술', 세속세계와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그분 즉 구세주한테로, 광명과 영원으로 넘어가는 예술의 대가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천사나 마귀들이 찾아왔으며, 그들은 찬송가들을 짓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료를 하며 축복을 내렸다. 그들은 지나간 수많은 시대와 장차 다가올 수많은 시대의 세속적 쾌락과 거친 행동, 감각적 욕망을 거센 파도 같은 열정과 헌신을 통해, 무아경의 강력한 세상체념을 통해 보상하는 일을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정신 순화의 오래된 이교도적 비법들을, 수백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고도로 개발되었던 정신적인 것으로의 승화 과정의 여러 방법들과 연습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 방법들과 요가수행법들은 사실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고 금지되고 있었다. 기독교는 그런 금지 조치로 모든 이교도적인 것을 차례로 없애 가고 있었다.

그런 구도자적 생활의 열기로 말미암아 이들 참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범한 재능을 갖추게 되었는데, 기도의 재능, 축복의 손을 머리 위에 얹으며 치료하는 재능, 예언의 재능, 귀신을 쫓는 재능,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재능, 위안을 주고 축복을 내리는 재능 등이었다. 요제푸스의 가슴속에서도 하나의 재능이 싹을 틔우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활짝 피어났다. 그건 남의 말을 들어주는 재능이었다. 수도사들의 마을에서 온 수도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시달림을 당하게 된 세속인간이 요제프에게로 와서 자신의 행위나 고민·시련·과오 등을 고백하면, 자신의 인생을, 즉 선을 위한 투쟁과 이 투쟁에서의 패배 또는 어떤 손실과 고통·슬픔을 이야기하면 요제프는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귀와 가슴을 열어 헌신하고 고통과 근심을 자신의 가슴속으로 받아들여 주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정된 상태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이 일은 서서히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를 도구로, 사람들이 신뢰감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귀로 만들었다. 어지간한 인내심, 빨아들이기라도 하는 것 같은 수동성과 대단한 과묵함이 요제프의 장기였다. 점점 더 자주 사람들이 찾아와 속마음을 열어놓고 쌓이고 쌓인

근심거리들을 털어놓았다. 이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요제프의 갈대 오막살이집을 찾아오느라 먼 길을 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난 뒤 자유 롭고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몸을 꼬며 수줍어하고 자신들의 죄를 비싸게 굴고 탄식하며 오랫동안, 여러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꺼운 마음으로 이야 기를 하든 억지로 하든, 청산유수로 말하든 더듬거리며 하든, 미쳐 날뛰며 비밀들 을 내뱉든 아니면 비싸게 굴든 요제프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했다. 그에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 불평하든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러든, 자신의 죄와 고통을 과장해서 말하든 줄여서 말하든, 살인을 고백하든 그 저 부정한 일을 고백하든, 마음 변한 애인에 대해 불평하든 실패로 끝나 버린 영혼 구제에 대해 불평하든 그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떤 사람이 악마들 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귀신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긴 시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중 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도 불쾌해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엉터리로 꾸며내어 죄를 고백해도 조급하게 굴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에게 털어놓는 모든 탄식, 고백, 불평, 양심의 불안은 광야의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 듯 그의 귓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요제프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아 무런 판단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았고. 고백하는 사람에 대해 연민의 정도 멸시의 기분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점 때문 에 그에게 고백되어진 내용은 허공에 대고 말해진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는 중에 변화되고 가벼워지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요제프가 주의의 말이나 경고의 말 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충고를 하거나 심지어 명령을 하는 경우는 더욱 드 물었다. 그런 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고백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 이 그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일은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고, 맞이해 들이고, 인내심과 애정으로 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아직 완 전하게 형태가 잡히지 않은 고백이 완전한 형태를 가지도록 도와주고, 가슴속에 막혀 있거나 쌓여 있는 것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도록 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침묵 의 보자기에 싸 주는 것이었다. 끔찍한 고백이든 평범한 고백이든, 회한에 사무친 고백이든 허황된 고백이든 고백이 끝나면 언제나 고백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옆에 무릎을 꿇도록 시켜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떠나보내기 전에 그 사람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는 것이 요제프가 보이는 행동의 전부였다. 참회할 것을 명령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사제들처럼 진정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에 대해서도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죄를 심판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귀담아 들어 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죄를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고, 죄를 감당해내는 일을 거들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들은 내용을 깊이 묻어 버리고, 과거의 일로 넘겨 버리는 것처럼 보였다. 고백이 끝난 뒤 고백한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함으로써 고백한 사람의 이마에 입을 맞춤으로써 그 사람에게 사제로서의 태도보다는 형제애가 담긴 방법으로, 엄숙하기보다는 애정 어린 방법으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요제프에 대한 소문은 가자 시 근방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는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존경받는 위대한 고해 신부요 은둔자인 디온 푸길과 함께 일컬어지는 때도 더러 있었다. 물론 디온 푸길의 명성은 이미 10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었고 요제프와는 전혀 다른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고해 신부 디온은 자신에게 고해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겉으로 표현된 말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빠르게 간파해낼줄 아는 것으로 유명했다. 디온 푸길은 아직 고해하지 않은 죄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버림으로써 머뭇거리고 있는 고해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요제프는 영혼을 구제하는 이 사람에 관해 수백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터라 지금껏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이 사람과 감히 비교해 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 사람 역시 방황하는 영혼들의 은혜로운 조언자이고 위대한 심판관이고 벌을 내리는 사람이고 질서를 정돈하는 사람이었다. 디온은 참회와 금욕과 순례를 명령하고 혼인을 성사시키고 철천지원수들을 화해하도록 했다. 디온의 권위는 주교의 권위나 마찬가지였다. 디온은 아스칼론 근처에 살고 있었으나 예루살렘으로부터도, 아니 훨씬 더 먼 곳으로부터도 고해자들이 찾아왔다.

대부분의 은둔자들과 참회자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요제푸스 파물루스도 격

정적이고 정력을 소모시키는 투쟁의 긴 세월을 겪었다. 세속 생활을 떠나고, 재산 과 집을 버리고 세속적·감각적 쾌락에 대한 온갖 유혹이 있는 도시 생활을 떠나 긴 했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 버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의 내부에는 인 간을 어려운 처지와 유혹으로 내몰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의 온갖 충동이 존재하고 있었다. 우선 그는 무엇보다도 육체를 이겨내었다. 육체를 엄격하고 가혹하게 다 루었다.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냉기에. 굶주림과 갈증에. 상처와 멍에 익숙해지도 록 했던 까닭에 마침내 육체는 서서히 시들고 말라비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비 쩍 마른 고행자의 살갗 속에서도 아직 그 오래된 아담은 당치도 않는 여러 가지 욕 망과 쾌락. 환상 그리고 미혹을 통해 그를 수치스럽도록 놀라게 하고 또 화나게 할 수 있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악마는 세상을 등진 사람들이나 참회자들 에게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뒤 가끔 위안을 구하는 사 람들이나 고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은총의 부름으로 여겼고, 동시에 자신의 참회자 생활을 다소 가볍게 해 주는 일로 받아들였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와 내용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에게 하 나의 임무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거나 또는 신 에게 도구로서 봉사할 수 있음으로써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모을 수가 있었다. 그 것은 대단하고 마음을 한껏 고양시켜 주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영혼의 재산도 아 직은 현세적인 것에 속하는 것이라 유혹이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났다. 예를 들어 그와 같은 나그네가 걸어서거나 말을 타고서 와 그의 바위굴 앞에 멈춰 서서 한 모금의 물을, 이어 자신의 고백을 들어 줄 것을 부 탁할 때면 종종 우리의 요제프는 만족감과 쾌감에. 자기 자신에 대한 쾌감에. 허영 과 자기도취의 감정에 싸이게 되었는데 이런 허영과 자기도취를 깨닫게 되자마자 그는 몹시 놀랐다. 그는 자주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아무런 쓸모도 없 는 자신한테로 어떤 고해자도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근처에 있는 참회수 도승들의 움막으로부터와 세속세계의 마을이나 도시로부터 어떤 고해자도 더 이 상 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했다. 그러나 가끔 정말로 고해자들이 오 지 않았을 때도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런 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 을 때 그는 자신이 새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제 이런저런 고해를 듣게 될 때 그 고해하는 사람에 대해 차갑고 애정이 없는 기분이, 아니 멸시의 기분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투쟁도 그는 한숨을 쉬며 감수했다. 고해를 듣고 난 뒤면 언제나 외롭게 겸손과 참회의 명상을 하는 시절도 더러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요제프는 모든 고해자들을 형제처럼 대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자신의 법칙으로 삼고 있었다. 고해하는 사람의 인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욱더 그렇게 했다. 요제프는 고해자들을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보내어진 신의 사자들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참 뒤, 이미 늙은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생활을할 수 있었다. 요제프는 근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한테서 평화를 발견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평화라고 하는 것도 살아 움직이는 어떤 것이다. 평화 역시 살아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줄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고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제푸스 파물루스의 평화도 마찬가지였다. 불안정한 것이었다. 금방은 보였다가 금방은 보이지 않았다. 금방 손에 든 촛불처럼 가까워졌다가 금방 겨울밤 하늘의 별처럼 멀어졌다. 세월이 흘 러감에 따라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형태의 죄와 유혹이 점점 더 자주 그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충동의 강력하고도 격정적인 운동이나 들끓음 또는 용솟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처럼 보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쉽게 견뎌낼 수 있는, 아니 거의 인식될 수도 없는 그런 기분이었다. 별다른 고통 이나 결핍의 감정이 따르지 않는 상태였다. 사실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서, 기쁨이 점차 식고 줄어들어 마침내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무기력 하고 밋밋하며 지루한 영혼의 상태였다. 햇빛이 비치지도 비가 내리지도 않고, 회 색빛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검은빛은 아니며, 무덥기는 하나 그렇다고 소나기가 내 릴 정도는 아닌 그런 형태로 하늘이 조용히 깊은 생각에 잠기며 자신의 세계에 갇 혀 버리는 날들이 있는 것처럼 노년에 접어든 요제프의 나날들도 점차 그렇게 되 어 갔다. 아침과 저녁, 축제의 날과 보통의 날, 비상의 시간과 침체의 시간을 서로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무기력한 피로감과 불쾌감 속 에서 활기 없이 흘러갔다. 요제프는 나이때문일 거라고 서글픈 마음으로 생각했 다. 그가 슬펐던 것은,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충동들이나 격정들이 점차 사 라지게 되면 인생이 밝아지고 가벼워지며 갈망하는 조화의 상태나 원숙하고 안정 된 영혼의 상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노년 이 이 지치고 활기 없고 기쁨이 없는 황량한 기분만을, 이 말할 수 없는 싫증의 감 정만을 가져다줌으로써 자신을 실망시키며 속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 이었다. 요제프는 모든 것에 대해 싫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저 살고 있는 것에 대 해. 숨 쉬는 것에 대해. 밤에 잠자는 것에 대해. 작은 오아시스의 가장자리에 있 는 움막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저녁이 오고 또 아침이 오는 것에 대 해. 여행자들과 순례자들과 낙타꾼들과 나귀꾼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도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그에게 자신들의 인생과 죄와 불 안과 시련과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바로 그 우둔하고 불 안에 차 있고 또 어린아이처럼 너무도 쉽게 믿어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싫증 을 느끼고 있었다. 때때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아시스에서 대야 모양 의 돌 위에 모인 적은 양의 샘물이 풀숲 사이를 흐르며 작은 실개천을 이루고 이어 황량한 모래사막으로 흘러 나가 잠시 흐른 뒤 거기서 잦아들어 소멸해 버리는 것 처럼. 그 모든 고해와 죄목들과 이력들과 양심의 고통들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진지한 것이든 허황한 것이든 꼭 그와 같은 형태로 다가왔다. 꼭 그와 같은 형태로 그의 귀 안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수십, 수백 가지에 이르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귀는 사막의 모래처럼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었다. 귀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라 영원히 마시고 삼키고 빨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 다. 귀는 자신이 지치고 잘못 이용되고 지나치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 다. 말과 고백과 근심과 비탄과 자책의 끊임없는 흐름과 첨벙거림이 한 번 멎어 주 기를, 끊임없는 흐름의 자리에 안식과 죽음과 고요가 한 번 들어서 주기를 귀는 간 절히 바라고 있었다. 정말이지 요제프는 하나의 종말을 바라고 있었다. 지쳐 있었 다. 절망하고 있었다. 몹시 절망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활기를 잃고 가치가 없 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제 이따금 요제프는 배신자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달았 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을 벌주며 자신을 없 애 버리고 싶은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참회자 생활의 초기단계에 악마는 그 의 마음속에 감각적 · 세속적 쾌락의 온갖 소원과 생각과 꿈을 은근히 부추겼던 것 이지만 이제 악마는 온갖 자기 파괴의 온갖 관념들로써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이 제 요제프는 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목매달아 죽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하는 관점에 서, 근처에 있는 경사진 바위 하나하나를 그것이 떨어져 내려 죽기에 충분할 만큼 경사가 심하고 위치가 높은가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그는 이런 유혹에 저항했다. 싸웠다.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밤낮을 자기혐오와 죽음에의 욕망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았다. 인생은 견딜 수 없고 증오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다. 요제프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또다시 한 높은 바위 위에 서 있었을 때 멀리 하늘과 땅 사이에서 두세 개의 작은 물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 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여행자들일 것이었다. 순례자들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 해하기 위해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 순간 요제프는 갑자기 당장에, 가능한 한 빨리 이 장소와 이 생활을 떠나 버리고 싶은 거역할 수 없는 욕 구에 사로잡혔다. 그런 욕구가 너무도 강력하게, 너무도 본능적인 힘으로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생각과 이의와 우려를 앞질러 모든 것들을 쓸어 내 버렸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나 이의 · 우려가 없지 않았다. 경건한 참 회자가 어찌 양심의 이런저런 동요 없이 본능적인 충동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는 벌써 달리고 있었다. 그는 벌써 암굴로, 싸우며 보낸 그 많은 세월의 요람으로, 그 토록 많은 고양된 기분과 패배감의 온상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정신없이 서둘 러 몇 움큼의 대추야자와 물이 든 호리병을 집어 들어 낡은 여행주머니 속에 쑤셔 넣고서는 어깨 위에 둘러메었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서 보잘 것 없는 고 향의 섣부른 평화를 떠났다. 도망자.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 신과 인간들을 피해 떠났다. 무엇보다도 한때 자신의 최고의 자산이라고, 자신의 직무요 사명이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었다. 앞서 바위 위에서 보았던, 멀리에서 나타났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추적자이고 적군이기라도 한 듯 그는 처음에는 내쫓 기는 것 같은 기분으로 걸었다. 그러나 처음 한 시간을 걷는 동안 불안하고 조급하 던 기분은 사라졌다. 걷는 동작으로 인해 기분 좋을 만큼 피로를 느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해 지기 전에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신 성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쉬게 되었을 때, 홀로 생각하는 일에 익숙해 져 있는 그의 이성이 벌써 다시 활기를 찾아 충동에 따랐던 그의 행동을 감정이라 도 하듯 샅샅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행동이 결코 이성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는 않았지만 이성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 었다. 실로 오랜만에 처음으로 소박하고 순수한 행동을 발견하게 된 때문이었다. 요제프가 들어선 길은 도망 길이었다. 갑작스럽고 별다른 숙고를 거치지 않은 도 망이긴 했으나 결코 치욕스런 도망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 는 자리를 떠나 버렸다. 도망을 쳐버림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무능을 인정해 준 것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아무 데도 쓸모 없는 싸움을 포기하고서 자신을 실패자 · 낙오자로 선포해 버렸다.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영웅적이지도 신성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것은 솔직한 것이었으며,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생각되었다. 자신이 이렇 게 늦게 도망 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에 대해.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아니 너무 도 오랫동안 참아내었던 것에 대해 그는 이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절 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도 오랫동안 견뎌내며 보였던 투쟁과 저항을 이제 하나의 과오로, 아니 이기심과 해묵은 본능의 투쟁과 발작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런 저항이 너무도 나쁜, 아니 너무도 악마적인 결과를, 심한 갈등과 정신의 해이를, 아니 죽음과 자기 파괴에 대한 소망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게 되는 상태를 초래 하게 되었던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마도 크리스트교도는 죽음 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회자요 성자라면 자신의 인생을 그야말로 하나의 희생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살에 대한 생각은 그야 말로 악마적인 것이라. 신의 천사가 아닌 사악한 악마의 지배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아주 절망적이고 황망 한 기분으로, 결국에 가서는 깊은 회한에 사무치고 몹시 흔들리는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몇 마일 걸음으로써 가지게 된 거리감으로 인해 최근 그의 생활이 눈에 보 이게 되고 또 의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구세주의 배반자처럼 나무 가지에 스스로 목을 매달고 싶은 끔찍한 유혹 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는 한 늙은이의 절망적이고 내쫓기는 생활이었다. 자살하 는 것에 대해 그토록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포감 속에는 물론 이전 시 절의, 기독교 이전 시절의, 옛 이교도 시절의 지식 즉 인간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 는 고래의 관습에 관한 지식의 잔재가 아직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부족의 왕이나 성자나 뛰어난 인물이 그런 제물로 선택되는 것이었는데, 요제프는 자신 의 손으로 이런 희생을 행하고 싶은 기분을 자주 느끼고 있었다. 그 금지된 관습이 이교도적 이전 시대로부터 현재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이 그를 공포에 떨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십자가에서의 구세주의 죽음도 결국은 자발적으로 행 해진 인간 제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런데 실제 사정은 이러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살에 대한 욕망이 요동 쳤을 때 이미 그 속에는 이런 의식의 일단이 스며들어 있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 고, 그럼으로 해서 사실 허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세주를 모방하고자 하는—또는 허락되지 않는 방법으로 구세주의 구원의 작업은 그렇게 완전하게 성공한 것이 아 니라는 점을 암시하고자 하는 고집스럽고 사악하며 거친 충동이 거기에 이미 도사 리고 있었다. 이 같이 생각을 해 보게 되었을 때 몹시 놀랐지만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고 하는 것도 그는 느끼고 있었다.

그처럼 위험한 상태에 이른 것이었으나 유다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침으로써 자신을 다시 하느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던 참회자 요제프를 그는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쳐 나온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가슴속에서는 부끄러운 마음과 슬픈 마음이 더욱 크게자라 올랐다. 결국 그 비참한 기분은 마치 숨통을 막아 버리는 음식물처럼 그의 목구멍 속에서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커 갔다. 그러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갑작스런 종말을 맞으며 해소되었다. 실컷 울자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다. 아, 울어 보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였던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더 이

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죽일 듯 목을 죄던 기분은 사라졌다. 정신을 차려 입술에서 짠맛을 느끼며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일순간 자신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고, 그래서 사악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소를 지었다. 울었던 것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계속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도망 길이 어디로 이르게 될지,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되어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가슴속에는 싸움도 욕구도 더 이상 없었다. 마음이 더 가벼워짐을 느꼈다. 지금의 여행이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기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인도되고 있는 것 같은, 먼 곳에 있는 어떤 친절한 목소리의 부름에 이끌려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피로해졌다. 그의 이성도 마찬가지였다. 이성은 침묵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또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

요제프가 밤을 보낸 우물가에는 몇 마리의 낙타가 쉬고 있었다. 작은 무리의 여행자 일행 가운데는 여자도 두 사람 끼여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인사 동작만 취했을뿐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피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져 대추야자 몇 개를 먹고기도를 올린 다음 자리에 누웠을 때 요제프는 두 남자, 한 늙은이와 한 젊은이가나누는 낮은 이야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바로 곁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제프가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한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부분은 그저 속삭이는 소리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을 듣는 데도 주의와 관심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요제프에게 한 밤중까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아주 좋은 일일세."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가 어떤 경건한 분한테로 가서 고해를 하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일세. 자네한테 분명히 일러두지만 그분들은 온갖 종류의 일들을 다 알고 있다네. 그분들은 그저 밥만 먹는 것 이상의 일을 할수 있단 말일세. 그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마법에도 정통해 있네. 덤벼드는 사자한테 말 한 마디만 던져도 강도 같은 사자는 몸을 납작하게 엎드리고 꼬리를 감추며 도망쳐 버리지. 자네한테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들은 사자를 길들일 수도 있네.

그분들 가운데 어느 특별히 신성한 어른이 죽었을 때는 그분이 길들인 사자들이 그분의 무덤을 파기까지 하고 그분의 시신 위에다시 보기 좋게 흙을 덮고서는 오랜 기간 밤낮없이 계속 두 마리의 사자가 그분의 무덤가에서 보초를 섰네. 그런데 그분들은 사자들만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세.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사나운 맹수 같은 군인이면서 아스칼론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난봉꾼이었던 어느 로마 백인부대 대장을 호되게 질책해서 그 자의 사악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 버린 적이 있었네. 그래서 그 자는 풀이 죽고 겁을 잔뜩 먹은 채 쥐새끼처럼 도망쳐 숨을 구멍을 찾았다네. 그런 뒤 사람들은 그 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네. 그 정도로 그 자는 풀이 죽고 기가 꺾이게 된 것이었네. 이 점은 좀 생각해볼 만한 문젠데 그 사람은 물론 그 후 얼마 안 있어 죽고 말았다네."

"그 거룩하신 어른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백인부대 대장 말일세. 그의 이름은 파로였네. 참회자를 통해 크게 혼이 나고 또 양심을 되찾게 된 후 파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몸이 쇠약해졌고, 두 차례 열병을 앓다가 석 달 후에 죽고 말았네. 어쨌든 불쌍하게 생각할 건 없네. 하지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았네. 참회자는 대장으로부터 악마를 쫓아낸 것만이 아니라 땅 밑에 묻히도록 하는 어떤 주문을 외웠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일세."

"그런 경건한 어른이 말입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건 안 믿건 상관없네. 하지만 그 날 이후 대장은 귀신에 홀렸다고 말할 수는 없 겠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네. 그러다 석 달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런 뒤 젊은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유명한 참회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틀림없이 여기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가자로 가는 길가에 있는 어느 샘터 옆에서 아주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성함은 요제푸스, 요제푸스 파물루스입니다.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그분은 정말 경건하고 특히 여자를 쳐다보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어쩌다 그분의 한적한 움막 옆으로 몇 마리 낙타가 지나가고 어느 낙타 위에 여자가 앉아 있으면 그 여자가 아무리 두꺼운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등을 돌리고서 바로 바위굴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많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고해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먼. 그렇게 유명하다면 틀림없이 나도 이미 그에 관해 무슨 소릴 들었을 터이니 말일세. 그런데 자네가 말하는 그 파물루스란 사람은 대체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가?"

"아, 사람들은 그냥 그분한테로 고해하러 갈 뿐입니다. 그분이 훌륭하지 않고 이해 하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이지 사람들은 그분에게로 가지 않을 겁니다. 또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며 나무라거나 야단을 치거나 벌을 내리거나 하는 등의 일을 일체 하지 않는답니다. 그분은 온화한, 아니 수줍어하기까지 하는 분이라는 소문입니다."

"그래, 나무라지도 않고 벌을 내리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는다면 그 양반은 대체 무얼 하는 건가?"

"그냥 말을 듣기만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고 성호를 긋는답니다."

"아니, 뭐라고? 정말 별난 돌팔이성자를 다 보겠구먼! 자넨 설마 바보처럼 그 벙어리아저씨를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천만예요. 그분을 찾아갈 겁니다.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일 겁니다. 사실 아까 저녁때 그런 가련한 수도자 한 분이 여기 우물가에 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분한테 물어 볼 생각입니다. 그분 자신이 참회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노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말한 우물가참회자는 그냥 자기 암굴 속에 쭈앉아 있도록 내버려두게. 듣고 한숨 쉬고 여자들을 두려워할 뿐 무얼 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 아닌가. 그 사람을 찾아가지 말게. 자네가 누굴 찾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네. 여기서 좀 먼 곳이기는 하네. 아스칼론도 지나가야 하니 말일세. 하지만 그분은 그야말로 땅 위에 존재하는 최고의 참회자요 고해자란 말일세. 그분의 성함은 디온일세. 사람들은 그분을 디온 푸길이라 부르고 있네. 권투선수라는 뜻이지. 그분은 어떤 악마와도 싸우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치욕스

런 행위들을 그분한테 고해하면. 여보게. 디온 푸길은 한숨을 쉬거나 입을 꾹 다물 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차 없이 나무라고 그야말로 호되게 질타하는 것일세. 그분 한테 매 맞은 사람이 많다는 소문도 있네. 그분은 어떤 사람을 하룻밤 내내 맨 무 릎으로 돌멩이 위에 꿇어앉아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 또 40그로쉔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네. 그분이야말로 뛰어난 인물일세. 어린 수도자 양반, 직접 뵙게 되면 아마 놀라게 될 걸세, 그분이 자네를 한 번 똑바 로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자네 온몸이 덜덜 떨리게 될 걸세. 그분은 자네의 속마음 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것일세. 한숨 같은 건 절대 없네. 그분은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네.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거나 악몽을 꾸거나 환상 을 보거나 하면 푸길은 그 사람을 다시 깨끗하게 고쳐 놓는단 말일세. 자네한테 이 런 말을 해 주는 것은 여인네들이 그분에 관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 아닐세, 내가 직접 그분을 찾아간 적이 있기 때문일세, 그럼, 그랬고말고, 내가 직 접 찾아갔지. 보잘것없는 멍청이인지는 몰라도 언젠가 나는 참회자 디온을, 그 권 투선수를, 그 하느님의 사자를 찾아간 적이 있네. 그분께로 갈 때는 가슴속에 온통 수치심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어 비참한 기분이었지만 돌아올 때 내 마음은 내 이 름 다윗에 걸맞게 새벽 별처럼 밝고 맑아져 있었네. 잘 새겨두게. 그분 이름은 디 온일세. 성은 푸길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분을 찾아가보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걸세. 지방장관들. 장로들. 주교들도 그분한테서 조언을 얻곤 했네."

"잘 알겠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언제 다시 그 지방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이고 여기는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있고 이 근처에 제가 그토록 많은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던 요제푸스가 살고 있는게 틀림없으니—"

"굉장한 이야기라! 도대체 자넨 무엇 때문에 파물루스라는 사람한테 이리 홀딱 빠지게 되었나?"

"그분이 나무라지도 않고 거칠게 행동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바로 그 점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저는 백인부대 대장도 아니고 주교도 아닙니다. 하찮은 인간이고 차라리 겁이 많은 성격입

니다. 때문에 거센 불길이나 유황불을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저를 부드럽게 대해 준다면 정말이지 저는 그게 전혀 싫지 않은 겁니다. 일단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 걸세. 부드럽게 대해 주는 것 말일세. 자네가 고해하고 참회하고 벌을 감수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면 자네를 부드럽게 대해 주는 게 어쩌면 온당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자네가 재칼처럼 더럽고 악취를 풍기면서 고해 신부나 심판자 앞에 서 있는 것이라면 사정은 전혀 다른 걸세."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각난 듯 젊은이는 갑자기 낮은 소리로 킥킥거렸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들은 게 있습니다."

"누구 말인가?"

"그분, 참회자 요제푸스 말입니다. 그분은 이런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로 와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털어놓거나 고해하고 나면 그분은 작별할때 인사하고 축복을 내리면서 고해한 사람의 뺨이나 이마 위에 입을 맞추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 그 양반이 정말 그렇게 한다던가? 그 양반 참 별난 버릇도 다 가지고 있 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여자들을 정말 싫어한답니다. 언젠가 근처에 사는 창녀가 남장을 하고서 그분에게 갔더랍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하고 그녀가 하는 거짓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창녀가 고해를 다 마치자 그분은 그녀 앞 에서 몸을 굽혀 점잖게 입을 맞추었답니다."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쉿, 쉿!" 젊은이가 재빨리 주의를 주었다. 이제 요 제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다. 억지로 눌러 참고 있는 웃음소리만이 하동안 더 들려올 뿐이었다.

요제프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야자나무의 무성한 잎 너머로 초승달이 날카롭고 가느다란 모습으로 떠 있었다. 차가운 밤공기 속에 오한을 느꼈다. 낙타꾼들의 그 저

덕 대화는 난반사거울 속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그러면서도 분명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인물됨과 그가 벗어 던지고 온 역할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창녀가 그런 식으로 그를 골려 주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긴 했지만 최악의 것은 아니었다. 요제프는 낯선 두 사람이 나눈 그 대화에 대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주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마침내 잠들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깊은 생각이 헛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결심을 가슴에 품은 채 요제프는 날이 밝을 때까지 깊이, 푹 잤다.

요제프가 하게 된 결심은 두 낙타몰이꾼 가운데 젊은 축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결심이었다. 요제프가 한 결심의 내용은 노인 낙타몰이꾼의 충고에 따라 성은 푸 길이고 이름은 디온인 고해 신부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사실 디온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너무도 절실하게 디온에 대한 찬양을 들을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유명한 고해 신부, 영혼의 심판관이자 충고자는 그를 위해서도 조언과 판결과 형벌과 나아갈 길을 알고 있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요제프는 신의 대리자 앞으로 나아가듯 푸길의 앞으로 나아가 푸길이 내리는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이리라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두 낙타몰이꾼이 아직 잠을 자고 있을 때 벌써 요제프는 쉼터를 떠나 부지런히 걸은 결과 바로 그날 어느 한 장소에 도달했다. 경건한 수도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요제프는 그곳으로부터 아스칼론으로 가는 일반 여행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저녁 무렵 그곳에 도착하자 녹색 빛을 띤 작은 오아시스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나무들이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고 한 마리 염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푸르스름한 그늘 속으로 움막 지붕들의 윤곽이 보이는 듯했으며 인기척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머뭇거리는 태도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을 때 누군가가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요제프는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맨 앞쪽에 있는 나무들 아래 나무줄기에 몸을 기댄 채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 노인으로 허연 수염을 하고 있었고 기품 넘치면서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도 엄격하고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그를 쳐다보았는데 벌써 얼마 전부터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은 눈치였다. 노인의 시선은 단호하고 날카 로웠으나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관찰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는 하지만 호기심이 나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 사람이나 사물들을 자신 가까이 오게 해서 인식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지만 그들을 자기 옆으로 끌어들이거나 부르지는 않는 그런 사람의 시선 같았다.

"안녕하십니까." 요제프가 말했다. 노인은 무슨 말을 중얼거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요제프가 말했다. "어르신은 저처럼 딴 지방에서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사시는 분입니까?"

"딴 곳에서 온 사람이오." 수염이 허연 노인이 말했다.

"어르신, 이곳으로부터 아스칼론 가는 길로 나가는 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가능하오." 노인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은 사지가 좀 굳어 버리기라고 한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몸이 비쩍 마르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 일어선 노인은 멀리 빈 공간을 내다보고 있었다. 요제프는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나 용기를 내 한 가지 더 물어보리라 마음먹었다.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요제프는 정중하게 말했다. 그러자 먼 곳을 향하고 있던 노인의 눈길이 다시 돌아왔다. 노인의 눈길은 냉정하고 주의 깊게 요 제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어르신은 혹시 고해 신부 디온이 사는 곳을 아십니까? 디온 푸길이라는 분 말입 니다."

노인은 눈살을 약간 찌푸렸다. 그의 눈길은 더욱 냉랭한 기운을 띠었다.

"알고 있소." 그는 짧게 말했다.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요제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 그러시면 그곳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그곳으로, 고해 신부 디온한테로 가는 길입니다."

키가 큰 노인은 무엇을 살피듯 요제프를 내려다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더니 조금 전 자신이 기대고 있었던 나무줄기 쪽으로 다시 걸어가 천천히 몸을 땅쪽으로 낮추어서는 나무줄기에 몸을 기댄 채 앞서와 같은 자세로 앉았다. 그는 가벼운 손동작으로 요제프에게 자기처럼 앉으라고 요구했다. 요제프는 시키는 대로 순순히 앉았고 앉을 때 일순간 온 사지에서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고 온 주의력을 노인한테로 기울였다.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접근을 거부하는 진지한 기운이 노인의 근엄한 얼굴에 나타나고 있었으나 진지한 기운 위로또 하나의 다른 표정이, 아니 다른 얼굴이 투명한 가면처럼 놓여 있는 것 같았다. 자부심과 품위로 인해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오래되고 외로운 고통의 표정이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근엄한 노인의 눈길이 다시 요제프를 향했다. 지금도 시선은 아주 날카로운 기색으로 요제프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노인은 불쑥 명령적인 어조로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참회자입니다." 요제프가 말했다. "여러 해 전부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소. 내가 묻는 건 당신 이름이오."

"이름은 요제프이고 성은 파물루스입니다."

요제프가 이름을 말해 주었을 때 노인은 그 밖의 면에서는 계속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양미간을 몹시 찌푸렸기 때문에 두 눈은 잠시 동안 거의 보이지 않았다. 요제프의 말을 듣고 당황해 하고 있거나 놀라고 있거나 또는 실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그것은 어쩌면 그저 눈이 피로해진 때문인지도 주의력이 떨어진 때문인지도 또는 나이든 사람들이 노쇠해진 기력으로 인해 흔히 가지게 되는 어떤 가벼운 발작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쨌든 노인은 계속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고 얼마 동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다시 눈을 크게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달라진 것처럼 또는 이런 것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더욱 늙고 더욱 외로워지고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침착해진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천천히 입술을 움직이며 물었다. "나도 당신 이야기를 들었소. 당신이 바로 사람들이 고해하러 찾아가는 그 사람이요?"

요제프는 당황해 하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신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을 달갑지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않은 노출처럼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소문을 접한 까닭에 이제 벌써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노인은 예의 단도직입적인 어투로 다시 물었다. "당신은 지금 디온 푸길을 찾아가는 중이란 말이지요? 그에게서 대체 뭘 원하오?"

"그분께 고해하고 싶습니다."

"고해에서 무얼 기대하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가, 어떤 지침이 저를 그분한테로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고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 명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릇된 것을 충고하거나 명령하면 어찌 할 건가?"

"그릇된 것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순종할 것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해는 이미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나뭇잎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 노인이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제 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저하는 태도로 다시 한 번 자신의 관심사를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고해 신부 디온이 사는 곳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소를 일러주시 고 그곳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없겠습니까?"

노인은 입술을 오므리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신을 반가이 맞아 주리라고 믿는가?" 노인이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이 물음에 너무도 놀라 요제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서 있었다.

그러다 요제프는 말했다. "어르신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인사 동작을 해 보이며 대답했다. "나는 여기서 잘 것이고 해 뜬 직후까지여기 머물러 있을 거네. 자. 이제 가게. 피로하고 배도 고플 테니."

공손하게 인사한 뒤 요제프는 계속 걸어가 어둠이 끼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작은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도원 안과 비슷하게 이른바 세상을 등진 사람들

이 살고 있었다. 여러 도시와 지방에서 온 기독교도들이 여기 이 한적한 곳에 거처를 마련해서 소박하고 순수한 정적과 명상의 생활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채몰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과 음식물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 그가 몹시 지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묻거나 말을 걸지 않아 주었다. 어떤 사람이 저녁기도를 올리자 다른 사람들도 무릎을 꿇고 함께 참여했으며 모두가 다함께 "아멘" 하고 말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 경건한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은 요제프에게 중요한 체험이고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 요제프는 어제 저녁 노인을 두고 떠났던 장소로 서둘러 돌아갔다. 노인은 땅바닥에 누워 자고 있었다. 얇은 거적을 덮은 채였다. 요제프는 약간 떨어져 나무 밑에 앉아서 노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바로 잠시 뒤잠자던 노인이 뒤척이며 깨어나 거적에서 몸을 빼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뻣뻣해진 사지를 뻗쳤다. 그러고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다. 노인이 다시일어섰을 때 요제프는 가까이 다가가 말없이 몸을 굽혀 인사했다.

"자네, 벌써 식사했나?" 노인이 물었다.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해가 지고 난 뒤에 식사하는 것이 제 습관입니다. 배가 고프십니까. 어르신?"

"우리는 여행하고 있는 중이네." 노인이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니란 말일세. 길을 다시 떠나기 전에 좀 먹어 두는 게 좋을 걸세."

요제프는 자신의 자루를 열어 노인에게 대추야자를 건넸다. 요제프는 지난밤 함께 지낸 친절한 사람들한테서 얻어온 수수 빵도 노인과 나누어 먹었다.

식사를 마쳤을 때 노인은 "자, 가 보세" 하고 말했다.

"아,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까?" 요제프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물론이지, 디온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나, 따라오기나 하게."

놀란 듯도 하고 행복한 듯도 한 표정으로 요제프는 노인을 쳐다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외친 요제프는 감사의 말을 쏟아놓으려 했다. 그러나 노인은 거칠게 손을 내저으며 입을 다물라는 시늉을 해 보였다.

"고마우신 분은 하느님뿐일세." 노인이 말했다. "이제 가세. 내가 자네한테 하듯

자네도 나를 '자네'라고 부르게. 늙어 가는 두 참회자 사이에 무슨 격식과 예법이 필요하겠나?"

키가 큰 노인은 발걸음을 내딛었고 요제프는 그 뒤를 따랐다. 날은 이미 밝아져 있었다. 앞서 걷고 있는 노인은 방향과 길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점심때쯤 이면 어느 그늘진 장소에 다다르게 되고 거기서 한 낮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몇 시간 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했다. 길을 가는 중에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뜨거운 햇볕 속을 몇 시간 걸어 쉼터에 이르고 갈라진 틈이 많은 바위들이 이룬 그늘 속에서 쉬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요제프는 다시 자신의 길 안내자에게 말을 건 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걸어야 다온 푸길한테 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건 전적으로 자네한테 달렸네." 노인이 말했다.

"저한테 말입니까?" 요제프가 외쳤다. "아, 전적으로 저한테 달려 있는 거라면 오늘에라도 당장 그분 앞에 가 있겠습니다."

노인은 지금도 별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기분이 아닌 것 같았다.

"두고 보세." 짧게 말하고서 노인은 모로 누워 눈을 감았다. 노인이 잠을 자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일은 요제프로서는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약간 옆쪽으로 물러 나와 누웠다. 그도 이내 잠이 들었다. 지난밤에 늦도록 자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의 길 안내자가 그를 깨웠다. 길 안내자는 떠나야 할 시간이됐다고 생각했다.

오후 늦게 그들은 물과 나무들과 풀숲이 있는 어느 쉼터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몸을 씻었다. 노인은 그곳에서 머물기로 작정했다. 요제프는 찬성하지 않고 주저하는 태도로 이의를 제기했다.

"제가 고해 신부 디온에게 일찍 가고 늦게 가고는 전적으로 저한테 달려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요제프가 말했다. "정말로 오늘내일 사이에 그분한테로 갈수 있는 거라면 저는 아직도 몇 시간 더 걸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네." 노인이 말했다. "오늘은 충분히 멀리 왔네."

"죄송합니다." 요제프가 말했다. "하지만 제 초조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 "이해하네. 하지만 조급하게 굴어 보았자 자네한테 도움될 건 하나도 없네."
- "그럼 왜 저한테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사정은 내가 말했던 그대로일세. 고해하고자 하는 자네 의지가 흔들림이 없고 고해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무르익으면 그 순간에 바로 자네는 고해할 수 있는 걸세."
- "오늘에라도 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 "오늘에라도 할 수 있네."

놀라워하는 표정으로 요제프는 조용하고 늙은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제프는 흥분해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이 바로 고해 신부 디온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나무 밑에서 좀 쉬게." 노인은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잠을 자지는 말게. 정신을 집중시키도록 하게. 나도 쉬며 정신을 집중하겠네. 그러고 난 뒤 자네가 말 하고 싶은 것을 말하도록 하게."

요제프는 자신이 갑자기 목적지에 도달해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요제프는 하루 종일 함께 걸어 왔으면서도 자신이 이 존경하는 사람을 더 일찍 알아보고 이 해하지 못했던 것을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는 물러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생각을 이 고해 신부에게 말할 내용에 집중했다. 요제프는 한 시간뒤 돌아와 디온에게 준비가 되셨냐고 물었다.

요제프는 이제 고해할 수 있었다. 여러 해 전부터 살아 왔던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점차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왔던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고 탄식이 되고 물음이 되고 자책이 되어 입에서 흘러나왔다. 정화와 성화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이나 결국 크나큰 혼란과 암흑과 절망이 되고 말았던, 기독교도로서 또 참회자로서 그의 인생의 전체 이야기였다. 그의 도망과 그 도망이 가져다 주었던 해방감과 기대감, 디온을 찾아가리라고 결심하게 된 과정, 디온과의만남 등 요 며칠 사이 체험했던 것도 요제프는 숨기지 않았다. 노인에 대해 진작부터 신뢰감과 사랑을 느끼긴 했으나 이날 하루가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그를 차갑

고 이상한 사람으로, 아니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했다는 말도 했다. 요제프가 고해를 마쳤을 때 해는 이미 깊이 기울어져 있었다. 늙은 디온은 지칠 줄 모르는 주의력으로 듣고 있었고 말을 가로막거나 질문을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고해가 끝난 지금에 와서도 디온은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디온은 무거운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요제프를 바라보고서는 그에게로 몸을 굽혀 이마 위에다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 위로 성호를 그었다. 노인의 이런 동작이 그 자신이 일찍이 많은 고해자들을 떠나보낼 때 말없이 했던 동료에 어린, 심판의 말을 하지 않는 바로 그 동작과 똑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요제프가 깨닫게 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가서의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들은 식사를 하고 저녁기도를 올렸다. 그리고는 자리에 누웠다. 요제프는 한동안 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실 그는 큰 호통과 훈계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디온의 다정한 눈길과 동료에 어린 입맞춤이 그를 기쁘게 해주었다. 그의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이내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데리고 출발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아주 먼 거리를 걸었다. 4, 5일을 더 걸었다. 마침내 그들은 디온이 은둔 생활을 하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살았다. 요제프는 디온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거들고 그의 일상 생활을 배우며 함께 지냈다. 그 생활은 그 자신이 여러 해동안 살아 왔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단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닐뿐이었다. 어떤 다른 사람의 그늘과 보호 속에서 살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다른 생활이었다. 근처에 있는 마을들로부터, 아스칼론으로부터 그보다 더 먼곳으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과 고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다. 처음에 요제프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야 다시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디온은 하인을 부르듯 점점 더 자주 그를 다시 불러냈고 그로 하여금 물을 길어 오게 하거나 또는 그 밖의 허드렛일을 시켰다. 얼마 동안을 그렇게 한 후 디온은 고해하는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 한 요제프로 하여금 가끔씩 고해를 함께 듣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운 푸길 을 혼자 대하며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대신 조용하고 다정한 눈 빛을 하고 있고 친절한 조수와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 서 요제프는 점차 디온이 고해를 듣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디온이 위로의 말을 건 네는 방법, 다그치며 야단치는 방법, 벌을 내리거나 충고를 해 주는 방법 등을 점 차 알게 되었다. 요제프가 질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학자인가 예술가인가 하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렀던 때가 예를 들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사람 자신이 하는 이야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 사람은 마법 사나 점성가 친구들을 더러 가지고 있었다. 그는 두 늙은 참회자 곁에 두어 시간 앉아서 쉬다 갔는데 공손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별들에 대해, 인간이 신들과 함께 한 시대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열두 동물 별자리의 모든 집 을 거쳐 가야 하는 그 긴 여정에 대해 오래. 유식하고 훌륭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담이 십자기에 못 박혀 죽은 예 수와 동일 인물이라고 했으며, 예수를 통한 구원을 인식의 나무로부터 생명의 나 무에로의 아담의 이동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한편 그는 낙원의 뱀을 만물과 온 인 류와 신들을 그 검은 물로부터 탄생시키는 성스러운 원천, 어두운 심연의 수호자 라 불렀다. 그리스어가 많이 섞인 시리아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말을 디온은 주 의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다. 요제프로서는 의아스러운, 아니 불쾌감마저 느끼게 하는 일이었지만 디온은 그 이교도적인 오류들을 화를 내며 열심히 부정하거나 반 박하거나 물리치지는 않고 오히려 그 박식한 나그네가 하는 그럴듯한 변설에 흥미 와 관심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디온은 열심히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소 를 짓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들기라도 한 듯 그 말에 대해 때로 머리까 지 끄덕였다.

그 사람이 다시 떠나가 버렸을 때 요제프는 조바심이 난 어조로, 아니 거의 비난 의 뜻이 담긴 어조로 물었다. "아무런 믿음도 없는 이교도의 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어찌 해서 그렇게도 참을성 있게 들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는 참을 성 있게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큰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느 정도 만족스런

기분까지 느끼면서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치도 않는 이야기들을 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믿도록 개종시키려 하시지 않았습니까?"

디온은 가늘고 주름살이 많이 잡힌 목 위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대답했다. "내 가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지 않은 것은 그래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 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도대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기 때문이었 네. 말을 하거나 이것저것 주워섬김에 있어서, 신화나 별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 그 사람은 나보다 단연 앞서고 있네. 그러니 그에 대항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또. 여보게. 어떤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허위이고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의 믿 음을 부정하는 것은 내나 자네가 할 일이 아닐세.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 영리한 사람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즐거운 기분으로 듣고 있었네. 자네도 놓치지 않고 이 점을 알아차렸듯이 말일세. 그 이야기에 내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은 그 사 람이 너무도 말을 잘하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네. 그러나 무엇보다 도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젊은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었 네. 젊은 시절 나도 그런 연구와 지식에 몰두한 적이 있었으니까 말일세. 그 낯선 사람이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댔던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결코 오류가 아닐세. 그 것은 유일한 구세주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까닭에 우리가 더 이상 필요 로 하지 않게 된 어떤 믿음의 관념이고 비유인 것일세.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한, 아니 어쩌면 앞으로도 결코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조상들의 오래된 지혜에서 비롯하는 그들의 신앙이 당연히 존중할 만한 것이 되는 걸세. 여보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다른 것일세. 아주 다른 것일세.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별자리나 영겁의 시간, 근원의 샘, 세계의 어머니 등에 관한 설과 그 모든 비유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설들 자체가 오류가 되고 허위와 기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일세."

"하지만 우리 신앙은 더 나은 것입니다." 요제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 도 그 낡아빠진 설들을 타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설을 갖다 놓아야 할 것입니 다."

"우리들이야 벌써 그렇게 했지. 자네와 나 그 밖의 많은 다른 사람들 말일세." 디 온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들이 기독교신자가 된 것은 그 믿음에, 즉 구세 주의 힘과 그분의 구원의 죽음의 힘에 감동되었기 때문이었네. 하지만 저 다른 사 람들은, 열두 동물 별자리와 옛날의 설들을 믿고 있는 저네들 신화주의자들과 신 학자들은 그 힘에 감동하지 않았네. 아직은 감동하지 않았던 것이었네. 또한 우리 에게는 저네들이 감동한 사람이 되도록 강요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네. 요제프, 자네는 보지 못했나? 이 신화주의자가 멋들어지고 아주 수완 좋게 떠들어대며 여 러 가지 비유들을 잘도 꿰어 붙이던 것 말일세. 그러면서 그 사람 얼마나 즐거워 하던가? 상징과 비유의 지혜 속에서 얼마나 평화롭고 조화 있게 살고 있는가 말일 세. 자. 보게. 그것은 이 사람이 별다른 고통을 겪지 않고 만족해하고 있다는, 즉 편안히 잘 지내고 있다는 표지일세. 편안히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같 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세. 한 인간이 구원과 구원의 신앙 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가져다 주는 지혜와 조화 로운 경지에서 느끼는 기쁨을 버리고 구원의 기적에 대한 믿음의 큰 모험을 감행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사정이 나빠져야 하는 걸세. 아주 나빠 져야 하는 걸세. 고통과 환멸, 비참함과 절망을 체험해야 하는 걸세. 목에까지 물 이 차올라야 한단 말일세. 요제프. 그러니 우리 이 유식한 이교도를 편안히 지내도 록 내버려 두세. 그의 지혜. 그의 사상, 그의 변론 기술이 가져다 주는 행복감 속에 서 지내도록 내버려두잔 말일세. 어쩌면 그는 내일이나 1년 후나 10년 후에 자신 의 변론 기술과 지혜를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을 걸세. 사랑하 는 아내나 외동아들이 맞아 죽는 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자신이 병에 걸리 거나 가난에 빠져들 수도 있을 걸세. 그때 우리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면 그를 받 아들여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세. 그때 만약 그가 우리에게 '어제, 10년 전에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으면—'당시 자네 사정은 아직 충분히 나쁘지가 않았네' 하고 대답해 주도록 하세."

디온은 진지한 기분이 되어 있었으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는 마치 회상 의 꿈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듯 말을 계속했다. "내 자신도 한때 조상들의 여러 가 지 지혜에 깊이 빠져 그에서 위안을 구했던 적이 있었네.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에도 신학 하는 일은 나에게 때로 기쁨을 가져다 주었네. 물론 많은 슬픔 도 안겨 주었고 말일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보았던 것은 세계창조와 관련된 문 제였네. 세계창조의 작업이 끝난 뒤에는 사실 모든 것이 훌륭했어야 했다는 사실 과 관련된 문제였네. '신이 스스로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은 아주 훌륭했 노라'로 되어 있으니 말일세. 그러나 실제에 있어 훌륭하고 완전했던 것은 한 순간 에 지나지 않았네. 낙원의 순간 동안뿐이었다는 말일세.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벌써 이 완전한 세계에는 죄와 저주가 흘러들어 오게 되었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이었네. 그래서 당시 어떤 스승들은 이렇게들 말했네. 이 세계와 더불 어 아담과 인식의 나무를 창조했던 신은 유일 최고의 신이 아니라 그 신의 한 부분 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그 신의 하위에 있는 신인 데미우르고스라고 말일세. 천지 창조는 훌륭한 것이지 못하고 데미우르고스의 실패작인 것이라 창조된 만물은 이 제 여러 세상에 걸친 시대 동안 저주를 받게 되고 악마에게 내맡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었네. 마침내 그분이, 즉 유일한 정신이신 신이 직접 아드님을 통해 이 저주받 은 세상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였네.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 쳤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때부터 데미우르고스와 그가 창조한 세 계의 파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네. 이 세계는 서서히 죽어 사라져 버리고 마침 내 새로우 시대에 들어가서는 창조도 세상도 육체도 욕망이나 죄도 육체적인 생산 도 출생도 사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아담의 저주로부터. 욕망과 생 산과 출생과 사멸의 영원한 저주와 충동으로부터 해방된 완전하고 정신적이며 구 원된 세계가 생겨나리라는 이야기였네. 우리는 당시의 여러 가지 세계의 악에 대 한 책임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 대해서 보다는 데미우르고스한테로 더 많이 돌리고 있었네. 데미우르고스가 진실로 신 그 자체였다면 아담을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거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일은 그로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 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이었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추론의 끝부분 에서 두 신 즉 세계창조주로서의 신과 아버지 신을 가지게 되었고 전자를 가차 없 이 심판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 계창조는 도대체가 신의 작품이 아니라 악마의 작품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구세주와 다가오는 정신의 시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 신들과 여러 세계들과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고안해내고 또 논쟁을 벌이면서 신학을 행했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열병에 빠지게 되고 심한 병에 결리게 되었네. 그런데 열에 달뜬 꿈에서 나는 데미 우르고스와 끊임없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네.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네. 환영과 공포는 점점 더 끔찍한 것이 되어 갔네. 열이 최고도로 올랐던 날 밤엔 나의 육체적인 출생을 다시 해소해 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어 머니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열에 달뜬 그 꿈속에서 악마는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내몰았네. 하지만 나는 이겨내었네. 하지만 이전 내 친구들이 실망하게도 나는 멍청하고 말이 없고 혼이 빠져 버린 인간이 되 어 다시 살아난 것이었네. 육체적인 힘은 이내 다시 회복됐으나 철학 하는 데 대한 관심은 그렇지를 못했네. 열에 달뜬 그 끔찍한 꿈들이 사라져 가고 거의 언제나 잠 만 자게 되는 가운데 회복의 낮과 밤이 지나는 동안 깨어 있는 순간이면 언제나 구 세주가 내 곁에 있는 것을, 그분으로부터 힘이 나와 내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꼈 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때 나는 슬픔을 느꼈네. 그분의 체취를 이제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그 체취에 대해 커다란 그리움을 느끼게 되었네. 이제 사정은 이렇게 되었네. 논쟁하는 것을 다시 듣게 되면 바로 나는 그 그리움—그건 당시 내 최고의 재산이었네—이 사라 져 버릴, 물이 모래 속으로 잦아들 듯 관념과 말속으로 사라져 버릴 위험에 빠져드 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 여보게, 이걸로 충분했네. 나의 재치 있는 설명과 신학은 이제 끝난 것이었네. 그때부터 나는 소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 걸세. 그러나 철학 할 줄 알고 신화적으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을, 나 역시 일찍이 시험해 본 바 있었던 그 유희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나는 방해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싶은 생각 은 없네. 데미우르고스와 정신의 신, 창조와 구원이 이해할 길 없이 서로 얽힌 채

석여서 존재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는 것을 일찍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철학 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나 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세.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닐세."

언젠가 어떤 사람이 살인과 강간의 일을 참회하고 간 뒤 디온은 조수 요제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살인과 강간, 그야말로 극악무도하고 굉장한 것처럼 들리지. 사실 실제로 아주 나쁜 것이기도 하고 말일세.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보게, 요제프. 사실 이 세속 사람들은 결코 진짜 죄인이 아닐세.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해 보려 애를 쓸 때면 종종 그들이 나에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처럼 생각된단 말일세. 그들은 정직하지도 착하지도 고상하지도 않고 이기적이고 음탕하고 거만하며 화를 잘 내지. 분명히 그렇지.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면에서 볼때 저들은 순진한 걸세. 어린아이들이 순진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일세."

"그렇지만" 요제프가 말했다. "때때로 그들을 무섭게 야단치시고 그들의 눈앞에 지옥의 모습을 그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는 걸세. 양심의 고통을 느껴 참회하러 올 때면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또한 엄중한 질책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걸세.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자네는 물론 이 일을 다른 방식으로 했네. 이전에 말일세. 자네는 야단을 치지도 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속죄를 명령하지도 않았네. 친절하게 대하고 그저 동료에 어린 입맞춤을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냈네. 그걸 나무랄 생각은 없네. 추호도 없네. 하지만 나는 자네처럼 할수가 없네."

"그러실 수 없을 겁니다." 머뭇거리는 어조로 요제프가 말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왜 제가 전번에 고해했을 때는 저를 다른 고해자들과 똑같이 대하시지 않고 아무런 말씀이 없이 저의 이마에 입만 맞추시고 질책의 말씀은 한 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디온은 파고드는 것 같은 눈초리로 요제프를 쳐다보았다. "내가 한 일이 옳지 않았 단 말인가?" 디온이 물었다.

"옳지 않았던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고해를 하고 난 뒤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내버려두세. 사실 당시 나는 자네한테 엄격하고 긴 참회를 부과한 것이기도 했네. 비록 말은 안 했지만 말일세. 나는 자네를 함께 데리고 와 머슴처럼 대했고 자네가 벗어나고자 했던 그 일을 다시 하도록 억지로 강요했네." 디온은 몸을 돌렸다. 그는 오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요제프는 끈질기게 달라붙었다.

"제가 어르신의 말씀을 순순히 따르리라는 것을 어르신께서는 그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고해를 하기 전에, 어르신을 미처 알아 뵙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신 이유는 정말로 그런 것뿐이었습니까?"

노인은 이리저리 몇 걸음 걷다가 요제프 앞에 멈춰 서서는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 으며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일세. 여보게. 성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일 세.—물론 이들은 우리한테 고해하러 오지 않네. 그러나 우리는, 자네나 내나 우 리 같은 사람들은, 참회자요 구도자며 세상을 등진 사람들인 우리는, 우리는 결코 어린아이들이 아니며 순진하지도 않고, 훈계를 통해 바로잡아질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닐세. 우리는, 우리는 진정한 죄인들일세.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인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일세.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회초리로 다스려 다시 내보내는 어린아이들처럼 대해서는 안 될 걸세. 우리는 고 해나 속죄를 마친 뒤, 축제가 열리고 거래가 이루어지며 때때로 살인이 일어나기 도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세. 우리는 죄를 고해나 제 물을 통해 다시 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짧은 순간의 악몽처럼 체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세.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네. 우리는 결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세. 우 리는 언제나 죄인인 것일세. 우리는 죄 속에서 우리 양심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살 고 있는 것일세.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죽은 뒤 하느님께서 우리 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은총 속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우 리의 그 큰 죄 값을 다 치를 수가 없는 걸세. 요제프, 이게 바로 내가 자네나 내 자 신한테 훈계를 할 수 없고 또 참회를 명할 수 없는 이유일세.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저런 일탈행위나 악행이 아니라 언제나 원죄 그 자체인 것일세. 이런 까닭에 우리들 각자는 상대방에게 이해심과 동료애를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뿐, 벌로써 상대방을 고칠 수는 없는 걸세. 대체 자네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 요제프는 낮은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두도록 하세." 노인은 짧게 말하고는 자신의 움막 앞에 있는 돌 쪽으로 걸어갔다. 평소 거기 앉아서 기도를 올리곤 하던 바로 그돌이었다.

몇 해가 지나갔다. 디온 고해 신부는 때때로 노약 때문에 시달리게 되었다. 요제 프는 아침에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뒤 디온은 기도하러 갔다. 기도를 마친 뒤에도 디온은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다. 요제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이면 그는 하루 종일 앉아서 먼 곳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다른 날에는 또 노인은 혼자 일어날 수가 있었다. 고해를 듣는 일도 노인은 매일 할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요제프한테 고해를 하게 되었을 때면, 디온은 그 사람을 나중에 자기 곁으로 불러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마지막일세, 여보게. 마지막이란 말일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게. 자네 요제 프가 내 후계자라고 말일세." 요제프가 말을 가로막으며 무슨 말참견을 하려 들면 노인은 예의 그 무서운 눈초리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서릿발처럼 사람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눈빛이었다.

디온이 요제프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느 때보다 더 기력이 있어 보였던 어느 날 디온은 요제프를 자기 곁으로 불러서는 그들의 작은 텃밭 가장자리에 있는 어느 장소로 데리고 갔다.

"이곳이" 디온이 말했다. "자네가 나를 묻어야 할 장소일세. 우리 함께 무덤을 파도록 하세. 아직 얼마간의 시간은 남아 있을 걸세. 삽을 가져오게."

그들은 이제 매일 새벽 조금씩 무덤을 팠다. 기력이 좀 있는 날이면 디온은 직접 몇 삽의 흙을 파내었다. 매우 힘들어했으나 그 일이 즐거운 듯 어느 정도 명랑한 기분까지 보이고 있었다. 그런 명랑한 기분은 낮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제 더이상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무덤을 파는 일을 시작한 이후 그는 언제나 밝은 기분이었다.

"내 무덤 위에 야자나무 한 그루를 심어 주게." 디온은 어느 날 무덤을 파던 중에 말했다. "잘하면 자네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될 수도 있을 걸세. 자네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걸세. 나는 가끔씩 나무를 심었네. 하지만 아주 적은 수였네. 너무도 적은 수였네. 사람은 나무를 심지 않고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고들 말하고 있네. 그래서 나는 나무 한 그루와 자네를 이렇게 남기는 것일세. 자네는 내 아들일세."

디온은 평정한 기분이었으며 요제프가 지금껏 보아 온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은 기분이었다. 그는 점점 더 밝은 기분이 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날 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식사를 마쳤고 저녁기도도 끝냈다. 디온은 침 실로부터 요제프를 불러서는 잠시 자기 곁에 좀 앉아 있으라고 부탁했다.

"자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좀 있네." 디온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은 피곤하지 않고 졸음도 별로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였다. "자네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요제프? 일찍이 자네가 가자 근처에 있는 자네 움막에서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자네 인생에 대해 염증을 느끼게 되었던 일을 말일세. 그 뒤 도망 길에 나섰던 일과, 늙은 디온을 찾아가 자네 이야기를 털어놓으리라 결심했던 일을 말일세. 그런 뒤 은둔자들의 마을에서 노인을 만나 그에게 디온 푸길이 사는 곳을 물었던 일도 말일세.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걸세. 그런데 그 노인이 바로 디온 자신이었다고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내이게 자네한테 이야기하겠네. 나에게도 그것은 기이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었네.

참회자요 고해 신부인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늙게 되고, 그를 아무런 죄도 없는 성자로 여기며 그가 자신들보다도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의 그 많은 고해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네는 알고 있을 걸세. 그때면 그에게는 자신의 모든 행위가 무용하고 허황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일세. 한

때 그에게 성스럽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즉 하느님이 그를 인간 영혼의 더러움과 불안을 듣고 그것을 가볍게 해 주는 그런 자리에 앉힘으로써 그의 진가를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그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너무나도 커다란 점으로, 아니 하나의 저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일세. 결국 그는 자질구레한 죄들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가련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걸세. 그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게 되며, 자기 자신도 없어지기를 바라게 되네. 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아서라도 말일세. 자네의 사정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었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도 고해의 시간이 다가왔네. 그래서 이렇게 고해하는 것일세. 나의 사정도 자네와 꼭 마찬가지였네. 나 역시 무용하고 정신적으로 무기력한 존재가 돼 버린 것으로 생각했으며, 신뢰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고 나 또한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생활의 온갖 불안과 악취를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요제푸스 파물루스라는 어떤 참회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가끔 듣고 있었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에게도 사람들이 즐겨 고해하러 간다는 것이었네. 그는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보다그한테 더 즐겨 찾아간다는 것이었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요구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나무라지도 않고 형제처럼 대하고 그저 듣기만 하고는떠나보낼 때는 입을 맞춰 준다는 이야기였네. 자네도 알고 있지만 그건 내 방식이아니었네. 처음 요제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방식이오히려우둔하고 너무도유치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네. 그러나 내 자신의 방법이도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몹시 의문스럽게 되어 버린 순간에 와서는 이 요제프의 방식에 대해 무슨 평가를 내리거나 그에 대해 우월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게 되었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하고 생각해 보았네. 그가 나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이미 노년의나이에 가까이 이르러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네. 이런 사실이 내 마음에 들었네. 젊은 사람이었더라면 아마도 그렇게 쉽게 신뢰감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일세.

그러나 나는 이 사람한테로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네. 그래서 나는 결심했네. 요제푸스 파울루스를 찾아가 그에게 나의 어려운 사정을 고백하고 조언을 구하기로, 또는 그가 아무런 조언도 해 주지 않는다면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라도 듣고 오리라고 말일세. 이렇게 결심을 하자 벌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이었네.

그런 뒤 나는 길을 나섰으며, 그의 움막이 있다는 곳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걸었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수도자 요제프도 나와 똑같은 것을 체험하고 나와 똑같이 순례의 길에 나섰던 것이었네. 상대방한테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각자가 다 순례의 길에 올랐던 것이었네. 그 후 내가 미처 그의 움막을 발견하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처음 몇 마디 말을 나누고서 진작 그를 알아보았네. 그는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 그대로였네. 하지만 그는 도망 길에 들어서 있었네. 그의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네. 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좋지 않았네. 그는 남들의 고해를 들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 스스로 고해하고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토로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네. 이런 사실은 그 순간 나에게 크나큰 실망이었네. 나는 몹시 슬펐네. 나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이 요제프도 자신의 일에 염증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의미에 절망을 한 것이라면 ㅡ이것은 우리 두 사람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두 사람이 다 인생을 잘못 살아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었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니 간단하게 말하겠네. 그날 밤 자네가 수도자들한테로 가서 묵을 곳을 찾았던 동안 나는 그 마을 어귀에 혼자 남아 있었네. 나는 명상을 했으며, 이 요제프의 마음속을 깊이 헤아려 보았네. 도망 길에 올랐던 것이 쓸데없는 일이었으며 푸길을 믿었던 것도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면, 푸길 역시 도망자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는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네.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요제프가 더욱더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를 그와 함께 나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네.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네. 밤이

벌써 반이나 지나간 시간이었네. 다음 날 자네는 나와 함께 순례의 길에 올랐고 내 아들이 되었네.

이것이 바로 내가 자네한테 하려고 했던 이야기일세. 자네. 울고 있는 건가. 실컷 울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걸세. 이왕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마당이니 조금만 더 참고 이 이야기도 마저 들어서 가슴 깊이 새겨 두게. 인간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존재일세. 별로 믿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일세. 그래서 가능한 일인데. 장차 또 어느 때가 되면 이전의 고통과 유혹이 또다시 자네를 덮치고 압도해 버리 려 할 수 있을 걸세. 그때 우리 하느님께서 내게 자네 같은 아들을 주셨듯이 자네 한테도 친절하고 참을성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양아들을 하나 보내 주셨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나 옛날 악마가 자네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던 그 나무 가지와 그 가련한 가롯 유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 한 가지를 말해 줄 수 있네. 우리의 구 세주로서는 그런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이긴 하지만 스스로 그런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죄악이거나 우둔한 짓인 것만이 아닐세. 어떤 사람이 절망 때문에 죽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 걸세. 하느님이 우리 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닐세. 우리 가슴속에서 새로 운 생명을 불러내기 위해 절망을 보내는 것이라는 말일세.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 게 죽음을 보내면, 요제프, 그분이 대지와 육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저 위의 세 계로 불러들이면, 그것은 하나의 큰 기쁨일세, 피로해졌을 때 잠잘 수 있는 것, 아 주 오랜 세월 동안 지고 왔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소중하고 경이로 운 일일세. 우리가 무덤을 파게 된 이후—무덤 위에 심을 야자나무를 잊지 말게—. 무덤을 파는 일을 시작하고 난 이후 나는 과거 여러 해 동안 그랬던 것보다 더 즐 겁고 만족스런 기분이었네.

여보게, 이야기를 오래 했네. 피로할 걸세. 가서 자게. 자네 움막으로 가게. 하느님의 가호가 자네와 함께하길 비네."

다음 날 디온은 아침기도에 나오지 않았고 요제프를 부르지도 않았다. 불안한 생각이 든 요제프가 디온의 움막 안 침상가로 가 보았을 때 노인은 영면에 들어있었고, 그의 얼굴은 천진스럽고 잔잔히 빛나는 미소로 환한 모습이었다.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요제프는 노인을 묻고 무덤 위에 야자나무를 심었으며, 그 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달린 해까지 살았다.

인도식 전기

비슈누 신이 벌였던 무자비한 악마토벌 전쟁들 가운데 어느 한 전투에서 비슈누 가. 아니 라마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된 비슈누의 한 부분이 쏜 초승달 모양의 화살 을 맞고 죽게 되었던 마왕들 가운데 하나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끝없는 생성의 윤회의 흐름 속에 들게 되어 라바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대 갠지스 강 가에서 호 전적인 왕이 되어 살고 있었다. 이 왕이 바로 다자의 아버지였다. 다자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다. 계모로 들어온 아름답고 야심에 찬 여자가 왕의 아들을 낳게 되자마 자 어린 다자는 그녀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장자인 다자 대신 자기 자 신의 아들인 날라가 장차 지배자가 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녀는 다자를 아버지와 멀어지도록 하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바로 다자를 제거해 버리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라바나의 궁정 브라만 승 려들 가운데 한 사람인 제사장 바수데바는 이 같은 그녀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 었다. 그래서 이 현명한 사람은 그녀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소년이 불쌍하게 생각되었다. 또한 이 어린 왕자가 어머니로부터 경건성 에 대한 자질과 정의감을 물려받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제사장 바수데바는 다자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자를 계모로부터 도 망시킬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바나 왕은 브라만 신에게 바쳐진 한 무리의 소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들은 신성하게 길러지고 있었으며 젖과 버터는 자주 브라만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다. 소들은 나라 안의 가장 좋은 풀밭에서 길러지고 있었다. 브라만 신에게 바쳐진 소들을 지키는 목동들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와서 한 짐의 버터를 내려놓으며 보고했다. 소떼가 지금까지 풀을 뜯고 있었던 지방에 장차 가뭄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목동들은 아무리 가문 때라 하더라도 물과 신선한 풀이 모자라게 되지않을 산지 쪽으로 소떼를 이동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이야기였다.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목동에게 궁정대신 바수데바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목동은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다음 날 라바나의 아들인 어린 다자가 사

라져 버리고 어디에서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을 때, 다자가 사라져 버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바수데바와 목동뿐이었다. 소년 다자는 목동과 함께 야산지 대로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소떼와 만나게 되었다. 다자는 즐겁고 상냥한 태도로 소떼와 목동들과 어울리며 소치기 소년으로 성장했다. 소를 지키고 내모는 일을 거들고 젖 짜는 법을 배웠다. 송아지들과 함께 뛰놀고 나무 밑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했다. 맛좋은 우유를 마시고 맨발에 소똥을 묻히 기도 했다. 다자는 이런 생활이 정말 좋았다. 목동과 소와 그들의 생활을 알게 되고 숲과 나무들과 열매들을 알게 되었다. 망고 나무, 산무화과 나무, 바링가 나무를 좋아했으며, 녹색 빛의 산 속 못에서 맛좋은 연뿌리를 건져 올렸다. 축제일이면 '숲속의 불꽃'이라는 나무의 빨간색 꽃으로 만든 화환을 머리에 썼고, 사나운 짐승들을 조심하고 호랑이를 피하는 법, 영리한 족제비나 명랑한 고슴도치와 재미있게 노는 법, 어두컴컴한 대피소에서 장마철을 넘기는 법 등을 배웠다. 대피소에서 소년들은 어린이놀이를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바구니, 갈대 자리 등을 짜기도 했다. 다자가 이전의 고향과 이전의 생활을 완전히 잊게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다자에게 꿈속 같은 일이 되어 버렸다.

소떼가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어느 날 다자는 숲속으로 갔다. 꿀을 딸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숲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숲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었다. 더 군다나 이곳 숲은 대단히 아름다운 숲인 것 같이 보였다. 나뭇잎과 나무 가지들 사이로 햇빛이 황금색 뱀처럼 구불구불 비쳐들고 있었다. 새들의 울음소리, 나뭇잎 들이 속삭이는 소리, 원숭이들의 울음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들이 이리저리 얽히 고설켜 나뭇가지들 사이를 흐르는 햇빛의 소리와 비슷하게 아름답고 부드럽게 빛나는 직물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냄새들, 꽃과 나뭇가지들과 나뭇잎과물과 이끼와 동물들과 열매들과 흙과 곰팡이의 냄새들도, 텁텁한 냄새와 감미로운 냄새, 거친 냄새와 은근한 냄새,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냄새, 졸음이 솔솔 오게 하는 냄새, 기분 좋은 냄새와 답답한 냄새도 풍겨 나와 서로 얽혔다가는 또다시 흩어지고 있었다. 눈길이 미치지 않는 숲속 골짜기에서는 가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하얀 산형화 위에서는 검정 색과 노란색 반점이 있는 녹색 비

단 빛깔의 나비 한 마리가 이리저리 날고 있기도 하고, 푸르스름한 그늘이 진 숲속 에서는 나뭇가지 하나가 깊은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있기도 했다. 떨어지는 나뭇 잎은 무겁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맹수 한 마리가 포효하 기도 하고, 화내기 좋아하는 암놈 원숭이 한 마리가 새끼 원숭이들을 나무라고 있 기도 했다. 다자는 꿀 찾는 일을 잊어버렸다. 알록달록한 빛을 띠고 있는 몇 마리 참새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 다자는 큰 숲 속의 빽빽한 작은 숲 인 듯 서 있는 높게 자란 고사리식물들 사이로 발자국 같은 것이 나 있는 것을 보 게 되었다. 길 같은, 아주 작고 좁은 오솔길 같은 것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 조심 들어서서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줄기가 많은 어느 나무 아래로 작은 오두막집 이 하나 나왔다. 끝이 뾰족한 천막 같은 모양이었으며, 고사리식물을 엮어 지은 집 이었다. 오두막집 옆 땅바닥 위에 어떤 사람이 몸을 똑바로 세운 자세로 조금의 움 직임도 없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두 손을 가부좌를 튼 발 사이에 가만히 올 려놓고 있었다. 흰 머리카락과 넓은 이마 아래에서는 조용하면서도 아무런 시선이 담겨 있지 않는 두 눈이 땅을 향하고 있었다. 뜨고 있기는 했으나 내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자는 이 사람이 성자이며 요가수행자라는 것을 알았다. 다자가 요가수행자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요가수행자들은 신들의 은총을 받 고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시주를 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좋 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답고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사리식물 오두막집 앞에서 조용히 손을 올려놓은 채 똑바른 자세로 앉아 명상에 잠기고 있는 여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른 어떤 수행자들보다도 더 소년의 마음에 들었으며. 더 신비스럽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마치 허공중에 떠 있기라도 하 듯이 앉아 있으며, 초탈한 눈빛이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또 모든 것을 헤아리 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주위에는 어떤 성스러운 기운이, 어떤 강력한 위 엄의 기운이, 거센 파도와 불길 같은 집중된 열기와 명상의 힘이 감돌고 있는 것이 었는데 소년으로서는 이런 기운과 파도, 불길을 뚫고 지나가거나, 또는 인사를 하 거나 부름으로 해서 그것을 부숴 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감히 가질 수가 없었다. 수 행자의 모습이 보여 주는 위엄과 위대성, 그의 얼굴이 빛을 발하도록 해 주고 있는 내면으로부터의 빛, 그의 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정신집중과 철석같은 단호함은 파도와 빛을 발산하고 있었으며, 그 파도와 빛의 한가운데에서 그는 마치 달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쌓이고 쌓인 정신력과 조용한 가운데 집중된 의지는 강력한 마법의 원을 그의 주위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은 그저 바라기만 하거나 생각을 하기만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서도 사람을 죽이고 또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숨을 쉬느라 잎이나 가지를 움직이기는 하는 그런 나무보다도 더 움직임이 없이. 돌로 만들어진 신상(神像)처럼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요가수행자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소년도 수행자를 목격하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땅바 닥에 박혀 버리기라도 한 듯, 밧줄에 꽁꽁 묶여 버리기라도 한 듯, 마법에 걸려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라도 한 듯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소년은 선 채로 요가수행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 점 햇빛이 수행자의 어깨 위에. 또 한 점 햇빛 이 조용히 내려놓은 그의 두 손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의 자국들 이 천천히 이동해 가고 새로운 빛의 자국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소년은 선 채 놀라워하는 가운데 깨닫기 시작했다. 햇빛은 이 수행자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숲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나 원숭이들의 울 음소리도, 명상에 잠겨 있는 이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아 살갗에서 냄새를 맡고 뺨 위를 따라 얼마를 기다가는 다시 날아올라서 가 버리는 갈색의 숲속 벌도. 숲속의 다양한 활동 전부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이, 눈에 보이 고 귀에 들리며 아름답거나 추하고 사랑스럽거나 공포감을 자아내는 그 모든 것이 이 신성한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비가 내려도 이 사람은 추워하거 나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불길이 있어도 이 사람은 태워질 수가 없으리라는 것을 다자는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에게 있어 주위의 전체세계는 피상이, 무의미가 되 어 버린 것이었다. 어쩌면 실제로 이 전체세계는 그저 유희이고 피상일 뿐이며, 무 한히 깊은 심연 위를 스치는 바람결이고 잔물결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관념 으로서가 아니라 육체적인 전율과 가벼운 현기증으로서 목동 왕자를 덮쳐 오는 것 이었는데, 그것은 공포와 위험에 대한 느낌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간절한 욕

망 속에서 마음이 이끌리는 것에 대한 느낌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목동 왕자 다자 가 느끼기에 이 요가수행자는 세계의 표면을 지나, 피상적인 세계를 지나 존재의 근원으로, 만물의 신비로 깊이 침잠한 것이었으며, 감각세계의 마법의 그물과, 빛 과 소리와 색과 감각의 유희를 부숴 자신으로부터 떨쳐 버리고서 본질적인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속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채 머무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 다. 일찍이 브라만 승려들에 의해 교육을 받고 정신적인 등불의 빛을 더러 선사 받 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소년은 지금의 느낌을 이성으로써 이해하지 않았으며, 그 런 까닭에 그것을 무슨 말로써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자는 축복 받 은 시간에 사람들이 신의 체취를 느끼듯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요가수행자에 대 한 경외심과 존경심의 전율로서 다자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명상을 하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생활에 대 한 동경으로서 그는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다자는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이 노인 을 통해 자신의 출신과 왕국을 회상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 는 가운데 고사리식물 숲의 가장자리에 서서, 날아가는 새와 부드럽게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는 나무들과 숲과 먼 곳에 있는 소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 울이지 않은 채 마법에 흠뻑 젖어. 명상에 잠겨 있는 그 은둔자를 바라보고 있었 다. 수행자의 말할 수 없이 조용하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자태, 밝고 차분한 얼 굴. 힘과 정신집중이 넘치는 태도 완전한 헌신을 보여 주는 봉사에 깊이 마음을 빼 앗긴 채 다자는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오두막집 옆에서 보낸 시간이 두세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며칠이었는지 다자는 후에 정확히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 마법에서 다시 풀려나 고사리식물 사이로 난 길을 다시 조용히 빠져 나와서 숲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고, 다시 탁 트인 목초지와 소떼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다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마법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다. 목동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불렀을 때야 비로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나무라는 말을 하면서 목동은 다자를 맞았다. 나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크게 뜬 채 놀라

워하는 표정으로 다자가 쳐다보자 목동은 소년의 전혀 예사롭지 않은 달라진 눈빛과 심각한 태도를 이상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내 말을 멈추었다. 그러나 잠시 뒤 목동은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봐, 대체 어딜 갔다 온 건가? 무슨 신이라도 본 건가? 아니면 악마를 만나고 온 건가?"

"숲속에 갔다 왔습니다." 다자가 말했다. "자꾸 그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꿀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한 은둔자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 앉아 있었는데, 명상에 빠져 있거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보고 또 그의 얼굴이 광채를 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입니다. 저녁때 그리로 가서 그분께 시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성자이십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목동이 말했다. "그분께 우유와 맛좋은 버터를 갖다 드려라.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께, 성자들께 시주를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분을 부를 필요는 없다, 다자. 그분 앞에서 몸을 굽혀 인사하고 그분 앞에 시주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그래서 다자는 그렇게 했다. 그 장소를 다시 찾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두막집 옆의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다자는 감히 오두막집 안으로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자는 오두막집 출입문 앞 땅바닥 위에 시주를 놓고 물러나왔다.

목동들이 소떼와 함께 근처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이제 다자는 매일 저녁 그곳으로 시주를 들고 갔다. 어느 땐가는 낮에도 다시 한 번 거기로 가 보았다.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분은 명상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다자는 축복 받은 관찰자가 되어 이 성자의 힘과 지복의 상태가 발산하는 빛줄기를 받아들이고 싶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이 지방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을 도와 소떼를 새로운 목초지로 이동시킨 이후에도 다자는 숲속에서의 그 체험을 오래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자는, 가끔 소년들이 혼자 있게 될 때 흔히 그렇게 하

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은둔자나 요가수행자로 상상해 보는 꿈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런 기억과 상상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다. 이제 다자는 빠른 속도로 건장한 젊은이로 성장해 가고, 그래서 같은 연배들과의 놀이나 싸움에 신나는 기분으로 열심히 몰두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곁을 떠나 버린 왕자 신분과 왕의 신분이 장차 언젠가 요가수행자의 기품과 강한 힘으로 대체되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한 가닥 생각과 어렴풋한 예감이 남아 있었다.

그들이 도시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던 어느 날 목동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도시에서 곧 굉장한 축제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도시에서 들고 왔다. 이전의 왕성하던 기력을 잃어 쇠약해진 늙은 왕 라바나가 아들 날라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선포될 날을 정하게 된 것이었다. 다자는 축제에 참가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린시절의 기억이 조금도 가슴속에 남아 있지 않는 그 도시를 한번 구경하고 풍악소리를 듣고 축제행렬과 귀족들의 무술시합을 구경하고, 또한 도시사람들과 위대한사람들의 그 미지의 세계를, 전설이나 동화 속에서 그렇게도 자주 묘사되고 있으며, 이것 역시 그저 전설이거나 동화이거나 또는 그보다도 더 못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한때, 옛날에 자신의 세계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세계를 한번두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축제날 제물로 쓸 버터 한 짐을 궁정으로 운반하라는 명령이 목동들에게 떨어져 있었는데 다자는 이 임무를 위해 목동장이 지명한 세 사람 가운데 들게 되어 기뻐했다.

버터를 운반하기 위해 그들은 축제 전날 궁정에 도착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 까닭에 궁정 브라만 승려 바수테바가 그들로부터 버터를 수령했으나 바수데바는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 뒤 세 목동은 대단한 열성으로 축제에 참가했다. 이른 아침부터 벌써 브라만 승려의 지휘 하에 제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으며, 황금색으로 빛나는 버터가 다량으로 불길에 싸여서 하늘을 태울 것 같은 불꽃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았다. 번쩍번쩍 빛나는 불꽃과 기름기를 잔뜩 머금은 연기가서른 신들의 마음을 달래며 무한한 세계를 향해 높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축제행렬 가운데서 탄 사람이 앉는 평평한 자리 위쪽에 황금색 도금을 한 지붕

이 있는 코끼리들과, 꽃으로 장식이 된 왕의 마차와 젊은 왕 날라를 보았고 우렁차 게 울리는 북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것이 아주 대단하고 화려하긴 했지만 약간은 가소로운 것이기도 했다. 젊은 다자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되었다. 시끌벅적한 소리, 마차와 화려하게 장식된 말, 그 모든 화려함과 휘황찬란한 사치에 다자는 매 혹 당하고 황홀해하고, 아니 도취해 있고 왕의 마차에 앞서서 연꽃 줄기처럼 늘씬 하고 탄력 있는 사지로 춤을 추며 나아가고 있는 무희들에 아주 넋이 빠져 있고, 도시의 큼과 아름다움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도 취와 기쁨의 한가운데에서도 다자는 다소간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도시 사람을 싫어하는 목동의 냉정한 감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이 태자라는 것. 기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이복동생 날라가 자신의 눈앞에서 향유를 바르 고 왕위에 올라 찬미되고 있다는 것, 사실은 그 자신이, 다자가 이 날라 대신에 꽃 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행진을 했어야 한다는 것 등을 다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 고 있었다. 그러나 물론 그 어린 날라는 전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날라는 그 버릇없는 태도로 보아 우둔하고 심보가 고약한 것처럼 보였으며, 턱없이 잘난 척 으스대는 꼴로 보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허황된 것처럼 보였다.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새파란 녀석을 한번 혼내 주고 또 한 수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었으나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도통 오지 않았다. 보고 듣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 았기 때문에 그는 이내 다시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도시처녀들은 아름 다웠고 대담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눈빛과 동작과 말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세 목동은 여러 가지 말들을 얻어들을 수 있었는데, 이 말들은 오래도록 그들의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었다. 목동들이 도시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 찬가지 방식으로 도시사람들도 목동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말 속에 조롱기가 담겨져 있기는 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처녀들에게 있어서는 우유와 치즈를 먹고 자란. 사시 사철 거의 언제나 드넓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이 멋있고 당당한 젊은이들이 아 주 마음에 드는 것이었다.

축제에서 돌아왔을 때 다자는 이제 성인이 되어 처녀들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게 되

었고. 그러다보니 다른 청년들과 여러 차례 심한 주먹싸움과 격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은 다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평평한 목초 지가 있고 꼴풀과 대나무 사이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는 지방이었다. 이곳에서 다 자는 프라바티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처녀를 만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처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프라바티는 소작인의 딸이었다. 다자는 너 무도 깊이 사랑에 빠진 나머지 다른 모든 일을 잊고 포기해 버린 채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얼마 후 목동들이 다시 그 지방을 떠나게 되었을 때 다자는 그들의 경고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동들과, 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목동 생활과 작별을 하고서는 정착해 프라바티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다. 그는 장인의 수수밭과 벼논을 갈고 물방앗간 일과 나무하는 일을 도왔으며, 아내를 위 해 대나무와 진흙으로 오두막집을 지어서는 그 안에 아내를 가두어 두었다. 젊은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과 친구들과 생활습관들 을 포기하게 하고 생활을 바꾸게 하여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별로 부러울 것도 없 는 사위의 역할을 떠맡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힘임에 틀림이 없다. 프라바 티의 아름다움은 그토록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과 사지에서 발산되 는 은근한 애욕의 약속은 너무도 크고 유혹적이었기 때문에 다자는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눈이 멀게 되고 아내에게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실제 로 그는 그녀의 품안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다. 많은 신들이나 성 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들과 성자들은 매혹적인 한 여자 한테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된 나머지 여자를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끌어안고 있었고. 애욕에 깊이 빠져 다른 모든 일은 다 잊어버린 채 자나 깨나 그 녀와 늘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아마도 다자 역시 자신의 운명과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운명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의 행복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대략 1년쯤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기간마저도 온통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장인의 귀찮은 요 구들, 처남들의 빈정거림, 나이 어린 아내의 이런저런 변덕 등 여러 가지 다른 일 들도 끼여 들어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침대로 찾아들기만 하면 그 모 든 것은 바로 잊혀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 버렸다. 아내의 미소는 그토록 매혹적인 힘으로 그의 마음을 끌어당겼고, 그녀의 늘씬한 사지를 애무하는 일은 너무도 감미로운 것이었고, 그녀의 싱싱한 육체에서 느끼는 쾌락의 뜰은 수천 가지 꽃과 향기와 그늘로 피어나고 있었다.

이 같은 행복이 아직 일 년도 채 계속되지 않았을 때의 어느 날, 그 지방은 부산스 럽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말을 탄 전령들이 나타나서 젊은 왕 의 행차를 알렸다. 신하들과 말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서 젊은 왕 날라 자신이 나 타났다. 이 지방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곳저곳에 천막이 쳐지고, 말이 우 는 소리와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자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밭에서 일하고 물방앗간 일을 돌보면서 사냥꾼들과 귀족들을 피했다. 하지만 그러 던 어느 날 다자는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그 즈음 바깥출입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었던 아내가 집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가슴속을 쿡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으며 불행이 자신의 머리 위로 덮쳐오고 있는 것을 예감했다. 장 인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다. 거기에도 프라바티는 없었다. 그녀를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한 압박감은 더욱 커져 갔다. 다자는 배추밭과 논밭을 샅샅이 다 뒤져보았다. 그는 하루 종일 이틀 더 자신의 오두막집 과 장인의 집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논밭들을 뒤져보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살펴보고 했으며, 기도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고 달래는 말을 하거나 욕을 퍼부어대며 그녀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아직 어린아이로 나이가 가장 적은 처남이 마침내 그에게 프라바티는 왕한테 가 있다고, 왕의 천막 안에서 지내고 있다고, 왕 의 말을 타고 가는 그녀를 보았다고 말해 주었다. 다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날라의 천막 주위에서 엿보고 있었다. 그는 투석기를 들고 있었다. 옛날 목동 시절에 사용하던 것이었다. 낮이건 밤이건 일순간이라도 왕의 천막을 지키는 사람 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면 다자는 바로 천막을 향해 몰래 접근해 갔다. 그러나 그 럴 때면 언제나 곧바로 보초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도망을 치지 않을 수가 없었 다. 어느 나무의 가지 속에 몸을 숨긴 채 다자는 왕의 천막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왕의 얼굴 모습이 보였다. 도시에서 열렸던 예의 그 축제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기분 나쁜 얼굴이었다. 왕이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돌아온 왕이 말에서 내려 천막의 천을 들어 올렸을 때 어떤 젊은 여자가 천막 안 그늘 속에서 몸을 움직이며 돌아온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다자의 눈에 들어왔다. 그 젊은 여자가 자신의 아내 프라바티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다자는 하마터면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다. 이제 다자는 확신했다. 가슴을 누르는 압박감은 더욱 강해졌다. 프라바티와의 사랑이 가져다 준 행복감이 컸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고통, 분노, 상실감, 모욕감이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커졌다.한 인간이 사랑의 힘을 단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게 되면 사정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의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는 가련한 모습으로 폐허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

하룻낮, 하룻밤 동안을 다자는 근처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다. 잠시 쉬기라 도 하면 그때마다 가슴속의 비참한 기분이 피로에 지친 그를 다시 내몰아대었다. 그는 달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계의 끝까지, 가치와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게 된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달리고 걷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 다. 하지만 그는 먼 세계로, 미지의 세계로 달려가지는 않았다. 자신의 불행의 언 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으며, 자신의 오두막집과 물방앗간과 논밭과 왕의 사냥 용 천막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결국 그는 다시 왕의 천막을 덮고 있는 나무 위에 몸을 숨기고. 굶주린 맹수처럼 나뭇잎 속 은신처에 쪼앉은 채 비참하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온 힘을 다 긴장 시켜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이 다가왔다. 왕이 천막 앞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 순간 다자는 조용히 나뭇가지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투석기를 꺼내고. 투석기로 돌멩이 를 날려 철천지원수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었다. 원수는 뒤로 벌렁 넘어져 조금 의 움직임도 없이 땅바닥에 등을 댄 채 나자빠져 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자의 온 감각을 휘감고 도는 폭풍 같은 환희와 복수의 쾌감 사이 를 뚫고 일순간 놀랍고도 이상스럽게 깊은 적막감이 파고들어 왔다. 죽은 사람의 주위가 미처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하인들이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하기 전에 다자 는 숲속으로, 산골짜기 쪽으로 이어져 있는 대나무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무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동안, 행동의 열기에 취해 투석기를 빙빙 돌려 죽음의 돌을 날리고 있는 동안 다자는 날리고 있는 그 돌과 함께 자기 자신의 생명도 함께 없애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내보내는 것 같은 기 분이었다. 철천지원수가 자기 앞에서 쓰러지기만 한다면 파멸을 해도 좋다는 각오 로 날아가는 그 죽음의 돌과 함께 자기 자신을 파멸의 심연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의 뒤를 이어 예상치 못한 정적의 순간이 나타 나게 된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생명에의 욕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심연으로부터 그를 다시 잡아챘고. 원초적인 본능 이 그의 온 감각과 사지를 사로잡아서는 나무숲 속으로. 대나무숲 속으로 찾아들 라고 일렀고, 눈에 띄게 되지 않도록 도망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이었다. 은신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르러 우선 위험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다자는 자 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렴풋이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몹시 지친 채 품썩 주저앉아 서 호흡을 고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사이에, 힘이 쑥 빠져나가는 가운데 행동으 로 인한 흥분상태가 점차 사라지고 냉정한 기분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사이 에 다자는 우선 자신이 목숨을 부지해 도망쳐 나온 것에 대해 실망감과 불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호흡이 진정되고 피로로 인한 현기증이 사라지게 되자 미적지근하 고 불쾌하던 느낌은 고집스런 기분과 생에의 의지에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자 자 신의 행동에 대한 거친 쾌감이 다시 한 번 더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왔다.

얼마 있지 않아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살인자에 대한 수색과 추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호랑이들이 있을까봐 사람들이 깊이까지 찾아보려 하지 않았던 그 은신처에 그저 소리 내지 않고 머물러 있으므로 해서 다자는 수색과 추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잠을 조금 자고난 뒤 다시 주위를 살피며 엎드려 있었다. 그는 계속 걸어가고 또 쉬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사흘째 되는 날 이미 여러 언덕을 넘어와 있었던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높은 산지지대로 걸어 들어갔다.

다자는 이곳저곳 정처 없는 방랑 생활을 계속했다. 그로 인해 그는 더욱 강인해지고 침착해졌다. 더욱 현명해지고 더욱 체념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밤이면 거듭

거듭 프라바티와의 이전의 행복했던 생활에 대해 또는 지금에 와 그가 그렇게 부 르고 있는 것에 대해 꿈을 꾸었다. 자신의 추적과 도망에 대해서도 많은 꿈을 꾸었 다. 끔찍하고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꿈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이 숲 저 숲을 지나 그는 도망치고 있다. 뒤에서는 북을 치고 사냥 나팔을 불며 추격 자들이 쫓아오고 있다. 숲과 늪을 지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삭아서 갈라지고 있 는 다리를 건너며 그는 무엇인가를 나르고 있다. 보퉁이인지 꾸러미인지 둘둘 말 아 싼 것인지 덮어 싼 것인지 도통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어떤 것인데. 그에 대해 그 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것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다. 가치 있는 것이면서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 어떤 것, 보물 같은 것이다. 어쩌면 훔친 물건인지도 모른다. 어떤 천에, 프라바티의 축 제의상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검붉은 색과 하늘색의 무늬가 들어 있는 다채 로운 색깔의 천에 싸여 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보퉁이, 장물 또는 보물을 든 채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겪으며 도망치고 있다. 기어가고 있다. 아래쪽으로 깊이 늘 어진 나뭇가지들과 높이 치솟은 바위들 아래로 몸을 굽힌 채 지나가고 있으며, 뱀 들의 옆을 지나가고,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강물 위에 걸려 있는 현기증이 날 정도 로 좁은 다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 내몰리고 지친 그가 마침내 멈춰 선다. 꾸러미 를 묶고 있는 노끈의 매듭을 푼다. 차례차례 매듭을 푼 그는 천을 펼친다. 이제 그 가 들어 올려 떨리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자신의 머리다.

다자는 숨어서거나 방랑을 하면서 살았다. 사실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가능한 한 피하는 편이었다. 방랑을 하던 그는 어느 날 풀이 많이자라고 있는 어느 구릉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이 지방은 그로 하여금 아름답고 명랑한 기분을 가지게 했으며, 그를 잘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그에게 반갑게 인사를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바람결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풀꽃들이 피어 있는 목초지가나타났다가는 이내 다시 여러 그루의 뱃버들이 나타났는데 다자는 목초지와 뱃버들을 알아보았고, 그것들은 다자에게 사랑과 질투심, 증오와 복수 그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그 명랑하고 순진무구하던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 옛날 다자가 목동들과 함께 소떼를 지켰던 바로 그 목초지였다. 그건 그의 가장

명랑했던 젊은 시절이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세계의 저 깊고 먼 곳으로부터 그시절이 그를 건너다보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를 반겨 주고 있는 목소리들, 즉 은 빛으로 흔들거리고 있는 버드나무 사이를 흐르고 있는 바람, 작은 개천들의 명랑하고도 빠른 템포의 행진곡, 새들의 노랫소리 어리뒤영벌들이 황금빛 낮은 소리로내고 있는 윙윙거림에 대해 그의 가슴속의 감미로우면서도 슬픈 기분은 대답을 해주고 있었다. 이곳은 안식처와 고향의 여운과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떠돌이 목동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그에게 이곳만큼 자신에게 속하고 또 고향같이 느껴졌던 지역은 일찍이 없었다.

마음속의 그런 목소리들을 동행하고 그런 목소리들의 안내를 받아서. 고향에 돌아 온 사람의 기분과도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다자는 이 정겨운 지방을 걸어갔다. 끔 찍한 몇 달을 보낸 이후 처음으로 낯선 사람, 추격을 받는 사람, 도망자, 죽음에 내 맡겨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생각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명랑한 현재와 가까이 있는 사물에 완전히 마음을 내맡 긴 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처음으로 황홀한 기분으로 체험해 보는 이 새롭고 익숙하지 못한 영혼 상태에 대 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 탁 트인 기분에 대해. 아무런 긴장감도 수반되지 않 는 이 명랑한 기분에 대해. 주의 깊으면서도 감사에 찬 마음으로 이렇게 관조하며 즐기고 있는 것에 대해 다소 놀라워하면서 걷고 있었다. 녹색의 목초지 저 건너편 에 있는 숲 쪽으로, 나무들 아래쪽으로, 햇빛이 잘게 부서지고 있는 어두컴컴한 그 늘 쪽으로 그의 마음이 이끌리고 있었다. 이곳에 이르자 귀향과 고향의 기분이 더 욱 강화되면서 그의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두 발이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큰 숲 안에 있는 빽빽한 작은 숲 같은 고사리식물 숲을 지나 서 어느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이르게 되었다. 오두막집 앞 땅바닥 위에는 요가수 행자가 조금의 움직임도 없이 앉아 있었다. 일찍이 그가 지켜본 적이 있고 우유를 가져다 드린 적이 있는 바로 그 요가수행자였다.

다자는 마치 잠에서 깨어나기라도 하듯 멈춰 섰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전 모습 그대로였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으며, 살인이 일어난 것도 고통스

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시간과 인생이 수정처럼 단단히 굳 어서 정제되고 영원한 것이 되어 서 있는 것 같았다. 다자는 노인을 찬찬히 살펴 보았다. 옛날 처음으로 보았을 때 느꼈던 찬탄의 마음과 사랑과 동경이 다시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왔다. 다자는 오두막집을 바라보며 아마 다음번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수리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뒤 용기를 내 몇 발자국 내딛어서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안에 무슨 물건들이 있는지 둘러 보았다. 그리 많은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 지였다. 나뭇잎으로 된 잠자리와 물이 조금 든 호박바가지와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는, 나무 속껍질로 짠 망태기가 있을 뿐이었다. 다자는 망태기를 집어 들고 밖으 로 나가 숲속에서 먹을거리를 찾았고, 열매들과 맛이 좋은 송진을 구해서 왔다. 그 런 뒤 바가지를 들고 나가 맑은 물을 가득 퍼 담았다.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었다.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것은 이토록 적었다. 다자는 땅바닥에 쪼 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들고 있었다. 숲속에서 이처럼 아무 말 없이 조 용히 꿈에 젖어드는 것이 만족스러웠다. 그는 자신에 대해 만족해했고, 일찍이 소 년 시절에 평화와 행복, 고향과 같은 어떤 것을 느꼈던 적이 있는 이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온 마음속의 목소리들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후 다자는 말이 없는 그 요가수행자 곁에 머물렀다. 다자는 노인의 나뭇잎 잠자리를 새로 손보고, 그들 두 사람을 위해 먹을거리를 구하고, 얼마 뒤에는 낡은 오두막집을 수리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다 자신이 거처할 제2의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가 와 살고 있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도대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노인이 명상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두막 안으로 가서 자거나 약간의 음식을 먹거나 또는 숲속에서 약간의 산책을 하게 될 때뿐이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처럼 다자는 이 존경할 만한 노인 곁에서 살았다.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작은 가축, 아니 길이 잘 든 새나 족제비 같은 것이 사람들 곁에서 지내듯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시중을 들면서 살았다. 다자는 오랜 기간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항상 추격을 염두에 두고서 도망을 치며 숨어살았던 것이

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곁 에서 별로 힘들지 않는 일을 하며 지내는 이 조용한 생활은 한동안 그의 마음을 아 주 편안하게 해 주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잠자고,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이 전에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 았다. 마음을 채우는 동경이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곳에 머물러서 요가수행 자로부터 은둔자적 생활의 비밀을 전수 받고 그 자신 요가수행자가 되어 요가 수 행과 그것의 당당한 무념무상의 경지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때때로 존경하는 노인 의 자세를 모방해 가부좌를 튼 채 꼼짝 않고 앉아 미지의 초현실적인 세계를 바라 보며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가지지 않게 되는 일을 다자 는 이미 시작하고 있었다. 그럴 때면 대개 이내 피로를 느꼈다. 사지가 뻣뻣해지고 등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모기들 때문에 시달림을 당하게 되거나 살갗 위에 서 이상스러운 감각, 즉 가려움증이나 자극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문 에 그는 몸을 다시 움직이고 피부를 긁고, 그러다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 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때도 몇 번 있었다. 아주 가끔씩 몸이 살짝살짝 땅에 닿다가 다시 땅으로부터 부드럽게 떨어져 나와 마치 솜털처럼 둥실둥실 떠다니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꿈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바와 같 은 그런 텅 비고 가벼워지고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순간들이면 다자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떠다니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될 것인지에 대해. 그때면 자기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무게를 잃어버리고. 보다 크 고 보다 순수하며 태양과도 같은 생명을 호흡하며, 피안의 세계와 초시간적인 것 과 변화하지 않는 것에 의해 고양되고 흡수되어 함께 비상할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는 것에 대해 어떤 예감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의 일이 고 예감의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망한 채로 그런 순간들로부터 다시 평소의 익숙해 있던 세계로 돌아오게 될 때면 다자는 요가수행자를 스승으로 모 셔 그로부터 명상법과 여러 가지 비법들을 배워 자신도 요가수행자가 되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보아하니 노인이 장 차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한번 보아줄 것 같지도 않고, 장차 그들 사이에 무 슨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노인은 날과 시간, 숲과 오두막집의 피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의 피안에 있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노인이 한 마디 말을 했다. 이제 또다시 다자가 밤이면 밤마다 꿈 을 꾸게 되는 시절이 다가왔다. 때로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감미로운 꿈이었 고, 때로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무서운 꿈이었다. 아내 프라바티와 끔찍한 도 망자 생활에 대한 꿈이었다. 낮에 하는 일에 있어서도 다자는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을 오래 견뎌내지 못했고 여자들과의 애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숲속을 이리저리 많이 헤매고 다녔다. 그런 사 정이 된 데는 날씨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대 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날씨가 좋지 않은 어느 날의 일 이었다. 모기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었다. 다자는 지난밤에 다시 불안감과 압박 감을 뒤에 남기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내용을 더 이상 알 수는 없었으나 깨어나 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꿈은 비참한. 사실 허락되지 않고 몹시 부끄러운 옛날 상 태와 삶의 단계로의 회귀같이 여겨졌다. 다자는 암울하고 불안한 기분으로 온종 일 오두막집 주위를 맴돌거나 웅크리고 앉아 있고 이 일 저 일을 해 보기도 하고 몇 차례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아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불 안감이 덮쳐 오고 사지에서는 경련이 일어나고 발바닥은 개미라도 기어 다니는 듯 간질간질하고 목안에서는 불이 타고 있었다. 다자는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어 겁 먹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얼굴은 내면세계를 향하고 있는 눈을 한 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면 서도 명랑한 기운 속에 마치 한 떨기 꽃처럼 떠 있었다.

이날 요가수행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집 안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다자가 길을 막고 나섰다. 그리고는 괴로워하는 사람의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다자는 말했다. "선생님의 조 용한 기분을 방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마음의 평화를, 안정된 기분을 구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살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아 직 젊습니다만 이미 많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운명은 저를 가혹하 게 대했습니다. 저는 왕자로 태어났으나 목동들한테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목동 이 되어 자랐습니다. 어린 송아지처럼 유쾌하고 힘찼으며 마음은 순진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기 그지없는 그 녀를 보게 되었을 때 제 생명을 다 바쳐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얻을 수 없었더라면 아마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인 목동들을 버리고 떠났습니 다. 프라바티에게 구애를 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누구의 사위가 되어서 봉사했습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만 프라바티는 제 사람이었고 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가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 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의 품안으로 돌아갔으며.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으로 왕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어린 왕자인 저를 쫓겨나게 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자가 와서 프라바티를 빼앗아 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그 자의 품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 어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왕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뒤 저는 범죄자, 추격당하는 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뒤를 쫓고 있 었습니다.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때까지 제 인생은 단 한 시간도 안전한 것이지 못 했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인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사람들 에게 붙잡히면 사지를 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끔찍한 인생을 더 이상 견 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요가수행자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를 눈을 내려감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제 그는 눈을 뜨고서 다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밝고 파고드는 듯하고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고 온 정신이 다 모아져 있는 맑은 시선이었다. 다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며 빠른 속도로 쏟아놓은 그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 동안 노인의 입은 천천히 일그러져 미소가 되고 웃음이되었다. 소리 없이 웃으며 노인은 머리를 가로져었다. 그러다가는 소리 내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망이로다! 미망이로다!"

아주 어리둥절해진 기분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자는 계속 서 있었다.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노인은 고사리식물 숲 쪽으로 나 있는 그 좁은 길 위에서 약간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일정하고 리듬감이 있는 걸음걸이로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 다. 노인은 수백 걸음 정도 거닐고 나서 돌아와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얼굴은 다시 여느 때와 다름이 없었으며. 현상의 세계가 아닌 어떤 다른 세계로 향 하고 있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 얼굴이 불쌍한 다자의 이 야기에 답해 터뜨렸던 웃음은 대체 어떤 종류의 웃음이었던 것인가! 이에 대해 다 자는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자가 절망적인 기분으로 고백을 하고 애원을 한 순간에 터져 나왔던 그 무서운 웃음은 호의적인 것이었던가 아니 면 조롱하는 것이었던가.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던가 아니면 비난을 퍼붓는 것이었던가. 신적인 것이었던가 아니면 악마적인 것이었던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인의 냉소적인 투덜거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듣는 우둔한 인생에 대한 현인의 조롱이었던가. 거부이고 작별이 며 떠나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따라 다자도 함께 웃으라는 충고요 요구인 가. 다자는 도무지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밤늦도록 다자는 이 웃음에 대 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이, 그의 행복과 불행이 이 런 웃음으로 결론이 나고 만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딱딱하기는 하나 어떤 묘한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는 나무뿌리를 물어 씹듯이 다자의 생각은 온통 이 웃 음을 물고 늘어지고 있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다자는 노인이 그렇게도 밝은 목 소리로 뱉어놓았던 그 말을 물고 늘어지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집요하게 붙들고 있었다. 너무나도 명랑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족한 기분으로 노인은 웃음 과 함께 그 말을 뱉어놓았다. "미망이로다! 미망이로다!"라는 말이 의미하리라 싶 은 내용을 다자는 반쯤은 알고 있었고, 또 반쯤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소 리 내어 웃으며 노인이 그 말을 뱉어놓았던 방식도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 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자의 인생. 다자의 청춘. 다자의 감미로운 행 복, 비참한 불행, 이것은 미망이었다. 아름다운 프라바티는 미망이었다. 사랑과 사 랑의 기쁨은 미망이었다. 인생 전부가 미망이었다. 다자의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늙은 요가수행자의 눈으로 볼 때는 미망이고, 어린아이 장 난, 겉치레, 연극, 환상 같은 것이고, 어느 정도 황홀한 기분으로 조롱하면서 무시해 버릴 수는 있으되 결코 어떤 경우에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어떤 것이었다.

그런데 이 늙은 요가수행자에게 있어서는 다자의 인생이 그 웃음과 '미망'이라는 말로써 해결이 나고 또 끝난 것이었지만 다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사정이 그렇지가 못했다. 그 스스로 소리 내어 웃는 요가수행자가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그저 미 망으로서 인식하고픈 생각이야 간절했지만 불안에 찬 낮과 밤을 그렇게 여러 날 보내고 난 이후 그의 가슴속에는 도망자 시절이 끝나고 난 뒤 여기 이 은신처에서 한동안 거의 잊힌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일들이 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 다. 장차 실제로 요가수행법을 배우게 되거나 심지어 노인과 비견할 수 있게 될 가 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그렇다면 여기 이 숲속에 계속 머 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이곳은 하나의 피난처였다. 이곳에서 그는 어느 정도 편안히 지내왔으며 힘도 좀 모으게 되었고 어느 정도 정신도 가다 듬게 되었다. 이것 역시 가치 있는 일이었고 이것만해도 벌써 대단한 성과였다. 어 쩌면 그 사이 바깥 나라 안에서는 왕을 살인한 사람에 대한 추적이 끝난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별다른 위험 없이 계속 여행할 수 있었다. 다자 는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출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상은 넓은 것이었다. 여기 이 은신처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자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는 이른 새벽 시간에 떠날 생각이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잠을 자고 깨어나 보았을 때 해는 이미 하늘 위로 떠올라 있었고 요가수행자는 벌써 명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다자는 작별인사를 하지 않은 채로 떠나고 싶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부탁할 것도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몇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요가수행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지를 뻗치고서는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이때 다자는 노인 앞으로 다가가 몸을 굽혀 인사하고, 요가수행자가 무엇을 묻기라도 하는 것 같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때까지 몸을 굽힌 자세를 풀지 않고 있었다. "선생님." 다자는 공손하게 말했다. "저는 제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조용한 생

활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한번만 더 저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선생님께서는 소리 내어웃으시면서 '미망이로다'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망에 관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요가수행자는 오두막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노인은 물바가지를 집어 들어 다자에게 건네며 자신의 손을 씻으라고 명령했다. 다자는 순순히 그 명령을 받들었다. 그러고 난 뒤 요가수행자는 바가지에 남아 있는 물을 고사리식물에다 부어 버리고선 빈 바가지를 다자에게 건네며 맑은 물을 길어 오라고 명령했다. 다자는 명령을 받들어 샘가로 달려갔다. 순간 온갖 작별의 감정이 가슴을 쥐어뜯었다. 샘으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이제 마지막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사슴의 혀, 잎들이 아치 모양을 이루는 나무꼭대기가 되비치고, 기분 좋게 푸른 하늘이 흩뿌려진 밝은 점들을 이루며 되비치고 있는 작은 샘 쪽으로 가장자리가 닳고 닳아 매끌매끌해진 가벼운 바가지를들고 가는 일도 이제 마지막이었다. 수면 위로 몸을 구부리자 이제 자신의 얼굴이푸르스름한 어스름 속으로 되비쳤는데 이것 역시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다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바가지를 물속에 담갔다. 그는 불안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신이 왜 이토록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지, 스스로 떠나리라고 결심한 것이면서도 노인이 좀 더 머물러 있으라고, 아니 영원히 머물러 있으라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이 왜 괴로워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자는 샘가에 쪼그리고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바가지를 들고서 조심조심 일어섰다. 그리고는 왔던 그 짧은 길을 되돌아가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 귀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 다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황홀한 기분에 빠지게 되었다. 꿈속에서 여러 번 들었을 뿐 아니라 깨어나 있는 많은 시간 동안에도 애타는 그리움으로 생각하곤 했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감미로운 여운으로 울리고 있었다. 목소리가 숲의 어스름을 뚫고 감미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자의 마음은 전율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내 프라바티의 목소리였다. "다자." 목소리는 이렇게 은근하

게 부르고 있었다. 다자는 미심쩍어하는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에는 아직 물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무줄기들 사이로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긴 다리로 늘씬하고 탄력 있는 모습이었다. 프라바티였다. 사랑하는 여자, 잊을 수 없는 여자였다. 변심한 여자였다. 다자는 바가지를 손에서놓아 버리고 그녀 쪽을 향해 달려갔다. 프라바티는 미소를 띠고 약간 수줍어하는 태도로 그의 앞에 서서, 그 큰 노루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 그녀는 빨간색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고 있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팔에는 황금 팔찌를 끼고 있고 검은 머리카락 사이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색색의 값비싼 보석을 달고 있었다. 다자는 흠칫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녀는 아직도 왕에게 몸을 바치는 창녀란 말인가. 그가 날라를 죽여 버리지 않았던가. 그녀는 아직도 왕이 준 선물을 달고 돌아다닌단 말인가. 이런 팔찌, 이런 보석을 지닌 채어떻게 그의 앞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프라바티는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다자는 그녀를 윽박지르기에 앞서 끌어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자신의 이마를 묻지않을 수 없었고, 그녀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도록 뒤로 젖혀 그녀 입에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다자는 일찍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행복과 사랑과 쾌락과 인생의 즐거움과 열정이 그에게로 돌아와 다시 그의 것이 되고 있음을느꼈다. 벌써 그는 숲과 늙은 은둔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숲과 은둔자의생활과 명상과 요가는 벌써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잊히고 있었다.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어야 할 물바가지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물바가지를 샘가에 내버려 둔 채 프라바티와 함께 숲 가장자리 쪽을 향해 걸어갔다. 가면서그녀는 다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리로 오게 되었는지, 전체 사정의 자초지종이 어떠한지 매우 서둘러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은 놀라웠다. 놀랍고 황홀하고 동화 같은 내용이었다. 마치 동화 속의 세계로 들어가듯 다자는 새로운 인생 속으로 달려 들어갔다. 프라바티가 다시 그의 소유가 된 것만이 아니었고, 그 미운 날라가 죽고 살인자에 대한 추적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만이 아니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목동이 되었던

이전의 왕자 다자는 도시에서 합법적인 왕위계승자로 선포되었다. 한 늙은 목동과 한 늙은 브라만 승려가 거의 잊힌 듯했던 다자의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기억 하게 되어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기 위해 한때 사람들이 날라의 살인자로 지목하여 방방곡곡에서 추적을 했던 바로 그 인물 을 이제 사람들은 왕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도시로. 아버지의 궁정으로 모셔가기 위해 전국에서 더욱더 많은 열성으로 찾게 된 것이었 다.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였다. 놀라워하고 있는 다자로서는 사방을 돌아다니는 그 많은 사자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 아닌 프라바티가 바로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 해서 인사를 했다는 그 행복한 사실이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다. 숲 가장자 리에 이르러 보니 천막들이 세워져 있었다. 연기 냄새와 사냥한 짐승 고기를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큰 소리로 프라바티를 환영했다. 그녀가 남편 다자를 소개하고 이어 커다란 잔치가 시작되었다. 그 자리에는 한 남자가 와 있었 다. 목동시절 다자의 친구였던 사람이었다. 바로 이 사람이 프라바티와 하인들을 다자가 이전에 살았던 여러 장소들 가우데 하나인 이곳으로 안내해 왔던 것이었 다. 다자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너무도 기뻐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다 자에게로 달려갔다. 다정하게 어깨라도 한번 쳐주거나 포옹을 하고 싶었을 것이었 다. 하지만 이전의 친구는 이제 왕이 되었다. 마비라도 되어 버린 듯. 달려가던 중 에 그는 멈춰 섰다. 그런 다음 그는 더 느린 걸음걸이로, 공손한 태도로 계속 걸어 갔다. 그리고는 몸을 깊이 굽혀 인사를 올렸다. 다자는 그를 일으켜 세워 포옹하면 서 다정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고는 무슨 선물을 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목동은 송아지 한 마리를 원했다. 그에게는 왕 소유의 최우량 소들 가운데서 세 마 리의 송아지를 보내주었다. 새 왕에게 거듭거듭 새로운 사람들이 소개되었다. 관 리들과 장수들과 궁정 소속 브라만 승려들이었다. 새 왕은 이들의 인사를 받았다. 잔칫상이 차려졌다. 북과 기타와 피리가 어우러진 음악이 울려 퍼졌다. 다자에게 는 그 모든 잔치분위기와 화려한 모습이 꿈처럼 생각되었다. 그 모든 것을 그는 도 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프라바티만이, 자신의 두 팔에 안겨 있는 젊은 아내만이 현실로 느껴질 뿐이었다.

여러 날 동안 조금씩 여행을 해서 행렬은 도시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다. 앞서 보내어진 전령들은 마침내 찾아낸 젊은 왕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있었다. 도시의 모습이 눈에 보였을 때 도시는 이미 징 소리와 북소리로 넘치고 있었다. 한 무리의 브라만 승려들이 흰색 옷차림으로 엄숙하게 다자를 향해 다가왔는데, 맨 앞에는 바수데바의 후임자가 서 있었다. 족히 20여 년전 옛날에 다자를 목동들한테로 보내었던 바수데바는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떴다. 승려들은 다자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며, 다자를 안내해 간 궁전앞에서는 몇몇 큰 제물에 불을 붙였다. 다자는 궁전 안으로 안내되었다. 여기에서도 또 인사와 찬양, 축복과 환영의 노래가 그를 맞았다. 궁 바깥에서는 온 도시사람들이 밤늦도록 기쁨의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두 명의 브라만 승려로부터 매일 수업을 받아 다자는 필요불가결한 것처럼 보이는 학문을 짧은 시일 안에 익히고 여러 제사에 참석하고 판결을 내리고, 여러 가지 기사도와 무예를 갈고 닦았다. 승려 고팔라는 다자에게 정치를 가르쳤다. 고팔라는 다자에게 다자의 처한 상황, 왕실의 사정, 왕실의 제반 권리, 장차 태어날 아들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다자의 적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날라의 어머니를 꼽을 수가 있었다. 일찍이 왕자 다자의 권리를 빼앗고 목숨을노린 적이 있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기도 한 다자를 더욱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웃나라 왕 고빈다한테로 피신해 그의 보호를 받으며 그의 궁전에서 살고 있었다. 고빈다와 그의 왕실은 옛날부터 적이었고 위험한 존재였다. 그들은 이미 다자의 할아버지 시대부터 전쟁을 도발해 왔으며 그의영토의 몇몇 부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와는 달리 남쪽에 있는 이웃인 가이팔리 왕은 다자의 아버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죽은 날라를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때문에 그를 방문하여 선물을 전하고 다음번 사냥에 초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아내 프라파티는 이미 자신의 귀족적인 지위에 완전히 적응하고 있었다. 왕비 행세를 능숙하게 해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훌륭한 장신구를 매단 그녀는 너무도 눈부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왕인 남편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태생인

것처럼 보였다. 행복에 겨운 사랑 속에서 그들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었다. 신들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행복에 겨운 그들은 어떤 찬란한 빛을 발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다. 아주 긴세월 동안 아무런 보람도 없이 기다린 후 마침내 프라바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라바나로 지었을 때 다자의 행복은 완전한 것이 되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영토와 권력, 집과 가축우리와 우유창고 소와 말은이제 두 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보다 많은 빛과 가치를 지니게 된 것으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그 모든 재산은 프라바티를 감싸고 입히고 장식하고 받들 수 있는 까닭에 아름답고 기분 좋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아들 라바나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서,미래의 행복으로서 더욱 아름답고 기분 좋고 중요한 것이 되었다.

프라바티는 축제와 행진, 사치스럽고 화려한 의상, 장신구 많은 하인들에서 주로 기쁨을 느끼고 있었지만 다자는 정원에서 특히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그 는 정원에 여러 가지 귀하고 소중한 나무들과 꽃들을 심도록 했을 뿐 아니라 앵무 새나 그 밖의 다른 화려한 색깔의 새들도 놓아기르고 있었다. 새들에게 먹이를 주 고 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일은 매일 반복되는 일과였다. 뿐 만 아니라 그는 학문 연마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승려들의 가르침을 고마워 할 줄 아는 제자로서 그는 많은 시구와 경구, 독서법과 필기법을 배웠다. 전속 서 기도 한 명 두고 있었는데 이 서기는 야자수 잎을 필기용 두루마리로 다듬는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섬세한 손길 아래에서 작은 장서관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다. 여기 장서관의 책들 옆에서, 신들의 생활을 다채로운 모습으로, 부분적 으로는 금박을 칠해 가며 그린 그림들로 온통 조각이 되어 있는 고급 목재로 만들 어진 사방 벽들을 갖는 아담하고도 화려하게 치장된 방에서 다자는 초청한 승려 들, 즉 학자나 사상가나 성직자들 가운데서 엄선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대 상들에 대해. 위대한 비슈누 신의 세계창조에 대해. 성스러운 베다에 대해. 제물의 힘과. 유한한 인간을 신들도 두려운 나머지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참회의 더욱 큰 힘에 대해 서로 토론을 벌이도록 했다. 가장 훌륭하게 말하고 토론하고 논리전개한 사람들은 굉장한 선물을 받았는데, 뛰어나 게 토론을 벌인 대가로 잘 자란 암소 한 마리를 몰고 가게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다의 경구들을 암송하고 설명하며 동서남북 사방팔방통하지 않는 것이 없던 위대한 학자들이 으스대고 뽐내는 태도로 영광의 선물을 안고 물러나거나 선물 때문에 서로 시기에 찬 싸움판이라도 벌이게 되면 때로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감격적이기도 한 광경이 펼쳐지곤 했다.

그 많은 재산, 그 큰 행복, 그 아름다운 정원, 그 많은 책들의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었지만 다자 왕은 가끔 인생과 인간존재에 속하는 일체가 기이하고도 회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예의 그 허영에 들뜬 승려들처럼 감격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우 스꽝스러운 것으로, 밝은 것이면서 동시에 어두운 것으로, 추구할 만한 것이면서 동시에 경멸할 만한 것으로서 여겨졌다. 정원 연못 위에 떠 있는 연꽃, 공작과 꿩 과 길조의 깃털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번쩍거리고 있는 색깔, 궁전의 금박 입힌 조각들을 즐거운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것들은 때로는 거룩한 것으로, 영원한 삶의 불길에 싸여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때에는, 아 니 그와 동시에 다자는 그것들을 비현실적인 것, 믿을 수 없는 것, 의문스러운 것, 무상과 해체로 기울고 있는 것, 무형과 혼돈 속으로 다시 가라앉아 버릴 준비가 되 어 있는 것들로 느꼈다. 지금 왕인 다자 자신 어떤 힘에 이끌리며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내일과 모레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왕자였다가 목동이 되었다가 살인 자 · 방랑자로 영락했다가 마침내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쉼 없는 미망은 가는 곳마다 고상한 면과 비천한 면, 영원과 죽음, 위대성 과 하찮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녀, 즉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프라바티마 저도 잠시 매력을 잃어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여겨진 적이 몇 번 있었다. 팔에 너무 많은 팔찌를 끼고 있고 눈에는 너무도 많은 자만심과 승리감의 빛을 띠고 있고 품 위 있게 걷느라고 너무도 많은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자에게 정원들이나 책들보다 더욱 소중했던 것은 어린 아들 라바나였다. 아들은 그의 사랑과 존재의 완성이었고, 그의 애정과 관심의 목표였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아이였다. 진정 왕자다웠다. 어머니를 닮아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를 닮아 사색과 공상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다. 아들이 눈썹을 약간 치켜 올

린 조용하면서도 다소 멍한 눈길로 돌멩이나 조각한 장난감이나 새의 깃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정원 관상용 나무 앞에 오래 서 있거나 양탄자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아버지 다자의 생각에는 이 아들이 자신을 아주 많이 닮은 것 같은 기분이 종종 들었다. 언젠가 처음으로 기한 없이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면안 되었을 때 다자는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새삼 절실하게 깨달았다.

어느 날 그의 나라와 이웃 왕 고빈다의 나라의 국경이 서로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부터 전령이 와서 고빈다의 군사들이 국경을 침범해 가축들을 강탈해 갔을 뿐 아 니라 많은 수의 사람들도 붙잡아 끌고 갔다고 보고했다. 다자는 지체 없이 무장을 갖추고 근위대장과 수십 필의 말과 수십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강도들의 추격에 나섰다. 출발하기에 앞서 어린 아들을 두 팔로 안아 입을 맞추었을 때 다자의 가 슴속에서는 사랑이 열화 같은 고통처럼 타올랐다. 그 열화 같은 고통의 강력한 힘 은 그를 매우 놀라게 하고 미지의 세계로부터의 경고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마 음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오래 말을 타고 가는 동안 그것은 또한 어떤 인식과 이해 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말을 타고 가는 중에 다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말을 타 고 이토록 단호한 기분으로 서둘러 국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대체 무슨 힘이 자 신으로 하여금 이런 행위와 수고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곰곰이 생 각해 보았다. 깊이 생각해본 그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국경 어딘가에서 가 축과 사람들이 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고 또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었다. 노략질과 자신의 왕권 을 모욕하는 일이 있다 하여도 그때문에 분노해 하거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 을 것이었다. 가축 강탈에 관한 보고를 연민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일소에 부쳐 버렸 다면, 그로서는 그것이 더 적절한 조치였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그는 그 소식을 들고 기진맥진할 정도로 달려왔던 급사를 몹시 부당하게 대한 셈이 되었을 것이었다. 가축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고향과 평화롭던 생 활을 떠나 낯선 지방에서의 노예 생활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었다. 만약 복수의 전투를 포기했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은 다른 모든 백성들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접을 한 것이 되었을 것이었다. 왕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까닭에 장차 자신에게 폭력적인 일이 일어난다 해도 아무런 복수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은 참고 이해하기 가 힘들었을 것이었다. 지금처럼 말을 타고 복수의 길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의무 라는 것을 다자는 깨달았다. 하지만 의무란 무엇인가? 아무런 마음의 고통도 없이 자주 소홀히 다루어 버리는 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복수의 의무가 이래도 저 래도 좋은 의무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의무 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는 것이 아 니라 열심히, 온 열정을 다 쏟아서 이 의무를 완수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인가? 이런 물음들이 그의 가슴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이미 그것 에 대답을 해 주고 있었다. 왕자 라바나와 작별할 때의 고통스럽던 기분이 다시 그 의 심장을 옥죄어들고 있었다. 이제 그는 깨닫게 되었다. 왕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축과 사람을 노략질하도록 내버려두면 도둑질과 폭력적인 일은 국경으로 부터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적은 그의 코앞에까지 이 르게 될 것이고, 그가 가장 크고 가장 쓰라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곳까지 다가와 압박할 것이었다. 아들에게까지 다가올 것이었다. 자신에게서 후계자인 아들을 빼 앗아 갈 것이었다. 강제로 끌고 가서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몹시 고통스럽게 죽일지도 몰랐다. 그것은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일 것이었다. 프라바티 의 죽음보다도 더 심한, 훨씬 더 심한 고통이 될 것이었다. 바로 이런 사정 때문에 그는 이토록 열심히 말을 달리고 의무감에 충실한 왕이 되어 있었다. 그가 지금 의 무갂에 충실한 왕이 된 것은 가축이나 영토를 잃게 된 데 분개해서가 아니었고. 자 신의 백성들에 대한 자비심 때문도 아니었고, 선왕의 왕명을 기리기 위한 야심 때 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격렬하고도 고통스러우며 억제할 수 없는 사 랑 때문이었으며. 아들을 잃게 될 경우 자신이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고통에 대한 격렬하고도 어찌해 볼 도리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말을 타고 가며 다자가 한 생각은 이런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다자는 고빈다의 부하들을 추격하여 보복하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약탈한

물건과 함께 도망을 쳐버리고 없었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고 용기를 증명해 보 이기 위해 그는 이제 스스로 국경을 넘어 쳐들어가서 이웃나라의 한 마을에 해를 입히고 얼마간의 가축과 몇 명의 노예들을 끌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여러 날을 밖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승리감에 넘쳐 말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또다 시 깊은 명상에 잠겼으며, 궁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주 조용한 모습이었고 슬픔 에 젖어 있는 듯했다. 자신의 전 존재와 행동이 빠져 나올 수 있는 가망이 전혀 없 는 가운데 너무도 단단하고 완전하게 음험한 그물 속에 갇히고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그 명상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때문이었다. 사색에 대한 경향, 조용한 관조와 무위의 순진무구한 생활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었지만 라바나에 대 한 사랑, 라바나, 라바나의 인생, 라바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 때문에 다른 한편에서는 행위와 잡사에 대한 욕구가 마찬가지로 강하게 커져 가고 있었다. 은 근한 애정에서 싸움이. 사랑에서 전쟁이 생겨나고 있었다. 비록 정의를 지키고 벌 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는 이미 가축을 약탈하고 마을을 죽음의 공 포 속으로 몰아넣고 불쌍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왔던 것이었 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로부터는 또다시 새로운 복수와 폭력행사가 뒤따를 것이 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었다. 결국 그의 전 인생과 그의 전 나라는 전 쟁과 폭력, 소란스럽게 부딪치는 무기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었다. 궁으로 돌아왔 을 때 다자가 그토록 조용하고 슬픈 모습으로 보였던 것은 바로 이런 통찰 또는 상 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적의에 찬 이웃나라 왕은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침략과 노략질을 반복했다. 다자는 응징하고 방어하기 위해 출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적이 후퇴해 버릴경우 자신의 병사들과 저격병들이 적에게 새로운 해를 입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수 없었다. 수도에서는 말을 탄 병사들과 무장을 갖춘 병사들이 점점 더 많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많은 국경마을에서는 이제 병사들이 경비를 위해 상주하고 있었으며, 작전 회의나 전쟁 준비로 편안할 날이 없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작은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고 득이 되는지 다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부상당한사람들의 고통과 전사한 사람들의 목숨이 안타까웠다. 점점 더 소홀하게 대할 수

밖에 없는 정원과 책들, 평화롭던 나날들과 마음이 가슴 아프게 여겨졌다. 다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종종 승려 고팔라와 의논하고 아내 프라바티와도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자는 덕망 있는 이웃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을 조정자로 내세워 평화를 중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목초지와 마을을 양보·할양함으로 써 평화를 끌어낼 수 있다면 자신은 그런 일을 하는 데 기꺼이 찬성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승려 고팔라나 프라바티 모두 이런 제안에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자는 실망하고 다소 불쾌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한 프라바티와의 의견 충돌은 아주 격렬한 논쟁으로, 아니 불화 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나름의 이유와 생각을 간절하게. 애 원이라도 하듯 설명했으나 그녀는 그가 하는 한 마디 한 마디 말을 전쟁과 무의미 한 살인에 반대해서 하는 말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녀 자신의 인격에 반대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자의 착한 마음씨와 '평화를 사랑 하는 마음'(이 말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 대신 고른 말이다)을 자신들에 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적이 노리고 있는 바라고. 적은 다자로 하여금 계속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그때마다 영토와 백성을 조금씩 할양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국에 적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자가 충분히 힘이 약화되 자마자 공공연히 전쟁을 개시해 마지막 남은 것마저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장황하 게 열변을 토하며 설명했다. 여기에서는 가축이나 마을이. 유리하니 불리하니 하 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문제라는 얘기였다. 살아남느냐 파멸하느냐가 문제였다. 다자가 자신의 지위나 아들과 아내에 대해 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면 그녀 자신이 바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 럼 타오르고 목소리는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아름답고 정열적인 모습이 되는 것을 보보는 일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다자는 슬픔만 느끼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국경 침범과 평화 파괴는 계속되고 있었다. 긴 장마철이 시작되고 서야 그것은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자의 궁정에서는 이제 두 개의 당파가 생 겨나게 되었다. 한 당파, 즉 평화를 주장하는 당은 규모가 아주 작았다. 다자 자신 외에 이 당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소수의 나이 많은 브라만 승려들, 즉 명상에 몰두 하는 몇몇 학자들뿐이었다. 반면에 프라바티와 고팔라가 이끄는, 전쟁을 주장하는 당은 대부분의 승려들과 모든 장수들을 자신의 편으로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부지런히 군비를 갖추었고, 저쪽 이웃나라 적도 똑같은 일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 라바나는 저격수 대장으로부터 활쏘기를 배우고 있었고, 어머니 프라바티는 열병식이 있을 때마다 라바나를 함께 데리고 갔다.

이 무렵 다자는 자신이 불쌍한 도망자로서 얼마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던 숲과, 그 곳에서 명상에 몰두하며 은둔자 생활을 하고 있었던 머리가 허옇게 샌 노인을 가 끔 생각해 보게 되었다. 다자는 가끔 그 노인을 생각하면서 그를 찾아가 다시 보 고 충고를 듣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그러나 그는 노인이 아직 살아 있는지, 노인 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충고를 해줄는지 알 수가 없었다. 노인이 아직 살 아 있어서 그에게 충고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은 제 길을 그대로 갈 것이며 조금도 달라질 수 없을 것이었다. 명상과 지혜는 훌륭한 것이었다. 고귀한 것이었 다. 하지만 그것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인생의 가장자리에서만 번창할 수 있 는 것 같았다. 인생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며 그 파도와 싸우는 사람의 행위와 고통 은 지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런 행위와 고통은 필연적으로 생겨나고 어 쩔 수 없는 운명인 것이라서 행하고 또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신들도 영원한 평화나 영원한 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도 위험과 공포, 싸움과 투쟁을 겪고 있었다. 다자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자는 굴 복하고 더 이상 프라바티와 싸우지 않고 말을 타고 열병식에 나갔다. 전쟁이 다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으며,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밤의 꿈속에서 전쟁을 예감 하고 있었다. 그는 몸이 점점 야위어 가고 얼굴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데서 인 생의 행복과 기쁨이 시들어 빛을 잃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사랑만은 변함이 없었다. 근심이 많아져 감에 따라, 군비와 군사훈련이 더해 져 감에 따라 아들에 대한 사랑도 더 커져 가고 있었다. 그것은 황량해진 그의 정 원에서 붉게 타오르고 있는 꽃이었다. 다자는 인간이 너무도 많은 허무감과 권태 감을 참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인간이 근심과 불쾌한 일에 너무도 잘 익숙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열정이 다 식어 버

린 것처럼 보이는 가슴속에서 불안에 가득 찬 것이면서도 관심에 넘치는 사랑이 거센 불길처럼 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놀랍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 이 무의미한 것으로 되어 버렸는지는 모를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핵심 과 중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돌 고 있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전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라 그 하나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과 힘든 직무를 관장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은 아들 때문이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회의를 주재하며, 다수의 결정 에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제동을 걸어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기다리게 하거나 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모험적인 일에 뛰어들지 않도록 한 것도 아들 때문이었다. 생활의 기쁨이었던 정원과 책들이 점차 그로부터 멀어지고 또 등을 돌리게 되었 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그 자신이 그것들에 대해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긴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었던 그 여인도 이제 그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등을 돌리게 되었다. 이런 사정은 정치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 다. 프라바티가 적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거부의사와 평화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거의 드러내놓고 비겁하다고 조롱하고, 얼굴빛이 붉어진 채 거창한 말들을 써가며 왕의 명예니 영웅적인 태도니 수치스런 모욕이니 하는 것에 대해 격렬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던 당시 다자는 당혹스러운 기분으로. 현기증을 느끼며 갑자기 아내가 자신으로부터 또는 그 자신이 아내로부터 아주 멀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 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 그때 이후 그들 사이의 간격은 더욱 커지고 계속 더 커 져 갔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으려고 무슨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자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을 것이었다. 그와 같은 간 격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간격은 그의 생각 속에 서 점점 더 간격들 중의 간격으로, 남자와 여자, 긍정과 부정, 영혼과 육체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깊디깊은 심연으로 되어 갔다.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았을 때 다 자는 모든 사정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매혹적이며 아름 다운 여인이었던 프라바티는 일찍이 그로 하여금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그와 함께 사랑의 유희를 벌였다. 마침내 그는 동료이자 친구인 목동들과 그때까지의 즐겁던

목동 생활에 작별을 고하고 그녀를 위해 낯선 곳에서 일을 하며 살았다. 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집의 사위가 되었고. 그 사람들은 그의 사랑을 이용해 그로 하 여금 자신들을 위해 일을 하도록 시켰다. 그러던 중에 날라가 나타났다. 그의 불행 이 시작되었다. 날라가 아내를 빼앗아 갔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 개의 천막 을 세우고 말과 하인들을 부리고 화려하게 치장을 한 왕이 사치스런 생활에 전혀 익숙해져 있지 않은 가난한 아내를 유혹했다. 왕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그녀가 마음속 깊이 정숙하고 행실이 반듯했다면 왕 이 정말로 그토록 빨리, 쉽게 그녀를 유혹할 수 있었을 것인가? 어쨌든 왕은 그녀 를 유혹하게 되었다. 또는 그냥 데리고 간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왕은 그에게 지금 껏 경험한 바 없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그는, 다자는 복수를 했다. 자신의 행복을 앗아간 그 도둑놈을 때려죽인 것이었다. 일순간 말할 수 없는 승리 감에 싸였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자마자 도망 길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 다. 며칠, 몇 주일, 몇 달 동안을 덤불과 갈대밭 속에서 쫓기며, 사람을 피하며 살 았다. 그런데 그 기간에 프라바티는 무엇을 했던가? 그들이 이에 대해 많은 이야 기를 나누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뒤를 따라 도망치지는 않 았다. 그녀가 그를 찾아 나서고 또 발견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출생으로 인해 왕으 로 선포되고, 그래서 그녀가 옥좌에 앉고 궁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를 필요로 하 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그제야 그녀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녀는 숲으로부터, 존 경하는 그 은둔자 곁에서의 생활로부터 그를 데리고 왔다. 그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하고 왕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은 그저 영광이요 행복일 뿐이었다. —하지만 실 제에 있어 그는 당시 무엇을 버리고 떠났고. 그 대신에 무엇을 얻게 되었던 것인 가? 왕의 찬란한 생활과 여러 가지 의무를, 처음에는 가벼운 것이었으나 이후 점 점 무거운 것으로 되어갔던 그런 의무를 얻게 되었다. 아름다운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고 그녀와 함께하는 감미로운 사랑의 시간을, 이어서 아들을, 아들에 대한 사 랑을, 위협받고 있는 그의 인생과 행복에 대한 점점 더해 가는 근심을 얻게 되었 다. 이제 전쟁이 성문 앞에까지 다가와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프라바티가 숲 속 샘가에서 그를 발견하게 되었던 당시 그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이었다. 그렇다 면이 대신에 그는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었던 것인가? 그는 숲속에서의 경건하고 조용한 생활의 평화를 떠났던 것이었다. 성스러운 요가수행자의 곁을, 모범적인 생활을 떠났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며 그 지혜로운 노인의 깊고 빛나며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평화에 이르고 인생의 온갖 투쟁과 격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다. 프라바티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아내에게 매혹 당하고 그녀의 야욕에 전염되어 그는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길을 떠나 버렸다. 이제 다자에게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이 이렇게 여겨졌다. 그의인생은 그야말로 아주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었다. 몇 가지 사실만 적당히 무시하고생략하면이 인생은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아직 그은 문자의 제자였던 적이 결코 없고, 아니 이미 자발적으로 그의 곁을 다시 떠나려고 했다는 사정을 전혀 고려해 넣지 않고 있었다. 과거를 되돌아보게 될 때 사정은이처럼 쉽게 달라지는 법이다.

물론 남편만큼 그런 생각에 깊이 빠졌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프라바티는 이런 사정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날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자의 행복의 기초를 닦고 또 그것을 유도하고 그를 다시 왕으로 만들어 주고 그에게 아들을 선사하고 그로 하여금 사랑과 행복으로 넘치게 해 준 장본인은 전적으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런데도 결국 그는 그녀의 위대함에 부응하지 못하고 그녀의 야심에 찬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가오는 전쟁이 고빈다의 파멸을 가져오고, 따라서 그녀의 권력과 재산을 두 배로 확대시켜 줄 뿐이라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다자는 이 일을 기뻐하고 그것에 부지런히 협조하지는 않고, 그녀가 생각하기에 아주 왕답지 못하게 전쟁과 정복에 대해 반대하면서 꽃과 나무와 앵무새와 책들을 벗 삼아 무위도식하며 늙어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 자신 다음으로 가장 열렬한 당원일 뿐 아니라 조기의 전쟁과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인 기마대 사령관 비쉬바미트라는 그런 점에서 다른 인물이었다. 두 사람을 어떻게 비교해 보아도 이 사령관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내는 비쉬바미트라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매우 존경하고 사모하고 있었으며, 그녀 역시 그로부터, 명 랑하고 용감하고 다소 천박한 데가 있고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고 웃음소리가 크고 아름다우며 튼튼한 치아를 가지고 있고 잘 손질한 구레나룻 수염을 하고 있는 그 장교로부터 찬탄을 받고 있었다. 다자는 이것을 비참한 기분과 동시에 멸시의 기 분으로, 스스로에게 애써 가장해 보이는 조롱기가 서린 냉담한 기분으로 바라보 고 있었다. 다자는 염탐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의 친교가 허용되는 예법의 테두리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안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 멋진 기마 병에 대한 프라바티의 애정을. 너무도 영웅적이지 못한 남편보다 그 기마병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 있는 그녀의 태도를 모든 사태를 바라보는 데 이미 익숙해 있었 던. 겉으로는 냉담하나 속으로는 비참한 바로 그 침착한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었 다. 아내가 자신에 대해 하기로 결심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이 부정이고 배 신이든. 아니면 다자의 주의나 신념에 대한 그녀의 멸시의 기분의 표현일 뿐이든.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쨌든 그것은 나타나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 었고 전쟁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묵묵히 받아들이며 침착하게 견뎌내는 것 외 에는 달리 어떤 태도도 있을 수가 없었다.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하는 대신 받아들이 며 침착하게 견뎌내는 것이 다자 식의 남성다운 행동이요 영웅다운 행동이었다. 기병대장에 대한 프라바티의 경탄 또는 그녀에 대한 그의 경탄이 예법의 허용된 세계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든 아니든. 어쨌든 프라바티가 자기 자신보다는 책임이 덜하다는 것을 다자는 이해하고 있었다. 사색가요 회의주의자인 다자는 분 명히 자신의 행복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그녀한테서 찾거나 아니면 적 어도 자신이 그 모든 것에. 즉 사랑과 야심과 복수의 행동과 약탈에 휘말려들어 가 게 된 데 대한 책임의 일단을 그녀에게 지우려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심지어 그는 지상의 모든 것, 즉 격정과 욕망과 간통과 죽음과 살인과 전쟁의 그 모든 소용돌 이와 질주는 여자와 사랑과 쾌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다자는 프라바티가 책임이 없고 원인제공자가 아니라 희생물이라는 것, 그녀의 아름다움 도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도 그녀 스스로가 만들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그 녀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 그녀는 그저 햇살 속에 떠 있는 하나의 작은 티끌. 강물속의 한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여자와 사랑과 행복에의 갈증과 야심을 버리고 목동들 가운데서 만족한 목동으로 남거나 비밀에 찬 요가의 길을 걸어 자 신 속의 모자라는 점을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에게 달려 있는 일이었다 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소홀히 했다. 실패한 것이었다. 그는 위대한 것에로 소명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그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아내가 그를 비겁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은 결국 틀린 것이 아니었다. 그 대신에 그는 그녀로부터 아들을, 아름답고 섬세한 이 소년을 얻게 되었다. 아들 때문에 그 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아들의 존재는 여전히 그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었다. 아니 커다란 행복이었다. 고통스럽고 걱정에 찬 행복이기는 했지만 행복인 것은. 그의 행복인 것은 변함이 없었다. 이 행복에 대해 그는 지금 마음속의 고통과 비참한 기분으로, 전쟁과 죽음에 대한 각오로, 피할 수 없는 운명 을 맞이하는 의식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저 너머 나라에서는 고빈다 왕이 결 코 유쾌하지 않은 기억 속의 유혹자, 즉 자신에게 맞아 죽은 날라의 어머니의 조언 과 부추김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고빈다의 침략과 도발은 점점 더 잦아지고 또 대 담해지고 있었다. 강력한 가이팔리 왕과의 동맹만이 고빈다에게 평화와 선린우호 조약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 다자를 충분히 강하게 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이 팔리 왕은 고빈다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다자에게 호의적이기는 하면서도 동맹 을 맺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얻으려는 다자의 모든 노력을 정중하게 거절해 버렸 다. 피할 수 있는 길은 아무 데도 없었다. 이성이나 인간성에 대한 기대도 결코 있 을 수가 없었다. 운명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 다. 이제는 다자 자신도 전쟁을, 모이고 모인 번갯불의 폭발을, 제반 사태의 빠른 진전을 거의 갈망하게 되기까지에 이르렀다. 아무리 해도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태 를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자는 다시 한 번 가이팔리 왕을 찾아갔 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겸사만 교환했다. 다자는 궁내 회의에서 자제와 인내심 을 당부하긴 했으나 그와 같은 당부가 희망 없는 일이 된 지는 이미 오래였다. 다 른 한편으로 다자는 무장을 갖추어 오고 있었다.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적군의 다음번 침입을 적국으로 쳐들어가는 것으로 즉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면 적이 어쨌든 백성과 온 세계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할 평화의 파괴자로 남도록 하기 위해 적의 주공격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뿐이었 다.

그 같은 문제들에 아랑곳하지 않는 적은 숙고와 의논과 주저에 종지부를 찍고 어느 날 공격을 해 왔다. 적은 꽤 큰 규모의 약탈을 감행했는데, 그로 인해 다자는 기마대장과 그의 휘하의 잘 훈련된 병사들과 함께 신속히 국경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국경을 향해 가고 있는 동안 적은 그 주력부대를 이끌고 나라안으로, 다자가 살고 있는 도시로 직접 쳐들어와서 사방 성문을 점령하고 궁전을 포위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발길을 돌렸을 때 다자는 아내와 아들이 위험한 궁전 안에 포위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거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계속되고 있었다. 가족과 가족이 처해 있는 위태로운 상태를 생각했을 때 그의 가슴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 죄어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몸을 사리는 대원수가 아니었다. 고통과 분노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며,부하들과 함께 미친 듯이 서둘러서 고향을 향해 질주했다. 온통 싸움으로 들끓고있는 거리들을 지나 궁전에까지 다다르게 된 다자는 적 앞으로 나서서 미친 사람처럼 싸웠다. 그러다 그는 결국 피비린내 나는 하루가 저물어 가는 것과 때를 같이해 기진맥진하게 되었고,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지고 말았다.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그는 포로가 되어 있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었다. 도시와 궁전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몸이 묶인 채 고빈다 앞으로 끌려갔다. 고빈다는 조롱이라도 하듯 그에게 인사를 하고서는 그를 어느 방으로 데리고 갔다. 조각을 하고 금박을 입힌 벽들이 있고 두루마리 책들이 들어 있는 바로 그 방이었다. 그 방의 양탄자 위에 아내 프라바티가 돌처럼 굳어진 표정을한 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고 그녀 뒤에는 무장을 한 보초들이 서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들이 누워 있었다. 섬세한 몸은 꺾어진 꽃처럼 누워 있었다. 죽은 것이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옷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남편이 방안으로 끌

려 들어왔을 때 아내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프라바티는 다자를 쳐다보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죽은 아들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자가 보기에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달라진 모습이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다자는 알게 되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새까만 색이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온통 회색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었다. 아들을 무릎 위에 누인 채 굳어 버린 자세로, 가면과도 같은 얼굴 표정으로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았다.

"라바나!" 다자는 외쳤다. "라바나, 내 아들아. 꽃 같은 내 아들아!"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얼굴이 죽은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기도라도 하는 사람처럼 그는 말 없는 아내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사람에 대해 탄식하며 두 사람을 찬양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머리카락에 발라져 있는 꽃 기름 향기와 뒤섞인 피와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눈빛으로 프라바티는 그들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고빈다의 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자에게 일어나라고 하고서는 끌고 나갔다. 다자는 프라바티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몸이 묶인 채 마차에 실려서 고빈다의 도시에 있는 어느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몸을 묶은 밧줄이 약간 풀려지게 되었다. 한 병사가 물병을 가져와 돌바닥 위에다 놓았다. 사람들은 그를 혼자 내버려두고서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어깨에 난 상처가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을 더듬어 물병을 잡고서 손과얼굴을 적셨다. 목도 좀 축이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그만두었다. 마시지않으면 더 빨리 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는 얼마나 더오래 계속될 것인가! 얼마나 더오래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타는 것 같은 그의 목이물을 갈망하듯이 그는 죽음을 갈망하고 있었다. 죽어야만 비로소 가슴속의 이괴로운 고통이 끝나게 될 것이었다. 그때라야만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가슴속에서 사라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피곤과 피로감이 그를 불쌍히 생각해 주고 있었다. 다자는 쓰러져 잠에 빠져들었다.짧은 잠에서 다시 서서히 깨어나게 되었을 때 다자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두 손은 이미 무슨 다른 일하고 있었기 때문 이었다. 손은 무엇인가를 꼭 쥐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떠보았을 때 주위에 는 감옥의 벽이 없었다. 나뭇잎과 이끼들 위로 녹색의 빛이 밝고 힘차게 흐르고 있 을 뿐이었다. 그는 오래 눈을 깜빡거렸다. 햇빛은 소리는 나지 않으나 세찬 타격처 럼 그를 비추고 있었다. 오싹한 기분과 소름끼치는 공포감이 목과 등줄기를 타고 내렸다. 다시 또 눈을 깜빡였다. 울기라도 하듯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눈을 크게 떴 다. 그는 어느 숲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두 손에는 물이 가득 채워진 바가지가 쥐 어져 있었다. 발치께에는 대야 모양의 샘물이 갈색과 녹색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 다. 고사리식물 숲 뒤편 저쪽에는 오두막집이 있고. 자신으로 하여금 물을 길어 오 게 보내었던 요가수행자가, 즉 실로 기묘한 웃음을 터뜨렸던 그 사람이, 미망에 관 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자신이 부탁을 한 바 있었던 그 사람이 기다 리고 있다는 것을 다자는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에 지게 되었던 것도 아들을 잃 게 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왕이 되었던 적도 아버지가 되었던 적도 없었다. 하지만 요가수행자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에게 미망에 관해서 가르쳐 주었다. 궁전 과 정원, 책과 새 기르기,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직무와 아버지로서의 사랑, 전쟁 과 질투, 프라바티에 대한 사랑과 그녀에 대한 격심한 불신, 모든 것이 다 무(無) 였다.—아니, 무가 아니었다. 미망이었다. 다자는 깊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서 있 었다. 뺨 위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방금 전 은둔자를 위해 물을 가득 채웠 던 바가지가 두 손 안에서 떨며 흔들리고 있었다. 물이 바가지 가장자리를 넘어 발 위로 흘러내렸다. 그는 몸의 한 부분이 잘려나가고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가슴속이 텅 비어 허전해졌다. 살아온 긴 세월, 고이 간직했던 보물들, 누렸던 기쁨들, 겪었던 고통들, 견뎌내었던 불안감, 죽음 직전에 까지 이를 정도로 맛보았던 절망감이 갑자기 그로부터 다시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무가 되어 버렸다.—그러나 무가 돼 버린 것이 아니기도 했다.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때문이었다. 아직 도 프라바티가 멍하니 크게 뜬눈으로, 갑자기 회색으로 변해 버린 머리카락을 한 채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그녀 자신이 목을 졸라 죽이기라 도 한 듯 아들이 누워 있었다. 약탈한 물건처럼 아들은 누워 있었다. 아들의 사지 는 그녀의 무릎 너머로 맥없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빠르 고도 무섭게.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지독하게 미망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인 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이 앞당겨져 왔다. 온갖 체험으로 넘치는 긴 세월이 몇몇 순 간으로 압축되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난에 찬 현실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은 꿈이었다. 그 전에 일어났던 다른 모든 일들도. 즉 왕자 다자와 목동 생활과 결혼 과 날라에 대한 복수와 은둔자 곁에서의 은신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도 어쩌면 꿈 인지 모를 일이었다. 그것들은 나뭇잎 사이사이에서 꽃들과 별들과 새들과 원숭이 들과 신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조각해 넣은 궁전 벽에서 사람들이 찬탄 하는 마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바와 같은 그런 허상들이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체 험하고 눈앞에 보고 있는 것. 즉 왕으로서의 생활과 전쟁과 감옥 생활에서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것, 샘가에 서 있는 것, 방금 전 약간의 물을 흘리게 되었던 이 물바 가지, 그 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같은 재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꿈이고 환상이고 미망이 아닌가? 장차 죽게 될 때까지 앞으로 또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그것은 다른 재료로 이루어져 있 는 것인가? 다른 종류의 것인가? 타오르는 것 같은 쾌락과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 을 갖는, 아름다우면서도 잔인하고 황홀한 것이면서도 절망적인 인생의 다채로운 모습 전부는 유희이고 가상이었다. 물거품이고 꿈이었다. 미망이었다.

감각이 없어지고 전신이 마비라도 된 듯 다자는 계속 서 있었다. 손에서는 바가지가 다시 흔들렸다. 물이 흘러내려 발가락 위를 차갑게 적시고는 흘러가 버렸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가지에 다시 물을 채워 요가수행자한테로 가져감으로써 그로부터 꿈속에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조롱을 당할 것인가? 그것은 마음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다자는 바가지를 기울여 물을 부어 버리고서는 이끼 속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풀숲에 앉아 진지하게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다자는 미망의 세계가, 사람의 가슴을 짓누르고 피를 멎게 하다가는 갑자기 미망이 되어 사람을 바보멍청이로 남겨두고 마는 체험들과 기쁨들과 고통들로 난마처럼 얽히고설켜 있는 이 세계가 싫었다. 너무도 싫었다. 모든 것이 싫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

와 자식을 갈망하지 않았다. 옥좌와 승리와 복수도 행복과 현명함도 권력과 도덕도 갈망하지 않았다. 안식과 종말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영원히 돌고도는 바퀴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허상의 세계를 정지시키고 없애 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다. 마지막 전투에서 적들 가운데로 달려 들어가 주위를 공격하고 또다시 스스로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히고 또 입고, 그러다 마침내 쓰러졌던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이 안식에 이르도록 하고 자신을 소멸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찌 되는가? 그 다음에는 실신이나잠이나 죽음의 휴식시간이 있었다. 바로 이어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인생의 도도한 흐름을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무섭고 아름답고 끔찍한 허상들의 흐름을 새로이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다음의 실신, 다음의 죽음에 이를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결코 피할 수가 없었다. 죽음은 어쩌면 하나의 휴식, 짧고 작은 휴식, 안도의 순간일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계속될 것이었다. 다시 거칠고 도취적이며 절망적인 인생의 춤을 추는 수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었다. 아, 소멸은 결코 없는 것이었다. 종말은 없는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내몰려 다자는 다시 일어섰다. 저주받은 윤무 속에 휴식이란 결코 없는 것이라면, 단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물바가지에 다시 물을 채워, 사실 그에게 명령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노인한테로 다시 가져간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을 것이었다. 그가 요구받았던 것은 하나의 봉사였다. 하나의 임무였다.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앉아서 자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나았다. 아니, 도대체가 복종과 봉사는 지배하고 책임지는 일보다 훨씬 더 쉽고 좋으며, 훨씬 더 순수하고 몸에 좋았다. 이 정도는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자, 다자, 바가지를 집어 들어 물을 가득 담아 네 주인한테로 가져가거라!'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가수행자는 다자를 기이한 눈빛으로 맞이했다. 가볍게 묻는 것 같은 눈빛이고 이해의 뜻이 담긴, 연민의 정과 즐거워하는 기분이 반반씩 섞인 눈빛이었다. 힘이 들고 다소 수치스러운 모험을, 자신에게 부과된 용기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어린 소년을 나이 많은 다른 소년이 맞이할 때 보이는 그런 눈

Olje Foundation |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빛이었다. 이 목동왕자는, 그에게로 달려온 이 불쌍한 사람은 분명히 샘에서 돌아온 것일 뿐이었다. 물을 길어 온 것일 뿐이며, 15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오는 길이기도 했다. 아내와 아들과 왕의 지위를 잃게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하나의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기도 하며 구르고 구르는 윤회의 바퀴를 본 것이기도 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이미 이전에 한번 또는 여러 번 각성의 경험을 했을 것이며 얼마만큼의 진실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리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곳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머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진실로 각성을 한 것처럼 보였으며, 먼 길에 들어서도 좋을 만큼 무르익은 것처럼 보였다. 이 젊은이에게 자세와 호흡법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릴 것이었다.

호의적인 관심의 흔적과 그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는 관계,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 눈빛으로써만—오직 눈빛으로써만 요가수행자는 제자의 입문행사를 거행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제자의 머리에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 제자를 기율과 봉사 속으로 받아들였다. 다자의 인생에 대해 더 이상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의 나머지 인생은 관념과 역사의 피안에서 전개되었다. 그는 다시는 숲을 떠나지 않았다.

지은이 소개 | 헤르만 헤세 (1877~1962)

1877년 독일 남부 칼프 출생. 마울브론 신학교에 진학하지만 시인이 되겠다며 학교에서 도망치는 등 청소년기를 방황으로 보냈다. 1904년 (페터 카멘친트)가 호응을 얻어 전업 작가가 되었다. 자전적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와 단편집 (크눌프) 등을 발표하며 입지를 굳혔고, 1차 세계대전에서 목격한 전쟁의 야만성과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으며 자이를 파악하는 문제에 천착한다. 1919년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쓴 (데미안)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내면 지향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고 (싯다르타) (동방순례) 외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1946년 (유리알유희)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에 괴테상을 받았다. 1962년 스위스 몬타놀라에서 영면하였다.

옮긴이 소개 | 노태한

1955년 경상남도 김해 출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문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문학박사. 독일 마인츠대학교 교환교수와 레겐스부르크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독일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헤르만 헤세, 그의 생애와 사상과 작품) (독일문학사) (독일시 운율론과 시사) (독일문예학개론)이 있으며, (헤세의 데뷔소설 〈페터 카멘친트〉의 성립 배경 및 과정과 서사 구조) (헤르만 헤세의 작품에 나타난 변증법적 사유에 관한 시론) 등 헤르만 헤세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작품에 관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유리알유희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1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 · 편집 | 이상민 김지훈

편집디자인 | 황인정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4길 10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37-2

*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